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 ACORN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Acorn」 (원서 PDF 21~27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한 나라의 경제를 만드는 것은 문화인가, 정책인가."

이 장은 도토리묵 이야기로 시작한다. 도토리는 가난할 때 먹는 음식이지만, 스페인에서는 도토리를 먹인 돼지가 저자가 꼽는 세계 최고의 햄이 된다. 그 햄은 무슬림과 싸우며 세워진 기독교 스페인의 상징이었고, 이야기는 쫓겨난 유대인을 받아들인 오스만 제국과 이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다시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통념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한때 게으르다는 말을 듣던 한국인이 시간을 지키는 노동력이 되고, 총저축률이 GDP의 1%도 안 되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가계 저축률을 기록한 까닭이 문화가 아니라 고속 성장과 정책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서론(마늘)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문화의 원재료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선택 · 정책의 문제다(25쪽 ¶1~¶2) / 한국의 저축은 근검 문화가 아니라 성장과 대출 규제의 결과다(26쪽 ¶1~¶3) / 부정적 · 긍정적 고정관념 모두 진짜 원인을 가린다(24쪽 ¶1~¶2) /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26쪽 ¶5)
4~5	**밑줄 함축 의미**	no delicacy / Unless you feed it to Ibérico pigs / a symbol of their Christian identity / with open arms /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 don't hold up to scrutiny / the ink of the scholar / no joke either / But which culture doesn't? / time is no object /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 / cultural raw material / an army of highly educated unemployeds / supposedly 'spendthrift'
6	지칭 추론	they · their가 거짓 개종자(conversos)와 종교재판관(inquisitors) 사이를 오가는 22쪽 ¶1~¶2 / it(Acorn gives it = jamón, 21쪽 ¶4) · It(became important = ham, 22쪽 첫 줄) / his gain = Beyazit II(22쪽 ¶4) / this(23쪽 ¶2 · 26쪽 첫 줄) · This is wrong(26쪽 ¶1)
7~8	내용 일치·불일치	중세 무슬림 세계의 수학 · 과학 · 법학 · 바그다드(10~11세기) · 한국과 아프리카까지의 교역 · 19세기 유럽의 판사(23쪽 ¶1) / 헌팅턴 · 1961년 93달러 vs 190달러(24쪽 ¶3) / 1391 · 1478 · 1492(22쪽) / 문해율 22 · 53 · 52 · 38%(25쪽 ¶4) / 저축률(26쪽)
9~10	**어법**	be known to have p.p. · however much + S + V · no + 명사 · 명사 + 과거분사 독립 구문 · 단독 Unless절 · is made … and is called 병렬 · judge + O + to be · 계속적 who + 과거완료 · be made to V · which some believe is · It is said that · be supposed to have p.p. · were allowed … and given · Hence + 명사구 · had + S + not p.p. 도치 · not least because · 계속적 which + 단수 동사 · 복수 주어 + were · in that · attribute A to B · 간접의문문 what + S + V · look down upon 수동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what절 주어 · despite + 의미상 주어 + having been p.p. · find + O + to be · allow + O + to V · would have p.p. + unless · so ~ that · much less + 원급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choice↔inferior · makeshift↔permanent · unyielding↔flexible · genuine↔fake · expel↔admit · tolerant↔intolerant · autonomy↔dependence · lucrative↔unprofitable · compatible↔incompatible · objectionable↔acceptable · plausible↔implausible · reluctant↔eager · plummet↔soar · spendthrift↔thrifty
12	빈칸 추론	the importance of learning(23쪽 첫 줄) / a matter of choice – and thus policy action(25쪽 ¶1) / social mobility and thus the return to education(25쪽 ¶4) / consumption could not keep pace with … income(26쪽 ¶3) / much less powerful than policies(26쪽 ¶5)
13	문장 삽입	정책이 만든 노동력과 교육열(25쪽 ¶3~¶4): 시간 엄수 노동력의 부재 → 학교 · 이념 캠페인 · 노동법 → 교육 투자의 진짜 까닭(토지 개혁) → 수백 년의 국가 이념 → 1945년 문해율 22% → 타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4	무관한 문장	도토리 음식과 하몽(21쪽 ¶1~¶4)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1961년 한국 · 가나의 1인당 소득, 24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햄과 스페인의 정체성(21쪽 ¶5 ~ 22쪽 첫 줄) → 1492년 레콩키스타 · 유대인 추방 → 오스만 제국으로 간 유대인 · 로드릭(22쪽 ¶3)
16	요약문 완성	규제를 풀자 곤두박질친 가계 저축 · 칠레 · 멕시코와의 비교(26쪽 ¶4) + 문화는 정책보다 힘이 약하다(26쪽 ¶5)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숫자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많다 – 1391(강제 개종) · 1478(종교재판소) · 1492(레콩키스타 · 유대인 추방) · 1912(비어트리스 웹) · 1915(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1945(문해율 22%) · 1961(한국 93달러 · 가나 190달러). 비율도 많다(문해율 22 · 53 · 52 · 38%, 저축률 22 · 39 · 3 · 1 · 3~5 · 5 · 10.5 · 11.4%). 22%는 두 번 나온다(1945년 문해율 · 1990년대 초 가계 저축률). 인물도 많다(바예지드 2세 · 대니 로드릭 · 무함마드 · 헌팅턴 · 비어트리스 웹 · 공자 · 레다 셰리프).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poorer ↔ richer than Ghana, higher ↔ lower taxes, Muslims first ↔ Jews first, more ↔ less advanced than Europe, rose ↔ fell). '그렇다고들 한다'(is supposed to · supposedly · It is said · some believe)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Acorn」 (21~26쪽)

논증형(도토리 음식 → 하몽과 스페인의 정체성 → 유대인 박해와 추방 → 관용의 오스만 제국 → 이슬람 고정관념 반박 → 카스트 없는 이슬람 → 부정적 · 긍정적 고정관념 → 유교 고정관념 해체 → 정책이 만든 노동력 · 교육 · 인력 · 저축 → 결론). 핵심 축은 **문화 vs 정책**, 그리고 **부정적 고정관념(이슬람) vs 긍정적 고정관념(유교)**.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1 ¶1	도입	도토리 = 썩 좋은 음식이 아님 / 아메리카 원주민(캘리포니아) · 일본인 · 더 나은 탄수화물이 없을 때 · 북부 이탈리아의 밤 가루
21 ¶2~¶3	도토리묵	묵(채소 젤리) · 양념간장 · 오이와 당근 / 별미는 아님 · 산 위 노점 · 동네 술집
21 ¶4 + 27 각주 i	하몽	이베리코(파타 네그라) 돼지 · 데 베요타 = 마지막 단계에 도토리만 / 저자가 꼽은 세계 최고의 햄 · 높은 값 / bellota ← 아랍어 balewt
21 ¶5~22 첫 줄	정체성	「하몽 하몽」 / 무슬림과 싸우며 세운 스페인 · 돼지고기 = 기독교도 정체성의 상징
22 ¶1~¶2	박해	1391년 강제 개종 · 공개적으로 돼지고기 / 1478년 종교재판소 · 마라노 · 토요일 굴뚝 · 냄새(전언)
22 ¶3	추방	1492년 1월 레콩키스타 · 무슬림 추방 → 유대인 추방 · 포르투갈 / 오스만 제국으로 · 대니 로드릭(로드리게스)
22 ¶4~¶5	관용	오스만 = 훨씬 관대 · 바예지드 2세(전언) · 가톨릭 군주의 손실 = 나의 이득 / 높은 세금 · 종교 자유 · 자치 · 모든 직업 / 불관용은 이슬람의 필연이 아님
22 ¶6~23 첫 줄	호전성 반박	근본주의자가 부추긴 시각 · 지하드의 본뜻 / 학문 강조 · 학자의 잉크 / 번역 없이는 르네상스 불가능(저자의 판단)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3 ¶1	내세 지향 반박	중세 수학 · 과학 · 법학 · 바그다드(10~11세기) · 아랍어 기원 낱말 / 한국 · 아프리카와 교역 · 상인의 높은 지위 · 계약법 · 훈련받은 판사
23 ¶2	카스트	무슬림 문화 = 카스트 없음 / 힌두 카스트 · 유교 신분제 · 농민의 아들만 과거 · 장인과 상인 / 엔지니어와 기업가의 낮은 지위
23 ¶3~24 첫 줄	결론 1	무슬림 문화에 본래 반발전적인 것은 없음 · 학문 · 과학 · 위계 없음 · 상업 · 법치 · 관용 / 말레이시아 · 두바이
24 ¶1~¶2	고정관념	무지 · 악의 → 부정적 고정관념 · 진짜 원인을 놓침 / 긍정적 고정관념도 현실을 왜곡
24 ¶3	헌팅턴	유교 = 근면 · 근검 · 교육(그렇다고들 함) · 어느 문화가 안 그런가 / 1961년 한국 93달러 · 가나 190달러 · "문화가 중요하다" = 긍정적 고정관념
24 ¶4	게으름	1915년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1912년 비어트리스 웹 ·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
24 ¶5~25 첫 줄	교육 · 규율	과거용 정치 철학과 시 · 실용적 일 천시 / 규율의 대가 = 순응주의 · 독창성 부족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중
25 ¶1~¶2	선택 · 정책	이슬람과 유교의 두 얼굴 · 문화의 여러 면 / 문화의 원재료 = 선택 → 정책 행동 · 올바른 정책은 어느 문화에서든
25 ¶3~26 첫 줄	정책의 예	시간 엄수 노동력(학교 · 캠페인 · 노동법) / 토지 개혁 → 교육 투자 · 문해율 22% / 과학 · 공학 인력 · 산업화로 일자리
26 ¶1~¶4	저축	22% · 39% · '근검 문화'는 틀림 / 1960년 1% 미만 / 고속 성장 + 대출 규제 / 규제 폐지 → 3~5% · 5% < 칠레 · 멕시코
26 ¶5	결론 2	문화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한 고정관념은 거부 · 여러 면 · 늘 변함 /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경제 성과의 열쇠	문화 – 유교의 근면 · 근검 · 교육(헌팅턴)	정책 – 올바른 경제 · 사회 정책은 어느 문화에서든 발전을 북돋움
도토리	가난할 때 먹는 음식 · 도토리묵은 별미가 아님	이베리코 돼지에게 먹이면 세계 최고의 햄(저자의 판단)
1492년 이후의 유대인	기독교 스페인 · 포르투갈 – 추방	오스만 제국 – 반겼다고 함 · 종교 자유 · 자치(세금은 더 많이)
이슬람의 이미지	불관용 · 호전적 · 내세 지향(부정적 고정관념)	관용 · 학문 · 과학 · 상업 · 법치(이것도 실재하는 얼굴)
지하드	이교도에 맞선 종교 전쟁(흔한 오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노력(본래 뜻)
신분 제도	힌두교 · 유교 – 출생에 따라 직업 제한 · 사회적 이동 제한	무슬림 문화 – 카스트 없음
고정관념의 방향	부정적 – 낯선 문화의 불편한 점만 골라 문제의 탓으로	긍정적 – 좋은 점만 부풀림(헌팅턴) · 둘 다 현실 왜곡
1961년 한국과 가나	문화가 갈랐다(헌팅턴)	한국이 더 가난했음(93달러 vs 190달러) · 저자 = 긍정적 고정관념의 예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유교와 근면	근면을 장려한다고들 함	과거 서양인들은 게으르다고 묘사(1915 · 1912)
유교의 교육 · 규율	교육열 · 규율(헌팅턴의 칭찬)	과거용 정치 철학과 시 · 순응주의라는 대가
교육열과 과학 인력	공자의 학식 강조 · 유교 문화	토지 개혁이 높인 사회적 이동 / 정원 제한 · 병역 단축 · 산업화
높은 가계 저축률	근검이라는 문화적 특성(통념)	고속 성장 + 대출 규제 → 규제를 풀자 3~5%로 추락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dotori mook	도토리(dotori)로 만든 채소 젤리(mook) · 양념간장 = 간장 · 참기름 · 양념(다진 파 · 고춧가루 · 깨) · 별미는 아님(no delicacy)
도토리를 먹은 사람들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특히 **캘리포니아**) · 일부 일본인 – '알려져 있다'(are known to) / 가난한 북부 이탈리아인 = 파스타용 밀가루에 **밤 가루**
jamón Ibérico de bellota	이베리코 = 파타 네그라(**검은 발굽**) 돼지의 다리 · 최상품 = 놓아기른 돼지가 마지막 단계에 참나무 숲에서 도토리만 · bellota = 스페인어로 도토리
27쪽 각주 i	bellota ← 참나무를 뜻하는 아랍어 **balewt** · 스페인 문화에 끼친 무슬림의 영향 · 알려 준 사람 = **Reda Cherif**
prosciutto di Parma	달콤한 멜론과 함께 저자가 좋아함 – 그래도 세계 최고는 하몽 이베리코(저자의 판단) · 높은 값 = 동의를 '시사'(suggests)
Jamón Jamón	'Ham, Ham' · **Penelope Cruz**의 데뷔작 · **Javier Bardem**도 출연
1391	성난 기독교도 군중 · 죽음의 위협 속 강제 개종 · 개종자는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함
conversos / marranos	콘베르소 = 개종한 유대인(일부는 몰래 원래 종교를 지킴) / 마라노 = 거짓 개종자 · 돼지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왔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1478	스페인 종교재판소 설립 · 토요일 굴뚝 감시 · 골목의 냄새 확인은 **전언**(It is said)
1492	**1월** 레콩키스타 완성 · 무슬림 추방 → **같은 해 나중에** 칙령으로 유대인 추방 · 포르투갈도 따름
Dani Rodrik	튀르키예의 이름난 경제학자 · 오스만 제국으로 간 유대인의 후손 · 원래 성 **Rodriguez**(로드릭이 저자에게 말함)
Beyazit II	오스만 술탄 · 유대인을 두 팔 벌려 반겼다**고 한다**(is supposed to) · "가톨릭 군주의 손실은 나의 이득"(apparently)
오스만의 유대인	세금은 **더 많이**(모든 비무슬림처럼) · 종교의 자유 · 공동체 자치 · 궁정 조언자 · 외교관 · 상인 · 제조업자 · 짐꾼 · 석공
jihad / Muhammad	jihad의 본뜻 =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노력 / 무함마드 =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성스럽다" · 그 자신이 상인
중세 무슬림 세계	수학 · 과학 · 법학에서 유럽보다 앞섬 · **바그다드**(10~11세기) · al = 아랍어 정관사 · 동쪽 **한국** · 서쪽 아프리카와 교역 · 유럽 대부분 나라는 **19세기**까지 법을 배우지 않아도 판사
caste	힌두교(남아시아) · 유교(동아시아) / 과거 = 농민의 **아들만** · 장인과 상인(노예 바로 위)의 아들은 응시 불가 · 엔지니어 = 지나치게 배운 장인, 기업가 = 오늘날의 상인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Samuel Huntington	노련한 미국 정치학자 · 『The Clash of Civilizations』 · "요컨대 문화가 중요하다" = 긍정적 고정관념의 완벽한 예(저자) / 말레이시아 · 두바이 = 이슬람이 경제 발전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예(24쪽 첫 줄)
1961 한국 vs 가나	1960년대 초 비슷한 수준 · 1961년 1인당 소득 한국 **93달러** · 가나 **190달러**(한국이 훨씬 가난)
1915 / 1912	1915년 =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공장을 둘러본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1912년 = 일본과 한국을 둘러본 **Beatrice Webb**(영국 사회학자 · 사회 개혁가 · 페이비언 사회주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 · 한국인 '1,200만'
문해율	1945년 한국 **22%** / 타이 53%(1947) · 필리핀 52%(1948) · 말레이시아 38%(1947)
1960~70년대 한국	과학 · 공학 기피 → 인문 · 사회과학 정원과 예산 제한 · 우수 과학 · 공학 졸업생 병역 단축 · 공공 정책으로 산업화
가계 저축률	한국 1990년대 초 **22%**(당시 세계 최고) · 중국 2010년 **39%** / 1990년대 말 규제 폐지 → **3~5%** · 2005~14년 평균 **5%** < 칠레 **10.5%** · 멕시코 **11.4%**
1960년대 초 총저축률	GDP의 **3%** 미만 · 1960년에는 **1%**도 안 됨 · 늘어난 까닭 = 고속 성장(주된 까닭) + 주택 담보 · 소비자 대출 제한
27쪽 각주 ii	유교 = 종교가 아닌 정치 · 사회 철학 · **Kongzi**(Kongfuzi → 라틴어화 Confucius) · 소크라테스가 태어날 무렵(기원전 5세기 초) 사망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Acorn」 (원서 PDF 21~26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1 도토리, 별미가 아닌 음식과 세계 최고의 햄 21쪽 ¶1~¶4 + 27쪽 각주 i

원문 위치 원서 21쪽 ¶1~¶4 + 27쪽 각주 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is not exactly a choice food	도입 — 도토리는 썩 좋은 음식이 아니다(choice = 고급의)
▲	¶1 둘째 문장	are known to have eaten it	be known to + 완료부정사(앞선 시점)
▲	¶1 셋째 문장	couldn't afford or locate finer sources of carbohydrate	두 동사가 목적어 하나를 함께 씀
▲	¶1 셋째 문장	just as poor northern Italians used to bulk up	just as(꼭 ~처럼) + used to 원형
★	¶2 첫 문장	by making a vegetable jelly (mook) out of them	내용 일치 — 묵 = 채소 젤리
▲	¶2 둘째 문장	the nutty and slightly bitter undertone of acorn brought out by	명사 + 과거분사 독립 구문
★	¶2 둘째 문장	soy sauce (ganjang), sesame oil and seasoning ingredients (yangnyum)	내용 일치 — 양념간장의 재료
▲	¶3 첫 문장	However much I like dotori mook, I'll admit that	however much + S + V(양보)
◆	¶3 첫 문장	it's no delicacy	밑줄 의미: 결코 별미가 아니다(no + 명사)
◆	¶4 첫 문장	Unless you feed it to Ibérico pigs.	밑줄 의미: 앞 문장의 예외 — 무대를 스페인으로
★	¶4 셋째 문장	jamón Ibérico de bellota (bellota means acorn in Spanish)	서답형 · 내용 일치 후보
▲	¶4 셋째 문장	is made with free-range pata negra pigs that only eat … and is thus called	동사 is made · is called 병렬
▲	¶4 다섯째 문장	Despite my fondness for …, I judge jamón Ibérico to be	despite + 명사 / judge + O + to be
●	¶4 여섯째 문장	unyielding on the topic of food	어휘 반전: unyielding ↔ flexibl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일곱째 문장	outside Italy, no doubt	밑줄 의미: 이탈리아 친구들을 향한 농담
★	27쪽 각주 i	the Arab word for the oak tree, balewt	내용 일치 — 스페인 문화에 끼친 무슬림의 영향

내용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썩 좋은 음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특히 캘리포니아의 원주민과 일부 일본인이 도토리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더 나은 탄수화물 공급원을 살 형편이 못 되거나 구할 수 없을 때 도토리를 먹었다. 가난한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를 만들 때 밀가루에 밤 가루를 섞어 양을 늘리곤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인은 도토리(dotori)로 채소 젤리인 묵(mook)을 만들어 아주 많이 먹는다. 저자는 도토리묵을 좋아한다. 고소하고 살짝 쌉싸름한 도토리의 맛을 양념간장의 짭짤하고 톡 쏘는 맛이 끌어내기 때문이다. 양념간장은 보통 간장과 참기름에 다진 파 · 고춧가루 · 깨 같은 양념을 넣어 만든다. 오이와 당근을 썰어 넣으면 훌륭한 샐러드 한 끼가 된다. 그러나 저자는 도토리묵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별미는 아니라고 인정한다. 힘든 오전 산행 뒤 산 위의 임시 노점에서, 또는 싸게 한잔하는 저녁에 동네 술집에서 먹는 음식이다. 도토리로 별미를 만들기는 꽤 어렵다. 이베리코 돼지, 곧 파타 네그라(검은 발굽) 돼지에게 먹인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돼지의 다리로 만든 햄이 하몽 이베리코(jamón Ibérico)다. 그 가운데 최상품은 놓아기르면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 참나무 숲에서 도토리만 먹은 파타 네그라 돼지로 만들며, 그래서 하몽 이베리코 데 베요타라고 부른다(bellota는 스페인어로 도토리). 도토리는 이 햄에 다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깊고 고소한 맛을 준다. 저자는 달콤한 멜론을 곁들인 파르마 프로슈토를 좋아하지만 하몽 이베리코를 세계 최고의 햄으로 꼽는다. 음식 이야기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이탈리아 친구들이 이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 햄이 받는 높은 값은 많은 사람이(물론 이탈리아 밖의 사람들이겠지만) 자기와 같은 생각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인다. 각주에 따르면 bellota라는 말도 참나무를 뜻하는 아랍어 balewt에서 왔으며, 이는 스페인 문화에 끼친 무슬림의 영향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저자는 이것을 레다 셰리프에게 배웠다.

어법

- **Some Native Americans, especially in California, and some Japanese are known to have eaten it** : be known to have p.p. = ~했다고 알려져 있다(완료부정사: 알려진 지금보다 먹은 일이 앞섬). 주어 = Some Native Americans와 some Japanese(복수 → are). especially in California = 삽입.
- **They ate acorn when they couldn't afford or locate finer sources of carbohydrate – just as poor northern Italians used to bulk up their wheat flour with chestnut flour for pasta** : afford와 locate가 목적어 finer sources를 함께 씀. just as = 꼭 ~처럼. used to + 원형 = 과거의 습관. bulk up A with B = B를 섞어 A의 양을 늘리다.
- **I love dotori mook, the nutty and slightly bitter undertone of acorn brought out by the salty and sharp taste of yangnyum ganjang** : 콤마 뒤 = 명사(the nutty and slightly bitter undertone of acorn) + 과거분사(brought out by ~)로 된 독립분사구문(being 생략; 주절의 주어 I와 달라 의미상 주어를 밝혀 씀). 도토리묵을 좋아하는 까닭(맛의 어울림)을 덧붙인다.
- **However much I like dotori mook, I'll admit that it's no delicacy** : however much + S + V = 아무리 ~해도(no matter how much, 양보). no + 명사 = 결코 ~이 아닌(not a보다 강한 부정).
- **It is pretty hard to come up with a delicacy based on acorn. Unless you feed it to Ibérico pigs, also known as pata negra (black hoof) pigs.** : 가주어 it + 진주어 to come up with. 둘째 문장은 앞 문장에 붙을 조건절(unless = ~하지 않는 한)을 따로 떼어 낸 문장 조각으로, 반전을 돋보이게 한다. also known as = 과거분사구 후치. feed A to B = A를 B에게 먹이다.
- **The best quality jamón Ibérico is made with free-range pata negra pigs that only eat acorns in oak forests in the last stages of their lives and is thus called jamón Ibérico de bellota** : 주어 jamón Ibérico에 동사 is made와 is called가 and로 병렬(두 번째 is의 주어도 jamón).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igs → 복수 eat). thus = 그래서.

- **Despite my fondness for prosciutto di Parma with sweet melon, I judge jamón Ibérico to be the best ham in the world** : despite + 명사(전치사; 뒤에 절이 오면 although). judge + O + to be 보어 = O를 ~라고 판단하다.
- **The high price it commands suggests that many people – outside Italy, no doubt – agree with me** : price (that) it commands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주어 price(단수) → suggests. suggest that = ~임을 시사하다(제안의 뜻이 아니므로 that절은 직설법 agre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hoice (a.)	고급의, 엄선된	select	inferior
afford	~할 형편이 되다	manage	—
locate	찾아내다	find	lose
bulk up	양을 늘리다	pad out	reduce
undertone	은은한 맛, 바탕의 기운	hint	—
bring out	끌어내다, 돋보이게 하다	enhance	mask
delicacy	별미, 진미	treat	—
makeshift	임시변통의	temporary	permanent
tavern	선술집	pub	—
come up with	생각해 내다	devise	—
free-range	놓아기른	pasture-raised	caged
fondness	좋아함	affection	dislike
unyielding	굽히지 않는	stubborn	flexible
command (v.)	(값을) 받다	fetch	—

내용 일치 도토리를 먹은 사람들 =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특히 캘리포니아)과 일부 일본인('알려져 있다') · 까닭 = 더 나은 탄수화물을 살 형편이 못 되거나 구할 수 없을 때 · 비유 = 가난한 북부 이탈리아인의 밤 가루 · 묵 = 채소 젤리 · 양념간장 = 간장 + 참기름 + 양념 · 도토리묵 = 별미가 아님(산 위 노점 · 동네 술집) · 하몽 이베리코 = 이베리코(파타 네그라) 돼지의 다리 · 데베요타 = 놓아기른 돼지가 마지막 단계에 도토리만 먹음 · 세계 최고의 햄 = 저자의 판단 · 높은 값 = 많은 사람의 동의를 '시사' · bellota의 어원 = 아랍어 balewt(27쪽 각주 i). **밑줄 의미** it's no delicacy = 저자가 좋아해도 귀한 음식은 아니라는 인정 / Unless you feed it to Ibérico pigs = 도토리로 별미를 만들기 어렵다는 앞 문장의 예외 – 무대를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옮기는 전환 / outside Italy, no doubt = 자기 나라 햄을 굽히지 않을 이탈리아 친구들을 향한 농담 / 21쪽 ¶4 it(Acorn gives it) = jamón Ibérico de bellota.

> **한 줄 요약** 도토리는 가난할 때 먹는 음식이고 한국의 도토리묵도 별미는 아니지만, 도토리를 먹인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 하몽 이베리코 데 베요타는 저자가 세계 최고로 꼽는 햄이 된다.

1-2 돼지고기와 정체성, 개종과 추방 21쪽 ¶5 ~ 22쪽 ¶3

원문 위치 원서 21쪽 ¶5 ~ 22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쪽 ¶5 첫 문장	where else could have produced a movie called 'Ham, Ham'	밑줄 의미: 수사의문문 — 스페인밖에 없다
★	21쪽 ¶5 첫 문장	Penelope Cruz's debut film, Jamón Jamón, which also features Javier Bardem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22쪽 첫 줄(21쪽 ¶5 둘째 문장)	by fighting the Muslims, who had once controlled	by -ing / 계속적 who + 과거완료
▲	22쪽 첫 줄(21쪽 ¶5 셋째 문장)	One thing that distinguished the Christians from the Muslims was eating pork	단수 주어 + 동명사 보어
◆	22쪽 첫 줄(21쪽 ¶5 셋째 문장)	pork became a symbol of their Christian identity	밑줄 의미 · 순서 배열의 고리
★	22쪽 ¶1 둘째 문장	In 1391, many Jews, threatened by angry Christian mobs, were forced to convert	숫자 — 서답형 1순위
▲	22쪽 ¶1 셋째 문장	Converted Jews were made to eat pork in public, as a demonstration that	be made to V / 동격 that
◆	22쪽 ¶1 넷째 문장	Some conversos secretly practised their original religion	지칭: their = conversos
★	22쪽 ¶2 첫 문장	When the Spanish Inquisition was established in 1478	숫자 — 서답형 후보
▲	22쪽 ¶2 첫 문장	marranos, which some believe is derived from the Arabic word meaning pig	관계대명사 + 삽입절 / 전언
▲	22쪽 ¶2 셋째 문장	the house would have no smoke coming out of the chimney	have + O + -ing
★	22쪽 ¶2 넷째 문장	It is said that the inquisitors also walked around the alleys	전언 — 단정 선지 함정
★	22쪽 ¶3 첫~셋째 문장	In January 1492 … Later in the year, a royal decree expelled the Jews	숫자 · 순서(무슬림 → 유대인)
★	22쪽 ¶3 다섯째 문장	fled to the Ottoman Empire, then the centre of the Muslim world	내용 일치 — 피신처
◆	22쪽 ¶3 여섯째 문장	the original family name, he told me, was Rodriguez	지칭: he = Dani Rodrik

내용

햄은 스페인 문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Ham, Ham'이라는 영화를 만든 나라가 스페인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페넬로페 크루스의 데뷔작으로 하비에르 바르뎀도 나오는 「하몽 하몽(Jamón Jamón)」이다. 햄이 중요해진 것은 한때 이베리아반도 대부분을 지배했던 무슬림과 싸우며 기독교도가 스페인을 세웠을 때였다. 기독교도와 무슬림을 가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를 먹느냐였고, 그래서 돼지고기는 기독교도라는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던 또 다른 사람들, 곧 유대인도 기독교 세력이 다시 일어서는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1391년 성난 기독교도 군중에게 위협받은 많은 유대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야 했다. 개종한 유대인은 개종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다. 콘베르소(개종자) 가운데 일부는 몰래 원래 종교를 지켰다. 돼지고기와 조개류를 요리하지 않고 유제품과 고기를 섞지 않았으며, 의례와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다른 많은 관습도 이어 갔다. 1478년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세워지자, 그 목표 가운데 하나는 거짓으로 개종한 유대인을 잡아내는 것이 되었다. 이들을 마라노(marranos)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돼지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흔히 쓰던 방법은 토요일에 의심 가는 집의 굴뚝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 집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계율을 지키는 유대인은 그날 요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재판관들이 토요일마다 골목을 돌며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집을 가려냈다는 말도 전한다. 1492년 1월 레콩키스타가 완성되었다. 기독교도는 무슬림을 이베리아반도에서 몰아냈다. 같은 해 나중에는 왕의 칙령이 이제 기독교 땅이 된 그곳에서 유대인을 쫓아냈고, 포르투갈도 스페인의 본을 따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쫓겨난 많은 유대인은 당시 무슬림 세계의 중심이던 오스만 제국으로 피했다. 튀르키예의 이름난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의 후손이다. 로드릭이 저자에게 말해 준 바로는, 원래 성은 전형적인 이베리아 유대인의 이름인 로드리게스였다.

어법

- **Ham is at the heart of Spanish culture – where else could have produced a movie called 'Ham, Ham'** : 대시 뒤 = 수사의문문(답: 스페인밖에 없다).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겠는가(과거의 가능성). called = 과거분사 후치 수식.
- **It became important when the Christians established Spain by fighting the Muslims, who had once controlled most of the Iberian Peninsula** : It = ham. by -ing = ~함으로써. who = 계속적 용법(the Muslims를 보충). had controlled = 과거완료(기독교도가 스페인을 세우기 전의 일).
- **One thing that distinguished the Christians from the Muslims was eating pork; thus pork became a symbol of their Christian identity** : 주어 One thing(단수) + 관계절 → was. 보어 = 동명사 eating pork. distinguish A from B = A를 B와 구별하다. 세미콜론 + thus = 그래서(결과).
- **In 1391, many Jews, threatened by angry Christian mobs, were forced to convert to Christianity on threat of death** : 주어 many Jews와 동사 were forced 사이에 과거분사구 threatened by ~가 삽입. be forced to V = 어쩔 수 없이 ~하다. on threat of = ~의 위협 아래.
- **Converted Jews were made to eat pork in public, as a demonstration that their conversion was genuine** : 사역동사 make의 수동형: 능동 make + O + 원형이 수동이 되면 be made to V(to가 살아남는다). 변형 → were made eat는 오답. demonstration that = 동격 that절.
- **catching Jewish pseudo-converts (known as marranos, which some believe is derived from the Arabic word meaning pig)** : which = is derived의 주어인 주격 관계대명사, some believe = 삽입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 전언). 변형 → which some believe it is derived는 오답. meaning pig = 현재분사 후치.
- **If the residents of the house were still observing the Jewish Sabbath, the house would have no smoke coming out of the chimney** : 과거의 조건(if + 과거진행) + would = 그렇다면 ~일 것이었다(과거에서 본 결과). have + O + -ing = O가 ~하는 상태이다. observe = (계율을) 지키다.
- **It is said that the inquisitors also walked around the alleys on Saturdays identifying houses without cooking smells** : It is said that = ~라고 한다(전언 — 사실 단정이 아님). identifying =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but (n.)	첫 작품, 데뷔	first appearance	—
establish	세우다	found	abolish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differentiate	confuse
identity	정체성	selfhood	—
resurgence	부활, 재기	revival	decline
mob (n.)	군중, 폭도	crowd	—
genuine	진짜의	sincere	fake
pseudo-convert	거짓 개종자	false convert	true believer
integral	빠질 수 없는	essential	peripheral
observe (a rule)	(계율을) 지키다	keep	violate
inquisitor	종교재판관	interrogator	—
decree (n.)	칙령	edict	—
expel	쫓아내다	banish	admit
descendant	후손	offspring	ancestor

내용 일치 'Ham, Ham' = 페넬로페 크루스의 데뷔작 「하몽 하몽」(하비에르 바르뎀 출연) · 햄이 중요해진 때 = 기독교도가 무슬림과 싸우며 스페인을 세울 때 · 무슬림 = 한때 이베리아반도 대부분 지배 · 돼지고기 = 기독교도 정체성의 상징 · 1391년 = 강제 개종 · 개종자는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함 · 1478년 = 종교재판소 설립 · marranos가 돼지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왔다 = 일부의 믿음 · 골목을 돌며 냄새를 확인 = '전해지는 말'(It is said) · 1492년 1월 = 레콩키스타 완성 → 무슬림 추방 → 같은 해 나중에 유대인 추방 → 포르투갈도 따름 · 피신처 = 오스만 제국(당시 무슬림 세계의 중심) · 대니 로드릭 = 후손, 원래 성 로드리게스(로드릭 본인이 저자에게 말함). **지칭** 22쪽 첫 줄 It(became important) = ham / their Christian identity = 기독교도의 / 22쪽 ¶1 their conversion = 개종한 유대인의 / their original religion = conversos의 / 22쪽 ¶2 its goals = 종교재판소의 / that day = 토요일(안식일) / 22쪽 ¶3 those people = 오스만 제국으로 피한 유대인 / he told me = Dani Rodrik이 저자에게.

> **한 줄 요약** 돼지고기가 기독교 스페인의 정체성이 되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은 강제 개종과 종교재판을 겪었고, 1492년 무슬림에 이어 추방되자 많은 이가 오스만 제국으로 피했다.

1-3 관용의 오스만 제국, 학문과 상업의 이슬람 22쪽 ¶4 ~ 23쪽 ¶1

원문 위치 원서 22쪽 ¶4 ~ 2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2쪽 ¶4 첫 문장	it seems strange that persecuted Jews would flee to a Muslim country	가주어 it + that절 / would
★	22쪽 ¶4 둘째 문장	far more tolerant of religious minorities, including the Jews	내용 일치 · 요지
★	22쪽 ¶4 셋째 문장	Sultan Beyazit II is supposed to have welcomed the Jews with open arms	전언 — 서답형 후보
◆	22쪽 ¶4 셋째 문장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밑줄 의미 1순위 · his = Beyazit II
★	22쪽 ¶5 첫 문장	Jews had to pay higher taxes, but they were allowed to practise	내용 일치 — 반전 후보 lower
▲	22쪽 ¶5 첫 문장	were allowed to practise … and given the autonomy to run	수동 병렬 (were) given
★	22쪽 ¶5 셋째 문장	Intolerance is not an inevitable manifestation of Islam	저자의 주장 · 요지
◆	22쪽 ¶6 첫 문장	don't hold up to scrutiny either	밑줄 의미: 따져 보면 무너진다
▲	22쪽 ¶6 셋째 문장	Hence the common misunderstanding of the term jihad … to mean	동사 없는 문장 Hence + 명사구
★	22쪽 ¶6 셋째 문장	which originally meant striving towards any worthy goal	내용 일치 — 지하드의 본뜻
★	23쪽 첫 줄(22쪽 ¶6 넷째 문장)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earning	빈칸 1순위
◆	23쪽 첫 줄(22쪽 ¶6 넷째 문장)	'the ink of the scholar is more sacred than the blood of the martyr'	밑줄 의미: 학문 > 순교
▲	23쪽 첫 줄(22쪽 ¶6 다섯째 문장)	would have been impossible had Muslims not translated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	23쪽 ¶1 셋째 문장	especially centred around Baghdad in the tenth and the eleventh centuries	숫자 — 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쪽 ¶1 다섯째 문장	not to speak of the Mediterranean world	~는 말할 것도 없고
★	23쪽 ¶1 여덟째 문장	you didn't even have to be trained in law to be a judge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내용 일치 – 숫자 바꿔치기 주의

내용

박해받던 유대인이 무슬림 나라로 피했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때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스페인이나 다른 기독교 나라들보다 유대인을 비롯한 종교적 소수자에게 훨씬 관대했다. 술탄 바예지드 2세는 유대인을 두 팔 벌려 반겼다고 하며, 가톨릭 군주의 손실이 곧 자신의 이득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오스만 제국에서 유대인은 다른 모든 비무슬림처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지만,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고 공동체를 원하는 대로 꾸려 갈 자치권도 받았다. 유대인은 궁정의 조언자와 외교관, 상인과 제조업자, 짐꾼과 석공까지 제국의 모든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불관용은 이슬람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슬람에 대한 다른 부정적 고정관념도 따져 보면 버티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이슬람을 호전적인 종교로 보고, 근본주의 무슬림이 그런 시각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본래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애쓰는 것을 뜻하던 지하드라는 말이 이교도에 맞선 종교 전쟁이라는 뜻으로 흔히 오해된다. 이슬람에는 호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학문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더 성스럽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저자는 무슬림이 고대 그리스와 라틴의 고전을 아랍어로 옮겨 보존하지 않았다면 르네상스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 글들은 뒤에 다시 유럽 언어로 옮겨졌다. 유럽의 기독교도는 기독교 이전의 그리스 · 라틴 문헌을 이교의 것이라며 내버려 두거나 일부러 없앴다. 이슬람이 과학의 진보나 경제 발전 같은 현실 문제에 관심 없는 내세 지향의 종교라는 고정관념도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경제 발전을 북돋우는 문화적 가치와 자주 맞닿아 있었다. 중세의 무슬림 세계는 수학과 과학(특히 10~11세기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그리고 법학에서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alcohol · alkali · algebra · algorithm처럼 아랍어에서 온 과학 낱말이 얼마나 많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al은 아랍어의 정관사). 상업도 크게 발달해서, 아랍 상인들은 지중해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동쪽으로는 한국,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와 교역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상인이었던 것이 큰 까닭이 되어 상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상인의 종교답게 이슬람은 계약법을 매우 중시했다. 무슬림 나라들은 기독교 나라들보다 몇 세기 앞서 훈련받은 판사를 두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19세기까지 판사가 되려고 법을 배울 필요조차 없었다.

어법

- **Today it seems strange that persecuted Jews would flee to a Muslim country, but it was then an obvious choice**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strange 같은 판단 · 감정 표현 뒤 that절의 would =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놀라움. 뒤의 it = 무슬림 나라로 피하는 일.
- **Compared to Spain and other Christian countries, the Ottoman Empire was far more tolerant of religious minorities, including the Jews** : compared to = ~와 비교하면(과거분사 구문). far = 비교급 강조. be tolerant of = ~에 관대하다. including = ~을 포함하여(전치사).
- **Sultan Beyazit II is supposed to have welcomed the Jews with open arms, apparently saying that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 be suppose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전언, 완료부정사로 앞선 과거). apparently = 듣자 하니(단정 아님). saying = 동시 동작 분사구문. his = Beyazit II.
- **Jews had to pay higher taxes, but they were allowed to practise their religion freely and given the autonomy to run their communities as they wished** : were allowed와 (were) given이 수동으로 병렬. give + IO + DO의 수동 = be given the autonomy. to run = autonomy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as they wished = 원하는 대로.

- **Intolerance is not an inevitable manifestation of Islam, contrary to what some people think** : contrary to + 명사(what절) = ~와 반대로.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저자의 주장이다.
- **Hence the common misunderstanding of the term jihad – which originally meant striving towards any worthy goal – to mean a religious war against the infidels** : Hence + 명사구 = 동사 없는 문장(그래서 ~이 생긴다). misunderstanding of A to mean B = A를 B를 뜻한다고 오해함. 대시 사이 = 계속적 which 삽입.
- **the Renaissance would have been impossible had Muslims not translated many classical Greek and Latin works into Arabic** : if를 생략한 가정법 과거완료 도치: had + S + not p.p. = if Muslims had not translated. would have been = 과거 사실의 반대. 저자의 판단이다.
- **Merchants had high social status, not least because Muhammad, the Prophet, was a merchant himself. Being a merchant's religion, Islam took contract law very seriously.** : not least because = 특히 ~ 때문에(큰 이유 가운데 하나). himself = 강조 재귀대명사. Being ~ = 이유의 분사구문(As it was a merchant's relig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ersecuted	박해받는	oppressed	favored
tolerant	관대한	open-minded	intolerant
minority	소수(자)	—	majority
autonomy	자치권	self-rule	dependence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avoidable
manifestation	드러남, 표현	expression	—
scrutiny	면밀한 검토	inspection	—
militaristic	호전적인	warlike	peaceful
fundamentalist	근본주의의	extremist	moderate
infidel	이교도	unbeliever	believer
epitomize	전형적으로 보여 주다	embody	—
heathen (a.)	이교의	pagan	—
other-worldly	내세 지향의	spiritual	worldly
attuned to	~에 맞닿은	in tune with	out of touch with

내용 일치 무슬림 나라로 피한 것 = 그때는 당연한 선택 · 오스만 제국 = 기독교 나라들보다 종교적 소수자에게 훨씬 관대 · 바예지드 2세가 반겼다 = '그랬다고 한다'(is supposed to · apparently) · 유대인 = 세금은 더 많이(모든 비무슬림처럼) / 종교의 자유 · 자치권 · 모든 직업 · 불관용은 이슬람의 필연적 모습이 아니다 = 저자의 주장 · jihad의 본뜻 =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노력 · 학자의 잉크 > 순교자의 피(무함마드) · 번역 없이는 르네상스 불가능 = 저자의 판단 · 중세 무슬림 세계 = 수학 · 과학 · 법학에서 유럽보다 앞섬 · 바그다드 = 10~11세기 · 아랍 상인 = 동쪽 한국, 서쪽 아프리카 · 무함마드 = 상인 · 유럽 = 19세기까지 법을 배우지 않아도 판사. **밑줄 의미**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 스페인이 쫓아낸 유대인이 오스만 제국에는 득이 됨(바로 뒤 ¶5: 모든 자리에서 일함) / don't hold up to scrutiny = 꼼꼼히 따지면 무너진다 / the ink of the scholar is more sacred than the blood of the martyr = 이슬람이 전쟁보다 학문을 높이 친다는 근거 / 23쪽 첫 줄 them(preserving them) = 그리스 · 라틴 고전.

> **한 줄 요약** 오스만 제국은 쫓겨난 유대인을 관대하게 받아들였고 이슬람은 학문 · 과학 · 상업 · 법을 중시해 왔으니, 불관용 · 호전성 · 내세 지향이라는 고정관념은 따져 보면 무너진다.

1-4 카스트 없는 이슬람, 고정관념의 두 얼굴 23쪽 ¶2 ~ 24쪽 ¶3

원문 위치 원서 23쪽 ¶2 ~ 24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쪽 ¶2 첫 문장	has the potential to make it more suited for economic development than	make + O + 형용사 보어 + 비교
★	23쪽 ¶2 둘째 문장	Muslim culture does not have a caste system, which restricts … and thereby limits	내용 일치 · 계속적 which + 단수 동사
◆	23쪽 ¶2 넷째 문장	was no joke either	밑줄 의미: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	23쪽 ¶2 다섯째 문장	the sons (but only sons) of farmers could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내용 일치 — 농민의 '아들만'
◆	23쪽 ¶2 여섯째 문장	But this rarely happened in practice.	지칭: this = 농민의 아들이 지배층에 드는 일
★	23쪽 ¶2 일곱째 문장	The sons of artisans and merchants (who were just above slaves) were not even allowed	내용 일치 · 어법(복수 주어 were)
▲	23쪽 ¶2 여덟째 문장	No wonder that … still had difficulties in convincing talented youngsters to become	No wonder that / convince + O + to V
★	23쪽 ¶3 첫 문장	there is nothing inherently anti-developmental about Muslim culture	요지 — 저자의 결론
★	24쪽 첫 줄(23쪽 ¶3 셋째 문장)	Malaysia and Dubai both illustrate that Islam is compatible with economic progress	예시 — 일치 후보
▲	24쪽 ¶1 첫 문장	Ignorance and, sometimes, malice, lead us to use	복수 주어 + lead + O + to V
★	24쪽 ¶1 둘째~셋째 문장	attribute whatever socio-economic problems the countries have to their culture … miss the real causes	요지 1순위 / attribute A to B
★	24쪽 ¶2	can be 'positive' … but still misrepresents reality	요지 · 요약 후보
◆	24쪽 ¶3 둘째 문장	But which culture doesn't?	밑줄 의미: 수사의문문 — 어느 문화나 강조한다
★	24쪽 ¶3 셋째 문장	in 1961, its per capita income was $93, against Ghana's $190	숫자 — 불일치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4쪽 ¶3 인용 끝	'In short, cultures count.'	밑줄 의미: 헌팅턴의 결론(저자가 반박)
★	24쪽 ¶3 마지막 문장	a perfect example of positive cultural stereotyping	요지 — 저자의 평가

내용

이슬람에는 다른 문화보다 경제 발전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남아시아의 힌두교나 동아시아의 유교와 달리 무슬림 문화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다. 카스트 제도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을 제한하고, 그래서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다. 힌두 카스트 제도의 복잡함과 경직성,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이동에 끼친 나쁜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전통 유교 사회의 신분 제도는 힌두교만큼 정교하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농민의 아들(아들만)이 과거 시험에 붙어 지배층인 학자 관료 계층에 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이동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었다. 장인과 상인(노예 바로 위의 신분)의 아들은 과거를 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 근대 초에 전통 신분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뒤에도, 유교 나라들이 재능 있는 젊은이에게 엔지니어(지나치게 많이 배운 장인으로 여겨짐)나 기업가(오늘날의 상인)가 되라고 설득하기 어려웠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직업들은 유교 나라들에서 경제 발전이 본궤도에 올라 돈과 힘이 되는 일이 되고 나서야 존중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슬림 문화에 본래부터 발전을 거스르는 것은 없다. 학문의 강조, 과학적 사고의 전통, 사회적 위계의 부재, 상업의 중시, 강한 법치주의, 관용처럼 그 많은 요소가 경제 발전에 잘 맞는다. 말레이시아와 두바이는 이슬람이 경제 발전과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무지 때문에, 때로는 악의 때문에 우리는 '낯선' 문화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씌운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정적 특징만 골라내고, 그 나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무엇이든 그 문화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러면 문제의 진짜 원인을 놓친다. 문화적 고정관념은 한 사회(대개 우리 자신의 사회)의 좋은 점을 부풀리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현실을 잘못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다. 많은 사람이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그 지역의 유교 문화 덕으로 돌려 왔다. 유교 문화는 근면 · 근검 · 교육을 강조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문화가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 노련한 미국 정치학자이자 논란 많은 책『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은, 1960년대 초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했던 한국과 가나(실제로는 한국이 훨씬 가난해서 1961년 1인당 소득이 한국 93달러, 가나 190달러였다)가 왜 다른 길을 걸었는지 설명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분명 많은 요인이 작용했지만… 문화가 설명의 큰 부분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은 근검 · 투자 · 근면 · 교육 · 조직 · 규율을 중시했다. 가나인은 다른 가치를 지녔다. 요컨대 문화가 중요하다.' 저자는 헌팅턴의 유교 문화 묘사가 긍정적 고정관념의 완벽한 예라고 본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싶은 문화의 모습에 들어맞는 요소만 골라낸다는 것이다.

어법

- **Islam possesses another significant characteristic that has the potential to make it more suited for economic development than other cultures**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characteristic → 단수 has). make + O(it = Islam) + 형용사 보어(more suited for). the potential to V = ~할 가능성.
- **Muslim culture does not have a caste system, which restricts people's choice of occupation according to their birth and thereby limits social mobility** : 계속적 which = a caste system(단수 → restricts와 limits가 병렬). thereby = 그렇게 함으로써.
- **The complexity and the rigidity of the Hindu caste system and its negative impacts on social mobility are well known** : 주어가 A and B(of ~) and C로 묶인 복수 → are.
- **Although not as elaborate or as strong, the caste system in traditional Confucian societies was no joke either** : although (it was) not as ~ = 접속사 뒤 주어 + be동사 생략. no joke =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 either = 부정문에서 '~도 역시'.

- **There was some degree of social mobility in that the sons (but only sons) of farmers could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get incorporated into the ruling caste of scholar-bureaucrats** : in that = ~라는 점에서. could 하나에 pass와 get이 병렬. get + p.p. = 수동(get incorporated = 편입되다).
- **The sons of artisans and merchants (who were just above slaves) were not even allowed to sit for the civil service exam** : 주어 The sons(복수) → were. 변형 → was는 오답. be allowed to V = ~해도 되다. sit for = (시험을) 치르다.
- **No wonder that in early modern times, even when the traditional caste system had been formally abolished, Confucian countries still had difficulties in convincing talented youngsters to become engineers** : (It is) No wonder that = ~은 놀랄 일이 아니다. had been abolished = 과거완료 수동. have difficulties (in) -ing =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convince + O + to V.
- **We pick only those negative features of a culture that unsettle us and attribute whatever socio-economic problems the countries have to their culture** : that unsettle = 선행사 features(복수)에 맞춘 동사. pick과 attribute가 병렬. attribute A to B = A를 B 탓으로 돌리다. whatever + 명사 + S + V = 어떤 …이든.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aste	카스트, 세습 신분	hereditary class	—
restrict	제한하다	limit	allow
rigidity	경직성	inflexibility	flexibility
elaborate (a.)	정교한	complex	simple
artisan	장인	craftsman	—
abolish	없애다	do away with	establish
lucrative	돈벌이가 되는	profitable	unprofitable
inherently	본래, 본질적으로	intrinsically	—
compatible with	~와 함께 갈 수 있는	consistent with	incompatible with
malice	악의	ill will	goodwill
unsettle	불안하게 하다	disturb	reassure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ascribe A to B	—
misrepresent	잘못 전하다	distort	—
divergence	갈라짐, 차이	split	convergence

내용 일치 카스트 제도가 없는 문화 = 무슬림(힌두교 남아시아 · 유교 동아시아와 대비) · 카스트 = 출생에 따른 직업 제한 → 사회적 이동 제한 · 유교 신분 제도 = 힌두보다 덜 정교하고 덜 강하지만 만만치 않음 · 과거 = 농민의 '아들만', 실제로는 드묾 · 장인 · 상인의 아들 = 응시조차 못 함 · 엔지니어 = 지나치게 배운 장인 / 기업가 = 오늘날의 상인 · 존중받게 된 때 = 경제 발전으로 돈과 힘이 된 뒤 · 무슬림 문화에 본래 반발전적인 것은 없다(저자의 결론) · 예 = 말레이시아 · 두바이 · 유교가 근면 · 근검 · 교육을 강조 = '그렇다고들 한다'(supposedly) · 1960년대 초 비슷한 수준 · 1961년 1인당 소득 한국 93달러 < 가나 190달러 · 헌팅턴 = 미국 정치학자,『문명의 충돌』. **밑줄 의미** no joke either = 힌두 카스트만큼은 아니어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But which culture doesn't? = 근면 · 근검 ·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 문화는 없다 → 유교만의 특징이 아니다 / In short, cultures count = 헌팅턴의 결론(저자가 반박하는 쪽) / 23쪽 ¶2 this(rarely happened) = 농민의 아들이 과거에 붙어 지배층에 드는 일.

한 줄 요약 카스트가 없고 학문 · 상업 · 법을 중시하는 무슬림 문화에 본래 반발전적인 것은 없으며, 부정적이든 헌팅턴처럼 긍정적이든 문화적 고정관념은 경제 성과의 진짜 원인을 가린다.

1-5 게으르다던 동아시아, 여러 얼굴의 문화 24쪽 ¶4 ~ 25쪽 ¶2

원문 위치 원서 24쪽 ¶4 ~ 25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4쪽 ¶4 첫~둘째 문장	Confucianism is supposed to encourage hard work. Yet … described as lazy	전언 + 반전 — 요지
★	24쪽 ¶4 셋째 문장	An Australian engineer who toured factories in Japan in 1915, at the request of the Japanese government	숫자 · 인물 — 일치 후보
◆	24쪽 ¶4 셋째 문장	a very satisfied easy-going race who reckon time is no object	밑줄 의미: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	24쪽 ¶4 넷째 문장	they informed me that it was impossible to change	inform + O + that / 가주어 it
★	24쪽 ¶4 다섯째 문장	In 1912, when she toured Japan and Korea, Beatrice Webb	서답형 1순위
●	24쪽 ¶4 다섯째 문장	'objectionable notions of leisure and a quite intolerable personal independence'	어휘 반전: objectionable ↔ admirable
◆	24쪽 ¶4 여섯째 문장	That's coming from a founder of Fabian socialism.	지칭: That = 웹의 묘사
▲	24쪽 ¶4 일곱째 문장	We might imagine what typical rightwing white supremacists of the time said	간접의문문 what + S + V
▲	24쪽 ¶5 첫 문장	the education that was traditionally emphasized was what was needed for	주어 + 관계절 / what절 보어
★	24쪽 ¶5 셋째 문장	Practical pursuits other than agriculture … were looked down upon	내용 일치 · 구동사 수동
◆	25쪽 첫 줄(24쪽 ¶5 다섯째 문장)	that discipline is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	밑줄 의미 1순위
▲	25쪽 첫 줄(24쪽 ¶5 여섯째 문장)	this asser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less plausible, given	진행형 + increasingly less / given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5쪽 ¶1 둘째 문장	In the same way in which Islam could be typecast in entirely positive light	전치사 + 관계대명사
★	25쪽 ¶1 넷째 문장	is as real as the other-worldly, intolerant and militaristic version	요약 · 일치 — as ~ as 동등
★	25쪽 ¶1 여섯째 문장	What a society makes out of its cultural raw material is in large part a matter of choice – and thus policy action	주장 · 빈칸 1순위
★	25쪽 ¶2	can promote development, equal opportunities and other positive things in any cultural context	주장 — 정책은 어느 문화에서든

내용

유교는 근면을 장려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과거 서양 방문객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을 흔히 게으르다고 묘사했다. 1915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해 조언하려고 일본의 공장들을 둘러본 한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 당신들은 시간을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만족해하며 느긋한 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몇 관리자와 이야기해 보니 국민적 유산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1912년 일본과 한국을 둘러본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 개혁가 비어트리스 웹은 일본인에게 '여가에 대한 못마땅한 관념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개인적 독립심'이 있다고 했고, 저자의 조상들은 '더럽고 타락하고 뚱하고 게으르며 종교도 없는 1,200만 야만인'이라고 묘사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말이다. 그 시대의 전형적인 우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교 나라 사람들을 두고 무슨 말을 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이름난 유교의 교육열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강조된 교육은 과거 시험에 필요한 정치 철학과 시였다. 이것들은 경제 발전에 직접 쓸모가 있지는 않다. 농업이 아닌 실용적인 일, 곧 물건을 만들고 장사하는 일은 업신여겨졌다. 헌팅턴 같은 논평가들은 유교 문화가 사람들에게 심어 주는 규율을 칭찬한다(비어트리스 웹은 일본과 한국에서 규율 없음만 보았지만). 그러나 그 규율은 순응주의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순응하라는 압력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이 모자란다고 주장한 논평가들도 있지만, 오늘날 동아시아가 내놓는 기술 혁신과 독창적인 영화, 중독성 있는 드라마, 창의적인 음악을 생각하면 그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저자는 헌팅턴식의 긍정적 고정관념을 더 해체할 수도 있지만 요점은 이미 전해졌다고 말한다. 이슬람을 온통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듯이, 유교도 온통 부정적으로 그릴 수 있다. 문화에는 서로 다르고 복잡한 여러 면이 있다. 관대하고 규칙을 따르며 과학을 지향하고 상업 감각이 있는 이슬람은 내세 지향적이고 불관용적이며 호전적인 이슬람만큼이나 실재한다. 근면하고 배움을 중시하며 검소하고 규율 있는 유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근면의 문화를 심는 데 무력하고 사회적 이동을 막으며 상공업을 업신여기고 창의성을 억누르는 유교도 있다. 한 사회가 문화라는 원재료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는 상당 부분 선택의 문제이고, 그러므로 정책 행동의 문제다. 올바른 경제 · 사회 정책은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든 발전과 평등한 기회, 그 밖의 긍정적인 것들을 북돋울 수 있다.

어법

- Yet in the past East Asians were typically described as lazy by Western visitors : describe A as B의 수동 = be described as + 형용사(+ by 행위자). Yet = 그러나(앞 문장 is supposed to ~와 대조).
- 'to see your men at work made me feel that you are a very satisfied easy-going race who reckon time is no object.' : to부정사 주어(to see ~)는 단수 취급(동사 made는 과거형이라 수가 드러나지 않음). 사역 make + O + 원형(feel). race who reckon = 집합명사를 사람들로 보아 복수 동사. reckon (that) time is no object = 시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기다.

- **We might imagine what typical rightwing white supremacists of the time said about people in Confucian countries** : 간접의문문 what + S + V(평서문 어순). 변형 → what did ~ say는 오답. might = 조심스러운 추측 · 제안.
- **the education that was traditionally emphasized was what was needed for the civil service exam – political philosophy and poetry** : 주어 the education + 관계절, 동사 was, 보어 what절(필요했던 것). 대시 뒤 = 그 내용을 밝히는 동격.
- **Practical pursuits other than agriculture, such as making things and trading, were looked down upon** : 구동사 look down upon의 수동: 전치사 upon이 동사 뒤에 그대로 남는다. 복수 주어 pursuits → were. other than = ~ 이외의.
- **this asser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less plausible, given the amou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riginal movies, addictive drama series and creative music that the East Asians produce these days** : 현재진행 = 지금 점점 변하는 중. increasingly less = 점점 덜. given = ~을 고려하면.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produce의 목적어).
- **In the same way in which Islam could be typecast in entirely positive light, Confucianism can be presented in entirely negative light** : 전치사 + 관계대명사(in which가 the way를 꾸밈). could/can be p.p. = 그렇게 그려질 수 있다(가능성). typecast = 틀에 박힌 역으로 굳히다.
- **What a society makes out of its cultural raw material is in large part a matter of choice – and thus policy action** : what절 주어(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 단수 is. make A out of B = B로 A를 만들다. in large part = 상당 부분. thus = 그러므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azy	게으른	idle	industrious
easy-going	느긋한	relaxed	uptight
heritage	유산	legacy	—
objectionable	못마땅한	offensive	acceptable
intolerable	참을 수 없는	unbearable	bearable
sullen	뚱한, 시무룩한	sulky	cheerful
zeal	열의	enthusiasm	apathy
look down upon	업신여기다	despise	look up to
instil	심어 주다	implant	—
conformism	순응주의	conformity	nonconformity
plausible	그럴듯한	believable	implausible
facet	면, 측면	aspect	—
typecast (v.)	틀에 박힌 역으로 굳히다	stereotype	—
ineffectual	무력한	ineffective	effective

내용 일치 유교가 근면을 장려한다 = '그렇다고들 한다'(is supposed to) · 과거 서양 방문객 = 동아시아인을 게으르다고 묘사 ·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1915년, 일본 정부의 요청, 생산성 조언 · 비어트리스 웹 = 1912년 일본과 한국, 영국 사회학자 · 사회개혁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 · 웹이 못마땅해한 것 = 일본인의 여가 관념과 개인적 독립심 · 한국인 묘사 = 1,200만, 더럽고 게으른 야만인 · 전통 교육 = 과거 시험용 정치 철학과 시(경제 발전에 직접 쓸모 없음) · 업신여긴 일 = 농업 이외의 실용적 일(만들기 · 장사) · 규율의 대가 = 순응주의 · 독창성 부족이라는 주장 = 점점 설득력이 떨어짐 · 문화의 원재료로

무엇을 만드느냐 = 선택 → 정책 행동. **밑줄 의미** reckon time is no object = 시간을 아끼거나 지키려 하지 않는다(게으르다는 평가) / That's coming from a founder of Fabian socialism = 사회 개혁가조차 이렇게 말했으니 다른 이들은 더했을 것 /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 = 규율의 대가로 순응을 치름 / cultural raw material = 사회가 가공하기 나름인 문화의 재료.

> **한 줄 요약** 유교는 근면 · 교육 · 규율의 문화라지만 한때는 게으르다는 말을 들었고 그 교육과 규율에도 그늘이 있었으니, 문화의 여러 면 가운데 무엇을 살리느냐는 선택과 정책의 문제다.

1-6 정책이 만든 노동력 · 교육열 · 저축률 25쪽 ¶3 ~ 26쪽 ¶5 + 27쪽 각주 ii

원문 위치 원서 25쪽 ¶3 ~ 26쪽 ¶5 + 27쪽 각주 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5쪽 ¶3 첫 문장	lacked a modern industrial workforce with the habit of time-keeping and industrial discipline	내용 일치 · 통합 사고
▲	25쪽 ¶3 둘째 문장	was forged by concrete actions – the instillation of …, an ideological campaign …, and having a labour law	수동 + 대시 뒤 셋 병렬
★	25쪽 ¶4 첫 문장	not because Confucius emphasized erudition but because land reform and other policies … increased social mobility	not because A but because B — 빈칸
▲	25쪽 ¶4 둘째 문장	Despite Confucianism having been … and despite having been colonized	despite + 의미상 주어 + 완료 동명사
★	25쪽 ¶4 둘째 문장	the literacy rate in South Korea was only 22% when the Japanese colonizers left in 1945	숫자 — 서답형 1순위
★	25쪽 ¶4 셋째 문장	53% in Buddhist Thailand (1947), 52% in Christian Philippines (1948) and 38% in predominantly Muslim Malaysia (1947)	숫자 바꿔치기 주의
▲	25쪽 ¶5 첫 문장	Korea found the youngsters to be reluctant to take up	find + O + to be / because of
★	25쪽 ¶5 둘째 문장	allowed the best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to have vastly shortened (mandatory) military service	내용 일치 · allow + O + to V
▲	26쪽 첫 줄(25쪽 ¶5 셋째 문장)	would have resulted in … unless there were suitable jobs for them, as has happened	would have p.p. + unless / 유사관계대명사 a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6쪽 첫 줄(25쪽 ¶5 셋째 문장)	an army of highly educated unemployeds	밑줄 의미: 일자리 없는 고학력자 무리
★	26쪽 ¶1 첫 문장	22% of GDP in the early 1990s and in China it reached 39% of GDP in 2010	숫자 — 22%가 두 번 나옴
◆	26쪽 ¶1 둘째 문장	This is wrong.	지칭: This = 근검이 문화적 특성이라는 말
★	26쪽 ¶2 첫 문장	below 3% of GDP – in 1960, it was not even 1%	숫자 — 불일치 후보
★	26쪽 ¶3 셋째~넷째 문장	consumption could not keep pace with ... income. On top of that, the government severely restricted mortgage loans and consumer loans	요지 · 빈칸 — 이유 둘(주된 것 + 덧붙인 것)
★	26쪽 ¶4	plummeted ... (3–5%) ... a mere 5%, ... Chile (10.5%) or Mexico (11.4%)	숫자 · 요약 후보
★	26쪽 ¶5 셋째 문장	culture is much less powerful than policies in determining	주장 · 통합 사고

내용

일본과 한국에는 시간을 지키는 습관과 산업 규율을 갖춘 현대적 산업 노동력이 없었다. 이 노동력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시간을 지키는 습관과 규율을 심었고, 경제 발전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애국 전쟁'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념 캠페인을 벌였으며, 긴 노동 시간과 가혹한 노동 관행을 허용하는 노동법을 두었다. 유교 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많이 투자한 것도 공자가 학식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도입된 토지 개혁과 다른 정책들이 사회적 이동을 높여 교육의 보상을 키웠기 때문이다. 유교가 수백 년 동안 국가의 공식 이념이었고 또 다른 유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도, 1945년 일본 식민 지배자들이 떠날 때 한국의 문해율은 22%에 지나지 않았다. 비슷한 때 불교 나라 타이는 53%(1947년), 기독교 나라 필리핀은 52%(1948년),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는 38%(1947년)였다. 1960~70년대 경제 발전을 막 밀어붙이던 시기에, 한국은 실용적인 일을 낮잡아 보는 유교의 오랜 편견 때문에 젊은이들이 과학과 공학 같은 직업을 꺼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인문 · 사회과학 학과의 대학 정원과 예산을 일부러 제한하고, 가장 뛰어난 과학 · 공학 졸업생에게는 (의무) 병역 기간을 크게 줄여 주었다. 물론 알맞은 일자리가 없었다면 과학 · 공학 졸업생을 더 길러 낸들 고학력 실업자 군대만 생겼을 것이다(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를 막으려고 한국 정부는 공공 정책 개입으로 산업화를 밀고 나갔고, 그렇게 해서 이 졸업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보수 좋고 지적으로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유교 나라들의 가계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는 것(한국은 1990년대 초 GDP의 22%, 중국은 2010년 GDP의 39%)을 보고 사람들은 근검이 이 나라들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말해 왔다. 저자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1960년대 초, (가계만이 아닌) 총저축률은 GDP의 3%에 못 미쳤고 1960년에는 1%도 되지 않았다. 유교 문화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저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뒤 30년 동안 한국의 저축, 특히 가계 저축은 크게 늘었다. 유교 문화가 되살아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농업 사회에 맞는 이념인 유교 문화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그 기간 내내 약해지고 있었다. 가계 저축이 늘어난 주된 까닭은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해 사람들의 소비 증가가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생산자에게 돌아갈 대출을 최대로 늘리려고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국인은 집 · 자동차 · 냉장고 같은 큰 물건을 사려면 먼저 저축해야 했다. 1990년대 말 이 제한이 없어지자 가계 저축률은 몇 년 사이에 1990년대 초의 정점인 GDP의 22%(당시 세계 최고)에서 세계 최저 수준(3~5%)으로

곤두박질쳤다. 지금(2005~14년 평균) 한국의 GDP 대비 가계 저축률은 5%에 지나지 않아, 흥청망청 쓴다고들 하는 칠레(10.5%)나 멕시코(11.4%) 같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절반도 안 된다. 문화가 사람들의 가치와 행동, 나아가 한 나라 경제가 짜이고 발전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그 방식은 흔히 보는 단순한 고정관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모든 문화에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여러 면이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경제 행동과 나라의 경제 성과를 정하는 데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도토리를 먹는 한국인이든, 도토리를 먹은 돼지를 먹지 않을 무슬림이든 마찬가지다.

어법

- **This workforce was forged by concrete actions – the instillation of time-keeping habits and discipline in schools, an ideological campaign emphasizing the need for hard work ..., and having a labour law allowing long hours and harsh work practices** : 수동태 be forged by. 대시 뒤 = concrete actions를 풀어 쓴 셋(명사구 · 명사구 · 동명사구) 병렬. emphasizing · allowing = 앞 명사를 꾸미는 현재분사.
- **People made high investments in education in the Confucian countries not because Confucius emphasized erudition but because land reform and other policies introduc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creased social mobility and thus the return to education** : not because A but because B. introduced = 과거분사 후치(policies를 꾸밈). increased의 목적어 = social mobility와 the return to education 둘.
- **Despite Confucianism having been the official state ideology for several hundred years and despite having been colonized by another Confucian country, the literacy rate in South Korea was only 22%** : despite + 동명사(전치사 뒤). Confucianism = 첫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having been (p.p.) = 완료 동명사(주절보다 앞선 일). 두 번째 having been colonized의 의미상 주체는 주절의 the literacy rate가 아니라 한국이다.
- **Korea found the youngsters to be reluctant to take up professions like science and engineering because of the old Confucian cultural prejudices against practical pursuits** : find + O + to be 보어 = O가 ~라는 것을 알게 되다. be reluctant to V = ~하기를 꺼리다. because of + 명사구(뒤에 절이 오면 because).
- **producing more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would have resulted in an army of highly educated unemployeds unless there were suitable jobs for them, as has happened in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 동명사 주어 + would have resulted in = (그랬다면) ~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unless = if not. as has happened = 앞 내용 전체를 받아 주어 노릇을 하는 유사관계대명사 as.
- **Household savings rose mainly because the country grew so fast that the increase in people's consumption could not keep pace with the increase in their income** :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keep pace with = ~와 보조를 맞추다. mainly = 주된 이유(뒤의 On top of that = 그에 더해 둘째 이유).
- **When the country abolished these restrictions in the late 1990s, within a few years its household savings plummeted from the height of 22% of GDP in the early 1990s (the highest in the world then) to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3–5%)** : from A to B = A에서 B로.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savings ratios 같은 '저축률' 명사 생략) = 가장 ~한 것 가운데 하나. these restrictions =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대출의 제한.
- **Most importantly, culture is much less powerful than policies in determining individual economic behaviour and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whether they are of acorn-eating Koreans or of Muslims who wouldn't eat acorn-eating pigs** : much = 비교급 강조(less powerful). whether A or B = A든 B든. they = 경제 행동과 성과. acorn-eating = 명사 + 현재분사의 복합 형용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orge (v.)	만들어 내다	build	—
harsh	가혹한	severe	mild
erudition	학식	scholarship	ignoranc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iteracy	문해력	reading ability	illiteracy
reluctant	꺼리는	unwilling	eager
mandatory	의무의	compulsory	voluntary
fulfilling	보람 있는	rewarding	unrewarding
thrift	근검	frugality	extravagance
agrarian	농업의	agricultural	industrial
keep pace with	~와 보조를 맞추다	keep up with	fall behind
plummet	곤두박질치다	plunge	soar
spendthrift (a.)	낭비하는	extravagant	thrifty

내용 일치 일본 · 한국 = 시간 엄수 · 산업 규율을 갖춘 노동력이 없었음 → 학교 · 이념 캠페인 · 노동법으로 만들어짐 · 교육 투자의 까닭 = 공자의 학식 강조가 아니라 전후 토지 개혁 등으로 커진 사회적 이동 · 1945년 한국 문해율 22% / 타이 53%(1947) · 필리핀 52%(1948) · 말레이시아 38%(1947) · 1960~70년대 = 과학 · 공학 기피 → 인문 · 사회과학 정원 · 예산 제한, 병역 단축 · 공공 정책 개입으로 산업화 → 일자리 · 가계 저축 = 한국 1990년대 초 GDP의 22%, 중국 2010년 39% · 1960년대 초 총저축률 3% 미만, 1960년 1% 미만 · 저축 증가의 까닭 = 고속 성장(주된 까닭) + 대출 규제 · 규제 폐지 → 3~5% · 2005~14년 평균 5% < 칠레 · 멕시코 · 유교 = 정치 · 사회 철학(27쪽 각주 ii). **밑줄 의미** an army of highly educated unemployeds = 일자리 없이 쏟아져 나온 고학력 실업자 무리 / This is wrong = 근검이 문화적 특성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부정 / supposedly 'spendthrift' = 흥청망청 쓴다고들 하는(저자는 그 통념을 비꼼) / 26쪽 첫 줄 this(to avoid this) = 고학력 실업자 군대가 생기는 일 / 26쪽 ¶5 they = 개인의 경제 행동과 나라의 경제 성과.

> **한 줄 요약** 시간을 지키는 노동력, 교육열, 과학 · 공학 인력, 높은 저축률은 모두 유교 문화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었으니,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 ACORN]

범위	Acorn (원서 PDF 21~27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 could pick apart the political scientist Samuel Huntington's flattering portrait of Confucianism further, but the point is clear. Just as Islam can be cast in a wholly favourable light, Confucianism can be drawn in a wholly unfavourable one. Every culture has many complicated sides. A tolerant, science-minded and trade-loving Islam is just as real as an otherworldly, warlike one. Confucianism, too, has a diligent and frugal face, and another that blocks social mobility, scorns business and stifles creativity. What a society builds from its cultural materials depends largely on choice, and therefore on policy.

① Policy shapes what a society makes of its culture.
② Confucian cultures develop faster than Muslim ones.
③ Culture fixes a nation's economic fate.
④ Traditional values must be protected.
⑤ Positive views of a culture are the most accurat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ecause Confucian countries post some of the world's highest household savings ratios—Korea's reached 22% of its GDP during the early 1990s, and China's stood at 39% of its GDP in 2010—many people regard thrift as part of their culture. They are mistaken. In 1960, Korea's gross savings did not even reach 1% of GDP. Over the next thirty years savings soared, even as Confucian values faded with industrialization. Incomes rose faster than spending could catch up, and the government sharply limited home and consumer loans to steer credit to producers.

① Confucian Thrift Behind Korea's Savings
② Growth and Policy, Not Culture, Raised Savings
③ Industrialization Revived Confucian Values
④ Easy Credit Fuelled Korea's Savings
⑤ Why Poor Nations Save Mor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gnorance, and sometimes ill will, leads us to judge unfamiliar cultures through negative stereotypes. We seize on the features that disturb us and blame those cultures for whatever social and economic troubles their countries face. In doing so, we fail to see the true causes of those troubles. Stereotypes can also flatter, exaggerating the virtues of a society, most often the one we belong to. But a flattering picture distorts reality just as badly as an unflattering one, and it blinds us to the forces actually at work in an economy.

① Positive stereotypes do no harm.
② A country's problems come from its culture.
③ We should praise our own culture most.
④ Ignorance of other cultures cannot be cured.
⑤ Stereotypes of any kind hide the real causes.

4. 밑줄 친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t may seem odd now that persecuted Jews would seek safety in a Muslim land, but then it made perfect sense. The Ottoman Empire treated religious minorities, Jews among them, far more tolerantly than any Christian country did. Sultan Beyazit II is said to have welcomed the refugees warmly, reportedly remarking that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In his empire, Jews paid higher taxes like all non-Muslims, but they could worship freely, run their own communities, and serve in every role from court adviser and diplomat to merchant and mason.

① Spain's king would regret losing a war.
② Spain's exiles would enrich his empire.
③ He hoped to seize Spanish land.
④ Taking in Jews would cost him taxes.
⑤ The Jews would have to drop their faith.

5. 밑줄 친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much-praised Confucian love of learning centred on what the civil service exam required—political philosophy and poetry—neither of which does much for economic development. Practical work other than farming, such as manufacturing and trade, was scorned. Writers like Huntington applaud the discipline they credit to Confucian culture, though Beatrice Webb saw only indiscipline in Japan and Korea. Yet this kind of discipline is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 Some critics even claim that the pressure to conform leaves East Asians short of originality, a claim that looks weaker every year given the technology, films, dramas and music the region now produces.

① Discipline breeds creativity.
② Discipline was costly to teach.
③ Discipline demands that people think and act alike.
④ Discipline came from the West.
⑤ Only Huntington values disciplin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In 1391, Christian mobs forced many Jews to convert or die, and the converts had to eat pork publicly to prove their sincerity. Some of them, however, never let go of ① their original faith. At home ② they cooked neither pork nor shellfish, and ③ they kept dairy and meat apart. Once the Spanish Inquisition was founded in 1478, exposing these false converts became one of its goals. A favourite method was to check the chimneys of suspected converts on Saturday: if ④ they were still observing the Sabbath, no smoke would appear, as devout Jews did not cook that day. The inquisitors, it is said, also walked the alleys on Saturdays, and ⑤ they took note of every house that gave off no smell of cooking.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slam is also pictured as an otherworldly faith indifferent to science and growth. In fact, Islam has often been in tune with values that support development. In medieval times, Muslim societies were well ahead of Europe in mathematics, science and law, with Baghdad a leading centre in the tenth and eleventh centuries. Trade flourished too: Arab merchants dealt with Korea to the east and with Africa to the west. Merchants enjoyed high status, partly because the Prophet Muhammad had been one, and contracts were taken very seriously. Judges in Muslim lands were trained centuries earlier than in Christian ones; in most of Europe, a judge needed no legal training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① 중세 무슬림 세계는 법학에서 유럽에 뒤졌다.
② 바그다드는 8~9세기에 과학의 중심지였다.
③ 무함마드는 상인을 낮게 여겼다.
④ 유럽 대부분에서는 18세기부터 판사가 법을 배워야 했다.
⑤ 아랍 상인들은 동쪽의 한국, 서쪽의 아프리카와 교역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Many observers credit East Asia's 'economic miracle' to Confucian culture, which supposedly prizes diligence, frugality and schooling. But which culture does no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Samuel Huntington uses culture to explain why South Korea and Ghana diverged. In the early 1960s the two stood at similar stages of development; in 1961 Korea was actually poorer, with a per capita income of $93 compared with Ghana's $190. Huntington admits that many factors mattered, yet insists that culture explains a great deal: Koreans, he says, prized saving, investing, diligence, education, organisation and discipline, whereas Ghanaians held other values. For the author, this is positive stereotyping—choosing only the traits that fit a flattering image.

① 유교 문화는 근면 · 근검 · 교육을 중시한다고들 한다.
② 1960년대 초 한국과 가나의 경제 발전 수준은 비슷했다.
③ 1961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가나보다 높았다.
④ 헌팅턴은 한국과 가나의 차이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⑤ 필자는 헌팅턴의 설명을 긍정적 고정관념의 예로 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Islam may also suit development better than other traditions. Unlike Hinduism or Confucianism, it has no caste system, ① which limits people's choice of work according to birth and thus reduces social mobility. The Hindu system is notoriously rigid, and the Confucian version, though less elaborate, was no joke either. Farmers' sons could pass the state exam and ② join the ruling class of scholar-officials, but this ③ rarely happened. Sons of craftsmen and traders, who ranked just above slaves, ④ was not even permitted to take the exam. Small wonder that even after the old order ended, Confucian countries struggled to persuade gifted youths to become engineers or businessmen, jobs respected only once development ⑤ made them well paid and influential.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the 1960s and 1970s, when Korea's development drive was just beginning, young people were unwilling to enter fields like science and engineering, (A) [because / because of] the old Confucian prejudice against practical work. The government responded by deliberately cutting places and funding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it let the top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B) [serve / to serve] far shorter terms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Of course, more such graduates would have meant an army of jobless experts if no suitable work had existed, as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discovered. To prevent this, the government pushed industrialization through public policy, (C) [creating / created] well-paid, intellectually rewarding jobs that the new graduates could take.

	(A)	(B)	(C)
①	because	serve	created
②	because of	serve	creating
③	because of	to serve	creating
④	because	to serve	creating
⑤	because of	serve	creat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Confucianism is said to promote diligence, yet Western visitors used to ① describe East Asians as lazy. In 1915 an Australian engineer invited by Japan's government to advise on productivity remarked that Japanese workers seemed ② contented and easy-going, treating time as no object; managers told him such national habits could not be ③ changed. Touring Japan and Korea in 1912, the English sociologist Beatrice Webb complained that the Japanese had an ④ admirable attitude toward leisure, and she called Koreans dirty and lazy savages. Such words came from one of the founders of Fabian socialism, so we can only ⑤ imagine what open white supremacists of that era said about Confucian peopl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ther negative images of Islam also fall apart when examined closely. Many regard it as a warlike faith, a view that fundamentalists have done much to spread. This is why the word jihad, which first meant striving toward any worthy goal, is so often misread as a holy war against unbelievers. Islam does contain a strand that can be read in a militaristic way, but it equally stresses the value of _____, as a saying of the Prophet Muhammad shows: a scholar's ink is holier than a martyr's blood. In fact, the author argues, the Renaissance could not have happened if Muslims had not translated ancient Greek and Latin texts into Arabic and so preserved them, for European Christians had neglected or destroyed those writings as heathen.

① learning
② military discipline
③ commerce
④ religious ritual
⑤ obedience to ruler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Despite that long tradition, and even though it had been colonized by a fellow Confucian country, South Korea's literacy rate was just 22% when the Japanese departed in 1945.

Japan and Korea did not originally have factory workers used to punctuality and industrial discipline. (①) Such workers were produced by deliberate measures: schools taught timekeeping and discipline, a campaign urged hard work in a so-called 'patriotic war' of national rebuilding, and labour laws permitted long hours and harsh conditions. (②) Likewise, people in Confucian countries invested heavily in education not because Confucius prized scholarship, but because post-war policies such as land reform made society more mobile and so made schooling pay. (③) Consider that Confucianism had been Korea's state ideology for centuries. (④) Around the same period, literacy stood at 53% in Buddhist Thailand, 52% in the Christian Philippines and 38% in mostly Muslim Malaysia.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corns, the nuts of oak trees, are hardly a prized food. ① It is known that some Native Americans, notably in California, and some people in Japan ate them when better sources of carbohydrate were unaffordable or unavailable. ② Koreans, by contrast, eat a great many acorns in the form of dotori mook, a jelly the author loves with a salty, sharp soy-based sauce. ③ In 1961, South Korea's per capita income was only $93, lower than Ghana's $190. ④ Still, he admits it is no delicacy; it is the kind of snack eaten at mountain stalls after a climb or in a cheap tavern. ⑤ Fed to Ibérico pigs, however, acorns give the finest jamón a rich, nutty taste that, in the author's judgment, makes it the best ham anywher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am sits at the centre of Spanish culture. What other country could have made a film called 'Ham, Ham'—Jamón Jamón, the first film of Penelope Cruz?

(A) That struggle ended in January 1492, when the Reconquista was completed and the Muslims were driven out of the peninsula. Later that same year, a royal order expelled the Jews as well, and Portugal soon did the same.

(B) Many of these exiles took refuge in the Ottoman Empire, at that time the centre of Islam. The Turkish economist Dani Rodrik descends from one of them; his family was originally named Rodriguez, he told the author.

(C) Ham gained this importance when Christians built Spain through their wars against the Muslims, who had earlier ruled most of Iberia. Because eating pork set Christians apart from Muslims, pork came to symbolize Christian identit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ce Korea lifted its limits on mortgages and consumer loans in the late 1990s, household savings collapsed: within a few years they fell from an early-1990s peak of 22% of GDP, then the world's highest, to just 3–5%. During 2005–14 they averaged only 5% of GDP, under half the rates of supposedly free-spending Chile (10.5%) and Mexico (11.4%). Culture surely affects how people think and act, but simple stereotypes cannot capture its influence, for every culture is complex and ever-changing. Above all, policies matter far more than culture in shaping economic behaviour.

→ Korea's household savings (A) _____ once loan restrictions were lifted, suggesting that economic behaviour depends far more on (B) _____ than on culture.

① plummeted ..... policies
② soared ..... policies
③ plummeted ..... traditions
④ stabilized ..... values
⑤ soared ..... stereotype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391, angry Christian mobs forced many Spanish Jews to convert. The Spanish Inquisition, set up in 1478, then hunted for false converts. After the Jews were expelled in 1492, many found refuge in the Ottoman Empire, where Sultan Beyazit II is said to have welcomed them. Much later, Samuel Huntington claimed that culture largely explained why South Korea pulled ahead of Ghana, although in 1961 Korea's per capita income was only $93, against Ghana's $190. In 1912, the English sociologist Beatrice Webb described Koreans as lazy. When the Japanese left in 1945, Korea's literacy rate was just 22%, and during 2005–14 Korean household savings averaged a mere 5% of GDP.

<QUIZ>

(1) In what year were many Spanish Jews forced to convert?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was the Spanish Inquisition set up?

Answer for (2): _____

(3) Which sultan is said to have welcomed the Jews?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Korea's per capita income was higher than Ghana's in 1961?

Answer for (4): _____

(5) Which English sociologist described Koreans as lazy in 1912?

Answer for (5): _____

(6) What was Korea's literacy rate when the Japanese left in 1945?

Answer for (6): _____

(7) What share of GDP did Korean household savings average during 2005–14?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492	N. 22%
B. Samuel Huntington	O. 3%
C. True	P. Penelope Cruz
D. 1391	Q. 1945
E. 1478	R. 10.5%
F. 53%	S. Beyazit II
G. Dani Rodrik	T. False
H. 1912	U. 38%
I. Beatrice Webb	V. Reda Cherif
J. 39%	W. 1961
K. Muhammad	X. 1%
L. 11.4%	Y. 5%
M. 1915	Z. 52%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과 일부 일본인이 도토리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have p.p.)

02 도토리묵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결코 별미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 (however much + S + V / no + 명사)

03 기독교도와 무슬림을 구별 짓는 한 가지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었다. (단수 주어 One thing + 동명사 보어)

04 개종한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다. (사역 make의 수동 be made to V)

05 술탄 바예지드 2세는 유대인을 두 팔 벌려 반겼다고 한다. (be supposed to have p.p.)

06 무슬림이 그 고전들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르네상스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07 장인과 상인의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복수 주어 + were / be allowed to V)

08 우리는 그 나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무엇이든 그 문화 탓으로 돌린다. (attribute A to B / whatever + 명사)

09 농업 이외의 실용적인 일은 업신여겨졌다. (구동사 수동 look down upon)

10 한 사회가 문화라는 원재료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는 상당 부분 선택의 문제다.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11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소비 증가가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so ~ that / keep pace with)

12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데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비교급 강조 much + less)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도토리묵에 곁들이는 양념간장의 재료	
이베리코 돼지의 다른 이름 / 그 뜻	
최상품 하몽의 이름 / bellota의 뜻	
bellota의 어원(27쪽 각주 i) / 알려 준 사람	
'Ham, Ham'의 원제 / 데뷔한 배우	
강제 개종이 일어난 해	
종교재판소가 세워진 해 / 거짓 개종자를 부른 말	
레콩키스타가 완성된 때	
오스만 제국으로 간 유대인의 후손인 경제학자 / 원래 성	
유대인을 반겼다고 하는 술탄	
jihad의 본뜻	
무슬림 세계의 과학 중심지 / 시기	
유럽에서 판사가 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던 때	
이슬람과 경제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두 예	
1961년 1인당 소득 한국 / 가나	

항목	답
유교 문화로 경제 기적을 설명한 정치학자 / 그의 책	
1915년 일본 공장을 둘러본 사람 / 1912년 일본과 한국을 둘러본 사람	
1945년 한국의 문해율 / 타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한국 · 중국의 가계 저축률 정점	
1960년 한국의 총저축률	
2005~14년 평균 한국 가계 저축률 / 칠레 · 멕시코	

4-3. 통합 사고 문제 – 서론과 1장을 잇는 자리

문제

서론에서 저자는 정부 주도 산업화 시기의 한국 정부가 수출로 번 달러를 모두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계와 원자재를 사는 데 쓰려고 여가 목적의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고 쓰고(10쪽 ¶6), 더 산업화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일과 삶이 시계에 맞추어 짜이기 때문에 농업 사회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16쪽 ¶2). 1장에서 저자는 일본과 한국에 시간을 지키는 산업 노동력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런 노동력을 만들어 냈다고 하고(25쪽 ¶3), 한국 정부가 생산자에게 대출을 몰아주려고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사람들이 먼저 저축해야 했다고 썼다(26쪽 ¶3).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개인의 경제 행동과 나라의 경제 성과를 정하는 데 문화보다 훨씬 힘이 세다고 본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서론과 1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서론 또는 1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문화보다 힘이 센 것: Most importantly, culture is much less powerful than _____ in determining individual economic behaviour and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2 OKRA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Okra」 (원서 PDF 28~33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끈적한 채소 하나가 어떻게 노예제와 자유, 자본주의의 이야기를 묶는가."

저자가 처음 맛본 오크라는 끈적한 질감 때문에 어색한 채소였지만, 직접 만든 서커태시에서는 그 끈적임이 요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마법이 되었다. 이 채소는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아메리카로 건너왔고, 그 이름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 준다. 저자는 여기서 출발해 노예들의 노동과 자본이 미국 경제를 세웠고, 미국 밖 아이티 노예들의 혁명이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이어져 미국을 대륙만 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노예제가 끝난 뒤에도 계약 노동이라는 이름의 부자유는 이어졌다. 그리고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얼마나 좁은지, 자본주의가 무엇을 제한해서 더 인간적이 되었는지를 묻는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자본주의는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했기에 더 인간적이 되었다(32쪽 ¶3) / 자본주의와 자유의 관계는 복잡하다(32쪽 ¶4 ~ 33쪽 첫 줄) / 노예는 자본의 원천이었다(29쪽 ¶5 ~ 30쪽 첫 줄) / 자유시장 옹호자의 자유는 좁다(32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sautéed lady finger / mucilaginous / the magic quality / Korea, sadly, missed out / The name is a giveaway / not a rhetorical statement / human property / a bloody nose / 'sell' / breadbasket / stepping stone / unfree labour / the language of freedom / a very narrow one / sacrosanct / unalloyed freedom
6	지칭 추론	he · him · his가 Louverture와 Dessalines 사이를 오가는 30쪽 ¶2 / he = Napoleon(30쪽 ¶4) / it = okra · the dish(28쪽) / They = enslaved Africans(29쪽 ¶5 · 30쪽 ¶1) / the latter = economic freedom(32쪽 ¶1 · ¶3)
7~8	내용 일치·불일치	1986(28쪽 ¶1) / 1,200만 · 200만(29쪽 ¶2) / 25%~65% · 58% · 1830년대(29쪽 ¶4) / 1791 · 1802 · 1804(30쪽 ¶2) / 50년 뒤 4분의 1(30쪽 ¶3) / 1803 · 3분의 1 · 두 배(30쪽 ¶4~¶5) / 1846 · 1846~8(31쪽 ¶1) / 1862 · 1865 · 1833 · 1888(31쪽 ¶3) / 150만 · 3~10년 · 1917(31쪽 ¶4)
9~10	**어법**	관계대명사 that · whose 병렬 · apart from + 동명사 부정 · find + O + 형용사 + to V · grow to V · turn out to be · such A as B · 완료 분사구문 · not only A but also B · Without + 가정법 과거완료 · 간접의문문 어순 · 계속적 which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결과 분사구문 · enable O to V · 강조 재귀대명사 · with + O + 전치사구 · 관계대명사 what · if + 형용사(양보) · 사역 make + O + 원형 · for + O + to V · 전치사 + which · 가주어 It + whether절 · prevent O from -ing · have no hesitation in -ing · at best ~ at worst · so that + could · 관계절 속 think · if 생략 도치 should · Only + 부사절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illustrious↔obscure · dominant↔minor · perish↔survive · superior↔inferior · tradable↔non-tradable · primitive↔advanced · abolish↔establish · unintended↔deliberate · fertile↔barren · emancipation↔enslavement · denounce↔praise · humane↔inhumane · exercise↔surrender(재산권) · unalloyed↔mixed
12	빈칸 추론	a very narrow one(32쪽 ¶1) / sources of capital(29쪽 ¶5) / more humane only because we have restricted(32쪽 ¶3) / the magic quality(28쪽 ¶4) / complicated, conflictual and sometimes even contradictory(33쪽 첫 줄)
13	문장 삽입	노예화의 규모(29쪽 ¶2~¶3): 산업적 규모 → 원주민을 거의 쓸어버림 · 대체 노동력 → 1,200만 명 넘게 붙잡힘 → 적어도 200만 명 사망 → 중간 항로 · 길들이기 수용소 → 노예 없이는 불가능
14	무관한 문장	루이지애나 매입 뒤(31쪽 첫 줄 ~ ¶1): 광업 → 곡창 지대 → 원주민의 고통 → 보호구역 → 태평양까지에 오크라의 어원(29쪽 ¶1)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오크라와 친해진 과정(28쪽 ¶3~¶4): 더 나은 빈디 바지 · 일본 · 브라질 → 모든 것이 바뀐 워싱턴 DC → 첫 검보 → 직접 만든 서커태시 · 끈적임 = 마법
16	요약문 완성	아이티 혁명이 없었다면(31쪽 ¶2): 프랑스가 떠나지 않음 → 동쪽 3분의 1만 차지 → 초강대국이었을지 불분명 / 좁은 자유(32쪽 ¶1~¶2)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영국 도착 1986 · 붙잡힌 사람 1,200만 명 넘음과 사망 적어도 200만 명 · 수출 비중 25%~65%와 1830년대 면화 58% · 봉기 1791 · 체포 1802 · 독립 1804 · 매입 1803 · 오리건 1846 · 멕시코 전쟁 1846~8 · 해방 선언 1862 · 전국의 법 1865 · 대영제국 1833 · 브라질 1888 · 계약 노동자 약 150만 명과 폐지 1917 · 쿠데타 1973. 인물도 여럿이다(루베르튀르 · 데살린 · 나폴레옹 · 데스먼드 · 링컨 · 프리드먼 · 하이에크 · 피노체트 · 아옌데).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already ended in 1833 ↔ after the US, at least 25% ↔ less than 25%, probably ↔ certainly originated, Louverture ↔ Dessalines at independence, not done by the slaves in the US ↔ done by US slaves, unintended ↔ intended). 누가 · 언제 · 어디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Okra」 (28~33쪽)

음식 → 경제 논점형(오크라와의 만남 → 기원과 전래 → 노예화의 규모 → 노동과 자본 → 아이티 혁명 → 루이지애나 매입 → 정착과 서진 → 노예제 폐지와 계약 노동 → 자유시장 옹호자의 좁은 자유 → 더 인간적인 자본주의). 핵심 축은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 vs 다른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순수한 자유'의 이야기 vs 복잡하고 모순된 관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8 ¶1~¶2	첫 만남	1986년 영국 도착 두어 해 뒤 · 남아시아 식당의 빈디 바지 · '볶은 레이디 핑거' / 이름도 몰랐던 채소 · 끈적한 질감(mucilaginous)
28 ¶3	친해짐	더 나은 빈디 바지 · 일본의 오크라 튀김 · 브라질의 프랑구 콩 키아부 / 좋아졌지만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아님
28 ¶4	전환	워싱턴 DC의 남부 요리 식당 · 첫 검보 / 직접 만든 서커태시 · 끈적임 = 마법 같은 특성
29 첫 줄	기원	아욱과(면화 · 카카오 · 히비스커스 · 두리안) · 아마 아프리카 북동부 / 경쟁 이론 = 동남아시아와 인도 · 세 방향 · 한국은 빠짐
29 ¶1	전래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이 아메리카로 가져옴 · 이름이 알려 줌 / okra = 이보어 · gumbo = 중앙 · 남동부 아프리카의 언어
29 ¶2	노예화	신대륙 점령 → 산업적 규모 · 원주민을 거의 쓸어버림 / 1,200만 명 넘게 붙잡힘 · 적어도 200만 명 사망 · 중간 항로 · 길들이기 수용소
29 ¶3	주장	노예 없이는 유럽 자본주의 나라의 값싼 자원도,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도 없었다 / 수사적인 말이 아니다
29 ¶4	면화 · 담배	19세기 수출의 25%~65% · 1830년대 면화 58% / 수출 대금 → 유럽(특히 영국)의 기계와 기술 · 영국 = 값싼 면화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9 ¶5~30 첫 줄	자본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의 원천 · 데스먼드(뉴욕 타임스) / 노예 담보 대출 → 채권(ABS와 같음) → 유럽 금융가 · 금융 산업의 성장
30 ¶1~¶2	아이티	대륙 국가로 만든 재편(미국 밖의 노예들) / 1791 봉기 · 루베르튀르(1802 체포) · 1804 독립(데살린) · 노예제를 폐지한 첫 나라
30 ¶3	설탕	농장주들이 루이지애나로 · 숙련 노예와 기술 / 50년 뒤 세계 사탕수수 설탕의 4분의 1
30 ¶4~¶5	매입	의도하지 않은 가장 큰 파장 = 1803 루이지애나 매입 · 쓰라린 패배의 나폴레옹 /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 · 영토가 대략 두 배
31 첫 줄	정착	광업 → 곡창 지대 / 원주민 = 땅을 잃음 · 보호구역 · 죽음
31 ¶1~¶2	태평양 · 가정	오리건 지역(1846) · 멕시코 전쟁(1846~8) / 반란이 없었다면 동쪽 3분의 1 · 초강대국 여부는 불분명
31 ¶3	폐지	1862 링컨의 해방 선언 · 1865 전국의 법 / 대영제국 1833(그래도 이익) · 브라질 1888
31 ¶4	계약 노동	약 150만 명(인도 · 중국 · 일본) · 계약 3~10년 · 옛 노예 막사 / 1917 대영제국의 폐지까지
32 첫 줄~¶1	좁은 자유	자유의 언어 · 『선택할 자유』 · 경제 자유 지수 / 경제 영역의 자유 · 피노체트 지지 · 아옌데(1973)
32 ¶2~¶3	소유자의 자유	재산 소유자의 자유가 으뜸 · 노예의 부자유는 폭력으로 / 소유자의 자유를 제한해 더 인간적이 됨 · 제도와 법
32 ¶4~33 첫 줄	결론	오크라가 재료를 묶듯 이야기를 묶음 / 복잡하고 갈등적이며 모순된 관계 · 이해해야 더 인간적인 자본주의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처음 만난 오크라 vs 서커태시	끈적한 질감 – 어색하고 부담스러움	끈끈함 – 요리를 부드럽게 만든 마법
오크라의 기원	지배적 이론 – 아마 아프리카 북동부	유력한 경쟁 이론 – 동남아시아와 인도
오크라의 두 이름	okra – 이보어(나이지리아)	gumbo – 중앙 · 남동부 아프리카의 언어
노예가 미국 경제에 보탠 것	노동 – 면화 · 담배(수출의 25%~65%)	자본 – 담보 대출과 채권
면화 무역	미국 – 수출 대금으로 기계 · 기술 수입	영국 – 직물 공장을 돌린 값싼 면화
아이티 혁명의 영향	곧바로 나타난 영향 – 루이지애나 설탕 산업	가장 큰 파장(의도하지 않음) – 루이지애나 매입
루이지애나 매입	미국이 원래 사려던 것 – 뉴올리언스 항구와 플로리다	나폴레옹이 내놓은 것 – 루이지애나 전체(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
새 영토의 정착	유럽 정착민 – 농사 · 곡창 지대	아메리카 원주민 – 땅을 잃고 보호구역 · 죽음
노예제 폐지 뒤	노예제 – 1833(대영제국) · 1865(미국) · 1888(브라질)에 끝남	계약 노동 – 노예는 아니지만 자유 없음(1917까지)
자유시장 옹호자의 자유	경제적 자유 – 특히 재산 소유자의 자유	정치적 · 사회적 자유, 다른 사람의 경제적 자유(파업 · 복지)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자본주의가 인간적이 된 까닭	자유시장 옹호론 — 소유자의 자유는 신성불가침	저자 — 소유자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
자본주의와 자유의 이야기	자유시장 옹호자 — 순수한 자유의 이야기	저자 — 복잡하고 갈등적이며 모순된 관계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1986	저자가 **영국에 온 해** — 오크라를 처음 먹은 것은 그 **두어 해 뒤**(남아시아 식당 · 각주 i: 'Indian' 대신 'South Asian'이라 쓰는 까닭은 「Spices」에서)
bhindi bhaji	오크라 요리 · 메뉴판 번역 'sautéed lady finger'(볶은 레이디 핑거) · 끈적한 질감 = 전문 용어 mucilaginous(점액질의)
okura tempura / frango com quiabo	일본 식당의 오크라 튀김 / 브라질의 닭고기 오크라 볶음
gumbo	워싱턴 DC 남부 요리 식당에서 처음 먹음 · 오크라가 핵심인 남부의 수프 겸 스튜 · 미국에서는 오크라도 gumbo · gombo
succotash (각주 ii)	저자의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오크라 요리 · 뜻 = 으깬 옥수수 · 원래 미국 북동부 원주민 음식 · 케이준/크리올 '삼위일체'(양파 · 셀러리 · 피망) · 앙두이 소시지 대신 조리용 초리소
Malvaceae	아욱과 · 면화 · 카카오 · 히비스커스 · 두리안(각주 iii: 커스터드에 블루치즈를 섞은 맛, 이상하게 자꾸 당김)
기원 · 전파	**아마** 아프리카 북동부(에티오피아 · 에리트레아 · 수단) / 경쟁 이론 = 동남아시아와 인도 · 북(지중해) · 동(중동 · 남아시아 · 중국 · 일본) · 서(서아프리카) · 한국은 빠짐
Igbo	'okra'의 어원 · 오늘날 나이지리아의 주요 언어 가운데 하나 / 'gumbo' = 중앙 · 남동부 아프리카의 언어
함께 온 작물	수박 · 땅콩 · 쌀 · 참깨 · 동부콩 · 바나나(디저트용 바나나와 요리용 플랜틴)
노예화의 규모	붙잡힌 아프리카인 **1,200만 명 넘음** · 그 가운데 **적어도 200만 명** 사망 · 중간 항로(Middle Passage) · 길들이기 수용소(seasoning camps)
값싼 자원	금 · 은 · 면화 · 설탕 · 쪽(indigo) · 고무 — 유럽 자본주의 나라의 공장 · 은행 · 노동자를 먹여 살림
면화 · 담배	19세기 내내 미국 수출의 **적어도 25% ~ 많게는 65%** / 1830년대 정점에 면화 하나 = **58%** · 영국 = 산업혁명기 값싼 면화
Matthew Desmond	미국 사회학자 · 『뉴욕 타임스』에 노예제의 유산을 다룸 · 노예 = 담보 대출의 담보물 · 식민지 시대 대출 대부분 = 인간 재산 바탕
ABS (각주 iv)	자산 담보부 증권 · 노예 담보 대출을 묶은 채권과 같은 구조 · 뒤에 CDO로 엮여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서 핵심 역할
St Domingue / Haiti	**1791** 봉기(프랑스인 사탕수수 농장주에 맞섬) · **1804** 독립 ·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
Louverture / Dessalines	투생 루베르튀르 = 노예 출신 지도자 · 1802 체포 · 이듬해 프랑스에서 갇힌 채 죽음 / 장자크 데살린 = 뒤를 이어 독립 때 지도자
Louisiana 설탕	도망친 프랑스 농장주 · 숙련 노예와 기술 / **50년 뒤** 세계 사탕수수 설탕의 **4분의 1**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Louisiana Purchase	**1803** · 나폴레옹 · Louisiane(루이 14세 · 각주 v) ·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 · 몬태나 ~ 루이지애나주 · 미국 영토 대략 **두 배** / 'sell'은 과장(각주 vi)
서쪽 확장	1846 오리건 지역(영국으로부터 · 각주 vii 오리건 · 워싱턴 · 아이다호) · 멕시코 전쟁 1846~8 → 멕시코 영토 3분의 1을 헐값에(각주 viii)
저자의 가정	반란이 없었다면 오늘날 영토의 동쪽 3분의 1만 차지 · 그 크기로 초강대국이 되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노예제 폐지	미국 = 1862 링컨의 해방 선언 → 1865 북부 승리로 전국의 법 · 대영제국 = **1833**(미국보다 먼저) · 브라질 = **1888**
indentured labour	약 **150만 명**(인도 · 중국 · 일본) · 계약 3~10년 · 옛 노예 막사 · 일본계 200만여 명(브라질 · 페루) · 대영제국이 **1917**년에 폐지
Friedman / Hayek	『Free to Choose』(밀턴과 로즈 프리드먼) · 피노체트 독재 지지 · 시카고 대학 교수(하이에크 1950~61 · 프리드먼 1946~77, 각주 ix)
경제 자유 지수	헤리티지 재단 Index of Economic Freedom · 케이토 연구소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Chile	피노체트 · 시카고 보이스 · 아옌데(선출된 대통령, 1973년 쿠데타 때 죽음) · 신자유주의의 '첫 환자'(각주 x: 다른 곳은 1980년대 대처 · 레이건)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Okra」 (원서 PDF 28~33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2-1 처음 만난 오크라, 끈적임이 마법이 되기까지 28쪽 ¶1~¶4

원문 위치 원서 28쪽 ¶1~¶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a couple of years after my arrival in Britain in 1986	숫자 — 서답형 1순위(1986 = 영국 도착 해, 오크라를 처음 먹은 해 아님)
▲	¶1 둘째 문장	a dish called bhindi bhaji, which the menu translated as	과거분사 후치 수식 + 계속적 which
◆	¶1 둘째 문장	'sautéed lady finger'	밑줄 의미: 남아시아 사람이 아닌 손님을 위한 메뉴판 번역
▲	¶1 셋째 문장	that I had never tasted … but whose existence I had known about	관계대명사 that과 whose의 병렬
★	¶1 넷째 문장	But I had never even heard of okra.	내용 일치 — 브로콜리 등과 달리 이름조차 몰랐음
▲	¶2 첫 문장	Apart from not being able to see why	apart from + 동명사 부정 + 간접의문문
▲	¶2 첫 문장	as it was chopped up, obliterating its shape	이유 as + 결과 분사구문
◆	¶2 둘째 문장	the 'slimy' texture … 'mucilaginous'	밑줄 의미: 끈적한 질감의 전문 용어
▲	¶2 둘째 문장	I found the 'slimy' texture … a little difficult to handle	find + O + 형용사 보어 + to V
★	¶3 둘째~셋째 문장	okura tempura … in Japan / frango com quiabo, Brazilian	내용 일치 — 나라와 요리 짝짓기
▲	¶3 넷째 문장	I grew to like okra, although I cannot say that	grow to V / 양보 although
★	¶4 첫 문장	All this changed when I went to a Southern restaurant in Washington, DC	전환점 — 순서 배열 단서
▲	¶4 둘째 문장	the Southern soup/stew whose defining ingredient is okra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두 번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넷째 문장	not by my cooking skill (I wish) but by the gooeyness	not A but B / 저자의 농담
◆	¶4 다섯째 문장	turned out to be the magic quality	밑줄 의미: 처음의 약점이 요리의 장점으로 뒤집힘

내용

저자가 오크라를 처음 만난 것은 1986년 영국에 온 지 두어 해 뒤, 한 남아시아 식당에서였다. 빈디 바지라는 요리였는데, 메뉴판은 남아시아 사람이 아닌 손님을 위해 이를 '볶은 레이디 핑거'라고 옮겨 놓았다. 브로콜리 · 비트 · 순무처럼 영국에 오기 전 먹어 본 적은 없어도 책과 영화로 있는 줄은 알던 채소가 몇 가지 있었지만, 오크라는 이름조차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잘게 썰려 모양이 다 사라진 탓에 왜 '레이디 핑거'라고 부르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은 둘째 치고, 그 요리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끈적한' 질감(나중에 전문 용어로 '점액질'이라는 것을 알았다)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그 뒤 덜 끈적하고, 지나치게 익히지 않았으며, 양념이 더 잘된 빈디 바지를 먹었다. 일본의 한 식당에서 먹은 맛있는 오크라 튀김(okura tempura)은 이 채소에 대한 생각을 더 좋게 만들었고, 브라질을 찾았을 때는 닭고기를 오크라와 함께 볶은 프랑구 콩 키아부(frango com quiabo)도 즐겼다. 오크라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채소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워싱턴 DC의 한 남부(Southern) 요리 식당에서였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검보를 먹었다. 검보는 오크라가 빠질 수 없는 재료인 남부의 수프 겸 스튜로(미국에서는 오크라 자체를 검보나 곰보라고도 부른다), 맛이 깊고 질감이 끈끈하다. 몇 해 전에는 남부 요리책에서 얻은 서커태시 조리법으로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오크라 요리를 해 보았다. 그는 감탄했다. 자기 요리 솜씨 때문이 아니라(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는 덧붙인다) 오크라가 요리에 준 끈끈함 때문이었다. 처음 오크라와의 만남을 조금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 점액질의 성질이, 요리를 그토록 부드럽고 위로가 되며 마음을 녹이게 만든 마법 같은 특성이었던 것이다.

어법

- I first encountered okra in a South Asian restaurant a couple of years after my arrival in Britain in 1986 : a couple of years after + 명사(my arrival) = ~한 지 두어 해 뒤. in 1986은 arrival(영국 도착)에 걸린다 → 오크라를 처음 먹은 해는 1986년이 아니라 그 두어 해 뒤.
- a dish called bhindi bhaji, which the menu translated as 'sautéed lady finger' for the benefit of non-South Asian customers : called = 과거분사 후치 수식(~라고 불리는). which =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translate A as B의 A 자리). for the benefit of = ~을 위해.
- There were some vegetables that I had never tasted before coming to Britain but whose existence I had known about through books and movies : 선행사 vegetables에 관계절 두 개(that절 · whose절)가 but으로 병렬. whose existence = 소유격 관계대명사 + 명사. had never tasted · had known = 과거완료(영국에 오기 전까지의 경험).
- Apart from not being able to see why the vegetable was called 'lady finger', as it was chopped up, obliterating its shape, I wasn't too convinced by the dish : apart from + 동명사 = ~은 둘째 치고.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둔다. why절 = 간접의문문(평서문 어순 the vegetable was called). as = 이유. obliterating ~ =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 I found the 'slimy' texture (I learned later that the technical term is 'mucilaginous') a little difficult to handle : find + O + 형용사 보어(difficult) + to부정사(~하기에). 괄호 속 that절의 현재 시제 is = 지금도 맞는 사실.
- I grew to like okra, although I cannot say that it became a favourite vegetable : grow to V = 차츰 ~하게 되다. although = 양보. cannot say that ~ = ~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 **the Southern soup/stew whose defining ingredient is okra (whose other common name in the US is gumbo or gombo)** : whose 두 번: 앞 whose의 선행사 = soup/stew, 괄호 속 whose의 선행사 = okra. defining ingredient = 그 요리를 그 요리이게 하는 재료.
- **The mucilaginous nature of okra that had made my first encounter with it slightly awkward turned out to be the magic quality that made the dish so smooth, so comforting, so heart-melting** : 주어 The mucilaginous nature ~ awkward(관계절 포함) + 동사 turned out to be. make + O + 형용사(awkward / smooth). had made = 과거완료(처음 만남이 더 앞선 일). so ~ 세 번 반복 = 강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ncounter (v.)	(처음) 마주치다	come across	—
sauté (v.)	살짝 볶다	pan-fry	—
obliterate	완전히 지우다	erase	preserve
convinced	납득한, 마음에 든	persuaded	doubtful
slimy	끈적끈적한	sticky	—
specimen	견본, (하나의) 예	example	—
delightful	아주 즐거운	lovely	unpleasant
defining	본질을 이루는	essential	incidental
gooey	끈끈한	sticky	—
blow away	크게 감탄시키다	amaze	bore
awkward	어색한	uncomfortable	comfortable
comforting	위로가 되는	soothing	distressing
mucilaginous	점액질의	slimy	—

내용 일치 1986 = 영국 도착 해(오크라를 처음 먹은 것은 그 두어 해 뒤) · 남아시아 식당의 빈디 바지 · 메뉴판 번역 = 볶은 레이디 핑거 · 브로콜리 · 비트 · 순무는 책과 영화로 알았지만 오크라는 이름도 몰랐음 · 잘게 썰려 모양을 알 수 없었음 · 끈적한 질감(전문 용어 mucilaginous) · 오크라 튀김 = 일본 / 프랑구 콩 키아부 = 브라질 · 좋아졌지만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아님 · 전환점 = 워싱턴 DC의 남부 요리 식당 · 첫 검보 · 서커태시 =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오크라 요리(남부 요리책). **지칭** 28쪽 ¶2 it(as it was chopped up) = the vegetable(오크라), its shape = 오크라의 모양 / ¶3 there(visits there) = Brazil / ¶4 There = 워싱턴 DC의 남부 요리 식당, it(encounter with it) = okra, the dish = 저자가 만든 서커태시.

> **한 줄 요약** 끈적한 질감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던 오크라는 여러 나라의 요리를 거치며 좋아졌고, 직접 만든 서커태시에서는 그 끈적임이 오히려 요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마법이 되었다.

2-2 아프리카에서 온 채소, 노예화의 규모 29쪽 첫 줄 ~ ¶2

원문 위치 원서 29쪽 첫 줄 ~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9쪽 첫 줄 첫 문장	an illustrious family of plants (Malvaceae) … cotton, cacao, hibiscus and durian	내용 일치 — 같은 과(科)의 식물(각주 iii 두리안)
▲	29쪽 첫 줄 첫 문장	which includes such famous members as	계속적 which / such A as B
★	29쪽 첫 줄 둘째 문장	It probably originated in North-eastern Africa	추측 probably — 단정 금지 / 기원설 두 가지
▲	29쪽 첫 줄 둘째 문장	a strong contending theory that traces its origin to	양보 although + 주격 관계대명사 that
★	29쪽 첫 줄 셋째 문장	spread north …, east …, and west	내용 일치 — 퍼진 세 방향
◆	29쪽 첫 줄 넷째 문장	Korea, sadly, missed out.	밑줄 의미: 오크라가 한국에는 전해지지 않음(저자의 아쉬움)
▲	¶1 첫 문장	Okra was brought to the US … by enslaved Africans, together with	수동태 + by 행위자
◆	¶1 둘째 문장	The name is a giveaway.	밑줄 의미 1순위: 이름이 아프리카 기원을 드러냄
★	¶1 셋째 문장	a derivation from Igbo, one of the main languages of today's Nigeria	서답형 1순위 — Igbo
★	¶1 넷째 문장	'Gumbo' … comes from the languages of Central and South-eastern Africa	내용 일치 — okra와 gumbo의 어원 구분
▲	¶2 둘째 문장	Having nearly wiped out the native population	완료 분사구문(먼저 일어난 일)
▲	¶2 둘째 문장	not only through genocide but also by bringing over new pathogens	not only A but also B
★	¶2 셋째 문장	Over 12 million Africans were captured	숫자 — 서답형 · 삽입 후보
★	¶2 넷째 문장	Of these, at least 2 million perished	숫자 — 삽입 문장 후보(Of these)
◆	¶2 넷째 문장	the Middle Passage / 'seasoning camps'	밑줄 의미: 대서양 횡단 / 굴복시키는 수용소

내용

오크라는 이름난 식물 집안(아욱과, Malvaceae)에 속하며, 이 집안에는 면화 · 카카오 · 히비스커스 · 두리안 같은 유명한 식구가 있다. 오크라는 아마 아프리카 북동부(오늘날의 에티오피아 · 에리트레아 · 수단)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다만 그

기원을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찾는 유력한 경쟁 이론도 있다. 지배적인 이론에 따르면 오크라는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작물로 길러지기 시작해 북쪽(지중해), 동쪽(중동 · 남아시아 · 중국 · 일본), 서쪽(서아프리카)으로 퍼졌다. 아쉽게도 한국은 빠졌다. 오크라는 수박 · 땅콩 · 쌀 · 참깨 · 동부콩 · 바나나(디저트용 바나나와 요리용 바나나인 플랜틴 둘 다)와 함께,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미국과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왔다. 이름이 이를 알려 준다. '오크라'라는 말은 오늘날 나이지리아의 주요 언어 가운데 하나인 이보어에서 왔다. 미국에서 이 채소의 또 다른 흔한 이름이자 이 채소가 핵심 재료인 요리의 이름이기도 한 '검보'는 중앙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남동부의 언어에서 왔다. 아프리카인의 노예화는 유럽인이 신대륙을 차지하면서 산업적 규모로 시작되었다. 학살뿐 아니라 새로운 병원균을 들여와 원주민을 거의 쓸어버린 유럽인들은, 그들을 대신할 일꾼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것도 가능한 한 가장 싼값에. 노예 상인에게 붙잡힌 아프리카인은 1,200만 명이 넘었다. 그 가운데 적어도 200만 명이 노예가 되는 과정에서 죽었다. 그 과정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붙잡혀 갇히는 일, '중간 항로(Middle Passage)'라 불린 끔찍한 대서양 횡단, 그리고 아메리카의 '길들이기 수용소(seasoning camps)'에 갇히는 일이었다. 이 수용소에서 붙잡힌 아프리카인들은 팔려 가기 전에 강제로 굴복당했다.

어법

- **Okra belongs to an illustrious family of plants (Malvaceae), which includes such famous members as cotton, cacao, hibiscus and durian** : belong to = ~에 속하다(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상태동사). which = 계속적 용법, 선행사 family(단수) → includes. such A as B = B 같은 A.
- **It probably originated in North-eastern Africa ..., although there is a strong contending theory that traces its origin to South-east Asia and India** : probably = 추측(단정이 아님). although = 양보. that = theory를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 traces). trace A to B = A의 기원을 B에서 찾다.
- **According to the dominant theory, okra was domesticated in North-eastern Africa and spread north ..., east ..., and west** : 수동 was domesticated와 능동 spread가 and로 병렬(주어 okra 공유). spread는 과거형도 spread. north · east · west =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 **Okra was brought to the US and the rest of the Americas by enslaved Africans, together with crops like watermelon, peanuts, rice ...** : 수동태 be brought + by 행위자. together with = ~와 함께(주어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like = ~ 같은(예시).
- **'Gumbo', another common name for the vegetable (as well as the dish in which it is the crucial ingredient) in the US, comes from the languages of Central and South-eastern Africa** : 주어 'Gumbo' 뒤에 동격 명사구가 끼고 동사 comes(단수). as well as = ~뿐 아니라.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그 요리에서 it이 핵심 재료).
- **Having nearly wiped out the native population (not only through genocide but also by bringing over new pathogens), they desperately needed replacement workers** : Having p.p. = 완료 분사구문(주절보다 앞선 일), 의미상 주어 = they(유럽인). not only A but also B: A = through + 명사, B = by + 동명사. bring over = 들여오다.
- **Of these, at least 2 million perished during the process of enslavement** : Of these = 그 가운데(these = 붙잡힌 1,200만여 명). at least = 적어도. perish = 죽다(자동사).
- **imprisonment in 'seasoning camps' in the Americas, where the captured Africans were broken into submission before they were sold off** :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seasoning camps). be broken into submission = 강제로 굴복당하다(break A into B의 수동). sell off = 팔아 치우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llustrious	이름난, 저명한	distinguished	obscure
originate	생겨나다	arise	—
contending	경쟁하는	rival	—
dominant	지배적인	prevailing	minor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omesticate	작물화하다, 길들이다	cultivate	—
giveaway (n.)	숨길 수 없는 단서	telltale sign	—
derivation	파생(된 말)	origin	—
crucial	결정적인	essential	trivial
wipe out	쓸어버리다	annihilate	—
pathogen	병원균	germ	—
desperately	절실히	urgently	—
perish	죽다	die	survive
atrocious	끔찍한	horrific	—
submission	굴복	surrender	resistance

내용 일치 같은 과 = 면화 · 카카오 · 히비스커스 · 두리안 · 기원 = '아마' 아프리카 북동부(에티오피아 · 에리트레아 · 수단) / 경쟁 이론 = 동남아시아와 인도 · 퍼진 방향 = 북(지중해) · 동(중동 · 남아시아 · 중국 · 일본) · 서(서아프리카) — 한국은 빠짐 · 함께 들어온 작물 = 수박 · 땅콩 · 쌀 · 참깨 · 동부콩 · 바나나 · okra = 이보어(나이지리아) / gumbo = 중앙 · 남동부 아프리카의 언어 · 노예로 붙잡힌 사람 = 1,200만 명 넘음 · 그 가운데 적어도 200만 명 사망. **밑줄 의미** The name is a giveaway = 이름(okra · gumbo)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냄 / Korea, sadly, missed out = 오크라가 퍼진 방향에 한국은 없었음(저자의 아쉬움) / ¶2 they(desperately needed) = Europeans, these(Of these) = 붙잡힌 1,200만여 명.

> **한 줄 요약** 면화 · 카카오와 한 집안인 오크라는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과 함께 아메리카로 건너왔고 그 이름이 아프리카 기원을 드러내며, 붙잡힌 1,200만여 명 가운데 적어도 200만 명이 그 과정에서 죽었다.

2-3 노예가 세운 미국 경제, 면화와 담보 대출 29쪽 ¶3 ~ 30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29쪽 ¶3 ~ 30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 첫 문장	Without these enslaved Africans …, the European capitalist countries could not have had access to	주장 — 가정법 과거완료(Without = If it had not been for)
▲	¶3 첫 문장	cheap resources that fed their factories, banks and workers	주격 관계대명사 that + 과거 동사 fed
★	¶3 둘째 문장	the US could not have become the economic superpower that it is today	요지 — 저자의 주장
◆	¶3 셋째 문장	And this is not a rhetorical statement.	밑줄 의미: 과장이 아니라 근거 있는 말이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둘째 문장	not many of us know how important these crops were	간접의문문 how + 형용사 + S + V
★	¶4 셋째 문장	at least 25% and up to 65% of US exports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4 넷째 문장	At its height in the 1830s, cotton alone accounted for 58%	숫자 — 서답형 1순위
▲	¶4 다섯째 문장	Without the export earnings …, the US could not have imported	가정법 과거완료
★	¶4 다섯째 문장	especially Britain, which, in return, benefited from	내용 일치 — 영국이 얻은 것
▲	¶5 첫~둘째 문장	didn't just provide (unpaid) labour. They were also	not just A … also B
◆	¶5 둘째 문장	very important sources of capital	빈칸 · 제목 후보
▲	¶5 둘째 문장	this is something, I must confess, I hadn't known until recently	삽입절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30쪽 첫 줄 Desmond 인용	Enslaved people were used as collateral for mortgages	밑줄 의미: 사람이 담보물이 됨
★	30쪽 첫 줄 Moreover 문장	lumped together to form tradable bonds, just like modern-day ABSs	내용 일치 — 각주 iv CDO
▲	30쪽 첫 줄 These bonds 문장	enabling the US to mobilize capital … and also to develop	결과 분사구문 + enable O to V 병렬
★	30쪽 첫 줄 마지막 문장	the US would have remained a pre-modern economy	주장 — 가정법 과거완료

내용

이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과 그 후손이 없었다면, 유럽의 자본주의 나라들은 자기네 공장 · 은행 · 노동자를 먹여 살린 값싼 자원, 곧 금 · 은 · 면화 · 설탕 · 쪽(indigo) · 고무 따위를 손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오늘날과 같은 경제 초강대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수사적인 말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국 농장의 노예들이 면화와 담배를 생산하려고 채찍질과 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이 작물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두 작물만으로 19세기 내내 미국 수출의 적어도 25%, 많게는 65%를 차지했다. 정점이던 1830년대에는 면화 하나가 미국 수출의 58%를 차지했다. 면화와 담배의 수출 대금이 없었다면 미국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계와 기술을 당시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유럽 나라들, 특히 영국에서 들여올 수 없었을 것이다. 영국은 그 대가로 산업혁명 동안 자국의 직물 공장을 돌릴 엄청난 양의 값싼 면화를 얻는 이득을 보았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만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자본의 원천이기도 했다. 저자는 이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털어놓는다. 미국 사회학자 매슈 데스먼드는『뉴욕 타임스』에 노예제의 유산을 살피는 글을 쓰며 이렇게 말한다. "노예가 된 사람들은 주택 담보 대출이 생기기 몇 세기 전부터 담보 대출의 담보물로 쓰였다… 땅이 별 가치가 없던 식민지 시대에… 대부분의 대출은 인간 재산을 바탕으로 했다." 데스먼드에 따르면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다시 한데 묶여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이 되었다. 수천 건의 주택 담보 대출 · 학자금 대출 · 자동차 대출을 묶어 만드는 오늘날의 자산 담보부 증권(ABS)과 똑같다. 이 채권은 영국과 다른 유럽의 금융가들에게 팔려, 미국이 세계 규모로 자본을

끌어모으고 금융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었다. 저자는 노예가 없었다면 미국은 실제보다 훨씬 오랫동안 원시적인 금융 부문을 지닌 전근대 경제로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법

- **Without these enslaved Africans and their descendants, the European capitalist countries could not have had access to cheap resources that fed their factories, banks and workers** : Without ~ = If it had not been for ~(~이 없었다면). 주절 could not have p.p. = 가정법 과거완료(과거 사실의 반대). that = resources를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
- **In particular, without these people, the US could not have become the economic superpower that it is today** : could not have p.p. = 가정법 과거완료. that = 보어 자리의 관계대명사(it is ~의 보어 superpower). today와 함께 현재 시제 is.
- **But not many of us know how important these crops were for the US economy** : not many of us =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은 사람(소수). know의 목적어 = 간접의문문 how important + S + V(평서문 어순). 변형 → how important were these crops는 오답.
- **These two products alone accounted for at least 25% and up to 65% of US exports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 alone = 명사 뒤에서 '~만으로'. account for = (비율을) 차지하다. at least ~ and up to ~ = 적어도 ~에서 많게는 ~까지. throughout = ~ 내내.
- **the then economically superior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Britain, which, in return, benefited from having access to a vast amount of cheap cotton** : the then = 그 당시의(형용사처럼 쓰임).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Britain), 그 사이에 in return이 삽입. benefit from + 동명사 = ~에서 이득을 보다.
- **They were also very important sources of capital – and this is something, I must confess, I hadn't known until recently** : I must confess = 삽입절. something (that) I hadn't known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had not known until recently = 최근까지는 몰랐다(과거완료).
- **these individual-slave-based mortgages were then lumped together to form tradable bonds, just like modern-day ABSs … that are created by lumping thousands of house mortgages, student loans and car loans together** : be lumped together = 한데 묶이다(수동). to form = 결과의 to부정사. that are created = ABSs를 꾸미는 관계절(현재 시제 = 오늘날의 사실). lump A together = 목적어가 길어 together가 뒤로 감.
- **These bonds were sold on to British and other European financiers, enabling the US to mobilize capital on a global scale and also to develop its financial industry into a global player** : be sold on to = ~에게 넘겨 팔리다. enabling ~ =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enable + O + to V에서 to mobilize와 to develop이 병렬. develop A into B = A를 B로 키우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scendant	후손	offspring	ancestor
rhetorical	수사적인, 효과를 노린	figurative	literal
plantation	대농장	estate	—
account for	(비율을) 차지하다	make up	—
height (n.)	정점	peak	low point
earnings	벌어들인 돈	income	expenses
superior	앞선, 우월한	advanced	inferior
in return	그 대가로	in exchang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fess	털어놓다	admit	deny
collateral	담보(물)	security	—
lump together	한데 묶다	bundle	separate
tradable	거래할 수 있는	marketable	non-tradable
mobilize	(자금을) 끌어모으다	raise	—
primitive	원시적인	undeveloped	advanced

내용 일치 노예 없이 유럽 자본주의 나라가 얻지 못했을 자원 = 금 · 은 · 면화 · 설탕 · 쪽 · 고무 ·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도 불가능(저자의 주장, '수사적인 말이 아니다') · 면화와 담배 = 19세기 내내 미국 수출의 적어도 25% ~ 많게는 65% · 1830년대 정점에 면화 하나 = 58% · 수출 대금으로 유럽(특히 영국)에서 기계와 기술 수입 · 영국 = 산업혁명기 직물 공장에 값싼 면화 · 노예 = 노동 + 자본의 원천(저자도 최근에야 앎) · 출처 = 사회학자 매슈 데스먼드(『뉴욕 타임스』) · 노예 담보 대출 → 거래 가능한 채권(ABS와 같음) → 영국과 유럽 금융가에게 팔림. **지칭** 29쪽 ¶3 these people =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 it(that it is today) = the US / ¶4 these crops · These two products = 면화와 담배, they(that they needed) = the US, which(in return) = Britain / ¶5 They(They were also) = enslaved Africans / 30쪽 첫 줄 These bonds = 노예 담보 대출을 묶은 채권.

> **한 줄 요약**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은 미국 수출의 큰 몫을 차지한 면화와 담배를 생산했을 뿐 아니라 담보 대출과 채권의 바탕이 된 자본의 원천이었기에, 저자는 그들 없이는 오늘의 미국 경제도 없었다고 말한다.

2-4 아이티 혁명과 루이지애나 매입 30쪽 ¶1~¶5

원문 위치 원서 30쪽 ¶1~¶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둘째 문장	made the US into a continental-sized country, although this was not done by the slaves in the US	요지 — 미국 밖의 노예가 일으킨 변화
★	¶2 첫 문장	In 1791 … St Domingue, today's Haiti	숫자 — 서답형 후보
★	¶2 첫 문장	Toussaint Louverture, a former slave himself	인물 — 서답형 1순위(동격 + 강조 재귀대명사)
▲	¶2 둘째 문장	shipped to France, where he died in captivity a year later	계속적 관계부사 where
★	¶2 셋째 문장	in 1804 … Jean-Jacques Dessalines, who had succeeded Louverture	숫자 · 인물 — 함정 Louverture ↔ Dessalines
▲	¶2 셋째 문장	with Jean-Jacques Dessalines … at the helm	with + O + 전치사구(부대상황)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넷째 문장	becoming the first country ever to do so in human history	내용 일치 1순위 — 노예제를 폐지한 첫 나라
▲	¶3 둘째 문장	ran away to what is today the US state of Louisiana	관계대명사 what
▲	¶3 넷째 문장	as well as better farm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taking Louisiana's sugar industry to another level	A as well as B / 결과 분사구문
★	¶3 다섯째 문장	Five decades later … a quarter of the world's cane-sugar supply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4 첫 문장	the most far-reaching – if totally unintended – impact	if = 비록 ~일지라도(양보)
◆	¶4 둘째 문장	The bloody nose that he got from the Haitian revolution	밑줄 의미 1순위: 쓰라린 패배
▲	¶4 둘째 문장	made Napoleon … decide to disengage from	사역 make + O + 원형
★	¶4 셋째 문장	named after Louis XIV, covered about one-third of current US territory	숫자 — 각주 v
◆	¶4 넷째 문장	offered to 'sell' all of Louisiana	밑줄 의미: 따옴표 = 과장(각주 vi)
★	¶5	US territory more or less doubled instantly	숫자 — 요약 후보

내용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은 미국 경제를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끝내 미국을 대륙만 한 나라로 만든 지정학적 재편도 일으켰다. 다만 이 일을 한 것은 미국의 노예들이 아니었다. 1791년 오늘날의 아이티인 생도맹그의 노예들이 프랑스인 사탕수수 농장주들에 맞서 들고일어났다. 그들을 이끈 것은 그 자신도 노예였던 투생 루베르튀르의 뛰어난 군사적 지도력이었다. 루베르튀르는 1802년 프랑스군에 붙잡혀 프랑스로 보내졌고, 이듬해 그곳에서 갇힌 채 죽었다. 그러나 1804년 생도맹그의 노예들은 마침내 프랑스인을 몰아내고 독립을 선언했다. 그때 지도자는 루베르튀르의 뒤를 이은 장자크 데살린이었다. 아이티는 나라를 세우자마자 노예제를 폐지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가 되었다. 아이티 혁명은 미국 경제에 곧바로 몇 가지 영향을 미쳤다. 반란이 시작되자 많은 프랑스인 사탕수수 농장주가 오늘날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인 곳으로 달아났다. 그곳은 당시 프랑스 영토였고 사탕수수를 기르기에도 아주 알맞았다. 그들은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에 능숙한 노예들, 그리고 더 나은 농업 · 가공 기술을 들여와 루이지애나의 설탕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50년 뒤 루이지애나는 세계 사탕수수 설탕 공급량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티 혁명의 가장 큰 파장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른바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이었다. 아이티 혁명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당시 프랑스의 통치자 나폴레옹은 아메리카, 특히 북아메리카의 프랑스 영토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당시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루이지안(Louisiane)이라 불린 이 영토는 지금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에 이르렀고, 대략 북서쪽의 몬태나에서 남동쪽의 루이지애나주까지 걸쳐 있었다. 미국은 그보다 몇 해 앞서부터 뉴올리언스 항구와 지금의 플로리다주를 사려고 프랑스와 협상해 오던 참이었다. 그런데 아메리카에서 물러나기로 한 나폴레옹이 루이지애나 전체를 미국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 영토는 순식간에 대략 두 배가 되었다.

어법

- They also sparked off the geopolitical realignment that eventually made the US into a continental-sized country, although this was not done by the slaves in the US : spark off = 촉발하다. that = realignment를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 make A into B = A를 B로 만들다. although + 수동태 this was not done by ~ = 그 일을 한 것은 ~가 아니었다.
- under the brilliant military leadership of Toussaint Louverture, a former slave himself : a former slave = Toussaint Louverture의 동격. himself =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그 자신도). 빼도 문장이 성립한다.
- Louverture was captured by the French in 1802 and shipped to France, where he died in captivity a year later : was captured와 (was) shipped가 and로 병렬(be 공유).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 and there). a year later = 그 이듬해.
- with Jean-Jacques Dessalines, who had succeeded Louverture as the leader, at the helm : with + O + 전치사구(at the helm) = O가 ~한 채로(부대상황). who had succeeded = 계속적 관계절, 과거완료(독립 선언보다 앞서 뒤를 이음). succeed = ~의 뒤를 잇다(타동사).
- Upon its foundation, Haiti abolished slavery, becoming the first country ever to do so in human history : upon + 명사 = ~하자마자. becoming ~ = 결과 분사구문. the first + 명사 + to V = ~한 최초의. do so = abolish slavery.
- a lot of French sugar plantation owners ran away to what is today the US state of Louisiana :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the place which), to의 목적어. what절 안에서 what이 주어 → is. 변형 → to which is today 는 오답.
- But the most far-reaching – if totally unintended – impact of the Haitian revolution was the so-called Louisiana Purchase of 1803 : if + 형용사 = 비록 ~이긴 하지만(= though it was totally unintended). 주어 impact(단수) → was. so-called = 이른바.
- The bloody nose that he got from the Haitian revolution made Napoleon, the then ruler of France, decide to disengage from the Americas : 사역동사 make + O + 원형(decide). he는 뒤에 나오는 Napoleon을 먼저 가리킨다. the then ruler of France = Napoleon의 동격. disengage from = ~에서 손을 떼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park off	촉발하다	trigger	—
realignment	재편	restructuring	—
captivity	갇힌 상태	imprisonment	freedom
expel	몰아내다	drive out	admit
at the helm	지휘하는, 이끄는	in charge	—
abolish	폐지하다	end	establish
far-reaching	광범위한	sweeping	limited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accidental	deliberate
disengage from	~에서 손을 떼다	withdraw from	engage in
span (v.)	~에 걸치다	extend over	—
negotiate	협상하다	bargain	—
quit	떠나다, 그만두다	leave	remain in
instantly	순식간에	immediately	gradually

내용 일치 지정학적 재편을 일으킨 것 = 미국 '밖'의 노예들 · 1791 생도맹그(오늘날 아이티) 봉기 · 지도자 투생 루베르튀르(그 자신도 노예 출신) · 1802 체포 → 이듬해 프랑스에서 갇힌 채 죽음 · 1804 독립 선언 · 그때 지도자 = 데살린 · 아이티 = 인류 역사상 노예제를 폐지한 첫 나라 · 달아난 농장주 → 루이지애나(당시 프랑스 영토) · 50년 뒤 세계 사탕수수 설탕의 4분의 1 · 1803 루이지애나 매입(의도하지 않은 결과) · 루이 14세 → Louisiane ·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 · 원래 협상 = 뉴올리언스 항구와 플로리다 · 영토가 대략 두 배. **밑줄 의미** The bloody nose = 아이티에서 당한 쓰라린 패배 / 'sell' = 따옴표는 과장 표시 — 프랑스는 몇몇 지역 말고는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고, 판 것은 프랑스의 간섭 없이 원주민을 몰아낼 권리였다(33쪽 각주 vi, 저자의 해석) / if totally unintended =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 ¶4 he(that he got) = Napoleon.

> **한 줄 요약** 미국 밖 생도맹그의 노예들이 일으킨 아이티 혁명은 루이지애나의 설탕 산업을 키웠고, 쓰라린 패배를 맛본 나폴레옹이 루이지애나를 내놓게 해 미국 영토를 순식간에 두 배로 만들었다.

2-5 대륙 국가의 그늘, 노예제의 끝과 계약 노동 31쪽 첫 줄 ~ ¶4

원문 위치 원서 31쪽 첫 줄 ~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1쪽 첫 줄 첫~둘째 문장	mining … breadbasket, thanks to the huge tracts of the fertile, flat land	내용 일치 — 광업 → 곡창 지대
▲	31쪽 첫 줄 둘째 문장	as the century progressed and more and more European settlers moved	진행의 as / 비교급 and 비교급
★	31쪽 첫 줄 셋째~넷째 문장	caused untold misery among Native Americans … driven off their ancestral lands	요지 — 정착의 그늘
▲	31쪽 첫 줄 다섯째 문장	'reservations', where they suffered	계속적 관계부사 where
◆	¶1 첫 문장	the stepping stone for the US to reach the Pacific	밑줄 의미: 서쪽 확장의 발판 / to부정사 의미상 주어
★	¶1 둘째 문장	the Oregon Territory from the British in 1846 and the war with Mexico (1846–8)	숫자 — 각주 vii · viii
▲	¶1 둘째 문장	after which Mexico was forced to sell one-third of its territory	전치사 + which / be forced to V
▲	¶2 첫 문장	without the revolt by the enslaved Haitians, France would not have quit	가정법 과거완료(Without)
★	¶2 둘째 문장	occupying the eastern third of its territory today	요약 후보 — 동쪽 3분의 1
◆	¶2 셋째 문장	It is not clear whether a country of that size could have become	저자의 유보 — 단정 금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 둘째 문장	In 1862 … Lincoln declared the emancipation … once the North won the war in 1865	숫자 — 1862 선언 · 1865 법
★	¶3 셋째 문장	The British Empire had already ended slavery in 1833	서답형 True/False 후보(미국보다 먼저)
▲	¶3 셋째 문장	hadn't prevented its factories and banks from profiting from	prevent + O + from -ing
★	¶3 넷째 문장	In 1888, slavery ended in Brazil	숫자
★	¶4 둘째 문장	Around 1.5 million Indians, Chinese and even Japanese	숫자 — 불일치 후보
★	¶4 넷째 · 여섯째 문장	contract periods (3–10 years) / until the British Empire abolished indentured labour in 1917	숫자 — 서답형 1순위(1917)

내용

처음에 새 영토의 주된 일은 광업이었다. 그러나 세기가 흐르고 농사를 지으려는 유럽 정착민이 점점 더 많이 옮겨 오면서, 그 영토는 넓게 펼쳐진 비옥하고 평평한 땅 덕분에 미국의(그리고 나머지 세계의) 곡창 지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정착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났다. 많은 이가 결국 '보호구역'에 들어가 가난과 소외를 겪었고, 다른 많은 이는 그곳에 이르기도 전에 무력과 가난과 질병으로 죽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그 뒤 미국이 태평양에 이르는 디딤돌이 되었다. 미국의 끊임없는 서쪽 확장은 1846년 영국으로부터 오리건 지역(Oregon Territory)을 사들이고 멕시코와 전쟁(1846~1848)을 치르면서 마무리되었다. 전쟁 뒤 멕시코는 영토의 3분의 1을 헐값에 팔아야 했다. 그러니 아이티 노예들의 반란이 없었다면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영토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미국은 큰 나라이기는 해도 대륙만 한 나라는 아니어서, 오늘날 영토의 동쪽 3분의 1만 차지했을 것이다. 그만한 크기의 나라가 지금과 같은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대륙만 한 나라가 된 지 이십 년쯤 뒤였다. 1862년 남북전쟁의 중대한 고비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이것은 1865년 북부가 전쟁에서 이기자 나라 전체의 법이 되었다. 대영제국은 이미 1833년에 노예제를 끝냈지만, 그렇다고 영국의 공장과 은행이 미국의 노예가 생산한 면화와 노예 담보 대출로 만든 채권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또 하나의 큰 노예 경제였던 브라질에서는 1888년에 노예제가 끝났다. 그러나 주요 노예 경제에서 노예제가 끝났다고 자유롭지 못한 노동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약 150만 명의 인도인 ·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까지 해방된 노예를 대신해 일하려고 계약 노동자로 해외로 떠났다. 계약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었다. 그러나 계약 기간(3~10년) 동안 직업을 바꿀 자유가 없었고 권리도 아주 적었다. 게다가 많은 이가 노예들이 겪던 것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했고, 많은 이가 말 그대로 옛 노예 막사에서 지냈다. 브라질과 페루의 일본계 200만여 명,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 곳곳의 중국계 · 인도계 공동체, 남아프리카 · 모리셔스 · 피지 같은 곳의 인도계 후손 대부분은,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자유롭지 못한 노동을 이어 간 이 대규모 국제 계약 노동의 결과다. 이 계약 노동은 1917년 대영제국이 폐지하고서야 끝났다.

어법

- as the century progressed and more and more European settlers moved to start farming, the territory turned into the country's (and the rest of the world's) breadbasket, thanks to the huge tracts of the fertile, flat land that it contained : as = ~함에 따라(진행). more and more = 비교급 and 비교급(점점 더 많은). turn into = ~로 바뀌다. thanks to = ~ 덕분에. that it contained = 목적격 관계절, it = the territory.

- **Many of them ended up in 'reservations', where they suffered poverty and marginalization** : end up in = 결국 ~에 이르다.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 and there). they = Native Americans.
- **Many others perished through armed violence, poverty and disease before they even got there** : Many others = 다른 많은 원주민(Many of them과 대비). before they even got there = 그곳(보호구역)에 이르기도 전에. even이 강조.
- **The Louisiana Purchase subsequently became the stepping stone for the US to reach the Pacific** : for + 목적격 + to V =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태평양에 이르는 것은 the US). to reach = stepping stone을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
- **the war with Mexico (1846–8), after which Mexico was forced to sell one-third of its territory at a knockdown price** : after which = 전치사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war). be forced to V = 어쩔 수 없이 ~하다. at a knockdown price = 헐값에.
- **So, without the revolt by the enslaved Haitians, France would not have quit its North American territory. This would have meant that the US would have been a big but not a continental-size country** : without ~ = ~이 없었다면, would not have p.p. = 가정법 과거완료. This = 프랑스가 물러나지 않았을 상황. big과 not a continental-size가 but으로 이어져 country를 함께 꾸민다.
- **It is not clear whether a country of that size could have become the global superpower that it has become** : 가주어 It – 진주어 whether절(~인지 아닌지). could have p.p. = 과거에 대한 가능성 추측. that it has become = 보어 자리의 관계대명사, 현재완료(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
- **The British Empire had already ended slavery in 1833, although that hadn't prevented its factories and banks from profiting from slave-produced cotton** : had already ended = 과거완료(미국의 1865년보다 앞섬). prevent + O + from -ing = O가 ~하지 못하게 막다. that = 노예제를 끝낸 일. slave-produced = 노예가 생산한(명사-과거분사 복합 형용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readbasket	곡창 지대	granary	—
fertile	비옥한	productive	barren
untold	이루 말할 수 없는	immense	—
ancestral	조상 대대로의	inherited	—
marginalization	소외	exclusion	inclusion
stepping stone	디딤돌	springboard	obstacle
knockdown price	헐값	bargain price	—
juncture	(중대한) 시점, 고비	point	—
emancipation	해방	liberation	enslavement
indentured	계약에 묶인	bonded	free
minimal	아주 적은	slight	maximal
barracks	막사	quarters	—
abolition	폐지	ending	establishment

내용 일치 처음 = 광업 → 유럽 정착민의 농사 → 곡창 지대(비옥하고 평평한 땅) · 원주민 = 땅에서 쫓겨남 · 보호구역의 가난과 소외 · 도착 전 죽음 · 태평양까지의 디딤돌 = 루이지애나 매입 · 1846 오리건 지역(영국으로부터 매입) · 멕시코 전쟁 1846~1848 → 영토 3분의 1을 헐값에 · 반란이 없었다면 동쪽 3분의 1(저자의 가정) · 초강대국이 되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

1862 링컨의 해방 선언 → 1865 북부 승리로 전국의 법 · 대영제국 1833(미국보다 먼저) · 브라질 1888 · 계약 노동자 약 150만(인도 · 중국 · 일본) · 계약 3~10년 · 직업 바꿀 자유 없음 · 옛 노예 막사 · 일본계 200만여 명(브라질 · 페루) · 1917 대영제국이 계약 노동 폐지. **지칭** 31쪽 첫 줄 it(that it contained) = the territory, They(were driven off) = Native Americans, there(got there) = reservations / ¶1 Its(continuous westward movement) = the US의 / ¶2 This(would have meant) =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 남았을 상황, a country of that size = 동쪽 3분의 1만 차지한 미국 / ¶3 that(that hadn't prevented) = 대영제국의 노예제 폐지 / ¶4 they(had no freedom) = indentured labourers.

> **한 줄 요약**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대륙 국가가 된 미국에서 원주민은 땅을 잃었고, 노예제는 1833년(대영제국) · 1865년(미국) · 1888년(브라질)에 끝났지만 자유롭지 못한 노동은 1917년까지 계약 노동으로 이어졌다.

2-6 자유의 언어, 좁은 자유와 더 인간적인 자본주의 32쪽 첫 줄 ~ 3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32쪽 첫 줄 ~ 3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2쪽 첫 줄 첫 문장	defended capitalism using the language of freedom	요지 — 자유의 언어
★	32쪽 첫 줄 셋째 문장	Milton Friedman … and his wife Rose Friedman is Free to Choose	인물 · 책 — 내용 일치 후보
★	32쪽 첫 줄 넷째 문장	Heritage Foundation's Index of Economic Freedom and Cato Institute's	고유명사 — 경제 자유 지수 두 가지
◆	¶1 첫 문장	The freedom that free-market advocates value is, however, a very narrow one	빈칸 1순위 / one = freedom
▲	¶1 둘째 문장	freedom for businesses to produce and sell what they find most profitable	for + 의미상 주어 + to V / find + O(what) + 보어
▲	¶1 셋째 문장	have no hesitation in putting the latter first	have no hesitation in -ing / the latter = economic freedom
★	¶1 넷째 문장	openly supported the murderous military dictatorship of General Pinochet	내용 일치 — 프리드먼 · 하이에크
★	¶1 다섯째 문장	Salvador Allende … killed in the military coup of 1973	숫자 — 각주 ix · x
◆	¶1 다섯째 문장	(they weren't that socialist, but that is another story)	저자의 단서 — 따옴표 친 'socialist'
▲	¶2 둘째 문장	Economic freedoms of other people that may clash with … are at best ignored	긴 주어 + 복수 동사 are / at best ~ at worst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셋째 문장	their unfreedom had to be enforced through violence and even a war	어휘 · 밑줄 후보 / so that + 목적
★	¶3 첫 문장	capitalism has become more humane only because we have restricted	주장 1순위 · 통합 사고
◆	¶3 첫 문장	should be sacrosanct	밑줄 의미: 손댈 수 없는 신성한 것
▲	¶3 둘째 문장	should they clash with the latter	if 생략 도치(should + S + V)
◆	33쪽 첫 줄	unlike in the story of unalloyed freedom	요지 · 밑줄 의미
▲	33쪽 첫 줄 마지막 문장	Only when we understand ..., can we begin to	Only + 부사절 → 주절 도치

내용

자유시장 열성 지지자들은 흔히 자유의 언어로 자본주의를 옹호해 왔다. 미국인들은 '자유 기업' 체제를 지녔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자유시장의 대가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아내 로즈 프리드먼이 쓴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의 제목은『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다. 대표적인 자유시장 싱크탱크들은 정기적으로 경제 자유 지수를 펴내는데,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지수'와 케이토 연구소의 '세계 경제 자유 지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중시하는 자유는 매우 좁은 것이다. 첫째, 그것은 경제 영역의 자유, 곧 기업이 가장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을 생산하고 팔 자유, 노동자가 직업을 고를 자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살 자유다. 정치적 · 사회적 자유 같은 다른 자유가 경제적 자유와 부딪치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서슴없이 경제적 자유를 앞세운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칠레의 피노체트 장군이 이끈 살인적인 군사 독재를 공공연히 지지했다. 그들은 이른바 '시카고 보이스'가 실행한 피노체트 치하의 자유시장 정책을, 1973년 군사 쿠데타 때 목숨을 잃은 선출된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책에 맞서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보았다(저자는 그 정책이 그렇게 사회주의적이지는 않았다고 덧붙인다). 게다가 이 좁은 경제적 자유 개념 안에서도, 프리드먼이나 헤리티지 재단 같은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자유는 재산 소유자(자본가 · 지주 등)가 자기 재산을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쓸 자유다.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와 부딪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 곧 노동자가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할 자유나 튼튼한 복지국가가 실업자에게 주는, 새 일자리를 조금 더 가려 고를 자유는 좋게 보아야 무시되고 나쁘게는 역효과를 낸다고 비난받는다. 더 나쁜 것은,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처럼 어떤 사람들이 '재산'으로 정의되면 그들의 '주인'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자유를 폭력, 심지어 전쟁으로 강제해야 했다는 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지난 150년 동안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으로 된 것은 오로지,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신성불가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사회는 정치적 · 사회적 자유가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와 부딪칠 때 앞의 자유를 지키는 제도, 곧 민주적 헌법 · 인권법 · 평화 시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도입했다. 우리는 수많은 법으로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 왔다. 노예제와 계약 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복지국가를 세우고, 오염시킬 자유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요리에서 오크라가 재료를 한데 묶듯, 이 장의 오크라 이야기는 자본주의 아래 경제적 자유와 다른 자유, 그리고 부자유가 얽힌 이야기들을 한데 묶는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 아메리카 원주민, 계약 노동을 한 아시아인, 노예와 계약 노동자를 부린 유럽인 농장주, 북아메리카의 유럽인 정착 농민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와 자유의 관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들려주는 '순수한 자유'의 이야기와 달리 복잡하고 갈등에 차 있으며 때로는 모순되기까지 했음을 보여 준다. 이 관계의 복잡함을 더 잘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인 체제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어법

- **The freedom that free-market advocates value is, however, a very narrow one** : 주어 The freedom + 목적격 관계절(that ~ value) + 동사 is. however = 삽입. one = freedom(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 **freedom for businesses to produce and sell what they find most profitable**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produce · sell의 목적어). what절 안은 they find (it) most profitable의 find + O + 보어 구조에서 목적어가 what으로 앞에 나간 것.
- **If other freedoms – political or social freedoms – clash with economic freedom, free-market economists have no hesitation in putting the latter first** : 대시 사이 = other freedoms를 풀어 쓴 동격. have no hesitation in -ing = 서슴없이 ~하다. the latter = 뒤의 것(economic freedom).
- **Economic freedoms of other people that may clash with proprietors' economic freedom – ... – are at best ignored and at worst denounced as counter-productive** : 주어 Economic freedoms(복수) + 관계절 + 대시 사이 예시 → 동사 are. at best ~ at worst ~ = 좋게 보아야 ~, 나쁘게는 ~. denounce A as B = A를 B라고 비난하다(여기서는 수동).
- **their unfreedom had to be enforced through violence and even a war, so that their 'owners' could freely exercise their property rights** : had to be p.p. = ~되어야 했다(수동). so that + S + could = ~할 수 있도록(목적). 따옴표 'owners' = 사람을 소유했다는 말에 거리를 둔 표시.
- **capitalism has become more humane only because we have restricted the economic freedom of property owners that free-market advocates of capitalism think should be sacrosanct** : only because = 오로지 ~ 때문에. that = should be의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그 사이에 advocates think가 끼어든 구조(advocates think (that) it should be sacrosanct). 변형 → that ... think it should be는 오답.
- **Society has introduced institutions that protect political and social freedoms against economic freedom of property owners, should they clash with the latter** : should they clash = if they should clash에서 if를 생략한 도치. they = political and social freedoms, the latter = economic freedom of property owners.
- **Only when we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is relationship better, can we begin to understand what to do in order to make capitalism a more humane system** : Only + 부사절(when ~)을 문두에 두면 주절이 도치 → can we begin. what to do = 의문사 + to부정사(무엇을 해야 할지). in order to = 목적.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nthusiast	열성 지지자	devotee	critic
guru	대가, 권위자	authority	novice
advocate (n.)	옹호자	supporter	opponent
hesitation	망설임	reluctance	readiness
murderous	살인적인	brutal	—
dictatorship	독재	tyranny	democracy
coup	쿠데타	overthrow	—
proprietor	소유자	owner	—
collective action	집단행동	joint action	—
denounce	비난하다	condemn	praise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self-defeating	beneficial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acrosanct	신성불가침의	inviolable	—
humane	인간적인	compassionate	inhumane
unalloyed	순수한, 섞이지 않은	pure	mixed

내용 일치 자유의 언어 · 미국 = '자유 기업' 체제 · 『선택할 자유』 = 밀턴 프리드먼과 아내 로즈 프리드먼 · 경제 자유 지수 = 헤리티지 재단 / 케이토 연구소 · 자유시장 옹호자의 자유 = 매우 좁음(경제 영역) · 다른 자유와 부딪치면 경제적 자유를 앞세움 · 피노체트 군사 독재를 공공연히 지지 =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 시카고 보이스 = 시카고 대학에서 훈련받은 자유시장 경제학자(33쪽 각주 ix) · 아옌데 = 선출된 대통령, 1973년 쿠데타 때 죽음 · 가장 중시하는 자유 = 재산 소유자의 자유 · 더 인간적이 된 까닭 = 소유자의 자유를 제한(저자의 주장) · 제도 = 민주적 헌법 · 인권법 · 평화 시위의 법적 보호 · 법 = 노예제 · 계약 노동 금지, 파업권 보호, 복지국가, 오염시킬 자유 제한. **밑줄 의미** a very narrow one = 경제 영역에, 그것도 재산 소유자의 자유에 한정된 자유 / sacrosanct = 손댈 수 없는 신성한 것 / unalloyed freedom = 갈등도 모순도 없는 순수한 자유라는 이야기 / binds = 오크라가 재료를 묶듯 여러 이야기를 묶음 / ¶1 the latter = economic freedom, ¶3 they = political and social freedoms.

> **한 줄 요약**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자유의 언어로 자본주의를 옹호하지만 그 자유는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로 좁혀져 있으며, 저자는 자본주의가 그 자유를 제한해 온 덕분에 더 인간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2 OKRA]

범위	Okra (원서 PDF 28~33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ree-market defenders treat owners' economic freedom as something holy and untouchable. Yet over roughly the past hundred and fifty years, capitalism has grown kinder for one reason: we have put limits on exactly that freedom. Societies built constitutions based on democracy, laws guarding human rights, and legal shelter for peaceful protesters, so that political and social freedoms could win out when they collided with owners' rights. Through countless laws, we also outlawed slavery and indentured labour, protected the right to strike, set up the welfare state, and narrowed the freedom to pollute.

① Owners' freedom must always come first.
② Curbing owners' freedom humanized capitalism.
③ The welfare state has weakened capitalism.
④ Political freedom grows out of economic freedom.
⑤ Laws against pollution hurt worker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nslaved Africans gave America more than unpaid labour: they served as a major source of capital as well, as the author only recently learned. Writing in The New York Times on slavery's legacy, the sociologist Matthew Desmond notes that enslaved people served as security for loans centuries before home mortgages existed; in colonial days, when land had little value, most lending rested on human property. These mortgages on slaves were bundled into tradable bonds, much like today's asset-backed securities, and sold to European financiers, helping the US raise capital worldwide and build a global financial industry.

① Human Collateral: Slavery and American Finance
② Why Land Was the Safest Loan
③ The Fall of Britain's Banks
④ Home Mortgages: A Modern Invention
⑤ How Unpaid Labour Ruined the Colonies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Just as okra binds the ingredients of a stew, its story binds many tangled tales of freedom and unfreedom under capitalism: those of Africans in slavery and their heirs, of Native Americans, of Asian contract workers, of European planters, and of European farmers who settled North America. These tales show that capitalism and freedom have had a complex, conflict-ridden and at times contradictory relationship, unlike the tale of pure freedom told by free-market champions. Only by grasping this complexity can we learn how to make capitalism more humane.

① The complex link between capitalism and freedom must be understood.
② Capitalism has always widened freedom.
③ Okra is the key ingredient of Southern cooking.
④ Asian workers suffered more than African slaves.
⑤ Free-market advocates tell the story right.

4. 밑줄 친 <u>The name is a giveaway</u>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kra belongs to a famous plant family, Malvaceae, along with durian, hibiscus, cacao and cotton. It most likely first grew in North-eastern Africa, though a serious rival theory points to India and South-east Asia. Under the leading theory, it spread from there north, east and west, but Korea, sadly, was left out. It reached the Americas with enslaved Africans, along with rice, peanuts, sesame and watermelon. <u>The name is a giveaway</u>. 'Okra' derives from Igbo, a major language of present-day Nigeria, and 'gumbo', its other American name, comes from tongues spoken in Central and South-eastern parts of Africa.

① The name hides an Asian origin.
② It was named after its importer.
③ Its names reveal its African roots.
④ It was given to Korea as a gift.
⑤ Americans chose an exotic-sounding name.

5. 밑줄 친 a bloody no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Haitian revolution also had a consequence that reached much further, though nobody planned it: what became known as the Louisiana Purchase in 1803. Having received a bloody nose in Haiti, Napoleon, who then ruled France, chose to pull out of the Americas, above all from France's lands in North America. That territory, called Louisiane at the time after Louis XIV, made up roughly a third of the present-day US, stretching approximately from Montana, at its north-western end, to the state of Louisiana, at its south-eastern end. For a few years the US had been trying to buy only New Orleans and the area that is now Florida. Once Napoleon resolved to leave, however, he offered to 'sell' the whole of Louisiana, and US territory roughly doubled overnight.

① a minor wound he received in a battle in Louisiana
② an agreement that made Haiti part of the US
③ a financial gain that let him buy more land
④ a painful defeat that made him give up on the Americas
⑤ a quarrel with the US over New Orlean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Enslaved Africans did more than build the American economy; they also triggered changes that would one day make the US a continent-sized country, though the slaves responsible were not in the US. In 1791, slaves in St Domingue, now Haiti, rebelled against their French sugar masters. Leading the revolt was Toussaint Louverture, a brilliant military commander who had once been a slave ① himself. In 1802 the French captured ② him and shipped ③ him to France, and a year later ④ he died there as a prisoner. Even so, in 1804 the rebels drove the French out and proclaimed independence. Jean-Jacques Dessalines had by then taken over the leadership, and under ⑤ his command the new nation of Haiti became the first in human history to abolish slavery.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Everyone knows that enslaved Africans were whipped and tortured on American plantations to grow cotton and tobacco. Far fewer people realize how much those two crops mattered to the national economy. Throughout the 1800s, the pair made up anywhere from 25% to 65% of everything the US exported, and when cotton was at its peak in the 1830s, it accounted by itself for 58% of exports. The money earned from these sales allowed the US to buy machines and technologies from European countries that were richer at the time, Britain above all. Britain, in turn, gained a huge supply of cheap cotton to keep its textile factories running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① 면화와 담배는 19세기 내내 미국 수출의 25% 미만을 차지했다.
② 1830년대에 면화 하나가 미국 수출의 65%를 차지했다.
③ 미국은 수출 대금으로 영국 등 유럽에서 기계와 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다.
④ 당시 미국은 유럽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다.
⑤ 영국은 미국에 값싼 면화를 팔아 산업혁명의 자금을 마련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biggest slave economies did not put an end to unfree work. During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about 1.5 million people from India, China and even Japan went overseas as indentured labourers to replace the freed slaves. They were not slaves. Yet while their contracts lasted, usually three to ten years, they could not switch jobs and had very few rights. Many laboured in conditions much like those slaves had endured, and many actually lived in old slave barracks. This system kept unfree labour alive for decades after slavery ended, and it lasted until the British Empire banned indentured labour in 1917.

①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자유롭지 못한 노동은 이어졌다.
② 약 150만 명의 인도인 · 중국인 · 일본인이 계약 노동자로 해외로 나갔다.
③ 계약 노동자는 계약 기간에 직업을 바꿀 자유가 없었다.
④ 계약 노동자 가운데 많은 이가 옛 노예 막사에서 지냈다.
⑤ 계약 노동은 대영제국이 1833년에 폐지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author first tasted okra about two years after he ① arrived in Britain in 1986, in a South Asian dish called bhindi bhaji. The menu, wanting to help diners who were not South Asian, ② translated its name for them into 'sautéed lady finger.' There were several vegetables he had never eaten before he came to Britain but knew about from books and films, such as broccoli and turnip. Okra, however, was a name ③ completely new to him. Because the vegetable had been chopped up, he could not see why it ④ calling 'lady finger,' and he found its slimy texture, ⑤ which he later learned is technically called 'mucilaginous,' a little hard to handl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Haitian revolution affected the American economy almost immediately. Once the revolt broke out, many French sugar planters escaped to (A) [what / which] is now the state of Louisiana. The region belonged to France at the time, and its land was ideal for sugar cultivation. The planters brought along enslaved workers (B) [skilled / skilling] in growing and processing sugar cane, together with improved methods of farming and processing, (C) [raising / raised] the sugar industry of Louisiana to a whole new level. The results were remarkable. Fifty years later, Louisiana was supplying a quarter of all the cane sugar produced in the world.

	(A)	(B)	(C)
①	which	skilled	raised
②	what	skilling	raising
③	what	skilled	raising
④	which	skilling	raising
⑤	what	skilled	rais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Even inside their ① narrow idea of economic freedom, thinkers such as Friedman and organizations like the Heritage Foundation prize one freedom above the rest: the freedom of property owners, such as capitalists and landlords, to use what they own for the greatest ② profit. Other people's economic freedoms that might ③ conflict with this—workers' freedom to act together, as in a strike, or the freedom that generous welfare provision gives the jobless to be somewhat ④ choosier about new positions—are at best overlooked and at worst condemned as harmful. Worse still, when human beings were classed as property, as enslaved Africans were, their lack of freedom had to be imposed by violence and even war in order that their 'owners' could ⑤ surrender their property rights freely.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upporters of the free market have long defended capitalism in the vocabulary of freedom. Americans boast of their 'free enterprise' system, Milton and Rose Friedman titled their most influential book Free to Choose, and leading think-tanks such as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Cato Institute regularly issue economic freedom indexes. Yet the freedom these advocates cherish is _____. It means, first, freedom within the economic sphere: for businesses to make and sell whatever pays best, for workers to pick their jobs, and for shoppers to purchase what they like. Whenever freedoms of a political or social kind clash with it, free-market economists put economic freedom first without hesitation. That is why Friedman and Hayek openly backed General Pinochet's murderous military dictatorship in Chile.

① shared equally by all
② a very limited one
③ mainly political and social
④ impossible to measure
⑤ hostile to busines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Of all these captives, no fewer than 2 million died in the course of being enslaved.

Africans began to be enslaved on an industrial scale once Europeans took over the New World. (①) The Europeans had almost destroyed the native peoples there, through mass killing and the diseases they brought, so they urgently needed cheap workers to replace them. (②) Slave traders seized more than 12 million Africans. (③) They died during capture and imprisonment in Africa, on the horrific Atlantic voyage known as the Middle Passage, and in the so-called 'seasoning camps' of the Americas, where captives were beaten into obedience before being sold. (④) Without these people and their descendants, Europe's capitalist nations could never have obtained the cheap gold, silver, cotton, sugar and rubber that fed their factories and banks. (⑤) In particular, the US would never have grown into the economic superpower it is today.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t first, the main business in the newly acquired territory was mining. ① But as growing numbers of European farmers settled there, its vast flat, fertile lands turned it into a breadbasket for the US and the world. ② This settlement, however, brought untold suffering to Native Americans, who were pushed off the lands of their ancestors. ③ Many were confined to 'reservations' and lived in poverty on the margins of society, while many others died from violence, disease and poverty before even reaching them. ④ The word 'okra' itself was taken from Igbo, a leading language of present-day Nigeria. ⑤ In time, the Louisiana Purchase became the stepping stone that let the US reach the Pacific, a march completed by buying the Oregon Territory from Britain in 1846 and by the war with Mexico.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ater on, the author ate far better versions of bhindi bhaji, cooked less, spiced better and not so slimy, and he enjoyed okra tempura in Japan and chicken with okra in Brazil. He came to like okra, though it never became a favourite.

(A) There he tasted gumbo for the first time, a Southern soup or stew built around okra, rich in flavour and gooey in texture. In the US, okra itself is often called gumbo or gombo.

(B) Then everything changed on a visit to a restaurant serving Southern food in Washington, DC.

(C) Several years ago, he cooked a dish with okra for the first and so far only time: a succotash from a Southern cookbook. What amazed him was not his own skill but the gooeyness okra brought. The very sliminess that had put him off at first proved to be the magic that gave the dish its smooth, comforting qualit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magine the story without the revolt of Haiti's enslaved people. In the author's view, France would then have kept its territory in North America instead of abandoning it. That, in turn, would have left the US a large country but not a continental one, filling only the eastern third of the land it covers today. Would a nation of that size have been able to rise to the position of global superpower it holds now? The author admits that nobody can say for sure. What seems clear is that a revolt by slaves outside the US helped decide how big the US would become.

→ In the author's view, if the enslaved people of Haiti had not (A) _____, the US would have remained much (B) _____, and it is uncertain whether it could have become a global superpower.

① surrendered ..... larger
② revolted ..... richer
③ surrendered ..... smaller
④ revolted ..... smaller
⑤ migrated ..... larger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The author arrived in Britain in 1986 and first tried okra there about two years later. The word 'okra' comes from Igbo, a language of present-day Nigeria. Slave traders seized over 12 million Africans, and at least 2 million of them died. Cotton and tobacco accounted for between 25% and 65% of American exports in the 1800s, and in the 1830s, cotton by itself made up 58%. In 1791, St Domingue's slaves rose up under Toussaint Louverture, and in 1804, led by Jean-Jacques Dessalines, they declared independence. The British Empire ended slavery in 1833, decades before slavery was abolished across the US in 1865. Indentured labour, which took the place of slave labour, lasted until 1917, when the British Empire abolished it.

<QUIZ>

(1) In what year did the author arrive in Britain?
Answer for (1): _____

(2) From which language does the word "okra" come?
Answer for (2): _____

(3) How many Africans were seized by slave traders?
Answer for (3): _____

(4) What share of US exports did cotton alone make up in the 1830s?
Answer for (4): _____

(5) Who led the uprising that began in St Domingue in 1791?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British Empire ended slavery after the US did?
Answer for (6): _____

(7) In what year did the British Empire abolish indentured labour?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833	N. Matthew Desmond
B. over 12 million	O. 1865
C. 2 million	P. Milton Friedman
D. Dessalines	Q. Japanese
E. 58%	R. Louverture
F. 25%	S. 1791
G. Napoleon	T. False
H. 1888	U. True
I. Igbo	V. 1803
J. 1.5 million	W. 1846
K. 65%	X. French
L. 1986	Y. 1917
M. 1804	Z. 1973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영국에 오기 전 먹어 본 적은 없지만 책과 영화로 있는 줄은 알던 채소가 몇 가지 있었다. (관계대명사 that · whose 병렬 / 과거완료)

02 나는 그 끈적한 질감이 다루기에 조금 어렵다고 느꼈다. (find + O + 형용사 + to V)

03 처음 만남을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 성질이 요리를 부드럽게 만든 마법 같은 특성으로 드러났다. (turn out to be / 과거완료 관계절)

04 원주민을 거의 쓸어버린 뒤, 그들은 대신할 일꾼이 절실히 필요했다. (완료 분사구문 Having p.p.)

05 이 노예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오늘날의 경제 초강대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Without ~ + 가정법 과거완료)

06 이 작물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간접의문문 how + 형용사 + S + V)

07 이 채권은 유럽 금융가들에게 팔려, 미국이 세계 규모로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결과 분사구문 + enable O to V)

08 아이티는 노예제를 폐지해,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한 첫 나라가 되었다. (결과 분사구문 + the first ~ to V)

09 아이티 혁명에서 당한 쓰라린 패배는 나폴레옹이 아메리카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하게 했다. (사역 make + O + 원형)

10 그만한 크기의 나라가 지금과 같은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주어 It + whether절 / could have p.p.)

11 대영제국은 이미 1833년에 노예제를 끝냈지만, 그것이 영국의 공장들이 노예가 생산한 면화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과거완료 / prevent + O + from -ing)

12 이 관계의 복잡함을 더 잘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Only + 부사절 → 도치)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가 영국에 온 해 / 오크라를 처음 먹은 곳	
메뉴판의 번역 / 끈적한 질감의 전문 용어	
오크라 튀김을 먹은 나라 / 프랑구 콩 키아부의 나라	
첫 검보를 먹은 도시 / 저자가 만든 유일한 오크라 요리	
오크라가 속한 과(科) / 같은 과의 식물	
오크라의 기원(지배적 이론) / 경쟁 이론	
'okra'의 어원 / 'gumbo'의 어원	
노예로 붙잡힌 아프리카인 /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	
면화와 담배의 미국 수출 비중(19세기) / 1830년대 면화 하나	
노예 담보 대출을 다룬 사회학자 / 실린 신문	
생도맹그 봉기의 해 / 지도자	
루베르튀르가 붙잡힌 해 / 아이티 독립의 해와 지도자	
50년 뒤 루이지애나의 설탕 생산	
루이지애나 매입의 해 / 팔겠다고 한 사람	
Louisiane라는 이름의 유래 / 미국 영토 대비 넓이 / 매입 뒤 미국 영토	

항목	답
오리건 지역 매입 / 멕시코 전쟁	
링컨의 해방 선언 / 전국의 법이 된 해	
대영제국의 노예제 폐지 / 브라질의 노예제 폐지	
계약 노동자 수 / 계약 기간 / 계약 노동 폐지	
『Free to Choose』의 저자 / 경제 자유 지수를 펴내는 곳	
피노체트를 지지한 경제학자 / 쿠데타의 해와 죽은 대통령	

4-3. 통합 사고 문제 — 1장과 2장을 잇는 자리

문제

1장에서 저자는 한국 정부가 젊은이들을 과학 · 공학으로 이끌려고 인문 · 사회과학 계열의 대학 정원과 예산을 일부러 제한했고(25쪽 ¶5), 생산자에게 대출을 최대한 몰아주려고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26쪽 ¶3)고 썼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 행동과 나라의 경제 성과를 정하는 데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고 결론짓는다(26쪽 ¶5). 2장에서 저자는 지난 150년 동안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이 된 것은 오로지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32쪽 ¶3). 두 장의 이 대목에 공통으로 쓰인 영어 동사 한 단어를 쓰고, 경제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문화나 시장의 본성이 아니라 사회가 고른 정책과 법이라는 두 장의 공통된 생각을 보여 주는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장 또는 2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두 장에 공통으로 쓰인 동사: Over the last century and a half, capitalism has become more humane only because we have _____ the economic freedom of property owner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3 COCONUT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oconut」 (원서 PDF 34~38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5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한가."

이 장은 피냐 콜라다 이야기로 시작한다. 1986년 영국에 오기 전까지 코코넛을 본 적도 없던 저자는 1990년대 후반 칸쿤에서 처음 맛본 피냐 콜라다를 계기로 코코넛 밀크 요리에 빠져든다. 쓰임새가 많은 코코넛은 열대 밖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열대의 자연적 풍요를 상징하게 되었고, 그 상징은 열대 사람들이 코코넛 나무 아래 누워 열매가 떨어지기만 기다려서 가난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경제활동참가율 · 아동 노동 · 노년의 노동 · 노동 시간 통계를 들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한다고 반박하고, 가난은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이며 그 낮은 생산성마저 주로 개인의 자질 탓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 제도 탓이라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장(도토리)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역사 · 정치 · 기술의 힘 때문에 가난하다(38쪽 ¶1) / 코코넛 이야기를 바로잡아 엘리트에게 물어야 한다(38쪽 ¶2) /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한다(36쪽 ¶4~¶5) / 코코넛 = 열대의 자연적 풍요의 상징(35쪽 ¶2~¶3)
4~5	**밑줄 함축 의미**	a radical revision / my conversion to the cause of coconut / some prejudices die hard / It is no coincidence / rubbing shoulders with … luminaries / Quite a plausible tale / the fictitious 'lazy native' / the supposed nation of workaholics / 'worker ants' /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6	지칭 추론	they · their · them이 가난한 나라의 노인과 일본인 사이를 오가는 37쪽 ¶1~¶2 / 35쪽 ¶6 they often attribute(부자 나라 사람들) vs that they supposedly get(가난한 나라 사람들) / If they did(36쪽 ¶3 = 분별 있는 주민) / he(37쪽 ¶4 = 기수)
7~8	내용 일치·불일치	코코넛의 쓰임새(35쪽 ¶1 + 38쪽 각주 i) / 아동 노동 29 · 49 · 약 40%와 '아이들의 일' 제외(36쪽 ¶6 + 38쪽 각주 iv) / 경제활동참가율 83 · 77 · 67% vs 60 · 61 · 63%(36쪽 ¶5) / 60~80 · 25~40%(37쪽 ¶2) / 1986 · 칸쿤 · 1990년대 후반(34쪽)
9~10	**어법**	의미상 주어 + being 분사구문 · 과거분사 후치(mixed) · spend + 시간 + -ing · 부사 문두 도치(First came) ·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 · have come to V · be said to have p.p. · be known to have been · 계속적 which · be made into · It is no coincidence that · so ~ that · given that / given + 명사 · attribute A to B · it is said 삽입 · rather than -ing · except that · so much so that · many of which · 단수 주어 a proportion · 29% of + 복수 명사 · not ~ until · than + do + 주어 도치 · cannot be · not as + 원급 · upon + 명사 · despite the fact that · as if + 직설법 ·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into + 동명사 · what is clear is that · least of all · help + O + 원형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limited↔broad · radical↔minor · savoury↔sweet · appreciate↔disdain · immature↔ripe · versatile↔limited · bounty↔scarcity · entrenched↔shallow · industrious↔lazy · offensive↔inoffensive · plausible↔implausible · fictitious↔real · prime↔decline · valuable↔worthless · decrepit↔robust · undernourished↔well-fed · intractable↔manageable · deficient↔adequate
12	빈칸 추론	the natural bounty of the tropics(35쪽 ¶2) / not a single mention of coconut(35쪽 ¶4) / It is about productivity(37쪽 ¶3) / better technologies … social arrangements(37쪽 ¶4) / beyond their control(38쪽 ¶1)
13	문장 삽입	코코넛 나무 아래 눕지 않는 까닭(36쪽 ¶2~¶3):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거짓 → 분별 있는 주민은 눕지 않음 → (그랬다간) 두개골이 깨질 위험 → 실제 사고와 상어 도시 전설 → '게으른 원주민'도 다른 곳에서 기다림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4	무관한 문장	코코넛 밀크 요리 목록(34쪽 ¶3)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코이어의 쓰임새, 35쪽 ¶1)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풍요의 상징이 가난을 '설명'(35쪽 ¶5) → 부자 나라의 가정 · 열대의 편한 삶(35쪽 ¶6) → 어디서나 자라는 먹을 것과 높은 기온(36쪽 첫 줄) → 코코넛 나무 아래의 '원주민'(36쪽 ¶1)
16	요약문 완성	로빈슨 크루소 경제 모델 vs 코코넛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소설(35쪽 ¶4 + 38쪽 각주 ii)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장소 · 나라 · True/False · 비율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는 적다 – 1986(영국 도착) · 1990년대 후반(칸쿤) · 19세기 중반(피시 앤드 칩스 가게) · 2019(경제활동참가율) · 2010~18(아동 노동). 대신 비율이 많다(83 · 77 · 67% vs 60 · 61 · 63%, 29 · 49 · 약 40%, 최대 90% vs 10% 미만, 60~80% · 25~40%). 나라 이름도 많다(칸쿤 = 멕시코 · 바이아 = 브라질 · 바이오디젤 = 필리핀 · 탄자니아 · 에티오피아 · 캄보디아). 60~80%(독일 · 덴마크 · 프랑스 대비)와 25~40%(미국 · 일본 대비)를 맞바꾸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immature ↔ ripe coconuts, before ↔ after petroleum lubricants, never mentions ↔ mentions coconut, does not include ↔ includes children's work, higher ↔ lower participation, less ↔ more than the Americans). '그렇다고들 한다'(are said to · is known to · supposedly · it is said · the supposed nation)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oconut」 (34~38쪽)

논증형(코코넛을 몰랐던 어린 시절 → 피냐 콜라다와 코코넛 요리로의 '개종' → 코코넛의 쓰임새 → 열대의 풍요라는 상징 · Bounty · 로빈슨 크루소 경제 → 게으른 열대인이라는 통념 → 코코넛 나무 농담 반박 → 통계 반박(참가율 · 아동 · 청년 · 노인 · 노동 시간) →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 → 기수와 말 → 구조적 원인 → 결론). 핵심 축은 **근면(개인) vs 생산성(구조)**, 그리고 **코코넛 이미지 vs 통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34 ¶1	도입	인생의 첫 35년 = 제한적 · 부정적 / 1986년 영국에 오기 전 코코넛을 본 적 없음(너무 북쪽 · 너무 가난) · 비스킷 속 말린 과육뿐
34 ¶2	전환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칸쿤 · 첫 피냐 콜라다 · 마법 같은 맛 · 휴가의 절반은 취해서, 절반은 딸을 쫓아
34 ¶3	요리	타이 커리 → 락사 · 나시 르막 → 모케카 바이아나 →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 → 코코넛으로의 '개종' 완성
34 ¶4~35 첫 줄	사반세기 뒤	코코넛 워터 · 팜하트 · 삼바르 · 토렌의 과육 / 마카롱 · 비스킷은 아직(어떤 편견은 잘 안 죽는다)
35 ¶1	쓰임새	덜 익은 열매의 물 · 요리용 기름(피시 앤드 칩스 · 38쪽 각주 i의 Nut Lard) · 비누 · 화장품 · 윤활유 · 글리세린 · 코이어 · 숯 · 바이오디젤
35 ¶2	상징	다재다능함 → 열대의 자연적 풍요(적어도 열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
35 ¶3	Bounty	코코넛 필링 초콜릿 바의 이름은 우연이 아님 · 열대 그림 포장지 · Celebrations 모음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35 ¶4	크루소 경제	코코넛만 생산 · 소비하는 단일 상품 모델 / 정작 소설에는 코코넛이 한 번도 안 나옴(38쪽 각주 ii: 크루소의 식단)
35 ¶5	논점 전환	풍요의 상징 → 열대의 가난을 '설명'하는 데 쓰임
35 ¶6~36 첫 줄	통념	가난 =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부자 나라의 흔한 가정) / 열대의 편한 삶 · 먹을 것이 어디서나(라고들 함) → 덜 부지런
36 ¶1~¶2	코코넛 나무	주로 사적으로 · '원주민'이 나무 아래 누워 기다린다는 주장 /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거짓
36 ¶3	첫 반박(농담)	두개골이 깨질 위험 · 상어 도시 전설은 사실 아님 · '게으른 원주민'도 다른 곳에서 기다릴 것
36 ¶4~¶5	본격 반박	완전한 신화 · 훨씬 더 열심히 일함 / 경제활동참가율 83 · 77 · 67% vs 60 · 61 · 63% (정의 = 38쪽 각주 iii)
36 ¶6	아동	최빈국 5~17세 29%('아이들의 일' 제외 · 최빈국 = 38쪽 각주 iv) · 에티오피아 49% · 약 40%인 나라들
36 ¶7~37 첫 줄	청년	부자 나라 18~24세 대다수 = 고등교육(최대 90% vs 10% 미만) · 성인기 초반까지 일하지 않음
37 ¶1~¶2	노인 · 시간	은퇴할 형편이 못 됨 · 몸이 쇠할 때까지 / 60~80% · 25~40% 더 일함 · 일본은 이제 미국보다 덜
37 ¶3	핵심 전환	근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 · 더 오래 일하지만 덜 생산
37 ¶4	기수와 말	개인 자질이 주된 원인 아님 · 이민자의 생산성 급등(기술 · 경영 · 인프라 · 사회 제도) · 승부는 대체로 말이 정함
37 ¶5~38 ¶2	결론	식민 지배 · 정치 분열 · 엘리트 · 불공정한 국제 체제 / 통제할 수 없는 힘 / 엘리트가 가난한 개인 탓 → 코코넛 이야기를 바로잡자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코코넛에 대한 저자의 눈	인생의 첫 35년 – 제한적 · 부정적(비스킷 속 말린 과육)	피냐 콜라다 이후 – 요리 · 워터 · 팜하트로 '개종'(비스킷은 아직)
코코넛과 열대	열대의 자연적 풍요 → 열대의 가난을 '설명'(통념)	그 그림은 거짓 · 가난의 원인을 잘못 짚음(저자)
로빈슨 크루소	경제학 모델 – 코코넛만 생산 · 소비하는 경제	소설 – 코코넛이 한 번도 안 나옴(라임 · 레몬 · 포도 · 멜론 · 보리 · 쌀 · 염소 · 물고기)
가난의 원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부자 나라의 흔한 가정)	통제할 수 없는 역사 · 정치 · 기술의 힘(저자)
열대의 삶	먹을 것이 어디서나 · 집과 옷이 덜 필요 → 덜 부지런(라고들 함)	실제로는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함
코코넛 나무 아래	'원주민'이 누워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림(주창자들)	두개골이 깨질 위험 → '게으른 원주민'도 다른 곳에서 기다림
경제활동참가율(2019)	부자 나라 – 독일 60% · 미국 61% · 한국 63%	가난한 나라 – 탄자니아 83% · 베트남 77% · 자메이카 67%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청년기	부자 나라 — 18~24세 대다수 고등교육(최대 90%)	가난한 나라 — 고등교육 10% 미만(40개쯤) · 최빈국 아동 29%가 일함
노년기 · 노동 시간	부자 나라 — 더 일찍 일을 그만둠 · 노동 시간이 짧음	가난한 나라 — 몸이 쇠할 때까지 · 60~80% · 25~40% 더 오래
가난의 열쇠	근면(diligence)의 문제	생산성(productivity)의 문제
낮은 생산성의 까닭	개인의 자질(교육 수준 · 건강) — 일부 고급 일자리에서만 중요	기술 · 생산 단위의 경영 · 인프라 · 사회 제도(말이냐 당나귀냐)
누구 탓인가	가난한 개인(세계 엘리트에게 유리한 설명)	역사적 불의 · 국제 권력의 비대칭 · 국내 개혁 — 엘리트가 답해야 할 물음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1986	저자가 영국에 온 해 · 그전까지 코코넛을 본 적조차 없음 · 한국 = 기르기엔 너무 북쪽, 외국 과일 같은 '사치품'을 수입하기엔 당시 너무 가난
처음 접한 코코넛	이국적인 간식으로 팔리던 비스킷에 섞인 말린 코코넛 과육 조각(dessicated — 원서 표기) · 인생의 첫 **35년**(three and a half decades) 동안 제한적 · 부정적인 생각
piña colada	장 첫머리 [제목] = 푸에르토리코 · 럼 · 코코넛 밀크 · 파인애플 주스 /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칸쿤** · 첫 열대 해변 휴가 · 걸음마 하는 딸
코코넛 밀크 요리	타이 커리(그린 · 레드) → 락사(말레이시아 · 싱가포르의 매콤한 국수 수프) → 나시 르막(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의 밥, 코코넛 밀크와 판단 잎으로 지음)
나시 르막의 곁들이	튀긴 마른 멸치 · 볶은 땅콩 · 삶은 달걀 반쪽 · 오이 조각 + 삼발(칠리 소스)
moqueca Baiana	브라질 **바이아주**식 모케카(브라질 생선 스튜) · 칠리와 코코넛 밀크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	코코넛 밀크로 북인도 요리만큼 무겁지 않으면서 풍부한 맛 · 그렇다고 꼭 더 좋아한다는 말은 **아님** · 코코넛으로의 '개종' 완성
사반세기 뒤	코코넛 워터(상큼한 단짠) · 팜하트(꼭 코코넛 야자로 만든 것은 **아닐 수 있음**) · 삼바르 · 토렌의 코코넛 과육(즐기지만 사랑까지는 아님) · 마카롱 · 비스킷은 아직
덜 익은 열매	깨끗한 물 · 장거리 범선이 비상용 식수로 늘 실었다**고 한다**(are said to)
코코넛 오일 · 피시 앤드 칩스	영국 피시 앤드 칩스 가게가 처음 쓴 식물성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음** · 가게 = **19세기 중반 유대인 이민자**가 세움 · 인기 상표 = **Nut Lard**(38쪽 각주 i)
코코넛 오일의 다른 쓰임	비누 · 화장품의 중요한 재료 / 석유계 윤활유가 자리를 차지하기 **전** 공장 윤활유 / 다이너마이트 제조용 글리세린
coir · 연료	코이어 = 코코넛 겉껍질의 섬유 → 밧줄 · 솔 · 자루 · 매트 · 매트리스 속 / 겉껍질 · 껍데기 → 숯 / 오일 → 바이오디젤(**필리핀**)
Bounty	코코넛 필링 초콜릿 바 · 영국과 캐나다에서 인기 · 포장지 = 코코넛 나무 · 맑고 파란 바다 · 흰 모래 · 쪼갠 코코넛 / Mars, Inc.의 Celebrations에 Mars · Snickers · Twix · Galaxy · Milky Way와 함께
Robinson Crusoe economy	많은 경제학자가 기초 개념을 가르칠 때 쓰는 모델 · 코코넛만 생산 · 소비하는 단일 상품 경제 / 정작 소설에는 코코넛이 **한 번도** 안 나옴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38쪽 각주 ii	크루소 = 섬의 라임 · 레몬 · 포도 · 멜론 / 보리 · 쌀(난파선에서 찾은 닭 모이 자루에서 빈 줄 알고 버린 껍질이 자람) / 염소 사냥 · 낚시 / 코코넛은 0
열대 근로 의식 결핍론	부자 나라의 흔한 가정 · 열대의 풍요 덕에 누린다**는**(supposedly) 편한 삶 · 먹을 것이 어디서나 자라고 집과 옷이 덜 필요하다**고들 함**(it is said) / 모욕적이라 주로 사적으로
떨어지는 코코넛	실제로 사람이 죽음 · 상어보다 많이 죽인다는 도시 전설 = **사실 아님** · '게으른 원주민'(지어낸 인물)도 다른 곳에서 기다릴 것
경제활동참가율(2019, 세계은행)	탄자니아 **83%** · 베트남 **77%** · 자메이카 **67%** vs 독일 **60%** · 미국 **61%** · 한국 **63%**(일중독자의 나라**라고들 하는**)
38쪽 각주 iii	경제활동참가율 = (돈을 버는 취업자 +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 ÷ 생산가능인구 전체
아동 노동(UNICEF, 2010~18)	최빈국 5~17세 평균 **29%**('아이들의 일' = 집안일 · 동생 돌보기 · 신문 배달은 **제외**) · 에티오피아 **49%** · 부르키나파소 · 베냉 · 차드 · 카메룬 · 시에라리온 약 **40%** / 최빈국 = 대략 소득 1,000달러 미만(38쪽 각주 iv)
고등교육	부자 나라 18~24세(신체적 한창때) 대다수 · 미국 · 한국 · 핀란드 최대 **90%** vs 40개쯤의 가난한 나라 **10% 미만** / 문학 · 철학 · 인류학 · 역사 = 다른 이유로 매우 가치 있다(저자의 믿음)
노년의 노동	은퇴 후 연령(나라에 따라 **60~67세**)까지 사는 비율은 가난한 나라가 낮음 / 살아 있는 한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경향 · 은퇴할 형편이 못 됨 · 자영농 · 가게 주인 · 무급 가사 · 돌봄
노동 시간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도네시아 = 독일 · 덴마크 · 프랑스보다 약 **60~80%**, 미국 · 일본보다 **25~40%** 더 / 일본인('일개미' 평판) = 요즘 미국인보다 **덜** 일함
기수와 당나귀	이민자 = 기술 · 건강이 달라지지 않아도 도착하자마자 생산성 급등(더 나은 기술 · 경영 · 인프라 · 사회 제도) / 영양이 부족한 당나귀 → 순종 경주마
낮은 생산성의 구조적 원인	식민 지배(낮은 가치의 1차 산품 특화) ·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분열 · 엘리트의 결함(비생산적 지주 · 역동성 없는 자본가 계급 · 비전 없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 · 부자 나라에 유리한 불공정한 국제 경제 체제 — '가장 중요한 것일 뿐'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oconut」 (원서 PDF 34~38쪽) · 5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3-1 코코넛을 몰랐던 저자, 코코넛 요리로의 '개종' 34쪽 ¶1 ~ 35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34쪽 ¶1 ~ 35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4쪽 ¶1 첫 문장	In the first three and a half decades of my life	숫자 — 35년
★	34쪽 ¶1 둘째 문장	Until I came to Britain in 1986, I had never even seen a coconut	숫자 — 서답형 1순위
▲	34쪽 ¶1 둘째 문장	South Korea being way too northern to grow it and then being too poor to import	의미상 주어 + being 분사구문 / too ~ to
▲	34쪽 ¶1 셋째 문장	The only form of coconut that I had encountered was	단수 주어 + 관계절 → was
▲	34쪽 ¶1 셋째 문장	shredded flesh mixed in some biscuits that were sold as exotic treats	과거분사 후치(능동 mixing은 오답)
◆	34쪽 ¶2 첫 문장	My view of coconut had a radical revision	밑줄 의미: 생각이 완전히 바뀌다
★	34쪽 ¶2 첫 문장	in Cancún, Mexico, in the late 1990s	장소 · 때 — 서답형 후보
▲	34쪽 ¶2 셋째 문장	I spent half that holiday getting drunk … and the other half chasing	spend + 시간 + -ing
▲	34쪽 ¶3 둘째 · 셋째 문장	First came Thai curries … Then came laksa	부사 문두 도치
★	34쪽 ¶3 셋째 문장	nasi lemak, the Malaysian-Indonesian rice cooked in coconut milk and pandan leaves	내용 일치 — 나라 이름 바꿔치기
★	34쪽 ¶3 넷째 문장	moqueca Baiana … from the state of Bahia	내용 일치 — 브라질
▲	34쪽 ¶3 다섯째 문장	I am not, however, saying that I necessarily prefer the former to the latter	부분 부정 · prefer A to B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4쪽 ¶3 다섯째 문장	my conversion to the cause of coconut was complete	밑줄 의미: 완전히 코코넛 편이 되다
★	35쪽 첫 줄(34쪽 ¶4 셋째 문장)	they may not necessarily be made with hearts of coconut palm	추측 — '반드시 ~는 아닐 수 있다'
●	35쪽 첫 줄(34쪽 ¶4 넷째 문장)	I have even come to appreciate – although not quite love –	어휘: appreciate ↔ disdain / 부분 부정
◆	35쪽 첫 줄(34쪽 ¶4 넷째 문장)	(some prejudices die hard)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저자는 인생의 첫 35년 동안 코코넛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1986년 영국에 오기 전까지는 코코넛을 본 적조차 없었다. 한국은 코코넛을 기르기에는 너무 북쪽에 있었고, 당시에는 외국 과일 같은 '사치품'을 수입하기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저자가 접한 코코넛이라고는 이국적인 간식으로 팔리던 비스킷에 섞인 말린 코코넛 과육 조각이 전부였다. 그 생각은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칸쿤에서 처음으로 열대 해변 휴가를 보내며 첫 피냐 콜라다를 마셨을 때 크게 바뀌었다. 저자는 늘 파인애플 주스를 좋아했는데, 그것을 코코넛 밀크와 럼에 섞자 마법 같은 맛이 났다. 휴가의 절반은 피냐 콜라다에 취해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해변과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걸음마 하는 딸을 쫓아다니며 보낸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한다. 코코넛 밀크를 쓰는 짭짤한 요리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코코넛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높아졌다. 처음은 그린과 레드 두 가지 타이 커리였다. 다음은 코코넛 밀크를 넣은 매콤한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국수 수프 락사, 그리고 코코넛 밀크와 판단 잎으로 지은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밥 나시 르막이었다. 나시 르막은 보통 튀긴 마른 멸치, 볶은 땅콩, 삶은 달걀 반쪽, 오이 조각 같은 맛있는 곁들이와 칠리 소스인 삼발을 곁들여 먹는다. 브라질 여행에서는 브라질 생선 스튜 모케카 가운데 칠리와 코코넛 밀크를 넣은 바이아주식 모케카 바이아나에 반했다. 코코넛 밀크로 북인도 요리만큼 무겁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맛을 내는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를 만나자, 코코넛 쪽으로의 '개종'이 완성되었다. 그렇다고 남쪽 요리를 북쪽 요리보다 꼭 더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저자는 덧붙인다. 피냐 콜라다로 처음 코코넛 밀크를 맛본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저자는 다른 형태의 코코넛도 즐기게 되었다. 상큼하면서 달고 짭짤한 코코넛 워터를 좋아하고,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의 샐러드 바에서는 접시에 팜하트를 수북이 담는다. 팜하트가 꼭 코코넛 야자의 순으로 만든 것은 아닐 수 있고, 다른 야자도 자주 쓴다. 삼바르나 토렌 같은 남인도 요리에 들어가는 코코넛 과육 조각도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즐길 줄 알게 되었다. 다만 마카롱이나 다른 비스킷에 넣는 것에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가지 않는다. 어떤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어법

- **Until I came to Britain in 1986, I had never even seen a coconut, South Korea being way too northern to grow it and then being too poor to import 'luxury' items** : had never seen = 과거완료(1986년 이전까지의 경험). 콤마 뒤 = 의미상 주어 South Korea + being으로 된 독립분사구문(주절의 주어 I와 달라 밝혀 씀, 이유). way = 비교 · too를 강조하는 부사(훨씬). too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는. then = 그때(당시).
- **The only form of coconut that I had encountered was dessicated, shredded flesh mixed in some biscuits that were sold as exotic treats** : 주어 The only form(단수) + 목적격 관계절 that I had encountered → was. mixed = 과거분사 후치(비스킷에 '섞인' 과육 — 변형 → mixing은 오답). that were sold as = 주격 관계대명사 + 수동(선행사 biscuits → were).
- **I had always been fond of pineapple juice, but when it was mixed with coconut milk and rum, the result was magical** : had been = 과거완료 계속(그때까지 늘 좋아했다). be fond of = ~을 좋아하다. it = pineapple juice. when 절 = 수동(was mixed with).

- **I think I spent half that holiday getting drunk on piña colada and the other half chasing after my toddler daughter** : spend + 시간 + -ing = ~하며 시간을 보내다. half that holiday ... the other half = 절반은 …, 나머지 절반은 …(the other = 둘 가운데 나머지 하나).
- **First came Thai curries – both green and red varieties. Then came laksa, ...** : 순서 부사(First · Then) + 자동사 came + 주어(Thai curries · laksa) = 부사 문두 도치. 주어가 길거나 새로 등장할 때 문장 끝에 둔다.
- **South Indian and Sri Lankan dishes that use coconut milk to give rich flavour without tasting as heavy as northern Indian ones** : that use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dishes → 복수 use, 일반적 사실이라 현재). to give = 목적의 to부정사. without -ing = ~하지 않고. as heavy as = 원급 비교. ones = dishes.
- **I am not, however, saying that I necessarily prefer the former to the latter** : not ... necessarily =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부분 부정). prefer A to B = B보다 A를 좋아하다. the former(전자) =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 the latter(후자) = 북인도 요리.
- **I have even come to appreciate – although not quite love – the shredded coconut flesh used in some of the South Indian dishes** : have come to V = ~하게 되었다(현재완료). appreciate와 (not quite) love가 목적어 the shredded coconut flesh를 함께 씀. not quite = 완전히 ~는 아닌(부분 부정). used in = 과거분사 후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cade	10년	ten years	—
luxury (n., 명사 수식)	사치품, 고급	extravagance	necessity
exotic	이국적인	foreign	native
radical	근본적인, 급격한	drastic	minor
revision	수정, 바꿈	change	—
be fond of	~을 좋아하다	like	dislike
esteem (n.)	존중, 높은 평가	regard	contempt
savoury	짭짤한(단맛이 아닌)	salty	sweet
accompaniment	곁들이는 음식	side dish	—
conversion	개종, 전향	change of heart	—
ingestion	섭취	consumption	—
refreshing	상쾌한	invigorating	—
appreciate	진가를 알다	value	disdain
prejudice	편견	bias	—

내용 일치 인생의 첫 35년 = 제한적 · 다소 부정적 · 1986년 영국에 오기 전 코코넛을 본 적 없음 · 까닭 = 한국이 너무 북쪽 + 당시 너무 가난 · 처음 접한 형태 = 비스킷에 섞인 말린 과육(이국적 간식) · 전환점 =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칸쿤, 첫 열대 해변 휴가, 첫 피냐 콜라다 · 순서 = 타이 커리 → 락사(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나시 르막(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모케카 바이아나(브라질 바이아주) →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북인도보다 꼭 더 좋다는 말은 아님) · 사반세기 뒤 = 코코넛 워터 · 팜하트(꼭 코코넛 야자는 아닐 수 있음) · 삼바르 · 토렌(즐기지만 사랑까지는 아님) · 마카롱 · 비스킷은 아직. **밑줄 의미** had a radical revision = 코코넛에 대한 생각이 근본부터 바뀌었다 / my conversion to the cause of coconut was complete = 종교를 바꾸듯 완전히 코코넛 편이 되었다 / some prejudices die hard = 처음 비스킷으로 만난 코코넛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 있다 / 34쪽 ¶2 it(was mixed) = pineapple juice / 34쪽 ¶3 the former =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 the latter = 북인도 요리.

한 줄 요약 코코넛을 비스킷 속 말린 과육으로만 알던 저자는 1990년대 후반 칸쿤의 피냐 콜라다를 계기로 코코넛 밀크 요리에 '개종'했지만, 비스킷 속 코코넛에 대한 편견은 아직 남아 있다.

3-2 쓰임새 많은 코코넛, 열대의 풍요라는 상징 35쪽 ¶1~¶4 + 38쪽 각주 i · ii

원문 위치 원서 35쪽 ¶1~¶4 + 38쪽 각주 i · 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1 둘째 문장	The immature fruit is a ready source of clean water	내용 일치 — immature ↔ ripe
▲	35쪽 ¶1 둘째 문장	are said to have routinely carried immature coconuts	전언 + 완료부정사
▲	35쪽 ¶1 넷째 문장	It is known to have been the first vegetable oil used by fish-and-chip shops	be known to have been / 과거분사 후치
★	35쪽 ¶1 넷째 문장 + 38쪽 각주 i	set up by Jewish immigrants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 Nut Lard	숫자 · 고유명사
★	35쪽 ¶1 여섯째 문장	before petroleum-based lubricants took over	내용 일치 — before ↔ after
★	35쪽 ¶1 일곱째 문장	Coir, the fibre from the husk of the coconut, is used in ropes	동격 · 내용 일치
★	35쪽 ¶1 여덟째 문장	coconut oil can be made into biodiesel, as it is in the Philippines	서답형 후보 — 나라
▲	35쪽 ¶2	Coconut being such a versatile and useful thing, it has come to symbolize	의미상 주어를 밝힌 분사구문
●	35쪽 ¶2	the natural bounty of the tropics	빈칸 · 어휘(bounty ↔ scarcity)
◆	35쪽 ¶2	at least in the minds of many people who do not live there	한정 — 열대 밖 사람들의 생각
◆	35쪽 ¶3 첫 문장	It is no coincidence that Bounty is the name of a chocolate bar	밑줄 의미: 이름에 '풍요'가 담김
◆	35쪽 ¶3 둘째 문장	rubbing shoulders with such chocolate bar luminaries	밑줄 의미: 유명 제품들과 나란히
▲	35쪽 ¶4	is so deeply entrenched that the so-called 'Robinson Crusoe economy' model … is	so ~ that / 긴 주어 + i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4	there is actually not a single mention of coconut in Robinson Crusoe	요약문 · True/False 1순위
★	38쪽 각주 ii	lime, lemon, grape and melon … barley and rice … hunts goats, and fishes	내용 일치 — 코코넛은 0

내용

코코넛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덜 익은 열매는 깨끗한 물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공급원이다. 열대 바다를 건너던 장거리 범선들은 덜 익은 코코넛을 비상용 식수로 늘 싣고 다녔다고 한다. 코코넛 오일은 요리에 많이 쓰인다. 19세기 중반 유대인 이민자들이 세운 영국의 피시 앤드 칩스 가게들이 처음 쓴 식물성 기름이 코코넛 오일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각주에 따르면 인기 있던 상표는 Nut Lard였다. 저자는 이것을 많은 '영국' 것이 실제로는 외국에서 왔다는 또 하나의 예로 든다. 코코넛 오일은 비누와 화장품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다. 석유계 윤활유가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는 공장에서 윤활유로 쓰였고,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쓰는 글리세린을 공급하기도 했다. 코코넛 겉껍질의 섬유인 코이어는 밧줄 · 솔 · 자루 · 매트에 쓰이고 매트리스 속으로도 쓰인다. 코코넛은 연료가 되기도 한다. 겉껍질과 단단한 껍데기는 숯이 되고, 코코넛 오일은 바이오디젤로 만들 수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쓰임새가 많고 유용하다 보니, 코코넛은 적어도 열대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열대의 자연적 풍요를 상징하게 되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 인기 있는 코코넛 필링 초콜릿 바의 이름이 Bounty(풍요)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포장지에는 코코넛 나무, 맑고 파란 바다, 흰 모래, 쪼갠 코코넛이 그려져 있다. Bounty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바는 아닐지 몰라도, Mars, Inc.가 만드는 미니 초콜릿 바 모음 Celebrations에 Mars · Snickers · Twix · Galaxy · Milky Way 같은 쟁쟁한 초콜릿 바들과 나란히 들어갈 만큼은 인기가 있다. 코코넛과 열대의 연관은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많은 경제학자가 학생들에게 기초 경제 개념을 가르치려고 쓰는 이른바 '로빈슨 크루소 경제' 모델은 코코넛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일 상품 경제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에는 코코넛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각주에 따르면 크루소는 섬에서 자라는 라임 · 레몬 · 포도 · 멜론을 먹고, 보리와 쌀을 기른다. 이 곡식은 그가 난파선에서 찾은 닭 모이 자루에 들어 있던 껍질에서 자랐는데, 그는 자루가 빈 줄 알고 그것을 버렸었다. 그는 염소를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나 그의 식단에 코코넛은 전혀 없다.

어법

- **long-distance sail ships crossing tropical waters are said to have routinely carried immature coconuts as an emergency water supply** : be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전언, 완료부정사로 말하는 지금보다 앞선 과거). crossing = 현재분사 후치(ships를 꾸밈). as = ~로서.
- **It is known to have been the first vegetable oil used by fish-and-chip shops in Britain, which were set up by Jewish immigrants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 be known to have been = ~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used by = 과거분사 후치.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fish-and-chip shops 복수 → were set up, 수동).
- **Coir, the fibre from the husk of the coconut, is used in ropes, brushes, sacks, mats and also as stuffing for mattresses** : 콤마 사이 = Coir와 동격. 주어 Coir(단수) → is used. be used in(~에 쓰이다)과 (be used) as(~로 쓰이다)가 and로 이어짐.
- **its husks and shells are made into charcoal, while coconut oil can be made into biodiesel, as it is in the Philippines** : be made into = ~로 만들어지다(재료가 형태를 바꿈; be made of / from과 구별). while = 대조. as it is = as it is made into biodiesel(뒤를 생략하고 is만 남긴 대동사).
- **Coconut being such a versatile and useful thing, it has come to symbolize the natural bounty of the tropics** :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 주어 Coconut을 밝혀 쓴 형태(= As coconut is such a versatile and useful thing). 주절의 it = coconut. such a + 형용사 + 명사. have come to V = ~하게 되었다.

- **It is no coincidence that Bounty is the name of a chocolate bar, popular in Britain and Canada, with a coconut filling** : It is no coincidence that ~ = ~은 우연이 아니다(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popular in ~ = 형용사구가 a chocolate bar를 뒤에서 꾸밈(which is 생략으로 볼 수 있음).
- **The association of coconut with the tropics is so deeply entrenched that the so-called 'Robinson Crusoe economy' model that many economists use … is a single-commodity economy producing and consuming only coconut** : so + 부사 + 과거분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that절의 주어 model(단수) ← 목적격 관계절 that many economists use … → 동사 is. producing and consuming = 현재분사 후치.
- **these grew from the husks that had been in the bag of chicken feed that he had found on his wrecked ship and thrown away, thinking that they were empty** : had found와 (had) thrown away가 병렬(과거완료: 싹이 나기 전의 일). thinking = 이유의 분사구문(빈 줄 알고). they = the husks. 38쪽 각주 ii.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mature	덜 익은	unripe	ripe
routinely	으레, 늘	regularly	rarely
emergency	비상	crisis	—
ingredient	재료, 성분	component	—
lubricant	윤활유	grease	—
take over	대신 차지하다	replace	—
husk	겉껍질	outer shell	—
versatile	다용도의	multipurpose	limited
symbolize	상징하다	represent	—
bounty	풍요, 넉넉함	abundance	scarcity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chance	—
luminary	유명 인사, 거물	star	nobody
entrenched	굳게 자리 잡은	ingrained	shallow
commodity	상품	good	—

내용 일치 덜 익은 열매 = 깨끗한 물 · 장거리 범선이 비상용 식수로 실었다'고 함' · 코코넛 오일 = 영국 피시 앤드 칩스 가게가 처음 쓴 식물성 기름'으로 알려짐' · 가게를 세운 사람 = 19세기 중반 유대인 이민자 · 인기 상표 Nut Lard(38쪽 각주 i) · 비누 · 화장품 · 석유계 윤활유 '이전'의 공장 윤활유 · 다이너마이트용 글리세린 · 코이어 = 겉껍질 섬유(밧줄 · 솔 · 자루 · 매트 · 매트리스 속) · 숯 = 겉껍질과 껍데기 · 바이오디젤 = 오일(필리핀) · 풍요의 상징 = '적어도 열대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 Bounty = 영국 · 캐나다 · Celebrations(Mars, Inc.) · 로빈슨 크루소 경제 = 코코넛만 생산 · 소비 · 소설에는 코코넛 없음 · 크루소의 식단 = 라임 · 레몬 · 포도 · 멜론 · 보리 · 쌀 · 염소 · 물고기(38쪽 각주 ii). **밑줄 의미** It is no coincidence that Bounty is the name = 코코넛 초콜릿 바에 '풍요'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코코넛 = 열대의 풍요라는 연상 때문이다 / rubbing shoulders with such chocolate bar luminaries = 이름난 초콜릿 바들과 한 상자에 나란히 들어 있다 / not a single mention of coconut = 경제학 모델의 코코넛은 소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상에서 왔다 / 35쪽 ¶1 Its oil = 코코넛의, It(is known) · It(was used) = 코코넛 오일 / 35쪽 ¶2 there = 열대.

한 줄 요약 물 · 기름 · 섬유 · 연료로 두루 쓰이는 코코넛은 열대 밖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열대의 자연적 풍요를 상징하게 되었고, 그 연상은 Bounty 초콜릿 바와 코코넛이 나오지도 않는 로빈슨 크루소 경제 모델에까지 스며 있다.

3-3 코코넛 나무 아래 누운 '게으른 원주민'? 35쪽 ¶5 ~ 36쪽 ¶3

원문 위치 원서 35쪽 ¶5 ~ 36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5	it is often used to 'explain' the human poverty frequently found in the zone	전환점 — 따옴표의 'explain' =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님
★	35쪽 ¶6 첫 문장	poor countries are poor because their people do not work hard	통념(반박 대상)
▲	35쪽 ¶6 둘째 문장	given that most, if not all, poor countries are in the tropics	given that / if not all
▲	35쪽 ¶6 둘째 문장	they often attribute the lack of work ethic … to the easy living	attribute A to B
◆	35쪽 ¶6 둘째 문장	the easy living that they supposedly get thanks to the bounty of the tropics	지칭 · 전언(supposedly)
★	36쪽 첫 줄(35쪽 ¶6 셋째 문장)	In the tropics, it is said, food grows everywhere	전언 — 단정 선지 함정
●	36쪽 첫 줄(35쪽 ¶6 넷째 문장)	consequently become less industrious	어휘: industrious ↔ lazy
▲	36쪽 ¶1 첫 문장	mostly in private, given the offensive nature of the argument	given + 명사(전치사)
◆	36쪽 ¶1 둘째 문장	the 'natives' lie beneath a coconut tree and wait for coconuts to fall	밑줄 의미 · 순서 배열의 고리
▲	36쪽 ¶1 둘째 문장	rather than trying to actively grow or, better still, make things	rather than -ing
◆	36쪽 ¶2	Quite a plausible tale – except that it is entirely false.	밑줄 의미: 반전
◆	36쪽 ¶3 둘째 문장	If they did, there is a danger that the falling coconut will crush their skulls	지칭 · 삽입 고리: they = 분별 있는 주민
★	36쪽 ¶3 둘째 문장	an urban legend that coconuts kill more people than sharks do, which isn't true	내용 일치 — True/False 함정
◆	36쪽 ¶3 셋째 문장	the fictitious 'lazy native'	밑줄 의미: 지어낸 인물

내용

코코넛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열대 지방의 자연적 풍요를 상징한다면, 그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사람들의 가난을 '설명'하는 데에도 자주 쓰인다. 부자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까닭이 그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흔히 가정한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열대에 있다는 점을 들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근로 의식이 없는 것을 열대의 풍요 덕분에 그들이 누린다는 편한 삶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열대에서는 바나나 · 코코넛 · 망고처럼(흔히 떠올리는 그림이 그렇다) 먹을 것이 어디서나 자라고, 기온이 높아 튼튼한 집이나 많은 옷이 필요 없다고들 한다. 그래서 열대 나라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결국 덜 부지런해진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주장 자체가 모욕적이다 보니 주로 사적인 자리에서, 흔히 코코넛을 빌려 표현된다. 이 '열대의 근로 의식 결핍' 이론의 지지자들은 '원주민'이 작물을 적극적으로 기르거나, 더 나아가 물건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코코넛 나무 아래 누워 코코넛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열대 나라들이 가난하다고 감히 말한다. 꽤 그럴듯한 이야기다. 완전히 거짓이라는 점만 빼면. 우선 분별 있는 열대 주민이라면 공짜 코코넛을 원하더라도 코코넛 나무 아래 눕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떨어지는 코코넛에 두개골이 으스러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꽤 있다 보니 코코넛이 상어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는 도시 전설까지 있다. 물론 이 전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지어낸 '게으른 원주민'이라 해도 코코넛 나무 아래 눕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기다리다가(원한다면 누워서 — 꼭 누워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따금 나무 밑에 코코넛이 떨어졌는지 확인할 것이다.

어법

- **If the coconut symbolizes the natural bounty of the tropical zone in many people's minds, it is often used to 'explain' the human poverty frequently found in the zone** : If = 조건이라기보다 '~라면 (한편으로는)'이라는 대비. be used to V = ~하는 데 쓰이다(수동 + 목적의 to부정사; 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와 구별). frequently found = 과거분사 후치.
- **A common assumption in rich countries is that poor countries are poor because their people do not work hard** : 주어 A common assumption(단수) → is. that절 = 보어 역할의 명사절. their = poor countries'.
- **And given that most, if not all, poor countries are in the tropics, they often attribute the lack of work ethic of the people in poor countries to the easy living that they supposedly get** : given that = ~을 고려하면(접속사 역할). if not all = 전부는 아니더라도(삽입). attribute A to B = A를 B 탓으로 돌리다. 앞 they = 부자 나라 사람들, 뒤 they = 가난한 나라 사람들. supposedly = 그렇다고들 하는(전언).
- **In the tropics, it is said, food grows everywhere (...), while the high temperature means that people don't need sturdy shelter or much clothing** : it is said = 삽입된 전언(~라고들 한다 — 사실 단정이 아님). while = 대조 · 덧붙임. mean that = ~라는 뜻이다(결과로 이어짐).
- **This idea is often expressed – mostly in private, given the offensive nature of the argument – using coconut** : given + 명사 = ~을 고려하면(전치사). using = 수단의 분사구문(코코넛을 써서). 대시 사이 = 삽입.
- **the 'natives' lie beneath a coconut tree and wait for coconuts to fall, rather than trying to actively grow or, better still, make things** : wait for + O + to V = O가 ~하기를 기다리다. rather than -ing = ~하지 않고. try to V = ~하려고 애쓰다. better still = 더 나아가(삽입). grow와 make가 to에 병렬.
- **Quite a plausible tale – except that it is entirely false.** : 동사 없이 명사구로 된 문장(It is quite a plausible tale). quite a + 형용사 + 명사 어순. except that + 절 = ~라는 점만 빼면.
- **people do get killed by falling coconuts, so much so that there is an urban legend that coconuts kill more people than sharks do, which isn't true** : do get killed = 강조의 do + get 수동(정말로 죽는다). so much so that = 그 정도가 너무 커서 ~할 정도로. legend that = 동격 that. sharks do = 대동사(kill people). 계속적 which = 도시 전설의 내용.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ssumption	가정, 추정	presumption	—
work ethic	근로 의식	diligence	—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ascribe A to B	—
supposedly	그렇다고들 하는, 이른바	allegedly	actually
sturdy	튼튼한	solid	flimsy
industrious	부지런한	diligent	lazy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insulting	inoffensive
proponent	지지자	advocate	opponent
venture (v.)	감히 말하다	dare to say	—
plausible	그럴듯한	believable	implausible
sensible	분별 있는	reasonable	foolish
crush	으스러뜨리다	smash	—
urban legend	도시 전설	myth	fact
fictitious	허구의	imaginary	real

내용 일치 코코넛 = 열대의 풍요 → 열대의 가난을 '설명'하는 데도 쓰임 · 부자 나라의 흔한 가정 =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음 · 가난한 나라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열대 · 편한 삶은 '그렇다고들 하는'(supposedly) 것 · 먹을 것이 어디서나 자라고 집과 옷이 덜 필요 = '라고들 함'(it is said) · 표현 방식 = 모욕적이라 주로 사적으로, 코코넛을 빌려 · 주창자들의 말 = '원주민'이 나무 아래 누워 열매를 기다림 · 저자 =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거짓 · 실제로 떨어지는 코코넛에 죽는 사람이 있음 · 상어보다 많이 죽인다 = 도시 전설, 사실 아님 · '게으른 원주민'은 지어낸 인물. **지칭** 35쪽 ¶5 it(is often used) = the coconut / 35쪽 ¶6 their people = 가난한 나라의 / they often attribute = 부자 나라 사람들 / that they supposedly get = 가난한 나라 사람들 / 36쪽 ¶1 This idea = 열대의 편한 삶 때문에 덜 부지런해진다는 생각 / 36쪽 ¶2 it is entirely false = 그 이야기(tale) / 36쪽 ¶3 they(wanted · did) = 분별 있는 열대 주민 / which isn't true = 코코넛이 상어보다 많이 죽인다는 전설.

> **한 줄 요약** 부자 나라 사람들은 코코넛 나무 아래 누운 '게으른 원주민'이라는 그림으로 열대의 가난을 근로 의식 탓으로 돌리지만, 저자는 그 이야기가 그럴듯할 뿐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한다.

3-4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한다 36쪽 ¶4 ~ 37쪽 ¶2 + 38쪽 각주 iii · iv

원문 위치 원서 36쪽 ¶4 ~ 37쪽 ¶2 + 38쪽 각주 iii · i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6쪽 ¶4 첫 문장	it is a complete myth that people in poor countries … lack in terms of work ethic	저자의 주장 · 요지
▲	36쪽 ¶4 첫 문장	many of which are in the tropics	many of which(many of them은 오답)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6쪽 ¶4 둘째 문장	they work much hard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rich countries	요지 1순위
▲	36쪽 ¶5 첫 문장	a much higher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working	단수 주어 → is
★	36쪽 ¶5 둘째 문장	83% in Tanzania, 77% in Vietnam and 67% in Jamaica	숫자 — 서답형 후보
◆	36쪽 ¶5 둘째 문장	63% in South Korea, the supposed nation of workaholics	밑줄 의미: '그렇다고들 하는'
★	38쪽 각주 iii	either gainfully employed or … actively looking for a job	정의 — 내용 일치
★	36쪽 ¶6 둘째 문장	on average 29% of children aged five to seventeen	숫자 — 서답형 후보
★	36쪽 ¶6 둘째 문장	this does not include children doing 'children's work'	불일치 1순위 — 포함 ↔ 제외
★	36쪽 ¶6 셋째 문장	nearly half the children were working (49%) … around 40%	숫자 바꿔치기
●	36쪽 ¶7 첫 문장	in their physical prime	어휘: prime ↔ decline
★	36쪽 ¶7 둘째 문장	as high as 90% … less than 10% in forty or so poor countries	숫자
●	37쪽 첫 줄(36쪽 ¶7 셋째 문장)	I believe these are very valuable things for other reasons	어휘 반전 1순위 · 저자의 믿음
▲	37쪽 ¶1 둘째 문장	work much later into their lives than do their rich-country counterparts	than + do + 주어 도치
★	37쪽 ¶2 둘째 문장	around 60–80% longer … and 25–40% longer	숫자 — 짝 바꿔치기
◆	37쪽 ¶2 둘째 문장	despite their reputation for being 'worker ants'	지칭: their = the Japanese

내용

더 진지하게 말하면, 가난한 나라(그 가운데 많은 나라가 열대에 있다) 사람들에게 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완전한 신화다. 사실 그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우선 가난한 나라에서는 대개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부자 나라보다 훨씬 높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탄자니아 83%, 베트남 77%, 자메이카 67%였고, 독일은 60%, 미국은 61%, 일중독자의 나라라고들 하는 한국은 63%였다. 각주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돈을 버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더한 수를 생산가능인구 전체로 나눈 값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이들 가운데 아주 많은 비율이 학교에 가는 대신 일한다. 유니세프는 2010~18년 동안 최빈국(LDCs)의 5~17세 아동 가운데 평균 29%가 일하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여기에는 집안일, 동생 돌보기, 신문 배달 같은 '아이들의 일'을 하는 아이들은 들어 있지 않다. 각주에 따르면 최빈국은 대략 소득이 1,000달러 미만인 나라지만, 정확한 정의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동의 거의 절반(49%)이 일했고,

부르키나파소 · 베냉 · 차드 · 카메룬 ·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의 아동 노동률(일하는 아동의 비율)은 40% 안팎이었다. 게다가 부자 나라에서는 신체적으로 한창때인 18~24세의 대다수가 전문대학 · 대학이나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는다. 해당 연령 집단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미국 · 한국 · 핀란드 같은 일부 부자 나라에서 90%에 이를 수 있는 반면, 40개쯤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10%도 안 된다. 곧 부자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성인기 초반에 꽤 들어서고 나서야 일을 시작하며, 그 가운데 많은 이가 문학 · 철학 · 인류학 · 역사처럼 경제적 생산성을 곧바로 높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배운다. 저자는 이런 공부가 다른 이유로 매우 가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은퇴 후 연령(나라에 따라 60~67세)까지 사는 사람의 비율이 부자 나라보다 낮다. 그러나 살아 있는 한, 가난한 나라의 노인들은 부자 나라의 노인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이가 은퇴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노인이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자영농이나 가게 주인으로, 또는 무급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을 하며 일한다. 더구나 일할 때에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일한다.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도네시아처럼 더 가난하고 '더 더운' 나라 사람들은 독일인 · 덴마크인 · 프랑스인보다 60~80%쯤, 미국인 · 일본인보다 25~40%쯤 더 오래 일한다. 덧붙여 일본인은 '일개미'라는 평판과 달리 요즘은 미국인보다 덜 일한다.

어법

- **it is a complete myth that people in poor countries, many of which are in the tropics, lack in terms of work ethic**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many of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poor countries; 사물이라 which). 변형 → many of them은 접속사 없이 두 절을 이어 비문.
- **usually a much higher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working in poor countries than in rich ones** : 주어 a proportion(단수) → is. much = 비교급 강조. than in rich ones = in 반복으로 비교 대상을 맞춤. ones = countries.
- **UNICEF … estimates that, during the 2010–18 period, on average 29% of children aged five to seventeen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were working** : 부분 · 비율 표현(29% of) + 명사 → 동사는 of 뒤 명사(children, 복수)에 맞춰 were. aged five to seventeen = 과거분사 후치(~세의).
-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re in tertiary education of the relevant age cohort could be as high as 90% in some rich countries … whereas it is less than 10% in forty or so poor countries** : 주어 The percentage(단수) — 조동사 could라 수 일치가 드러나지 않지만, 뒤의 it is(단수)가 같은 주어를 받는다. those who = ~하는 사람들. of the relevant age cohort = percentage에 걸림(해당 연령 집단 가운데). as high as = ~만큼 높은(최대). whereas = 대조. or so = ~쯤.
- **in rich countries, most people are not working until they are well into their early adulthood, many of them learning things that may not directly raise their economic productivity** : not ~ until = ~이 되어서야 비로소 … 하다. well into = ~에 꽤 들어서. many of them learning = 의미상 주어(many of them)를 밝힌 독립분사구문. may not directly = 곧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추측).
- **But insofar as they are still alive, old people in poor countries tend to work much later into their lives than do their rich-country counterparts, as many of them cannot afford to retire** : insofar as = ~하는 한. than + do + 주어 = 비교절 도치(do = work를 받는 대동사). as = 이유. afford to V = ~할 형편이 되다.
- **People in poorer, 'hotter' countries … work around 60–80% longer than do the Germans, the Danes or the French, and 25–40% longer than do the Americans or the Japanese** : 수치 + 비교급(60–80% longer) = ~만큼 더. than do + 주어 = 도치 비교. 두 비교가 and로 병렬.
- **the Japanese (who are, by the way, despite their reputation for being 'worker ants', these days working less than the Americans)** : who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Japanese). despite + 명사(reputation). reputation for being ~ = ~라는 평판. by the way = 덧붙여. these days + 현재진행 = 요즘의 경향.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yth	근거 없는 믿음	fallacy	fact
counterpart	(대응하는) 상대	equivalent	—
proportion	비율	share	—
participation	참가	involvement	—
workaholic	일중독자	—	idler
estimate (v.)	추정하다	calculate	—
chore	허드렛일	task	—
sibling	형제자매	brother or sister	—
prime (n.)	한창때	peak	decline
tertiary	(교육이) 고등의	higher	primary
cohort	(연령) 집단	group	—
afford to V	~할 형편이 되다	manage to	—
decrepit	노쇠한	frail	robust
reputation	평판	image	—

내용 일치 근로 의식 부족 = 완전한 신화(저자) · 경제활동참가율(2019, 세계은행) = 탄자니아 83 · 베트남 77 · 자메이카 67% vs 독일 60 · 미국 61 · 한국 63%(일중독자의 나라'라고들 하는') · 정의 = 취업자 + 적극적 구직자 ÷ 생산가능인구(38쪽 각주 iii) · 아동 노동(UNICEF, 2010~18) = 최빈국 5~17세 평균 29% · '아이들의 일'은 제외 · 최빈국 = 대략 소득 1,000달러 미만(38쪽 각주 iv) · 에티오피아 49% · 부르키나파소 등 약 40% · 부자 나라 18~24세 대다수 = 고등교육 · 최대 90%(미국 · 한국 · 핀란드) vs 40개쯤의 가난한 나라 10% 미만 · 인문학 = 다른 이유로 매우 가치 있다(저자의 믿음) · 은퇴 후 연령 = 60~67세 · 노동 시간 = 독일 · 덴마크 · 프랑스보다 60~80% · 미국 · 일본보다 25~40% 더 · 일본인은 요즘 미국인보다 덜 일함. **지칭** 36쪽 ¶4 many of which = poor countries / they work much harder = 가난한 나라 사람들 / 36쪽 ¶6 this(does not include) = 29%라는 추정치 / 36쪽 ¶7 it(is less than 10%) = 고등교육 비율 / many of them = 부자 나라의 젊은이들 / these(are very valuable) = 문학 · 철학 같은 공부 / 37쪽 ¶1 they · many of them · them = 가난한 나라의 노인 / 37쪽 ¶2 who · their reputation = the Japanese.

> **한 줄 요약** 경제활동참가율 · 아동 노동 · 늦은 사회 진출 · 노년의 노동 · 노동 시간을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오래 일한다.

3-5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 개인이 아니라 구조 37쪽 ¶3 ~ 38쪽 ¶2

원문 위치 원서 37쪽 ¶3 ~ 38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7쪽 ¶3 첫 문장	their poverty cannot be a matter of their diligence	cannot be = ~일 리 없다
★	37쪽 ¶3 둘째 문장	It is about productivity.	빈칸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7쪽 ¶3 셋째 문장	they produce much less because they are not as productive	not as + 원급
★	37쪽 ¶4 첫 문장	not even mainly due to the qualities of individual workers	내용 일치 — 개인 자질은 주된 원인이 아님
★	37쪽 ¶4 셋째 문장	as individual workers, as productive as their rich-country counterparts	내용 일치 — 대부분의 일자리
▲	37쪽 ¶4 넷째 문장	upon arrival, despite the fact that they do not acquire extra skills	upon + 명사 / despite the fact that
★	37쪽 ¶4 다섯째 문장	better technologies … higher-quality infrastructure … better-functioning social arrangements	빈칸 · 요약 후보
▲	37쪽 ¶4 여섯째 문장	It is as if a jockey who used to struggle with an undernourished donkey is suddenly riding	as if + 직설법 / used to
◆	37쪽 ¶4 일곱째 문장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밑줄 의미 1순위
▲	37쪽 ¶5	why poor countries have less productive … arrangements … is a complex story	의문사절 주어 → is
●	37쪽 ¶5 ~ 38쪽 첫 줄	low-value primary commodities · intractable · deficient · unfair	어휘 반전 후보
▲	38쪽 ¶1	what is clear is that	what절 주어 + is that
★	38쪽 ¶1	forces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 least of all their unwillingness to work hard	저자의 주장 · 주제문
▲	38쪽 ¶2 첫 문장	has helped the global elites … blame the poor individuals	단수 주어 → has / help + O + 원형
★	38쪽 ¶2 둘째 문장	Perhaps getting the story about the coconut right will help	추측(Perhaps) · 동명사 주어

내용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면, 그들의 가난은 근면의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생산성의 문제다. 이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삶의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일하지만,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아서 훨씬 적게 생산한다. 그리고 이 낮은 생산성은 교육 수준이나 건강 같은 개별 노동자의 자질 때문인 것도 주로는 아니다. 그런 것은 일부 고급 일자리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는 개인으로서는 부자 나라의 노동자만큼 생산적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간 이민자들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더 익히거나 건강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데도 도착하자마자 생산성이 크게 오른다. 갑자기 더 나은 기술을 갖고 더 잘 경영되는 생산 단위(공장 · 사무실 · 가게 · 농장)에서 일하며, 더 질 좋은 인프라(전기 · 교통 · 인터넷)와 더 잘 작동하는 사회 제도(경제 정책 · 법 체계)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이다. 영양이 부족한 당나귀로 고생하던 기수가 갑자기 순종 경주마를 타게 된 것과 같다. 물론 기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누가 경주에서 이기느냐는

그가 탄 말 — 또는 당나귀 — 이 대체로 결정한다. 가난한 나라에 왜 낮은 생산성을 낳는, 덜 생산적인 기술과 사회 제도가 있는지는 복잡한 이야기여서, 이 짧은 장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수많은 요인을 논의해야 한다. 나라들을 낮은 가치의 1차 산품에 특화하도록 몰아넣은 식민 지배의 역사,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분열, 엘리트의 결함(비생산적인 지주, 역동성 없는 자본가 계급, 비전 없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 부자 나라에 유리한 불공정한 국제 경제 체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대체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 정치적 · 기술적 힘 때문이지 개인의 결점 때문이 아니며,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코코넛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거짓 이미지가 보여 주는, 가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양쪽의 세계 엘리트들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개인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저자는 코코넛 이야기를 바로잡으면 어쩌면 나머지 우리가 그 엘리트들에게 역사적 불의와 배상, 국제적 권력의 비대칭, 나라 안의 경제 · 정치 개혁에 관한 어려운 질문에 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어법

- **If people in poor countries are actually working much hard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rich countries, their poverty cannot be a matter of their diligence** : 직설법 조건(앞의 근거가 사실이라면 → 논리적 귀결). cannot be = ~일 리 없다(강한 부정 추측). a matter of = ~의 문제.
- **they produce much less because they are not as productive** : not as + 원급 = ~만큼 …하지 않은(as their counterparts in rich countries 생략). much less = 비교급 강조(훨씬 적게).
- **This low productivity is, in turn, not even mainly due to the qualities of individual workers, such as their education level or health** : due to + 명사 = ~ 때문인. not even mainly = 주된 원인조차 아니다(부분 부정 — '전혀 상관없다'가 아님). in turn = 이번에는, 다시.
- **immigrants from poor economies into rich ones experience a vast increase in their productivity upon arrival, despite the fact that they do not acquire extra skills or experience dramatic improvements in health** : upon + 명사 = ~하자마자. despite는 전치사라 절을 받으려면 the fact that + 절. do not A or B = A도 B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experience = 동사(acquire와 병렬).
- **It is as if a jockey who used to struggle with an undernourished donkey is suddenly riding a thoroughbred racehorse** : as if 뒤에는 가정법(were riding)도, 직설법도 올 수 있다. 원서는 직설법 is riding. who used to V = 주격 관계대명사 + 과거의 상태 · 습관(예전엔 ~하곤 했다).
-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 or the donkey – that he is riding** : 의문사 who가 이끄는 명사절(간접의문문)이 주어 → 단수 is. be determined by = ~에 의해 결정되다. that he is riding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horse). he = the jockey.
- **why poor countries have less productive technological and social arrangements that result in low productivity is a complex story that requires discussion of a whole host of factors that I cannot do justice to in this short chapter** : why절(명사절) 주어 → 단수 is. that result in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rrangements → 복수). do justice to = ~을 제대로 다루다(that I cannot do justice to = 전치사를 뒤에 남긴 목적격 관계절). a whole host of = 수많은.
- **what is clear is that poor people in poor countries are poor largely because of … forces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rather than because of their individual shortcomings, least of all their unwillingness to work hard** : what절 주어 + is + that절 보어 = 분명한 것은 ~라는 것이다. beyond one's control = 통제할 수 없는. rather than = ~이 아니라. least of all = (그중에서도) ~은 더더욱 아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ligence	근면	industry	laziness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inefficienc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igh-end	고급의	upscale	low-end
acquire	습득하다	gain	lose
steep	가파른, 급격한	sharp	gradual
undernourished	영양이 부족한	underfed	well-fed
thoroughbred	순종의	purebred	mixed-breed
do justice to	제대로 다루다	treat fully	—
domination	지배	rule	—
intractable	다루기 힘든	stubborn	manageable
deficient	결함이 있는	inadequate	adequate
corrupt	부패한	dishonest	honest
shortcoming	결점	flaw	strength
restitution	배상	compensation	—

내용 일치 가난 =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 · 더 오래, 삶의 더 많은 기간 일하지만 덜 생산 · 낮은 생산성의 주된 원인 ≠ 개인의 자질(교육 수준 · 건강은 일부 고급 일자리에서만 중요) ·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개인으로서는 부자 나라 노동자만큼 생산적 · 이민자 = 기술 · 건강이 달라지지 않아도 도착하자마자 생산성 급등 · 까닭 = 더 나은 기술 · 더 잘 경영되는 생산 단위 · 인프라 · 사회 제도 · 기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승부는 '대체로' 말이 정함 · 구조적 원인 4가지(식민 지배 · 정치 분열 · 엘리트의 결함 · 불공정한 국제 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일 뿐' · 결론 = 통제할 수 없는 역사 · 정치 · 기술의 힘 · 엘리트(부자 나라 + 가난한 나라) = 가난한 개인 탓 · 바로잡으면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Perhaps). **밑줄 의미** It is about productivity = 가난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다 /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 노동자를 둘러싼 기술 · 경영 · 인프라 · 제도가 개인의 능력보다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한다 / the rest of us = 엘리트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 37쪽 ¶4 These things = 교육 수준이나 건강 / he(is riding) = the jockey / 38쪽 ¶2 those elites = 세계 엘리트.

> **한 줄 요약** 가난한 나라의 가난은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이고, 그 낮은 생산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 · 제도 · 역사의 힘에서 오므로, 코코넛 이야기를 바로잡아 가난한 개인을 탓해 온 엘리트에게 물어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3 COCONUT]

범위	Coconut (원서 PDF 34~38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e point about poverty in poor nations is clear. People there stay poor mostly owing to historic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pressures they cannot control, not to their own flaws, and least of all to laziness. The coconut myth, a basic misreading of the roots of poverty, has let global elites from rich and poor nations alike put the blame on the poor. Getting the coconut story right might help everyone else press those elites on hard issues, from historical injustice and compensation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and the need for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at home.

① The poor must work harder to escape poverty.
② Global elites deserve credit for fighting poverty.
③ Stop blaming the poor for poverty beyond their control.
④ Poor nations should rely on tropical abundance.
⑤ Personal flaws mainly cause poverty in poor nation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conut has so many uses that it has become, at least for many outsiders, a symbol of the natural abundance found in hot countries. That is why a chocolate bar with a coconut centre, a favourite in Britain and Canada, is called Bounty, and hardly by chance. On the wrapper are a coconut palm, an opened coconut, white sand and a clear blue sea. Bounty may not rank among the world's top chocolate brands, but it is popular enough to have a place in Celebrations, the Mars, Inc. box of miniature bars, next to stars like Snickers, Twix and Galaxy.

① Coconut: A Symbol of Tropical Plenty
② Why Bounty Is the World's Best-Known Chocolate
③ The Hidden Costs of Growing Coconut
④ How Mars, Inc. Invented the Coconut Bar
⑤ Tropical People's Love for Chocolat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belief that people in poor nations, which are often tropical, lack a work ethic has no basis in fact. In truth, they work far harder than people in wealthy nations. For one thing, a much bigger share of working-age people usually has a job in poor nations. In 2019, World Bank figures 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put the rate at 83% for Tanzania, 77% for Vietnam and 67% for Jamaica, but at 63% for South Korea, supposedly a nation of workaholics, 61% for the US and just 60% for Germany.

① South Korea is truly a nation of workaholics.
② Rich nations have more people seeking work.
③ Tropical heat weakens the will to work.
④ The poor work harder than people in rich nations.
⑤ Unemployment mainly causes global poverty.

4. 밑줄 친 some prejudices die har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ome twenty-five years after his first piña colada, the author has grown to like coconut in other forms too. He loves coconut water for its cool, sweet yet salty taste. At salad bars in South America or South-east Asia, he loads up on palm hearts, though these may come from other kinds of palm rather than the coconut palm. He has even learned to enjoy, if not exactly adore, the grated coconut in South Indian dishes like thoren or sambar. Yet he is still not won over by coconut in biscuits such as macaroons; some prejudices die hard.

① He has dropped all his early views on coconut.
② His old distaste for coconut in biscuits remains.
③ Palm hearts rarely come from coconut palms.
④ He now prefers biscuits to South Indian food.
⑤ Prejudices against coconut are spreading.

5. 밑줄 친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poor countries, low productivity does not mostly come down to individual workers' traits, such as how healthy or educated they are. Such traits count in certain top-level jobs, yet in most kinds of work a poor-country worker is, individually, just as productive as a rich-country one. Consider migrants who move from poor to rich economies. Without picking up new skills or becoming much healthier, they see their productivity leap as soon as they arrive. The difference is that they now use superior technology in better-managed workplaces and enjoy stronger infrastructure and sounder social institutions. Imagine a jockey who has long battled with a half-starved donkey and is suddenly given a thoroughbred to ride. His skill matters, yet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① A skilled rider can win on any animal.
② Immigrants gain new skills when they move.
③ Good health is the key to productivity in all jobs.
④ Rich countries train their workers more carefully.
⑤ The conditions around workers matter more than their own ability.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A smaller share of people in poor countries reach post-retirement age, which is somewhere between sixty and sixty-seven depending on where you live. Yet older people there who are still alive generally carry on working much longer than ① their peers in wealthy countries, because many of ② them have no money to retire on. A great many of ③ them keep going until ④ they are physically frail, running their own farms or shops or doing unpaid household and care work. What is more, when poor-country people work, they work far longer. In Bangladesh, Indonesia, Cambodia and South Africa, people work some 60–80% more hours than the French, Danes or Germans, and 25–40% more than the Japanese or Americans. The Japanese, despite ⑤ their 'worker ant' image, now actually work less than American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Coconut has uses beyond the kitchen. An unripe coconut holds clean water, and sailing ships on long tropical voyages reportedly took young coconuts along as an emergency supply. Coconut oil was, as far as we know, the earliest vegetable oil that British fish-and-chip shops cooked with; those shops were founded by Jewish immigrants around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Nut Lard was a well-known brand. The oil also goes into soap and cosmetics. Factories once used it to lubricate machines until petroleum-based products took its place, and it provided glycerine for dynamite. Coir, which is husk fibre, is made into mats, sacks, brushes and ropes and used to stuff mattresses. Husks and shells become charcoal, and in the Philippines the oil is turned into biodiesel.

① 범선들은 다 익은 코코넛을 비상 식수로 실었다고 한다.
② 영국 피시 앤드 칩스 가게는 19세기 중반 유대인 이민자가 세웠다.
③ 코코넛 오일은 석유계 윤활유가 나온 뒤에 공장에서 쓰였다.
④ 코이어는 코코넛 껍데기를 태워 만든 연료다.
⑤ 필리핀에서는 코코넛 껍데기로 바이오디젤을 만든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Many children in poor countries are at work when they should be at school. According to UNICEF estimates for the 2010–18 period, 29% of five-to-seventeen-year-olds in the group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on average, had jobs. Roughly speaking, LDCs are countries whose income is under $1,000, though the official definition is much more complicated. The figure excludes so-called 'children's work', for example helping with housework, minding younger siblings or doing a paper round. In Ethiopia almost half of all children (49%) worked, and in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had and Sierra Leone the child labour rate, that is, the share of children at work, was about 40%.

① 유니세프의 추정은 2010~18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최빈국 아동 노동 비율 29%는 5~17세 기준이다.
③ 29%에는 집안일이나 동생 돌보기 같은 '아이들의 일'도 포함된다.
④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동의 거의 절반이 일하고 있었다.
⑤ 부르키나파소와 차드의 아동 노동 비율은 약 40%였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For about the first thirty-five years of his life, the author thought little of coconut. He had not seen a single coconut before he moved to Britain in 1986, ① since South Korea lay too far north to grow the fruit and was then too poor to buy foreign 'luxuries' like imported fruit. The only coconut he ② had come across was dried, grated flesh ③ mixing into biscuits sold as exotic snacks. His opinion was turned upside down in the late 1990s, when he had his first piña colada while on holiday at a beach in Cancún. He had always liked pineapple juice, but combined with rum and coconut milk, it ④ tasted magical. Half of the trip went on piña coladas; the rest he spent ⑤ chasing his toddler daughter around.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at holds back workers in poor nations is less their own ability than the weak technologies and social arrangements around them. Why poor nations end up with such unproductive arrangements (A) [is / are] a complicated question, and the author admits that one short chapter cannot do it justice. Still, he lists the key factors. One is colonial rule, which forced many countries into (B) [specialize / specializing] in primary goods of little value. Others include bitter political divisions that resist solution and failing elites: landlords who produce nothing, capitalists who lack dynamism, and corrupt leaders with no vision. Finally, there is a global economic order (C) [what / that] is tilted toward rich nations.

	(A)	(B)	(C)
①	is	specialize	what
②	are	specializing	that
③	are	specialize	that
④	is	specializing	that
⑤	is	specialize	t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In wealthy countries, most people between 18 and 24, an age when the body is at its ① prime, are enrolled in junior colleges, universities or higher. In a few rich countries, including Finland, South Korea and the US, up to 90% of this age group may be in tertiary education, whereas the share is ② below 10% in about forty poor countries. Consequently, most young people in rich countries do not ③ start work until well into adulthood. Many study subjects such as history, anthropology, philosophy and literature, which may not ④ directly make them more productive economically. Yet the author believes such studies are ⑤ worthless for other reasons, so he does not dismiss those years as wasted.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Look at the evidence as a whole. Compared with rich countries, poor countries have more of their adults in the workforce, more children at work instead of in school, more old people working until their bodies fail, and longer hours for those who work. If poor-country people really work so much harder than people in rich ones, their poverty cannot be explained by any shortage of diligence. Instead, it comes down to _____. These people spend far more hours, over far more of their lives, at work than people in rich countries do, yet they turn out much less, because each hour of their labour yields less.

① productivity
② diligence
③ working hours
④ climate
⑤ willpower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Were they to do so, they would risk having a falling coconut crack their skulls.

According to a popular story, tropical people are poor because they lie under coconut palms, waiting for the nuts to drop. It sounds believable enough, except that it is completely false. (①) For one thing, few sensible people in the tropics would stretch out under a coconut palm, even for a free nut. (②) Falling coconuts really do kill people, so often in fact that an urban myth, an untrue one, claims they cause more deaths than sharks. (③) So even the made-up 'lazy native' would not lie under the palm. (④) He would rather wait elsewhere, lying down if he wished, and go over now and then to see whether a coconut had dropped.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s the author came across more savoury dishes using coconut milk, his regard for coconut rose. ① First he met the red and green curries of Thailand, then laksa, a hot Malaysian-Singaporean noodle soup made with coconut milk. ② Then came nasi lemak, a rice dish of Malaysia and Indonesia cooked with pandan leaves and coconut milk, eaten with chilli sambal plus extras like cucumber, half an egg, peanuts and crispy anchovies. ③ On a visit to Brazil he grew to love moqueca Baiana, the Bahian take on the fish stew moqueca, flavoured with coconut milk and chilli. ④ Coir, the fibre taken from coconut husks, is used to make mats, sacks, brushes and ropes. ⑤ Finally, dishes from Sri Lanka and South India, rich with coconut milk yet lighter than northern Indian food, completed his conversion, though he does not claim to like them better.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 many people, the coconut represents the natural wealth of the tropics, and it is frequently called on to 'explain' why so many people there are poor.

(A) That easy life, the story goes, comes from food growing everywhere, from bananas to mangoes, and from a heat that makes sturdy housing and much clothing needless. So people survive without working hard and grow less industrious.

(B) A widespread belief in wealthy countries is that poverty in poor countries comes from people's failure to work hard. As most poor countries are tropical, this supposed laziness is often blamed on the easy life the tropics are thought to provide.

(C) Because the claim is offensive, people usually voice this view of tropical laziness privately, often with coconut: the 'natives', they claim, lie beneath a coconut palm waiting for fruit to drop rather than farming or, better yet, making thing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conut is so firmly tied to the tropics that it even shows up in economics teaching. Many economists teach basic ideas with a model called the 'Robinson Crusoe economy', which produces and consumes a single good, coconut. Yet the novel Robinson Crusoe never once mentions coconut. The fruits Crusoe eats on his island are melons, grapes, lemons and limes. He also grows rice and barley; these sprang up from husks he had tossed out of a chicken-feed bag he discovered on his wrecked ship, assuming the bag was empty. He fishes and hunts goats as well, yet coconut is entirely absent from his meals.

→ Coconut is so closely (A) _____ with the tropics that economists built a teaching model around it, even though the novel the model is named after (B) _____ coconut.

① associated ..... leaves out
② contrasted ..... leaves out
③ associated ..... celebrates
④ compared ..... depends on
⑤ confused ..... feature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Before coming to Britain in 1986, the author had never seen a coconut, and his first piña colada was in Cancún, Mexico, during the late 1990s. Coconut is useful in many ways; in the Philippines, for instance, its oil becomes biodiesel. Economists teach with a 'Robinson Crusoe economy' built on coconut, yet the novel itself never mentions the fruit. Coconut is also used to blame tropical poverty on laziness, but the numbers disagree. Tanzania's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2019 was 83%, against 60% for Germany. During 2010–18, 29% of five-to-seventeen-year-olds in the world's least developed countries were working, and people in hot, poor nations like Cambodia work 60–80% longer than Germans.

<QUIZ>

(1) In what year did the author come to Britain?
Answer for (1): _____

(2) Where did the author have his first piña colada?
Answer for (2): _____

(3) In which country is coconut oil made into biodiesel?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coconut is mentioned in the novel Robinson Crusoe?
Answer for (4): _____

(5) What was Tanzania's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2019?
Answer for (5): _____

(6)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hat share of children between five and seventeen were working?
Answer for (6): _____

(7) How much longer than the Germans do people in Cambodia work?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Bahia
B. 25–40%
C. 29%
D. late 1990s
E. Puerto Rico
F. True
G. 77%
H. Sri Lanka
I. 83%
J. 49%
K. Malaysia
L. 2019
M. 60%
N. 40%
O. the Philippines
P. False
Q. Ethiopia
R. Cancún
S. 60–80%
T. 1986
U. 63%
V. 90%
W. Indonesia
X. 2010–18
Y. Tanzania
Z. Brazil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1986년 영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코코넛을 본 적조차 없었다. (until + 과거 / 과거완료(경험))

02 처음에는 타이 커리가 나왔고, 그다음에는 락사가 나왔다. (부사 문두 도치 First came)

03 장거리 범선들은 덜 익은 코코넛을 비상용 식수로 싣고 다녔다고 한다. (be said to have p.p.)

04 코코넛 오일은 영국의 피시 앤드 칩스 가게들이 쓴 최초의 식물성 기름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have been + 과거분사 후치)

05 코코넛과 열대의 연관은 너무 깊이 자리 잡아서 경제학자들은 코코넛만 생산하는 모델을 쓴다. (so + 부사 + p.p. + that)

06 그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근로 의식 부족을 열대의 풍요 탓으로 돌린다. (attribute A to B)

07 사람들은 정말로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죽는다. (강조의 do + get 수동)

08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완전한 신화다.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09 최빈국 아동의 29%가 일하고 있었다. (비율 + of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10 가난한 나라의 노인들은 부자 나라의 노인들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일한다. (than + do + 주어 도치)

11 누가 경주에서 이기느냐는 대체로 그가 타는 말이 결정한다.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수동)

12 분명한 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이다. (what절 주어 + is that)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가 영국에 온 해 / 그전까지 접한 코코넛	
첫 피냐 콜라다를 마신 곳 / 때	
피냐 콜라다의 재료(장 첫머리)	
나시 르막을 짓는 재료 / 삼발	
모케카 바이아나의 고장	
영국 피시 앤드 칩스 가게를 세운 사람 / 때	
인기 있던 코코넛 오일 상표(38쪽 각주 i)	
코코넛 오일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나라	
코코넛 겉껍질 섬유 / 쓰임	
코코넛 필링 초콜릿 바 / 들어 있는 모음	
경제학자들이 쓰는 단일 상품 경제 모델	
크루소가 섬에서 먹은 과일(38쪽 각주 ii)	
코코넛에 관한 도시 전설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 탄자니아 · 베트남 · 자메이카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 독일 · 미국 · 한국	

항목	답
2010~18년 최빈국 5~17세 아동 노동 / 에티오피아	
최빈국의 대략적 기준(38쪽 각주 iv)	
고등교육 비율: 일부 부자 나라 / 40개쯤의 가난한 나라	
은퇴 후 연령	
독일 · 덴마크 · 프랑스 / 미국 · 일본보다 더 일하는 정도	
기수 비유: 고생하던 동물 / 갈아탄 동물	

4-3. 통합 사고 문제 – 1장과 3장을 잇는 자리

문제

1장에서 저자는 무지와 때로는 악의 때문에 우리가 낯선 문화에 부정적 고정관념을 쓰고, 그 나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무엇이든 그 문화 탓으로 돌려 문제의 진짜 원인을 놓친다고 했으며(24쪽 ¶1), 지난날 서양 방문객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을 흔히 게으르다고 묘사했지만(24쪽 ¶4) 일본과 한국의 시간을 지키는 산업 노동력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썼다(25쪽 ¶3). 3장에서 저자는 부자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흔히 가정하고 그 탓을 열대의 풍요가 준다는 편한 삶으로 돌린다고 하고(35쪽 ¶6), 그들의 가난은 근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라고 썼다(37쪽 ¶3).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게으르다'는 고정관념이 진짜 원인을 가린다는 근거를 1장과 3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장 또는 3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근로 의식 부족이라는 생각: More seriously, it is a complete _____ that people in poor countries, many of which are in the tropics, lack in terms of work ethic.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4 ANCHOVY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Anchovy」 (원서 PDF 40~4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5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자연이 준 자원과 사람이 쌓은 능력, 무엇이 오래가는 번영을 낳는가."

이 장은 저자의 레시피인 멸치 달걀 토스트로 시작한다. 작은 생선의 대명사인 멸치가 지중해의 절임과 아시아의 마른 멸치, 발효 생선 소스, 미국인이 마시는 블러디 메리 속 우스터소스까지 음식 문화에 얼마나 큰 자취를 남겼는지 보여 준 뒤, 이야기는 멸치를 먹은 바닷새의 배설물인 구아노가 19세기 페루에 가져다준 호황으로 넘어간다. 그 부는 남획과 전쟁으로 흔들리고, 공기에서 비료를 만든 독일의 하버-보슈법 앞에서 무너진다. 석탄으로 붉은 염료를 만든 BASF, 합성 고무에 휘청인 말레이시아, 커피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거쳐 저자는 1차 산품에 기댄 번영은 쉽게 무너지며, 산업화로 얻은 생산 능력만이 높은 생활 수준을 오래 지켜 준다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3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산업화로 얻은 생산 능력만이 높은 생활 수준을 오래 지킨다(44쪽 ¶2~¶3) / 네덜란드는 기술로 땅을 늘렸다(43쪽 ¶5~44쪽 첫 줄) / 대체물을 만드는 기술은 시장을 없애고 새로 만든다(43쪽 ¶3) / 기술 능력은 자연의 제약을 넘는다(43쪽 ¶4)
4~5	**밑줄 함축 의미**	the proverbial small fish / the biggest fish in the world / it need not detain us here / They drink the stuff / a lot of riches as well as rich flavours / literally out of thin air / not mentioned in polite company / deposing guano from its throne / the most prized red colour from the blackest thing / left its economy reeling / it is, well, easy to produce it / do not 'run out'
6	지칭 추론	he · him · his가 하버(Fritz Haber)와 보슈(Carl Bosch) 사이를 오가는 42쪽 ¶2~¶3 / it(41쪽 ¶1 imbibe it = 발효 멸치 소스) / They · This · It(41쪽 ¶2) / He(41쪽 ¶3 = Humboldt) / That(42쪽 ¶2 = 칠레의 부) / which(42쪽 ¶3 = BASF)
7~8	내용 일치·불일치	구아노 새 · 훔볼트 해류 · 1802년 5,878미터(41쪽 ¶3) / 구아노 호황의 끝 · 초석 · 태평양 전쟁(42쪽 ¶1) / 1856 · 1909 · 1918 · 1925 · 1934 · 1868 · 1897 / 지중해 · 아시아의 멸치 요리(40쪽 ¶2~¶3)
9~10	**어법**	형용사 + as + S + may be · be said to have p.p. · 명령문 + and · 과거분사 후치 · 요리 이름 + 단수 is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a key to + 동명사 · Every + 단수 동사 · 이유의 분사구문 being · not because · consist of · so ~ that · provided that · render + O + 형용사 · a method of -ing · such ~ that · 동격 the fact that · make + O + possible · not to speak of + 동명사 · It is ~ that 강조 · 동격 the danger that · since + 현재완료 · can be p.p. · make it possible to V · 대동사 do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crawny↔plump · diverse↔uniform · loyal↔disloyal · prized↔worthless · desiccated↔moist · offensive↔pleasant · mask↔reveal · notoriety↔renown · depose↔enthrone · synthetic↔natural · reeling↔steady · undermine↔strengthen · augment↔diminish · deplete↔replenish
12	빈칸 추론	the raw material for fermented fish sauce(41쪽 첫 줄) / literally out of thin air(42쪽 ¶2) / destroy existing markets … and create new ones(43쪽 ¶3) / can only be acquired through industrialization(44쪽 ¶2) / do not 'run out'(44쪽 ¶3)
13	문장 삽입	멸치가 가져온 페루의 부(41쪽 ¶2 · ¶4): 번영의 뿌리 → 멸치 수출 때문이 아님(This was not because) → 구아노 수출 호황 → 비료 · 화약 → 1856년 구아노 섬법
14	무관한 문장	인공 염료와 과테말라의 코치닐(42쪽 ¶4)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1856년 구아노 섬법, 41쪽 ¶4)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쉬운 1차 산품 생산과 새 경쟁자(43쪽 ¶2) → 1880년대까지 브라질의 고무 독점 · 마나우스 → 영국의 밀반출 → 베트남 커피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기술 능력으로 자연의 제약을 넘은 독일과 일본 · 석유 파동(43쪽 ¶4 + 44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숫자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많다 – 1802(훔볼트) · 1837(우스터소스) · 1856(구아노 섬법) · 1868(알리자린) · 1879~84(태평양 전쟁) · 1897(인공 인디고 · 카루소) · 1909(하버의 발명) · 1918(노벨 화학상) · 1925 · 1934(칠레의 천연 질산염). 1897년은 두 번 나온다(BASF의 인공 인디고 · 마나우스의 카루소). 숫자도 많다(5,878 · 6,263미터, 250만 · 80만 톤, 30년, 100개 넘는 섬, 세계 고무의 절반, 세계 2위). 인물도 많다(훔볼트 · 하버 · 보슈 · 카루소 · 앤디 로빈슨).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southern Chile → northern Peru ↔ 반대 방향, second-biggest ↔ biggest, Bolivia ↔ Peru land-locked, invented(하버) ↔ commercialized(보슈), declining ↔ rising). '그렇다고들 한다'(are said to · supposedly · probably · there is debate)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Anchovy」 (40~44쪽)

논증형(멸치의 음식 문화 → 발효 생선 소스 · 숨은 멸치 → 구아노와 페루의 호황 → 남획 · 태평양 전쟁 → 하버-보슈법 → 인공 염료 · 합성 고무 → 쉬운 1차 산품 생산 → 기술 능력과 자연의 제약 → 네덜란드 · 일본 → 결론: 산업화). 핵심 축은 **천연자원 vs 생산 능력**, 그리고 **1차 산품 vs 합성 대체물**.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40 ¶1	도입	멸치 = 작은 생선의 대명사 · 마른 아이 = '마른 멸치' /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선
40 ¶2	지중해	피자 토핑(아마) · 필레 · 소금 · 숙성 · 기름 / 남부 이탈리아 파스타 소스 · 피에몬테 바냐 카우다 · 프로방스 타프나드 · 스페인 보케로네스
40 ¶3 + 44 각주 i	아시아	이칸 빌리스 · 나시 르막 / 한국 = 안주 · 반찬 · 육수(다시마 · 마늘) / 회는 흔하지 않음(쉽게 상함)
40 ¶4~41 첫 줄	생선 소스	가장 중요한 역할 = 발효 생선 소스의 원료 / 로마의 리쿠아멘 · 가룸(전언) · 감칠맛 / 느억맘 · 남플라 · 멸치젓 → 김치
41 ¶1 + 44 각주 ii	숨은 멸치	미국인 = 최대의 팬(저자) · 블러디 메리 속 우스터소스 / 영국인의 치즈 토스티
41 ¶2 + 44 각주 iii · iv	페루의 부	19세기 중반 번영의 뿌리 · 멸치 수출이 아님 / 바닷새 구아노 = 비료 · 화약(초석)
41 ¶3	구아노와 훔볼트	가마우지 · 부비새 · 멸치 · 훔볼트 해류(칠레 남부 → 페루 북부) / 1802년 5,878미터 · 구아노의 옹호자 / 구아노 시대
41 ¶4~42 첫 줄	구아노 쟁탈	1856년 구아노 섬법 · 100개 넘는 섬 · 영국의 독점에 맞섬 / 영국 · 프랑스 등도 점령
42 ¶1	호황의 끝	30년 만에 지나친 채취로 감소 · 1870년대 초석이 가림 / 태평양 전쟁(1879~84) · 볼리비아 내륙국 · 칠레의 부
42 ¶2	하버	1909년 공기 중 질소 → 암모니아 → 인공 비료 · 허공에서 비료 / 1918년 노벨 화학상 · 독가스의 악명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42 ¶3 + 44 각주 v	하버-보슈법	보슈 · BASF가 상품화 · 대량 생산 → 구아노가 왕좌에서 밀려남 · 초석도 가치 잃음 / 칠레 250만 톤 → 80만 톤
42 ¶4	염료	인공 염료(영국 · 독일) → 천연 염료 생산자 타격 · 알리자린 → 과테말라의 코치닐 / 추기경의 옷 · 캄파리
42 ¶5	BASF	1868년 콜타르로 알리자린 = 가장 검은 것에서 가장 귀한 붉은색 / 1897년 인공 인디고 → 인도의 인디고 산업 붕괴
43 ¶1	고무	1970년대 말레이시아(세계 고무의 절반) · 합성 고무 → 팜유 · 전자로 다각화 · 첫 타격에 휘청
43 ¶2	쉬운 생산	더 효율적인 생산자의 등장 / 브라질의 고무 독점(1880년대까지) · 마나우스 · 카루소 → 영국의 밀반출 / 베트남 커피 세계 2위
43 ¶3~¶4	기술의 힘	베트남과 독일 화학 산업은 비교가 안 됨 · 대체물 기술 = 시장을 없애고 새로 만듦 / 기술 능력 → 자연의 제약을 넘음
43 ¶5~44 ¶1	네덜란드 · 일본	좁은 땅 →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 · 온실 · 수경 재배 · 컴퓨터 제어 / 연료 없는 일본 · 석유 파동 · 효율 · 원자력
44 ¶2~¶3	결론	지속 가능한 높은 생활 수준 = 산업화를 통해서만 / 생산 능력은 '바닥나지' 않음 · 초석 · 구아노는 고갈
44~45 각주 vi	'천연' 자원	고무 · 커피 · 카카오 · 차 / '자연적' 부존 = 식민주의의 결과(저자의 해석)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멸치의 크기	작은 생선의 대명사 · 마른 아이 = '마른 멸치'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선
멸치를 먹는 법	지중해 – 절여서 기름에(피자 · 파스타 소스 · 딥)	아시아 – 말려서 튀기거나 볶기 · 육수 · 회(쓰임새가 더 다양)
발효 멸치 소스의 팬	느억맘 · 남플라 · 멸치젓의 베트남 · 타이 · 한국	미국인 – 블러디 메리 속 우스터소스로 '마신다'(저자의 생각)
페루 번영의 뿌리	멸치 수출(아님)	멸치를 먹은 바닷새의 구아노 수출
구아노의 가치	말린 새 배설물	질산염 · 인이 풍부한 귀한 비료 · 화약 원료(초석)
구아노 호황	구아노 시대(1840s~1880s) · 구아노 섬 쟁탈	30년 만에 지나친 채취 → 태평양 전쟁 → 칠레로 넘어간 부
비료의 원천	자연에서 캔 구아노 · 초석	하버-보슈법 – 공기 중 질소로 만든 인공 비료
하버의 평판	1918년 노벨 화학상	독가스 개발의 악명 → 점잖은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음
붉은 염료와 인디고	천연 – 과테말라의 코치닐 · 인도의 인디고	인공 – 알리자린(1868) · 인공 인디고(1897), BASF
1차 산품 생산국의 위협	더 효율적인 새 생산자(영국의 고무 농장 · 베트남 커피)	합성 대체물(독일 화학 산업) –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타격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자연의 제약	땅 · 연료 · 자원이 모자라면 한계	기술 능력으로 넘음(독일의 대체물 · 네덜란드의 땅 · 일본의 연료 효율)
번영의 기반	천연자원 — 바닥나거나 남획됨(초석 · 구아노)	산업화로 얻은 생산 능력 — '바닥나지' 않음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nchovy	작은 생선의 대명사(proverbial small fish) · 한국에서 비쩍 마른 아이 = '마른 멸치' ·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선 · 한국 · 일본 · 말레이 · 베트남 · 타이 · 인도 · 프랑스 · 스페인 ·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먹음
지중해식 멸치	필레 · 소금 절이기 · 숙성 · 기름 저장 · 아시아와 지중해 밖에서는 **아마**(probably) 피자 토핑으로 만남 / 남부 이탈리아 = 파스타 소스 · 피에몬테 = **bagna cauda**(마늘 딥) · 프로방스 = **tapenade**(케이퍼 · 블랙 올리브) · 스페인 = **boquerones en vinagre**(식초 · 기름)
ikan bilis / nasi lemak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말려서 튀김 / 나시 르막 = 코코넛 밀크와 판단 잎으로 지은 밥(3장 참조)
한국의 마른 멸치	anju(술안주) · 그대로 또는 고추장에 / 간장 · 설탕으로 볶아 banchan · 견과류 · 풋고추 / 육수 = 마른 멸치 + 마른 dashima(한국 밖에서는 일본 이름 kombu) + 마늘(한국인)
멸치회	일본 · 한국 · 흔하지 않음 / 44쪽 각주 i = 아주 빨리 상해서(perishability) 잡은 곳 아주 가까이에서만
liquamen / garum	로마인이 음식에 듬뿍 뿌렸다**고 한다**(are said to) · 둘이 같은 것인지는 **논쟁** · 보통 멸치로 만든 발효 소스 · umami = 다섯 기본 맛의 하나(단맛 · 짠맛 · 쓴맛 · 신맛과 함께)
nuoc mam / nam pla / myulchi-jut	베트남 · 타이 생선 소스에 가장 자주 쓰는 물고기 = 멸치 / 한국 = 멸치(myulchi)로 멸치젓 · 좋은 멸치젓 = 좋은 김치의 열쇠
Bloody Mary	미국을 대표하는 칵테일 가운데 하나 · 헨리 8세의 딸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 자매인 영국 여왕 메리의 이름을 땄다**고들 한다**(supposedly) · 우스터소스 속 발효 멸치 소스 / 영국인 = 치즈 토스티
44쪽 각주 ii	우스터소스 = **1837년** 영국 회사 **Lea & Perrins**가 처음 상품화(지금은 미국 회사 Kraft Heinz 소유) · 식초 · 당밀 · 타마린드 · 향신료 · 설탕 · 소금 · 발효 멸치 · 정확한 비율은 영업 비밀
guano	19세기 중반 페루 번영의 뿌리 · 바닷새 배설물을 말린 것 · 질산염 · 인이 풍부, 냄새가 심하지 않음 · 초석이 들어 있어 화약 원료 / 각주 iv = 화약의 또 다른 핵심 원료 글리세린은 코코넛(3장 참조)
44쪽 각주 iii	요즘 페루는 멸치를 실제로 직접 수출 = 다른 곳(특히 **칠레**)에서 기르는 연어의 어분 · 알려 준 사람 = **Andy Robinson**
cormorants · boobies	페루 태평양 연안 앞바다의 **섬**에 산 새 · 주식 = 물고기, 주로 멸치 / 구아노 시대 = **1840년대~1880년대**(경제사학자들의 표현)
Humboldt current	영양이 풍부 · **칠레 남부 → 페루 북부** · Alexander von Humboldt(프로이센 과학자 · 탐험가) · **1802년** 침보라소 화산 **5,878미터**(당시 최고 등반 세계 기록) · 산 높이 **6,263미터**(에콰도르 최고봉) · 유럽에서 페루 구아노를 가장 일찍 옹호한 사람 가운데 하나
Guano Islands Act	**1856년** 미국 의회 · 점유되지 않고 다른 정부의 관할도 아닌 구아노 섬을 미국 시민이 차지 / 태평양 · 카리브해의 **100개 넘는** 섬 · 영국의 페루 구아노 무역 독점에 맞섬 · 영국 · 프랑스 등도 점령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saltpetre	질산나트륨 · **1870년대** 발견 · 비료 · 화약 · 고기 방부제 / 질산염의 더욱 중요한 원천 · 재생 불가능한 광물 자원
War of the Pacific	**1879~84년** · 초석 전쟁 · 칠레가 볼리비아 해안 **전부**(볼리비아 = 내륙국) · 페루 남부 해안의 **절반가량** 점령 · 칠레가 큰 부자
Fritz Haber	독일 과학자 · **1909년** 고압 전기로 공기 중 질소 분리 → 암모니아 → 인공 비료 · **1918년** 노벨 화학상 · 1차 세계대전에 쓰인 독가스 개발로 악명
Carl Bosch / BASF	보슈 = BASF에서 일한 독일 과학자 · 하버의 발명을 상품화 · 하버-보슈법 / BASF = Badische Anilin und Soda Fabrik(바덴 아닐린 소다 공장) · 각주 v = 아닐린 = 모브 · 인디고 · 노란색 등 인공 염료의 기초 재료 · 의약품에도
칠레의 천연 질산염	구아노 + 초석 · **1925년 250만 톤 → 1934년 80만 톤**
cochinilla / alizarin	과테말라 = 코치닐 수출에 크게 의존 · 진홍색 · 가톨릭 추기경의 옷 · 캄파리(네그로니) / 코치닐 '딱정벌레' = 딱정벌레가 아님(쥐며느리를 닮음) / 알리자린 = BASF, **1868년** 콜타르로
indigo	BASF · **1897년** 인공 인디고 대량 생산 기술 → 인도의 인디고 산업 붕괴 · 인도 노동자의 생계 · 영국 등 유럽 인디고 농장주 파산
rubber	1970년대 말레이시아 = 세계 고무의 **절반** · 합성 고무(독일 · 러시아 · 미국 과학자, 20세기 전반) · 팜유 · 전자로 다각화 / 브라질 = **1880년대까지** 독점 · 마나우스 아마존 극장 · 카루소(**1897년**) · 영국이 밀반출 → 말레이시아(당시 말라야) · 스리랑카
Vietnam coffee	1980년대 중반 수출 거의 0 → **2000년대 초**부터 세계 **2위**(브라질 다음) · 다른 커피 생산국에 심각한 영향
Netherlands / Japan	네덜란드 = 인구 밀도 최상위권(도시 · 섬 국가 제외) ·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미국 다음) · 온실 · 수경 재배 · 컴퓨터 제어 / 일본 = **1970년대** 석유 파동 · 연료 효율 기술 · 원자력
44~45쪽 각주 vi	고무 3대 생산국 = 타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브라질은 10위 밖) / 커피 = 아프리카 식물 · 예멘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처음 대규모 재배 / 카카오 = 에콰도르 · 페루 원산 · 5대 생산국은 아프리카 · 아시아 / 차 = 원래 중국만 → 이제 인도 · 케냐 · 스리랑카도 주요 생산국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Anchovy」 (원서 PDF 40~44쪽) · 5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4-1 작은 생선이 가장 큰 생선인 까닭 40쪽 ¶1~¶3 + 44쪽 각주 i

원문 위치 원서 40쪽 ¶1~¶3 + 44쪽 각주 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0쪽 ¶1 첫 문장	Anchovy is the proverbial small fish	도입 — 작은 생선의 대명사
◆	40쪽 ¶1 둘째 문장	scrawny kids get called 'dried anchovies'	밑줄 의미: 비쩍 마른 아이
◆	40쪽 ¶1 셋째 문장	the biggest fish in the world – in terms of impact on food cultures	밑줄 의미: '크기'의 기준을 바꾼 반전
▲	40쪽 ¶1 넷째 문장	What other fish is eaten in large quantities by …?	수사의문문(답: 멸치뿐) · 수동태
★	40쪽 ¶2 첫 문장	most people probably encounter anchovies as a pizza topping	probably — 단정 선지 함정
▲	40쪽 ¶2 둘째 문장	the ones filleted, salted, matured and preserved in oil	과거분사 네 개의 후치 수식
★	40쪽 ¶2 넷째 문장	a garlicky dip called bagna cauda, to eat with vegetables	내용 일치 — 피에몬테
▲	40쪽 ¶2 다섯째 문장	add capers and black olives to cured anchovies and mash them up	add A to B · 구동사 + 대명사
▲	40쪽 ¶2 여섯째 문장	boquerones en vinagre, anchovies marinated in vinegar and oil, is	요리 이름(단수) + is
◆	40쪽 ¶2 일곱째 문장	I am salivating as I write	밑줄 의미: 군침이 돈다(저자의 애정)
▲	40쪽 ¶3 첫 문장	Go to Asia, and the uses are even more diverse	명령문 + and · 비교급 강조 even
★	40쪽 ¶3 둘째 문장	known as ikan bilis … an accompaniment to nasi lemak	내용 일치 · 3장(코코넛)과 연결
★	40쪽 ¶3 셋째 문장	an anju (snacks eaten with an alcoholic drink)	내용 일치 — 안주
▲	40쪽 ¶3 넷째 문장	often glazed with soy sauce and sugar	과거분사 삽입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0쪽 ¶3 여섯째 문장	dried anchovies and dried dashima … plus garlic (for us Koreans)	내용 일치 — 육수
◆	40쪽 ¶3 일곱째 문장 + 44쪽 각주 i	although it is not a common dish / perishability	회가 흔하지 않은 까닭

내용

멸치는 작은 생선의 대명사다. 한국에서는 비쩍 마른 아이를 '마른 멸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 따지면 멸치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생선이다. 한국인 · 일본인 · 말레이인 · 베트남인 · 타이인 · 인도인 · 프랑스인 · 스페인인 · 이탈리아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먹는 생선이 또 어디 있느냐고 저자는 묻는다. 아시아와 지중해 밖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피자 토핑으로 멸치를 만날 것이다. 이 멸치는 지중해식으로 필레를 떠서 소금에 절이고 숙성시켜 기름에 저장한 것이다.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절인 멸치를 파스타 소스에 쓰고, 북부 이탈리아의 피에몬테에서는 날것이나 익힌 채소를 찍어 먹는 마늘 맛 딥인 바냐 카우다를 만든다.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는 절인 멸치에 케이퍼와 블랙 올리브를 넣고 으깨 타프나드를 만들어, 생채소(크뤼디테)를 찍어 먹거나 구운 빵에 바른다. 스페인에서는 멸치를 식초와 기름에 재운 보케로네스 엔 비나그레가 타파스 바의 인기 요리다. 저자는 쓰면서 군침이 돈다고 말한다. 아시아로 가면 쓰임새는 더욱 다양하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멸치를 이칸 빌리스라고 부르며 말린 뒤 튀겨 먹는다. 코코넛 밀크와 판단 잎으로 지은 밥인 나시 르막에 곁들이기도 한다. 한국인도 마른 멸치를 많이 먹는다. 그대로 또는 고추장에 찍어 술안주로 먹고, 흔히 간장과 설탕을 입혀 볶아 반찬으로도 먹는다. 입맛에 따라 견과류와 씨앗을 넣어 고소함을 더하거나 풋고추를 넣어 매운맛을 더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육수 가운데 많은 것을 마른 멸치와 마른 다시마(한국 밖에서는 일본 이름인 곤부로 더 알려진 해초)로 내며, 한국인은 여기에 마늘도 넣는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멸치를 회로도 먹지만 흔한 요리는 아니다. 각주에 따르면 멸치는 아주 빨리 상해서 잡은 곳 아주 가까이에서만 회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법

- **Yet, it is actually the biggest fish in the world – in terms of impact on food cultures** : Yet = 그러나(앞 문장의 '작은 생선'과 맞섬). in terms of = ~의 면에서. 대시 뒤가 '가장 큰'의 기준을 한정해 반전을 만든다.
- **What other fish is eaten in large quantities by the Koreans, Japanese, … – and in so many ways?** : 직접의문문 형태의 수사의문문(답: 그런 생선은 없다 = 멸치뿐). What other fish가 주어, is eaten by = 수동태. 대시 뒤 and in so many ways가 의문의 범위를 덧붙인다.
- **These anchovies are the ones filleted, salted, matured and preserved in oil in the Mediterranean style** : ones = anchovies를 받는 대명사. 과거분사 네 개(filleted · salted · matured · preserved)가 병렬로 ones를 뒤에서 꾸민다.
- **In Piedmont in northern Italy they are made into a garlicky dip called bagna cauda, to eat with vegetables, raw or cooked** : be made into = (재료가) ~로 만들어지다. called = 과거분사 후치 수식. to eat = 용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raw or cooked = vegetables를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
- **people add capers and black olives to cured anchovies and mash them up to make tapenade** : add A to B = A를 B에 더하다. 구동사 mash up의 목적어가 대명사(them)이면 mash와 up 사이에 둔다. to make = 목적의 to부정사.
- **In Spain, boquerones en vinagre, anchovies marinated in vinegar and oil, is a popular dish in tapas bars** : 주어 = 요리 이름 boquerones en vinagre — 원서는 요리 하나로 보아 단수 동사 is를 썼다. 콤마 사이 = 동격(요리의 풀이), marinated = 과거분사 후치.
- **Go to Asia, and the uses are even more diverse** : 명령문 + and = ~하면(If you go to Asia, …). 변형 → Going to Asia, and ~는 오답. even = 비교급 강조(훨씬).

- **Koreans also get through a lot of dried anchovies: they may be eaten as an anju ..., either on their own or dipped in gochujang** : get through = (많이) 먹어 치우다. 콜론 뒤 = 구체적 풀이. either A or B에서 A = on their own(그것만), B = dipped(과거분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verbial	(말 · 속담에서) 대명사 격인	well-known	—
scrawny	비쩍 마른	skinny	plump
in terms of	~의 면에서	with regard to	—
fillet (v.)	(생선의) 뼈를 발라 저미다	bone	—
cure (v.)	(소금 등으로) 절여 저장하다	preserve	—
mature (v.)	숙성시키다	age	—
mash up	으깨다	crush	—
marinate	(양념에) 재우다	steep	—
salivate	군침을 흘리다	drool	—
diverse	다양한	varied	uniform
accompaniment	곁들이는 음식	side dish	—
get through	(많이) 먹어 치우다	consume	—
kick (n.)	톡 쏘는 맛	punch	blandness
perishability	쉽게 상함	—	durability

내용 일치 멸치 = 작은 생선의 대명사 · 한국에서 마른 아이 = '마른 멸치' ·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선 · 아시아와 지중해 밖 = '아마'(probably) 피자 토핑 · 지중해식 = 필레 · 소금 · 숙성 · 기름 · 남부 이탈리아 = 파스타 소스 · 피에몬테(북부) = 바냐 카우다 · 프로방스 = 타프나드(케이퍼 · 블랙 올리브) · 스페인 = 보케로네스 엔 비나그레(식초 · 기름)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이칸 빌리스(말려서 튀김) · 나시 르막 = 코코넛 밀크 · 판단 잎 · 한국 = 안주 · 반찬 · 육수(마른 멸치 + 마른 다시마 + 마늘) · 회 = 일본 · 한국, 흔하지 않음(각주 i: 아주 빨리 상함). **밑줄 의미** the proverbial small fish = 작다고 할 때 으레 드는 생선 / the biggest fish in the world = 크기가 아니라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 잰 '가장 큰' / I am salivating as I write = 쓰면서도 군침이 돌 만큼 멸치 요리를 좋아한다 / 40쪽 ¶3 they(may be eaten) = dried anchovies · it(eat it as a banchan) = 볶은 멸치.

> **한 줄 요약** 멸치는 작은 생선의 대명사지만 지중해의 절임과 아시아의 마른 멸치 · 육수 · 회까지 쓰임새가 넓어,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선이다.

4-2 발효 생선 소스, 칵테일 속에 숨은 멸치 40쪽 ¶4 ~ 41쪽 ¶1 + 44쪽 각주 ii

원문 위치 원서 40쪽 ¶4 ~ 41쪽 ¶1 + 44쪽 각주 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0쪽 ¶4 첫 문장	Varied as its use may be	형용사 + as + S + may be(양보)
★	41쪽 첫 줄(40쪽 ¶4 첫 문장)	the raw material for fermented fish sauce	빈칸 1순위
★	41쪽 첫 줄(40쪽 ¶4 둘째 문장)	The Romans are said to have sprinkled their food liberally	전언 — 단정 선지 함정
◆	41쪽 첫 줄(40쪽 ¶4 둘째 문장)	there is debate on whether … but it need not detain us here	밑줄 의미: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다
★	41쪽 첫 줄(40쪽 ¶4 둘째 문장)	umami flavour – … one of the five basic tastes	내용 일치 — 감칠맛
★	41쪽 첫 줄(40쪽 ¶4 셋째 문장)	the most frequently used fish for Vietnamese nuoc mam and Thai nam pla	내용 일치 후보
▲	41쪽 첫 줄(40쪽 ¶4 넷째 문장)	unimaginable without their respective fish sauces	respective = 각각의 / 저자의 판단
▲	41쪽 첫 줄(40쪽 ¶4 다섯째 문장)	their anchovies, or myulchi, with which they make myulchi-jut	전치사 + 관계대명사
★	41쪽 첫 줄(40쪽 ¶4 여섯째 문장)	Good myulchi-jut is a key to making good kimchi	a key to + 동명사
▲	41쪽 ¶1 첫 문장	Strange it may sound, I believe Americans ought to win the prize	양보 도치 · ought to
◆	41쪽 ¶1 둘째 문장	They drink the stuff (who drinks the stuff? – yuck!)	밑줄 의미 1순위 · They = Americans
▲	41쪽 ¶1 셋째 문장	Every Bloody Mary, … contains fermented anchovy sauce	Every + 단수 동사
★	41쪽 ¶1 셋째 문장	despite being supposedly named after an English queen, Mary	전언 — 단정 선지 함정
◆	41쪽 ¶1 넷째 문장	Brits also imbibe it in disguised form	지칭: it = 발효 멸치 소스
★	44쪽 각주 ii	first commercialized in 1837 by the British company Lea & Perrins	숫자 · 회사 — 일치 후보

내용

쓰임새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많은 음식 문화에서 멸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발효 생선 소스의 원료다. 로마인들은 음식에 리쿠아멘이나 가룸을 듬뿍 뿌렸다고 한다.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것들은 보통 멸치로 만든 발효 생선 소스로, 음식에 감칠맛(우마미)을 더하려고 썼다. 감칠맛은

깊고 풍미 있는 맛으로, 오늘날 단맛 · 짠맛 · 쓴맛 · 신맛과 함께 다섯 가지 기본 맛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다. 베트남의 느억맘과 타이의 남플라에 가장 자주 쓰이는 물고기도 멸치다. 저자는 각각의 생선 소스가 없는 타이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인은 생선 소스로 꽤 한결같이 멸치(myulchi)를 써서 멸치젓을 담그며, 좋은 멸치젓은 좋은 김치를 담그는 열쇠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자는 발효 멸치 소스의 가장 큰 팬이라는 상은 미국인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미국인은 그것을 마신다(누가 그런 걸 마시나, 웩!). 미국을 대표하는 칵테일 가운데 하나인 블러디 메리에는 어느 잔에나 우스터소스 속에 숨은 발효 멸치 소스가 들어 있다. 이 칵테일의 이름은 헨리 8세의 딸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 자매인 영국 여왕 메리에게서 땄다고들 한다. 영국인도 즐겨 먹는 치즈 토스트('치즈 토스티')에 우스터소스를 뿌려 먹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그것을 섭취한다. 각주에 따르면 우스터소스는 1837년 영국 회사 리앤드페린스(지금은 미국 회사 크래프트 하인즈 소유)가 처음 상품화했으며, 식초 · 당밀 · 타마린드 · 향신료 · 설탕 · 소금 · 발효 멸치로 만든다. 정확한 비율은 물론 영업 비밀이다.

어법

- **Varied as its use may be, the most important role anchovy plays in many culinary cultures is as the raw material for fermented fish sauce** : 형용사 + as + S + may be = 비록 ~하지만(양보 도치, Although its use may be varied). 주어 = the most important role (that) anchovy plays(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단수 is. 보어 = as + 명사구(~로서).
- **The Romans are said to have sprinkled their food liberally with liquamen or garum** : be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전언). 완료부정사는 말하는 지금보다 앞선 일. sprinkle A with B = A에 B를 뿌리다.
- **fermented fish sauces made usually of anchovies, in order to give their dishes umami flavour** : made of = 과거분사 후치(재료). in order to = 목적. give + IO(their dishes) + DO(umami flavour).
- **the deep, savoury flavour that is now recognized as one of the five basic tastes**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flavour). be recognized as = ~로 인정받다. one of the + 복수 명사.
- **Koreans are rather loyal to their anchovies, or myulchi, with which they make myulchi-jut** : with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make myulchi-jut with them의 with가 앞으로). or = 즉(같은 것의 다른 이름).
- **Good myulchi-jut is a key to making good kimchi** : a key to + 명사 · 동명사 = ~의 열쇠. 이 to는 전치사이므로 동명사 making이 온다.
- **Strange it may sound, I believe Americans ought to win the prize for being the biggest fans of fermented anchovy sauce** : 양보의 'Strange as it may sound(이상하게 들리겠지만)'에서 as가 빠진 원서 표기. ought to = ~해야 마땅하다. for -ing = ~한 것으로. 영작에서는 Strange as (또는 though) it may sound로 쓴다.
- **Every Bloody Mary, … (despite being supposedly named after an English queen …), contains fermented anchovy sauce, hidden within Worcestershire sauce** : Every + 단수 명사 → 단수 동사 contains. despite + 동명사 수동(being named). name A after B의 수동. supposedly = 그렇다고들 한다. hidden = 과거분사 후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aried	여러 가지의	various	uniform
culinary	요리의	cooking	—
ferment (v.)	발효시키다	brew	—
liberally	아낌없이, 듬뿍	generously	sparingly
detain	붙잡아 두다	delay	release
savoury	짭짤하고 풍미 있는	tasty	bland
respective	각각의	individual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oyal	한결같은, 충실한	faithful	disloyal
signature (a.)	대표적인	trademark	—
supposedly	그렇다고들 하는	allegedly	—
imbibe	마시다, 섭취하다	drink	—
disguised	위장된	hidden	undisguised
tuck into	맛있게 먹다	dig into	—
proportion	비율	ratio	—

내용 일치 멸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 발효 생선 소스의 원료 · 로마인의 리쿠아멘 · 가룸 = '그렇다고 한다'(are said to) · 둘이 같은 것인지 = 논쟁 · 감칠맛 = 다섯 기본 맛의 하나 · 느억맘(베트남) · 남플라(타이)에 가장 자주 쓰는 물고기 = 멸치 · 한국 = 멸치젓, 좋은 김치의 열쇠 · 최대의 팬 = 미국인(저자의 믿음) · 블러디 메리 = 우스터소스 속 발효 멸치 소스 · 여왕 메리의 이름 = '그렇다고들 한다'(supposedly) · 영국인 = 치즈 토스티 · 우스터소스 = 1837년 리앤드페린스(지금은 크래프트 하인즈), 비율은 영업 비밀(각주 ii). **밑줄 의미** it need not detain us here = 같은 것인지의 논쟁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니 넘어간다 / They drink the stuff = 블러디 메리 속 우스터소스로 발효 멸치 소스를 마신다 / in disguised form = 소스 속에 숨어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 지칭: 41쪽 첫 줄 these = liquamen과 garum · their respective fish sauces = 타이와 베트남 각각의 · 41쪽 ¶1 They = Americans · imbibe it = 발효 멸치 소스.

> **한 줄 요약** 멸치의 가장 중요한 쓰임은 로마의 가룸부터 느억맘 · 남플라 · 멸치젓까지 이어지는 발효 생선 소스이며, 미국인과 영국인도 우스터소스 속에 숨은 그 소스를 먹고 마신다.

4-3 구아노가 만든 페루의 호황과 그 끝 41쪽 ¶2 ~ 42쪽 ¶1 + 44쪽 각주 iii · iv

원문 위치 원서 41쪽 ¶2 ~ 42쪽 ¶1 + 44쪽 각주 iii · i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1쪽 ¶2 첫 문장	a lot of riches as well as rich flavours	밑줄 의미: riches · rich의 말놀이
★	41쪽 ¶2 둘째 문장	the root of economic prosperity for Peru in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숫자 · 나라 — 일치 후보
★	41쪽 ¶2 셋째 문장 + 44쪽 각주 iii	This was not because the country exported anchovies	문장 삽입의 고리 · 각주의 반전
★	41쪽 ¶2 넷째 문장	seabird guano (that is, desiccated bird droppings)	내용 일치 — 구아노의 정체
▲	41쪽 ¶2 다섯째 문장	being rich in nitrate and phosphorous and not smelling too offensive	이유의 분사구문 · 분사의 부정
★	41쪽 ¶2 여섯째 문장 + 44쪽 각주 iv	as it contained saltpetre, a key ingredient / glycerine	화약 원료 — 3장과 연결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1쪽 ¶3 첫 문장	consisted of the excrement of birds … that lived on islands off its Pacific coast	consist of · 선행사 birds
★	41쪽 ¶3 둘째 문장	running from southern Chile to northern Peru	방향 — 바꿔치기 주의
★	41쪽 ¶3 셋째 문장	in 1802 … reaching 5,878 metres on the Chimborazo volcano … at 6,263 metres	숫자 —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님
◆	41쪽 ¶3 넷째 문장	He was also one of Peruvian guano's earliest champions in Europe	지칭: He = Humboldt
▲	41쪽 ¶3 다섯째 문장	so important for Peru that economic historians talk about the 'Guano Era'	so ~ that · 숫자 1840s~1880s
★	41쪽 ¶4 둘째 문장	In 1856, the US Congress passed the Guano Islands Act … provided that	숫자 — 서답형 1순위 · 조건
▲	42쪽 첫 줄(41쪽 ¶4 셋째 문장)	enabled the US to justify the occupation … countering the British monopoly	enable + O + to V · 분사구문
★	42쪽 ¶1 둘째 문장	Thirty years into the boom, … thanks to over-exploitation	숫자 · 원인
★	42쪽 ¶1 넷째 문장	the War of the Pacific (1879–84) … thus rendering the country land-locked	내용 불일치 1순위 — 볼리비아 ↔ 페루
◆	42쪽 ¶1 다섯째 문장	These areas had huge deposits … and made Chile very rich	지칭: These areas = 칠레가 점령한 해안

내용

멸치는 풍부한 맛뿐 아니라 큰 부도 가져다주었다. 19세기 중반 멸치는 페루 경제 번영의 뿌리였다. 페루가 멸치를 수출해서가 아니었다. 각주에 따르면 요즘 페루는 실제로 멸치를 직접 수출하는데, 다른 곳, 특히 칠레에서 기르는 연어의 먹이인 어분으로 만들어서다. 저자는 이 사실을 알려 준 앤디 로빈슨에게 감사한다. 당시 페루는 바닷새 구아노, 곧 바싹 마른 새 배설물의 수출로 경제 호황을 누렸다. 구아노는 질산염과 인이 풍부하고 냄새도 그리 고약하지 않아 매우 귀한 비료였다. 핵심 원료인 초석이 들어 있어 화약 제조에도 쓰였다. 각주에 따르면 화약의 또 다른 핵심 원료인 글리세린은 코코넛이 제공했다. 페루의 구아노는 태평양 연안 앞바다의 섬에 사는 가마우지 · 부비새 같은 새의 배설물이었다. 이 새들의 주식은 물고기, 주로 멸치였다. 멸치는 칠레 남부에서 페루 북부로 흐르는 영양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를 타고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이동했다. 이 해류의 이름은 프로이센의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에게서 왔다. 그는 1802년 에콰도르의 최고봉(6,263미터)인 침보라소 화산의 5,878미터 지점에 올라 당시로는 가장 높이 오른 세계 기록을 세웠다. 그는 또 유럽에서 페루 구아노를 가장 일찍 옹호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구아노가 페루에 워낙 중요해져서 경제사학자들은 '구아노 시대'(1840년대~1880년대)라는 말을 쓴다. 구아노가 중요했던 나라는 페루만이 아니었다. 1856년 미국 의회는 구아노 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섬이 점유되지 않았고 다른 정부의 관할도 아니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구아노가 쌓인 섬을 미국 시민이 차지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을 근거로 미국은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100개가 넘는 섬을 점령해 페루 구아노 무역에 대한 영국의 독점에 맞섰다. 영국 ·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도 구아노가 쌓인 섬을 점령했다. 그러나 페루의 구아노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호황 30년 만에 지나친 채취 탓에 구아노 수출이 줄기 시작했다. 1870년대에 초석(질산나트륨) 매장층이 발견되면서 그 충격은 한동안 가려졌다. 초석은 질산염이 풍부한 광물로, 비료와 화약은 물론 고기 방부제로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페루의 번영은 '초석 전쟁'이라고도 하는 태평양 전쟁(1879~84)으로 끝났다. 이 전쟁에서 칠레는 볼리비아의 해안 지역 전부(그래서 볼리비아는 내륙국이 되었다)와 페루 남부 해안 지역의 절반가량을 점령했다. 이 지역에는 초석과 새 구아노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 칠레를 큰 부자로 만들었다.

어법

- **Anchovies once delivered a lot of riches as well as rich flavours** : A as well as B = B뿐 아니라 A도(강조는 A = riches). riches(부, 재물)와 rich(풍부한)를 겹친 말놀이.
- **They were the root of economic prosperity for Peru in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This was not because the country exported anchovies.** : They = Anchovies. This = 앞 문장 전체(멸치가 번영의 뿌리였던 일). not because ~ = ~ 때문이 아니다(다음 문장에서 진짜 까닭을 밝힌다).
- **It was a highly prized fertilizer, being rich in nitrate and phosphorous and not smelling too offensive** : being ~ and not smelling ~ = 이유의 분사구문 두 개가 병렬. 분사의 부정은 not을 분사 앞에 둔다(not smelling). highly = 부사(매우).
- **Peruvian bird guano consisted of the excrement of birds like cormorants and boobies that lived on islands off its Pacific coast** : consist of = ~로 이루어지다(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 was consisted of는 오답).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birds → lived). its = Peru's. off = ~ 앞바다의.
- **These birds' main diet was fish, mainly anchovies, migrating along the west coast of South America, riding on the nutrient-rich Humboldt current, running from southern Chile to northern Peru** : migrating · riding = anchovies를 꾸미는 현재분사. running = current를 꾸미는 현재분사. 주어 diet(단수) → was.
- **Guano became so important for Peru that economic historians talk about the 'Guano Era'** : so + 형용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talk about = ~라는 말을 쓰다, ~을 이야기하다.
- **which allowed US citizens to take possession of islands containing guano deposits anywhere in the world, provided that the islands were not occupied or within the jurisdiction of other governments** : allow + O + to V. containing = 현재분사 후치. provided that = ~라는 조건으로(if). not (occupied or within ~) = 점유되지도 않고 관할 안에 있지도 않은.
- **the War of the Pacific (1879–84), …, in which Chile occupied all the coastal area of Bolivia (thus rendering the country land-locked)**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war). render + O + 형용사 = O를 ~하게 만들다. thus + 분사 = 그 결과 ~하게 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sperity	번영	affluence	poverty
desiccated	바싹 말린	dried	moist
prized	귀하게 여겨지는	valued	worthless
offensive	불쾌한, 역겨운	foul	pleasant
excrement	배설물	droppings	—
migrate	(무리 지어) 이동하다	travel	—
champion (n.)	옹호자	advocate	opponent
take possession of	차지하다	seize	give up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posit (n.)	매장층, 퇴적층	reserve	—
jurisdiction	관할권	authority	—
monopoly	독점	exclusive control	competition
over-exploitation	지나친 채취	overuse	conservation
mask (v.)	가리다	conceal	reveal
render	~하게 만들다	make	—

내용 일치 멸치 = 19세기 중반 페루 번영의 뿌리 · 까닭 = 멸치 수출이 아니라 바닷새 구아노 수출(각주 iii: 요즘은 어분으로 직접 수출) · 구아노 = 질산염 · 인이 풍부, 냄새가 심하지 않은 비료 + 초석 → 화약(각주 iv: 글리세린은 코코넛) · 새 = 가마우지 · 부비새, 앞바다의 섬 · 먹이 = 주로 멸치 · 훔볼트 해류 = 칠레 남부 → 페루 북부 · 훔볼트 = 1802년 5,878미터(산은 6,263미터) · 구아노의 이른 옹호자 · 구아노 시대 = 1840년대~1880년대 · 1856년 구아노 섬법 · 100개 넘는 섬 · 30년 만에 감소 · 1870년대 초석 · 태평양 전쟁(1879~84) · 내륙국 = 볼리비아 · 페루 = 남부 해안의 절반가량을 잃음. **지칭** 41쪽 ¶2 They = Anchovies · This = 멸치가 번영의 뿌리였던 일 · It(highly prized fertilizer · also used) = guano / 41쪽 ¶3 its Pacific coast = 페루의 · He = Humboldt / 41쪽 ¶4 The Act = 구아노 섬법 / 42쪽 ¶1 The impact = 구아노 수출 감소의 충격 · the country(land-locked) = 볼리비아 · These areas = 칠레가 점령한 볼리비아 · 페루의 해안.

> **한 줄 요약** 멸치를 먹은 바닷새의 구아노는 19세기 페루에 비료 · 화약 원료 수출의 호황을 가져왔지만, 지나친 채취와 태평양 전쟁으로 그 부는 칠레로 넘어갔다.

4-4 공기에서 비료를, 석탄에서 붉은색을 42쪽 ¶2 ~ 43쪽 ¶1 + 44쪽 각주 v

원문 위치 원서 42쪽 ¶2 ~ 43쪽 ¶1 + 44쪽 각주 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2쪽 ¶2 첫 문장	That didn't last long either	지칭: That = 칠레의 부
★	42쪽 ¶2 둘째 문장	In 1909, the German scientist Fritz Haber invented a method of isolating nitrogen from the air	숫자 · 인물 — 서답형 1순위
◆	42쪽 ¶2 셋째 문장	make fertilizer literally out of thin air	밑줄 의미: 말 그대로 공기에서
★	42쪽 ¶2 넷째 문장	It won him a Nobel Prize in Chemistry in 1918	숫자 — 1909와 바꿔치기 주의
▲	42쪽 ¶2 넷째 문장	earned him such notoriety that the fact that he is a Nobel Laureate	such ~ that · 동격 that
◆	42쪽 ¶2 넷째 문장	is not mentioned in polite company	밑줄 의미: 점잖은 자리에서 입에 올리지 않음
★	42쪽 ¶3 첫 문장	commercialized by another German scientist, Carl Bosch	발명(하버) ↔ 상품화(보슈) — 지칭 문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2쪽 ¶3 첫 문장 + 44쪽 각주 v	BASF (…), which bought Haber's technology	계속적 which = BASF / 아닐린
◆	42쪽 ¶3 셋째 문장	deposing guano from its throne of the fertilizer kingdom	밑줄 의미: 비료의 으뜸 자리를 잃음
★	42쪽 ¶3 다섯째 문장	from 2.5 million tons in 1925 to just 0.8 million tons in 1934	숫자 — 서답형 후보
★	42쪽 ¶4 셋째 문장	Artificial red dyes, such as alizarin, wiped out the riches of Guatemala	나라 이름 — 서답형 후보
★	42쪽 ¶4 넷째 문장	cochinilla (cochineal), a highly prized crimson dye … Catholic cardinals' robes	무관한 문장 문항의 바탕
◆	42쪽 ¶5 첫 문장	the most prized red colour from the blackest thing – coal	밑줄 의미: 값싼 석탄 → 귀한 염료
★	42쪽 ¶5 둘째 문장	artificial indigo, … in 1897, and destroyed the indigo industry in India	숫자 · 나라 — 1868과 구별
★	43쪽 ¶1 첫 문장	producing half the world's rubber … developed by German, Russian and American scientists	내용 일치 · 어휘 문항의 바탕
●	43쪽 ¶1 둘째 문장	the initial blow from artificial rubber left its economy reeling	어휘 반전: reeling ↔ thriving

내용

칠레의 부도 오래가지 못했다. 1909년 독일 과학자 프리츠 하버는 고압 전기를 이용해 공기에서 질소를 분리하고, 그것으로 암모니아를, 다시 암모니아로 인공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발명했다. 하버는 말 그대로 허공에서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 발명으로 그는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쓰인 독가스를 개발한 일로 워낙 악명이 높아져서 그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사실은 점잖은 자리에서 입에 올리지 않는다. 하버의 발명은 또 다른 독일 과학자 카를 보슈가 상품화했다. 보슈는 하버의 기술을 사들인 독일 화학 회사 BASF(바덴 아닐린 소다 공장이라는 뜻의 Badische Anilin und Soda Fabrik)에서 일했다. 각주에 따르면 아닐린은 모브 · 인디고 · 노란색 등 여러 인공 염료의 기초 재료이며 여러 의약품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오늘날 이 방법을 하버-보슈법이라고 부른다. 이 방법으로 인공 비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구아노는 비료 왕국의 왕좌에서 밀려났다. 질산염의 더욱 중요한 원천이던 초석도 가치를 잃었다. 칠레의 천연 질산염(구아노와 초석) 생산은 1925년 250만 톤에서 1934년 겨우 80만 톤으로 곤두박질쳤다. 19세기에는 다른 기술 혁신들도 여러 1차 산품 수출국을 무너뜨렸다. 영국과 독일에서 인공 염료가 발명되자 세계 곳곳의 천연 염료 생산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 알리자린 같은 인공 붉은 염료는 과테말라의 부를 쓸어 갔다. 당시 과테말라는 코치닐(cochinilla) 수출에 크게 기대고 있었다. 코치닐은 가톨릭 추기경의 옷을 물들이는 데 쓰인 귀한 진홍색 염료로, 인기 칵테일 네그로니에 들어가는 이탈리아 리큐어 캄파리의 색을 내는 데도 쓰였다. 코치닐은 코치닐 '딱정벌레'(Dactylopius coccus)에서 얻는데, 이것은 딱정벌레도 아니고 딱정벌레처럼 생기지도 않았다(오히려 쥐며느리를 닮았다). 1868년 콜타르로 알리자린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을 때, BASF(나중에 허공에서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는 바로 그 회사)는 가장 검은 것인 석탄으로 가장 귀한 붉은색을 만들고 있었다. BASF는 1897년 또 다른 귀한 염료인 인공 인디고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해 인도의 인디고 산업을 무너뜨렸다. 많은 인도 노동자가 생계를 잃었고, 영국과 다른 유럽의 인디고 농장주도 많이 파산했다. 그 뒤 1970년대에는 당시 세계 고무의 절반을 생산하던

말레이시아 경제가, 20세기 전반 독일 · 러시아 ·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여러 합성 고무와의 경쟁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말레이시아는 이후 팜유 같은 다른 1차 산품과 전자 산업으로 다각화했지만, 인공 고무가 준 첫 타격에 경제가 휘청거렸다.

어법

- In 1909, the German scientist Fritz Haber invented a method of isolating nitrogen from the air, using high-voltage electricity, to make ammonia, and from it, artificial fertilizer : a method of -ing = ~하는 방법. using = 수단의 분사구문. to make = 목적. and from it, (to make) artificial fertilizer = 반복되는 to make 생략. it = ammonia.
- So, Haber had found a way to make fertilizer literally out of thin air : had found = 과거완료(앞 문장의 발명으로 이미 이루어 낸 결과를 되짚어 정리). a way to V = ~하는 방법. out of thin air(관용 표현: 난데없이)를 literally(말 그대로)가 글자 뜻(공기에서)으로 되살린다.
- It won him a Nobel Prize in Chemistry in 1918, but his work in developing poison gases, used in the First World War, earned him such notoriety that the fact that he is a Nobel Laureate is not mentioned in polite company : win · earn + IO + DO = ~에게 …을 안겨 주다. such + 명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 the fact that = 동격 that(사실의 내용). 주어 the fact → is. used = 과거분사 후치(poison gases).
- Haber's invention was commercialized by another German scientist, Carl Bosch, working for the German chemical company BASF (…), which bought Haber's technology : 수동태 + by 행위자. working = Carl Bosch를 꾸미는 현재분사.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BASF). 발명 = 하버, 상품화 = 보슈.
- This process made mass-production of artificial fertilizer possible, deposing guano from its throne of the fertilizer kingdom : make + O + 형용사(possible) = O를 가능하게 하다. deposing = 결과를 덧붙이는 분사구문(그래서 구아노를 왕좌에서 몰아냈다).
- Production of naturally extracted nitrates (guano and saltpetre) in Chile crashed from 2.5 million tons in 1925 to just 0.8 million tons in 1934 : 주어 Production(단수) → crashed. from A to B = A에서 B로. naturally(부사) + extracted(과거분사)가 nitrates를 꾸민다.
- Cochineal is derived from Dactylopius coccus, the cochineal 'beetle' – which isn't a beetle and doesn't even look like one : be derived from = ~에서 얻다.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beetle'). one = a beetle을 받는 부정대명사.
- BASF also developed the technology to mass-produce artificial indigo, …, and destroyed the indigo industry in India, ruining the livelihood of many Indian labourers, not to speak of bankrupting many British and other European indigo plantation owners : developed와 destroyed가 병렬. ruining = 결과의 분사구문. not to speak of + 명사 · 동명사 = ~는 말할 것도 없고.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solate	분리하다	separate	combine
literally	말 그대로	actually	figuratively
notoriety	악명	infamy	renown
commercialize	상품화하다	market	—
depose	(왕좌에서) 몰아내다	dethrone	enthrone
crash (v.)	곤두박질치다	plummet	soar
devastate	큰 타격을 주다	ruin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wipe out	쓸어버리다	eliminate	—
derive from	~에서 얻다	obtain from	—
livelihood	생계	living	—
bankrupt (v.)	파산시키다	ruin	—
synthetic	합성의	artificial	natural
diversify	다각화하다	broaden	specialize
reeling	휘청거리는	staggering	steady

내용 일치 1909년 = 하버의 발명(고압 전기 · 공기 중 질소 → 암모니아 → 인공 비료) · 1918년 = 노벨 화학상 · 독가스 개발로 악명 · 상품화 = 보슈(BASF, 하버의 기술을 사들임) · 하버-보슈법 → 인공 비료 대량 생산 · 구아노와 초석이 가치를 잃음 · 칠레의 천연 질산염 = 1925년 250만 톤 → 1934년 80만 톤 · 인공 염료(영국 · 독일) · 알리자린 → 과테말라(코치닐: 추기경의 옷 · 캄파리) · 1868년 = 콜타르로 알리자린 · 1897년 = 인공 인디고 → 인도의 인디고 산업 붕괴 · 1970년대 말레이시아 = 세계 고무의 절반 · 합성 고무 = 20세기 전반 독일 · 러시아 · 미국 과학자 · 팜유 · 전자로 다각화. **지칭** 42쪽 ¶2 That = 칠레의 부 · It(won him) = 하버의 발명 · him · his · he = Haber / 42쪽 ¶3 which(bought) = BASF · it(it's called) = 하버의 발명을 상품화한 방법 · its throne = 구아노의 / 42쪽 ¶4 which(features) = Campari · one(look like one) = a beetle / 42쪽 ¶5 it(developed) = BASF / 43쪽 ¶1 its economy = 말레이시아의.

> **한 줄 요약** 공기에서 비료를 만든 하버-보슈법과 석탄으로 만든 인공 염료 · 합성 고무는 구아노 · 초석 · 코치닐 · 인디고 · 천연 고무에 기대던 나라들을 무너뜨렸다.

4-5 쉬운 1차 산품, 넘을 수 있는 자연 43쪽 ¶2 ~ 44쪽 ¶3 + 44~45쪽 각주 vi

원문 위치 원서 43쪽 ¶2 ~ 44쪽 ¶3 + 44~45쪽 각주 v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3쪽 ¶2 첫 문장	It is not only from the inventors of synthetic substitutes that … are threatened	It is ~ that 강조구문
★	43쪽 ¶2 둘째 문장	because production of primary commodities is relatively easy	순서 배열의 고리 — 새 생산자
★	43쪽 ¶2 셋째 문장	Until the 1880s, Brazil had a monopoly over rubber	숫자 — 1897과 구별
★	43쪽 ¶2 넷째 문장	Manaus … the Amazon Theatre … Enrico Caruso … to sing in 1897	인물 · 숫자 — 일치 후보
★	43쪽 ¶2 다섯째 문장	the British smuggled the plants out of Brazil … Malaysia (Malaya then), Sri Lanka	순서 배열 — 브라질 부의 끝
★	43쪽 ¶2 일곱째 문장	the second-biggest exporter of coffee in the world, after Brazil	True/False — biggest로 뒤집기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3쪽 ¶3 첫 문장	because it is, well, easy to produce it	밑줄 의미: easily와 easy의 말놀이
★	43쪽 ¶3 둘째 문장	there is really no comparison between what Vietnam has done ... and what the German chemical industry has done	요지 — 타격의 크기 비교
★	43쪽 ¶3 셋째 문장	the ability to destroy existing markets ... and create new ones	요지 · 빈칸 1순위
★	43쪽 ¶4 첫 문장	you can overcome the restrictions imposed on you by nature	요약문 · 주장
★	43쪽 ¶5 첫 문장	the second-largest agricultural exporter in the world – only behind the USA	숫자 — 제목 문항의 바탕
▲	43쪽 ¶5 둘째 문장	which makes it possible to have multiple crops in a year	가목적어 it + 진목적어 to V
★	44쪽 ¶1 둘째~셋째 문장	they could only cope by reducing oil consumption ... Japan, in contrast	요약문 — 대조
★	44쪽 ¶2	sustainable high living standards can only be acquired through industrialization	저자의 주장 — 주장 문항 1순위
◆	44쪽 ¶3 둘째 문장	capabilities do not 'run out' in the way natural resources do	밑줄 의미 · 대동사 do
★	44~45쪽 각주 vi	there is nothing natural about 'natural' resources ... the results of colonialism	어휘 문항의 바탕 · 저자의 해석

내용

1차 산품(농산물과 광산물) 생산자를 위협하는 것은 합성 대체물을 발명한 사람들만이 아니다. 1차 산품 생산은 비교적 쉬워서 더 효율적인 생산자가 빠르게 나타날 위험도 있다. 1880년대까지 브라질은 고무를 독점했다. 그 덕에 브라질의 고무 생산 지역은 큰 부자가 되었고, 당시 고무 경제의 중심지였던 마나우스에는 멋진 오페라 극장(아마존 극장, 포르투갈어로 테아트루 아마조나스)이 있었다. 1897년에는 당시 오페라계에서 가장 빛나는 신예였던 엔리코 카루소가 이탈리아에서 먼 길을 와 그곳에서 노래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고무나무를 브라질 밖으로 몰래 빼내 말레이시아(당시 말라야) · 스리랑카 등 열대의 식민지에 고무 농장을 세우자 브라질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1980년대 중반 베트남은 커피를 거의 수출하지 않았지만 그 뒤 수출을 매우 빠르게 늘렸고, 2000년대 초부터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 되어 다른 커피 생산국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한 나라의 1차 산품 주요 생산국 지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생산하기가, 글쎄,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이 브라질 · 콜롬비아 등 커피 생산국에 한 일과, 독일 화학 산업이 페루 · 칠레 · 과테말라 · 인도와 1차 산품에 기대는 수많은 나라에 한 일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천연 물질의 인공 대체물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은 한 경제에 기존 시장(예컨대 구아노 시장)을 없애고 새로운 시장(이 경우 화학 비료 시장)을 만드는 능력을 준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술 능력이 높으면 자연이 지운 제약을 넘을 수 있다. 독일인은 구아노 매장층도, 코치닐 '딱정벌레'도, 인디고 식물도 없었지만 화학 대체물을 만들어 내 문제를 피해 갔다. 네덜란드는 땅이 아주 좁지만(도시 국가와 섬 국가를 빼면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기술로 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다. 다소 추운 기후에도 한 해에 여러 번 수확하게 해 주는 온실 농업으로 농지를 몇 배로 늘리고, 수경 재배(물을 채운 선반에서 기르기)로 같은 땅 위의 온실에 식물을 여러 층으로 쌓았으며, 컴퓨터로 제어하는 양분 공급으로 질 좋은 농화학 제품을 최대의 효율로 공급해 생산성을 높였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은 세계에서 연료 효율이 가장 높은 기술 몇 가지를 내놓아 천연 연료 부족을 이겨 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닥쳤을 때 기술 능력이 모자란 다른 나라들은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기술 능력 덕에 석유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매우 효율적인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넘었다. 저자는 역사를 보면 지속 가능한 높은 생활 수준은 산업화, 곧 혁신과 기술 능력의 주된 원천인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산업화로 더 높은 생산 능력을 얻으면 자연이 지운 제약을 가장 '마법 같은' 방식으로 넘을 수 있다. 가장 검은 석탄에서 가장 선명한 붉은 염료를 만들고, 허공에서 비료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도 땅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다. 게다가 그런 능력은 천연자원처럼 '바닥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초석 같은 재생 불가능한 광물 자원이나, 멸치를 먹는 새에게서 나온 페루의 구아노처럼 거의 어김없이 지나치게 채취되어 고갈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는 다르다. 각주에서 저자는 이런 예들이 개발도상국이 생산하는 '천연' 자원에 자연스러운 것이 전혀 없음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고무는 브라질 작물일지 몰라도 오늘날 3대 생산국은 타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이고 브라질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커피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생산되지만 아프리카 식물이며, 예멘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처음 대규모로 길렀다. 카카오는 라틴아메리카(에콰도르 · 페루)가 원산지지만 오늘날 5대 생산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고, 원래 중국만 생산하던 차도 이제는 인도 · 케냐 · 스리랑카가 주요 생산국이다. 많은 사람이 '자연적' 부존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식민주의, 곧 식민 지배자들이 수익성 높은 작물을 다른 곳에서 식민지로 옮겨 심고 흔히 노예 노동에 기댄 농장에서 기른 결과라는 것이다.

어법

- **It is not only from the inventors of synthetic substitutes that producers of primary commodities (…) are threatened** : It is ~ that 강조구문: 부사구 from the inventors of synthetic substitutes를 강조. not only가 다음 문장 There is also ~로 이어져 두 번째 위협을 꺼낸다.
- **There is also the danger that more efficient producers may emerge quickly because production of primary commodities is relatively easy** : the danger that = 동격 that절(위험의 내용).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므로 뒤 절이 완전하다. because절 = 위험이 생기는 까닭.
- **It made the rubber-producing regions of Brazil so rich that Manaus, the then capital of the rubber economy, had a fabulous opera house (…), where Enrico Caruso … travelled all the way from Italy to sing in 1897** : make + O + 형용사 + so ~ that = 너무 ~하게 만들어서 …하다. the then = 당시의(형용사처럼).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opera house). to sing = 목적.
- **Since the early 2000s, it has been the second-biggest exporter of coffee in the world, after Brazil** : since + 시점 → 현재완료(has been). the second-biggest = 서수 + 최상급(두 번째로 큰). after Brazil = 브라질 다음으로.
- **a country's position as a major producer of a primary commodity can easily be undermined because it is, well, easy to produce it** : 조동사 수동 can be p.p.(부사 easily가 be 앞). 가주어 it + 진주어 to produce it(뒤의 it = a primary commodity). well = 말을 고르는 간투사 — easily 다음에 easy를 겹친 말놀이.
- **greenhouse farming, which makes it possible to have multiple crops in a year despite the rather cold climate** : 계속적 which(선행사 greenhouse farming) → 단수 makes. make + it(가목적어) + possible + to V(진목적어). despite + 명사(전치사).
- **History shows that sustainable high living standards can only be acquired through industrialization – that is, the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is the main source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 can only be p.p. = ~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조동사 수동). that is = 즉(바꿔 말하기).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manufacturing sector).

- **capabilities do not 'run out' in the way natural resources do** : do = run out을 대신하는 대동사. in the way (that) = ~하는 방식으로. 능력은 자원과 달리 바닥나지 않는다는 대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imary commodity	1차 산품	raw material	manufactured good
emerge	나타나다	appear	vanish
fabulous	멋진, 굉장한	splendid	ordinary
smuggle	몰래 빼내다	sneak	—
undermine	약화시키다	weaken	strengthen
reliant on	~에 기대는	dependent on	independent of
substitute (n.)	대체물	replacement	original
concoct	(재료를 섞어) 만들어 내다	devise	—
augment	늘리다	increase	diminish
cope	대처하다	manage	—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lasting	unsustainable
conjure up	마법처럼 만들어 내다	produce	—
deplete	고갈시키다	exhaust	replenish
endowment	부존 자원	natural assets	—

내용 일치 1차 산품 = 농산물과 광산물 · 위협 = 합성 대체물 + 더 효율적인 새 생산자 · 브라질 = 1880년대까지 고무 독점 · 카루소(1897년) · 영국의 밀반출 → 말레이시아(당시 말라야) · 스리랑카 · 베트남 = 1980년대 중반 수출 거의 0 → 2000년대 초부터 세계 2위(1위는 브라질) · 베트남의 타격 < 독일 화학 산업의 타격 · 네덜란드 =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미국 다음), 온실 · 수경 재배 · 컴퓨터 제어 · 일본 = 1970년대 석유 파동, 연료 효율과 원자력 · 산업화 = 지속 가능한 높은 생활 수준의 유일한 길(저자의 주장) · 각주 vi: 고무 3대 생산국 = 타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자연적' 부존 = 식민주의의 결과. **밑줄 의미** it is, well, easy to produce it = 쉽게(easily) 무너지는 까닭이 생산이 쉽다(easy)는 것 — 말놀이 / no comparison = 베트남의 타격은 독일 화학 산업의 타격에 견줄 수 없다 / in the most 'magical' ways = 석탄 → 붉은 염료 · 공기 → 비료 · 침략 없이 땅을 몇 배로 / do not 'run out' = 능력은 천연자원처럼 바닥나지 않는다.

> **한 줄 요약** 1차 산품 생산국의 지위는 쉽게 무너지지만, 산업화로 얻은 기술 · 생산 능력은 자연의 제약을 넘게 해 주고 바닥나지 않아 높은 생활 수준을 오래 지켜 준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4 ANCHOVY]

범위	Anchovy (원서 PDF 40~4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istory shows that a nation can keep its living standards high for long only if it industrializes, building up a manufacturing sector that drives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skill. With such productive capabilities, a country can escape the limits of nature almost by magic: it can draw a brilliant red dye out of black coal, pull fertilizer from the air, and multiply its farmland without conquering anyone. These capabilities also never get used up. Natural resources do: minerals such as saltpetre give out, and renewable ones like Peru's guano are almost always overused.

① Natural resources must be saved from overuse.
② Natural wealth guarantees lasting prosperity.
③ Lasting prosperity requires industrialization.
④ Poor countries should focus on farming.
⑤ Technology cannot beat the limits of natur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Netherlands has very little land. Apart from city-states and island-states, few places on earth are more densely populated. Yet it has become the world's second-largest exporter of farm products, trailing only the USA. The secret is technology that, in effect, creates more land. Greenhouses let Dutch farmers harvest several crops a year in spite of a fairly cold climate. Hydroponics, in which plants grow on shelves of water beds, lets them stack layer upon layer of plants on the same floor space. On top of all this, computers feed the plants top-grade agrochemicals as efficiently as possible, pushing up the output of this hyper-augmented land even further.

① How the Dutch Turned Little Land into Much
② Why Crowded Countries Must Import Food
③ A Cold Climate Limits Dutch Farming
④ The USA: The World's Top Farm Exporter
⑤ Greenhouses: A Threat to Farmland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 country that leads the world in producing some primary good can lose that place easily because such goods are easy to produce. Vietnam's coffee boom hurt Brazil, Colombia and other growers. Yet that damage is nothing next to what Germany's chemical industry did to Chile, Peru, India, Guatemala and other nations that relied on primary goods. An economy that can develop technologies for making artificial versions of natural substances gains the power both to wipe out existing markets, like that for bird guano, and to create new ones, like that for chemical fertilizers.

① New competitors hurt coffee growers the most.
② Primary goods are hard to produce.
③ Germany's chemical industry helped exporters grow.
④ Making substitutes can destroy and create markets.
⑤ Vietnam's coffee harmed the world economy.

4. 밑줄 친 <u>They drink the stuff</u>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t may sound odd, but the author believes the world's keenest lovers of the fermented sauce made from anchovies are Americans. <u>They drink the stuff</u>, to the author's disgust. Every Bloody Mary, an American cocktail whose name supposedly comes from an English queen, contains fermented anchovies, concealed inside Worcestershire sauce. That sauce, first sold by the British firm Lea & Perrins in 1837, contains fermented anchovies along with vinegar, molasses, tamarind and spices. The British take it in, in disguise, whenever they enjoy a cheese toastie splashed with Worcestershire sauce.

① They dislike the taste of fish sauce.
② They consume anchovy sauce hidden in a cocktail.
③ They drink Worcestershire sauce on its own.
④ They prefer British drinks to their own.
⑤ They make fish sauce at home.

5. 밑줄 친 the most prized red colour from the blackest thing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1868 BASF, the German firm that would later mass-produce fertilizer out of the air, worked out how to make alizarin from coal tar. In doing so, it was producing the most prized red colour from the blackest thing. Later, in 1897, the same company learned to turn out artificial indigo, also a highly valued dye, on a mass scale. This ruined India's indigo industry, costing countless Indian workers their living and bankrupting numerous indigo plantation owners from Britain and elsewhere in Europe. Even the firm's full name points to dyes: aniline, which appears in it, is the starting material for a range of artificial dyes, yellow, mauve and indigo among them, and for various medicines too.

① It blended red and black dyes into a new colour.
② It sold red dye to coal-mining countries.
③ It made coal more valuable by colouring it.
④ It used up its coal reserves to make dye.
⑤ It turned cheap black coal into a precious dy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In 1909 Fritz Haber, a German scientist, devised a way to separate nitrogen from the air with high-voltage electricity, turn it into ammonia, and then make artificial fertilizer from that. In other words, ① he had found how to create fertilizer from nothing but air. The work won ② him the 1918 Nobel Prize in Chemistry. Turning the discovery into a business was the task of Carl Bosch, a fellow German scientist; ③ he worked for BASF, the chemical company that had purchased the technology, and the method now carries both names. Yet the poison gases Haber helped develop, which were deployed during the First World War, made ④ him so infamous that people rarely bring up ⑤ his Nobel Prize in polite conversation.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Peru's guano came from seabirds such as cormorants and boobies, which lived on islands lying off the country's Pacific coast. They fed mostly on fish, above all anchovies, which travel along South America's west coast carried by the nutrient-rich Humboldt current as it flows from southern Chile up to northern Peru. This current takes its name from Alexander von Humboldt, a Prussian explorer and scientist. In 1802 he climbed to 5,878 metres on Chimborazo, an Ecuadorian volcano 6,263 metres high, setting a world record for the highest climb at that time. He was also among the first people in Europe to promote Peruvian guano, which grew so vital that economic historians speak of a 'Guano Era'.

① 구아노를 만든 새들은 페루 내륙의 호숫가에 살았다.
② 훔볼트 해류는 페루 북부에서 칠레 남부로 흐른다.
③ 훔볼트는 1802년 침보라소 화산의 정상에 올랐다.
④ 훔볼트는 유럽에서 페루 구아노를 비판한 사람이었다.
⑤ 새들의 주된 먹이는 물고기, 그 가운데서도 주로 멸치였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Peru's guano boom was short-lived. About thirty years after it began, guano exports started to fall because the deposits had been over-exploited. For a while the damage was hidden when deposits of saltpetre, or sodium nitrate, were found in the 1870s; this mineral, rich in nitrates, served as fertilizer and gunpowder and also as a meat preservative. Peru's prosperity, however, ended in the 1879–84 War of the Pacific, sometimes called the Saltpetre War. In that war, Chile seized the entire coastline of Bolivia, leaving that country with no access to the sea, together with roughly half of Peru's southern coast. Rich in both saltpetre and guano, these territories made Chile very wealthy.

① 구아노 수출은 호황이 시작된 지 30년쯤 지나 줄기 시작했다.
② 1870년대에 발견된 초석은 고기 방부제로도 쓰였다.
③ 초석의 발견이 한동안 구아노 수출 감소의 충격을 가렸다.
④ 태평양 전쟁으로 페루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잃었다.
⑤ 칠레는 페루 남부 해안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Beyond Asia and the Mediterranean, the anchovy most people know is probably the one on a pizza. Such anchovies ① have been filleted, salted, aged and kept in oil, as is done around the Mediterranean. Southern Italians add these cured fish to pasta sauces, while in Piedmont, further north, they become bagna cauda, a garlicky dip ② eating with raw or cooked vegetables. In Provence, cooks mash cured anchovies together with black olives and capers ③ to make tapenade, which is served as a dip for raw vegetables or ④ spread on toast. In Spain, anchovies soaked in vinegar and oil are a tapas-bar favourite, and just writing about ⑤ them makes the author's mouth water.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 [Travel / Travelling] to Asia, and you will find anchovies used in even more varied ways. In Malaysia and Indonesia, where they are called ikan bilis, they are dried and then fried, and they are often served with nasi lemak, rice cooked with pandan leaves and coconut milk. Koreans eat huge amounts of dried anchovies too, either plain or dipped in gochujang, as anju, snacks that go with alcohol. Fried anchovies, often (B) [coating / coated] in a mix of soy sauce and sugar, are also a common banchan. In Japan and Korea the fish is sometimes eaten raw as sashimi, but rarely, because it spoils so fast that it can be eaten fresh only close to the places (C) [where / which] it is caught.

	(A)	(B)	(C)
①	Travel	coated	where
②	Travel	coating	which
③	Travelling	coated	where
④	Travelling	coating	where
⑤	Travel	coated	which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In the 1970s Malaysia, then the source of half the world's rubber, faced ① rising competition from synthetic rubber, which scientists in Germany, Russia and America had developed in the twentieth century's first half. The country later ② diversified, moving into palm oil and other primary goods as well as electronics, but the initial shock of synthetic rubber left the economy ③ thriving. Such cases show that there is nothing truly ④ natural about the 'natural' resources of poorer nations. Rubber may be Brazilian in origin, yet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now grow the most, and Brazil does not even make the top ten. Such endowments are really the ⑤ legacy of colonialism, as colonial masters moved profitable crops into their colonies, frequently onto plantations worked by slav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nchovies are used in many ways, but their most important role in many cuisines is as the base for _____. The Romans, it is said, seasoned their food generously with liquamen or garum, sauces usually made from fermented anchovies, to add umami, the rich, savoury taste now counted among the five basic tastes alongside sweet, sour, salty and bitter. Anchovies are also the fish most often used for Vietnam's nuoc mam and Thailand's nam pla, and the author cannot imagine Thai or Vietnamese food without these sauces. Koreans, for their part, stay faithful to myulchi, as they call anchovies, turning them into myulchi-jut, and a good myulchi-jut is key to a good kimchi.

① dried snacks
② pizza toppings
③ soup stocks
④ raw sashimi
⑤ fermented fish sauc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is was not, however, because the country sold anchovies abroad.

Anchovies once brought great wealth as well as great flavour. (①)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y lay at the root of Peru's prosperity. (②) Instead, Peru was booming thanks to its exports of guano, or dried seabird droppings. (③) Full of phosphorous and nitrate, and not too unpleasant to smell, guano was a valued fertilizer; its saltpetre also made it useful for gunpowder. (④) Guano mattered elsewhere too: an 1856 law of the US Congress let Americans claim guano islands anywhere, as long as no one occupied them and no other government had jurisdiction over them. (⑤) Using it, the US justified occupying over a hundred Pacific and Caribbean islands.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ruined several countries that exported primary commodities. ① When artificial dyes were invented in Britain and Germany, producers of natural dyes everywhere were badly hurt. ② Synthetic red dyes like alizarin, for instance, destroyed Guatemala's wealth. ③ At that time the country relied heavily on selling cochinilla, or cochineal, a much-valued crimson dye used for the robes of Catholic cardinals and for colouring the Italian liqueur Campari. ④ A US law of 1856 let American citizens take possession of unoccupied islands holding guano. ⑤ Cochineal is obtained from the cochineal 'beetle', which is not a beetle at all and actually resembles a woodlous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ynthetic substitutes are not the only threat to producers of primary commodities: because such goods are fairly easy to produce, more efficient rivals can spring up quickly.

(A) A similar shock came later from coffee. Vietnam sold almost no coffee abroad in the mid-1980s, but its exports then grew so quickly that it has been the world's number two since the early 2000s, behind only Brazil, badly hurting other coffee producers.

(B) Brazil, for example, held a monopoly over rubber until the 1880s. The trade made its rubber regions so wealthy that Manaus, their capital, boasted a splendid opera house, where Enrico Caruso, then opera's brightest rising star, travelled from Italy in 1897 to perform.

(C) That wealth did not last. The British smuggled rubber plants out of the country and set up plantations in their colonies, such as Malaya and Sri Lanka, dealing the Brazilian economy a heavy blow.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Generally speaking, a country with high technological capabilities can get around the limits that nature places on it. When the Germans found themselves without guano deposits, indigo plants or cochineal 'beetles', they simply invented chemical substitutes. Japan offers another case. Lacking natural fuel, it developed technologies that rank among the world's most fuel-efficient. When the Oil Shocks struck in the 1970s, countries with weaker technology could respond only by consuming less oil. Japan, on the other hand, drew on its technological strength to use oil far more efficiently and to develop a very efficient nuclear industry.

→ A country with high (A) _____ capabilities can (B) _____ the limits imposed by nature, as Germany and Japan did.

① technological ..... overcome
② technological ..... accept
③ military ..... overcome
④ natural ..... ignore
⑤ financial ..... accep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Guano mattered beyond Peru: the Guano Islands Act was passed by the US Congress in 1856. In 1909 Fritz Haber, a German scientist, invented a method for making fertilizer from the air, which won him the 1918 Nobel Prize in Chemistry; Carl Bosch of BASF later commercialized it. Chile's natural nitrates then lost their value: in 1925 Chile produced 2.5 million tons, but by 1934 only 0.8 million tons. Natural dyes suffered too. In 1868 BASF found how to make alizarin from coal tar, and artificial red dyes wiped out Guatemala's riches; in 1897 artificial indigo destroyed India's indigo industry. Meanwhile, since the early 2000s Vietnam has been the world's second-biggest coffee exporter, after Brazil.

<QUIZ>

(1) In what year did the US Congress pass the Guano Islands Act?

Answer for (1): _____

(2) Which German scientist invented a method for making fertilizer from the air?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Haber win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Answer for (3): _____

(4) How much natural nitrate did Chile produce in 1934?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did BASF find how to make alizarin from coal tar?

Answer for (5): _____

(6) Which country's riches were wiped out by artificial red dyes?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Vietnam has been the world's biggest coffee exporter since the early 2000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802	N. Alexander von Humboldt
B. Carl Bosch	O. 1934
C. 1856	P. Chile
D. 2.5 million tons	Q. 1925
E. 1918	R. Enrico Caruso
F. India	S. Guatemala
G. True	T. False
H. Fritz Haber	U. 1879
I. 1868	V. 1837
J. 1909	W. Bolivia
K. Peru	X. 1880s
L. 1897	Y. Malaysia
M. 0.8 million tons	Z. 5,878 metre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멸치는 작은 생선의 대명사지만,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의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선이다. (in terms of)

02 아시아로 가 보라, 그러면 쓰임새가 훨씬 더 다양하다. (명령문 + and / 비교급 강조 even)

03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멸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발효 생선 소스의 원료로서다. (형용사 + as + S + may be)

04 로마인들은 음식에 발효 생선 소스를 듬뿍 뿌렸다고 한다. (be said to have p.p.)

05 좋은 멸치젓은 좋은 김치를 담그는 열쇠다. (a key to + 동명사)

06 그것은 질산염과 인이 풍부해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비료였다. (이유의 분사구문 being)

07 구아노가 페루에 너무 중요해져서 경제사학자들은 '구아노 시대'를 이야기한다. (so ~ that)

08 그 법은 섬이 점유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미국 시민이 섬을 차지하도록 허락했다. (allow + O + to V / provided that)

09 그의 독가스 개발은 그에게 너무 큰 악명을 안겨서 그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는다. (such ~ that / 동격 the fact that)

10 1차 산품 생산자들이 위협받는 것은 합성 대체물을 발명한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다. (It is ~ that 강조구문)

11 온실 농업은 다소 추운 기후에도 한 해에 여러 번 수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make + it(가목적어) + possible + to V)

12 능력은 천연자원이 바닥나는 방식으로 바닥나지 않는다. (대동사 do / in the way (that))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지중해식 멸치 처리 네 단계	
피에몬테의 마늘 딥 / 프로방스의 멸치 페이스트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의 멸치 이름 / 곁들이는 밥	
멸치회가 흔하지 않은 까닭(44쪽 각주 i)	
로마의 생선 소스 / 베트남 · 타이의 생선 소스	
우스터소스 처음 상품화 / 회사 / 지금 소유 회사	
19세기 중반 페루 번영의 뿌리	
구아노를 만든 새 / 그 새의 먹이	
훔볼트 해류의 방향	
훔볼트의 1802년 기록 / 침보라소의 높이	
구아노 시대	
구아노 섬법 / 미국이 점령한 섬	
태평양 전쟁(초석 전쟁) / 내륙국이 된 나라	
하버의 발명 / 노벨 화학상	
하버의 발명을 상품화한 사람 / 회사	

항목	답
칠레의 천연 질산염 생산	
BASF의 알리자린 / 인공 인디고	
1970년대 말레이시아의 고무 비중 / 다각화	
브라질의 고무 독점 / 카루소가 노래한 해	
베트남의 커피 수출 순위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 순위	

4-3. 통합 사고 문제 – 3장과 4장을 잇는 자리

문제

3장에서 저자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는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므로 그들의 가난은 근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라고 했으며(37쪽 ¶3),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온 이민자의 생산성이 도착하자마자 크게 높아지는 것은 더 나은 기술과 더 잘 경영되는 생산 단위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썼고(37쪽 ¶4), 여러 나라를 낮은 가치의 1차 산품에 특화하도록 몰아넣은 식민 지배의 역사를 들며 「Anchovy」 장을 참고하라고 했다(37쪽 ¶5). 4장에서 저자는 1차 산품 생산국의 지위는 생산이 쉽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43쪽 ¶3), 기술 능력이 높으면 자연이 지운 제약을 넘을 수 있으며(43쪽 ¶4), 그런 생산 능력은 천연자원처럼 '바닥나지' 않는다고 썼다(44쪽 ¶3).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지속 가능한 높은 생활 수준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3장과 4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3장 또는 4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높은 생활 수준을 지키는 길: History shows that sustainable high living standards can only be acquired through _____ – that is, the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is the main source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5 PRAWN – OR SHRIMP?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Prawn – or Shrimp?」 (원서 PDF 46~50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5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새우 같던 경제는 어떻게 큰 물고기가 되었는가."

이 장은 새우와 마늘을 뜨거운 기름에 튀긴 스페인의 감바스 알 아히요로 시작한다. prawn과 shrimp가 같은 것인 줄 알았던 저자는 세계의 갑각류 요리와 한국의 새우젓을 소개한 뒤, 새우 양식장 때문에 사라지는 맹그로브 숲과, 곤충은 역겹다면서 같은 절지동물인 새우는 즐겨 먹는 이상한 입맛을 짚는다. 이야기는 1970년대 저자의 하굣길 간식이던 번데기를 거쳐 비단 산업으로, 다시 1950년대 세계 최대 비단 수출국이면서도 그에 만족하지 않고 자동차 · 철강 같은 '선진' 산업을 관세와 은행 신용으로 보호한 일본으로 넘어간다. 잘하는 비단에나 집중하라는 비판에 맞서 저자는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려면 어린 산업을 자유무역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을 내놓고, 이 이론이 미국의 해밀턴에게서 나왔으며 오늘날의 부자 나라 거의 모두가 이 길을 걸었다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4장(멸치)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능력은 바뀔 수 있지만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바뀌지 않는다(49쪽 ¶1~¶2) / 유치산업 이론의 뿌리는 미국 · 영국(49쪽 ¶4~¶5) / 부자 나라는 보호로 컸다(49쪽 ¶6~50쪽 첫 줄) / 보호 없이는 새우가 큰 물고기가 될 수 없었다(50쪽 ¶2)
4~5	**밑줄 함축 의미**	this a book about food and not about biology / as it is, well, sweet / the 'yuck factor' / the weirdest of food aversions / call crickets 'bush prawns' / a 'waste product' / the drumming of heavy rain on the roof / not content with that / an absolutely correct argument – if … / The plot thickens / fail to 'mature' / economic shrimps · the big fish
6	지칭 추론	they · them · their가 노점상과 아이들 사이를 오가는 47쪽 ¶6 / The latter(46쪽 ¶2 = 날로 얹은 에비) / the former · the latter(46쪽 ¶1 · 47쪽 ¶3) / that · It(48쪽 ¶3 = 비단 수출국 지위 · 일본 정부) / This(49쪽 ¶1 · ¶2) / his words(49쪽 ¶4 = Hamilton)
7~8	내용 일치·불일치	새우젓 · 한반도 북부 · 보쌈(46쪽 ¶2) / 비단의 역사와 영화 「1900」(48쪽 ¶1) / 2012 · 1980 · 5분의 1 · 1.7kg · 2.9kg · 10kg · 기원전 2500년 · 7세기 · 1950년대 · 1980년대 · 20년
9~10	**어법**	used to + V · 독립분사구문 · be preferred to · help + O + 원형 · so much that · given + 명사 · find + O + 형용사 · why + 원형 · whose · 대동사 did · discourage A from -ing · there is no way · 사역 make · 가정법 과거 · take A as given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It takes + 시간 + to V · get + p.p. · none other than · be accused of · only after · not to say that · Without + 가정법 과거완료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repulsive↔appealing · aversion↔fondness · hygienic↔unhygienic · monopolize↔share · incessant↔intermittent · backward↔advanced · lucrative↔unprofitable · inferior↔superior · immature↔mature · nurture↔neglect · supremacy↔inferiority · export↔import
12	빈칸 추론	a much less environmentally damaging source of protein(47쪽 ¶2) / a 'waste product' from a large industry(48쪽 첫 줄) / a parallel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child development(49쪽 ¶3) / can change its productive capabilities(49쪽 ¶1) / only after they achieved industrial supremacy(49쪽 ¶6)
13	문장 삽입	일본 정부의 보호 정책(48쪽 ¶3): 비단에 만족하지 않음 → '선진' 산업에 도전 → 기술적으로 뒤처짐 → 그래서 국내 생산자 보호 → 관세 · 외국 기업 금지 → 은행 신용
14	무관한 문장	새우 양식장과 맹그로브(46쪽 ¶3~47쪽 첫 줄)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1950년대 일본의 비단 수출, 48쪽 ¶2)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일본 정책에 대한 비판(48쪽 ¶4~49쪽 첫 줄): 비판의 요지(수입하고 비단에 집중하라) → 관세의 비용(소비자) → 은행 대출의 비용(효율적인 산업)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유치산업 보호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줄여 가야 한다(50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숫자 · 나라 · 인물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12(로이터 보고서) · 1980(맹그로브 파괴의 기준 해) · 5분의 1 · 1.7kg(곤충 사료) · 2.9kg(소고기 온실가스) · 10kg(소고기 사료) · 기원전 2500년(중국의 비단) · 7세기(일본의 양잠) · 1950년대(일본의 비단 수출 · 경쟁 불가) · 1980년대(세계 선두) · 적어도 20년 · 18세기(월폴) · 1960~70년대(지나친 보호). 1970년대는 저자의 번데기 추억에도, 개발도상국의 지나친 보호(1960~70년대)에도 나온다. 인물도 많다(롤링 · 갤브레이스 · 베르톨루치 · 드파르디외 · 드니로 · 해밀턴 · 미란다 · 월폴 · 제퍼슨).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three pairs ↔ two pairs, northern half ↔ North Korea, Korea → India ↔ India → Korea, exporter ↔ importer, only after ↔ before, US ↔ Japan에서 만든 이론, reducing ↔ increasing protection). 저자의 판단(would agree · at least to me · I think)이나 전언(apparently)을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Prawn – or Shrimp?」 (46~50쪽)

논증형(prawn과 shrimp → 세계의 갑각류 요리 · 새우젓 → 맹그로브 파괴 → 곤충은 꺼리고 새우는 먹는 입맛 → 번데기와 비단 산업 → 1950년대 일본의 비단과 '선진' 산업 보호 → 비판과 저자의 반박 → 유치산업 보호론 · 해밀턴 · 월폴 → 부자 나라의 보호주의 과거 → 결론: 새우가 큰 물고기가 되는 길). 핵심 축은 **지금의 능력 vs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유무역 vs 유치산업 보호**.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46 ¶1	도입	prawn과 shrimp = 같은 것의 다른 이름(영국 · 오스트레일리아 vs 북아메리카)이라 생각 → 다른 종 · 집게발 세 쌍 vs 두 쌍
46 ¶2	갑각류 요리	생물학 책이 아님 · 갑각류는 맛있다 / 감바스 알 아히요 · 바비큐 · 웍 · 남아시아 향신료 · 에비 덴푸라 · 아마 에비
46 ¶2	새우젓	saewoo-jut / 한반도 북부 = 김치에 멸치젓보다 새우젓 / 보쌈의 돼지고기 = 새우젓에만(남북이 동의할 것 – 저자)
46 ¶3~47 첫 줄	맹그로브	새우 양식장 → 맹그로브 파괴(타이 · 베트남 · 중국) / 2012년 로이터: 1980년 이후 5분의 1 / 홍수 · 폭풍 방어 · 치어의 보금자리 · 먹거리
47 ¶1~¶2	곤충 먹기	새우의 인기는 묘한 일 / 곤충 = 환경 피해가 훨씬 적은 단백질 · 사료 1.7kg vs 소고기 10kg / 수요는 늘지 않음 · 'yuck factor'
47 ¶3	이상한 혐오	곤충은 역겨워하면서 새우 · 랍스터 · 랑구스틴은 먹음 / 둘 다 절지동물 · 왜 하나만?
47 ¶4	이름 바꾸기	귀뚜라미 = 'bush prawns' · 메뚜기 = 'field langoustines'(저자의 제안)
47 ¶5	곤충을 먹는 사람들	중국인 · 타이인 · 멕시코인의 entomophagy / 몇십 년 전까지 한국인도 · 메뚜기 볶음 · 단연 번데기
47 ¶6	번데기의 추억	누에나방의 번데기 · Bombyx mori / 1970년대 하굣길 노점 · 뽑기 · 수평아리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47 ¶7~48 첫 줄	값싼 까닭	맛있고 쌈 · 단백질 · 철분 / 위생 문제로 학교가 말림 / 비단 산업의 '폐기물'
48 ¶1	비단의 역사	기원전 2500년 무렵 중국 · 두어 천 년 독점 → 한국 → 인도 → 비잔티움 / 서유럽은 이탈리아 · 영화 「1900」
48 ¶2	일본의 비단	7세기 한국에서 양잠 · 2차 세계대전 직후 꽃핌 / 1950년대 세계 최대 비단 수출국 · 최대 수출품
48 ¶3	일본의 선택	만족하지 않음 · 철강 · 조선 · 자동차 등 '선진' 산업 / 기술적으로 뒤처짐 → 높은 관세 · 외국 기업 금지 · 은행 신용
48 ¶4~49 첫 줄	비판	철강 · 자동차는 수입하고 비단에 집중하라 / 소비자 손해 · 효율적인 산업(비단)의 자금을 빼앗음
49 ¶1~¶2	저자의 반박	능력을 주어진 것으로 보면 옳은 주장 / 길게 보면 능력은 바뀐다 · 일본(1950s → 1980s) · 적어도 20년 →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불가능
49 ¶3	유치산업 보호론	뒤처진 나라의 미숙한 생산자를 보호 · 경제 발전을 아이의 성장과 나란히
49 ¶4~¶5	해밀턴	일본이 아니라 미국 · 첫 재무장관 해밀턴 · 'industries in their infancy' / 영감 = 18세기 영국 · 월폴 · 제퍼슨의 비난
49 ¶6~50 첫 줄	부자 나라의 과거	영국 · 미국 = 가장 보호주의적 · 패권 뒤에야 자유무역 / 네덜란드 · 스위스 말고는 모두 유치산업 보호
50 ¶1~¶2	결론	보호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음 · 지나친 보호 → 안주 · 줄여 가야(일본 · 한국) / 보호 없이는 새우가 큰 물고기가 될 수 없었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prawn과 shrimp	같은 것의 다른 이름(저자의 옛 생각)	다른 종 – 몸 마디 · 아가미 · 집게발 수가 다름
김치에 쓰는 젓갈	멸치젓(myulchi-jut)	한반도 북부 – 새우젓(더 빨리 · 더 깊은 맛)
새우 사랑의 대가	새우 양식장	맹그로브 숲(홍수 · 폭풍 방어, 치어의 보금자리, 먹거리)
단백질의 환경 비용	소고기 – 온실가스 2.9kg · 사료 10kg(최악의 주범)	곤충 – 온실가스 거의 0 · 사료 1.7kg · 물과 땅도 훨씬 적게
사람들의 입맛	곤충 – 역겹다('yuck factor')	새우 · 랍스터 · 랑구스틴 – 기꺼이 먹음(같은 절지동물)
번데기의 두 얼굴	맛있고 싸고 단백질 · 철분이 풍부	위생 문제로 학교가 말림
1950년대 일본	비단 – 세계 최대 수출국 · 최대 수출품	철강 · 조선 · 자동차 · 화학 · 전자 등 '선진' 산업에 도전
일본 정책의 평가	비판자 – 잘하는 비단에 집중하고 자동차는 수입하라	저자 – 능력을 주어진 것으로 볼 때만 옳다 · 능력은 바뀐다
새 산업의 미숙한 생산자	자유무역 – 크고 우수한 외국 경쟁자에게 금세 쓸려 나감	유치산업 보호 – 능력을 키울 때까지 보호하고 기름
부자 나라의 이미지 vs 실제	오늘날 – 자유무역의 본고장(영국 · 미국)	발전 초기 – 가장 보호주의적 · 패권 뒤에야 자유무역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보호의 방식	지나치고 줄이지 않음(1960~70년대 많은 개발도상국) → 안주	차츰 줄임(일본 · 한국) — 부모가 자라는 아이에게 하듯
경제의 크기	한때의 경제적 새우(18세기 영국 · 20세기 한국 등)	오늘날 세계 경제의 큰 물고기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prawn / shrimp	저자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영국인 · 오스트레일리아인 = prawn, 북아메리카인 = shrimp) → 최근에 다른 종임을 앎 · 몸 마디 · 아가미가 다름 · 집게발: prawn = 다리 **세 쌍**, shrimp = **두 쌍**
gambas al ajillo	스페인 · 새우와 마늘을 뜨거운 기름에 튀긴 요리 / 지중해식(마늘 · 기름) · 바비큐(영어권) · 중국식 웍 볶음 · 남아시아의 은은한 향신료
ebi / ama ebi	일본 · 튀김옷을 입혀 ebi tempura · nigiri sushi 위에(익히거나 날것) / 날것 = ama ebi(단새우), 정말 달다(저자)
saewoo-jut	saewoo = prawn/shrimp의 한국어 · jut = 발효 생선 소스(myulchi-jut처럼) / 한반도 **북부**(북한과 같은 말이 아님) = 김치를 더 빨리 · 더 깊은 맛으로 → 멸치젓보다 선호
bossam	삶은 돼지고기를 baechoo(배추)에 싸서 + moo namul(고춧가루를 넣은 절인 무채) · 김치 · ssamjang(한국 된장 + 다진 마늘 · 참기름 · 꿀) / 돼지고기는 새우젓에만 — 남북이 동의할 것(저자)
mangrove	새우 양식장 때문에 넓게 파괴(특히 타이 · 베트남 · 중국) / **2012년** 로이터 보고서 = **1980년** 이후 세계 맹그로브의 약 **5분의 1** 파괴, 주로 양식장 / 홍수 · 폭풍 방어 · 치어(야생 새우 포함)의 보금자리 · 주변 사람의 먹거리
곤충 사육 vs 소고기	곤충 = 온실가스 거의 0 · 살아 있는 무게 1kg당 사료 **1.7kg** / 소고기(최악의 주범) = 온실가스 **2.9kg** · 사료 **10kg** / 곤충은 단백질 1g당 물 · 땅도 훨씬 적게(「Beef」「Lime」 참조)
yuck factor	특히 유럽 · 북아메리카에서 곤충 먹기의 확산을 가로막음 · 곤충 수요는 늘지 않는데 채식주의 · 비건은 퍼지는 중
arthropods	갑각류 · 곤충 = 둘 다 절지동물(creepy-crawlies) · 촉수 · 외골격 · 마디진 몸 · 여러 쌍의 다리 / 저자에게 가장 이상한 음식 혐오 · 랍스터 · 랑구스틴(원서 괄호: crayfish)
새 이름 제안	귀뚜라미 = 'bush prawns' · 메뚜기 = 'field langoustines' / 'langoustines des champs'라고 하면 더 인기가 있을까?(저자)
entomophagy	곤충 먹기를 가리키는 멋 부린 말 · 중국인 · 타이인 · 멕시코인 / 한국인도 몇십 년 전까지 · 메뚜기 볶음(멕시코의 chapulines와 비슷) · 단연 bun-de-gi
bun-de-gi	누에나방의 삶은 번데기 · 학명 **Bombyx mori** = J. K. 롤링이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쓴 스릴러 『Silkworm』 덕에 유명
1970년대 하굣길	신문지를 말아 만든 고깔 · 학교 주변 노점 · 막대사탕 · 솜사탕 · popki(설탕 + 베이킹 소다,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 · 싸구려 장난감 · 수평아리 / 저자가 산 병아리는 곧 죽음
번데기가 쌌던 까닭	맛있고(저자는 별로) 쌈 · 단백질 · 철분 / 학교는 위생 문제로 말림 / 비단 제조의 '폐기물' · 당시 비단 = 한국의 주요 수출품
비단의 역사	**기원전 2500년** 무렵 중국 · 두어 천 년 독점 → **한국 → 인도 → 비잔티움 제국** 순 / 서유럽(아주 늦게 들어옴) = 이탈리아가 가장 중요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1900」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 롬바르디아 농촌의 계급 갈등, 이탈리아의 파시즘 · 공산주의 대두 / 누에 치는 집: 소작농의 아들 올모(드파르디외) · 지주의 아들 알프레도(드니로) · 봉잎 먹는 소리 = 지붕을 두드리는 큰비
일본의 비단	근대 최대의 비단 생산국 · 번데기를 먹었다**고 한다**(apparently) · **7세기** 한국에서 양잠 · 2차 세계대전 직후 꽃핌 / **1950년대** = 세계 최대 비단 수출국(생사 · 비단 직물) · 비단 = 최대 수출품
일본 정부의 정책	철강 · 조선 · 자동차 · 화학 · 전자 등 '선진' 산업 / 높은 관세(수입세) · 외국 기업의 영업 금지 · 규제가 엄격한 은행이 국내 기업에 신용(주택 담보 대출 · 소비자 신용 · 비단 대출 대신)
비판	일본 안팎 · 철강 · 자동차는 수입하고 비단에 집중하라 / 관세 → 세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더 못하고 못생긴 일본 차(도요타 · 닛산) / 정부 지시로 대출을 돌리면 효율적인 산업(비단)의 자금을 빼앗음
저자의 반박	능력을 주어진 것으로 보면 옳음 · 길게 보면 능력은 바뀜(기계 투자 · 숙련 · 기술 연구) / 일본 = **1950년대** 경쟁 불가 → **1980년대** 여러 산업의 세계 선두 / **적어도 20년** →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불가능
infant industry	뒤처진 나라의 미숙한 생산자를 언젠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보호 · 경제 발전과 아이의 성장을 나란히 놓음 · 능력을 키워 외국 경쟁자와 겨룰 때까지
Alexander Hamilton	미국의 **첫 재무장관** · 10달러 지폐의 얼굴 · 린마누엘 미란다의 뮤지컬 『Hamilton』으로 뜻밖에 되살아남 / 'industries in their infancy'(그의 말) ·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산업화하지 못한다
Walpole / Jefferson	해밀턴의 영감 = **18세기** 영국의 보호주의, 특히 **로버트 월폴** 시기(영국이 세계 산업 패권으로 오르기 시작) / **토머스 제퍼슨**(첫 국무장관 · 3대 대통령, 루이지애나 매입 — 「Okra」)이 'Walpolean'이라 비난
부자 나라의 보호	영국 · 미국 = 발전 초기에 가장 보호주의적 · 패권을 얻은 **뒤에야** 자유무역(「Beef」 참조) / **네덜란드 · 스위스**(1차 세계대전까지) 말고는 모두: 19세기 후반 벨기에 · 스웨덴 · 독일 → 20세기 후반 프랑스 · 핀란드 · 일본 · 한국 · 타이완
보호의 실패와 성공	**1960~70년대** 많은 개발도상국 = 지나친 보호 · 줄이지 않음 → 안주 · 생산성을 높일 동기 없음 / 일본 · 한국 = 차츰 줄임 / 경제의 새우(18세기 영국, 19세기 미국 · 독일 · 스웨덴, 20세기 일본 · 핀란드 · 한국) → 오늘날의 큰 물고기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Prawn – or Shrimp?」 (원서 PDF 46~50쪽) · 5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5-1 prawn이냐 shrimp냐, 그리고 새우젓 46쪽 ¶1~¶2

원문 위치 원서 46쪽 ¶1~¶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6쪽 ¶1 첫 문장	I used to think prawn and shrimp were different names for the same thing	도입 — 저자의 옛 생각(지금은 아님)
▲	46쪽 ¶1 첫 문장	the British and the Australians preferring the former and the North Americans the latter	독립분사구문 · the former / the latter
★	46쪽 ¶1 둘째 문장	the two are different species with different body segmentations and gills	내용 일치 — 다른 종
★	46쪽 ¶1 셋째 문장	claws on three pairs of their legs, while shrimps have them only on two pairs	숫자 — 세 쌍 ↔ 두 쌍 바꿔치기 주의
◆	46쪽 ¶2 첫 문장	this a book about food and not about biology	밑줄 의미: 생물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원서 표기 this a book)
▲	46쪽 ¶2 둘째 문장	What we know is that crustaceans are delicious	What 명사절 주어 + that 보어절
★	46쪽 ¶2 둘째 문장	fried Mediterranean-style … barbecued (as in Anglo countries) … wok-fried … Chinese-style	내용 일치 — 지역별 조리법
★	46쪽 ¶2 셋째 문장	deep-fry their ebi in batter, to make ebi tempura, and have it atop nigiri sushi	내용 일치 — 일본
◆	46쪽 ¶2 넷째 문장	The latter is called ama ebi … as it is, well, sweet (it really is)	지칭: The latter = 날것 · 말놀이
★	46쪽 ¶2 다섯째 문장	saewoo being the Korean word for prawn/shrimp and jut being the word for fermented fish sauce	내용 일치 · 4장(멸치젓)과 연결
★	46쪽 ¶2 여섯째 문장	In the nor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not the same as North Korea)	내용 일치 1순위 — 북부 ≠ 북한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6쪽 ¶2 여섯째 문장	is preferred to myulchi-jut as an agent to help kimchi ferment	be preferred to · help + O + 원형
◆	46쪽 ¶2 일곱째 문장	Northerners and southerners, however, would agree that …	저자의 판단(would agree) — 사실 단정 금지
★	46쪽 ¶2 일곱째 문장	bossam – boiled pork wrapped in baechoo … moo namul … ssamjang	내용 일치 — 보쌈의 재료

내용

저자는 prawn과 shrimp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인과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앞의 이름을, 북아메리카인은 뒤의 이름을 즐겨 쓸 뿐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저자는 둘이 몸의 마디와 아가미가 서로 다른 별개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prawn은 다리 세 쌍에 집게발이 있고, shrimp는 두 쌍에만 있다.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 이 책은 생물학이 아니라 음식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갑각류가 맛있다는 사실이다. 스페인의 감바스 알 아히요처럼 지중해식으로 마늘과 기름에 튀기거나, 영어권 나라들에서처럼 바비큐로 굽거나, 중국식으로 소스와 함께 웍에 볶거나, 남아시아에서처럼 은은한 향신료로 요리한다. 일본인은 에비에 튀김옷을 입혀 튀겨 에비 덴푸라를 만들고, 니기리 초밥 위에 얹기도 한다. 이때 익혀서도 얹지만 날것으로도 얹는데, 날것은 '단새우'라는 뜻의 아마 에비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달기 때문이다(정말 달다). 한국에서는 새우로 발효 소스인 새우젓까지 만든다. saewoo는 prawn/shrimp를 가리키는 한국어이고, jut는 한국의 발효 멸치 소스인 멸치젓에서처럼 발효 생선 소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반도의 북쪽 절반(북한과 같은 말이 아니다)에서는 김치를 더 빨리, 더 깊은 맛으로 익게 돕는 재료로 멸치젓보다 새우젓을 즐겨 쓴다. 그래도 보쌈을 먹을 때 삶은 돼지고기는 새우젓 말고 다른 것에 찍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북쪽 사람도 남쪽 사람도 동의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보쌈은 삶은 돼지고기를 배추에 싸서 무나물(고춧가루를 넣은 절인 무채), 김치, 쌈장(한국 된장에 다진 마늘 · 참기름 · 꿀을 섞은 것)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어법

- **I used to think prawn and shrimp were different names for the same thing – the British and the Australians preferring the former and the North Americans the latter** : used to + V = (예전에는) ~했다(지금은 아님). 대시 뒤 = 의미상 주어(the British and the Australians)가 붙은 독립분사구문. and the North Americans (preferring) the latter에서 반복되는 분사 생략. the former = prawn, the latter = shrimp.
- **Recently I learned that the two are different species with different body segmentations and gills** : learned(과거) 뒤의 that절이 현재형 are —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시제 일치의 예외. the two = prawn과 shrimp.
- **Prawns have claws on three pairs of their legs, while shrimps have them only on two pairs** : while = 대조(반면에). them = claws. only가 on two pairs를 한정한다.
- **What we know is that crustaceans are delicious** : 주어 = What we know(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 단수 취급 → is). 보어 = that절.
- **The Japanese deep-fry their ebi in batter, to make ebi tempura, and have it atop nigiri sushi** : the + 국적 형용사 = 그 나라 사람들(복수 → deep-fry · have). to make = 목적의 to부정사. atop = ~의 위에(전치사). it = ebi.
- **The latter is called ama ebi, meaning sweet prawn, as it is, well, sweet (it really is)** : The latter = 앞 문장의 raw(날로 얹은 에비). meaning = 덧붙여 풀이하는 분사구문. as = 이유(~이므로). well = 말을 고르는 간투사.
- **saewoo-jut is preferred to myulchi-jut as an agent to help kimchi ferment more quickly and with deeper flavour** : prefer A to B의 수동 = A is preferred to B(than이 아니라 전치사 to). help + O + 원형부정사(ferment). more quickly(부사)와 with deeper flavour(전치사구)가 병렬.

- **Northerners and southerners, however, would agree that boiled pork should be dipped in nothing else than saewoo-jut** : would agree = (아마) 동의할 것이다(저자의 추측). 조동사 수동 should be dipped. nothing else than = 다른 것이 아닌 오직 ~(= onl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pecies	(생물의) 종	kind	—
segmentation	마디로 나뉨	division	—
claw	집게발	pincer	—
crustacean	갑각류	shellfish	—
delicate	(맛 · 향이) 은은한	subtle	strong
batter	(튀김) 반죽	coating	—
atop	~의 위에	on top of	beneath
the latter	(둘 중) 후자	the second	the former
ferment (v.)	발효하다	brew	—
agent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medium	—
peninsula	반도	—	—
wrap	싸다	enclose	unwrap
julienne	가늘게 채 썬 것	strips	—

내용 일치 prawn · shrimp = 다른 종(몸 마디 · 아가미) · 집게발: prawn = 세 쌍, shrimp = 두 쌍 · 영국인 · 오스트레일리아인 = prawn, 북아메리카인 = shrimp · 감바스 알 아히요 = 스페인(마늘 · 기름) · 바비큐 = 영어권 · 웍 = 중국식 · 은은한 향신료 = 남아시아 · 일본 = 에비 덴푸라 · 니기리 초밥(익히거나 날것) · 날것 = 아마 에비(단새우) · saewoo = prawn/shrimp, jut = 발효 생선 소스 · 한반도 북부(북한과 같은 말이 아님) = 김치에 멸치젓보다 새우젓 · 보쌈 = 삶은 돼지고기 + 배추 · 무나물 · 김치 · 쌈장(된장 · 다진 마늘 · 참기름 · 꿀) · 돼지고기는 새우젓에만 = 저자의 판단(would agree). **지칭** 46쪽 ¶1 the former = prawn · the latter = shrimp · them(have them) = claws / 46쪽 ¶2 it(have it atop) = ebi · The latter = 날로 얹은 에비 · them(sauce out of them) = prawns/shrimps · 밑줄 의미: this a book about food and not about biology = 생물학 이야기는 여기서 그친다 / as it is, well, sweet = 이름 그대로 정말 달다.

> **한 줄 요약** prawn과 shrimp는 다른 종이지만, 지중해 · 영어권 · 중국 · 남아시아 · 일본의 요리에서 한국의 새우젓과 보쌈까지 갑각류는 어디서나 맛있게 먹힌다.

5-2 새우는 먹고 곤충은 꺼리는 이상한 입맛 46쪽 ¶3 ~ 47쪽 ¶4

원문 위치 원서 46쪽 ¶3 ~ 47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6쪽 ¶3 첫 문장	huge tracts of mangrove forests are destroyed to make way for prawn/shrimp farms	원인 → 결과 · so much that
★	46쪽 ¶3 첫 문장	especially in Thailand, Vietnam and China	나라 이름 — 일치 후보
★	46쪽 ¶3 둘째 문장	a 2012 Reuters report … one-fifth … since 1980	숫자 — 서답형 1순위
▲	46쪽 ¶3 셋째 문장	given the valuable environmental benefits the mangroves provide	given + 명사 · 관계대명사 생략
★	46쪽 ¶3 넷째 문장 ~ 47쪽 첫 줄	protection against floods and storms, serve as nurseries for baby fish	무관한 문장 문항의 바탕
◆	47쪽 ¶1	this popularity of prawn, shrimp and their relatives is a curious thing	전환 — 곤충 이야기로
★	47쪽 ¶2 둘째 문장	only 1.7kg of feed per 1kg of live weight, as opposed to 2.9kg … and 10kg of feed	숫자 — 1.7 · 2.9 · 10 바꿔치기
▲	47쪽 ¶2 넷째 문장	the demand for insects is not taking off, while vegetarianism and veganism are spreading	현재진행 · 대조 while
◆	47쪽 ¶2 다섯째 문장	is undermined by the 'yuck factor'	밑줄 의미 1순위 — 역겨움
▲	47쪽 ¶2 여섯째 문장	find the idea of eating insects disgusting	find + O + 형용사
★	47쪽 ¶3 첫 문장	most of those who find insect-eating repulsive will happily devour prawns	대조 — 같은 사람들의 두 입맛
◆	47쪽 ¶3 둘째 문장	This is the weirdest of food aversions – at least to me	저자의 생각(at least to me)
★	47쪽 ¶3 셋째 문장	both arthropods … tentacles, exoskeletons, segmented bodies and multiple pairs of legs	근거 — 같은 절지동물
▲	47쪽 ¶3 넷째 문장	So why eat the former but not the latter?	why + 원형 · former / latter 지칭
◆	47쪽 ¶4 둘째 문장	call crickets 'bush prawns' and grasshoppers 'field langoustines'	밑줄 의미 — 이름 바꾸기 제안

내용

전 세계 사람들이 prawn과 shrimp를 워낙 좋아해서, 특히 타이 · 베트남 · 중국에서는 새우 양식장을 만들려고 넓은 맹그로브 숲을 파괴한다. 2012년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세계 맹그로브 숲의 약 5분의 1이 파괴되었고, 대부분은 그런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맹그로브가 주는 귀한 환경상의 이익을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맹그로브 숲은 무엇보다 홍수와 폭풍을 막아 주고, (야생 새우를 포함한) 어린 물고기의 보금자리 구실을 하며,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물과 숲 양쪽에서 풍부한 먹거리를 준다. 생각해 보면 새우와 그 친척들의 이런 인기는 묘한 일이다. 고기보다 환경 피해가 훨씬 적은 단백질원으로 곤충을 먹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곤충을 기르면 온실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고 살아 있는 무게 1kg당 사료가 1.7kg만 든다. 최악의 주범인 소고기는 온실가스 2.9kg과 사료 10kg이 든다. 곤충은 단백질 1g을 만드는 데 드는 물과 땅도 동물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도 채식주의와 비건은 퍼지는 반면 곤충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곤충 먹기가 퍼지지 못하는 것은 '웩 하는 거부감(yuck factor)'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곤충을 먹는다는 생각을 역겨워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곤충 먹기를 역겨워하는 사람 대부분이 새우와, 랍스터 · 랑구스틴(원서 괄호: crayfish) 같은 그 친척은 기꺼이 먹어 치운다. 적어도 저자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이상한 음식 혐오다. 갑각류와 곤충은 둘 다 절지동물(쉽게 말해 '징그러운 벌레')로, 촉수 · 외골격 · 마디진 몸 · 여러 쌍의 다리를 지녔다. 그런데 왜 앞의 것은 먹고 뒤의 것은 먹지 않는가? 이름을 바꾸면 곤충을 먹는 사람이 늘까? 저자는 귀뚜라미를 '덤불 새우(bush prawns)', 메뚜기를 '들판 랑구스틴(field langoustines)'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아니면 프랑스어로 'langoustines des champs'라고 하면 더 인기가 있을까 하고 묻는다).

어법

- **People all over the world love prawn and shrimp so much that huge tracts of mangrove forests are destroyed to make way for prawn/shrimp farms** : so much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are destroyed = 현재 수동(지금도 일어나는 일). to make way for = ~에 자리를 내주려고(목적).
- **According to a 2012 Reuters report, around of one-fifth of the world's mangrove forests had been destroyed since 1980** : had been destroyed = 과거완료 수동(1980년부터 보고서가 나온 2012년까지). one-fifth of + 명사 = 5분의 1. around of는 원서 표기(보통은 around one-fifth).
- **This is a serious problem, given the valuable environmental benefits the mangroves provide** : given + 명사 = ~을 고려하면(전치사처럼). benefits (that) the mangroves provid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Farming insects generates virtually no greenhouse gas and requires only 1.7kg of feed per 1kg of live weight, as opposed to 2.9kg of greenhouse gases and 10kg of feed in the case of beef** : 동명사 주어 Farming insects → 단수 동사 generates · requires. as opposed to = ~와 대조적으로. in the case of = ~의 경우에.
- **Yet, the demand for insects is not taking off, while vegetarianism and veganism are spreading** : 현재진행형 = 지금 벌어지는 추세. while = 대조(반면에). take off = (수요 · 인기가) 급증하다.
- **A lot of people find the idea of eating insects disgusting** : find + O + 형용사(목적격 보어) = O를 ~하다고 여기다. 부사 disgustingly는 쓸 수 없다. of eating = 동격의 of(생각의 내용).
- **most of those who find insect-eating repulsive will happily devour prawns, shrimps and their relatives** : those who = ~하는 사람들. will = 습성 · 경향(~하곤 한다). 관계절 안에서도 find + O + 형용사(repulsive).
- **So why eat the former but not the latter?** : why + 원형부정사 = 왜 ~하는가(why do people eat ~?를 줄인 꼴). the former = crustaceans, the latter = insect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ract	(넓은) 지대	expanse	—
make way for	~에 자리를 내주다	give way to	—
nursery	(어린 생물의) 보금자리	breeding ground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urious	이상한, 묘한	strange	ordinary
virtually	거의	almost	—
offender	(문제의) 주범	culprit	—
take off	(수요 · 인기가) 급증하다	boom	stall
undermine	약화시키다	weaken	strengthen
repulsive	역겨운	disgusting	appealing
devour	게걸스럽게 먹다	gobble	—
aversion	혐오	dislike	fondness
arthropod	절지동물	creepy-crawly	—
exoskeleton	외골격	shell	endoskeleton
segmented	마디로 나뉜	divided	—

내용 일치 새우 양식장 → 맹그로브 파괴(특히 타이 · 베트남 · 중국) · 2012년 로이터 보고서 = 1980년 이후 세계 맹그로브의 약 5분의 1, 주로 양식장 · 맹그로브 = 홍수 · 폭풍 방어, 치어(야생 새우 포함)의 보금자리, 주변 사람의 먹거리(물과 숲) · 곤충 = 온실가스 거의 0, 사료 1.7kg · 소고기 = 온실가스 2.9kg, 사료 10kg · 곤충은 물 · 땅도 훨씬 적게 · 곤충 수요는 늘지 않음, 채식주의 · 비건은 퍼짐 · 'yuck factor' = 특히 유럽 · 북아메리카 · 곤충을 역겨워하는 사람 대부분이 새우 · 랍스터 · 랑구스틴은 먹음 · 둘 다 절지동물 · 귀뚜라미 = 'bush prawns', 메뚜기 = 'field langoustines'(저자의 제안). **밑줄 의미** the 'yuck factor' = 곤충을 먹는다는 생각만으로 드는 역겨움 / the weirdest of food aversions – at least to me = 같은 절지동물인데 하나만 꺼리는 것은 (저자가 보기에) 가장 앞뒤가 안 맞는 혐오 / call crickets 'bush prawns' = 곤충에 익숙한 해산물 같은 이름을 붙여 거부감을 줄이자 / 지칭: 47쪽 ¶3 the former = crustaceans · the latter = insects · 47쪽 ¶4 them(rename them) = insects.

> **한 줄 요약** 새우 사랑은 맹그로브를 파괴하는데, 환경에 훨씬 이로운 곤충은 역겹다며 꺼리면서 같은 절지동물인 새우는 즐겨 먹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5-3 번데기에서 비단 산업으로 47쪽 ¶5 ~ 48쪽 ¶2

원문 위치 원서 47쪽 ¶5 ~ 48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7쪽 ¶5 둘째 문장	The Chinese, the Thais and the Mexicans are famous for their entomophagy	내용 일치 · 어휘
▲	47쪽 ¶5 셋째 문장	We Koreans also did until a few decades ago	대동사 did
★	47쪽 ¶5 넷째 문장	by far the most popular was bun-de-gi	최상급 강조 by far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7쪽 ¶6 첫 문장	the silkworm moth, whose scientific name, Bombyx mori, has become famous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	47쪽 ¶6 첫 문장	Silkworm, the thriller by J. K. Rowling, writing as Robert Galbraith	인물 — 일치 후보
◆	47쪽 ¶6 둘째 문장	street-vendors lining up …, vying for children's pocket money	지칭 문항의 바탕(노점상 ↔ 아이들)
★	47쪽 ¶6 둘째 문장	popki … made world-famous by Squid Game	고유명사 — 일치 후보
▲	47쪽 ¶6 셋째~넷째 문장	it died pretty soon, breaking my heart. Most of them did.	결과 분사구문 · 대동사 did
★	47쪽 ¶7 첫 문장	because they were tasty (although I personally didn't like them very much) and cheap	저자 자신은 좋아하지 않음 — 일치 함정
▲	47쪽 ¶7 둘째 문장 ~ 48쪽 첫 줄	schools discouraged children from buying them … for hygienic reasons	discourage A from -ing — 어법 1순위
★	48쪽 첫 줄(47쪽 ¶7 셋째 문장)	a 'waste product' from a large industry – silk manufacturing	번데기가 쌌던 까닭 — 빈칸 후보
★	48쪽 ¶1 첫~둘째 문장	China around 2500 bce … Korea, India and the Byzantine Empire in that order	숫자 · 순서 — 불일치 1순위
★	48쪽 ¶1 넷째~다섯째 문장	Bernardo Bertolucci's 1900 … young Olmo … young Alfredo	인물 · 영화 — 일치 후보
◆	48쪽 ¶1 다섯째 문장	so loud that it sounds like the drumming of heavy rain on the roof	밑줄 의미: 누에가 뽕잎 먹는 소리
★	48쪽 ¶2 둘째 문장	got sericulture … from Korea in the seventh century	숫자 · 나라 — 서답형 후보
★	48쪽 ¶2 셋째 문장	In the 1950s, Japan was the world's biggest exporter of silk	어휘 문항의 바탕(export ↔ import)

내용

곤충을 즐겨 먹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인 · 타이인 · 멕시코인은 곤충 먹기를 가리키는 멋 부린 말인 entomophagy로 유명하다. 한국인도 몇십 년 전까지는 그랬다. 메뚜기 볶음(멕시코의 차풀리네스와 아주 비슷하다)도 꽤 인기였지만 단연 가장 인기 있던 것은 번데기였다. 번데기는 누에나방의 번데기를 삶은 것으로, 누에나방의 학명 Bombyx mori는 J. K. 롤링이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쓴 스릴러『Silkworm』덕에 유명해졌다. 1970년대 저자의 어린 시절, 아이들은 하굣길에 학교 주변에 늘어선 노점상에게서 (신문지를 말아 만든) 고깔에 담긴 삶은 번데기를 사 먹곤 했다. 노점상들은 막대사탕, 솜사탕, 뽑기(popki: 설탕을 녹여 베이킹 소다로 부풀린 뒤 납작한 원반으로 누른 것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싸구려 장난감, 심지어 달걀 산업에서 쓸모없는 수평아리까지 온갖 것으로 아이들의 용돈을 두고 다퉜다. 저자도 그런 병아리를 산 적이 있는데 곧 죽어 버려 마음이 아팠다. 대부분의 병아리가 그랬다. 번데기는

맛있고(저자 자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싸서 1970년대 한국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간식이었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했지만 학교는 위생상의 이유로 아이들이 노점상에게서 사 먹지 못하게 말렸다. 번데기가 쌌던 것은 큰 산업인 비단 제조의 '폐기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비단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여서, 비단 직물 산업은 고치에서 비단을 뽑고 나면 쓸모없는 번데기를 많이 남겼다. 누에로 직물을 만드는 일은 기원전 2500년 무렵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인은 그 뒤 두어 천 년 동안 이를 독점했다. 비단 짜기는 그 뒤 한국 · 인도 · 비잔티움 제국 순으로 퍼졌다. 이 산업에 (아주) 늦게 뛰어든 서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가장 중요한 비단 생산국이었다. 나이 든 독자라면 롬바르디아 농촌의 계급 갈등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 공산주의 대두를 다룬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영화 「1900」에서 누에 치는 집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소작농의 아들 올모(어른 역은 제라르 드파르디외)와 지주의 아들 알프레도(어른 역은 로버트 드니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반 위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 먹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모두 합치면 지붕을 두드리는 큰비 소리처럼 들릴 만큼 크다. 그러나 근대에 가장 큰 비단 생산국은 일본이었다(일본 사람들도 번데기를 먹었다고 한다). 일본은 7세기에 한국에서 양잠(누에치기)을 받아들여 비단 직물을 만든 역사가 길지만, 비단 산업이 제 모습을 갖춘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다. 1950년대 일본은 세계 최대의 비단(생사와 비단 직물) 수출국이었고, 비단은 일본의 최대 수출품이었다.

어법

- **We Koreans also did until a few decades ago** : did = ¶5 첫 문장의 love eating insects(과거로 읽어 loved eating insects)를 대신하는 대동사. We와 Koreans는 동격.
- **Fried grasshoppers were quite popular ... but by far the most popular was bun-de-gi** : by far + 최상급 = 단연 가장 ~한. quite popular(꽤 인기 있는)와 대조해 번데기를 강조한다.
- **Bun-de-gi is the boiled pupa of the silkworm moth, whose scientific name, Bombyx mori, has become famous thanks to Silkworm**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silkworm moth, whose scientific name = 그 나방의 학명). Bombyx mori = 동격. thanks to = ~ 덕분에.
- **children would buy a cone ... of boiled bun-de-gi from street-vendors lining up in areas around schools, vying for children's pocket money** : would = 과거의 습관(~하곤 했다). lining up = street-vendors를 꾸미는 현재분사. vying = 노점상들이 동시에 하는 일을 덧붙이는 분사구문(vie for = ~을 두고 다투다).
- **I once bought such a chick, but it died pretty soon, breaking my heart. Most of them did.** : breaking = 결과를 덧붙이는 분사구문(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did = died를 대신하는 대동사. them = 그런 병아리들.
- **They are rich in protein and iron, though schools discouraged children from buying them from street vendors for hygienic reasons** : discourage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말리다(from 뒤 동명사 → to buy · buy는 오답). though = 양보(~지만). 앞 They · 뒤 them = silkworm pupae.
- **the silk textile industry produced a lot of unwanted pupae after silk was taken from their cocoons** : after + 수동태 절(was taken). pupae = pupa의 복수. their = pupae의.
- **Silk-making then spread to Korea, India and the Byzantine Empire in that order** : in that order = 그 순서대로(한국 → 인도 → 비잔티움). 순서를 바꾼 선지는 불일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ntomophagy	곤충 먹기	insect eating	—
pupa (pl. pupae)	번데기	chrysalis	—
vendor	노점상, 행상	seller	buyer
vie for	~을 두고 다투다	compete for	—
hygienic	위생의	sanitary	unhygienic
discourage	(~하지 못하게) 말리다	deter	encourag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coon	고치	—	—
monopolize	독점하다	dominate	share
millennium (pl. millennia)	천 년	—	—
late-comer	늦게 뛰어든 쪽	newcomer	pioneer
tenant farmer	소작농	sharecropper	landlord
incessant	끊임없는	constant	intermittent
munch	우적우적 먹다	chew	—
sericulture	양잠	silkworm raising	—

내용 일치 entomophagy = 중국인 · 타이인 · 멕시코인 · 한국인도 몇십 년 전까지 · 메뚜기 볶음(멕시코 차풀리네스와 비슷) · 단연 번데기 · 번데기 = 누에나방의 삶은 번데기 · Bombyx mori = 롤링(갤브레이스)의 『Silkworm』 · 1970년대 하굣길 노점(뽑기 = 『오징어 게임』 · 수평아리) · 맛있고 쌈(저자는 별로) · 단백질 · 철분 · 학교 = 위생 때문에 말림 · 비단 산업의 '폐기물' · 비단 =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 · 기원전 2500년 무렵 중국 · 두어 천 년 독점 · 한국 → 인도 → 비잔티움 · 서유럽 = 이탈리아 · 「1900」 = 베르톨루치 · 일본 = 7세기 한국에서 양잠 · 1950년대 세계 최대 비단 수출국 · 일본인도 번데기를 먹었다고 한다(apparently). **지칭** 47쪽 ¶6 children = 아이들 · street-vendors · vying = 노점상 · it(died) = 저자가 산 병아리 · Most of them = 그런 병아리들 / 47쪽 ¶7 they(were tasty) · them(didn't like them · buying them) · They(are rich) = silkworm pupae / 48쪽 첫 줄 it(was cheap) = 번데기 · their cocoons = pupae의 / 48쪽 ¶1 it(monopolized it) = 누에로 직물 만들기 / 48쪽 ¶2 it(got sericulture) · its silk industry = Japan.

> **한 줄 요약** 1970년대 한국 아이들의 값싼 간식 번데기는 비단 산업의 '폐기물'이었고, 중국에서 시작된 비단 산업은 근대에 일본에서 꽃피어 1950년대 일본을 세계 최대 비단 수출국으로 만들었다.

5-4 비단 대신 자동차를 고른 일본 48쪽 ¶3 ~ 49쪽 ¶2

원문 위치 원서 48쪽 ¶3 ~ 49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8쪽 ¶3 첫 문장	The Japanese were not content with that	지칭: that = 세계 최대 비단 수출국 지위
★	48쪽 ¶3 둘째 문장	take on the Americans and the Europeans in steel, shipbuilding, automobiles, chemicals, electronics	'선진' 산업 목록
▲	48쪽 ¶3 셋째 문장	there was no way they could compete in those industries	there is no way + 절 · 문장 삽입의 고리
★	48쪽 ¶3 넷째 문장	by imposing high tariffs, that is, import taxes (thus making imports … very expensive)	보호 수단 1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8쪽 ¶3 넷째 문장	by banning foreign companies from operating those industries in Japan	보호 수단 2
▲	48쪽 ¶3 다섯째 문장	making the tightly regulated banks channel credits to them instead of engaging in more lucrative activities	사역 make + O + 원형 · instead of -ing
★	48쪽 ¶4 첫 문장	much criticism of these policies, not just outside but also inside Japan	순서 배열의 출발
▲	48쪽 ¶4 둘째 문장	Japan would be better off if it just imported things like steel	가정법 과거
◆	48쪽 ¶4 셋째 문장	drive inferior and uglier Japanese cars, they pointed out	비판자의 말(저자의 말이 아님)
★	48쪽 ¶4 넷째 문장 ~ 49쪽 첫 줄	taking away funds from efficient industries, like silk	비판의 둘째 논거 — 순서 배열
◆	49쪽 ¶1 첫 문장	This is an absolutely correct argument – if you take a country's capabilities as a producer as given	밑줄 의미 · 조건이 핵심
★	49쪽 ¶1 둘째 문장	a country can change its productive capabilities	주장 1순위
▲	49쪽 ¶1 둘째 문장	at things at which it is not good at today	전치사 + 관계대명사(원서 표기 at 두 번)
★	49쪽 ¶2 셋째 문장	In the 1950s ... could not compete ... by the 1980s, it was a world leader	숫자 — 1950s ↔ 1980s
★	49쪽 ¶2 넷째~다섯째 문장	at least two decades ... cannot happen under free-trade conditions	주장의 근거 · 저자의 판단
▲	49쪽 ¶2 여섯째 문장	will quickly get wiped out by superior, bigger foreign competitors	get + p.p.

내용

일본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철강 · 조선 · 자동차 · 화학 · 전자 같은 '선진' 산업에서 미국인 · 유럽인과 겨루고 싶었다. 그러나 나라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어 그 산업들에서 경쟁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높은 관세, 곧 수입세를 매겨(이로써 그런 상품의 수입품은 아주 비싸졌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 산업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했고,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이 산업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규제가 엄격한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 · 소비자 신용, 또는 (수익이 조금 덜하지만) 비단 같은 탄탄한 산업에 대한 대출처럼 더 수익성 좋은 일을 하는 대신 이 산업의 국내 기업에 신용을 돌리게 해서 기업들을 도와야 했다. 이 정책들은 일본 밖에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비판자들은 일본이 철강 · 자동차 같은 것은 그냥 수입하고, 잘하는 비단과 다른 직물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외국 자동차에 관세를 매겨 (도요타 · 닛산 같은) 비효율적인 승용차 생산자를 보호하면, 소비자는 외국에서 더 나은 차를 사려고 세계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치르거나, 더 못하고 더 못생긴 일본 차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지시로 은행 대출을 자동차 생산 같은 비효율적인 산업에 인위적으로 돌리면, 같은 자본으로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비단 같은 효율적인 산업에서 자금을 빼앗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저자는 한 나라의 생산자로서의 능력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한 나라는 생산 능력을 바꾸어 지금 잘하지 못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더 나은 기계에 투자하고,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 철강 · 전자와 셀 수 없이 많은 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1950년대 일본은 이 산업들에서 국제 시장의 경쟁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지만, 1980년대에는 여러 산업의 세계 선두였다. 저자는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을 의미 있게 바꾸는 데 적어도 20년이 걸리며, 이는 다시 그런 변화가 자유무역 조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새 산업의 비효율적이고 미숙한 생산자들이 더 우수하고 더 큰 외국 경쟁자들에게 금세 쓸려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법

- **However, their country was technologically backward, so there was no way they could compete in those industries** : there is no way (that) + S + V = ~할 방법이 없다. so = 결과(그래서). technologically(부사)가 형용사 backward를 꾸민다.
- **the Japanese government protected domestic producers in these industries from foreign competition by imposing high tariffs, that is, import taxes (thus making imports of those goods very expensive), and by banning foreign companies from operating those industries in Japan** : protect A from B. by -ing(수단) 두 개가 and로 병렬. that is = 즉(바꿔 말하기). thus making + O + 형용사 = 그 결과 ~하게 만들며(결과의 분사구문). ban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금지하다.
- **It also had to help the national firms in these industries by making the tightly regulated banks channel credits to them instead of engaging in more lucrative activities** : It = 일본 정부. 사역 make + O + 원형부정사(channel). instead of + 동명사(engaging). them = the national firms.
- **Critics pointed out that Japan would be better off if it just imported things like steel and automobiles and concentrated on making things like silk and other textile products, which it was good at** : 가정법 과거(would be + if + 과거 imported · concentrated) = 현재 사실과 다른 가정. which = 계속적 용법, 전치사 at의 목적어(it was good at silk ...).
- **This is an absolutely correct argument – if you take a country's capabilities as a producer as given** : take A as given = A를 주어진(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다. 대시 뒤 if절이 '옳다'에 조건을 단다 — 주장 전체를 뒤집는 핵심.
- **a country can change its productive capabilities and become better at things at which it is not good at today** : at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things). 원서는 at을 관계대명사 앞과 문장 끝에 두 번 썼다 — 영작에서는 at which it is not good 또는 which it is not good at 하나로 쓴다.
- **It takes at least two decades to change a country's capabilities to produce in a significant way** : It takes + 시간 + to V =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at least = 적어도. to produce = capabilities를 꾸미는 to부정사.
- **Under free trade, the inefficient, immature producers in new industries will quickly get wiped out by superior, bigger foreign competitors** : get + p.p. = 수동(be wiped out보다 변화 · 결과를 강조). superior는 그 자체로 비교의 뜻(than 대신 to를 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tent (a.)	만족하는	satisfied	discontented
take on	~와 겨루다	challeng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ackward	뒤처진	underdeveloped	advanced
tariff	관세	import tax	—
ban A from -ing	A가 ~하지 못하게 금지하다	prohibit	permit
channel (v.)	(자금을) 돌리다	direct	—
lucrative	수익성 좋은	profitable	unprofitable
mortgage loan	주택 담보 대출	home loan	—
better off	형편이 더 나은	wealthier	worse off
inferior	더 못한	lower-quality	superior
directive	지시, 명령	order	—
take ~ as given	~을 주어진 것으로 보다	assume	—
up-skill	숙련도를 높이다	train	—
immature	미숙한	undeveloped	mature

내용 일치 일본인은 비단에 만족하지 않음 · 철강 · 조선 · 자동차 · 화학 · 전자 = '선진' 산업 · 기술적으로 뒤처짐 · 정부 = 높은 관세(수입세, 수입품이 비싸짐) · 외국 기업의 영업 금지 · 규제가 엄격한 은행이 국내 기업에 신용(주택 담보 대출 · 소비자 신용 · 비단 대출 대신) · 비판 = 일본 밖과 안 · 수입하고 비단에 집중하라 · 소비자 = 비싸게 사거나 더 못한 일본 차(도요타 · 닛산) · 효율적인 산업(비단)의 자금을 빼앗음 · 저자 = 능력을 주어진 것으로 보면 옳음 · 능력은 바뀜(기계 · 숙련 · 연구) · 일본 = 1950년대 경쟁 불가 → 1980년대 세계 선두 · 적어도 20년 ·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불가능. **지칭** 48쪽 ¶3 that = 1950년대 세계 최대 비단 수출국 지위 · They · their · they = the Japanese · It(also had to help) = 일본 정부 · them(channel credits to them) = the national firms / 48쪽 ¶4 it(imported · was good at) = Japan · they(pointed out · added) = critics / 49쪽 ¶1 This = 비판자들의 주장 / 49쪽 ¶2 This(does not happen) = 생산 능력이 바뀌는 일 · it(was a world leader) = Japan · This(in turn) = 20년이 걸린다는 사실.

> **한 줄 요약** 일본은 잘하는 비단에 머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관세와 은행 신용으로 '선진' 산업을 보호했으며, 저자는 생산 능력은 길게 보면 바뀌지만 그 변화는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5-5 유치산업 보호, 새우가 큰 물고기가 되는 길 49쪽 ¶3 ~ 50쪽 ¶2

원문 위치 원서 49쪽 ¶3 ~ 50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9쪽 ¶3 첫 문장	is known as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개념 정의 — 동명사 주어 단수
★	49쪽 ¶3 둘째 문장	a parallel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child development	빈칸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9쪽 ¶3 넷째 문장	The argument dictates that the government … should protect and nurture its young industries	dictate that + (should) V
★	49쪽 ¶4 첫~둘째 문장	was not created in Japan … by none other than … Alexander Hamilton	인물 · 직책 — 서답형 1순위
★	49쪽 ¶4 둘째 문장	the ten-dollar bill … the musical Hamilton by Lin-Manuel Miranda	내용 일치 후보
◆	49쪽 ¶4 셋째 문장	'industries in their infancy' (his words)	지칭: his = Hamilton
◆	49쪽 ¶5 첫 문장	The plot thickens	밑줄 의미: 이야기가 더 얽힌다(반전)
★	49쪽 ¶5 첫 문장	the protectionist policies of Britain in the eighteenth century, especially those under Robert Walpole	제목 문항 — 영국의 뿌리
▲	49쪽 ¶5 둘째 문장	Hamilton was often accused of being a 'Walpolean' … by his free-trade opponents, like Thomas Jefferson	be accused of -ing by
★	49쪽 ¶6 첫~둘째 문장	the most protectionist countries … adopted free trade only after they achieved industrial supremacy	요지 · True/False 뒤집기
★	49쪽 ¶6 넷째 문장 ~ 50쪽 첫 줄	Except for the Netherlands and (until the First World War) Switzerland	예외 — 일치 함정
▲	50쪽 ¶1 첫 문장	All of this is not to say that infant industry protection guarantees economic success	not to say that — 요약문
◆	50쪽 ¶1 둘째 문장	infant industries can fail to 'mature'	밑줄 의미 —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
★	50쪽 ¶1 셋째~넷째 문장	protection was excessive … complacent … reducing protection over time	요약문 1순위 — 일본 · 한국
★	50쪽 ¶2	once economic shrimps … the big fish of today's world economy	결론 · 통합 사고 빈칸

내용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의 미숙한 생산자를 언젠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보호하는 것을 '유치산업' 논리라고 한다. 이 용어는 경제 발전을 아이의 성장과 나란히 놓는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서 노동 시장에서 어른과 겨룰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기른다. 마찬가지로 이 논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의 정부는 어린 산업이 생산자로서의 능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외국 경쟁자와 겨룰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길러야 한다. 유치산업 이론은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미국에서, 다름 아닌 미국의 첫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만들었다. 10달러 지폐에서 보는 얼굴이기이며, 그는 요즘 린마누엘 미란다의 뮤지컬『Hamilton』덕에 뜻밖에 되살아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 정부가 '유년기의 산업'(그의 말)을 더 우수한 영국과 다른 유럽의 경쟁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결코 산업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야기는 더 얽힌다. 해밀턴은 18세기 영국의 보호주의 정책, 특히 영국이 세계 산업 패권을 향해 오르기 시작한 로버트 월폴 시기의 정책에서 영감을 얻었다. 해밀턴은 미국의 첫 국무장관이자 3대 대통령(그의 재임 중 루이지애나 매입이 이루어졌다 — 「Okra」 참조)인 토머스 제퍼슨 같은 자유무역파 반대자들에게서 중앙 집권과 경제 간섭을 꾀하는 '월폴주의자'라는 비난을 자주 받았다. 오늘날 자유무역의 본고장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영국과 미국은 경제 발전 초기에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였다. 두 나라는 산업 패권을 얻은 뒤에야 자유무역을 받아들였다(「Beef」 참조). 다른 부자 나라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와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스위스를 빼면, 19세기 후반의 벨기에 · 스웨덴 · 독일부터 20세기 후반의 프랑스 · 핀란드 · 일본 · 한국 · 타이완까지 오늘날의 부자 나라는 모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고 상당 기간 유치산업 보호를 썼다. 그렇다고 유치산업 보호가 경제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말은 아니다. 아이처럼 유치산업도 잘못 키우면 '어른이 되지' 못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호가 지나쳐 국내 생산자가 안주했고, 보호가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아 생산성을 높일 동기가 없었다. 일본과 한국처럼 유치산업 보호를 가장 능숙하게 쓴 나라들은,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서 보호를 차츰 줄이고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해야 하듯,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를 줄여 이런 상황을 막으려 했다. 저자는 유치산업 보호가 없었다면 한때 경제의 새우였던 나라들, 이를테면 18세기의 영국, 19세기의 미국 · 독일 · 스웨덴, 20세기의 일본 · 핀란드 · 한국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큰 물고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법

- **Protecting immature producers in an economically backward country, in the hope that one day they will become better, is known as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 동명사 주어(Protecting ...) → 단수 동사 is. in the hope that = 동격 that절(희망의 내용). be known as = ~로 알려져 있다(~라고 불린다).
- **It was actually invented in the US – by none other than the country's first finance minister, Alexander Hamilton** : 수동태 + by 행위자. none other than = 다름 아닌 바로. the country's first finance minister와 Alexander Hamilton은 동격.
- **Hamilton drew his inspiration from the protectionist policies of Britain in the eighteenth century, especially those under Robert Walpole, when the country started its ascent to global industrial supremacy** : those = the protectionist policies(복수 명사를 받는 지시대명사). when =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월폴 시기에). the country = Britain.
- **Hamilton was often accused of being a 'Walpolean', seeking centralization and meddling in the economy, by his free-trade opponents, like Thomas Jefferson** : accuse A of B의 수동 = A is accused of B by 행위자. of 뒤 동명사 being. seeking = 'Walpolean'의 내용을 풀이하는 분사구.
- **They adopted free trade only after they achieved industrial supremacy** : only after = ~한 뒤에야 비로소. 문장 앞으로 보내면 도치: Only after they achieved industrial supremacy did they adopt free trade.
- **All of this is not to say that infant industry protection guarantees economic success** : not to say that = ~라는 말은 아니다(앞 내용의 지나친 해석을 막는 표현). that절 주어 protection(단수) → guarantees.
- **protection was excessive, making the domestic producers complacent, and was not reduced over time, thereby giving no incentive for them to improve productivity** : making + O + 형용사(complacent) = 결과의 분사구문. was excessive와 was not reduced가 병렬. thereby + 분사 = 그로써 ~하게 되다. for them = to improve의 의미상 주어.
- **Without infant industry protection, all those countries ... would not have been able to turn themselves into the big fish of today's world economy** : Without + 명사 = ~이 없었다면(If it had not been for). 주절 would not have been able to = 가정법 과거완료(과거 사실의 반대). turn A into B, themselves = 재귀대명사(주어 = countrie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fant industry	유치산업(갓 생긴 산업)	young industry	established industry
parallel (n.)	유사점, 비교	analogy	contrast
nurture	기르다, 보살피다	foster	neglect
dictate	(원칙이) ~하라고 요구하다	prescribe	—
none other than	다름 아닌 바로	—	—
revival	부활	comeback	decline
infancy	초기 단계, 유년기	early stage	maturity
ascent	상승, 부상	rise	descent
supremacy	패권, 우위	dominance	inferiority
meddle in	~에 간섭하다	interfere in	—
protectionist	보호무역주의의	—	free-trade
complacent	안주하는	self-satisfied	—
incentive	동기, 유인	motivation	disincentive
skilfully	능숙하게	adeptly	clumsily

내용 일치 유치산업 논리 = 뒤처진 나라의 미숙한 생산자를 보호 · 경제 발전을 아이의 성장과 나란히 · 이론을 만든 곳 = 일본이 아니라 미국 · 해밀턴 = 첫 재무장관 · 10달러 지폐 · 뮤지컬(린마누엘 미란다) · 'industries in their infancy' · 영감 = 18세기 영국, 특히 월폴 시기 · 제퍼슨(첫 국무장관 · 3대 대통령)이 'Walpolean'이라 비난 · 영국 · 미국 = 발전 초기에 가장 보호주의적 · 패권을 얻은 뒤에야 자유무역 · 예외 = 네덜란드 · 스위스(1차 세계대전까지) · 보호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음 · 1960~70년대 많은 개발도상국 = 지나친 보호 · 줄이지 않음 → 안주 · 일본 · 한국 = 차츰 줄임 · 보호 없이는 새우가 큰 물고기가 될 수 없었다(저자의 주장). **밑줄 의미** The plot thickens = 미국이 만든 이론의 뿌리가 다시 영국에 있다는 반전 / fail to 'mature' = 보호를 받고도 외국과 겨룰 만큼 생산성을 키우지 못한다 / economic shrimps · the big fish = 한때 경제적으로 작고 약했던 나라 · 오늘날 세계 경제의 강대국 — 장 제목의 새우를 되받은 말놀이 / 지칭: 49쪽 ¶3 they(grow up) = our children · they(develop) = its young industries / 49쪽 ¶4 his words = Hamilton의 / 49쪽 ¶6 They(adopted) = Britain and the US.

> **한 줄 요약** 저자는 뒤처진 나라가 어린 산업을 보호하며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며, 영국 · 미국을 비롯한 오늘날의 부자 나라도 그렇게 컸지만 보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여 가야 성공한다고 덧붙인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5 PRAWN]

범위	Prawn – or Shrimp? (원서 PDF 46~50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ritics told Japan to stick to what it already did well. They were right, but only if a nation's productive capabilities are taken to be fixed. Over time, a nation can reshape them through investment in machinery, worker training and research. Japan did so: unable to compete in cars, steel and electronics in the 1950s, it led the world in many such industries by the 1980s. Yet change of this kind takes twenty years or more, so it cannot happen under free trade, where bigger, stronger foreign rivals would quickly crush young, inefficient firms.

① Stick to the industries you are good at now.
② Free trade helps young industries grow fast.
③ Japan grew rich mainly by exporting silk.
④ Machines matter less than skilled workers.
⑤ Building new capabilities needs shelter from free trad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infant industry theory did not originate in Japan. Its author was none other than Alexander Hamilton, America's first finance minister, whose face is on the ten-dollar bill. Hamilton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shield 'industries in their infancy' from stronger English and other European rivals, warning that America would otherwise never industrialize. Yet Hamilton's inspiration had come from Britain. Hamilton was inspired by eighteenth-century British protectionism, above all the policies of Robert Walpole's time, when Britain began its rise to world industrial leadership. Free traders like Thomas Jefferson often attacked him as a 'Walpolean'.

① Hamilton: The Face on the Ten-Dollar Bill
② An American Idea with British Roots
③ Why Jefferson Defeated Hamilton
④ Japan's Gift to Economic Theory
⑤ How Free Trade Built Britain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ritain and the US now look like natural homes of free trade, yet early in their development they were the world's most protectionist nations. They embraced free trade only once they had reached industrial supremacy. Most rich countries did the same. With the exception of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the latter only up to World War I, every one of today's wealthy nations relied on infant industry protection for long periods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from Belgium, Germany and Sweden during the late 1800s to Japan, Korea, Taiwan, France and Finland in the late 1900s.

① Today's rich nations mostly grew behind protection.
② Free trade is what made Britain and the US rich.
③ Protection works only in small countries.
④ The Netherlands led the world in protectionism.
⑤ Protect industries only after industrializing.

4. 밑줄 친 call crickets 'bush prawn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ddly, most people who are revolted by the thought of eating insects will gladly tuck into prawns, shrimps and related creatures like lobsters and langoustines. For the author, no food aversion is stranger. After all, both kinds of animal are arthropods, or creepy-crawlies, each with an exoskeleton, tentacles, a body in segments and many legs. Why accept one but not the other? New names might win insects more eaters, so he proposes that we call crickets 'bush prawns', while grasshoppers could become 'field langoustines'. Or perhaps, he wonders, 'langoustines des champs' would sell better.

① stop eating prawns as well as insects
② farm crickets in bushes, not factories
③ teach people about arthropod biology
④ give insects familiar seafood names
⑤ sell crickets mainly to restaurants

5. 밑줄 친 the 'yuck facto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 reflection, the popularity of prawns, shrimps and their kin is rather puzzling. Consider the growing calls for people to eat insects, a protein source that harms the environment far less than meat does. Insect farming emits almost no greenhouse gas and needs just 1.7kg of feed for every kilogram of live weight, while beef, the worst culprit, means 10kg of feed and 2.9kg of greenhouse gases. Insects also use far less water and land for each gram of protein. Yet even as vegetarianism and veganism spread, eating insects has failed to catch on. Above all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ts growth is held back by the 'yuck factor': many people there simply cannot stand the thought of putting insects in their mouths.

① people's disgust at the very idea of eating insects
② the high cost of farming insects
③ the large amount of feed insects need
④ the lack of land for insect farms
⑤ the rise of vegetarianism and veganism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Some people relish insects. The Chinese, Thais and Mexicans are known for entomophagy, a grand word for eating insects, and Koreans ate them as well up to a few decades ago, when fried grasshoppers, much like Mexico's chapulines, were popular, though nothing could match bun-de-gi, a silkworm moth's pupa that has been boiled. In the author's 1970s childhood, street vendors lined up near schools, where ① they competed for children's pocket money. On the way home, children would buy paper cones of the pupae from ② them, but ③ their stalls also tempted ④ them with lollipops, cotton candy, popki, cheap toys and even male chicks the egg industry did not want. The author once bought one of those chicks from ⑤ them, but it soon died, breaking his heart.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Koreans even turn prawns and shrimps into a fermented sauce called saewoo-jut. Saewoo is the Korean name for prawn or shrimp, and jut is the word for any fermented fish sauce, so the anchovy version is myulchi-jut. In the peninsula's northern half, which is not the same thing as North Korea, people choose saewoo-jut over myulchi-jut to make kimchi ferment faster and taste deeper. Yet the author believes people from both north and south would agree that when you eat bossam, the boiled pork must be dipped in saewoo-jut and nothing else. Bossam consists of boiled pork wrapped up in baechoo, or oriental cabbage, together with moo namul, kimchi and ssamjang, a mix of Korean miso with honey, sesame oil and chopped garlic.

① 'saewoo'는 한국어로 멸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② 한반도 북부는 북한과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
③ 보쌈은 삶은 돼지고기를 상추에 싸 먹는 음식이다.
④ 쌈장은 된장에 고춧가루와 식초를 섞어 만든다.
⑤ 한반도 북부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멸치젓보다 새우젓을 즐겨 쓴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Silk textiles were first made from silkworms around 2500 BCE in China, and for a couple of thousand years the Chinese kept the art to themselves. From there, silk-making spread first to Korea, then to India and later to the Byzantine Empire. Western Europe came to the industry very late, and there Italy became the most important producer. Older readers may recall a silkworm-house scene in 1900, Bernardo Bertolucci's film about class struggle in the Lombardy countryside and the growth of fascism and communism there. In it, young Olmo, a tenant farmer's son, and young Alfredo, the landlord's son, are talking while the silkworms on the shelves munch mulberry leaves without pause, together making a noise like heavy rain drumming on the roof.

① 비단 짜기는 기원전 2500년 무렵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② 비단 짜기는 인도를 거쳐 한국으로 전해졌다.
③ 서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비단 생산국은 이탈리아였다.
④ 영화 「1900」은 롬바르디아 농촌의 계급 갈등을 다룬다.
⑤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는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같았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In the 1970s silkworm pupae were a favourite treat for Korean children, being both tasty and cheap, although the author never cared much for ① them himself. The pupae are full of protein and iron, yet schools discouraged pupils from ② buy them from street vendors on grounds of hygiene. Bun-de-gi cost little ③ because silk manufacturing, then a large industry, left it behind as a 'waste product'. At the time silk was among Korea's chief exports, so the textile industry ended up with heaps of unwanted pupae ④ left behind after the silk ⑤ had been taken from their cocoon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 years the author assumed that 'prawn' and 'shrimp' were two names for one creature, the British and Australians (A) [prefer / preferring] the first and North Americans the second. Only recently (B) [he learned / did he learn] that the two are separate species whose gills and body segments differ. On prawns, three pairs of legs bear claws, whereas shrimps have (C) [them / it] on only two pairs. The story does not end there, but this is a food book, not a biology book, and what matters is that crustaceans taste wonderful. The Japanese, for example, coat ebi in batter and deep-fry it as tempura, or place it on nigiri sushi, sometimes cooked and sometimes raw; the raw kind is called ama ebi, 'sweet prawn', because it really is sweet.

	(A)	(B)	(C)
①	prefer	did he learn	them
②	preferring	he learned	them
③	preferring	did he learn	them
④	preferring	did he learn	it
⑤	prefer	he learned	i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In modern times, however, the world's biggest silk producer was once Japan, whose people ① apparently ate silkworm pupae too. Silk weaving had a ② long history there, because Japan had acquired sericulture, the raising of silkworms, from Korea as far back as the seventh century. Even so, Japan's silk industry did not truly ③ come into its own until the first years after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e 1950s Japan ④ imported more silk, in the form of both raw silk and finished silk cloth,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silk ⑤ topped the list of everything the nation sold abroad.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hielding the young producers of a poor, backward economy, hoping that they will improve one day, is called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As the name suggests, it compares economic development to _____. Parents shelter and raise their children until they are grown and able to compete with adults for jobs. In the same way, the argument says, the government of a backward economy should look after the nation's young industries until these have built up their productive capabilities and can face stronger foreign rivals in world markets. Without such support, the author argues, the nations that started out as economic shrimps, such as Britain in the 1700s or Korea, Finland and Japan in the 1900s, could never have become big fish in today's world economy.

① the expansion of free trade
② the rise of great empires
③ the evolution of species
④ the training of athletes
⑤ the growth of children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So the Japanese government sheltered home producers in these sectors from foreign rivals.

Being the world's top silk exporter did not satisfy the Japanese. (①) They wanted to rival the Americans and Europeans in cars, steel, shipbuilding, electronics, chemicals and other 'advanced' industries. (②) Their country, however, lagged so far behind in technology that it had no hope of competing in such fields. (③) One method was high tariffs, or import taxes, which made such foreign goods very expensive; another was a ban on foreign firms running these businesses in Japan. (④) The government also had to help national firms in these sectors by forcing the strictly controlled banks to lend to them. (⑤) The banks thus could not chase more lucrative business such as mortgages or loans to established industries like silk.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People everywhere are so fond of prawns and shrimps that vast stretches of mangrove forest are cleared for prawn and shrimp farms, above all in China, Vietnam and Thailand. ① A 2012 Reuters report found that roughly a fifth of the world's mangroves had been lost since 1980, mostly to such farms. ② Given how much mangroves do for the environment, this is a grave problem. ③ Japan was the world's largest silk exporter in the 1950s, and silk was also its biggest export item. ④ For one thing, mangrove forests guard against floods and storms. ⑤ They also act as nurseries for young fish, wild prawns and shrimps among them, and give local people plenty to eat from both the water and the fores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Japan's policies drew a great deal of criticism, at home as well as abroad.

(A) Protecting inefficient carmakers such as Toyota and Nissan with tariffs instead, they pointed out, would leave consumers two poor choices: paying more than the world price for better foreign cars, or driving inferior, uglier Japanese ones.

(B) Moreover, the critics added, steering credit from banks toward inefficient sectors such as car-making by government order robbed efficient industries like silk of funds that could yield far more output from the same capital.

(C) Japan, the critics argued, would do better simply to import goods like steel and cars and concentrate on silk and other textiles, which it excelled at making.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fant industry protection does not by itself ensure that an economy will succeed. Like children, young industries may never grow up properly if they are raised badly. During the 1960s and 1970s, many developing countries protected their producers too heavily, which made them complacent, and the protection was never scaled back, so they had no reason to raise their productivity. In contrast, the countries that used such protection most skilfully, Japan and Korea among them, avoided this trap by cutting it gradually, just as parents should slowly protect their children less and expect more responsibility from them as they grow older.

→ Infant industry protection does not (A) _____ success; it works best when, as in Japan and Korea, it is (B) _____ over time.

① guarantee ..... reduced
② guarantee ..... increased
③ prevent ..... increased
④ prevent ..... maintained
⑤ require ..... increased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Prawns are loved so widely that, as a Reuters report published in 2012 found, roughly a fifth of all mangrove forests on earth had been cleared since 1980, mostly to build prawn/shrimp farms. Insects would be a far greener source of protein: farming them needs only 1.7kg of feed for every kilogram of live weight, against 10kg for beef. Silk textiles were first produced around 2500 BCE in China, and Japan learned sericulture from Korea during the seventh century. The infant industry theory was created in the US by Alexander Hamilton, America's first finance minister. Britain and the US took up free trade only after achieving industrial supremacy, and Hamilton himself drew on eighteenth-century British protectionism, especially the policies under Robert Walpole.

<QUIZ>

(1) In what year was the Reuters report on mangrove destruction published?

Answer for (1): _____

(2) How much feed does insect farming need for every kilogram of live weight?

Answer for (2): _____

(3) Around when were silk textiles first made in China?

Answer for (3): _____

(4) From which country did Japan learn sericulture?

Answer for (4): _____

(5) Who invented the theory of infant industry?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Britain and the US took up free trade before achieving industrial supremacy?

Answer for (6): _____

(7) Under whom were the British policies that Hamilton especially drew on?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980	N. 1950s
B. Thomas Jefferson	O. Korea
C. China	P. 2500 BCE
D. 10kg	Q. Bernardo Bertolucci
E. True	R. Alexander Hamilton
F. India	S. Robert Walpole
G. seventh century	T. False
H. 2.9kg	U. Italy
I. 2012	V. 1970s
J. Lin-Manuel Miranda	W. Thailand
K. Japan	X. 1980s
L. Byzantine Empire	Y. J. K. Rowling
M. 1.7kg	Z. eighteenth century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나는 예전에는 prawn과 shrimp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used to + V)

02 한반도 북부에서는 김치가 더 빨리 익도록 돕는 재료로 새우젓이 멸치젓보다 선호된다. (be preferred to / help + O + 원형)

03 사람들이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넓은 맹그로브 숲이 새우 양식장에 자리를 내주려고 파괴된다. (so much that / make way for)

04 많은 사람이 곤충을 먹는다는 생각을 역겹다고 여긴다. (find + O + 형용사)

05 번데기는 누에나방의 삶은 번데기로, 그 나방의 학명은 Bombyx mori이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06 학교는 위생상의 이유로 아이들이 노점상에게서 번데기를 사지 못하게 말렸다. (discourage A from -ing)

07 그들의 나라는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어서 그 산업들에서 경쟁할 방법이 없었다. (there is no way + 절)

08 정부는 은행들이 더 수익성 좋은 일을 하는 대신 국내 기업에 신용을 돌리게 했다. (사역 make + O + 원형 / instead of -ing)

09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을 크게 바꾸는 데는 적어도 20년이 걸린다. (It takes + 시간 + to V)

10 유치산업 이론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첫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none other than)

11 영국과 미국은 산업 패권을 얻은 뒤에야 자유무역을 받아들였다. (only after)

12 자유무역 아래에서 새 산업의 미숙한 생산자들은 우수한 외국 경쟁자들에게 금세 쓸려 나간다. (get + p.p.)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prawn과 shrimp의 집게발	
prawn이라 부르는 사람 / shrimp라 부르는 사람	
스페인의 새우 요리 / 날새우 초밥의 이름	
'saewoo' / 'jut'	
김치에 멸치젓보다 새우젓을 즐겨 쓰는 곳	
맹그로브가 크게 파괴되는 나라	
2012년 로이터 보고서	
곤충 vs 소고기(살아 있는 무게 1kg당)	
저자가 제안한 곤충의 새 이름	
곤충 먹기로 유명한 사람들	
누에나방의 학명 / 그 이름을 알린 소설	
번데기가 쌌던 까닭	
비단 짜기의 시작 / 전파 순서	
일본이 양잠을 받아들인 곳 · 때	
1950년대 일본의 비단	

항목	답
일본 정부의 보호 수단	
일본이 경쟁하지 못한 때 / 세계 선두가 된 때	
생산 능력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유치산업 이론을 만든 사람 / 직책	
해밀턴의 영감 / 해밀턴을 비난한 사람	
유치산업 보호를 쓰지 않은 부자 나라	

4-3. 통합 사고 문제 — 4장과 5장을 잇는 자리

문제

4장에서 저자는 기술 능력이 높으면 자연이 지운 제약을 넘을 수 있다고 했고(43쪽 ¶4), 천연 연료가 없는 일본은 기술 능력 덕에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넘었으며(44쪽 ¶1), 역사를 보면 지속 가능한 높은 생활 수준은 산업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썼다(44쪽 ¶2). 5장에서 저자는 길게 보면 한 나라가 생산 능력을 바꿀 수 있지만(49쪽 ¶1) 그 변화에는 적어도 20년이 걸려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1950년대에 자동차 · 철강 · 전자 산업에서 국제 경쟁을 할 수 없던 일본이 1980년대에는 여러 산업의 세계 선두가 되었다고 썼다(49쪽 ¶2).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가 산업화로 그런 능력을 쌓는 데 필요하다고 저자가 보는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4장과 5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4장 또는 5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새우가 큰 물고기가 되는 길: Without infant industry _____, all those countries that were once economic shrimps – like Britain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US, Germany, and Sweden in the nineteenth century or Japan, Finland and Korea in the twentieth century – would not have been able to turn themselves into the big fish of today's world economy.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6 NOODLE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Noodle」 (원서 PDF 51~57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7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기업의 성공은 영웅 한 사람의 것인가, 여럿이 함께 이룬 것인가."

이 장은 저자가 클라우디아 로덴의 요리를 바꿔 만든 가지 파스타 구이로 시작한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통계에서 출발해 소면 · 쫄면 · 짜장면 · 메밀국수 · 당면까지 한국의 국수를 두루 훑은 뒤, 이야기는 밀 하나로 200가지 넘는 모양을 만든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자동차 디자이너 주자로가 설계했다가 실패한 파스타 마릴레로 넘어간다. 그 주자로가 디자인한 차가 바로 현대자동차의 포니다. 포드의 차를 조립하던 이름 없는 회사가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로 크기까지에는 정주영 · 정세영 형제의 비전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술자, 정부의 보호와 압력, 질 낮은 국산 차를 참은 소비자가 함께 있었다. 저자는 삼성 · 도요타 · 노키아와 미국의 예를 들어, 현대 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은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5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현대 경제의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56쪽 ¶4~57쪽 ¶1) / 비전은 유능한 인력이 있어야 실현된다(55쪽 ¶1~¶2) / 궁극의 파스타 마릴레의 실패(53쪽 ¶2~¶3) /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56쪽 ¶3)
4~5	**밑줄 함축 의미**	That's a lot of noodles / oodles of other noodles / the culinary equivalent of a triathlon / very imaginatively / too precious to 'waste' on noodles / literally 'engineered' / (almost) a cardinal sin / hasn't lost sleep over / a glorified car mechanic's shop / they would have tried to put you in a mental hospital / a snowball's chance in hell / remains just that – a vision / a central myth
6	지칭 추론	he · his가 정세영(Chung Se-yung)을 가리키는 54쪽 ¶5~55쪽 첫 줄(출제는 주자로의 his를 섞는다) / it(52쪽 첫 줄 = 짜장면) / it(52쪽 ¶2 use it too = 고구마 녹말) / He · his(53쪽 ¶4 = Giugiaro) / They(55쪽 첫 줄 = 정씨 형제) / It(56쪽 ¶3 = the US)
7~8	내용 일치·불일치	79.7 · 72.2 · 53.3과 41억 개(51쪽 ¶1~¶2) / 당면의 녹말 · '당' · 하루사메 · 쌀국수(52쪽 ¶2~¶3) / 1973 · 1975 · 1976 · 1986 · 1991 · 1998 · 2009 · 2015(54쪽) / 노키아 1960 · 1977(56쪽 ¶2)
9~10	**어법**	명령문 + and · Given that · range from A to B · tend to be p.p. · be estimated to · of which · with + O + 분사 · despite the fact that · too ~ to · be such that · without + 동명사 · make it + 형용사 + to V · Judging from · owe A to B · 동격 the fact that · 대동사 did · than 뒤 도치 · 혼합 가정법 · such ~ that · 형용사 + as + S + V · however + 형용사 · Without + 가정법 과거완료 · may have p.p.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chewy↔tender · fiery↔mild · eminent↔obscure · obsession↔indifference · retain↔release · debacle↔triumph · jubilant↔dejected · inauspicious↔auspicious · inferior↔superior · revoke↔grant · implicit↔explicit · develop↔discourage(55쪽 ¶4) · individualist↔collectivist
12	빈칸 추론	the chewiest noodle in the world(51쪽 ¶5) / strips or strings(52쪽 ¶4) / banning the import of all automobiles(55쪽 ¶3) / intra-group cross-subsidization(55쪽 첫 줄) / developing foundational technologies through public funding(56쪽 ¶3) / not an individual deed any more(57쪽 ¶1)
13	문장 삽입	오르조를 국에 만 밥으로 착각한 대목(52쪽 ¶5~53쪽 첫 줄): 맑은 국물에 담긴 오르조 → 국에 만 밥인 줄 앎 → '국수'라는 말을 믿지 못함
14	무관한 문장	삼성 · LG · 도요타 · 미쓰비시의 변신(55쪽 ¶6~56쪽 ¶1)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1983년 마릴레의 실패, 53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현대 그룹 → 포드와 합작 · 코티나 조립(54쪽 첫 줄) → 1973년 결별 · 포니 1만 대 → 1976년 에콰도르의 수입(54쪽 ¶1)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자유 기업'을 칭송하는 미국과 정부의 보호 · 공공 자금으로 만든 기반 기술(56쪽 ¶3)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연도 · 이름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79.7 · 72.2 · 53.3(1인당 라면) · 41억 · 5,100만 · 150만(짜장면, 추정) · 200가지(파스타) · 100대(주자로) · 8,000 · 3,000 · 1만 · 0.5% · 0.2% · 포니 5대와 버스 1대. 연도도 많다 – 1940년대 말 · 1960년대 말 · 1967~1997 · 1968 · 1973(두 번: 독자 모델 발표 · 정부의 면허 취소 위협) · 1975 · 1976 · 1983 · 1986 · 1988 · 1991(두 번: 주자로 인터뷰 · 자체 엔진) · 1998(두 번: 기아 인수 · 일본 차 수입 금지의 끝) · 2009 · 2015 · 1960 · 1977.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2009년에 넘은 것은 Ford ↔ 2015년은 GM, 모든 차 1988 ↔ 일본 차 1998, 베트남 72.2 ↔ 네팔 53.3, 녹두 ↔ 고구마, 형 정주영 ↔ 동생 정세영). '그렇다고들 한다 · 추정된다 · 아마'(are estimated to · apparently · perhaps · Judging from · may have)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Noodle」 (51~57쪽)

논증형(한국의 라면 소비 → 밀국수 · 쫄면 · 짜장면 · 메밀 · 당면 → 모양은 두 가지뿐 → 이탈리아의 200가지 파스타 → 주자로의 마릴레 실패 → 주자로가 디자인한 포니 → 현대의 초라한 출발과 놀라운 성장 → 통념: 비전 있는 기업가 → 노동자 · 정부 · 소비자 → 삼성 · 도요타 · 노키아 · 미국 → 결론). 핵심 축은 **개인의 뛰어남 vs 여럿의 노력**, 그리고 **한국 국수의 두 가지 모양 vs 이탈리아 파스타의 200가지 모양**.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1 ¶1~¶3	도입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 · 1인당 한 해 79.7개(한국) · 72.2(베트남) · 53.3(네팔) / 한 해 약 41억 개 · 라면 = 꼬불꼬불 쫄깃한 밀국수
51 ¶4 + 57 각주 i	밀국수	소면 · 칼국수(칼로 썬 국수) · 가락국수(우동과 비슷) / 맵지 않은 국물 · 소면은 비벼 먹기도
51 ¶5	쫄면	녹말 추가 · 고온 고압 압출 → 세계에서 가장 쫄깃 / 요리의 철인 3종 경기
51 ¶6~52 첫 줄 + 57 각주 ii	알칼리 면 · 짜장면	탄산나트륨 → 한국에서 가장 인기 · 라면 / 한국에서 발명한 '중국' 요리 · 춘장 · 하루 150만 그릇(추정)
52 ¶1	메밀국수	메밀국수(소바와 비슷) · 평양냉면 국수(더 굵고 쫄깃) · 도토리 · 칡
52 ¶2 + 57 각주 iii · iv	녹말 국수	당면 = 고구마 녹말 · '당' = 중국 기원(당나라) · 원조는 녹두 · 하루사메 · 잡채
52 ¶3~¶4	쌀국수 · 두 모양	전통 쌀국수 없음(아마 쌀이 너무 귀해서) · 포 · 팟타이 / 거의 모든 탄수화물 → 국수, 모양은 띠 · 실 둘뿐
52 ¶5~53 첫 줄	이탈리아의 충격	1980년대 말 첫 이탈리아 여행 · 여름 학교의 오르조 = 국에 만 밥인 줄 앎
53 ¶1 + 57 각주 v	파스타 모양	원료는 밀 하나 · 모양을 바꿔 200가지 넘게 / 관 · 고리 · 나선 · 나비 · 귀 · 조개 …
53 ¶2~¶3 + 57 각주 vi	마릴레	1980년대 초 보이엘로(바릴라)가 주자로에게 의뢰 / 1983년 출시 · 완전한 실패(구하기 어렵고 고르게 안 익음)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3 ¶4~¶5	주자로와 포니	반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 · 100대 넘게 · 1991년 인터뷰 / 1975년 현대의 포니
53 ¶6~54 첫 줄 + 57 각주 vii	현대의 출발	1940년대 말 정주영 · 건설 → 1960년대 말 고생산성 산업 / 포드와 합작 · 코티나 조립 · 3년간 8,000대 남짓
54 ¶1	포니와 에콰도르	1973년 독자 모델 발표 · 1976년 1만 대 남짓(포드의 0.5% · GM의 0.2%) / 에콰도르 · 포니 5대와 버스 1대
54 ¶2~¶3	놀라운 성장	1986 엑셀 · 1991 엔진 · 21세기 초 10대 · 2009 포드 추월 · 2015 GM 추월 / 타임머신 · 정신 병원
54 ¶4~55 첫 줄	비전 있는 기업가	통념: 게이츠 · 잡스 · 베이조스 · 머스크 / 정주영 · 정세영('포니 정') · 주자로에게 디자인 의뢰 · 그룹 내 교차 보조
55 ¶1~¶2	노동자 · 기술자	영웅 개인의 뛰어남만이 아님 · 기술 습득 → 점진적 개선 → 독자 기술 / 헌신적이고 유능한 인력
55 ¶3~¶4 + 57 각주 viii	정부	수입 금지(모든 차 1988년 · 일본 차 1998년까지) · 유치산업 보호 · 보조 금융 · 은행 국유 / 1973년 면허 취소 위협 · 국산화
55 ¶5~56 ¶2	예외가 아니다	삼성 · LG / 도요타 · 미쓰비시 / 노키아(1960년 전자 부문 · 1977년 첫 이익)
56 ¶3~57 ¶1	미국과 결론	유치산업 보호 이론 · 공공 자금으로 기반 기술(NIH · 펜타곤) / 개인주의 기업가상 = 신화 · 현대 경제의 기업가 정신 = 여럿의 노력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인스턴트 라면 소비	베트남 72.2 · 네팔 53.3(1인당 한 해)	한국 79.7 – 세계 1위 · 한 해 약 41억 개
한국 국수의 재료	밀 · 메밀 · 고구마 · 감자 · 옥수수 · 카사바 · 도토리 · 칡 · 보리 – 거의 모든 탄수화물	쌀 – 전통 쌀국수는 없음(아마 쌀이 너무 귀해서) → 요즘 포 · 팟타이로 따라잡는 중
면의 모양	한국 – 띠 아니면 실, 두 가지뿐	이탈리아 – 원료는 밀 하나, 모양은 200가지 넘게
당면의 녹말	중국의 원조 – 녹두 녹말	한국 – 고구마 녹말을 더 좋아함(중국도 씀) · 일본 하루사메 = 감자 녹말
주자로의 두 작품	마릴레(1983) – 완전한 실패	자동차 – 100대 넘게 · 반세기 최고의 디자이너 · 포니(1975)
현대의 출발과 도약	1976년 포니 1만 대 남짓(포드의 0.5% · GM의 0.2%) · 에콰도르에 포니 5대 · 버스 1대	2009년 포드 추월 · 2015년 GM 추월
당시 한국의 수출품	가발 · 봉제 의류 · 봉제 인형 · 운동화(값싼 노동)	외국인이 사 주는 한국산 자동차
기업 성공의 설명	개인주의 – 비전 있는 영웅 기업가(게이츠 · 잡스 · 베이조스 · 머스크)	여럿의 노력 – 지도자 · 노동자 · 기술자 · 과학자 · 관리자 · 정책 입안자 · 소비자
정부의 역할	돕는 정부 – 수입 금지 · 보조 금융 · 은행 국유	압박하는 정부 – 면허 취소 위협(1973) · 국산화 비율 압력
소비자	수십 년 동안 질 낮은 국산 차를 참음	그 보호가 없었다면 한국 자동차 회사는 살아남지 못했음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미국의 모습	'자유 기업' 체제의 자부심 · 영웅 기업가 찬양	유치산업 보호 이론의 발명국 · 공공 자금으로 기반 기술 개발
개인주의 기업가상	자본주의 초기 — 소규모 생산 · 단순한 기술(어느 정도 맞았을지도)	19세기 말 이후 — 대규모 생산 · 복잡한 기술 · 세계 시장 → 여럿의 노력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World Instant Noodle Association	1인당 한 해 한국 **79.7** · 베트남 **72.2** · (한참 떨어져) 네팔 **53.3** / 한국 인구 **5,100만 명 남짓** → 한 해 약 **41억 개**
ra-myun	꼬불꼬불 쫄깃한 밀국수(일본어 ramen) · 알칼리 면 · 대부분 봉지 속 수프 가루로 만든 국물 · 볶거나 소스에 버무린 종류도
so-myun / kal-gooksoo / garak-gooksoo	가늘고 부드러움 / 굵고 부드러움(각주 i: '칼 국수',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듦) / 굵고 조금 쫄깃(우동과 비슷) · 맵지 않은 국물
chol-myun	밀국수 + 녹말 · 고온 고압으로 압출 · 세계에서 가장 쫄깃 · 맵고 달고 새콤한 고추 소스 + 채소 · 요리의 철인 3종 경기
alkaline noodle	밀 반죽 + 탄산나트륨(Na2CO3) ·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면 · 라면도 알칼리 면
chajang-myun	jajang-myun · 한국에서 발명한 '중국' 요리(영국에서 발명한 '인도' 요리 치킨 티카 마살라처럼) · 돼지고기 · 양파 · 채소를 춘장(choonjang)에 볶은 소스 · 하루 **150만 그릇**으로 **추정** · 각주 ii: 피자에 대한 한국의 답(원서 표기 chajang-myeon)
mémil	메밀국수(mémil-gooksoo, 소바와 비슷) · 평양냉면 국수(더 굵고 쫄깃) · 평양냉면 = 소고기 육수(원래 평양식은 꿩 육수) · 식초 · 겨자 · 도토리(dotori) · 칡(chik)
dang-myun	고구마 녹말 유리 면 · '중국 국수' · 원조 = 녹두 녹말 · 카사바 · 옥수수 · 감자 녹말로도 / 각주 iv: 당 = **618~907년**의 당나라(많은 사람이 봉건 중국의 황금시대로 여김)
57쪽 각주 iii	녹말 = 식물에서 뽑아 가공한 순수 탄수화물 / 가루 = 곡물을 빻은 것 · 요즘은 아몬드 가루처럼 빻은 식물 재료 전반
harusame / japchae	일본 = 감자 녹말로 만든 가는 유리 면 '봄비' / 당면의 쓰임 = 잡채(7장 참조) · 만두 · 순대 · 찌개
rice noodles	한국 전통 쌀국수 없음 · **아마**(perhaps) 쌀이 너무 귀해서 · 요즘 포(베트남) · 팟타이(타이)의 인기
orzo / risoni	저자의 첫 이탈리아 여행 = **1980년대 말** · 대학원생 시절 여름 학교 · 작은 낟알 모양 · 이름 = 보리 · 쌀 · 맑은 국물
pasta	원료 = 기본적으로 밀 하나(1장 참조) · 모양을 바꿔 **200가지 넘게** · 수레바퀴 · 라디에이터 모양 = '그렇다고 한다'(apparently) · 각주 v = 모양별 이름
Voiello / Barilla	**1980년대 초** · 보이엘로 = 세계 최대 파스타 회사 바릴라의 고급 브랜드 · 산업 디자이너 주자로에게 '궁극의 모양' 의뢰 · 누벨 퀴진의 시대
Marille	관 + 물결 · **1983년** 요란하게 출시 · 완전한 실패 = 생산량 적음 · 유통 부실 · 고르게 익지 않음 · 각주 vi: al dente = '이(齒)에' — 씹는 맛이 단단하게
Giorgetto Giugiaro	지난 반세기 가장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 · **100대 넘게** · 예외 = GM · 메르세데스-벤츠 · 닛산 · 골프 · 판다 · 기블리 · 에스프리 · **1991년** 인터뷰(Newsweek)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Pony	**1975년** 출시 · 소형 해치백 · 주자로 디자인 / **1973년** 독자 모델 발표 · **1976년** 1만 대 남짓 = 포드의 **0.5%** · GM의 **0.2%**
Hyundai group / HMC	**1940년대 말** 정주영 · 처음엔 건설 · **1960년대 말** 고생산성 산업(각주 vii: 조선 · 철강 · 반도체 등) / HMC = 포드와 합작 · 코티나 · **1968년 11월**부터 3년 **8,000대 남짓**(한 해 3,000대 미만)
Ecuador	**1976년 6월** 수입 · 포니 **5대** + 버스 **1대** / 1976년 한국 1인당 소득 < 에콰도르의 **3분의 2**
현대의 성장	**1986** 엑셀(포니 개량형) 미국 진출 · Fortune 올해의 주목할 제품 10 / **1991** 자체 엔진 / 21세기 초 세계 10대 / **1998** 기아 인수 / **2009** 포드 추월 / **2015** GM 추월
Chung Se-yung	정주영의 동생 · **1967~1997년** HMC를 이끎 · '포니 정' / 형제 = 그룹 내 교차 보조(intra-group cross-subsidization)
한국 정부	수입 금지 = 모든 차 **1988년**까지 · 일본 차 **1998년**까지 · 유치산업 보호(5장 참조) · **1990년대 초**까지 보조 금융 · 은행 국유(1장 참조) / **1973년** 면허 취소 위협 · 국산화(9장 참조) / 각주 viii: **1961~1983년** 모든 은행 국유
Samsung / LG	설탕 정제 · 직물 → 반도체 · 휴대전화의 세계 선두 / 화장품 · 치약 → 세계 디스플레이 1위
Toyota / Mitsubishi / Nokia	단순한 직물 기계 → 세계 최대 자동차 / 해운 → 조선 · 원전 · 전자 · 자동차 / 제지 공장 → 한때 휴대전화 1위 · 전자 부문 **1960년** 설립 · **1977년** 첫 이익 · 종이 · 고무장화 · 전선
the US	유치산업 보호 이론의 발명국 · 19세기~20세기 초 보호주의(5장 참조) · 2차 대전 뒤 공공 자금 · NIH(제약 · 생명 공학) · 컴퓨터 · 반도체 · 인터넷 · GPS · 터치스크린 = 펜타곤과 군의 국방 연구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Noodle」 (원서 PDF 51~57쪽) · 7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6-1 한국인의 라면, 쫄면이라는 철인 3종 경기 51쪽 ¶1~¶5 + 57쪽 각주 i

원문 위치 원서 51쪽 ¶1~¶5 + 57쪽 각주 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1쪽 ¶1 첫 문장	the World Instant Noodle Association (yes, such a body exists)	숫자 79.7 · 72.2 · 53.3 — 서답형 1순위
▲	51쪽 ¶1 첫 문장	going through 79.7 servings per person a year, followed by the Vietnamese	분사구문 · followed by
★	51쪽 ¶1 둘째 문장	Given that there are just over 51 million of us … around 4.1 billion servings	Given that · 숫자 계산
◆	51쪽 ¶1 셋째 문장	That's a lot of noodles.	밑줄 의미: 양에 대한 감탄
★	51쪽 ¶2 첫 문장	curly, chewy wheat noodles, known as ra-myun (or ramen in Japanese)	내용 일치 — 재료 = 밀
▲	51쪽 ¶2 둘째 문장	which ranges from quite spicy to lethally hot, although there are varieties	range from A to B · although
◆	51쪽 ¶3 둘째 문장	We have oodles of other noodles.	말놀이(oodles · noodles)
★	51쪽 ¶4 둘째 문장 + 57쪽 각주 i	so-myun · kal-gooksoo · garak-gooksoo, similar to Japanese udon	내용 일치 — 칼국수의 뜻
▲	51쪽 ¶4 셋째 문장	All of them tend to be served in soups that are not spicy (for a change!)	tend to + 수동 부정사
▲	51쪽 ¶5 첫 문장	Add extra starch … and you get the chewiest noodle in the world	명령문 + and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1쪽 ¶5 셋째 문장	the culinary equivalent of a triathlon – extremely difficult but enormously fulfilling	밑줄 의미 1순위
▲	51쪽 ¶5 셋째 문장	The combination of … makes the experience of eating chol-myun the culinary equivalent	make + O + 명사 보어

내용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저자는 '그런 단체가 정말 있다'고 덧붙인다)에 따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다. 1인당 한 해 79.7개로, 베트남인(72.2개)이 뒤를 잇고 한참 떨어져 네팔인(53.3개)이 그다음이다. 한국 인구가 5,100만 명 남짓이니 한 해 약 41억 개를 먹는 셈이다. 엄청난 양이다. 이 라면은 대부분 꼬불꼬불하고 쫄깃한 밀국수로, 라면(ra-myun, 일본어로는 ramen)이라고 부른다. 한국 인스턴트 라면은 대부분 봉지에 든 수프 가루로 만든 국물에 끓여 먹는데, 국물은 꽤 매운 것부터 죽을 만큼 매운 것까지 있다. 볶아 먹거나 소스(대개 맵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에 버무려 먹는 종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스턴트 라면일 뿐이다. 한국에는 다른 국수가 아주 많다. 먼저 평범한 밀국수가 있다. 가늘고 부드러운 소면, 굵고 부드러운 칼국수, 굵고 조금 쫄깃한 가락국수(일본의 우동과 비슷하다)다. 각주에 따르면 칼국수는 '칼 국수'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국수처럼 기계로 뽑지 않고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들어서 붙은 이름이다. 이 국수들은 모두 (모처럼) 맵지 않은 국물에 담겨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소면은 채소(때로는 고기)와 함께 여러 소스(매운 것도, 맵지 않은 것도 있다)에 비벼 먹기도 한다. 밀국수에 녹말을 더 넣고 고온 · 고압으로 뽑아내면 세계에서 가장 쫄깃한 국수, 쫄면이 된다. 쫄면은 맵고 달고 새콤한 고추 소스와 채소에 비벼 먹는다. 극도의 쫄깃함과 눈물이 날 만큼 매운 고추 소스가 어우러져, 쫄면을 먹는 일은 요리의 철인 3종 경기와 같다. 몹시 힘들지만 그만큼 크게 만족스럽다.

어법

- South Koreans are the biggest consumers of instant noodles, going through 79.7 servings per person a year, followed by the Vietnamese (72.2) : going through = 앞 절을 풀어 주는 분사구문(한 해 1인당 79.7개를 먹으며). followed by = 과거분사구문(그 뒤를 ~가 잇는다). go through = (많이) 먹어 치우다.
- Given that there are just over 51 million of us, this works out to be around 4.1 billion servings of instant noodles per year : Given that + 절 = ~을 고려하면. just over = ~를 조금 넘는. work out to be = (계산하면) ~이 되다. this = 1인당 79.7개라는 앞 문장의 내용.
- Most of these are curly, chewy wheat noodles, known as ra-myun (or ramen in Japanese) : Most of + 복수 대명사 these → 복수 동사 are. known as = 과거분사 후치(~로 알려진).
- made from the soup powder contained in the packet, which ranges from quite spicy to lethally hot : contained = 과거분사 후치.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soup powder) → 단수 ranges. range from A to B = A에서 B까지 걸쳐 있다.
- All of them tend to be served in soups that are not spicy (for a change!) : tend to + 수동 부정사(be served) = ~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soups → are).
- Add extra starch to the wheat noodle and extrude it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and you get the chewiest noodle in the world : 명령문 + and = ~하면(If you add …). 명령문 두 개(Add · extrude)가 and로 이어진 뒤 결과 절 and you get이 온다.
- The combination of extreme chewiness and tear-inducing chilli sauce makes the experience of eating chol-myun the culinary equivalent of a triathlon : 주어 = The combination(단수) → makes. make + O + 명사 보어 = O를 ~로 만들다. tear-inducing = 명사 + 현재분사 복합 형용사(눈물을 부르는).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sumer	소비자	user	producer
serving (n.)	1인분	portion	—
distantly	한참 떨어져	remotely	closely
work out (to be)	(계산하면) ~이 되다	amount to	—
curly	꼬불꼬불한	wavy	straight
chewy	쫄깃한	rubbery	tender
lethally	치명적으로	fatally	harmlessly
oodles	아주 많음	lots	—
extrude	(틀에서) 밀어 뽑다	press out	—
fiery	불같이 매운	hot	mild
tear-inducing	눈물이 나게 하는	eye-watering	—
equivalent (n.)	같은 것, 맞먹는 것	counterpart	—
fulfilling	만족감을 주는	rewarding	unsatisfying

내용 일치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실제로 있는 단체) · 1인당 한 해 한국 79.7 · 베트남 72.2 · 네팔 53.3(한참 떨어져) · 한국 인구 5,100만 남짓 → 약 41억 개 · 라면 = 꼬불꼬불 쫄깃한 밀국수(일본어 ramen) · 대부분 수프 가루 국물 · 볶거나 소스에 버무린 종류도 · 소면(가늘고 부드러움) · 칼국수(굵고 부드러움, 각주 i: 칼로 썰어 만듦) · 가락국수(굵고 조금 쫄깃, 우동과 비슷) · 맵지 않은 국물 · 소면은 비벼 먹기도 · 쫄면 = 녹말 추가 · 고온 고압 압출 · 세계에서 가장 쫄깃. **밑줄 의미** That's a lot of noodles = 41억 개라는 양에 대한 감탄 / oodles of other noodles = oodles(아주 많음)와 noodles의 운을 맞춘 말놀이 / for a change! = 늘 매운 한국 국수 가운데 모처럼 맵지 않다 / the culinary equivalent of a triathlon = 몹시 힘들지만 그만큼 크게 만족스러운 먹기 / 51쪽 ¶1 this(works out) = 1인당 79.7개를 인구에 곱한 양 · 51쪽 ¶2 these = 그 인스턴트 라면들.

> **한 줄 요약** 한국인은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가장 많이 먹을 뿐 아니라 소면 · 칼국수 · 가락국수 같은 밀국수와 '먹는 철인 3종 경기'인 쫄면까지 즐긴다.

6-2 짜장면에서 당면까지, 곡식은 모두 국수가 된다 51쪽 ¶6 ~ 52쪽 ¶4 + 57쪽 각주 ii~iv

원문 위치 원서 51쪽 ¶6 ~ 52쪽 ¶4 + 57쪽 각주 ii~i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1쪽 ¶6 첫 문장	Mix sodium carbonate (Na2CO3) into wheat dough, and you get alkaline noodle	명령문 + and(51쪽 ¶5와 같은 틀)
★	51쪽 ¶6 둘째~셋째 문장	This noodle is the most popular type in Korea. Ra-myun is an alkaline noodle.	내용 일치 — 라면 = 알칼리 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1쪽 ¶6 다섯째 문장	a 'Chinese' noodle dish invented in Korea, like the 'Indian' dish chicken tikka masala	비유 — 따옴표의 뜻
▲	52쪽 첫 줄(51쪽 ¶6 여섯째 문장)	served with a sauce made of pork, onions … fried in fermented dark soybean paste	과거분사 후치 겹치기
◆	52쪽 첫 줄(51쪽 ¶6 일곱째 문장)	that noodle with coffee-coloured sauce … (delivered – few cook it at home)	지칭: it = 짜장면 · few의 뜻
★	52쪽 첫 줄(51쪽 ¶6 여덟째 문장) + 57쪽 각주 ii	are estimated to go through a staggering 1.5 million servings … per day	추정 — 단정 선지 함정 · 숫자
▲	52쪽 ¶1 첫 문장	buckwheat (mémil) noodle, of which there are two types	of which(전치사 + 관계대명사)
◆	52쪽 ¶1 둘째 문장	which is called, very imaginatively, mémil-gooksoo	밑줄 의미: 반어(상상력이 '넘치는')
▲	52쪽 ¶1 넷째 문장	It has this strange name because it is almost exclusively used for Pyeongyang naeng-myun	because + 절 · 수동태
★	52쪽 ¶2 셋째 문장 + 57쪽 각주 iv	with dang being the prefix in Korean denoting Chinese origin	with + O + 분사 · 당나라(618~907)
★	52쪽 ¶2 넷째 문장	made with starch from mung beans … we Koreans prefer sweet potato starch (the Chinese use it too)	내용 불일치 1순위
◆	52쪽 ¶2 여섯째 문장	called, poetically, harusame (spring rain)	밑줄 의미: 시적인 이름
★	52쪽 ¶2 여덟째 문장	to bulk things up (as it is cheap and filling)	내용 일치 — 당면의 쓰임
★	52쪽 ¶3 첫 문장	perhaps rice was too precious to 'waste' on noodles	추측 — perhaps · too ~ to
▲	52쪽 ¶3 셋째 문장	South Koreans cannot seem to have enough rice noodles	cannot have enough
★	52쪽 ¶4 둘째 문장	Korean noodles have basically only two varieties – strips or strings	이탈리아와의 대조

내용

밀 반죽에 탄산나트륨(Na2CO3)을 섞으면 더 쫄깃한 알칼리 면이 된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면이며, 라면도 알칼리 면이다. 그리고 짜장면(chajang-myun 또는 jajang-myun)이 있다. 짜장면은 한국에서 발명한 '중국' 국수 요리로, 영국에서 발명한 '인도' 요리 치킨 티카 마살라와 같다. 굵고 쫄깃한 알칼리 면에, 돼지고기 · 양파와 다른 채소(입맛에 따라 감자 · 애호박 · 양배추)를 발효시킨 검은 콩 된장(춘장)에 볶은 소스를 얹어 낸다. 한국 드라마 팬이라면 틀림없이 보았을

것이다. 드라마 속 사람들이 식당 · 사무실 · 집(배달시킨다. 집에서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경찰서 취조실에서까지 늘 먹는 듯한 커피색 소스의 국수가 바로 그것이다. 각주에서 저자는 짜장면을 빠르면서도 든든한 한 끼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자에 대한 한국의 답이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하루에 무려 150만 그릇의 짜장면을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밀국수도 인기 있으며 두 종류가 있다. 일본 소바와 비슷한 부드러운 것은 '아주 상상력 넘치게도' 메밀국수(mémil-gooksoo)라고 부른다. 더 굵고 쫄깃한 다른 하나는 평양냉면 국수라고 하는데, 거의 평양냉면에만 쓰여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다. 평양냉면은 소고기 육수(북한의 수도 평양의 원래 방식으로는 꿩 육수)에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한 차가운 국수다. 양을 늘리고 더 흙내 나는 맛을 내려고 메밀가루에 도토리나 칡을 섞기도 한다. 한국인은 가루가 아닌 여러 녹말로도 국수를 만든다. 각주에 따르면 녹말은 식물에서 뽑아 가공한 순수한 탄수화물이고, 가루는 곡물을 빻은 것이다. 이 갈래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고구마 녹말로 만든 유리 면인 당면이다. 당면은 말 그대로 '중국 국수'라는 뜻으로, '당'은 중국에서 왔음을 나타내는 한국어 접두사다. 각주에 따르면 이 말은 618년부터 907년까지 중국을 다스린 당나라에서 왔으며, 많은 사람이 당 제국을 봉건 중국의 황금시대로 여긴다. 중국의 원래 당면은 녹두 녹말로 만들지만 한국인은 고구마 녹말을 더 좋아한다(중국인도 고구마 녹말을 쓴다). 카사바 · 옥수수 · 감자 녹말로도 만든다. 일본인은 감자 녹말로 가는 유리 면을 만드는데, 시적이게도 이름이 하루사메(봄비)다. 한국 요리에서 당면은 무엇보다 잡채(7장 참조)에 쓰이고, 만두 · 순대 · 몇몇 찌개에도 들어가 양을 늘리고(값싸고 배부르므로) 쫄깃한 식감을 더한다. 이상하게도 쌀이 주곡인 나라인데 한국에는 쌀로 만든 전통 국수가 없다. 아마 쌀이 국수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베트남 쌀국수 포와 타이의 볶음 쌀국수 팟타이의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 요즘 한국인은 쌀국수를 아무리 먹어도 모자란 듯하다. 모든 채소를 김치로 만드는 것(서론 'Garlic' 참조)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밀 · 메밀 · 고구마 · 감자 · 옥수수 · 카사바 · 도토리 · 칡 · 쌀, 최근에는 보리까지 탄수화물이 많은 거의 모든 곡식과 덩이줄기를 국수로 만든다. 그러나 모양으로 보면 한국 국수는 기본적으로 띠 아니면 실, 두 가지뿐이다.

어법

- **Chajang-myun is a 'Chinese' noodle dish invented in Korea, like the 'Indian' dish chicken tikka masala, invented in the UK** : invented = 과거분사 후치(한국에서 발명된). like = 전치사(~처럼). 따옴표 = '이름만 그 나라 요리'라는 뜻.
- **It is made with thick, chewy alkaline noodles and served with a sauce made of pork, onions and other vegetables ..., fried in fermented dark soybean paste** : is made와 (is) served가 병렬(수동). made of = 재료의 과거분사 후치(sauce를 꾸밈). fried = 과거분사(소스 재료를 볶은 방식).
- **South Koreans are estimated to go through a staggering 1.5 million servings of chajang-myun per day** : be estimated to V =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추정 ≠ 사실 단정이 아님). staggering = 깜짝 놀랄 만한(현재분사 형용사).
- **Another popular noodle is buckwheat (mémil) noodle, of which there are two types** : of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there are two types of buckwheat noodle의 of가 앞으로). 변형 → of that는 오답(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은 못 온다).
- **It has this strange name because it is almost exclusively used for Pyeongyang naeng-myun, the cold noodle soup made with beef broth ... and seasoned with vinegar and mustard** : because + 절(because of + 명사와 구별). made · seasoned = soup를 꾸미는 과거분사 두 개의 병렬.
- **The word literally means 'Chinese noodle', with dang being the prefix in Korean denoting Chinese origin** : with + O(dang) + 분사(being) = 부대 상황(dang이 ~이므로). denoting = 현재분사 후치(나타내는).
- **there is no traditional Korean noodle made with rice, despite the fact that rice is the dominant grain in the country** : despite + 명사(the fact) + 동격 that절. despite 뒤에 절을 바로 쓰지 않는다(despite rice is는 오답). made with = 과거분사 후치.
- **perhaps rice was too precious to 'waste' on noodles** : too + 형용사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perhaps = 저자의 추측. waste A on B = A를 B에 낭비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lkaline	알칼리성의	basic	acidic
dough	반죽	paste	—
interrogation	취조, 심문	questioning	—
staggering	깜짝 놀랄 만한	astounding	trivial
imaginatively	상상력 있게	creatively	unimaginatively
exclusively	오로지	solely	partly
broth	육수	stock	—
earthy	흙내 나는, 소박한	rustic	refined
eminent	이름난	prominent	obscure
denote	나타내다	indicate	—
poetically	시적으로	lyrically	prosaically
bulk up	양을 늘리다	pad out	—
filling (a.)	배부르게 하는	satisfying	light
tuber	덩이줄기	root	—

내용 일치 알칼리 면 = 밀 반죽 + 탄산나트륨 · 한국에서 가장 인기 · 라면도 알칼리 면 · 짜장면 = 한국에서 발명한 '중국' 요리(치킨 티카 마살라 = 영국에서 발명한 '인도' 요리) · 춘장 · 집에서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음 · 하루 150만 그릇(추정) · 각주 ii: 피자에 대한 한국의 답 · 메밀국수(소바와 비슷) · 평양냉면 국수 · 원래 평양식 = 꿩 육수 · 도토리 · 칡 · 당면 = 고구마 녹말 · '당' = 중국 기원(각주 iv: 당나라 618~907년) · 원조 = 녹두 · 중국인도 고구마 녹말을 씀 · 하루사메 = 감자 녹말 · 잡채 · 만두 · 순대 · 전통 쌀국수 없음(perhaps) · 포 · 팟타이 · 모양은 띠 · 실 둘뿐. **밑줄 의미** very imaginatively = 그냥 '메밀국수'라는 이름을 비꼰 반어 / poetically = '봄비'라는 시적인 이름 / too precious to 'waste' on noodles = 귀한 쌀을 국수에 쓰지 않았으리라는 추측 / cannot seem to have enough = 아무리 먹어도 모자란 듯 / 52쪽 첫 줄 it(seen it) = 짜장면 · 52쪽 ¶1 It(this strange name) = 평양냉면 국수 · 52쪽 ¶2 it(use it too) = 고구마 녹말.

> **한 줄 요약** 짜장면 · 메밀국수 · 당면처럼 한국인은 탄수화물이 많은 거의 모든 곡식으로 국수를 만들지만, 모양은 띠와 실 두 가지뿐이다.

6-3 200가지 파스타 모양과 실패한 마릴레 52쪽 ¶5 ~ 53쪽 ¶3 + 57쪽 각주 v · vi

원문 위치 원서 52쪽 ¶5 ~ 53쪽 ¶3 + 57쪽 각주 v · v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2쪽 ¶5 첫 문장	So imagine my surprise when I found out … that spaghetti and macaroni … are not the only types	명령문 imagine · found out + that절
★	52쪽 ¶5 첫 문장	during my first travels to Italy in the late 1980s	숫자 — 1980년대 말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3쪽 첫 줄(52쪽 ¶5 둘째 문장)	One particular shock was to be served orzo … in a summer school … that I attended as a graduate student	be + to부정사 보어 · 수동 부정사
★	53쪽 첫 줄(52쪽 ¶5 셋째 문장)	a pasta shape that looks like a small grain – the name literally means barley or rice	문장 삽입의 고리
◆	53쪽 첫 줄(52쪽 ¶5 넷째 문장)	I thought it was rice served in soup	착각의 까닭 — 국에 밥을 마는 한국의 습관
▲	53쪽 첫 줄(52쪽 ¶5 다섯째 문장)	I couldn't believe it when I was told that I have just eaten a 'noodle' (pasta) dish	원서의 시제(have)
★	53쪽 ¶1 첫~둘째 문장	only one source of carbohydrate – wheat … over 200 varieties of pasta have been created by varying the shape	한국과의 대조 · 숫자
★	53쪽 ¶1 넷째 문장 + 57쪽 각주 v	(apparently – I haven't tried them – wagon wheels, olive leaves, spinning tops or even radiators)	전언 — apparently
▲	53쪽 ¶2	The Italian obsession with pasta shapes is such that …	be such that(정도 · 결과)
★	53쪽 ¶2	Voiello, the premium brand of Barilla, the world's biggest pasta manufacturer, commissioned … Giugiaro	인물 · 회사 — 일치 후보
▲	53쪽 ¶2	a shape that would retain the sauce well without absorbing it too much	without + 동명사
◆	53쪽 ¶3 첫 문장	Giugiaro literally 'engineered' a beautiful, futuristic pasta shape	밑줄 의미: 자동차 디자이너다운 설계
★	53쪽 ¶3 둘째~셋째 문장	launched with a fanfare in 1983. Unfortunately, it was a total failure.	제목 문항 · 숫자 1983
★	53쪽 ¶3 넷째~다섯째 문장	The production run was limited … More importantly, the complex shape made it difficult to cook evenly	실패의 까닭 둘 · 가목적어 it
◆	53쪽 ¶3 여섯째 문장 + 57쪽 각주 vi	unevenly cooked pasta was (almost) a cardinal sin	밑줄 의미: al dente에 대한 집착

내용

그래서 저자는 1980년대 말 처음 이탈리아를 여행했을 때, 그곳에서 먹는 국수, 곧 그들이 파스타라고 부르는 것이 스파게티와 마카로니(이탈리아 이름으로는 마케로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특히 대학원생 시절 참가한

이탈리아의 여름 학교에서 오르조(또는 리소니) 파스타를 대접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오르조/리소니는 작은 곡식 낟알처럼 생긴 파스타로, 이름도 말 그대로 보리 또는 쌀이라는 뜻이며, 맑고 뜨거운 국물에 담겨 나오기도 한다. 그렇게 나온 것을 받았을 때 저자는 국에 만 밥인 줄 알았다. 한국에서는 뜨거운 국(맑든 아니든)에 밥을 말아 함께 먹는 일이 꽤 흔하기 때문이다. 방금 먹은 것이 '국수'(파스타) 요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만드는 탄수화물 원료는 기본적으로 밀 하나뿐이다(1장 참조). 그러나 모양을 바꿔 200가지가 넘는 파스타를 만들어 냈다. 물론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실이나 띠 모양의 파스타도 있지만, 관 · 고리 · 나선/나사 · 나비 · 사람 귀 · 조개껍데기 · 곡식 낟알 · 공 · 속을 채운 만두 · 판 모양에, 더 낯선 모양(저자는 먹어 보지 않았지만 수레바퀴 · 올리브 잎 · 팽이, 심지어 라디에이터 모양도 있다고 한다)도 많다. 각주에는 스파게티 · 링귀네 · 펜네 · 푸실리 · 파르팔레(나비) · 오레키에테(사람 귀) · 라자냐 · 라비올리 등 모양별 이름이 정리되어 있다. 파스타 모양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집착이 어느 정도냐 하면, 1980년대 초 세계 최대 파스타 회사인 바릴라의 고급 브랜드 보이엘로는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자로에게 궁극의 파스타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 소스를 너무 많이 빨아들이지 않으면서 잘 붙잡고, 장식적이거나 '건축적'이기까지 한 모양이어야 했다(누벨 퀴진의 시대였다). 주자로는 관과 물결을 합친 아름답고 미래적인 파스타 모양을 말 그대로 '설계'했다. 마릴레라는 이름의 이 모양은 1983년 요란하게 출시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전한 실패였다. 생산량이 적고 유통도 부실해 구하기 어려웠다. 더 중요한 것은 복잡한 모양 때문에 고르게 익히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파스타를 알 덴테(각주: 말 그대로 '이(齒)에'라는 뜻, 곧 씹는 맛이 단단하게)로 익히는 데 대한 이탈리아인의 열정을 생각하면, 고르지 않게 익은 파스타는 (거의) 용서받지 못할 죄였다.

어법

- **So imagine my surprise when I found out, ..., that spaghetti and macaroni ... are not the only types of noodle** : imagine = 명령문(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found out의 목적어 = that절(사이에 시간 부사구가 끼었다). 지금도 그런 사실이라 that절 안은 현재 시제 are.
- **One particular shock was to be served orzo (or risoni) pasta in a summer school in Italy that I attended as a graduate student** : be동사 + to부정사 보어(충격은 ~을 대접받은 것이었다). to be served = 수동 부정사(serve + IO + DO의 수동).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summer school).
- **it is quite common in Korea to put your rice in hot (clear or otherwise) soup and eat them together** : 가주어 it + 진주어 to put ~ and (to) eat. your = 일반인. or otherwise = 혹은 그렇지 않은.
- **over 200 varieties of pasta have been created by varying the shape** : 현재완료 수동(have been created). by + 동명사 = ~함으로써(수단).
- **The Italian obsession with pasta shapes is such that in the early 1980s, Voiello ... commissioned the famous industrial designer Giorgetto Giugiaro to come up with the ultimate pasta shape** : be such that = 정도가 대단해서 ~할 정도다(such가 보어). commission + O + to V = O에게 ~하도록 의뢰하다. come up with = 생각해 내다.
- **a shape that would retain the sauce well without absorbing it too much, as well being decorativ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without + 동명사 = ~하지 않고. 원서 표기 as well being은 as well as being(~일 뿐 아니라)의 뜻으로 읽는다.
- **The production run was limited, and the distribution poor, so it was difficult to get hold of** : the distribution (was) poor = 앞 절과 같은 be동사 생략. so = 결과. get hold of = 구하다.
- **More importantly, the complex shape made it difficult to cook evenly** : make + it(가목적어) + 형용사 + to V(진목적어). More importantly =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구(더 중요한 것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articular	특별한	specific	general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	postgraduate	undergraduate
obscure	잘 알려지지 않은	unfamiliar	well-know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bsession	집착	fixation	indifference
premium (a.)	고급의	high-end	budget
commission (v.)	의뢰하다	engage	—
ultimate	궁극의	supreme	—
retain	붙잡아 두다	hold	release
absorb	빨아들이다	soak up	repel
decorative	장식적인	ornamental	plain
futuristic	미래적인	ultra-modern	old-fashioned
with a fanfare	요란하게	with great publicity	quietly
evenly	고르게	uniformly	unevenly
cardinal sin	용서받지 못할 죄	grave error	—

내용 일치 1980년대 말 첫 이탈리아 여행 · 대학원생 시절 여름 학교 · 오르조(리소니) = 작은 낟알 모양, 이름 = 보리 · 쌀 · 맑은 국물 → 국에 만 밥인 줄 앎 · 파스타 원료 = 기본적으로 밀 하나 · 모양을 바꿔 200가지 넘게 · 수레바퀴 · 라디에이터 모양 = '그렇다고 한다'(apparently, 저자는 먹어 보지 않음) · 1980년대 초 보이엘로(바릴라의 고급 브랜드, 바릴라 = 세계 최대 파스타 회사) · 주자로에게 의뢰 · 조건 = 소스를 잘 붙잡되 너무 흡수하지 않음 · 장식적 · 누벨 퀴진 시대 · 마릴레 = 관 + 물결 · 1983년 출시 · 완전한 실패(생산 적음 · 유통 부실 · 고르게 익지 않음). **밑줄 의미** imagine my surprise = 모양이 두 가지뿐인 한국 국수에 익숙한 저자의 큰 놀람 / literally 'engineered' = 자동차 디자이너가 말 그대로 공학적으로 설계했다 / with a fanfare = 떠들썩한 홍보 속에 / (almost) a cardinal sin = 알 덴테를 중시하는 이탈리아에서 고르지 않게 익은 파스타는 거의 용서받지 못할 잘못 / 53쪽 첫 줄 it(served it) = 오르조 · 53쪽 ¶3 it(difficult to get hold of) = 마릴레.

> **한 줄 요약** 밀 하나로 200가지 넘는 모양을 만든 이탈리아에서, 주자로가 설계한 궁극의 파스타 마릴레는 구하기 어렵고 고르게 익지 않아 완전히 실패했다.

6-4 파스타는 실패, 자동차는 성공 – 주자로와 현대 53쪽 ¶4 ~ 54쪽 첫 줄 + 57쪽 각주 vii

원문 위치 원서 53쪽 ¶4 ~ 54쪽 첫 줄 + 57쪽 각주 v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3쪽 ¶4 첫 문장	Giugiaro obviously hasn't lost sleep over Marille's failure	밑줄 의미: 걱정하지 않았다
★	53쪽 ¶4 둘째 문장	the world's most successful and influential car designer of the last half a century	현재완료(He's been) · 최상급
★	53쪽 ¶4 셋째 문장	over a hundred cars … (General Motors, Mercedes-Benz and Nissan are the only exceptions)	숫자 · 예외 — 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3쪽 ¶4 셋째 문장	ranging from dependable classics, like the Volkswagen Golf … to iconic luxury cars	range from A to B(분사구문)
◆	53쪽 ¶4 넷째 문장	taking the Marille debacle as an amusing interlude in his stupendous career	Judging from — 저자의 추측
★	53쪽 ¶4 다섯째 문장	In a 1991 interview … 'I owe my popular fame to that pasta'	숫자 1991 · owe A to B
★	53쪽 ¶5	Unbeknownst to most people, … Pony, a small hatchback car, launched in 1975 by Hyundai	두 이야기를 잇는 고리 · 숫자 1975
◆	53쪽 ¶5	from that other noodle-obsessed nation, South Korea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말
★	53쪽 ¶6 첫 문장	founded in the late 1940s by the legendary Korean entrepreneur Chung Ju-yung	인물 · 연도
★	54쪽 첫 줄(53쪽 ¶6 둘째 문장)	main business was originally construction … higher-productivity industries in the late 1960s	순서 배열의 고리
▲	54쪽 첫 줄(53쪽 ¶6 셋째 문장) + 57쪽 각주 vii	Automobiles was the first of those ventures	업종 이름 Automobiles + 단수 was
★	54쪽 첫 줄(53쪽 ¶6 넷째 문장)	a joint venture with Ford … the Cortina car, developed by Ford UK, using mostly imported parts	순서 배열 — 포드와의 관계
★	54쪽 첫 줄(53쪽 ¶6 다섯째 문장)	(from November 1968) … just over 8,000 units … fewer than 3,000 cars per year	숫자 — 8,000 ↔ 3,000 구별

내용

주자로는 마릴레의 실패로 잠을 설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였다. 국제적으로 이름난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제너럴 모터스 · 메르세데스-벤츠 · 닛산만 예외다)를 위해 100대가 넘는 차를 디자인했는데, 폭스바겐 골프와 피아트 판다 같은 믿음직한 고전부터 마세라티 기블리와 로터스 에스프리 같은 상징적인 고급차까지 다양하다. 그가 하는 말로 판단하건대 주자로는 마릴레의 대실패를 화려한 경력 속의 재미있는 막간극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1991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건 그 파스타 덕분입니다. 『뉴스위크』에도 실렸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국수에 집착하는 나라 이탈리아에서 온 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초기에 디자인한 차 가운데 하나가 포니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른다. 포니는 1975년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소형 해치백으로, 당시 현대는 국수에 집착하는 또 다른 나라 한국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자동차 회사였다. 현대자동차(HMC)는 1940년대 말 전설적인 한국 기업가 정주영이 세운 현대 그룹의 일부였다. 현대 그룹의 주력 사업은 원래 건설이었지만 1960년대 말부터 생산성이 더 높은 산업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고, 자동차가 그 첫 사업이었다. 각주에 따르면 현대 그룹은 그 뒤 시멘트 · 엔지니어링 · 조선 · 철강 · 전자 · 해운 · 엘리베이터 · 정유 · 반도체 등 생산성이 높은 여러 첨단 산업으로 다각화했다. 현대자동차는 포드와의 합작 회사로 세워져, 포드 영국 법인이 개발한

코티나를 주로 수입 부품으로 조립했다. 가동 첫 3년(1968년 11월부터) 동안 조립한 코티나는 8,000대 남짓, 곧 한 해 3,000대도 안 되었다.

어법

- **Giugiaro obviously hasn't lost sleep over Marille's failure** : 현재완료 부정(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lose sleep over = ~ 때문에 잠을 설치다(걱정하다). obviously = 저자의 판단.
- **He's been the world's most successful and influential car designer of the last half a century** : He's been = He has been(계속의 현재완료). 최상급 + of + 기간(지난 반세기 가운데).
- **He has designed over a hundred cars, ... – ranging from dependable classics, like the Volkswagen Golf and Fiat Panda, to iconic luxury cars** : 경험 · 결과의 현재완료. ranging from A to B = 분사구문(A부터 B까지 걸쳐). like = 예시의 전치사.
- **Judging from what he says about it, Giugiaro is taking the Marille debacle as an amusing interlude in his stupendous career** : Judging from = 비인칭 독립분사구문(~로 판단하건대) — 저자의 추측.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 take A as B = A를 B로 여기다.
- **I owe my popular fame to that pasta** : owe A to B = A를 B 덕분으로 여기다(A는 B 덕분이다).
- **Unbeknownst to most people, one of the earlier cars designed by this über-designer ... was Pony** : Unbeknownst to = ~이 모르는 사이에. one of the + 복수 명사 → 단수 동사 was. designed by = 과거분사 후치.
- **HMC was set up as a joint venture with Ford and assembled the Cortina car, developed by Ford UK, using mostly imported parts** : was set up(수동)과 assembled(능동)가 병렬. developed = 과거분사 후치(Cortina를 꾸밈). using = 수단의 분사구문.
- **HMC managed to assemble just over 8,000 units of Cortina, that is, fewer than 3,000 cars per year** : manage to V = 가까스로 ~하다. that is = 즉(바꿔 말하기). fewer than + 셀 수 있는 복수 명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ose sleep over	~ 때문에 걱정하다	worry about	—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powerful	insignificant
repute	평판	reputation	disrepute
exception	예외	anomaly	rule
dependable	믿음직한	reliable	unreliable
iconic	상징적인	emblematic	—
debacle	대실패	fiasco	triumph
interlude	막간, 짧은 일	intermission	—
stupendous	엄청난	tremendous	modest
unbeknownst to	~이 모르는 사이에	unknown to	—
legendary	전설적인	famed	unknown
joint venture	합작 회사	partnership	—
assemble	조립하다	put together	dismantle

내용 일치 주자로 = 지난 반세기 가장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 · 100대 넘게 · 예외 = GM · 메르세데스-벤츠 · 닛산 · 폭스바겐 골프 · 피아트 판다 · 마세라티 기블리 · 로터스 에스프리 · 마릴레 = 재미있는 막간극으로 여기는 '듯'(Judging

from) · 1991년 인터뷰 · 뉴스위크 · 포니 = 1975년 · 소형 해치백 · 현대 그룹 = 1940년대 말 정주영 · 원래 건설 · 1960년대 말 고생산성 산업 · 자동차가 처음(각주 vii: 이후 시멘트 · 조선 · 철강 · 반도체 등) · 포드와 합작 · 코티나(포드 UK 개발) · 주로 수입 부품 · 1968년 11월부터 3년간 8,000대 남짓(한 해 3,000대 미만). **밑줄 의미** hasn't lost sleep over = 실패를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 / an amusing interlude in his stupendous career = 대단한 경력 속 재미있는 짧은 일화 / that other noodle-obsessed nation = 이탈리아처럼 국수에 집착하는 또 하나의 나라 한국 / 53쪽 ¶4 He · his · he = Giugiaro · it(says about it) = 마릴레의 실패 · that pasta = 마릴레 / 54쪽 첫 줄 it(started to move) = 현대 그룹 · those ventures = 고생산성 산업으로 옮겨 간 사업.

> **한 줄 요약** 파스타에서 실패한 주자로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였고, 그가 디자인한 포니를 내놓은 현대자동차는 포드의 차를 조립하던 이름 없는 회사였다.

6-5 에콰도르에 판 다섯 대에서 GM을 넘기까지 54쪽 ¶1~¶3

원문 위치 원서 54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4쪽 ¶1 첫 문장	In 1973, HMC announced that it was going to sever its relationship with Ford	숫자 1973 · 순서 배열의 고리
★	54쪽 ¶1 둘째 문장	(1976) … just over 10,000 Pony cars – 0.5% of what Ford produced and 0.2% of what GM did	숫자 · 대동사 did
★	54쪽 ¶1 셋째 문장	When Ecuador imported Hyundai cars in June 1976, the Korean nation was jubilant	숫자 · 나라
▲	54쪽 ¶1 넷째 문장	The fact that Ecuador bought only five Pony cars and one bus … was rarely mentioned	동격 that · 주어 The fact(단수)
◆	54쪽 ¶1 넷째 문장	what mattered was that foreigners wanted to buy cars from Koreans	what 주어 · 보어 that절
★	54쪽 ¶1 넷째 문장	wigs, stitched garments, stuffed toys, and sneakers – namely, things that require cheap labour	당시 한국의 수출품
▲	54쪽 ¶2 첫 문장	Despite this totally inauspicious beginning	despite + 명사
★	54쪽 ¶2 둘째 문장	In 1986 … Excel … one of the ten most notable products of the year by … Fortune	숫자 — 서답형 1순위
★	54쪽 ¶2 셋째~넷째 문장	In 1991 … design their own engines / By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 ten biggest	숫자 · 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4쪽 ¶2 다섯째 문장	having taken over its smaller domestic rival, Kia, in 1998	완료 분사구문 · 숫자
★	54쪽 ¶2 다섯째~여섯째 문장	In 2009 … more cars than Ford did. By 2015 … than did those branded by GM	True/False — Ford ↔ GM 바꿔치기
▲	54쪽 ¶3 둘째 문장	If you had a time machine and went back … they would have tried to put you in a mental hospital	혼합 가정법
★	54쪽 ¶3 둘째 문장	with a per capita income not even two-thirds that of Ecuador's	숫자 — 3분의 2 · that의 지칭
◆	54쪽 ¶3 둘째 문장	really, little more than a glorified car mechanic's shop	밑줄 의미: 이름만 그럴듯한 정비소

내용

1973년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관계를 끊고 국내에서 디자인한 독자 모델, 포니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산을 온전히 한 첫해인 1976년에 현대자동차가 만든 포니는 1만 대 남짓으로, 그해 포드 생산량의 0.5%, GM 생산량의 0.2%였다. 1976년 6월 에콰도르가 현대 차를 수입하자 한국인들은 크게 기뻐했다. 에콰도르가 현대에서 산 것이 포니 다섯 대와 버스 한 대뿐이라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언급되더라도 사소한 일로 치부되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한국인에게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 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한국은 가발 · 봉제 의류 · 봉제 인형 · 운동화처럼 값싼 노동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나라로 이름나 있었다. 이렇게 전혀 밝지 않은 출발에도 현대는 그 뒤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1986년 포니의 개량형인 엑셀로 미국 시장에 화려하게 진출했고, 엑셀은 미국 경제지 『포천』이 꼽은 그해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 10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91년에는 자체 엔진을 설계하는 세계 몇 안 되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설 무렵에는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에 들었다. 2009년 현대(1998년 국내의 더 작은 경쟁사 기아를 인수해 그때는 공식 이름이 현대-기아였다)는 포드보다 많은 차를 생산했다. 2015년 무렵에는 현대나 기아 상표를 단 차가 GM 상표를 단 차보다 많이 생산 라인을 빠져나왔다. 놀라운 이야기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1976년으로 돌아가, 1인당 소득이 에콰도르의 3분의 2도 안 되는 가난한 개발도상국 한국의 이름 없는 자동차 회사(사실상 이름만 그럴듯한 자동차 정비소에 지나지 않는)가 30년 남짓 만에 포드보다 커지고 40년이 안 되어 GM보다 많은 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정신 병원에 집어넣으려 했을 것이다.

어법

- **In 1973, HMC announced that it was going to sever its relationship with Ford and produce its own locally designed car** : 시제 일치: announced(과거) → was going to. sever와 produce가 to에 함께 걸린 병렬. locally designed = 부사 + 과거분사.
- **just over 10,000 Pony cars – 0.5% of what Ford produced and 0.2% of what GM did in that year** :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가 생산한 것). did = produced를 대신하는 대동사.
- **The fact that Ecuador bought only five Pony cars and one bus from Hyundai was rarely mentioned and, if it was, dismissed as a minor detail** : the fact that = 동격 that(뒤가 완전한 절). 주어 The fact → 단수 was. if it was (mentioned) = 반복되는 과거분사 생략. (was) dismissed가 mentioned와 병렬.
- **what mattered was that foreigners wanted to buy cars from Koreans** : what mattered = 관계대명사 what절 주어(중요한 것) → 단수 was. 보어 = that절.

- **In 2009, Hyundai (..., having taken over its smaller domestic rival, Kia, in 1998) produced more cars than Ford did** : having p.p. = 완료 분사구문(본동사 produced보다 앞선 일). did = produced를 대신하는 대동사.
- **By 2015, more cars with Hyundai or Kia marques rolled off production lines than did those branded by GM** : than 뒤 도치: than did those(= cars) branded by GM. did = rolled off를 대신. branded = 과거분사 후치.
- **If you had a time machine and went back to 1976 and told people that ..., they would have tried to put you in a mental hospital** : 조건절 = 가정법 과거(지금 타임머신이 있어 돌아간다면), 주절 = would have p.p.(1976년 그때 사람들이 보였을 반응). 시점이 다른 두 가정이 섞인 혼합 가정법.
- **with a per capita income not even two-thirds that of Ecuador's** : that = the per capita income을 받는 대명사. not even = ~조차 안 되는. 원서 표기 that of Ecuador's는 that of Ecuador와 같은 뜻.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ver	끊다	cut off	maintain
jubilant	크게 기뻐하는	overjoyed	dejected
dismiss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다	brush aside	take seriously
stitched	바느질한	sewn	—
namely	즉	that is	—
inauspicious	앞날이 밝지 않은	unpromising	auspicious
spectacular	화려한, 극적인	dramatic	unremarkable
notable	주목할 만한	remarkable	ordinary
a handful of	몇 안 되는	a few	a great many
take over	인수하다	acquire	—
marque	(자동차) 상표	brand	—
glorified	이름만 그럴듯한	overrated	—
per capita	1인당	per head	—

내용 일치 1973년 = 포드와 결별 · 독자 모델 포니 발표 · 1976년(첫 완전한 생산 연도) = 1만 대 남짓 · 포드의 0.5% · GM의 0.2% · 1976년 6월 에콰도르 수입 · 포니 다섯 대 + 버스 한 대 · 당시 한국 = 가발 · 봉제 의류 · 봉제 인형 · 운동화(값싼 노동) · 1986년 엑셀(포니 개량형) 미국 진출 · 『포천』 그해 주목할 제품 10 · 1991년 자체 엔진 · 21세기 초 세계 10대 · 1998년 기아 인수 · 2009년 포드보다 많이 · 2015년 GM보다 많이 · 1976년 한국 1인당 소득 = 에콰도르의 3분의 2도 안 됨. **밑줄 의미** the Korean nation was jubilant = 다섯 대뿐인 수출에도 온 나라가 기뻐했다 / dismissed as a minor detail = 사소한 일로 치부했다 / a glorified car mechanic's shop = 이름만 그럴듯한 정비소 수준 / they would have tried to put you in a mental hospital = 아무도 믿지 않았을 만큼 터무니없는 예언 / 54쪽 ¶1 it(if it was) = 다섯 대뿐이라는 사실 · 54쪽 ¶2 it(became) = 현대 · 54쪽 ¶3 they = 1976년의 사람들 · that of Ecuador's = 에콰도르의 1인당 소득.

> **한 줄 요약** 포드 생산량의 0.5%로 출발해 에콰도르에 포니 다섯 대를 팔고 기뻐하던 현대는 30여 년 만에 포드를, 40년이 안 되어 GM을 넘어섰다.

6-6 영웅 기업가 뒤의 노동자와 정부 54쪽 ¶4 ~ 55쪽 ¶4 + 57쪽 각주 viii

원문 위치 원서 54쪽 ¶4 ~ 55쪽 ¶4 + 57쪽 각주 vi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4쪽 ¶4 첫 문장	How was this possible?	질문 한 문장 — 전환
★	54쪽 ¶4 둘째 문장	they immediately think of the visionary entrepreneur behind it – Bill Gates, Steve Jobs …	통념 제시
★	54쪽 ¶5 첫 문장	two, not just one, visionary entrepreneurs – Chung Ju-yung … and his younger brother, Chung Se-yung	지칭 문항 · 인물
★	54쪽 ¶5 첫 문장	who led HMC between 1967 and 1997 … he earned the nickname, Pony Chung	숫자 · 별명
◆	54쪽 ¶5 둘째 문장	a snowball's chance in hell … not to speak of becoming one of the top dogs	밑줄 의미: 가망이 전혀 없음
▲	55쪽 첫 줄(54쪽 ¶5 둘째 문장)	as symbolized by their decision to ask … Giugiaro, to design their first car	as + 과거분사 · ask + O + to V
★	55쪽 첫 줄(54쪽 ¶5 셋째 문장)	They sank the money … to sustain what was initially a loss-making company – … intra-group cross-subsidization	용어 — 그룹 내 교차 보조
▲	55쪽 ¶1	Important as these corporate leaders were, … not just – or not even mainly – about	형용사 + as + S + V(양보)
★	55쪽 ¶2 첫 문장	mastering imported advanced technologies, making incremental improvements … developing their own	요지 · 세 단계
◆	55쪽 ¶2 둘째 문장	corporate vision, however good it may be, remains just that – a vision	밑줄 의미 · however + 형용사
★	55쪽 ¶3 둘째 문장	banning the import of all automobiles until 1988 and the import of Japanese cars until 1998	빈칸 · 숫자 1988 ↔ 1998
★	55쪽 ¶3 셋째 문장	Korean consumers putting up with inferior domestic cars for decades … could not have survived	소비자의 희생 · 가정법 과거완료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5쪽 ¶3 넷째~다섯째 문장 + 57쪽 각주 viii	highly subsidized credits … tight banking regulations … state ownership of the banking sector	보조 금융 · 은행 국유(1961~1983)
●	55쪽 ¶4 첫 문장	The government policy was not always of the 'helping' kind	어휘 반전: 돕기만 한 것이 아님
★	55쪽 ¶4 셋째 문장	In 1973, the government threatened … licences … would be revoked	숫자 1973 · 위협
★	55쪽 ¶4 넷째 문장	to increase the 'local content' … so that domestic car-parts industries would develop	어휘 문항의 바탕 · so that

내용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놀라운 기업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곧바로 그 뒤의 비전 있는 기업가, 곧 빌 게이츠 · 스티브 잡스 · 제프 베이조스 ·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떠올린다. 실제로 현대의 성공 뒤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비전 있는 기업가가 있었다. 현대 그룹을 세운 정주영과, 1967년부터 1997년까지 현대자동차를 이끈 그의 동생 정세영이다(정세영은 포니 출시에 워낙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포니 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현대자동차가 업계의 선두 주자가 되기는커녕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망도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정씨 형제는 언젠가 세계와 겨룰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품고 일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 가운데 하나인 주자로에게 첫 차의 디자인을 맡긴 결정이 그 상징이다. 형제는 처음에 적자를 내던 이 회사를 지탱하려고 현대 그룹에서 더 자리 잡은(그리고 수익이 나는) 다른 부문이 번 돈을 쏟아부었다. 이를 그룹 내 교차 보조라고 한다. 이 기업 지도자들이 중요하긴 했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현대자동차의 성공 이야기는 영웅적 기업가 개인의 뛰어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주로 그것의 이야기조차 아니다. 첫째,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 노동자 · 기술자 · 연구 과학자 ·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일하며 수입한 첨단 기술을 익히고, 익힌 기술을 조금씩 개선하고, 마침내 폭스바겐 · 도요타 같은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의 것에 견줄 만한 독자적인 생산 체계와 기술을 개발했다. 헌신적이고 유능한 인력이 없으면 기업의 비전은 아무리 훌륭해도 비전, 딱 그것으로 남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88년까지 모든 자동차의 수입을, 1998년까지 일본 차의 수입을 금지해 현대와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다른 '전략' 산업에도 적용된 '유치산업 보호'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5장 참조). 물론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수십 년 동안 질 낮은 국산 차를 참고 타야 했다는 뜻이지만, 그 보호가 없었다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살아남아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 한국 정부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전략 첨단 산업의 기업, 특히 수출 지향 기업들이 보조금이 많이 붙은 신용을 쓸 수 있게 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소비자 대출보다 생산적인 기업에 먼저 돈을 빌려주도록 의무화한 엄격한 은행 규제와, 은행 부문의 국가 소유(1장 참조)로 이루어졌다. 각주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83년까지 한국의 모든 은행은 정부 소유였고, 많은 은행이 1990년대 초까지 정부 손에 남았으며, 오늘날에도 Korea Development Bank · Export-Import Bank · Industrial Bank of Korea 같은 중요한 국책 은행이 몇 곳 있다. 정부 정책이 늘 '돕는' 쪽이었던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자 모델을 디자인하기로 한 것은 실은 자동차 부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산화' 계획 때문이었다. 1973년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독자 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규제 권한과 금융 권한을 이용해 현대자동차와 다른 회사들(국내 회사뿐 아니라 외국 회사도)에 제품의 '국산화 비율', 곧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의 비중을 높이라고 명시적 · 암묵적으로 압력을 넣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9장 참조).

어법

- behind the success of Hyundai there were two, not just one, visionary entrepreneurs : 부사구(behind ~) 뒤의 there were 구문. two, not just one = 수사 사이에 끼운 대조.

- **he played such a crucial role in the launch of the Pony that he earned the nickname, Pony Chung** : such + a + 형용사 + 명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 play a role in = ~에서 역할을 하다.
- **When almost everyone else thought that there was a snowball's chance in hell that HMC would survive international competition, not to speak of becoming one of the top dogs** : a snowball's chance in hell = 가망이 전혀 없음(관용 표현). 뒤의 that = chance의 내용을 밝히는 동격 that. not to speak of + 동명사 = ~는 말할 것도 없고.
- **They sank the money made by other more established (and profitable) parts of the Hyundai Group to sustain what was initially a loss-making company** : sink money = 돈을 쏟아붓다. made by = 과거분사 후치. to sustain = 목적.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처음에는 적자 회사였던 것).
- **Important as these corporate leaders were, … HMC's success story is not just – or not even mainly – about the individual brilliance** : 형용사 + as + S + V = ~하지만(양보 도치, Although these leaders were important). not just A – or not even mainly A = A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주로 A의 이야기조차 아니다.
- **Without a dedicated and capable workforce, corporate vision, however good it may be, remains just that – a vision** : Without ~ = ~이 없으면(조건). however + 형용사 + S + may be = 아무리 ~해도(양보). that = 앞의 corporate vision을 받는 대명사(대시 뒤 a vision이 다시 풀어 줌 — '비전, 딱 그것').
- **This of course meant Korean consumers putting up with inferior domestic cars for decades, but, without that protection, Korean carmakers could not have survived and grown** : mean + 의미상 주어(Korean consumers) + 동명사(putting up with). without ~ + could not have p.p. = 가정법 과거완료(그 보호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the government threatened HMC and other auto-makers that their licences to produce cars would be revoked if they didn't come up with their own models** : threaten + O + that절. 시제 일치: would be revoked(과거에서 본 미래의 수동). if + 과거(didn't) = 시제 일치를 따른 조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isionary	비전 있는	far-sighted	short-sighted
crucial	결정적인	vital	trivial
top dog	최강자	leader	underdog
ambitious	야심 찬	aspiring	modest
sustain	지탱하다	support	abandon
loss-making	적자를 내는	unprofitable	profitable
incremental	점진적인	gradual	sudden
dedicated	헌신적인	committed	indifferent
put up with	참다	tolerate	—
inferior	질 낮은, 열등한	poorer	superior
subsidize	보조금을 주다	fund	—
mandate (v.)	의무화하다	require	forbid
revoke	취소하다	cancel	grant
implicit	암묵적인	unspoken	explicit

내용 일치 통념 = 비전 있는 기업가(게이츠 · 잡스 · 베이조스 · 머스크) · 현대 = 두 명(정주영 = 그룹 창업자, 정세영 = 동생 · 1967~1997년 HMC · '포니 정') · 주자로에게 첫 차 디자인 = 비전의 상징 · 그룹 내 교차 보조 · 노동자 · 기술자 · 연구 과학자 ·

전문 경영인 = 습득 → 점진적 개선 → 독자 기술 · 수입 금지 = 모든 차 1988년까지 · 일본 차 1998년까지 · 유치산업 보호(5장) · 소비자 = 수십 년 질 낮은 국산 차 · 1990년대 초까지 보조 금융 · 은행 규제 · 은행 국유(각주 viii: 1961~1983년 모든 은행) · 1973년 면허 취소 위협 · 국산화 비율 압력(외국 회사도). **밑줄 의미** a snowball's chance in hell = 살아남을 가망이 전혀 없음 / top dogs = 업계의 선두 주자 / remains just that – a vision = 실행할 인력이 없으면 비전은 생각으로만 남는다 / not always of the 'helping' kind =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압박도 했다 / 54쪽 ¶4 it(behind it) = 놀라운 기업의 성공 · 54쪽 ¶5 he = Chung Se-yung · 55쪽 첫 줄 They = 정씨 형제 · 55쪽 ¶3 This(meant) = 수입 금지 · 55쪽 ¶4 their(licences) = 자동차 회사들의.

> **한 줄 요약** 현대의 성공 뒤에는 정씨 형제의 비전뿐 아니라 기술을 익혀 키운 노동자 · 기술자와, 보호하고 압박한 정부와, 질 낮은 국산 차를 참은 소비자가 있었다.

6-7 현대는 예외가 아니다 – 여럿이 이룬 기업가 정신 55쪽 ¶5 ~ 57쪽 ¶1

원문 위치 원서 55쪽 ¶5 ~ 57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5쪽 ¶5 첫 문장	But, you may ask, isn't Hyundai's story an exception …?	부정 의문문 · 삽입절
★	55쪽 ¶6 + 56쪽 첫 줄	Samsung (from sugar-refining and textiles …) or LG (from cosmetics and toothpaste …)	무관한 문장 문항의 바탕
★	56쪽 ¶1 둘째 문장	Toyota started out as a manufacturer of simple textile machines … Mitsubishi started out as a shipping company	내용 일치 – 출발 업종
★	56쪽 ¶1 셋째 문장	individual brilliance, corporate efforts, intra-business-group cross-subsidies, government supports and consumer sacrifice	다섯 요소
★	56쪽 ¶2 첫 문장	Nokia … started out as a paper mill … through a similar formula	회사 – 일치 후보
★	56쪽 ¶2 둘째 문장	established in 1960, made its first profit in 1977 … 'public procurement'	숫자 – 1960 ↔ 1977
▲	56쪽 ¶3 첫 문장	Even the US – a country that is so proud of its 'free enterprise' system … – has actually not been an exception	대시 삽입 · 단수 has
★	56쪽 ¶3 둘째 문장	the country that invented the theory of 'infant industry protection'	관계절 that · 5장과 연결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6쪽 ¶3 셋째 문장	developing foundational technologies through public funding	요약문 · 주장
★	56쪽 ¶3 다섯째 문장	The computer, the semiconductor, the internet, the GPS system, the touchscreen … 'defence research'	내용 일치 후보
▲	56쪽 ¶3 여섯째 문장	Without these technologies, there would have been no IBM, no Intel, no Apple	Without + 가정법 과거완료
★	56쪽 ¶4 첫 문장	a central myth in the currently dominant free-market economics may have made some sense	저자의 평가 · may have p.p.(단정 금지)
▲	56쪽 ¶4 둘째 문장	although even in those days corporate success required more than individual brilliance alone	양보 · 강조 even
★	56쪽 ¶4 셋째 문장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 collective – rather than individual – endeavour	주장 문항 1순위
★	57쪽 ¶1	entrepreneurship is not an individual deed any more. It is a collective endeavour.	결론 · 통합 사고

내용

그렇다면 현대의 이야기는 영웅적 기업가들의 세계에서 예외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저자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에는 현대와 같은 방식으로 성공한 회사가 많다. 삼성(설탕 정제 · 직물에서 반도체 · 휴대전화의 세계 선두로)과 LG(화장품 · 치약에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로)가 그 예다. 우리가 들어 본 일본 다국적 기업도 상당수가 비슷한 길을 걸었다. 도요타는 단순한 직물 기계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해 마침내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미쓰비시는 해운 회사로 출발해 조선 · 원자력 발전소부터 전자 · 자동차까지 아우르는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의 뛰어남, 기업의 노력, 사업 그룹 내 교차 보조, 정부 지원, 소비자의 희생을 함께 엮어 이런 변신을 이루었다. 핀란드의 거대 산업 기업 노키아도 비슷한 공식으로, 제지 공장에서 출발해 한때 세계 휴대전화 선두가 되었고 지금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의 주요 세력이다. 1960년 세운 노키아 전자 부문은 1977년에야 첫 이익을 냈다. 그동안 노키아 그룹 안에서 더 자리 잡은 다른 회사들(종이 · 고무장화 · 전선)의 보조를 받아야 했고, 무역 보호 · 외국인 투자 제한 · '공공 조달'(정부의 재화 · 서비스 구매) 우대도 받았다. '자유 기업' 체제를 그토록 자랑하고 늘 영웅적 기업가를 칭송하는 미국조차 현대 기업가 정신의 집단적 성격에서 실은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은 '유치산업 보호' 이론을 발명한 나라이며,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높은 보호주의 장벽을 쌓아 더 뛰어난 외국, 특히 영국 생산자로부터 보호받으며 자국의 젊은 기업이 자랄 공간을 만들었다(5장 참조). 이 논의에 더 중요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뒤 미국 정부가 공공 자금으로 기반 기술을 개발해 자국 기업을 결정적으로 도왔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국립보건원(NIH)을 통해 제약 · 생명 공학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해 왔다. 컴퓨터 · 반도체 · 인터넷 · GPS · 터치스크린을 비롯한 정보화 시대의 여러 기반 기술은 펜타곤과 미군의 '국방 연구' 계획을 통해 처음 개발되었다. 이 기술들이 없었다면 IBM도 인텔도 애플도 실리콘밸리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주류인 자유시장 경제학의 핵심 신화인 개인주의적 기업가 정신과 기업 성공의 상(像)은, 생산 규모가 작고 기술이 단순했던 자본주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환경에서는 뛰어난 개인 기업가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물론 그때도 기업의 성공에는 개인의 뛰어남 이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 · 복잡한 기술 ·

세계 시장이 자리 잡은 19세기 말부터 기업의 성공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기업 지도자만이 아니라 노동자 · 기술자 · 과학자 · 전문 경영인 · 정부 정책 입안자, 심지어 소비자까지 함께한 것이다. 국수에 집착하는 두 나라, 한국과 이탈리아의 얽힌 이야기가 보여 주듯, 현대 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은 더는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 그것은 여럿이 함께하는 노력이다.

어법

- **But, you may ask, isn't Hyundai's story an exception in a world of heroic entrepreneurs? The answer is that it is not.** : 부정 의문문(~이 아닌가?) 사이에 you may ask 삽입. The answer is that ~ = 보어 that절. it is not (an exception) = 반복 생략.
- **Toyota started out as a manufacturer of simple textile machines and eventually became the biggest automobile manufacturer in the world, while Mitsubishi started out as a shipping company** : start out as = ~로 출발하다. while = 대조(한편). eventually = 마침내.
- **The Nokia electronics division, established in 1960, made its first profit in 1977, and had to be subsidized by other more established companies** : established = 과거분사 삽입(1960년에 세운). made와 had to be subsidized가 병렬. had to + 수동 부정사.
- **Even the US – a country that is so proud of its 'free enterprise' system … – has actually not been an exception to the collective nature of modern entrepreneurship** : 대시 사이 = the US의 동격 삽입. 주어 the US(단수) → has been. 현재완료 부정 = 지금까지 예외가 아니었다.
- **It is the country that invented the theory of 'infant industry protection' and erected a high wall of protectionism** : It = the US. the country를 that절이 꾸며 '바로 ~한 나라'라고 강조한다. that 뒤 동사 invented와 erected가 병렬.
- **Without these technologies, there would have been no IBM, no Intel, no Apple, and no Silicon Valley** : Without ~ + would have p.p. = 가정법 과거완료(~이 없었다면 …은 없었을 것이다). If it had not been for와 같은 뜻.
- **The individualist vision of entrepreneurship … may have made some sense in the early days of capitalism, when scale of production was small** : may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과거 추측 — 단정하지 않음). when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the early days).
- **corporate success has been a result of collective – rather than individual – endeavour, involving not just corporate leaders but workers, …** : Since + 시점 → 현재완료 has been.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involving = 분사구문. not just A but B = A뿐 아니라 B도.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rajectory	궤적, 발전 경로	path	—
span (v.)	~에 걸치다	cover	—
sacrifice	희생	cost	gain
mill	공장, 제분소	factory	—
formula	공식, 방식	recipe	—
procurement	조달	purchasing	—
sing praises of	~을 칭송하다	acclaim	criticize
erect	세우다	build	demolish
superior	뛰어난	better	inferior
foundational	기반이 되는	basic	peripheral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dividualist	개인주의적인	self-reliant	collectivist
dominant	지배적인, 주류의	prevailing	marginal
endeavour	노력	effort	—
intertwined	서로 얽힌	interwoven	separate

내용 일치 현대 = 예외가 아님 · 삼성(설탕 정제 · 직물 → 반도체 · 휴대전화) · LG(화장품 · 치약 → 디스플레이 1위) · 도요타(단순한 직물 기계 → 세계 최대 자동차) · 미쓰비시(해운 → 조선 · 원전 · 전자 · 자동차) · 다섯 요소 = 개인의 뛰어남 · 기업의 노력 · 그룹 내 교차 보조 · 정부 지원 · 소비자의 희생 · 노키아(제지 공장 → 한때 휴대전화 1위 → 네트워크) · 전자 부문 1960년 설립 · 1977년 첫 이익 · 종이 · 고무장화 · 전선 · 무역 보호 · 외국인 투자 제한 · 공공 조달 · 미국 = 유치산업 보호 이론 발명 · 19세기~20세기 초 보호주의 · 2차 대전 뒤 공공 자금 · NIH · 펜타곤과 군의 국방 연구 · 개인주의 기업가상 = 자본주의 초기엔 어느 정도 맞았을지도(may have) · 19세기 말부터 여럿의 노력. **밑줄 의미** a similar formula = 개인 · 기업 · 그룹 내 보조 · 정부 · 소비자가 함께한 같은 방식 / sings praises of heroic entrepreneurs = 영웅 기업가를 늘 칭송한다 / a central myth = 개인주의 기업가상은 자유시장 경제학의 핵심 신화(저자의 평가) / not an individual deed any more = 이제 한 사람이 이루는 업적이 아니다 / 56쪽 ¶1 All of them = 도요타 · 미쓰비시 등 일본 다국적 기업 · 56쪽 ¶3 It(is the country) = the US · these technologies = 컴퓨터 · 반도체 · 인터넷 · GPS · 터치스크린 등.

> **한 줄 요약** 삼성 · 도요타 · 노키아, 그리고 자유 기업을 자랑하는 미국까지 기업의 성공은 여럿의 노력이었으며, 현대 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은 더는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6 NOODLE]

범위	Noodle (원서 PDF 51~57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oday's free-market economics holds that a company succeeds because of one brilliant individual. That view may have held some truth when capitalism was young and production was small and simple. Since the late 1800s, however, with large-scale output, complicated technology and markets spanning the globe, business success has come from the joint work of many people, from leaders, workers and engineers to government officials and even buyers. As the story of noodle-loving Korea and Italy shows, entrepreneurship today is a shared undertaking, not one person's deed.

① Governments should leave business to the market.
② Brilliant founders are the key to corporate success.
③ Small firms innovate better than large ones.
④ Modern business success is the work of many people.
⑤ Consumers should buy only domestic product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alians care so much about pasta shapes that at the start of the 1980s Voiello, a premium Barilla brand, asked Giorgetto Giugiaro, a celebrated industrial designer, to create the perfect shape. It had to hold sauce well without soaking up too much, and look decorative, even 'architectural'. Giugiaro came up with Marille, a futuristic tube joined to a wave, which Voiello introduced amid great publicity in 1983. It flopped. Few were made and distribution was poor, so it was hard to find, and its complex form could not be cooked evenly, almost unforgivable for Italians, who love their pasta al dente.

① How Barilla Became the World's Top Pasta Maker
② Marille: The Perfect Pasta Shape That Flopped
③ Why Italians Prefer Simple Pasta Shapes
④ Giugiaro's Long Career as a Car Designer
⑤ The Secret of Cooking Pasta Al Dent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owever important Hyundai's leaders were, a closer look shows that its success did not rest only, or even chiefly, on heroic individuals. Its engineers, line workers, professional managers and research scientists worked long hours. They mastered advanced technologies from abroad, improved them step by step, and finally built produc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of their own, able to rival those of top carmakers like Toyota and Volkswagen. Without committed, skilled employees, a company's vision, however fine, stays merely a vision. Its workers, not only its bosses, turned that vision into real cars.

① Heroic leaders alone built Hyundai's success.
② Imported technologies cannot be improved on.
③ Hyundai simply copied Toyota's production system.
④ Long working hours lower a firm's productivity.
⑤ A firm's vision needs capable workers to become real.

4. 밑줄 친 the culinary equivalent of a triathl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Besides instant noodles, Koreans enjoy plain wheat noodles: thin, soft so-myun; thick, soft kal-gooksoo; and thick, slightly chewy garak-gooksoo, much like Japanese udon. Then there is chol-myun. If you add extra starch to wheat noodles and force the dough out under high heat and pressure, you produce the chewiest noodle anywhere. Eaten with vegetables, it has extreme chewiness and a fiery, sweet chilli sauce that brings tears to your eyes, so eating chol-myun is the culinary equivalent of a triathlon. You struggle through it, yet you finish glad that you did.

① a meal that is very hard but deeply rewarding
② a dish eaten mainly by athletes
③ a noodle made from three kinds of grain
④ a dish that must be finished very quickly
⑤ a food that beginners should avoid

5. 밑줄 친 they would have tried to put you in a mental hospital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yundai's rise is an astonishing story. Suppose you had travelled back to 1976 in a time machine and told people there that an utterly unknown carmaker, hardly more than a fancy repair shop, from South Korea, a poor developing country whose income per head was below two-thirds of Ecuador's, would grow bigger than Ford in a little over thirty years and outproduce General Motors in under forty. Hearing this, they would have tried to put you in a mental hospital. So how did it happen? When people hear of such amazing business success, they at once think of a visionary entrepreneur behind it, someone like Steve Jobs, Bill Gates, Jeff Bezos or Elon Musk.

① They would have asked you to invest in Hyundai.
② They would have worried about the effects of time travel on your health.
③ They would have found your prediction too absurd to believe.
④ They would have known about Hyundai's plans already.
⑤ They would have blamed Ford for its coming declin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Behind Hyundai Motor Company's success stood two visionary entrepreneurs rather than one. Chung Se-yung ran HMC from 1967 to 1997, and ① his role in launching the Pony was so central that ② he came to be known as 'Pony Chung'. ③ His elder brother, Chung Ju-yung, had founded the Hyundai group itself. Almost everyone believed HMC had no hope of surviving foreign competition, let alone leading the industry, but Se-yung and ④ his brother worked with a bold vision of a firm that could one day compete worldwide. A sign of that vision was their choice of designer for their first car: Giorgetto Giugiaro, who over half a century has made ⑤ his name as one of the world's finest car designer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World Instant Noodle Association data (yes, there really is such an organization) show that South Koreans eat more instant noodles than anyone else: 79.7 servings per person each year. The Vietnamese come second with 72.2, and the Nepalese are a distant third with 53.3. With a population of just over 51 million, South Korea therefore gets through roughly 4.1 billion servings annually. Most of them are chewy, curly wheat noodles called ra-myun (ramen to the Japanese). They are usually eaten in a soup made from the powder inside the packet, which can be anything from fairly spicy to deadly hot, though some kinds are fried or served in sauces. And instant noodles are only the beginning.

①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는 실제로는 없는 단체다.
② 1인당 인스턴트 라면 소비 2위는 네팔 사람들이다.
③ 한국에서 한 해에 먹는 인스턴트 라면은 약 41억 개다.
④ 한국 인스턴트 라면은 대부분 쌀로 만든 국수다.
⑤ 한국 인스턴트 라면은 모두 국물에 끓여 먹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Koreans also make noodles from various starches instead of flour. The best known is dang-myun, a glass noodle made from sweet potato starch. Its name means 'Chinese noodle', since dang is the Korean prefix marking something as Chinese in origin. In China the original version uses mung bean starch, whereas Koreans favour sweet potato starch, which the Chinese use as well; dang-myun can also be made from cassava, potato or sweetcorn starch. It is used above all in japchae, but it also goes into mandoo, soondae and stews, adding chewiness as well as bulk, since it costs little and fills you up. Oddly, Korea has no traditional rice noodle, though rice is its main grain. Perhaps rice was simply too valuable to spend on noodles.

① 당면은 고구마 녹말로 만든 유리 면이다.
② '당'은 중국에서 왔음을 나타내는 한국어 접두사다.
③ 중국의 원래 당면은 녹두 녹말로 만든다.
④ 중국 사람들은 고구마 녹말을 쓰지 않는다.
⑤ 한국에는 쌀로 만든 전통 국수가 없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If you mix sodium carbonate into wheat dough, you get alkaline noodles, ① which are extra chewy. They are the most popular kind in Korea, and ra-myun is one of them. Chajang-myun, also called jajang-myun, is a 'Chinese' dish of noodles ② inventing in Korea, much as chicken tikka masala, an 'Indian' dish, was created in the UK. Thick, chewy alkaline noodles come with a sauce of pork, onions and assorted vegetables ③ fried in choonjang, a fermented dark soybean paste. Fans of K-dramas will certainly have seen ④ it: the noodles in a brown sauce that characters seem to eat everywhere, in offices, at home and even in police interrogation rooms. By one estimate, South Koreans ⑤ eat an astonishing 1.5 million bowls of it each day.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uckwheat noodles are also popular in Korea, and they come in two types. The soft kind, which resembles Japanese soba, (A) [calls / is called] mémil-gooksoo, which simply means 'buckwheat noodle'. The other type, thicker and chewier, has the odd name Pyeongyang naeng-myun gooksoo (B) [because / because of] it is used almost only for Pyeongyang naeng-myun. This is a cold noodle soup that is based on beef broth, or on pheasant broth in the original style of Pyeongyang, the capital of North Korea, and (C) [seasoning / seasoned] with mustard and vinegar. Acorn or arrowroot is sometimes mixed into the buckwheat flour to add bulk and give the noodles an earthier taste.

	(A)	(B)	(C)
①	calls	because	seasoned
②	is called	because of	seasoned
③	is called	because	seasoning
④	calls	because of	seasoning
⑤	is called	because	season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always ① help carmakers; sometimes it pushed them hard. In fact, HMC chose to create its own model because of the government's 'domestication' plan for the car industry. In 1973 the government warned HMC and the other carmakers that their licences to make cars would be ② revoked unless they produced models of their own. It also used its financial and regulatory power to press HMC and other firms, both national and foreign, to raise the ③ local content of what they made, meaning the share of parts produced at home. The aim was to ④ discourage the growth of domestic car-parts industries. Such pressure was sometimes open and sometimes ⑤ implicit.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government, too, played its part. It gave Hyundai and other Korean carmakers room to 'grow up' by _____: no cars at all could be imported until 1988, and Japanese cars were shut out until 1998. This rested on the idea of protecting 'infant industries', an idea used for other 'strategic' sectors as well. Naturally, Korean buyers had to settle for poorer home-made cars for many years, yet without such a shield the carmakers could never have survived and grown. In addition, until the start of the 1990s the government ensured that HMC and other hi-tech firms in strategic sectors, especially exporters, could get heavily subsidized loans, relying on strict banking rules and its ownership of the banks.

① keeping foreign cars out of the country
② lowering taxes on imported cars
③ selling off the state-owned banks
④ inviting Japanese carmakers to Korea
⑤ letting consumers buy whatever cars they liked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Served that way, it looked to him like rice in soup, since Koreans commonly put rice into hot soup and eat the two together.

The author grew up with noodles that came in only two shapes, strips or strings. (①) So he was amazed, on his first trips to Italy late in the 1980s, to discover that Italians ate far more kinds of pasta than spaghetti and macaroni. (②) One particular shock came at an Italian summer school he went to as a graduate student, where he was given orzo, also called risoni. (③) This pasta is shaped like a tiny grain, and its name actually means barley or rice; it is sometimes served in a clear hot broth. (④) He could hardly believe it when he was told that he had just had a pasta dish. (⑤) In fact, although Italian pasta is basically made from wheat alone, more than 200 varieties have been created simply by changing the shape.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s Hyundai, then, a lone exception among stories of heroic entrepreneurs? It is not. ① Many other Korean firms have grown the same way, like Samsung, which started in sugar refining and textile making before leading the world in mobile phones and semiconductors. ② LG, too, went from making toothpaste and cosmetics to first place among the world's display makers. ③ In 1983, Voiello launched Giugiaro's Marille pasta amid great publicity, but it turned out to be a complete failure. ④ Many well-known Japanese multinationals followed similar paths: Toyota began by making simple textile machines and became the world's largest carmaker. ⑤ Mitsubishi, once a shipping company, now spans nuclear power plants and shipbuilding as well as electronics and cars.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MC, which launched Giugiaro's Pony in 1975, belonged to the Hyundai group, founded by Chung Ju-yung in the late 1940s. Originally in construction, the group began moving, in the late 1960s, into industries with higher productivity, starting with cars.

(A) In 1973, however, HMC announced it would break with Ford and build its own Korean-designed car, the Pony. In 1976, its first full production year, it made just over 10,000 of them, a mere 0.5% of Ford's output.

(B) At first, HMC was set up jointly with Ford, assembling Ford UK's Cortina mostly from imported parts. In its first three years, from November 1968, it put together a little over 8,000 cars.

(C) Even with such a tiny output of Ponies, Koreans were overjoyed when, in June 1976, Ecuador bought cars from Hyundai, though the order was just five Ponies and a bus. What counted was that foreigners wanted Korean car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ven the US, which boasts of its system of 'free enterprise' and its heroic entrepreneurs, is no exception. It was the US that first devised the 'infant industry protection' theory, and in the 1800s and early 1900s it built high protectionist walls so that its young firms could grow safe from stronger foreign rival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government helped its companies even more crucially by developing foundational technologies with public money: the computer, the internet, the semiconductor, GPS and the touchscreen all came first from the Pentagon's and the military's defence research.

→ Although the US (A) _____ heroic entrepreneurs, its companies have long depended on (B) _____ support, from protection to publicly funded technologies.

① celebrates ..... government
② criticizes ..... government
③ celebrates ..... foreign
④ ignores ..... military
⑤ criticizes ..... privat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No people eat more instant noodles than South Koreans, who average 79.7 servings a head each year, compared with 72.2 for the Vietnamese. Italians, for their part, are obsessed with pasta shapes. At the start of the 1980s, Voiello asked the car designer Giorgetto Giugiaro to invent the ultimate shape, and his creation, Marille, came out in 1983 but flopped. Hyundai, whose first own model Giugiaro designed, fared much better. It entered the US market with the Excel in 1986, and in 1998 it bought Kia, a smaller rival at home. In 2009 it built more cars than Ford, and by 2015 the Hyundai and Kia brands together were outproducing GM.

<QUIZ>

(1) How many servings of instant noodles does a South Korean eat per year?

Answer for (1): _____

(2) What was the name of the pasta shape Giugiaro designed?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Marille come out?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did Hyundai enter the US market with the Excel?

Answer for (4): _____

(5) Which domestic rival did Hyundai buy in 1998?

Answer for (5): _____

(6) By what year were the Hyundai and Kia brands outproducing GM?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Hyundai bought Kia after it had built more cars than Ford?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72.2	N. 1986
B. Ford	O. Marille
C. 1991	P. 1975
D. Kia	Q. Nissan
E. 2015	R. False
F. 79.7	S. Excel
G. orzo	T. 1973
H. True	U. 1983
I. 1976	V. Barilla
J. General Motors	W. 1998
K. 53.3	X. Voiello
L. 2009	Y. 4.1 billion
M. Pony	Z. 1968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한국 인구가 5,100만 명 남짓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한 해 약 41억 개가 된다. (Given that + 절 / work out to be)

02 밀국수에 녹말을 더 넣고 고온 고압으로 뽑아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쫄깃한 국수가 된다. (명령문 + and)

03 한국인은 하루에 150만 그릇의 짜장면을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be estimated to V)

04 쌀이 그 나라의 주곡이라는 사실에도 한국에는 쌀로 만든 전통 국수가 없다. (despite + the fact that)

05 복잡한 모양 때문에 그것을 고르게 익히기가 어려웠다. (make + it(가목적어) + 형용사 + to V)

06 그가 하는 말로 판단하건대, 주자로는 그 대실패를 재미있는 막간극으로 여기고 있다. (Judging from(판단의 분사구문))

07 에콰도르가 포니 다섯 대만 샀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동격 the fact that)

08 2009년에 현대는 포드보다 더 많은 차를 생산했다. (비교 than + 대동사 did)

09 그는 포니 출시에 너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포니 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such + a + 형용사 + 명사 + that)

10 이 기업 지도자들이 중요하긴 했지만, 그 성공은 개인의 뛰어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형용사 + as + S + V(양보))

11 헌신적인 인력이 없으면 기업의 비전은 아무리 훌륭해도 비전으로 남을 뿐이다. (however + 형용사 + S + may be)

12 이 기술들이 없었다면 IBM도, 인텔도, 애플도 없었을 것이다. (Without + 가정법 과거완료)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1인당 한 해 인스턴트 라면 소비 1~3위	
한국의 한 해 인스턴트 라면 소비 / 인구	
칼국수라는 이름의 뜻(57쪽 각주 i)	
세계에서 가장 쫄깃한 국수 / 만드는 법	
짜장면에 비유된 '인도' 요리 / 하루 소비(추정)	
당면의 원료(한국) / 중국 원조 / 일본 하루사메	
저자의 첫 이탈리아 여행 / 여름 학교에서 먹은 파스타	
파스타 원료 / 파스타 종류	
주자로에게 의뢰한 브랜드 / 모회사	
마릴레의 모양 / 출시	
주자로가 디자인한 차의 수 / 예외인 회사	
포니 출시 / 독자 모델 발표	
현대 그룹 창업 / 창업자	
HMC의 코티나 조립(1968년 11월부터 3년)	
1976년 포니 생산 / 포드 · GM 대비	

항목	답
에콰도르의 수입(1976년 6월)	
엑셀 미국 진출 / 자체 엔진 / 기아 인수	
포드 추월 / GM 추월	
정세영이 HMC를 이끈 기간 / 별명	
수입 금지(모든 차 / 일본 차)	
노키아 전자 부문 설립 / 첫 이익	

4-3. 통합 사고 문제 — 5장과 6장을 잇는 자리

문제

5장에서 저자는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일본의 정부가 높은 관세와 외국 기업의 진입 금지로 철강 · 자동차 같은 산업의 국내 생산자를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엄격하게 규제받는 은행이 이들에게 신용을 돌리게 했다고 썼으며(48쪽 ¶3),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의 정부는 젊은 산업이 생산 능력을 키워 뛰어난 외국 경쟁자와 겨룰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길러야 한다는 '유치산업' 논리를 소개했다(49쪽 ¶3). 6장에서 저자는 한국 정부가 1988년까지 모든 자동차의 수입을, 1998년까지 일본 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보조 금융을 제공했으며(55쪽 ¶3), 현대자동차의 성공은 영웅적 기업가 개인의 뛰어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썼다(55쪽 ¶1).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현대 경제의 기업가 정신을 어떤 성격의 노력이라고 보았는지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5장과 6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5장 또는 6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현대 경제의 기업가 정신: As the intertwined story of the two noodle-obsessed nations, Korea and Italy, shows, in the modern economy, entrepreneurship is not an individual deed any more. It is a _____ endeavour.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7 CARROT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arrot」 (원서 PDF 58~62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5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특허는 지식의 발전을 돕는가, 막는가."

이 장은 당근에 향신료와 견과류를 넣어 만든 당근 케이크로 시작한다. 영국에 처음 왔을 때 단 음식에 당근을 넣는 것이 낯설었던 저자는 짠맛과 단맛의 경계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꺼낸 뒤, 원래 흰색이던 당근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주황색이 된 역사와 주황 당근에 든 베타카로틴으로 넘어간다. 이야기는 베타카로틴을 만드는 유전자를 쌀에 넣은 골든라이스로, 다시 그 쌀을 상업화하려면 70개가 넘는 특허를 풀어야 했던 과학자들의 사정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특허가 지식의 발전을 돕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며, 특허가 서로 맞물린 '특허 덤불'이 커지면서 특허 제도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 간다고 진단하고, 특허 기간 단축 · 상금 제도 · 강제 라이선스라는 처방을 내놓는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2장(오크라)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특허의 수명을 줄이자(61쪽 ¶2) /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면 제도를 고친다(61쪽 ¶1 · 62쪽 ¶2) / 특허 풀로 교착을 푼다(60쪽 ¶4) / 짠맛 · 단맛의 구분은 문화마다 다르다(58쪽 ¶3)
4~5	**밑줄 함축 의미**	It was just not a thing / facts often get in the way of a good story / a double-edged sword / patent thicket / 'recommended' (read forced) / that supposed supreme defender of patentee rights / an advance army of lawyers / monopoly over nothing is still nothing / the ludicrous idea that carrots could be orange
6	지칭 추론	they · their · them이 두 과학자와 비판자 사이를 오가는 59쪽 ¶5~60쪽 ¶1 / it(58쪽 ¶3 = tomato) / this one(59쪽 첫 줄 = 오라녜 공 이야기) / this(59쪽 ¶1 = 비타민 A의 독성) / It · it(60쪽 ¶2 = a patent) / she · her(61쪽 ¶4 = 혁신가)
7~8	내용 일치·불일치	골든라이스와 VAD(59쪽 ¶2~¶3) / 상금 제도의 역사(61쪽 ¶3) / 2000 · 200만 · 50만 · 1970 · 70여 개 · 32 · 30 · 1856 · 1917 · 1960년대 · 14 · 20 · 8 · 1760년대 · 2만 파운드 · 1714 · 1809 · 2001 · 2021
9~10	**어법**	find + O + 형용사 · to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 be considered · 계속적 which · 관계부사 where · 가주어 it · used to · It is believed that · would(추측) · when (it is) eaten · whose · let + O + 원형 · be estimated to · buy out · too ~ for ... to · despite + 동명사 · in return for + 동명사 · enable + O + to V · make it + 형용사 + for ... to V · 과거완료 · Nor 도치 · 가정법 과거 · be supposed to have p.p. · however + 형용사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avoury↔sweet · initially↔eventually · annual↔perennial · essential↔unnecessary · blurred↔clear · deficiency↔sufficiency · legitimate↔illegitimate · monopoly↔competition · stalemate↔breakthrough · spur↔deterrent · obsolete↔current · outrageous↔reasonable
12	빈칸 추론	the most important input in the production of knowledge is knowledge(60쪽 ¶3) / too many patents involved for individual scientists to handle(60쪽 ¶1) / a one-off reward(61쪽 ¶3) / the savoury-sweet division is rather culturally specific(58쪽 ¶3)
13	문장 삽입	신젠타의 골든라이스 인수(59쪽 ¶4 · 62쪽 각주 ii): 매각 → 합병의 역사 → 이미 일부 권리가 있었다 → 그런데도 과학자들의 몫을 사들여 완전히 장악 → 과학자들의 협상
14	무관한 문장	정부가 강제한 특허 풀(60쪽 ¶5~61쪽 첫 줄)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17세기 네덜란드의 주황 당근, 58쪽 ¶4)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강제 라이선스 국제 협정(62쪽 ¶1): 제안 → 선례인 골든라이스(2001) → 더 최근의 코로나19 논쟁(2021) → 기후 위기 기술에도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특허는 지식 창출을 장려하기도(독점 약속) 막기도(독점 기간 동안 남의 사용 금지) 하는 양날의 칼(60쪽 ¶2)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나라 · 세기 · 연도 · 회사 · 인물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991(영화) · 17세기(주황 당근) · 16세기(스페인에 맞선 반란) · 2000(골든라이스 · 신젠타 출범) · 200만 · 50만(VAD, 추정) · 1970(합병의 시작) · 70여 개 · 32명 · 30개쯤(특허) · 1856(재봉틀) · 1917(항공기) · 1960년대(반도체) · 18세기 말 · 14년 · 20년 · 8년 · 1760년대 · 2만 파운드 · 1714 · 1809 · 2001 · 2021. 2000은 골든라이스가 만들어진 해이고 2001은 신젠타가 상업적 이익을 포기한 해다. 인물 · 회사도 많다(오라녜 공 빌럼 · Potrykus · Beyer · 신젠타 · 켐차이나 · 스티글리츠 · 라이트 형제 · 커티스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 페어차일드 · 해리슨 · 아페르 · 나폴레옹 · 프리드리히 대왕).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14년 ↔ 20년, 17세기 ↔ 16세기, 옥수수 · 토양 세균 ↔ 둘 다 옥수수, 밀보다 많은 사람 ↔ 적은 사람, 유리병 ↔ 양철 깡통, 업계가 만든 풀 ↔ 정부가 강제한 풀, 사들임 ↔ 팔아넘김). 전언 · 추측(It is widely believed · I guess · there seems to be · is estimated to · he is supposed to have said · more probably · may)을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arrot」 (58~62쪽)

논증형(당근 케이크 → 짠맛 · 단맛의 문화 차 → 당근의 역사와 오라녜 공 이야기 →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 골든라이스와 VAD → 신젠타 매각과 70여 개의 특허 → 특허의 정의 · 양날의 칼 → 맞물린 특허 · 특허 덤불 → 업계 · 정부가 만든 특허 풀 → 특허 제도의 처방 세 가지 → 결론: 제도는 고칠 수 있다). 핵심 축은 **지식 창출의 장려 vs 지식 창출의 방해**, 그리고 **특허 독점 vs 공공의 지식**.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8 ¶1~¶2	도입	영국에서 처음 본 당근 케이크 = 이상한 것 / 당근은 김치 · 카레 · 잡채 · 샐러드용, 단 음식에는 절대 안 씀 → 지금은 좋아하는 디저트
58 ¶3	짠맛 · 단맛	구분은 문화마다 다름 / 브라질의 디저트 아보카도 · 어린 시절 한국의 단 토마토('한해감') · 「Fried Green Tomatoes」
58 ¶4	당근의 역사	중앙아시아(거의 확실히 아프가니스탄) · 원래 흰색 → 보라 · 노랑 → 17세기 네덜란드의 주황
58 ¶5~59 첫 줄	정치적 채소?	오라녜 공 빌럼 때문에 퍼뜨렸다고 널리 믿어짐 / 저자: 그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 같다
59 ¶1	영양	베타카로틴 → 비타민 A(피부 · 면역 · 눈) / 지나치면 독: 비타민 A 과잉증 · 극지 탐험가
59 ¶2	골든라이스	베타카로틴은 안전한 공급원 / 2000년 Potrykus · Beyer · 유전자 2개(옥수수 · 토양 세균)
59 ¶3	VAD	쌀 = 밀보다 많은 사람을 먹이지만 비타민 A가 적음 / VAD = 최대 200만 명 사망 · 50만 건 실명(추정)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9 ¶4	신젠타 매각	다국적 농업 · 생명공학 기업 · 1970년부터의 합병 / 과학자들의 몫을 사들여 완전 장악 · 가난한 농민은 무료
59 ¶5~60 첫 줄	비판과 변론	공공 목적 기술을 이윤 기업에? / 70여 개 특허 · 32명의 소유자 ↔ 핵심은 30개쯤(비판자)
60 ¶1	남는 논점	개인 과학자가 감당하기엔 특허가 너무 많음 / 20년째 GMO 논란으로 보급 대기
60 ¶2	특허의 정의	기술 공개의 대가로 주는 일정 기간의 독점 / 양날의 칼: 지식 창출을 장려하면서 막기도 함
60 ¶3	맞물린 특허	지식 생산의 가장 중요한 투입물 = 지식 / 'interlocking patents' = 'patent thicket'(스티글리츠)
60 ¶4	업계의 특허 풀	19세기 중반 재봉틀 업계의 소송전 → 1856년 Sewing Machine Combination / DVD · 휴대전화
60 ¶5~61 첫 줄	정부의 특허 풀	1917년 항공기(라이트 · 커티스) / 1960년대 미 해군 → 반도체(텍사스 인스트루먼트 · 페어차일드)
61 ¶1	문제의 악화	유전자 수준까지 특허 · 변호사 군단 / 혁신의 자극이던 특허가 걸림돌로 → 고쳐야 한다
61 ¶2	처방 1	특허 수명 단축 / 처음 14년 → 지금 20년(+제약 8년) · 20년이 최적이라는 이론은 없음
61 ¶3~62 첫 줄	처방 2	상금 제도 · 해리슨(1714년 상금) · 아페르(1809년, 나폴레옹) / 빠른 분야에선 더 큰 이익일 수도
62 ¶1	처방 3	공공 목적 기술에 강제 라이선스(국제 협정) / 골든라이스 2001 · 코로나19 2021 · 기후 기술
62 ¶2	결론	모든 제도처럼 비용이 이익보다 크면 고친다 / 주황 당근도 '우스꽝스러운' 생각에서 나왔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당근의 쓰임	저자가 자란 곳 — 김치 · 일본식 카레 · 잡채 · 샐러드(단 음식에는 절대 안 씀)	영국 — 당근 케이크(디저트)
아보카도 · 토마토	대부분의 사람 · 요리 — 짭짤한 음식 재료	브라질 — 설탕 넣은 아보카도 디저트 / 어린 시절 한국 — 과일처럼 먹는 토마토
주황 당근의 보급	널리 믿어지는 이야기 — 오라녜 공 빌럼과 연결	저자 — 근거가 없는 것 같다
비타민 A를 얻는 길	물개 · 북극곰의 간 — 과잉증의 위험	베타카로틴 — 몸이 바꾸는 양을 조절해 안전
골든라이스 매각	비판자 — '공공 목적' 기술을 이윤 기업에 판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자 — 70여 개 특허 · 32명의 소유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필요한 특허의 수	과학자 — 70개가 넘는 특허 기술	비판자 — 핵심 특허는 30개쯤
특허의 두 날	지식 창출을 장려 — 독점권을 약속해 시장이 감당하는 만큼 값을 매김	지식 창출을 막음 — 독점 기간에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쓰지 못함
특허 풀을 만든 쪽	업계 스스로 — 재봉틀(1856) · DVD · 휴대전화	정부 — 1917년 항공기 · 1960년대 미 해군의 반도체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특허 제도의 역할	한때 — 기술 혁신의 강력한 자극	지금 — 혁신의 큰 걸림돌로 변해 가는 중
특허 기간	18세기 말 유럽 — 14년(당시 도제 기간의 두 배)	오늘날 — 20년(제약 업계는 최대 8년 더)
발명의 보상	특허 — 독점(더 나은 기술이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독점')	상금 — 일회성 보상 · 발명 즉시 공공의 재산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arrot cake	당근 · 향신료 · 견과류로 만든 케이크([제목]) /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긴 것 가운데 하나 →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가운데 하나
저자에게 당근이란	동양 배추와 함께 절여 김치로 · 양파 · 감자와 삶아 일본식 karé(카레)로 · 다른 채소와 볶아 japchae로 · 샐러드로 / 단 음식에는 절대 안 씀
japchae	62쪽 각주 i: 한국의 당면(dangmyun)을 채 썬 채소와 볶은 것, 원하면 가늘게 찢은 고기도 · 「Noodle」 참조
낯섦의 비유	영국인에게 방울양배추 크럼블, 미국인에게 브로콜리 파이 같은 것 · 그냥 '있을 수 없는 음식'
avocado / tomato	아보카도: 대부분 짭짤한 음식 · 브라질 사람은 자주 설탕을 넣은 디저트로 / 토마토: 대부분의 요리에서 짭짤한 재료 · 저자 어린 시절 한국에서는 단(편인) 것 · 과일로(식물학적으로도 과일) · 덜 달면 설탕
one-year persimmon	특히 나이 든 세대가 토마토를 부르던 이름('한해 감') · 감을 닮았지만 나무가 아니라 한해살이 식물에서 남
Fried Green Tomatoes	**1991년** 미국 영화(저자: 훌륭한 영화) / 토마토가 분명히 짭짤한 영국에서 몇 년을 산 뒤에도 당황스러웠다
당근의 역사	중앙아시아(**거의 확실히**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 원래 **흰색** → 보라 · 노랑 품종 → 지금 대세인 주황 = **17세기** 네덜란드
William of Orange	Willem van Oranje = William the Silent(Willem de Zwijger) · **16세기** 스페인(당시 오늘날의 네덜란드를 지배)에 맞선 반란의 지도자 / 그래서 주황 당근을 퍼뜨렸다고 **널리 믿어짐** → 근거가 없는 것 같다(저자)
beta-carotene	주황색의 원천 · 먹으면 몸이 비타민 A로 바꿈 · 바꾸는 양을 몸이 조절 → 과잉증을 피하는 안전한 공급원
vitamin A	피부 · 면역 체계 · 특히 눈 / 지나치면 독 = hypervitaminosis A(무기력 · 흐린 시야 · 뼈의 통증 · 심하면 피부 벗겨짐) / 초기 유럽 극지 탐험가가 물개 · 북극곰의 간을 먹고 겪음
Golden Rice	**2000년** · Ingo Potrykus(스위스) · Peter Beyer(독일)가 이끈 연구진 · 베타카로틴을 합성하는 유전자 **2개**(옥수수 1 · 흔한 토양 세균 1)를 쌀에 · 비타민 A가 풍부 · 노란 금빛
쌀과 VAD	쌀 = 같은 넓이에서 밀보다 **많은** 사람을 먹임 · 비타민 A는 적음 / 아시아 ·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 / VAD = 해마다 최대 **200만 명** 사망 · **50만 건** 실명 · 수백만 건 안구건조증(**추정**)
Syngenta	다국적 농업 · 생명공학 기업 · 스위스 바젤 본사 / **1970년**까지 거슬러 가는 인수 · 합병: Ciba · Geigy · Sandoz(스위스 제약) · ICI(영국 화학) · Astra(스웨덴 제약) · ChemChina(중국 국영 화학)
62쪽 각주 ii	1970 Ciba-Geigy · 1996 Novartis · 1993 Zeneca(ICI에서 분리) · 1999 AstraZeneca · 2008 AkzoNobel이 ICI의 나머지 인수 · **2000** Syngenta 출범 · **2016** ChemChina가 인수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골든라이스 매각	신젠타 = EU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이미 일부 권리 → 과학자들의 몫을 사들여 완전 장악 / 두 과학자 =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민이 무료로 쓰도록 힘써 협상
특허의 수	과학자: **70개가 넘는** 특허 기술 · **32명**의 소유자 / 비판자: 핵심 특허는 **30개쯤** / 저자: 개인 과학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음 · 20년이 지나도 GMO 논란으로 보급 대기
patent	정부가 새 기술의 발명자에게 정해진 기간 독점을 주고 그 대가로 기술을 공개하게 함('patent' = 명백한) · 지금은 **20년**(예전엔 꽤 짧았음) · 양날의 칼
맞물린 특허	지식 생산의 가장 중요한 투입물 = 지식 / 'interlocking patents'(저자의 말) = 'patent thicket'(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재봉틀의 특허 풀	**19세기 중반** 서로 특허 침해 소송 → 기술 발전이 멈춤 / **1856년** 특허 풀 = Sewing Machine Combination / 업계가 만든 풀: DVD(MPEG-2) · 휴대전화(RFID)
정부가 만든 특허 풀	**1917년** 1차 세계대전 참전 준비 · 공중전 → 미국 정부가 항공기 산업에 '권고'(= 강제): Wright Company(라이트 형제) · Curtiss / **1960년대** 미 해군(초기 반도체 연구를 거의 전부 지원) → Texas Instruments · Fairchild
특허 기간	**18세기 말** 유럽 = 대개 **14년**(당시 도제 기간의 두 배) / 오늘날 = **20년** + 제약 최대 **8년**(임상 시험 기간 · 시험 자료 보호) / 20년(28년)이 최적이라는 경제 이론은 없음
상금 제도	예상 유용성에 비례하는 일회성 보상 · 발명 즉시 공공의 재산 / 해리슨: **1760년대** 해양 크로노미터(바다에서 경도 측정) · **1714년** 영국 의회의 **2만 파운드** / 아페르(프랑스 제과사 · 양조업자): **1809년** '통조림'(실은 유리병 · 「Beef」) · 나폴레옹의 상금
an army marches on its stomach	나폴레옹이 했다**고 한다** ·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했을 **가능성이 더 큼**
강제 라이선스	공공 목적 기술에 필요하면 특허권자가 낮은 가격에 라이선스를 주도록 국제 협정 / 신젠타 = **2001년** 스스로 상업적 이익 포기 / **2021년** 가을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논쟁 / 녹색 에너지 · 기후 적응 기술(예: 바닷물 담수화) · 「Lime」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arrot」 (원서 PDF 58~62쪽) · 5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7-1 당근 케이크, 짠맛과 단맛의 경계 58쪽 ¶1-¶3

원문 위치 원서 58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8쪽 ¶1 첫 문장	one of (many) things I found strange was carrot cake	도입 · 관계절 속 find + O + 형용사
★	58쪽 ¶1 둘째 문장	pickle with oriental cabbage in kimchi, boil … in Japanese-style karé (curry), fry … for japchae or put in salad	내용 일치 — 당근의 쓰임
▲	58쪽 ¶1 둘째 문장	Carrot was something to pickle …, boil …, fry … or put …	to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 병렬
◆	58쪽 ¶1 셋째~넷째 문장	It was not for a sweet dish. Ever.	한 단어 문장으로 강조
◆	58쪽 ¶2 첫 문장	Brussels sprouts crumble for a Brit or broccoli pie for an American	비유 — 낯선 조합
◆	58쪽 ¶2 둘째 문장	It was just not a thing.	밑줄 의미: 있을 수 없는 음식
★	58쪽 ¶3 첫 문장	the savoury-sweet division is rather culturally specific	단락의 주제문 · 빈칸 후보
★	58쪽 ¶3 둘째 문장	Brazilians often eat their avocadoes as desserts, with sugar	내용 일치
★	58쪽 ¶3 셋째 문장	when I was young, in Korea, it was considered a sweet(-ish) thing	일치 · be considered
▲	58쪽 ¶3 넷째 문장	(which of course it is, in botanical terms) … (which it often wasn't)	계속적 which가 보어 · 형용사를 받음
★	58쪽 ¶3 다섯째 문장	tomato was frequently called 'one-year persimmon'	이름의 까닭 = 한해살이 식물
▲	58쪽 ¶3 일곱째 문장	in the UK, where tomatoes were definitely savoury, it still rattled me to see	관계부사 where · 가주어 it — 어법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8쪽 ¶3 일곱째 문장	a (great) 1991 American movie called Fried Green Tomatoes	숫자 · 고유명사
★	62쪽 각주 i	Korean glass noodles, or dangmyun, fried with julienne of vegetables	잡채의 풀이 · 「Noodle」

내용

저자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당근 케이크였다. 저자에게 당근은 동양 배추와 함께 절여 김치에 넣거나, 양파 · 감자와 함께 삶아 일본식 카레(karé)에 넣거나, 다른 채소와 볶아 잡채를 만들거나, 샐러드에 넣는 것이었다. 단 음식에 쓰는 것이 아니었다. 결코. 당근 케이크는 이제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가운데 하나지만, 처음에는 영국인에게 방울양배추 크럼블이, 미국인에게 브로콜리 파이가 그렇듯 그냥 있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짠맛과 단맛의 구분은 꽤 문화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보카도를 짭짤한 음식으로 먹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자주 설탕을 넣어 디저트로 먹는다. 토마토는 대부분의 요리에서 짭짤한 재료지만, 저자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단(편인) 것으로 여겨졌다. 토마토는 과일로 먹었고(식물학적으로 보면 물론 과일이다), 충분히 달지 않으면(자주 그랬다) 설탕을 넣어 먹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토마토를 흔히 '한해 감(one-year persimmon)'이라고 불렀다. 감을 좀 닮았지만 나무에서 자라는 감과 달리 한해살이 식물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토마토가 분명히 짭짤한 음식인 영국에서 몇 년을 산 뒤에도, 저자는 1991년의 (훌륭한) 미국 영화 「Fried Green Tomatoes」의 제목을 보고 여전히 당황했다(감을 튀겨 먹지는 않을 테니까). 잡채는 한국의 당면을 채 썬 채소와 함께 볶은 음식으로, 원하면 가늘게 찢은 고기도 넣는다(62쪽 각주 i).

어법

- When I first came to Britain, one of (many) things I found strange was carrot cake : 주어 = one of (many) things(그중 하나 → 단수 was). things (that) I found strang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관계절 안에서 find + O + 형용사(O가 관계대명사로 빠져 strange만 남음).
- Carrot was something to pickle with oriental cabbage in kimchi, boil with onions and potatoes ..., fry with other vegetables for japchae or put in salad : to pickle = something을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to) boil · (to) fry · (to) put이 to 하나에 병렬로 걸린다.
- It was not for a sweet dish. Ever. : Ever = 앞 부정문을 이어받아 '결코(한 번도)'를 강조하는 한 단어 문장(= It was never for a sweet dish).
- initially it was like – I don't know – Brussels sprouts crumble for a Brit or broccoli pie for an American : like = 전치사(~와 같은). 대시 사이 I don't know = 알맞은 비유를 고르는 말버릇 같은 삽입. for a Brit = 영국인에게는.
- In most cuisines, tomato is a savoury ingredient, but, when I was young, in Korea, it was considered a sweet(-ish) thing : consider + O + C의 수동 = be considered + C(~로 여겨지다). 현재 is(일반적 사실)와 과거 was considered(저자의 어린 시절)의 대비.
- It was eaten as a fruit (which of course it is, in botanical terms), with added sugar if it wasn't sweet enough (which it often wasn't) : 첫 which = a fruit를 받는 계속적 용법(it is a fruit의 보어 자리). 둘째 which = 형용사구 sweet enough를 받는다(it often wasn't sweet enough). 형용사 + enough 어순.
- tomato was frequently called 'one-year persimmon', as it kind of resembles persimmon but, unlike the tree-grown persimmon, comes from an annual plant : call + O + C의 수동 = be called + C. as = 이유. kind of = 구어로 '어느 정도'. resemble은 타동사(resemble with는 오답). resembles와 comes가 but으로 병렬.

- **Even after several years of living in the UK, where tomatoes were definitely savoury, it still rattled me to see a (great) 1991 American movie called Fried Green Tomatoes** : where =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선행사 the UK, 뒤가 완전한 절 → which는 오답). it = 가주어, to see = 진주어. called = movie를 꾸미는 과거분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ickle (v.)	(소금 · 식초에) 절이다	preserve	—
oriental	동양의	eastern	western
initially	처음에는	at first	eventually
crumble (n.)	크럼블(부스러기 반죽을 얹어 구운 디저트)	—	—
savoury	짭짤한, 단맛이 아닌	salty	sweet
division	구분	distinction	—
culturally specific	문화마다 다른	culture-bound	universal
cuisine	(한 지역의) 요리	cookery	—
ingredient	재료	component	—
botanical	식물학의	—	—
resemble	닮다	look like	differ from
persimmon	감	—	—
annual	한해살이의	yearly	perennial
rattle (v.)	당황하게 하다	unsettle	reassure

내용 일치 저자가 영국에 처음 와서 이상하게 여긴 것 = 당근 케이크(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가운데 하나) · 저자에게 당근 = 김치(동양 배추와 절임) · 일본식 카레(양파 · 감자와 삶음) · 잡채(채소와 볶음) · 샐러드 · 단 음식에는 절대 안 씀 · 비유 = 영국인에게 방울양배추 크럼블, 미국인에게 브로콜리 파이 · 짠맛 · 단맛의 구분은 문화마다 다름 · 아보카도 = 브라질 사람은 자주 설탕을 넣은 디저트로 · 토마토 = 대부분의 요리에서 짭짤한 재료, 저자 어린 시절 한국에서는 단(편인) 과일 · 나이 든 세대 = '한해 감'(한해살이 식물이라서) · 1991년 미국 영화 「Fried Green Tomatoes」. **밑줄 의미** It was not for a sweet dish. Ever. = 단 음식에 당근을 쓰는 일은 상상도 못 했다 / It was just not a thing = 그런 음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 지칭: 58쪽 ¶3 it(it was considered · It was eaten · it is · it wasn't · it kind of resembles) = tomato · the name = 'one-year persimmon' · you wouldn't fry persimmons = 토마토를 감으로 여기던 사람에게 '튀긴 토마토'는 '튀긴 감'처럼 들린다는 농담.

> **한 줄 요약** 영국에서 처음 본 당근 케이크는 저자에게 낯설었지만, 아보카도와 토마토의 예에서 보듯 짠맛과 단맛의 구분은 문화마다 다르다.

7-2 주황 당근과 비타민 A 58쪽 ¶4 ~ 59쪽 ¶1

원문 위치 원서 58쪽 ¶4 ~ 59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8쪽 ¶4 첫 문장	carrots, which come from Central Asia (almost certainly today's Afghanistan), used to be white	원산지 · 원래 색
▲	58쪽 ¶4 첫 문장	which come from … used to be white	현재 come(지금도 사실) vs used to
★	58쪽 ¶4 둘째 문장	Subsequently, purple and yellow varieties were developed	순서: 흰색 → 보라 · 노랑 → 주황
★	58쪽 ¶4 셋째 문장	developed in the Netherlands only in the seventeenth century	숫자 · 서답형 1순위
◆	58쪽 ¶5 첫 문장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Dutch promoted the new variety because …	전언 — 사실로 단정 금지
★	58쪽 ¶5 첫 문장	William of Orange … William the Silent …, the leader of the sixteenth-century revolt against Spain	인물 · 16세기 ↔ 17세기 함정
◆	59쪽 첫 줄(58쪽 ¶5 둘째 문장)	That, I guess, would make the carrot arguably the most political vegetable in history	저자의 추측(I guess · would · arguably)
◆	59쪽 첫 줄(58쪽 ¶5 셋째 문장)	facts often get in the way of a good story: there seems to be no basis for this one	밑줄 의미 1순위
★	59쪽 ¶1 첫 문장	genuinely significant in nutritional terms	전환: 정치 → 영양
▲	59쪽 ¶1 둘째 문장	beta-carotene, which the body turns into vitamin A when eaten	계속적 which · when (it is) eaten
★	59쪽 ¶1 셋째 문장	skin, immune system and especially eyes	내용 일치
◆	59쪽 ¶1 넷째 문장	As with most vitamins, vitamin A will poison you if you have too much of it	어휘 문항의 바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9쪽 ¶1 다섯째 문장	hypervitaminosis A ... sluggishness, blurred vision, bone aches and, in extreme cases, peeling skin	증상 목록
★	59쪽 ¶1 여섯째 문장	early European polar explorers ... the livers of seals ... or of polar bears, whose main diet is seals	일치 · whose

내용

원래 당근은 중앙아시아(거의 확실히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왔고 흰색이었다. 그 뒤 보라색과 노란색 품종이 개발되었다. 지금 대세인 주황색 품종은 17세기에야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새 품종을 퍼뜨린 것은 그것이 오라녜 공 빌럼(William of Orange, 네덜란드어로 Willem van Oranje), 곧 침묵공 빌럼(Willem de Zwijger)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널리 믿어진다. 빌럼은 당시 오늘날의 네덜란드를 지배하던 스페인에 맞선 16세기 반란의 지도자였다. 저자는 그렇다면 당근은 아마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채소가 될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흔히 좋은 이야기를 방해한다. 이 이야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 같다. 합스부르크 제국과 저지대 나라들의 정치를 떠나, 주황 당근의 개발은 영양 면에서 참으로 의미가 컸다.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오는데, 몸은 이것을 먹으면 비타민 A로 바꾼다. 비타민 A는 피부와 면역 체계, 특히 눈을 좋은 상태로 지키는 데 꼭 필요하므로, 주황 당근은 조상인 흰 당근보다 영양상의 이점을 하나 더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타민처럼 비타민 A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이를 비타민 A 과잉증(hypervitaminosis A)이라고 하며, 무기력 · 흐린 시야 · 뼈의 통증과, 심하면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으윽!)까지 일으킬 수 있다. 초기 유럽의 극지 탐험가 몇몇은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한 물개의 간이나, 주로 물개를 먹고 사는 북극곰의 간을 먹었다가 끔찍하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법

- **Originally, carrots, which come from Central Asia (almost certainly today's Afghanistan), used to be white** : which = 계속적 용법. 관계절은 현재 come(원산지는 지금도 사실), 주절은 used to be(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님). almost certainly = 거의 확실히(완전한 단정은 아님).
- **The now-dominant orange variety was developed in the Netherlands only in the seventeenth century** : 수동태. only + 시간 표현 = 겨우 ~에 와서야. now-dominant = 하이픈으로 만든 복합 형용사(지금 대세인).
-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Dutch promoted the new variety because it was associated with William of Orange** : 가주어 It + is believed + that절 = ~라고 (널리) 믿어진다 — 전언이지 저자의 단정이 아니다. be associated with = ~와 연결되다.
- **That, I guess, would make the carrot arguably the most political vegetable in history** : make + O + C(명사구) = O를 C로 만들다. would = 추측. I guess = 삽입절(저자의 짐작). arguably =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 **Unfortunately, facts often get in the way of a good story: there seems to be no basis for this one** : get in the way of = ~을 방해하다. there seems to be = ~이 있는 것 같다(단정을 피함). this one = this story(오라녜 공 이야기).
- **The orange colour comes from beta-carotene, which the body turns into vitamin A when eaten** : which = turns의 목적어(계속적 용법). turn A into B = A를 B로 바꾸다. when eaten = when it is eaten(접속사 뒤 '주어 + be' 생략).
- **Vitamin A is essential for keeping your skin, immune system and especially eyes in good condition** : be essential for + 동명사. keep + O + 전치사구(in good condition) = O를 ~한 상태로 유지하다.

- **Some early European polar explorers found this out to their horror when they ate the livers of seals … or of polar bears, whose main diet is seals** : find out(이어동사) — 대명사 목적어 this는 find와 out 사이. to one's horror = 끔찍하게도. of polar bears = (the livers) of polar bears.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olar bear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ariety	품종	strain	—
dominant	우세한, 대세인	prevailing	minor
promote	퍼뜨리다, 장려하다	popularize	suppress
be associated with	~와 연결되다	be linked to	—
revolt	반란	rebellion	—
arguably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마	possibly	—
basis	근거	foundation	—
nutritional	영양의	dietary	—
essential	꼭 필요한	vital	unnecessary
immune system	면역 체계	—	—
ancestor	조상	forebear	descendant
sluggishness	무기력	lethargy	vigour
blurred	흐릿한	fuzzy	clear
horror	공포, 경악	dread	delight

내용 일치 당근 = 중앙아시아(거의 확실히 아프가니스탄) · 원래 흰색 → 보라 · 노랑 → 주황(17세기 네덜란드) · 오라녜 공 빌럼 = 침묵공 빌럼 · 16세기 스페인에 맞선 반란의 지도자 · 네덜란드가 그 때문에 주황 당근을 퍼뜨렸다는 것은 '널리 믿어지는' 이야기 · 저자 = 근거가 없는 것 같다 · 주황색 = 베타카로틴 → 몸이 비타민 A로 바꿈 · 비타민 A = 피부 · 면역 체계 · 특히 눈 · 지나치면 독(과잉증: 무기력 · 흐린 시야 · 뼈의 통증 · 심하면 피부 벗겨짐) · 초기 유럽 극지 탐험가 = 물개의 간 · 북극곰(주로 물개를 먹음)의 간. **밑줄 의미** facts often get in the way of a good story =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사실이 받쳐 주지 않는다 / the most political vegetable in history = 저자의 짐작(I guess · would · arguably)이지 사실이 아니다 / 지칭: 59쪽 첫 줄 That = 오라녜 공 때문에 주황 당근을 퍼뜨렸다는 믿음 · this one = this story / 59쪽 ¶1 which = beta-carotene · it(too much of it) = vitamin A · This(is known as) · this(found this out) =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

> **한 줄 요약** 주황 당근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생겼고, 오라녜 공과 엮인 이야기는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를 주므로 영양 면에서는 참으로 의미가 컸다.

7-3 골든라이스와 70개가 넘는 특허 59쪽 ¶2 ~ 60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59쪽 ¶2 ~ 60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9쪽 ¶2 첫 문장	a safe source of vitamin A … because the body regulates the amount of beta-carotene that is converted	까닭 — 일치 함정
▲	59쪽 ¶2 첫 문장	which lets us avoid hypervitaminosis A	let + O + 원형부정사
★	59쪽 ¶2 둘째 문장	in 2000 … Ingo Potrykus (Swiss) and Peter Beyer (German) … two genes … (one from maize and another from a common soil bacterium)	숫자 · 인물 · 국적 — 일치 1순위
★	59쪽 ¶2 셋째 문장	rich in vitamin A, unlike natural rice, and has yellow-gold colour	내용 일치
★	59쪽 ¶3 첫 문장	able to support more people than wheat in an equal land mass, but it is low in vitamin A	비교 — 많은 ↔ 적은 함정
★	59쪽 ¶3 셋째 문장	VAD is estimated to be responsible for up to 2 million deaths, half a million cases of blindness	숫자 · 추정
◆	59쪽 ¶3 넷째 문장	Golden Rice could potentially save millions of people	가능성(could potentially)
★	59쪽 ¶4 첫 문장	Portrykus and Beyer sold the technology to Syngenta	원서 표기 Portrykus(¶2는 Potrykus)
★	59쪽 ¶4 둘째 문장	headquartered in the Swiss city of Basel … mergers and acquisitions stretching back to 1970	회사 목록 · 숫자
★	59쪽 ¶4 셋째 문장	a legitimate partial claim … but it bought the scientists out and gained complete control	문장 삽입의 고리
★	59쪽 ¶4 넷째 문장	to their credit, negotiated hard … to use the technology for free	가난한 농민은 무료
◆	59쪽 ¶5 첫 문장	some found the sale of such a valuable 'public purpose' technology … unacceptable	비판 — 지칭 문항의 바탕
★	59쪽 ¶5~60쪽 첫 줄	over seventy patented technologies, involving thirty-two different owners	숫자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0쪽 첫 줄(59쪽 ¶5 넷째 문장)	Critics retorted that it was really around thirty critical patents	비판자의 말(70 ↔ 30)
★	62쪽 각주 ii	In 2000, Novartis and AstraZeneca … to form Syngenta … in 2016 … ChemChina	연도 — 2000 · 2016

내용

베타카로틴은 몸이 비타민으로 바꾸는 양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비타민 A 과잉증을 피하게 해 주는 안전한 비타민 A 공급원이다. 이 점을 이용해, 2000년 Ingo Potrykus(스위스)와 Peter Beyer(독일)가 이끈 과학자들이 베타카로틴을 생합성하는 유전자 두 개(하나는 옥수수, 하나는 흔한 토양 세균에서)를 쌀에 옮겨 넣어 이른바 골든라이스를 만들었다. 골든라이스는 보통 쌀과 달리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 덕분에 노란 금빛을 띤다. 쌀은 같은 넓이의 땅에서 밀보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영양가가 높지만 비타민 A는 적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쌀을 먹는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쌀 말고는 거의 먹지 못해 비타민 A 결핍(VAD)을 겪는다. VAD는 해마다 최대 200만 명의 죽음, 50만 건의 실명, 수백만 건의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골든라이스는 수백만 명을 죽음과 심각한 질병에서 구할 수도 있다. 골든라이스를 만든 직후 두 과학자는 그 기술을 다국적 농업 · 생명공학 기업 신젠타에 팔았다.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신젠타는 기업판 유전공학이라 할 만한 복잡한 인수 · 합병의 산물로, 그 과정은 19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스위스 제약 회사 세 곳(Ciba · Geigy · Sandoz), 영국의 화학 대기업 ICI, 스웨덴 제약 회사 Astra, 중국 국영 화학 회사 ChemChina가 얽혀 있다(62쪽 각주 ii: 2000년 Novartis와 AstraZeneca의 농업 부문이 합쳐 신젠타가 되었고, 2016년 ChemChina가 인수했다). 신젠타는 유럽연합을 통해 연구에 간접 자금을 댄 덕에 이미 그 기술에 정당한 일부 권리가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몫을 사들여 골든라이스를 완전히 장악했다. 두 과학자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민들이 그 기술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신젠타와 힘써 협상했는데, 이는 그들의 공으로 볼 만하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골든라이스처럼 귀한 '공공 목적' 기술을 이윤을 좇는 기업에 판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과학자들은 골든라이스를 직접 상업화하려 했다면 32명의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가진 70개가 넘는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를 협상해야 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변호했다. 그렇게 많은 특허의 라이선스를 협상하고 그 값을 치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과학자들이 라이선스를 받아야 했던 핵심 특허는 실제로는 30개쯤이었다고 반박했다.

어법

- **Beta-carotene is a safe source of vitamin A which lets us avoid hypervitaminosis A, because the body regulates the amount of beta-carotene that is converted into the vitamin** : let + O + 원형부정사(avoid; to avoid는 오답). which의 선행사 = a safe source of vitamin A. that is converted = 주격 관계대명사 + 수동.
- **Exploiting this fact, in 2000, a group of scientists led by Ingo Potrykus (Swiss) and Peter Beyer (German) transplanted two genes … into rice** : Exploiting = 분사구문(주절 주어 a group of scientists가 이용하며). led by = 과거분사구(~이 이끄는). this fact = 몸이 베타카로틴의 전환량을 조절한다는 사실.
- **Rice is a very nutritious food, able to support more people than wheat in an equal land mass, but it is low in vitamin A** : able to ~ = a very nutritious food를 덧붙여 설명하는 형용사구(being 생략). more people than wheat (does) = 비교 대상은 쌀과 밀.
- **VAD is estimated to be responsible for up to 2 million deaths, half a million cases of blindness and millions of cases of xerophthalmia** : be estimated to V =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확정된 수치가 아님). up to = 최대. be responsible for = ~의 원인이다.
- **Syngenta … itself is a result of the corporate equivalent of genetic engineering at its most complex** : itself = 주어를 강조하는 재귀대명사(빼도 문장 성립). at its most + 형용사 = 가장 ~한 상태의.

- **Syngenta already had a legitimate partial claim on the technology ..., but it bought the scientists out and gained complete control over Golden Rice** : buy out = (지분 · 권리를) 사들이다 — 명사 목적어 the scientists가 buy와 out 사이에 왔다. bought와 gained가 and로 병렬.
- **The scientists defended their decision by arguing that they would have had to negotiate licences for over seventy patented technologies ... if they were to commercialize Golden Rice themselves** : by + 동명사 = 수단. would have had to + V =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해야 했을 것이다. if + 주어 + were to V = 가정의 조건(~하려 했다면). themselves = 강조(스스로).
- **Critics retorted that it was really around thirty critical patents that the scientists needed to license** : It is ~ that 강조 구문(강조되는 것 = around thirty critical patents). retort that = ~라고 반박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gulate	조절하다	control	—
convert	바꾸다	transform	—
exploit	이용하다	make use of	—
transplant (v.)	옮겨 넣다	transfer	—
nutritious	영양가 높은	nourishing	—
deficiency	결핍	shortage	sufficiency
debilitating	쇠약하게 만드는	crippling	—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어쩌면	possibly	—
acquisition	인수	takeover	—
legitimate	정당한	lawful	illegitimate
negotiate	협상하다	bargain	—
commercialize	상업화하다	market	—
retort	반박하다	counter	—

내용 일치 베타카로틴 = 몸이 전환량을 조절 → 안전한 공급원 · 2000년 · Potrykus(스위스) · Beyer(독일) · 유전자 2개(옥수수 1 · 토양 세균 1) · 골든라이스 = 비타민 A가 풍부, 노란 금빛 · 쌀 = 같은 땅에서 밀보다 많은 사람을 먹임, 비타민 A는 적음 · VAD = 해마다 최대 200만 명 사망 · 50만 건 실명 · 수백만 건 안구건조증(추정) · 신젠타 = 다국적 농업 · 생명공학 · 바젤 · 1970년부터의 합병(Ciba · Geigy · Sandoz · ICI · Astra · ChemChina) · EU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일부 권리 → 과학자들의 몫을 사들여 완전 장악 · 과학자들 = 가난한 농민 무료 사용을 위해 협상 · 70개 넘는 특허 · 32명의 소유자 ↔ 비판자: 핵심은 30개쯤. **지칭** 59쪽 ¶2 this fact = 몸이 베타카로틴의 전환량을 조절한다는 사실 / 59쪽 ¶3 it(it is low) = rice / 59쪽 ¶4 itself = Syngenta · it(it bought) = Syngenta · their credit = 두 과학자의 / 59쪽 ¶5~60쪽 첫 줄 their decision · they(would have had to · pointed out · did not have) = 두 과학자 · Critics = 매각을 비판한 사람들 · it was really around thirty = 강조 구문의 it.

> **한 줄 요약** 2000년 베타카로틴 유전자를 넣어 만든 골든라이스는 VAD로부터 수백만 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70개가 넘는 특허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기술을 신젠타에 팔았다.

7-4 특허라는 양날의 칼, 그리고 특허 풀 60쪽 ¶1 ~ 61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60쪽 ¶1 ~ 61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0쪽 ¶1 첫 문장	there were just too many patents involved for individual scientists to handle	저자의 결론 · too ~ for … to
★	60쪽 ¶1 둘째 문장	after two decades, still waiting for a major roll-out due to controversies surrounding GMOs	내용 일치
★	60쪽 ¶2 첫 문장	a government grant of a monopoly … over a fixed term in return for the inventor revealing the technology	특허의 정의 · 'patent' = obvious
◆	60쪽 ¶2 둘째 문장	A patent is a double-edged sword	요약문 1순위
★	60쪽 ¶2 셋째 문장	twenty years these days, although it used to be quite a bit shorter	숫자
▲	60쪽 ¶2 셋째 문장	which will enable them to charge whatever the market will bear	enable + O + to V · whatever
▲	60쪽 ¶2 넷째 문장	insofar as it makes it impossible for other people to use the technology	가목적어 it
★	60쪽 ¶3 첫 문장	the most important input in the production of knowledge is knowledge	빈칸 1순위
★	60쪽 ¶3 둘째 문장	'interlocking patents', also labelled 'patent thicket' by … Joseph Stiglitz	용어 · 인물
★	60쪽 ¶4 둘째~셋째 문장	paraly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sewing machine industry … everyone … was suing everyone else	제목 문항의 바탕
★	60쪽 ¶4 넷째 문장	a 'patent pool' of 1856 … known as the Sewing Machine Combination	숫자 · 서답형
★	60쪽 ¶4 다섯째 문장	DVDs (MPEG-2 …) and mobile phones (RFID …)	업계가 만든 풀
◆	60쪽 ¶5 첫 문장	that supposed supreme defender of patentee rights	저자의 비꼼(supposed)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0쪽 ¶5 둘째 문장	In 1917 … 'recommended' (read forced) … the Wright Company … and Curtiss	숫자 · 무관한 문장 문항의 바탕
★	61쪽 첫 줄(60쪽 ¶5 셋째 문장)	the US Navy, which had actually almost entirely funded the early researches on the semi-conductor	1960년대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 페어차일드

내용

그래도 논점은 남는다. 관련된 특허가 너무 많아서 개인 과학자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큰 다국적 기업이 특허 문제를 처리했는데도, 골든라이스는 GMO(유전자 변형 생물) 전반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본격적인 보급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특허란 새 기술의 발명자가 그 기술을 공개하는(곧 'patent', 다시 말해 명백하게 만드는) 대가로, 정부가 그 발명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독점을 주는 것이다. 지식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로 보면 특허는 양날의 칼이다. 특허는 (충분히 새로운) 생각을 해낸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요즘은 20년, 예전에는 꽤 짧았다) 그 생각을 쓸 독점권을 약속하여 새 지식의 창출을 장려한다. 그 독점권 덕에 발명자는 경쟁을 걱정하지 않고 시장이 감당하는 만큼 값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독점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새 지식을 만드는 데 쓰지 못하게 하는 만큼 새 지식의 창출을 막기도 한다. 문제는 지식을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투입물이 지식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관련 지식이 많이 특허로 묶여 있으면 골든라이스의 경우처럼 새 지식을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저자는 이를 '맞물린 특허(interlocking patents)'의 문제라고 부르며, 저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특허 덤불(patent thicket)'이라고 불렀다. 맞물린 특허의 문제는 새롭지 않다. 19세기 중반 재봉틀 산업에서는 업체들의 기술이 서로 밀접해 모두가 모두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고, 이 때문에 기술 발전이 마비되었다. 이 교착 상태는 1856년의 '특허 풀(patent pool)'로 풀렸다. 업계의 회사들이 핵심 기술의 특허를 모두 공유하고 새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이를 Sewing Machine Combination이라 불렀다. DVD(MPEG-2), 휴대전화(RFID) 등 업계가 만든 특허 풀의 예가 많다. 때로는 정부, 특히 특허권자 권리의 최고 수호자라는 미국 정부가 개입해 특허 풀을 만들었다. 1917년 공중전이 중요해지던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준비하면서, 미국 정부는 당시 가장 큰 두 항공기 제조사인 Wright Company(라이트 형제가 세움)와 Curtiss를 포함한 항공기 산업에 특허 풀을 '권고'했다(실은 강제했다). 1960년대에는 초기 반도체 연구에 사실상 거의 모든 자금을 댄 미 해군이 당시 선두 반도체 제조사인 Texas Instruments와 Fairchild에 특허 풀을 부과했다.

어법

- **there were just too many patents involved for individual scientists to handle** : too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 너무 ~해서 (의미상 주어가) …할 수 없다. involved = patents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관련된).
- **despite the patent issue being taken care of by a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 (MNC), Golden Rice is … still waiting for a major roll-out** : despite + 의미상 주어(the patent issue) + 동명사 수동(being taken care of). despite 뒤에는 절이 올 수 없다(despite the issue was ~는 오답).
- **A patent is a government grant of a monopoly to the inventor of a new technology over a fixed term in return for the inventor revealing the technology** : in return for + 의미상 주어(the inventor) + 동명사(revealing) = 발명자가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over a fixed term = 정해진 기간 동안.
- **It encourages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by promising the inventors … that they will get the monopoly right …, which will enable them to charge whatever the market will bear** : promise + 간접목적어 + that절. which = 앞의 독점권(또는 그것을 얻는 일)을 받는 계속적 용법. enable + O + to V. whatever = 복합관계대명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 **it discourages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insofar as it makes it impossible for other people to use the technology concerned** : insofar as = ~하는 한에서. make + it(가목적어) + 형용사 + for + 의미상 주어 + to V(진목적어). concerned = 명사 뒤에서 '해당하는'.
- **everyone in the industry was suing everyone else for patent infringement, as their technologies were closely related, thus halting the advancement of technologies** : sue A for B = B로 A를 고소하다. as = 이유. thus + 분사 = 그 결과 ~하게 되다(결과의 분사구문).
- **a 'patent pool' of 1856, in which the companies in the industry agreed to share the patents in all the key technologies and concentrate on developing new technologies**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 'patent pool'). agree to share and (to) concentrate 병렬. concentrate on + 동명사.
- **the US Navy, which had actually almost entirely funded the early researches on the semi-conductor, imposed a patent pool on Texas Instruments and Fairchild** : had funded = 과거완료(풀을 부과한 1960년대보다 앞선 일). impose A on B = B에 A를 부과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oll-out	(신제품의) 출시, 보급	launch	—
controversy	논란	dispute	consensus
grant (n.)	(권리의) 부여	award	—
monopoly	독점	exclusive control	competition
double-edged	양날의	two-sided	—
novel (a.)	새로운	original	conventional
input	투입물	resource	output
interlocking	서로 맞물린	interconnected	separate
eminent	저명한	renowned	obscure
paralyse	마비시키다	cripple	—
infringement	(권리의) 침해	violation	—
stalemate	교착 상태	deadlock	breakthrough
intervene	개입하다	step in	stand aside
impose A on B	B에 A를 부과하다	force	—

내용 일치 개인 과학자가 감당하기엔 특허가 너무 많음 · 다국적 기업이 특허 문제를 처리했지만 20년째 GMO 논란으로 보급 대기 · 특허 = 기술 공개의 대가로 정부가 주는 일정 기간의 독점('patent' = 명백한) · 지금은 20년(예전엔 꽤 짧음) · 양날의 칼(장려 · 방해) · 지식 생산의 가장 중요한 투입물 = 지식 · 'interlocking patents'(저자) = 'patent thicket'(스티글리츠) · 19세기 중반 재봉틀 업계의 소송전 → 1856년 특허 풀(Sewing Machine Combination) · DVD(MPEG-2) · 휴대전화(RFID) · 1917년 미국 정부가 항공기 산업에 강제(Wright Company · Curtiss) · 1960년대 미 해군(초기 반도체 연구 자금을 거의 전부 댐) → Texas Instruments · Fairchild. **밑줄 의미** a double-edged sword = 지식 창출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막기도 한다 / patent thicket = 특허가 덤불처럼 얽혀 새 지식을 개발하기 어렵고 비싸진 상태 / that supposed supreme defender of patentee rights = 특허권의 수호자라는 미국 정부조차 특허 풀을 강제했다는 비꼼 / 'recommended' (read forced) = 말로는 권고, 실제로는 강제 / 지칭: 60쪽 ¶1 That is another story = GMO 논란 / 60쪽 ¶2 It · it = a patent · them(enable them) = 발명자들 / 60쪽 ¶4 It(paralysed) = 맞물린 특허의 문제.

한 줄 요약 특허는 지식 창출을 장려하면서 막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어서, 지식이 지식을 낳는 세계에서는 특허가 맞물려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고, 업계나 정부는 특허 풀로 이 교착을 풀어 왔다.

7-5 특허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61쪽 ¶1 ~ 62쪽 ¶2

원문 위치 원서 61쪽 ¶1 ~ 62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1쪽 ¶1 첫 문장	down to the gene level … (over seventy patents contained in a grain of rice!)	문제의 악화 · 숫자
◆	61쪽 ¶1 둘째 문장	you need an advance army of lawyers to clear the patent thicket	비유 · 서답형 단어
★	61쪽 ¶1 셋째 문장	once a powerful spur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s turning into a major obstacle to it	주장 · 통합 사고 자리
★	61쪽 ¶2 첫 문장	shorten the life span of all patents	주장 1순위
★	61쪽 ¶2 둘째 문장	late eighteenth century … fourteen years (double the length of apprenticeship at the time)	숫자 — True/False 1순위
★	61쪽 ¶2 셋째 문장	twenty years, with the pharmaceutical industry getting up to eight years of additional protection	숫자 · with + O + 분사
▲	61쪽 ¶2 다섯째 문장	Nor is there any theory saying that …	Nor 도치
▲	61쪽 ¶2 여섯째 문장	If we shortened patent life, knowledge would get released …, dulling the innovation-hampering edge of the patent sword	가정법 과거 · 양날의 칼 되받기
★	61쪽 ¶3 둘째 문장	a one-off reward (proportional to its estimated usefulness) … public property as soon as it is invented	상금 제도의 정의 · 빈칸 후보
★	61쪽 ¶3 넷째 문장	John Harrison … 1760s … marine chronometer … £20,000 … 1714	숫자 · 인물 — 서답형
★	61쪽 ¶3 다섯째 문장	In 1809, Nicolas Appert … glass jars rather than tin cans	불일치 1순위
◆	61쪽 ¶3 여섯째 문장	he is supposed to have said (although this was more probably Frederick the Great of Prussia)	전언 · 추측 — 단정 금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1쪽 ¶4~62쪽 첫 줄	monopoly over nothing is still nothing	밑줄 의미 1순위
★	62쪽 ¶1 첫~셋째 문장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force patentees to license … in 2001 … autumn of 2021 … Covid-19	순서 배열 · 숫자
★	62쪽 ¶2	Like all institutions … however outrageous … the ludicrous idea that carrots could be orange	요지 · 첫머리 되받기

내용

맞물린 특허의 문제는 최근 훨씬 나빠졌다. 골든라이스의 경우(쌀 한 톨에 70개가 넘는 특허!)에서 보듯 점점 더 많은 아주 작은 지식이 유전자 수준까지 특허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자들이 큰 기술 진보를 이루려면 먼저 특허 덤불을 치울 변호사 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때 기술 혁신의 강력한 자극이던 특허 제도가 혁신의 큰 걸림돌로 변해 가고 있으므로, 저자는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한 가지 방법은 모든 특허의 수명을 줄이는 것이다. 18세기 말 유럽에서 처음 생겼을 때 특허는 대개 14년(당시 도제 기간의 두 배) 동안 유지되었다. 오늘날 특허 보호는 20년이고, 제약 업계는 임상 시험에 드는 추가 시간과 시험 자료 보호를 근거로 최대 8년을 더 받는다. 20년(또는 28년)이 최적의 보호 기간이라는 경제 이론은 없다. 20년이 14년이나, 더 나아가 10년보다 낫다는 이론도 없다. 특허 수명을 줄이면 지식이 더 빨리 공공의 영역으로 풀려나 특허라는 칼의, 혁신을 가로막는 날이 무뎌질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상금 제도다. 발명자가 (예상되는 유용성에 비례하는) 일회성 보상을 받고, 기술은 발명되자마자 공공의 재산이 된다. 상금 제도는 과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 몇몇을 낳았다. 바다에서 경도를 재 정확한 항해를 가능하게 한 존 해리슨의 해양 크로노미터(1760년대)는 1714년 영국 의회가 내건 2만 파운드의 상금에 부분적으로 응한 것이었다. 1809년 프랑스의 제과사이자 양조업자인 니콜라 아페르는 '통조림' 기술을 발명했는데(양철 깡통이 아니라 유리병을 썼으니 '병조림'에 가깝다 — 「Beef」 참조), 이는 군대를 제대로 먹이고 싶었던 나폴레옹이 약속한 상금에 응한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군대는 배로 행군한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이 말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상금 제도가 오히려 혁신가에게 더 큰 이익(그래서 혁신할 더 큰 동기)을 줄 수도 있다. 누군가 더 나은 기술을 들고 나와 자기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고 시장을 무너뜨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특허 독점은 남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독점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공공 목적 기술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가 낮은 가격에 라이선스를 주도록 강제하는 국제 협정을 둘 수도 있다. 골든라이스의 경우 신젠타는 기술을 사들인 직후인 2001년 스스로 상업적 이익을 포기했다. 저자가 이 장을 쓰던 2021년 가을에는 제약 회사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특허 라이선스를 개발도상국에 낮은 가격에, 또는 무료로 주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녹색 에너지와 기후 변화 적응 기술(예: 바닷물 담수화)에도 같은 일을 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적어도 남은 시간 안에는 이런 기술을 만들 능력이 없다(「Lime」 참조). 모든 제도처럼 우리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특허 제도를 쓴다. 그렇지 않게 되면 고친 모습이 처음에는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주황 당근을 먹는 것은 17세기의 어느 네덜란드 사람이 당근이 주황색일 수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어법

- **In this way, the patent system, once a powerful spur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s turning into a major obstacle to it** : once ~ = 주어를 덧붙여 설명하는 동격 명사구(한때 ~였던). turn into = ~으로 변하다(현재진행 = 지금 변해 가는 중). it = technological innovation.
- **When first developed in Europe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patents usually lasted for fourteen years (double the length of apprenticeship at the time)** : When (they were) first developed = 접속사 뒤 '주어 + be' 생략. double the length of = ~의 두 배 길이(double + the + 명사 어순).

- **Today, patent protection lasts for twenty years, with the pharmaceutical industry getting up to eight years of additional protection** : with + O + 현재분사 = O가 ~하면서(부대상황). up to = 최대 ~까지.
- **Nor is there any theory saying that twenty years is better than fourteen years or, for that matter, ten years** : 부정어 Nor가 문장 앞 → 도치(is there). saying = theory를 꾸미는 현재분사. for that matter = 더 나아가.
- **If we shortened patent life, knowledge would get released into the public domain more quickly, dulling the innovation-hampering edge of the patent sword** : 가정법 과거(If + 과거, would + 원형) = 현재 · 미래에 대한 가정. get + p.p. = 수동. dulling = 결과의 분사구문. 60쪽 ¶2의 '양날의 칼'을 되받은 표현.
- **'an army marches on its stomach', he is supposed to have said (although this was more probably Frederick the Great of Prussia)** : be suppose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과거 일에 대한 전언). more probably = 저자의 추측. 둘 다 사실로 단정하면 안 된다.
- **as she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someone coming along with a better technology that makes her technology obsolete and destroys her market** : worry about + 의미상 주어(someone) + 동명사(coming).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better technology), makes와 destroys가 병렬. make + O + 형용사(obsolete).
- **When this stops being the case, we should modify the institution, however outrageous the modified form may seem at first** : stop + 동명사 = ~하던 것을 멈추다(stop to V = ~하려고 멈추다와 다름). however + 형용사 + S + V = 아무리 ~하더라도. this = 이익이 비용보다 큰 상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nute (a.)	아주 작은	tiny	huge
spur (n.)	자극, 박차	stimulus	deterrent
obstacle	장애물	barrier	aid
hamper	방해하다	hinder	facilitate
proportional	비례하는	in proportion	disproportionate
obsolete	쓸모없게 된	outdated	current
outrageous	터무니없는	shocking	reasonable
ludicrous	우스꽝스러운	absurd	sensible

내용 일치 유전자 수준까지 특허 · 쌀 한 톨에 70개 넘는 특허 · 변호사 군단 · 한때 혁신의 자극 → 지금은 걸림돌 · 처방 1 = 특허 수명 단축(18세기 말 유럽 14년 = 당시 도제 기간의 두 배 → 지금 20년, 제약은 최대 8년 더 · 20년이 최적이라는 이론은 없음) · 처방 2 = 상금 제도(예상 유용성에 비례하는 일회성 보상, 발명 즉시 공공 재산) · 해리슨 = 1760년대 해양 크로노미터, 1714년 영국 의회의 2만 파운드 · 아페르 = 1809년 '통조림'(유리병), 나폴레옹의 상금 · '군대는 배로 행군한다' = 나폴레옹이 했다고 하나 프리드리히 대왕일 가능성이 더 큼 · 빠른 분야에서는 상금이 더 큰 이익일 수도(may) · 처방 3 = 공공 목적 기술의 강제 라이선스 국제 협정 · 신젠타 2001년 상업적 이익 포기 · 2021년 가을 코로나19 논쟁 · 녹색 에너지 · 기후 적응 기술(담수화) · 제도는 비용이 이익보다 크면 고친다. **밑줄 의미** an advance army of lawyers = 연구 전에 특허 문제부터 풀 변호사 무리가 필요함 / dulling the innovation-hampering edge of the patent sword = 특허의 혁신 방해 기능을 무디게 함 / monopoly over nothing is still nothing = 시장이 없으면 독점도 무가치 / the ludicrous idea that carrots could be orange = 우스꽝스러워 보이던 생각도 결국 당연해짐 / 지칭: 61쪽 ¶4 she · her = 혁신가(the innovator) / 62쪽 ¶1 it(interest in it · bought) = Golden Rice(의 기술) · these technologies = 녹색 에너지 · 기후 적응 기술 / 62쪽 ¶2 this(stops being the case) = 이익이 비용보다 큰 상태.

> **한 줄 요약** 특허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었으니 특허 제도를 고쳐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7 CARROT]

범위	Carrot (원서 PDF 58~62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e way to make today's patent system better is to cut the life of every patent. When patents first appeared in late-1700s Europe, they normally ran for fourteen years, twice the length of an apprenticeship then. Now they last twenty years, and drug makers can win up to eight more on account of clinical trials. Yet no economic theory shows twenty years to be the best term, or twenty-eight for that matter, or even proves twenty better than fourteen, or ten. Shorter patents would let knowledge enter the public domain sooner, blunting the patent sword's innovation-blocking edge.

① Drug makers need longer patent protection.
② Twenty years is the ideal length for a patent.
③ Patents should be given shorter lives.
④ Apprenticeships should last as long as patents.
⑤ Economic theory should decide patent term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terlocking patents are nothing new. In the mid-1800s they brought the sewing-machine business's progress to a standstill. Because the firms' technologies were so closely related, every company was taking every other company to court for patent infringement, and technology stopped advancing. The way out of this deadlock was a 'patent pool' set up in 1856 under the name Sewing Machine Combination: the firms agreed to pool their patents on every key technology and to focus on creating new ones. Industries have formed many other pools of their own, such as those for DVDs (MPEG-2) and for mobile phones (RFID).

① Sharing Patents to Break a Deadlock
② How the Sewing Machine Was Invented
③ Governments Force Firms to Share
④ Lawsuits: The Engine of Innovation
⑤ Why DVDs Replaced Sewing Machines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patent system once did much to spur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it is now turning into a serious barrier to it. What should be done follows from a general principle. We keep the patent system, like any institution, because it gives us more than it costs us. Once that stops being true, the institution ought to be changed, however outrageous the new version may look at first. In the end, we eat orange carrots today only because a Dutch pers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e up with the absurd notion that a carrot might be orange.

① Patents have always blocked innovation.
② Orange carrots beat white ones for health.
③ Institutions should keep their first form.
④ Institutions that cost more than they give should change.
⑤ The Dutch invented the patent system.

4. 밑줄 친 facts often get in the way of a good stor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arrots originated in Central Asia, and almost certainly in present-day Afghanistan, and were white to begin with. Purple and yellow types followed, and the orange carrot that dominates today was bred by the Dutch as late as the 1600s. Many believe the Dutch championed it because it was linked with William of Orange, or William the Silent, who led the sixteenth-century revolt against Spanish rule. If so, the author guesses, the carrot could arguably be history's most political vegetable. Sadly, facts often get in the way of a good story; no evidence seems to exist for this tale.

① the Dutch hid the carrot's true origin
② the appealing tale seems to have no evidence
③ politics matters more than nutrition
④ historians proved the tale true
⑤ the carrot's colour honoured Spain

5. 밑줄 친 monopoly over nothing is still nothing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fields where technology moves fast, the author argues, a prize may actually bring an innovator bigger profits, and therefore a bigger incentive to innovate, than a patent would. The reason is that a prize winner collects a one-off reward and need not fear that somebody will turn up with a better technology. A patent holder enjoys no such peace of mind. If a rival comes up with something superior, her technology becomes obsolete and the market for it is destroyed. In that case she may keep her patent, yet monopoly over nothing is still nothing.

① a prize is worth less than a patent in the long run
② monopolies never produce anything useful
③ inventors should hand their patents to the public
④ a rival's technology is always better than the original
⑤ a patent is worthless once its market has disappeared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two scientists defended ① their decision to sell Golden Rice. Had they tried to commercialize it on their own, they explained, ② they would have needed licences for more than seventy patented technologies owned by thirty-two different parties. Bargaining over and paying for that many licences, they said, was simply beyond ③ them. Their critics were unimpressed: ④ they replied that only about thirty of the patents were truly critical. Even so, the basic point stands. The patents involved were far too many for individual researchers like ⑤ them to deal with. Sadly, although a big multinational took care of the patent problem, Golden Rice has yet to be widely rolled out two decades later, because of the wider controversy over GMO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Beta-carotene supplies vitamin A safely, since the body controls how much of it becomes the vitamin. Using this, a team headed by the Swiss Ingo Potrykus and the German Peter Beyer created Golden Rice in 2000 by inserting into rice two genes able to make beta-carotene, taken from maize and from a widespread soil bacterium respectively. Unlike ordinary rice, the yellow-gold grain is full of vitamin A. Rice is very nutritious and feeds more people than wheat on the same area of land, but it lacks vitamin A. In the rice-eating countries of Asia and Africa, the poor eat little else, so they develop vitamin A deficiency (VAD), thought to cause as many as 2 million deaths and 500,000 cases of blindness a year.

① 몸은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는 양을 조절하지 못한다.
② 골든라이스는 스위스인과 독일인 과학자가 이끈 연구진이 2000년에 만들었다.
③ 골든라이스에 넣은 두 유전자는 모두 옥수수에서 가져왔다.
④ 쌀은 같은 넓이의 땅에서 밀보다 적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⑤ 비타민 A 결핍으로 해마다 최대 50만 명이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A prize system is another way to keep patents from blocking progress. The inventor gets a single reward in proportion to the invention's expected usefulness, and the technology becomes public property the moment it is invented. John Harrison's marine chronometer of the 1760s, which made it possible to measure longitude at sea, came about partly in answer to a £20,000 prize the British Parliament had offered in 1714. Nicolas Appert, a confectioner and brewer from France, invented 'canning' in 1809, answering a prize offered by Napoleon, who wanted his army well fed. Since Appert used glass jars, with tin cans coming later, 'bottling' would be more accurate. Napoleon supposedly said that 'an army marches on its stomach', though Prussia's Frederick the Great more probably said it.

① 상금 제도에서는 기술이 발명되자마자 공공의 재산이 된다.
② 해리슨의 해양 크로노미터는 바다에서 경도를 잴 수 있게 했다.
③ 아페르는 양철 깡통을 써서 통조림 기술을 만들었다.
④ 영국 의회는 1714년에 2만 파운드의 상금을 내걸었다.
⑤ '군대는 배로 행군한다'는 말은 프리드리히 대왕이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On reflection, the line between savoury and sweet depends a good deal on culture. Avocado is a savoury food for most people, whereas Brazilians often have ① theirs as a dessert, with sugar. Likewise, tomato is savoury in most cuisines, but in the Korea of the author's childhood it ② was treated as something sweet, or at least sweetish. People ate it as a fruit, which in botanical terms it is, adding sugar whenever it was not sweet ③ enough. Older people often called it 'one-year persimmon', since it looks somewhat like a persimmon but, unlike that tree fruit, ④ grows on an annual plant. Even after years in the UK, ⑤ which tomatoes were firmly savoury, the author was still shaken by the title of a 1991 American film, Fried Green Tomatoe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the author first arrived in Britain, carrot cake was one of the many things he found (A) [strange / strangely]. To him, carrot belonged in savoury food: pickled with oriental cabbage for kimchi, boiled with potatoes and onions in Japanese-style karé, fried for japchae along with other vegetables, or tossed into a salad. It was never (B) [used / using] in a sweet dish. Never. Today carrot cake is one of his favourite (C) [desserts / dessert], but at first it seemed as odd as a Brussels sprouts crumble would seem to a Brit, or a broccoli pie to an American. Such a cake simply did not exist in his world.

	(A)	(B)	(C)
①	strangely	used	desserts
②	strange	used	desserts
③	strange	using	desserts
④	strange	using	dessert
⑤	strangely	using	desser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Politics aside, the orange carrot's arrival was truly ① important for nutrition. It owes its colour to beta-carotene, which our bodies ② convert into vitamin A once it is eaten. Vitamin A keeps the skin, the immune system and above all the eyes healthy, so the orange carrot offered an ③ extra nutritional advantage over its white ancestor. Like most vitamins, however, vitamin A is ④ harmless in large amounts. Too much of it causes hypervitaminosis A, which can bring sluggishness, blurred vision, aching bones and, at worst, peeling skin. A number of early European explorers of the polar regions learned this to their ⑤ horror after eating the livers of seals, which are packed with vitamin A, or those of polar bears, which live mainly on seal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Why do patents hamper new ideas? The difficulty is that the most vital ingredient in producing knowledge is _____. So if many of the relevant pieces of knowledge are patented, creating anything new becomes costly, as the Golden Rice case shows. The author's name for this is 'interlocking patents'; the well-known economist Joseph Stiglitz has called it a 'patent thicket'. Lately the problem has grown far worse, because ever tinier pieces of knowledge, right down to individual genes, are being patented; a single grain of Golden Rice contains more than seventy patents. Today, scientists who hope to achieve a major technological advance must first send in a whole army of lawyers to cut through the thicket.

① existing knowledge itself
② large amounts of capital
③ a team of skilled lawyers
④ government research funding
⑤ cheap and plentiful land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Even so, it bought the two scientists out and took complete control of Golden Rice.

Not long after creating Golden Rice, Potrykus and Beyer handed the technology over to Syngenta, a Basel-based agribusiness multinational. (①) The company itself grew out of a string of mergers and acquisitions dating from 1970 that took in three Swiss drug makers, Britain's ICI, Sweden's Astra and China's state-owned ChemChina. (②) Syngenta was formed in 2000, and in 2016 ChemChina took it over. (③) Having indirectly funded the research via the EU, Syngenta already held a legitimate claim to part of the technology. (④) To their credit, the two scientists drove a hard bargain over the buy-out, so that poor farmers in the developing world could use the technology free of charge. (⑤) Still, some critics thought it wrong to sell so valuable a 'public purpose' technology to a company run for profit.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Patent pools have not always been set up by industries themselves. Governments, the US government above all, have sometimes stepped in to create them, though it is supposedly the greatest champion of patent holders' rights. ① In 1917, as the US got ready to join the First World War, Washington 'recommended', in effect forced, a pool on the aircraft industry. ② The pool covered the two largest aircraft makers of the day, Curtiss and the Wright Company. ③ The orange carrot, the most common kind today, was first developed in the Netherlands in the 1600s. ④ Later, in the 1960s, the Navy, having paid for almost all the early research on semi-conductors, forced Texas Instruments and Fairchild into a pool. ⑤ These two firms were then the leading makers of semi-conductors.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also suggests an international agreement forcing patent holders to license their technologies cheaply whenever these are judged to be needed to develop public purpose technologies.

(A) Given the climate crisis, he argues, what is being debated for these medicines must likewise apply to green energy and to other technologies for adapting to climate change, since developing countries cannot create them in the time we have left.

(B) A more recent case was under debate in autumn 2021, as the author wrote: should drug firms be made to license their patented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to developing countries cheaply, or even free?

(C) Golden Rice offers a precedent of sorts: soon after buying the technology, Syngenta voluntarily dropped its commercial interest in the rice, in 2001.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 patent is a monopoly granted by a government, for a fixed period, to someone who invents a new technology. In exchange, the inventor must disclose how the technology works, making it 'patent', which means obvious. Where knowledge is concerned, a patent cuts both ways. On one side, anyone who comes up with a sufficiently novel idea is promised the sole right to use it for a while, twenty years nowadays, though the term used to be considerably shorter, and can set prices as high as buyers will accept without fearing rivals. On the other side, for as long as the monopoly lasts, nobody else may use that technology to develop new knowledge.

→ A patent (A) _____ the creation of knowledge by promising inventors a temporary monopoly, but it also (B) _____ it by keeping others from using the protected technology.

① encourages ..... hinders
② encourages ..... speeds up
③ discourages ..... hinders
④ delays ..... promotes
⑤ discourages ..... promote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Carrots originated in Central Asia, almost certainly in present-day Afghanistan, and were white at first; the orange kind was bred in the Netherlands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2000, a team led by Ingo Potrykus and Peter Beyer created Golden Rice and soon sold it to Syngenta, which gave up its commercial interest in 2001. Interlocking patents are an old problem: the sewing machine industry formed a patent pool in 1856, and in 1917 the US government forced one on aircraft makers. Europe's first patents, from the later 1700s, usually lasted fourteen years; today they last twenty. Prizes have also worked: John Harrison invented the marine chronometer in the 1760s, and Nicolas Appert invented canning in 1809.

<QUIZ>

(1) In which country was the orange carrot developed?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century was the orange carrot developed?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was Golden Rice created?
Answer for (3): _____

(4) To which company was the Golden Rice technology sold?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did the sewing machine industry form a patent pool?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patents in Europe usually lasted twenty years when they first appeared?
Answer for (6): _____

(7) Who invented the marine chronometer?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seventeenth century	N. Basel
B. Afghanistan	O. 1714
C. sixteenth century	P. Fairchild
D. 2001	Q. Joseph Stiglitz
E. 1856	R. False
F. Spain	S. John Harrison
G. 1917	T. eighteenth century
H. Ingo Potrykus	U. 1809
I. True	V. Curtiss
J. ChemChina	W. 2000
K. 1970	X. Napoleon
L. the Netherlands	Y. Syngenta
M. Nicolas Appert	Z. 2021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내가 처음 영국에 왔을 때 이상하다고 여긴 것 가운데 하나는 당근 케이크였다. (find + O + 형용사)

02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토마토는 단 것으로 여겨졌다. (be considered + C)

03 토마토가 분명히 짭짤한 음식인 영국에서 몇 년을 산 뒤에도 그 영화를 보는 것은 여전히 나를 당황하게 했다. (관계부사 where / 가주어 it)

04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새 품종을 퍼뜨렸다고 널리 믿어진다. (It is believed that)

05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오는데, 몸은 그것을 먹으면 비타민 A로 바꾼다. (계속적 which / when (it is) eaten)

06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비타민 A 과잉증을 피하게 해 주는 안전한 공급원이다. (let + O + 원형부정사)

07 비타민 A 결핍은 해마다 최대 200만 명의 죽음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be estimated to V)

08 관련된 특허가 너무 많아서 개인 과학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too ~ for ... to V)

09 특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make it + 형용사 + for ... to V)

10 20년이 14년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론도 없다. (Nor + 도치)

11 특허 수명을 줄인다면 지식은 더 빨리 공공의 영역으로 풀려날 것이다. (가정법 과거 / get + p.p.)

12 나폴레옹은 '군대는 배로 행군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be supposed to have p.p.)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당근 케이크의 재료	
저자가 당근을 쓰던 음식	
아보카도를 디저트로 먹는 사람들	
토마토의 옛 한국 이름 / 그 까닭	
저자를 당황하게 한 영화	
당근의 원산지 / 원래 색	
주황 당근이 개발된 곳 · 때	
주황 당근과 엮이는 인물 / 이야기의 근거	
비타민 A 과잉증의 증상	
골든라이스를 만든 해 / 이끈 과학자	
쌀에 넣은 유전자 2개	
VAD의 피해(해마다, 추정)	
기술을 산 회사 / 본사	
상업화에 필요했던 특허(과학자) / 비판자의 반박	
'특허 덤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	

항목	답
재봉틀 업계의 특허 풀	
정부가 강제한 특허 풀	
특허 기간: 처음 / 오늘날	
해양 크로노미터 / 상금	
통조림(병조림) 기술	
신젠타가 상업적 이익을 포기한 해 / 이 장을 쓴 때	

4-3. 통합 사고 문제 — 2장과 7장을 잇는 자리

문제

2장에서 저자는 지난 150년 동안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으로 된 것은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신성불가침이라 여기는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제한했기 때문이며, 사회는 민주 헌법 · 인권법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노예제 금지 · 파업권 보호 · 복지국가 같은 수많은 법으로 그 자유를 제한했다고 썼다(32쪽 ¶3). 7장에서 저자는 특허가 정부가 발명자에게 주는 독점이라고 정의하고(60쪽 ¶2), '특허권자 권리의 최고 수호자'라는 미국 정부조차 특허 풀을 강제했으며(60쪽 ¶5~61쪽 첫 줄), 공공 목적 기술에 필요하면 특허권자가 낮은 가격에 라이선스를 주도록 강제하는 국제 협정을 둘 수 있다고 썼다(62쪽 ¶1). 또 모든 제도처럼 특허 제도도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면 바꿔야 한다고 했다(62쪽 ¶2). 이를 바탕으로, 아래 61쪽 ¶1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r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2장과 7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장 또는 7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걸림돌이 된 특허 제도: In this way, the patent system, once a powerful spur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s turning into a major obstacle to it. We must _____ it.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8 BEEF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Beef」 (원서 PDF 64~71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7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자유무역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이 장은 소고기(또는 칠면조나 대체육)에 토마토 · 고추 · 강낭콩 · 초콜릿을 넣은 멕시코 스튜 칠리 콘 카르네로 시작한다. 세계 최고의 축구 나라가 인구 350만의 우루과이라는 뜻밖의 답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1인당 소가 가장 많은 그 나라에서 리비히의 소고기 추출물을 대량 생산한 LEMCO와 옥소 큐브, 노동자와 군인을 먹인 통조림 콘드 비프로 이어진다. 콘드 비프의 corn이 '곡물'이라는 데서 저자는 영국의 곡물법과 1846년의 폐지, 그리고 그것을 자유무역의 출발로 보는 프리드먼의 '기원 이야기'로 넘어간다. 저자에 따르면 영국은 그 뒤에도 오래 관세를 남겼고, 자유무역을 먼저 한 것은 불평등 조약에 묶인 라틴아메리카였으며, 19세기 자유무역은 대부분 강요된 것이었다. 오늘의 WTO에서도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쪽은 강한 나라이므로, 저자는 '자유'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뒤의 힘의 불균형을 보라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5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자유'라는 말 뒤의 힘의 불균형을 보라(70쪽 ¶2~¶4) / 규칙과 적용은 다르다 – 부자 나라의 힘(69쪽 ¶3) / 소고기 리그의 정상 우루과이(65쪽 ¶1) / 자유무역의 기원 이야기는 신화다(67쪽 ¶4)
4~5	**밑줄 함축 의미**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 no pun intended / a culinary curiosity / very imaginatively – Lemco (duh!) / the lamest name / an anathema / the 'detail' / inconvenient truths / a glaring hole /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 unfree free trade / the planet of cows / No more, no less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리비히(Liebig)를 가리키는 65쪽 ¶2(출제는 65쪽 ¶3의 기베르트를 섞는다) / It(64쪽 ¶5~¶7 = Uruguay) / They(66쪽 ¶2 = 옥소와 콘드 비프) / they(66쪽 ¶4 = most Brits) / its(68쪽 ¶2 = Japan) / they(69쪽 ¶1 = stronger countries)
7~8	내용 일치·불일치	1912 · 1917 · 2013 · 1973~1985(64쪽 ¶7 + 각주 ii) / 1830년대 · 1853 · 1910년대 · 30% · 1870~1880년대 · 35~50%(68쪽 ¶2~¶3) / 1847 · 1862 · 1865 · 1873 · 1908 · 1942(65~66쪽)
9~10	**어법**	would(완곡한 추측) · 형용사 + though · 혼합 가정법 · the first + 명사 + to have p.p. · too ~ to · consider O to be · despite + 동명사 · make + O + 동사원형 · not ~ because · used to + 수동 · must have p.p. · Without + 가정 · it ~ that 강조 · deprive A of B · be made to V · prevent A from -ing · be such that · 부분 부정 · Only when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notorious↔renowned · stupendous↔modest · affordable↔unaffordable · accessible↔inaccessible · controversial↔uncontroversial · repeal↔enact · prevailing↔marginal · glaring↔subtle · nascent↔mature · blatantly↔subtly · disproportionately↔equally(69쪽 ¶2) · unequivocally↔ambiguously
12	빈칸 추론	Britain did not actually make a full transition(67쪽 ¶4) / to shape and manage(69쪽 ¶1) / the power imbalances(70쪽 ¶4)
13	문장 삽입	LEMCO의 R&D 연구소 대목(65쪽 ¶4): 1865년 런던 설립 → 프라이 벤토스 공장 → 연구소 = 당시 BASF 같은 최첨단 기업만 가진 시설 → 첫 다국적 식품 회사
14	무관한 문장	반곡물법 동맹 · 프리드먼의 해석(67쪽 ¶2~¶3)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콘드 비프라는 이름의 유래, 66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레므코 · 옥소(65쪽 ¶5) → 1873년 통조림 콘드 비프(65쪽 ¶6) → 더 싼 부위 · 통조림(66쪽 ¶1) → 노동자의 주식 · 군인과 탐험가의 식량(66쪽 ¶2)
16	요약문 완성	불평등 조약 만료 · 탈식민 · WTO 한 나라 한 표(68쪽 ¶5~69쪽 첫 줄) → 그래도 강한 나라가 체제를 주무른다(69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연도 · 이름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5 · 4 · 6,100만 · 2억 1,200만 · 350만 · 121 · 15년 · 7분의 1 · 1,100 · 50 · 20% · 46% · 5% · 3% · 30% · 35~50% · 60곳 · 18% · 85% · 10% · 1.5배 · 200배. 연도도 많다 – 1930 · 1950 · 1912 · 1917 · 2013 · 1973~1985 · 2004 · 1847 · 1862 · 1865 · 1873 · 1908 · 1924 · 1942 · 1979 · 2015 · 1815 · 1838 · 1846 · 1848 · 1860 · 1810~1830년대 · 1853 · 1910년대 · 1870~1880년대 · 1950년대 · 1980년대 · 1995.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이혼 청구권 라틴아메리카 최초 ↔ 마리화나 세계 최초, 설립 런던 ↔ 공장 프라이 벤토스, 도입 1815 ↔ 폐지 1846, 첫 자유무역국 영국 ↔ 라틴아메리카, 실제 관세 10% ↔ 허용 20 · 30%). '그렇다고 전한다 · 아마 · ~라고들 본다'(reputedly · presumably · supposedly · arguably · Many historians consider · the prevailing view)와 프리드먼의 말을 저자의 말이나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Beef」 (64~70쪽)

논증형(최고의 축구 나라 = 우루과이 → 시민권 → 소고기 산업 → 리비히의 추출물 · LEMCO · 옥소 · 콘드 비프 → corn = 곡물 → 곡물법과 폐지 → 프리드먼의 자유무역 기원 이야기 → 반박 셋(규제가 영국을 키움 · 1860년에야 자유무역 · 라틴아메리카가 먼저) → 강요된 자유무역 · 강대국의 보호주의 → 오늘의 WTO와 힘의 불균형 → 결론). 핵심 축은 **스스로 고른 자유무역 vs 강요된 자유무역**, 그리고 **형식의 평등 vs 실제 힘의 불균형**.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64 ¶1~¶3 + 70 각주 i	도입 질문	최고의 축구 나라? 브라질 5회 · 이탈리아 4회(인구 브라질의 3분의 1 미만) → 정답은 우루과이
64 ¶4~¶6	우루과이 축구	수아레스 · 인구 350만 · 1930 몬테비데오 · 1950 리우 / 브라질 인구라면 121회
64 ¶7 + 70~71 각주 ii	시민권	1912 이혼 청구권(라틴아메리카 최초) · 1917 여성 참정권 · 2013 마리화나 / 1973~1985 군사 독재
65 ¶1 + 71 각주 iii	소고기 산업	1인당 소 마릿수 1위 · 2004 모든 소 추적 · 소고기 추출물 첫 대량 생산 → 옥소
65 ¶2~¶3 + 71 각주 iv	리비히와 기베르트	1847 리비히의 발명 · 너무 비쌈 · 15년 / 1862 기베르트 · 가죽 산업의 부산물 · 냉장선 없음
65 ¶4	LEMCO	1865 런던 설립 · 프라이 벤토스 공장 · R&D 연구소 · 첫 다국적 식품 회사(많은 역사가)
65 ¶5~¶6	레므코 · 옥소 · 콘드 비프	가장 시시한 이름 · 대히트 · 영양은 대부분 빠짐 · 1908 옥소 / 1873 통조림 콘드 비프
66 ¶1~¶2 + 71 각주 v	노동자의 식량	싼 부위 · 다지기 · 통조림 / 노동계급의 주식 · 군인 · 극지 탐험가 · 1942 고기 배급의 7분의 1
66 ¶3~¶4 + 71 각주 vi	corn의 뜻	옥수수(새 미국 용법) ↔ 곡물(옛 영국 용법) · 소금 알갱이 / 콘 익스체인지 · 곡물법
66 ¶5~67 ¶1	곡물법	1815 곡물 생산자 보호 · 산업혁명 초라 논란 / 비판자: 싼 곡물 → 낮은 임금 → 이윤 · 투자
67 ¶2	폐지	1838 반곡물법 동맹(코브던 · 브라이트) · 비농업 집단의 지지 · 1846 폐지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67 ¶3	프리드먼의 이야기	'마지막 승리' ·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 · 작은 정부 / 통념: 전례 없는 세계 번영
67 ¶4 + 71 각주 vii	부정확함 둘	정부 규제가 영국 제조업의 지배를 낳음 / 1848년 1,100개 넘는 품목에 관세 → 1860년 50개 미만
67 ¶5~68 ¶1 + 71 각주 viii	첫 자유무역국	라틴아메리카(1810~1830년대) · 불평등 조약 · 관세 자주권 박탈 · 5%(낮게는 3%)
68 ¶2~¶3	강요 · 보호주의	1830년대~ 터키 · 타이 · 이란 · 중국 · 1853 일본 → 1910년대 관세 30% / 유럽 대륙 · 북미 보호주의 · 미국 35~50%
68 ¶4	자유롭지 않은 자유무역	고를 수 있던 나라 가운데 자유무역은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뿐 · 다른 자유무역국은 강요
68 ¶5~69 첫 줄 + 71 각주 ix	오늘의 체제	1950년대까지 조약 만료 · 1980년대 탈식민 · 60곳 안팎 · 1995 WTO 한 나라 한 표
69 ¶1~¶3	여전한 힘의 불균형	의제 설정 · 농업 ↔ 제조업 · 현지 조달 요건 금지 / 원조 · 대출 조건 · 소프트 파워 → 실제 관세 10%
70 첫 줄~¶4 + 71 각주 x	결론	'소의 행성' · 환경 부담 / '자유'의 지배 · 자유무역의 자유 = 국경 넘어 거래하는 이의 자유뿐 · 힘의 불균형을 보라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최고의 축구 나라	브라질(5회) · 이탈리아(4회, 인구 브라질의 3분의 1 미만)	우루과이 – 인구 350만으로 2회(1930 · 1950)
우루과이의 기록	축구 · 시민권(1912 · 1917 · 2013) · 소고기 산업	1973~1985년 잔혹한 군사 독재(각주 ii)
리비히의 기대	가난한 사람에게 소고기의 영양을	원료가 비싸 15년 동안 진기한 음식 / 대히트 뒤에도 영양은 대부분 빠짐
소고기가 싼 까닭	우루과이(아르헨티나 · 브라질처럼) – 가죽 산업의 부산물	냉장선이 없어 유럽 · 북미로 고기를 수출할 수 없었음
콘드 비프	'제대로 된' 요리법 – 양지머리 · 소금 절임	LEMCO – 더 싼 부위를 다짐 · 통조림 → 더 오래 · 더 멀리
corn의 뜻	비교적 새 미국 용법 – 옥수수	옛 영국 용법 – 모든 곡물(콘드 비프 · 콘 익스체인지 · 곡물법)
곡물법의 득실	농업 지주 · 곡물을 기르는 자본가 농민(지대 · 이윤 감소)	도시민 · 농업 노동자 · 제조업 자본가(싼 식량 · 낮은 임금 · 더 많은 투자)
자유무역의 기원	프리드먼 · 통념 – 1846 폐지 = 마지막 승리 ·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 · 번영	저자 – 규제가 영국의 지배를 낳음 · 1860년에야 자유무역 · 라틴아메리카가 먼저
19세기의 자유무역	스스로 고른 나라 –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	강요된 나라 – 불평등 조약의 약한 나라 · 식민지
조약이 끝난 뒤	라틴아메리카 – 1870~1880년대에 자유무역을 버림	일본 – 1910년대 공업 관세 평균 30% 안팎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오늘의 무역 체제	형식 — 조약 만료 · 탈식민 · WTO 한 나라 한 표(1995~)	실제 — 의제 설정 · 유리한 규칙 · 원조와 대출 조건 · 소프트 파워
개발도상국의 관세율	WTO 규칙상 허용 — 20% · 30% 또는 그 이상	실제 적용 — 평균 10% 안팎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World Cup	브라질 **5회**(최다) · 이탈리아 **4회**(인구 **6,100만** vs 브라질 **2억 1,200만**) · 각주 i: 독일도 4회, 네 번째 우승 땐 인구 **8,000만** 넘음 · 앞선 세 번(**1954** · **1974** · **1990**)은 이탈리아와 인구가 비슷한 서독
Uruguay(축구)	수아레스(기이하게도 깨무는 것으로 악명)의 나라 · 인구 **350만** · **1930년** 첫 대회 · 홈 몬테비데오 / **1950년** 당시 브라질 수도 리우에서 홈팀을 꺾음(가장 큰 이변 가운데 하나라 할 만한) · 브라질 인구라면 **121회**
Uruguay(시민권)	**1912년**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여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을 청구할 권리 · **1917년** 여성 참정권(세계 최초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 · **2013년** 세계 최초 마리화나 합법화
70~71쪽 각주 ii	**1973~1985년** 잔혹한 군사 독재 · 그 대부분 기간 호세 무히카(대통령 **2010~15**)는 정치범
Uruguay(소고기)	1인당 소 마릿수 단연 1위 · **2004년** 모든 소를 추적할 수 있게 한 첫 나라 · 소고기 추출물을 처음 대량 생산 · 각주 iii: 맛이 꼭 최고라는 뜻은 아님(아르헨티나 소고기도 적어도 그만큼 · 피카냐)
Justus von Liebig	독일 과학자 · 식물 영양 연구 · 유기화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짐 · **1847년** 소고기 추출물 발명 · 원료가 비싸 **15년** 동안 소량 생산
Georg Christian Giebert	**1862년** · 우루과이에서 일하던 젊은 독일 철도 기술자 · 우루과이 생산 제안 / 소고기 = 가죽 산업의 부산물 · 각주 iv: 냉장선은 **1870년대** 발명, 20세기로 넘어갈 무렵에야 대량 투입
LEMCO	Liebig Extract of Meat Company · **1865년** 런던 설립 · 공장 = 프라이 벤토스(Friar Benedict, 근처 동굴에 살았다고 '전하는' 17세기 은자) · R&D 연구소 · 많은 역사가가 첫 다국적 식품 회사로 봄
Lemco / Oxo	가장 시시한 이름 · 세계적 대히트 · 싸고 편한 육수 · 영양은 대부분 빠짐(단백질 · 지방 제거) · **1908년** 말린 큐브 → 옥소
corned beef	소금에 절인 소고기 · 유럽에 수백 년 · LEMCO **1873년** 통조림 생산 · 양지머리보다 싼 부위를 다짐(아마 덜 좋은 부위를 못 알아보게) · 통조림 → 더 오래 · 더 멀리 수출
66쪽 ¶2	옥소 · 콘드 비프 = 유럽 노동계급의 주식 · 보어 전쟁 영국군 · 1차 대전 영국 · 독일군 · 스콧 · 섀클턴의 식량(샤피크 메그지, BBC) / 2차 대전 영국 민간인 · 군인의 단백질
Battle of the Atlantic	**1942년 4~9월** · 미국 → 영국(· 소련) 식량을 U보트가 상당량 격침 · 깨뜨릴 수 없다던 에니그마 암호 · 콘드 비프 = 영국 고기 배급의 **7분의 1**
El Anglo(71쪽 각주 v)	**1924년** 영국 베스티 그룹 인수 · Frigorífico Anglo del Uruguay(frigorífico = 냉장고) · **1960년대**까지 주요 세력 · **1979년** 가동 중단 ·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corn	옥수수 = 비교적 새 미국 용법 · 옛 영국 용법 = 모든 곡물 · 소금 알갱이(corns)로 절임(요즘은 소금물) · 콘 익스체인지(미국이면 Grain Exchange) · 각주 vi: 크루소 삽화의 옥수수(실제로는 쌀 · 보리)
Corn Laws	**1815년** 영국 곡물 생산자 보호(수입 관세 · 수입 금지) · 곡물법은 **15세기**부터 · 산업혁명 초 · 도시 인구 급증 → 도시민에게 몹시 싫은 것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nti-Corn Law League	**1838년** 하원의원 리처드 코브던 · 존 브라이트(대처의 정치적 영웅) · 비농업 집단의 지지 · **1846년** 폐지
Milton Friedman	20세기 가장 유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 · 아내 로즈와 Free to Choose · 폐지 = '마지막 승리' · 1차 대전까지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 · 극히 제한된 정부로의 이행
영국의 실제	1848년 **1,100개** 넘는 품목에 관세 · **1860년**에야 **50개** 미만 = 진정한 자유무역국 · 각주 vii: 1860년 세계 제조업 생산의 **20%** · 1870년 세계 공산품 무역의 **46%**
라틴아메리카	**1810~1830년대** 자유무역 채택(영국보다 수십 년 앞) · 독립 뒤 불평등 조약 · 관세 자주권 박탈 · 균일 관세 보통 **5%**(낮게는 **3%**) · **1870~1880년대** 조약 만료
71쪽 각주 viii	가장 중요한 '다른 것' = 치외법권(강한 나라 시민은 약한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음) · 천연자원 개발 이권(채굴권 · 벌목권)을 헐값에
불평등 조약(아시아)	**1830년대**부터 터키(오스만 제국) · 타이(시암) · 이란(페르시아) · 중국 / 일본 **1853년**부터(페리 제독의 포함 외교) → **1910년대** 만료 · 공업 관세 평균 **30%** 안팎
보호주의	유럽 대륙(네덜란드 · 스위스 제외) · 북미 / 미국 **1830년대~2차 대전** 평균 공업 관세 **35~50%** · 그 기간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
오늘의 체제	불평등 조약 **1950년대**까지 모두 만료 · **1980년대**까지 대부분 탈식민 · 식민 지배 아래 **60곳** 안팎 · **1995년**부터 WTO(같은 투표권) · 각주 ix: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거부권 · 세계은행 · IMF 미국 **18%** · **85%** 초다수
WTO와 힘	농업 보호 · 보조금에 더 적은 제한 · 현지 조달 요건 금지 / 개발도상국 공업 관세 실제 평균 **10%** 안팎(허용 **20%** · **30%** 또는 그 이상)
Vaclav Smil	직설적인 환경 과학자 · '소의 행성' · 각주 x: Numbers Don't Lie · 소의 생물량 = 사람의 **1.5배** · 코끼리의 **200배**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Beef」 (원서 PDF 64~70쪽) · 7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8-1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우루과이다 64쪽 ¶1~¶7 + 70~71쪽 각주 i · ii

원문 위치 원서 64쪽 ¶1~¶7 + 70~71쪽 각주 i · 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2 첫 문장	Many people would probably say Brazil, as it has won the most football World Cups – five.	숫자 5 · would probably(추측)
★	64쪽 ¶2 셋째 문장	only four times, but with a population that is less than one-third that of Brazil's (61 million against 212 million)	숫자 — 인구 비교 · that of
★	70쪽 각주 i	Germany has also won the Cup four times … (1954, 1974, and 1990) were as West Germany	내용 일치 — 이탈리아가 앞서는 까닭
◆	64쪽 ¶4 셋째 문장	the brilliant footballer who is, bizarrely, notorious for biting other players	밑줄 의미: 수아레스의 '악명'
★	64쪽 ¶5 첫~둘째 문장	only 3.5 million people … the first ever Cup in 1930 on its home turf, Montevideo	숫자 3.5 · 1930
▲	64쪽 ¶5 셋째 문장	in arguably one of the biggest upsets in the history of football	arguably — 단정 금지
◆	64쪽 ¶5 넷째 문장	If Uruguay had the population of Brazil,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혼합 가정법 · 밑줄 의미 1순위
▲	64쪽 ¶6	Two wins is a stupendous achievement for such a small nation, even if …	단수 동사 is · even if
◆	64쪽 ¶6	so, England fans, take comfort in the knowledge that …	저자의 농담 — 잉글랜드 팬
▲	64쪽 ¶7 첫 문장	Incredible though this achievement is, football isn't the only field (no pun intended)	형용사 + though · 말놀이 field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7 셋째~다섯째 문장	In 1912 … divorce without a specific cause … (in 1917) … In 2013 … marijuana	내용 일치 1순위 — 연도
★	70~71쪽 각주 ii	a brutal military dictatorship between 1973 and 1985 … José Mujica (president 2010–15)	단서 — 늘 옳은 편은 아니었음

내용

세계 최고의 축구 나라는 어디일까? 많은 사람이 아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다섯 번) 우승한 브라질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어떤가? 우승은 네 번뿐이지만 인구가 브라질의 3분의 1도 안 된다(6,100만 대 2억 1,200만). 각주에 따르면 독일도 네 번 우승했지만, 네 번째 우승 때는 인구가 이탈리아보다 훨씬 많았고(8,000만 넘게) 앞선 세 번(1954 · 1974 · 1990년)은 인구가 이탈리아와 비슷한 서독으로서 거둔 것이어서 이탈리아가 여전히 앞선다. 그러나 정답은 이탈리아도 아닌 우루과이다. 축구로 치면, 뛰어난 선수이면서 기이하게도 다른 선수를 깨무는 것으로 악명 높은 루이스 수아레스의 나라다. 인구가 350만 명뿐인 우루과이는 월드컵에서 두 번 우승했다. 1930년 홈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첫 대회에서 우승했고, 1950년에는 당시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홈팀을 꺾고 다시 우승했다.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변 가운데 하나라고 할 만하다. 우루과이의 인구가 브라질만큼이었다면 두 번이 아니라 121번 우승했을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드컵 우승보다 100번 많은 수다. 첫 우승이 거의 한 세기 전이고 마지막 우승도 두 세대 전이라 해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 두 번의 우승은 엄청난 업적이다(그러니 잉글랜드 팬들은 자기 팀보다 더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우승한 팀의 팬도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으라고 저자는 덧붙인다). 이 업적이 놀랍긴 하지만 우루과이가 뛰어난 분야(field, 말장난은 아니다)는 축구만이 아니다. 정치적 · 시민적 권리에서도 인상적인 기록이 있다. 1912년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을 청구할 권리를 얻었고, 1917년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세계 최초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다만 각주에서 저자는 이 나라가 늘 옳은 편에 서 있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며,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잔혹한 군사 독재가 있었고 그 기간 대부분 호세 무히카(2010~15년 대통령)가 정치범이었다고 밝힌다.

어법

- **Many people would probably say Brazil, as it has won the most football World Cups – five.** : would = 완곡한 추측(아마 ~라고 말할 것이다). as = 이유 접속사. has won = 현재완료(지금까지의 우승 횟수).
- **It has won the Cup only four times, but with a population that is less than one-third that of Brazil's** : that of = the population of(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지시대명사). 원서 표기 that of Brazil's는 '브라질의 인구'라는 뜻으로 읽는다. less than one-third = 3분의 1이 안 되는.
- **the brilliant footballer who is, bizarrely, notorious for biting other players** : who = 주격 관계대명사. 콤마 사이 bizarrely = 문장 부사 삽입(기이하게도). be notorious for + 동명사 = ~으로 악명 높다.
- **If Uruguay had the population of Brazil,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 혼합 가정법: if절은 가정법 과거(had — 인구가 적다는,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의 반대), 주절은 가정법 과거완료(would have won — 지금까지 실제로 이긴 횟수의 반대).
- **Two wins is a stupendous achievement for such a small nation, even if its first win was nearly a century ago** : 주어 Two wins를 '두 번 우승한 일'이라는 하나의 성과로 보아 단수 동사 is. such + a + 형용사 + 명사. even if = 비록 ~라 하더라도.
- **Incredible though this achievement is, football isn't the only field (no pun intended) in which Uruguay has excelled.** : 형용사 + though + S + V = 양보(Though this achievement is incredible).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excel in a field). no pun intended = field(경기장 · 분야)를 노린 말장난이 아니라는 덧붙임.

- **In 1912, it became the first Latin American country where women won the right to file for divorce without a specific cause.**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country). the right to V = ~할 권리. file for divorce = 이혼을 청구하다.
- **In 2013, it became the first country to legalize marijuana.** : the first + 명사 + to부정사 = ~한 첫 번째 (나라). to legalize =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ootballing (a.)	축구의	—	—
notorious	악명 높은	infamous	renowned
bizarrely	기이하게도	strangely	—
home turf	홈그라운드	home ground	—
clinch	(우승을) 따내다	secure	lose
upset (n.)	이변	shock	—
stupendous	엄청난	tremendous	modest
take comfort in	~에서 위안을 얻다	be consoled by	—
excel	뛰어나다	shine	lag
civic	시민의	civil	—
file for divorce	이혼을 청구하다	sue for divorce	—
legalize	합법화하다	decriminalize	ban
dictatorship	독재	tyranny	democracy
political prisoner	정치범	prisoner of conscience	—

내용 일치 브라질 최다 5회 · 이탈리아 4회(인구 6,100만 vs 2억 1,200만, 3분의 1 미만) · 각주 i: 독일도 4회, 앞선 세 번(1954 · 1974 · 1990)은 서독 · 정답 우루과이 · 수아레스(깨무는 것으로 악명) · 인구 350만 · 1930 몬테비데오(첫 대회) · 1950 리우(이변이라 할 만한) · 브라질 인구라면 121회 · 1912 이혼 청구권(라틴아메리카 최초) · 1917 여성 참정권(최초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 · 2013 마리화나(세계 최초) · 각주 ii: 1973~1985 군사 독재 · 무히카(2010~15 대통령)는 정치범. **밑줄 의미**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 인구에 견주면 우루과이의 두 번은 엄청난 성과 / take comfort in the knowledge = 잉글랜드보다 더 오래 우승 못 한 팀도 있으니 위안 삼으라는 농담 / no pun intended = field(경기장 · 분야) 말장난이 아님 / on the side of the angels(각주 ii) = 늘 옳은 편 / 64쪽 ¶2 It(has won the Cup only four times) = Italy · 64쪽 ¶5 It(won the first ever Cup) = Uruguay · 64쪽 ¶7 It(also has impressive records) = Uruguay.

> **한 줄 요약** 인구 350만의 우루과이는 월드컵 두 번 우승으로 세계 최고의 축구 나라라 할 만하고, 시민권에서도 앞선 기록을 가졌다.

8-2 리비히의 소고기 추출물과 첫 다국적 식품 회사 65쪽 ¶1~¶4 + 71쪽 각주 iii · iv

원문 위치 원서 65쪽 ¶1~¶4 + 71쪽 각주 iii · i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1 첫 문장	Less glamorous than football, politics or civil rights, perhaps, the beef industry is another area	앞 단락과의 연결 · perhaps
★	65쪽 ¶1 둘째 문장	the country with by far the highest number of cattle per (human) capita	by far + 최상급
★	65쪽 ¶1 셋째 문장	the first country to have made every single one of its cattle traceable (in 2004)	숫자 2004 · 완료부정사
◆	71쪽 각주 iii	This is not to say that Uruguayan beef necessarily tastes the best.	단정 금지 — 부분 부정
★	65쪽 ¶1 넷째 문장	the first country to mass-produce beef extract … ('liquid beef') … Oxo	제목 문항의 바탕
★	65쪽 ¶2 첫 문장	In 1847, Justus von Liebig … invented beef extract	인물 · 연도 — 서답형
▲	65쪽 ¶2 셋째 문장	the raw material was too expensive to make his extract affordable for most people	too ~ to · make + O + 형용사
◆	65쪽 ¶2 셋째 문장	it remained a culinary curiosity produced in small batches for the next fifteen years	밑줄 의미: 보기 드문 진기한 음식
★	65쪽 ¶3 첫 문장	in 1862, a young German railway engineer working in Uruguay, Georg Christian Giebert	인물 — 지칭 문항의 짝
★	65쪽 ¶3 둘째 문장 + 71쪽 각주 iv	essentially a by-product of the leather industry … in the absence of refrigerator ships	까닭 — 소고기가 싼 이유
★	65쪽 ¶4 첫~둘째 문장	LEMCO was established in London … Fray Bentos (Friar Benedict in English)	장소 — 런던 ↔ 프라이 벤토스
▲	65쪽 ¶4 둘째 문장	named after a seventeenth-century hermit who reputedly had lived in a nearby cave	전언 reputedly · 과거완료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4 셋째 문장	in those days a facility owned by only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ompanies, like ... BASF	문장 삽입 문항의 자리
★	65쪽 ¶4 넷째 문장	Many historians consider LEMCO ... to be the world's first multinational food company	역사가들의 평가 · consider O to be

내용

축구 · 정치 · 시민권보다 덜 화려할지 모르지만, 소고기 산업도 우루과이가 세계 정상에 서 온 분야다. 지금 우루과이는 (사람) 1인당 소의 수가 단연 가장 많은 나라다. 양만이 아니라 질도 그렇다. 우루과이는 2004년 모든 소를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첫 나라다. 각주에서 저자는 이것이 우루과이 소고기가 꼭 가장 맛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자기의 한정된 경험으로는 아르헨티나 소고기도 적어도 그만큼 맛있고 브라질 특유의 부위 피카냐도 몹시 좋아한다고 덧붙인다. 역사적으로 우루과이는 소고기 추출물을 처음 대량 생산한 나라다. 소고기 추출물은 육수를 걸쭉한 액체로 졸인 것('liquid beef')으로 시작해 나중에 상징적인 고형 육수 옥소가 되었다. 1847년, 식물 영양 연구로 유명하고 유기화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독일 과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소고기 추출물을 발명했다. 리비히는 진짜 소고기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추출물로 소고기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원료가 너무 비싸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값으로 만들 수 없었고, 추출물은 그 뒤 15년 동안 소량만 만드는 진기한 음식으로 남았다. 1862년 우루과이에서 일하던 젊은 독일 철도 기술자 게오르크 크리스티안 기베르트가 리비히의 발명을 알게 되어, 우루과이에서 추출물을 생산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우루과이에서는 (아르헨티나 · 브라질처럼) 소고기가 몹시 쌌다. 냉장선이 없어 유럽 · 북아메리카의 잠재 시장으로 고기를 수출할 수 없었으므로 소고기는 사실상 가죽 산업의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각주에 따르면 냉장선은 1870년대에 발명되었지만 20세기로 넘어갈 무렵에야 대량으로 쓰였다. 1865년 런던에 리비히 고기 추출물 회사(LEMCO)가 세워졌다. 생산 시설은 우루과이의 소도시 프라이 벤토스(영어로 Friar Benedict)에 들어섰는데, 이 이름은 근처 동굴에 살았다고 전하는 17세기의 은자에게서 따왔다. 프라이 벤토스 공장에는 과학 지식을 써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품과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자체 연구 개발(R&D) 연구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독일의 거대 화학 기업 BASF(4장 참조)처럼 기술이 가장 앞선 회사만 가진 시설이었다. 많은 역사가는 뒤에 유럽 · 남아메리카 ·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한 LEMCO를 세계 최초의 다국적 식품 회사로 본다(다국적 기업은 9장 참조).

어법

- **Less glamorous than football, politics or civil rights, perhaps, the beef industry is another area in which Uruguay has been at the top of the international league.** : 문두의 형용사구(Less glamorous than ~)가 주어 the beef industry를 설명한다(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다).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perhaps = 저자의 조심스러운 평가.
- **Currently, it is the country with by far the highest number of cattle per (human) capita.** : by far + 최상급 = 단연 가장 ~한. cattle = 복수 취급 집합 명사. per capita = 1인당.
- **Uruguay is the first country to have made every single one of its cattle traceable (in 2004).** : the first + 명사 + to부정사. to have made = 완료부정사(이미 이룬 일). make + O + 형용사 보어(traceable).
- **Liebig thought his extract would give access to the nutrients in beef to poor people who could not afford the real thing.** : thought 뒤 명사절(that 생략) → 시제 일치 would. give access to A to B = B에게 A를 얻을 길을 주다. who = 주격 관계대명사.
- **the raw material was too expensive to make his extract affordable for most people** : too + 형용사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make + O + 형용사(affordable).

- **Giebert proposed to produce Liebig's extract in Uruguay, where (as in Argentina and Brazil) beef was very cheap, since it was essentially a by-product of the leather industry** : propose + to V = ~하자고 제안하다.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Uruguay). since = 이유.
- **named after a seventeenth-century hermit who reputedly had lived in a nearby cave** : named after = ~의 이름을 딴(과거분사 후치). had lived = 과거완료(이름이 붙기 전의 일). reputedly = ~라고 전한다(전언 — 사실 단정이 아님).
- **Many historians consider LEMCO, subsequently with operations in multiple countries …, to be the world's first multinational food company** : consider + O + to be + 보어 = O를 ~로 여기다. 콤마 사이 = LEMCO에 대한 삽입 설명. 역사가들의 평가로 옮길 것.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glamorous	화려한	glitzy	dull
per capita	1인당	per head	—
traceable	추적할 수 있는	trackable	untraceable
extract (n.)	추출물	essence	—
iconic	상징적인	emblematic	—
nutrient	영양소	nourishment	—
affordable	(값이) 알맞은	inexpensive	unaffordable
curiosity	진기한 것	novelty	—
batch	한 번에 만드는 양	lot	—
by-product	부산물	spin-off	main product
in the absence of	~이 없어서	for lack of	in the presence of
hermit	은자	recluse	—
commercially viable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profitable	unviable
multinational	다국적의	transnational	domestic

내용 일치 1인당 소 마릿수 단연 1위 · 2004 모든 소 추적(첫 나라) · 각주 iii: 맛이 꼭 최고는 아님 · 소고기 추출물 첫 대량 생산 → liquid beef → 옥소 · 1847 리비히 발명(독일 과학자 · 유기화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짐) · 가난한 사람에게 영양을 · 너무 비싸 15년 동안 소량 · 1862 기베르트(우루과이의 젊은 독일 철도 기술자) · 가죽 산업의 부산물 · 냉장선 없음(각주 iv: 1870년대 발명) · 1865 런던 LEMCO · 공장 = 프라이 벤토스 · 은자(reputedly) · R&D 연구소(BASF 같은 최첨단 기업만) · 첫 다국적 식품 회사(많은 역사가의 평가). **밑줄 의미** Less glamorous … perhaps = 축구 · 정치보다 덜 화려하지만 / a culinary curiosity = 널리 먹지 못하는 진기한 음식 / 65쪽 ¶1 it(is the country) = Uruguay · 65쪽 ¶2 his(extract) = Liebig · 65쪽 ¶3 it(was essentially a by-product) = beef · 65쪽 ¶4 who(reputedly had lived) = 17세기의 은자.

> **한 줄 요약** 1인당 소가 가장 많은 우루과이는 리비히가 발명한 소고기 추출물을 처음 대량 생산했고, 그 회사 LEMCO는 첫 다국적 식품 회사로 꼽힌다.

8-3 이름은 시시해도 세계를 먹인 옥소와 콘드 비프 65쪽 ¶5 ~ 66쪽 ¶2 + 71쪽 각주 v

원문 위치 원서 65쪽 ¶5 ~ 66쪽 ¶2 + 71쪽 각주 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5 첫 문장	initially called – very imaginatively – Lemco (duh!)	밑줄 의미: 반어(상상력 '넘치는')
▲	65쪽 ¶5 둘째 문장	Despite having the lamest name in the history of human commerce, the product was a major hit	despite + 동명사
★	65쪽 ¶5 셋째 문장	if not supplying the nutrients that von Liebig initially had thought it would	내용 불일치 1순위 — 영양은 대부분 빠짐
▲	65쪽 ¶5 셋째 문장	it turned out that the extraction process removed most of protein and fat, and with them most nutrients	it turns out that
★	65쪽 ¶5 넷째 문장	turned into a dried cube in 1908 and renamed Oxo	숫자 1908 · 서답형
★	65쪽 ¶6	canned corned beef, which it started producing in 1873	숫자 1873 · 순서 문항
★	66쪽 ¶1 첫~둘째 문장	had been around for several centuries … But LEMCO made it accessible to a much larger proportion of humanity	순서 문항의 고리
▲	66쪽 ¶1 셋째 문장	less expensive cuts than the brisket … (presumably to make it impossible to discern the less good cuts)	presumably — 추측 · 가목적어 it
▲	66쪽 ¶1 넷째 문장	By canning it, LEMCO made corned beef last much longer than the original salt-curing technology had allowed	make + O + 동사원형
★	66쪽 ¶2 첫 문장	'became staples for working-class people across Europe for whom meat had previously been a luxury item	내용 일치 — 노동계급의 주식
★	66쪽 ¶2 둘째 문장	rations for British soldiers during the Boer War … polar explorers like Robert Falcon Scott and Ernest Shackleton	인물 — 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6쪽 ¶2 둘째 문장 + 71쪽 각주 v	Shafik Meghji … reporting on the Fray Bentos World Heritage site for the BBC	인용의 출처 · El Anglo
★	66쪽 ¶2 넷째 문장	Between April and September of 1942 … one-seventh of the British meat ration	숫자 — 1942 · 7분의 1
▲	66쪽 ¶2 넷째 문장	until the British cracked the supposedly uncrackable Enigma code	supposedly — '그렇다던'

내용

LEMCO의 소고기 추출물은 처음에 '아주 상상력 넘치게도' 레므코(Lemco)라고 불렸다(저자는 '번하지!'라고 덧붙인다). 인류 상업 역사상 가장 시시한 이름이었는데도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만족스러운 소고기 육수를 싸고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리비히가 처음에 기대한 영양소까지 주지는 못했다. 알고 보니 추출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 대부분이, 그와 함께 영양소 대부분이 빠져나갔다. 1908년 추출물은 말린 큐브로 바뀌어 옥소(Oxo)라는 새 이름을 얻으면서 더욱 편리해졌다. 소고기 추출물로 성공한 직후 LEMCO는 세계를 휩쓴 또 다른 제품, 통조림 콘드 비프를 내놓아 1873년부터 생산했다. 소금에 절인 소고기인 콘드 비프는 유럽에 수백 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LEMCO는 더 싼 재료와 새로운 보존 기술을 함께 써서 콘드 비프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했다. '제대로 된' 요리법처럼 양지머리를 쓰지 않고 더 싼 부위를 다져 쓴 덕에(아마 덜 좋은 부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루과이의 싼 소고기는 더 싸졌다. 통조림으로 만들어 원래의 소금 절임 기술보다 훨씬 오래가게 했고, 그래서 더 먼 곳까지 수출할 수 있었다. BBC에 프라이 벤토스 세계유산을 보도한 수상 경력의 여행 작가 샤피크 메그지의 말을 빌리면, 옥소 큐브와 통조림 콘드 비프는 그때까지 고기가 사치품이던 유럽 전역의 노동계급에게 주식이 되었고, 보어 전쟁의 영국군, 1차 세계대전의 영국군 · 독일군, 그리고 로버트 팰컨 스콧과 어니스트 섀클턴 같은 극지 탐험가에게 값싸고 오래가며 들고 다니기 쉬운 식량이 되었다. 그 뒤 2차 세계대전 때 콘드 비프는 군인뿐 아니라 영국 민간인에게도 단백질을 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른바 대서양 전투가 한창이던 1942년 4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영국(과 소련)으로 가는 식량 수송의 상당 부분이 (영국이 깨뜨릴 수 없다던 독일 해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풀기 전까지) 독일 U보트에 격침되었는데, 이때 통조림 콘드 비프는 영국 고기 배급의 7분의 1을 차지했다. 각주에 따르면 1924년 LEMCO는 영국의 베스티 그룹에 인수되어 Frigorífico Anglo del Uruguay(줄여서 El Anglo)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무렵 냉동 · 냉장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이름이다(frigorífico는 스페인어로 '냉장고'). El Anglo는 1960년대까지 세계 식품 산업의 주요 세력이었다가 쇠퇴했고, 1979년 가동을 멈춘 그 공장 · 연구소 · 사무실 · 숙소 단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다.

어법

- **LEMCO's beef extract was initially called – very imaginatively – Lemco (duh!).** : be called + 보어 = call O C의 수동(O가 C라고 불리다). 대시 사이 very imaginatively = 반어(상상력이라고는 없다).
- **Despite having the lamest name in the history of human commerce, the product was a major hit worldwide.** : despite + 동명사(having). 전치사 despite 뒤에는 절이 오지 않는다(despite it had는 오답). the + 최상급 + in ~.
- **It provided a convenient and cheap way of making satisfying beef broth, if not supplying the nutrients that von Liebig initially had thought it would** : if not + -ing = ~까지는 아니더라도. had thought = 과거완료(제품이 나오기 전 리비히의 생각). it would (supply) = 반복되는 동사 생략.
- **it turned out that the extraction process removed most of protein and fat, and with them most nutrients** : it turns out that = 알고 보니 ~였다. with them = 그것들(단백질 · 지방)과 함께.

- **The extract was made even more convenient when it was turned into a dried cube in 1908 and renamed Oxo.** : be made + 형용사 = make O C의 수동. even + 비교급 = 훨씬 더. was turned와 (was) renamed가 병렬.
- **Corned beef – beef cured in salt – had been around for several centuries, if not longer, in Europe.** : had been around = 과거완료(LEMCO 이전부터 있었음). cured = 과거분사 후치. if not longer =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 **By canning it, LEMCO made corned beef last much longer than the original salt-curing technology had allowed** : by + 동명사 = 수단. make + O + 동사원형(last). much + 비교급. had allowed = 과거완료(그전까지의 기술).
- **working-class people across Europe for whom meat had previously been a luxury item** : for whom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working-class people). had been = 과거완료(그 전까지는).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aginatively	상상력 있게	creatively	unimaginatively
lame	시시한, 어설픈	feeble	impressive
hit (n.)	대성공	success	flop
broth	육수	stock	—
cure (v.)	(소금에) 절이다	preserve	—
accessible	손에 넣기 쉬운	available	inaccessible
proportion	비율	share	—
preservation	보존	conservation	decay
mince (v.)	잘게 다지다	grind	—
discern	알아보다	detect	overlook
staple (n.)	주식, 필수품	basic food	luxury
ration (n.)	배급 식량	allowance	—
substantial	상당한	considerable	negligible
crack (v.)	(암호를) 풀다	break	—

내용 일치 첫 이름 = 레므코(가장 시시한 이름) · 세계적 대히트 · 싸고 편한 육수 · 영양은 대부분 빠짐(단백질 · 지방 제거) · 1908 말린 큐브 → 옥소 · 1873 통조림 콘드 비프 · 콘드 비프 = 소금 절임, 유럽에 수백 년 · 양지머리보다 싼 부위 · 다짐(presumably) · 통조림 → 더 오래 · 더 멀리 · 노동계급의 주식 · 보어 전쟁 · 1차 대전 영국 · 독일군 · 스콧 · 섀클턴 · 메그지(BBC) · 2차 대전 민간인 · 군인 · 1942년 4~9월 고기 배급의 7분의 1 · 각주 v: 1924 베스티 · El Anglo · 1979 중단 · 2015 세계유산. **밑줄 의미** very imaginatively … (duh!) = 회사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을 비꼰 반어 / the lamest name in the history of human commerce = 과장된 놀림 / if not supplying the nutrients = 영양소까지는 주지 못했지만 / supposedly uncrackable = 깨뜨릴 수 없다던(실제로는 풀림) / 65쪽 ¶5 It(provided) = 레므코(추출물) · 65쪽 ¶6 it(started producing) = LEMCO · 66쪽 ¶1 them(mincing them) = 더 싼 부위 · 66쪽 ¶2 They(also provided) = 옥소 큐브와 통조림 콘드 비프.

> **한 줄 요약** LEMCO의 옥소와 통조림 콘드 비프는 싸고 오래가는 고기로 유럽의 노동자와 군인 · 탐험가를 먹였다.

8-4 corn은 옥수수가 아니다 — 곡물법과 그 폐지 66쪽 ¶3 ~ 67쪽 ¶2 + 71쪽 각주 vi

원문 위치 원서 66쪽 ¶3 ~ 67쪽 ¶2 + 71쪽 각주 v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6쪽 ¶3 첫 문장	Corned beef isn't called that because it contains maize	부정의 범위 — not … because
★	66쪽 ¶3 둘째~셋째 문장	the relatively new American usage … In the older British usage, the word means 'grain'	대조 — 미국 ↔ 영국
▲	66쪽 ¶3 넷째 문장	which used to be done with 'corns' (that is, grains) of salt, although these days brine is typically used	used to + 수동
◆	71쪽 각주 vi	Some illustrations for … Robinson Crusoe … contain neatly planted rows of maize	혼란의 예 — 실제로는 쌀 · 보리
★	66쪽 ¶4 둘째 문장	the Corn Exchange, which is where the grain market used to be held … (… the Grain Exchange)	어법 (A)(B)(C) 문항의 바탕
▲	66쪽 ¶4 셋째 문장	Quite a lot of British people must have also learned about the Corn Laws	must have p.p.(추측)
★	66쪽 ¶5 첫 문장	introduced in 1815 to provide protection to British grain producers, such as import tariffs or an import ban	숫자 1815 · 보호의 수단
★	66쪽 ¶5 둘째 문장	dating back to the fifteenth century … particularly controversial because it came at the dawn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까닭 — 산업혁명
◆	66쪽 ¶5 셋째 문장	To the city-dwellers … who had to buy – rather than grow – their grains, the Corn Laws were an anathema	밑줄 의미: 몹시 싫은 것
▲	67쪽 ¶1 첫 문장	Without the Corn Laws, its critics argued, Britain could import cheaper foreign grains, enabling …	Without + 가정 · 분사구문
★	67쪽 ¶1 둘째 문장	capitalists would reap more profits, as they could pay lower wages … invest mor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비판자들의 논리 — 어법 문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7쪽 ¶1 셋째 문장	even if it meant less rental income for agricultural landlords and lower profits for grain-growing capitalist farmers	손해 보는 쪽
★	67쪽 ¶2 첫 문장	formed in 1838 by two MPs ... Richard Cobden and John Bright ... heroes of Margaret Thatcher	연도 · 인물 — 서답형
▲	67쪽 ¶2 둘째 문장	Backed by non-agrarian groups, whose number and power were swelling ... managed to repeal the law in 1846	분사구문 · 숫자 1846

내용

콘드 비프라는 이름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corn이라는 말로 떠올리는 옥수수가 들어 있어서 붙은 것이 아니다. corn을 옥수수(maize)와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미국식 용법이다. 옛 영국식 용법에서 corn은 옥수수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곡물'을 뜻한다. 콘드 비프라는 이름은 이 고기를 만드는 절임 방식에서 왔는데, 예전에는 소금 '알갱이(corns)'로 절였다(요즘은 대개 소금물을 쓴다). 각주에서 저자는 corn의 뜻이 바뀌어 큰 혼란이 생겼다며,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18세기 소설『로빈슨 크루소』의 몇몇 삽화에는 크루소가 corn을 심는다고 말하는 대목에 옥수수가 가지런히 줄지어 심겨 있지만 실제로 그가 심은 것은 쌀과 보리였다고 말한다(크루소의 식단은 3장 참조).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영국인은 corn의 옛 용법을 자주 접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영국인이 콘 익스체인지(Corn Exchange)라는 건물이 있는 도시에 사는데, 옛날 곡물 시장이 열리던 곳이다(미국이라면 Grain Exchange라고 불렀을 것이다). 또 꽤 많은 영국인이 중등학교 역사 시간에 곡물법(Corn Laws)을 배웠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곡물법은 1815년 영국 곡물 생산자를 보호하려고 도입한 것으로, 값싼 외국 곡물에 매기는 수입 관세나 수입 금지 같은 조치였다. 영국에는 15세기부터 곡물법이 숱하게 있었지만, 1815년 법은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어 제조업이 빠르게 커지고 그 결과 도시 인구가 급증하던 때에 나와 특히 논란이 되었다. 곡물을 기르지 않고 사 먹어야 하는 도시민(공장 노동자 · 사무원 · 가게 주인 · 자본가)에게 곡물법은 몹시 싫은 것이었다. 비판자들은 곡물법이 없으면 영국이 더 싼 외국 곡물을 들여와 도시민(그리고 농업 노동자처럼 식량을 사야 하는 많은 농촌 사람까지)이 더 싸게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량이 싸지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덜 주어도 되므로 더 많은 이윤을 거두고, 당시 나라의 번영을 이끌던 제조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 농업 지주의 지대 수입과 곡물을 기르는 자본가 농민의 이윤이 줄더라도 나라 전체는 더 나아진다는 것이 곡물법 반대자들의 주장이었다. 1838년 두 하원의원 리처드 코브던과 존 브라이트가 유명한 반곡물법 동맹을 만들었다. 이 두 사람은 자유화 열정으로 알려진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영웅이기도 했다. 산업혁명으로 수와 힘이 불어나던 비농업 집단의 지지를 받은 동맹은 아주 효과적인 운동을 벌여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어법

- **Corned beef isn't called that because it contains maize** : not ~ because = '~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은 아니다'(부정이 because절에 걸린다). called that = 그렇게 불리다.
- **maize (or sweetcorn), which is what the word 'corn' means to most people these days** : which = 계속적 용법(앞의 maize를 받음).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하는 것).
- **which used to be done with 'corns' (that is, grains) of salt, although these days brine is typically used instead** : used to + 수동 부정사(be done) = 예전에는 ~되었다. be used to V(~하는 데 쓰이다), be used to -ing(~에 익숙하다)와 구별.

- **Many of them live in a town with a building called the Corn Exchange, which is where the grain market used to be held in the old days** : called = 과거분사 후치. which is where ~ = 계속적 which + 보어 where절(~하던 곳). used to be held = 예전에 열리곤 했다.
- **Quite a lot of British people must have also learned about the Corn Laws in their history lessons** :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 단정이 아님).
- **Although Britain had had numerous Corn Laws dating back to the fifteenth century, the 1815 legislation was particularly controversial** : had had = 과거완료(1815년 이전부터). dating back to = 현재분사 후치(~로 거슬러 올라가는).
- **Without the Corn Laws, its critics argued, Britain could import cheaper foreign grains, enabling its urban population … to eat more cheaply** : Without ~ + could = 가정(곡물법이 없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its critics argued 삽입. enabling = 결과의 분사구문. enable + O + to V.
- **Backed by non-agrarian groups, whose number and power were swelling thanks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League … managed to repeal the law in 1846.** : Backed by = 수동 분사구문(Being 생략).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 manage to V = 용케 ~해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ynonym	동의어	equivalent	antonym
usage	용법	use	—
brine	소금물	salt water	—
encounter	접하다	come across	avoid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contentious	uncontroversial
dawn (n.)	시작, 여명	beginning	end
anathema	몹시 싫은 것	abomination	—
reap	거두다	gain	—
propel	추진하다, 이끌다	drive	hinder
landlord	지주	landowner	tenant
zeal	열정	passion	apathy
agrarian	농업의	agricultural	industrial
swell	불어나다	grow	shrink
repeal	폐지하다	abolish	enact

내용 일치 콘드 비프 ≠ 옥수수 · corn = 옥수수는 비교적 새 미국 용법 · 옛 영국 용법 = 모든 곡물 · 소금 알갱이로 절임(요즘은 소금물) · 각주 vi: 크루소 삽화의 옥수수(실제로는 쌀 · 보리) · 콘 익스체인지(미국이면 Grain Exchange) · 곡물법 1815 · 수입 관세 · 수입 금지 · 15세기부터 · 산업혁명 초라 논란 · 도시민에게 몹시 싫은 것 · 비판자: 싼 곡물 → 낮은 임금 → 더 많은 이윤 · 투자 · 지주 · 자본가 농민은 손해 · 1838 반곡물법 동맹(코브던 · 브라이트, 대처의 영웅) · 비농업 집단 · 1846 폐지. **밑줄 의미** an anathema = 곡물을 사 먹어야 하는 도시민에게 몹시 싫은 것 / buy – rather than grow = 기르지 않고 사 먹어야 하는 / the nation as a whole would be better off = 지주가 잃어도 나라 전체는 이득이라는 비판자들의 주장 / 66쪽 ¶4 they(have frequently encountered) = most Brits · 67쪽 ¶1 its critics = 곡물법(1815년 법)의 비판자 · they(could pay lower wages) = capitalists.

한 줄 요약 콘드 비프의 corn은 '곡물'이라는 옛 뜻이며, 1815년의 곡물법은 반곡물법 동맹의 운동으로 1846년에 폐지되었다.

8-5 자유무역의 '기원 이야기'와 그 구멍 67쪽 ¶3 ~ 68쪽 첫 줄 + 71쪽 각주 vii

원문 위치 원서 67쪽 ¶3 ~ 68쪽 첫 줄 + 71쪽 각주 v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7쪽 ¶3 첫 문장	'the final victory' in 'the battle to end government restrictions on industry and trade', according to Milton Friedman	프리드먼의 말 — 저자의 말 아님
★	67쪽 ¶3 첫 문장	in Free to Choose, his extremely influential book written with his wife, Rose Friedman	책 · 공저자
◆	67쪽 ¶3 둘째 문장	ushered in three-quarters of a century of complete free trade lasting unti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인용 — 뒤에서 반박할 대상
★	67쪽 ¶3 셋째 문장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 resulted in a period of unprecedented global prosperity	통념 — 사실 단정 금지
▲	67쪽 ¶3 셋째 문장	until it got regrettably disrupted by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ies	get + p.p. 수동
★	67쪽 ¶4 첫 문장	this 'origin story' of free trade is full of inaccuracies and myths	저자의 주장 — 전환점
★	67쪽 ¶4 둘째 문장	precisely what had enabled the global dominance of the British manufacturing sector … (see 'Prawn')	5장과 연결 · 관계대명사 what
★	71쪽 각주 vii	In 1860, Britain produced 20% of world manufacturing output … in 1870 … 46% of world trade	숫자 20% · 46%
◆	67쪽 ¶4 셋째 문장	Let us also ignore the 'detail' that Britain did not actually make a full transition	따옴표 'detail' — 작지 않은 사실
★	67쪽 ¶4 넷째 문장	Over 1,100 items … in 1848 – it was only by 1860 … fewer than fifty items	빈칸 문항 · 숫자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7쪽 ¶4 넷째 문장	it was only by 1860 that Britain could be described as a truly free-trading nation	it ~ that 강조
◆	67쪽 ¶5 첫 문장	Even if we ignore both these 'inconvenient truths', there is a glaring hole in the creation myth	밑줄 의미: 불편한 진실 · 뚜렷한 구멍
★	67쪽 ¶5 둘째~셋째 문장 + 68쪽 첫 줄	Britain wasn't actually even the first …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 between the 1810s and the 1830s	True/False 1순위

내용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자유시장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아내 로즈 프리드먼과 함께 쓴, 큰 영향을 끼친 책『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서 곡물법 폐지를 '산업과 무역에 대한 정부 규제를 끝내기 위한 싸움'의 '마지막 승리'라고 불렀다. 프리드먼 부부의 말로는, 곡물법 폐지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까지 이어진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열었고, 수십 년 전에 시작된 '극히 제한된 정부'로의 이행을 마무리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영국의 주도 아래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위에 세워진 이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는 전례 없는 세계 번영의 시대를 낳았고, 그 번영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만든 경제적 · 정치적 불안정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뜨릴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이야기가 다 그렇듯 자유무역의 이 '기원 이야기'도 부정확함과 신화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우선 프리드먼 부부가 역효과를 낸다고 비난한 '무역과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영국이 자유무역을 받아들이기 직전까지 영국 제조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해 준 바로 그것이었다(5장 참조). 각주에 따르면 1860년 영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했고, 1870년에는 세계 공산품 무역의 46%를 차지했다. 또 영국은 곡물법 폐지로 자유무역에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다. 1848년에도 1,100개가 넘는 품목에 관세가 매겨졌고(그 가운데 여전히 아주 높은 것도 많았다), 관세 품목이 50개 미만이 된 1860년에야 영국을 진정한 자유무역 국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저자는 이 두 '불편한 진실'을 접어 둔다 해도 자유무역의 창조 신화에는 뚜렷한 구멍이 있다고 말한다. 영국은 사실 자유무역을 처음 한 나라조차 아니었다. 그 영예는 영국보다 수십 년 앞선 1810년대에서 1830년대 사이에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한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돌아간다.

어법

- **The repeal of the Corn Laws was 'the final victory' in 'the battle to end government restrictions on industry and trade', according to Milton Friedman** : according to = ~에 따르면(프리드먼의 말 — 저자의 판단이 아님). to end = battle을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 **the repeal 'ushered in three-quarters of a century of complete free trade lasting unti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and completed a transition that had begun decades earlier'** : ushered in과 completed가 병렬. lasting = 현재분사 후치. had begun = 과거완료(폐지보다 앞선 일).
- **until it got regrettably disrupted by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ies created by two world wars and the Great Depression** : get + p.p. = 수동(상태의 변화를 강조). created = 과거분사 후치.
- **Let us put aside for the moment the fact that many of those 'government restrictions on trade and industry' that the Friedmans denounce as counter-productive were precisely what had enabled the global dominance** : 목적어 the fact가 길어 for the moment 뒤로 갔다. 동격 that절의 주어 many of those restrictions(복수) → were.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 denounce A as B = A를 B라고 비난하다.

- **it was only by 1860 that Britain could be described as a truly free-trading nation, with fewer than fifty items subject to tariffs** : it was ~ that 강조 구문(1860년이 되어서야). be subject to = ~의 대상이다. with + O + 형용사구 = 부대 상황.
- **Even if we ignore both these 'inconvenient truths', there is a glaring hole in the creation myth of free trade.** : even if = 양보(~한다 하더라도). both these + 복수 명사 어순.
- **It is that Britain wasn't actually even the first to practise free trade.** : It = 앞의 a glaring hole. is that ~ = 보어 명사절. the first to V = ~한 첫 번째.
- **That honour actually goes to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adopted free-trade policy a good few decades before Britain** : go to = (영예가) ~에게 돌아가다. which = 계속적 용법. a good few = 꽤 여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sher in	열다, 시작을 알리다	herald	end
outbreak	발발	eruption	—
transition	이행	shift	—
prevailing	지배적인	dominant	marginal
unprecedented	전례 없는	unparalleled	commonplace
disrupt	깨뜨리다, 방해하다	interrupt	sustain
inaccuracy	부정확함	error	accuracy
denounce	비난하다	condemn	praise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는	self-defeating	productive
precisely	바로, 정확히	exactly	roughly
run-up (to)	~의 직전 시기	lead-up	aftermath
be subject to	~의 대상이다	be liable to	be exempt from
glaring	뚜렷한, 눈에 띄는	blatant	subtle
honour (n.)	영예	distinction	disgrace

내용 일치 프리드먼(20세기 가장 유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 · 로즈 프리드먼과 『선택할 자유』 · 폐지 = '마지막 승리' · 1차 대전까지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 · 통념: 전례 없는 세계 번영, 두 차례 세계대전 · 대공황이 깨뜨림 · 저자: 부정확함과 신화 · 규제가 영국 제조업의 지배를 낳음(5장 참조) · 각주 vii: 1860 세계 제조업 생산 20% · 1870 공산품 무역 46% · 1848 1,100개 넘는 품목에 관세 · 1860 50개 미만 · 첫 자유무역국 = 라틴아메리카(1810~1830년대). **밑줄 의미** the final victory = 프리드먼의 평가(저자는 반박) / the 'detail' = 작은 것이 아닌데 작은 것처럼 부른 반어 / inconvenient truths = 자유무역 이야기에 불리한 두 사실 / a glaring hole in the creation myth = 기원 이야기의 가장 큰 결함 / 67쪽 ¶3 his(extremely influential book) = Milton Friedman · it(got regrettably disrupted) =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 · 67쪽 ¶5 It(is that Britain ...) = a glaring hole.

> **한 줄 요약** 프리드먼은 곡물법 폐지를 자유무역의 출발로 보지만, 저자는 그 기원 이야기가 부정확함과 신화로 가득하다고 반박한다.

8-6 '자유롭지 않은 자유무역' — 불평등 조약과 보호주의 68쪽 ¶1 ~ 69쪽 첫 줄 + 71쪽 각주 viii · ix

원문 위치 원서 68쪽 ¶1 ~ 69쪽 첫 줄 + 71쪽 각주 viii · ix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8쪽 ¶1 첫 문장	may have been the pioneers of free trade, but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밑줄 의미 1순위 · 양보의 may
▲	68쪽 ¶1 둘째 문장	Upon gaining independence … they had been forced … to sign what came to be known as 'unequal treaties'	upon + 동명사 · what
★	68쪽 ¶1 셋째 문장	by depriving them of 'tariff autonomy', that is, the right of a country to set its own tariffs	용어 정의 · deprive A of B
★	71쪽 각주 viii	The most important among these 'other things' was 'extra-territoriality'	치외법권 · 헐값의 이권
★	68쪽 ¶1 넷째 문장	usually 5%, but it could be as low as 3% …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raise some revenue	숫자 5% · 3%
★	68쪽 ¶2 첫 문장	Turkey (then the Ottoman Empire), Thailand (then Siam), Iran (then Persia) and China	나라 이름 — 일치 후보
★	68쪽 ¶2 둘째 문장	from 1853 … the 'gunboat diplomacy' of Commodore Perry of the US navy	숫자 1853 · 인물
★	68쪽 ¶2 셋째 문장	jacked up its industrial tariffs to around the average of 30%, so that it could promote its nascent industries	5장과 연결 · 숫자 30%
★	68쪽 ¶2 넷째 문장	had already done the same when their unequal treaties expired in the 1870s and the 1880s	내용 불일치 1순위 — 순서
★	68쪽 ¶3 첫~둘째 문장	protectionism was the norm … (except in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 The US … 35–50%	숫자 · 예외국
★	68쪽 ¶4 둘째~셋째 문장	Only a few (Britain,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 under compulsion, not out of free choice	주장 · 통합 사고
◆	68쪽 ¶5 첫 문장	not tarnished by these kinds of 'unfree free trade' any more	밑줄 의미: 모순어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8쪽 ¶5 둘째~셋째 문장	expired by the 1950s. By the 1980s ... decolonized ... (around sixty)	숫자 — 요약문 문항
★	68쪽 ¶5 넷째 문장 + 69쪽 첫 줄 + 71쪽 각주 ix	since 1995 ... WTO, in which all member countries have an equal voting right	요약문 (A) · 각주 ix 비교

내용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자유무역의 개척자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자유'무역은 '자유롭게'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처음 몇십 년 동안 스페인 · 포르투갈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자, 이 나라들은 영국이 이끄는 유럽 열강에 떠밀려 이른바 '불평등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이 조약들은 무엇보다 약한 나라에서 '관세 자주권', 곧 한 나라가 스스로 관세를 정할 권리를 빼앗아 자유무역을 강요했다. 각주에 따르면 이 '다른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외법권'이었다. 약한 나라의 법 제도가 더 '선진적인' 나라의 시민에게는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강한 나라의 시민은 약한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았다. 강한 나라의 개인과 회사에 천연자원(채굴권 · 벌목권 등)을 헐값에 개발할 이권을 주는 내용도 있었다. 아주 낮은 균일 관세율, 보통 5%(낮게는 3%)만 허용되어 정부는 약간의 세입을 거둘 수 있을 뿐 국제 무역의 흐름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 1830년대부터는 아직 독립국이던 다른 약한 나라들, 곧 터키(당시 오스만 제국) · 타이(당시 시암) · 이란(당시 페르시아) · 중국도 불평등 조약에 서명하고 자유무역국 대열에 들어가야 했다. 일본도 미국 해군 페리 제독의 '포함 외교'로 강제로 문을 연 1853년부터 그런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그 조약들이 1910년대에 모두 끝나자 일본은 재빨리 자유무역을 버리고, 더 뛰어난 외국 생산자와의 경쟁에 맞서 갓 생긴 산업을 키우려고 공업 관세를 평균 30% 안팎으로 끌어올렸다(5장 참조).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불평등 조약이 끝난 1870년대와 1880년대에 이미 같은 일을 했다. 강요된 자유무역이 19세기와 20세기 초 내내 세계로 퍼지는 동안, 유럽 대륙(네덜란드 · 스위스 제외)과 북아메리카에서는 보호주의가 보통이었다. 특히 미국은 18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평균 공업 관세율이 35~50% 안팎이어서, 그 기간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였다. 결국 프리드먼 부부가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이라고 부른 시기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자유'무역의 시기가 아니었다. 유럽 · 북아메리카에서 스스로 무역 정책을 고를 수 있던 스무 나라 남짓 가운데 자유무역을 한 나라는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 몇 나라뿐이었다. 나머지 자유무역 국가는 모두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라 강요 아래 그렇게 했다. 불평등 조약에 묶인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의 약한 나라들, 그리고 식민 본국과의 자유무역을 강요당한 유럽 열강의 아시아 · 아프리카 식민지였다. 자유무역 지지자들에게는 다행히도, 오늘의 국제 무역 체제는 더는 이런 '자유롭지 않은 자유무역'으로 얼룩져 있지 않다. 불평등 조약은 1950년대까지 모두 끝났고, 1980년대까지 인구가 상당한 나라 대부분이 탈식민화되었다(아직도 놀랄 만큼 많은 60곳 안팎이 식민 지배 아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95년부터 국제 무역을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율해 왔다는 점이다. WTO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더 강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더 큰 발언권을 갖는 다른 모든 국제기구와 달리, 모든 회원국이 같은 투표권을 가진다. 각주에 따르면 유엔에서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며, 세계은행 · IMF에서는 투표권이 납입 출자 지분에 연동되어 부자 나라가 과반의 표를 가지고, 표의 18%를 가진 미국은 주요 결정에 85%의 초다수가 필요하므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진다.

어법

-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may have been the pioneers of free trade, but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 may ~ but = 양보(~였을지는 몰라도). may have been = 과거에 대한 추측 · 양보. had not been adopted = 과거완료 수동.
- Upon gaining independence ..., they had been forced by the European powers, led by Britain, to sign what came to be known as 'unequal treaties'. : upon + 동명사 = ~하자마자. be forced to V = 수동(억지로 ~하다). led by = 과거분사 삽입. what = 관계대명사(~라고 알려지게 된 것). come to V = ~하게 되다.

- these treaties imposed free trade on the weaker nations by depriving them of 'tariff autonomy', that is, the right of a country to set its own tariffs : impose A on B = B에게 A를 강요하다. deprive A of B = A에게서 B를 빼앗다. that is = 곧(앞말을 풀이).
- Only a very low uniform rate of tariff ... was allowed,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raise some revenue but not affect international trade flows. : so that + S + could = 목적 · 결과. could raise와 (could) not affect가 병렬.
- other weaker countries that were still independent ... were forced to sign unequal treaties and made to join the band of free-traders : make + O + 동사원형의 수동 = be made to V(to를 살린다). 변형 → made join은 오답.
- it had average industrial tariff rates around 35–50% ..., which made it the most protectionist country in the world during much of this period : which = 계속적 용법(앞 절 전체를 받음). make + O + 명사 보어.
- All the other free-trading nations were doing so under compulsion, not out of free choice : doing so = practising free trade(앞의 동사구를 받는 대용 표현). under compulsion = 강요 아래. out of = 동기(~에서 우러나).
- since 1995,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regulat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which all member countries have an equal voting right : since + 시점 → 현재완료 수동.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unlike = 전치사(~와 달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ioneer (n.)	개척자	forerunner	latecomer
impose	강요하다, 부과하다	force	lift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strip A of B	provide A with B
autonomy	자주권	self-determination	dependence
uniform (a.)	균일한	standard	varied
revenue	세입	income	expenditure
forcibly	강제로	by force	voluntarily
expire	만료되다	run out	renew
jack up	끌어올리다	raise	cut
nascent	갓 생긴	emerging	mature
offender	장본인, 위반자	culprit	—
compulsion	강요	coercion	free will
tarnish	더럽히다	taint	polish
decolonize	탈식민화하다	liberate	colonize

내용 일치 라틴아메리카 = 개척자였을지는 몰라도(may have been) 강요된 자유무역 · 영국이 이끄는 유럽 열강 · 불평등 조약 · 관세 자주권 박탈 · 균일 관세 보통 5%(낮게는 3%) · 각주 viii: 치외법권 · 헐값의 자원 이권 · 1830년대~ 터키 · 타이 · 이란 · 중국 · 일본 1853(페리) → 1910년대 만료 · 관세 30% 안팎 · 라틴아메리카 1870~1880년대 · 유럽 대륙(네덜란드 · 스위스 제외) · 북미 보호주의 · 미국 35~50% · 스스로 자유무역 =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뿐 · 조약 1950년대 만료 · 1980년대 탈식민 · 60곳 안팎 · 1995 WTO 같은 투표권 · 각주 ix: 미국 18% · 85%. **밑줄 의미**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라 강요된 자유무역 / made to join the band of free-traders = 억지로 자유무역국 대열에 / a particular offender = 보호주의의 대표 주자(비꼼) / unfree free trade = 강요된 자유무역이라는 모순어법 / 68쪽 ¶1 they(had been forced) =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 68쪽 ¶2 its(nascent industries) = Japan · 68쪽 ¶3 it(had average industrial tariff rates) = the US · 68쪽 ¶4 doing so = 자유무역을 하는 것.

한 줄 요약 19세기 자유무역은 대부분 불평등 조약과 식민 지배로 강요된 것이었고, 스스로 고를 수 있던 나라는 대개 보호주의를 택했다.

8-7 규칙은 누가 쓰는가 — 힘의 불균형과 '자유'의 뜻 69쪽 ¶1 ~ 70쪽 ¶4 + 71쪽 각주 x

원문 위치 원서 69쪽 ¶1 ~ 70쪽 ¶4 + 71쪽 각주 x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9쪽 ¶1 둘째 문장	Even though they don't exercise it as blatantly and brutally as before, stronger countries are still exercising their power	요약문 (B) · 지칭 they
★	69쪽 ¶2 첫 문장	much greater influence in setting the agenda … made sure that the rules were set in their favour	첫째 방법 — 규칙 만들기
★	69쪽 ¶2 둘째~셋째 문장	fewer restrictions on … agricultural producers than for manufacturing firms … rich countries have weaker agriculture	까닭 — 상대적 약점
★	69쪽 ¶2 다섯째~여섯째 문장	bans the use of 'local contents requirement' … disproportionately benefits rich countries	어휘 문항 · 6장 · 9장 연결
▲	69쪽 ¶2 일곱째 문장	even if all countries abide by the same rules, the more powerful countries are likely to benefit more	even if · be likely to
▲	69쪽 ¶3 첫 문장	written rules are one thing and how they are applied is another	A is one thing, B is another
▲	69쪽 ¶3 셋째 문장	use their power to prevent them from fully employing their tariff allowances	prevent A from -ing
★	69쪽 ¶3 다섯째~여섯째 문장	a key condition for their financial support … 'soft power' … academia, international media, and policy think-tanks	둘째 방법 — 돈과 생각의 힘
★	69쪽 ¶3 일곱째 문장	around 10% on average, even though … 20%, 30% or even higher	숫자 — 요지 문항
◆	69쪽 ¶3 여덟째~아홉째 문장	power does not just mean making someone do something against their will	힘의 두 얼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0쪽 첫 줄 + 70쪽 ¶1 첫 문장	beef has come to conquer the world in the last century and a half ... 'the planet of cows'	결론의 비유 · 스밀
★	71쪽 각주 x	the zoomass of cattle is 1.5 times that of humans and 200 times that of elephants	숫자 1.5 · 200
◆	70쪽 ¶3 둘째~셋째 문장	it only means freedom for those who are conducting trade across national borders ... No more, no less.	주장 문항 1순위
▲	70쪽 ¶4	Only when we understand the power imbalances ... can we understand why ...	Only when 도치

내용

그렇다고 국제 무역에 힘의 불균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강한 나라들은 예전처럼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힘을 쓰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기 이익에 맞게 국제 무역 체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먼저 더 힘센 나라들은 WTO 규칙을 정하는 첫 협상의 의제를 정하는 데 훨씬 큰 영향력을 가졌고, 규칙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WTO는 제조업 기업보다 농업 생산자에 대한 무역 보호와 보조금에 더 적은 제한을 둔다. 까닭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상대적으로 말해 부자 나라는 농업이 약하고 가난한 나라는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국 안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WTO 규칙도 있다. WTO는 '현지 조달 요건'(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투입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도록 요구하는 것 — 9장 · 6장 참조)을 금지한다.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부자 나라 기업이므로 이 규칙은 부자 나라에 지나치게 이롭다. 이런 예들은 모든 나라가 같은 규칙을 지키더라도, 규칙의 내용을 이미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 둔 더 힘센 나라들이 체제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다가 쓰인 규칙과 그 규칙이 적용되는 방식은 별개다. WTO의 관세 규칙은 사실 개발도상국에 더 높은 관세를 허용해 그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부자 나라가 힘을 써서 개발도상국이 관세 허용 한도를 다 쓰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이익은 제한된다. 그 힘은 흔히 돈의 힘이다. 부자 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지원, 곧 양자 간 '해외 원조'와 자기들이 좌우하는 세계은행 · IMF 같은 다자간 금융 기관의 대출에 무역 자유화를 핵심 조건으로 걸어 왔다. 때로는 학계 · 국제 언론 · 정책 싱크탱크를 통해 '소프트 파워'(더 멋진 말로는 관념의 힘)를 써서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에 좋다고 설득한다. 그 결과 WTO 규칙상 나라에 따라 20% · 30% 또는 그 이상의 관세율이 허용되는데도, 요즘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적용하는 공업 관세율은 평균 10% 안팎이다. 이는 힘이 누군가에게 뜻에 반하는 일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 또는 그 일이 자기 이익에 어긋난다고 믿게 되어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함을 보여 준다. 저자는 결론에서 소고기로 돌아간다. 끝없어 보이는 인간의 입맛과 보존 기술(추출 · 통조림 · 냉장)의 발달 덕에 소고기는 지난 150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다. 직설적인 환경 과학자 바츨라프 스밀의 말을 빌리면 소고기는 지구를 '소의 행성'으로 만들었다(각주: 소의 생물량은 사람의 1.5배, 코끼리의 200배). 소고기 산업은 온실가스 · 삼림 파괴 · 물 사용에서 지구에 큰 환경 부담을 지우고 있고(5장 · 14장 참조), 소고기를 빼고는 고기의 역할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식량 체계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자유시장 · 자유무역 경제학의 등장과 함께 '자유'는 사회와 경제를 생각하는 방식에서 지배적인 개념이 되었다. '자유'라는 말이 들어간 생각은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그에 반하는 듯한 것은 원시적이고 억압적이며 뒤처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유에는 여러 개념이 있고, 그 모두를 누구에게나 분명히 좋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2장 참조). 자유무역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사람들이 각국 정부의 규제(수입 금지 등)나 세금(관세 등)을 받지 않을 자유를 뜻할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첫 자유무역 시대(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으로 제 앞날을 정할 권리를 빼앗긴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거의 도맡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의 (두 번째) 자유무역 시대처럼 나라들 사이에 형식상 평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제 무역의 규칙을 더 강한 나라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하고 운영하므로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똑같이 이롭지는 않다. 저자는 국제 무역을 규정하는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자유'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을 때에야, 모두에게 그토록 분명히 좋다는 자유무역을 두고 나라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법

- **Even though they don't exercise it as blatantly and brutally as before, stronger countries are still exercising their power** : even though = 양보(실제 사실). as + 부사 + as = 동등 비교. they가 뒤의 stronger countries를 먼저 가리킨다.
- **It is not difficult to guess why – relatively speaking, rich countries have weaker agriculture and poor countries have weaker manufacturing.** : 가주어 it + 진주어 to guess. why 뒤 생략(why the WTO does so). relatively speaking = 독립 분사구문(상대적으로 말해).
- **written rules are one thing and how they are applied is another** :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 A와 B는 별개다. how절 = 명사절 주어 → 단수 is.
- **rich countries use their power to prevent them from fully employing their tariff allowances** : prevent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막다. to prevent = 목적의 to부정사. them = developing countries.
- **It also means making others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in their own interests for fear of punishment from you** : mean + 동명사 = ~하는 것을 뜻하다. make + O + 동사원형(refrain). refrain from -ing = ~을 삼가다. for fear of = ~이 두려워.
- **Its dominance has been such that beef has turned the earth into 'the planet of cows'** : be such that = 정도가 대단해서 ~할 정도다(such가 보어). turn A into B = A를 B로 바꾸다.
- **there are many different notions of freedom, and they cannot all be treated as being unequivocally good for everyone** : all + not = 부분 부정(모두 ~인 것은 아니다). be treated as = ~로 여겨지다.
- **Only when we understand the power imbalances that define international trade and do not get dazzled by ..., can we understand why ...** : Only + 부사절이 문장 앞에 오면 주절이 도치된다(can we understand). get dazzled = get + p.p. 수동.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balance	불균형	disparity	balance
blatantly	노골적으로	openly	subtly
agenda	의제	programme	—
subsidy	보조금	grant	tax
disproportionately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unduly	equally
abide by	지키다	obey	violate
derive	(이익을) 얻다	obtain	—
disburse	지급하다	pay out	withhold
refrain from	~을 삼가다	abstain from	engage in
insatiable	채울 수 없는	unquenchable	—
deforestation	삼림 파괴	forest clearance	reforestat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equivocally	분명히	unambiguously	ambiguously
perverse	모순된, 비뚤어진	contrary	reasonable
dazzle	현혹하다	blind	—

내용 일치 형식의 평등에도 힘의 불균형 · 의제 설정 · 농업 보호 · 보조금에 더 적은 제한(부자 나라는 농업, 가난한 나라는 제조업이 약함) · 현지 조달 요건 금지 → 부자 나라에 지나치게 이로움 · 관세 규칙은 개발도상국에 유리 · 원조 · 대출 조건(세계은행 · IMF) · 소프트 파워(학계 · 언론 · 싱크탱크) · 실제 공업 관세 평균 10% 안팎(허용 20 · 30% 이상) · 15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소고기 · 스밀의 '소의 행성'(각주 x: 사람의 1.5배 · 코끼리의 200배) · 자유무역의 자유 = 국경 넘어 거래하는 이가 규제 · 세금을 받지 않을 자유뿐. **밑줄 의미** written rules are one thing and how they are applied is another = 규칙과 적용은 다르다 / ideational power = 소프트 파워의 멋진 말 / the planet of cows = 소고기가 지구를 지배함 / No more, no less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 69쪽 ¶1 they(don't exercise it) = stronger countries · it = their power · 69쪽 ¶3 them(prevent them) = developing countries · 70쪽 ¶1 it(without talking about it) = beef.

> **한 줄 요약** 형식상 평등한 오늘의 WTO에서도 강한 나라가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므로, '자유'라는 말 뒤의 힘의 불균형을 보아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8 BEEF]

범위	Beef (원서 PDF 64~71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Just as beef dominates our diet, 'freedom' has come to dominate how we view the economy. Anything called 'free', from free markets to a free press, is assumed to be good, and whatever opposes it is labelled backward. Yet freedom takes many forms, and not all of them are good for everybody. In free trade, 'free' only means that those trading across borders escape national taxes and regulations. That is why, in the nineteenth century, free trade was carried on mostly by nations that had lost their own freedom. Only by seeing the imbalances of power behind the word can we grasp why free trade causes so many disputes.

① Poor countries should ban free trade.
② Free trade benefits all nations equally.
③ Look past 'free' to the power behind trade.
④ All kinds of freedom are good for everyone.
⑤ We should eat less beef for the planet.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otball, politics and civil rights are not the only fields where Uruguay has led the world. Less glamorous, perhaps, but just as remarkable is its beef industry. No other nation comes close to Uruguay in cattle per person. Quality matters too: in 2004, Uruguay became the first nation in which every single animal could be traced. This does not mean, the author admits, that beef from Uruguay is always the tastiest. Uruguay was also the first to produce beef extract on a large scale, a thick 'liquid beef' that later turned into the famous Oxo stock cube.

① Uruguay: Champion of the World's Beef Industry
② Why Uruguayan Beef Tastes the Best
③ How Football Made Uruguay Rich
④ Liebig's Dream of Feeding the Poor
⑤ The Environmental Cost of Cattle Farming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Rules on paper and rules in practice differ. WTO tariff rules actually favour developing countries, letting them use higher tariffs. Yet these countries gain little, because the rich nations exert their power to keep them from using what they are permitted. Often that power is financial: rich nations make trade liberalization a condition of their aid and of loans from the IMF and the World Bank, which they control. At other times they rely on 'soft power', persuading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universities, the media and think-tanks that free trade serves them. So although WTO rules allow many of them tariffs of 20%, 30% or more, their actual industrial tariffs average around 10%.

① Poor countries should keep tariffs low.
② Rich nations' power limits poor ones' gains.
③ WTO rules harm poor countries in every area.
④ Soft power matters more than money.
⑤ Developing countries run the IMF.

4. 밑줄 친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sk which nation is best at football, and many will name Brazil, winner of a record five World Cups. Others may point to Italy, which has won four with less than a third of Brazil's population. Yet the right answer is Uruguay. With a population of just 3.5 million, it has won twice: at the very first tournament, in 1930 at home in Montevideo, and in 1950 against the hosts in Rio de Janeiro, then Brazil's capital. Were Uruguay as populous as Brazil,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100 more than the total number of Cups won so far.

① Uruguay's record is amazing for its size.
② Uruguay should have won many more Cups.
③ Brazil has won more Cups than anyone.
④ More World Cups should be held.
⑤ A big population guarantees success.

5. 밑줄 친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ritain was not, in fact, the first nation to adopt free trade. The countries of Latin America did so some decades earlier, from the 1810s to the 1830s. Yet even if they were the pioneers,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Once they won independence from Spain and Portugal, the European powers, with Britain in the lead, made them sign so-called 'unequal treaties', which took away their 'tariff autonomy', the right of a nation to decide on its own tariffs. They were allowed only a single low tariff, usually 5% and sometimes just 3%, enough to raise some revenue without disturbing trade.

① They chose free trade for their own good.
② Stronger powers forced free trade on them.
③ They traded only with their neighbours.
④ Their governments collected no tariffs.
⑤ They dropped free trade on independenc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Justus von Liebig, a German scientist famous for ① his research on plant nutrition and seen as a founding father of organic chemistry, created beef extract in 1847. ② He believed it would allow the poor, who could not pay for real beef, to enjoy its nutrients. Sadly for ③ him, the ingredients were so costly that few could afford the product, and for fifteen years ④ his extract stayed a culinary curiosity, made only in small quantities. Then, in 1862, Georg Christian Giebert, a young German engaged in railway engineering in Uruguay, heard of the invention, and ⑤ he proposed producing it in Uruguay. Beef was very cheap there, being a mere by-product of leather-making, since the meat could not reach markets in Europe or North America without refrigerator ship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Uruguay has shone in more than football; it also has a fine recor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1912 Uruguay was the first nation in Latin America to give women the right to seek a divorce without stating any particular reason. In 1917 it was among the earliest nations anywhere to grant women the vote, and in 2013 it legalized marijuana, something no country had done before. The author, however, does not want to suggest that Uruguay has always been on the right side. From 1973 to 1985 it was under a brutal military dictatorship, and for most of that period José Mujica, who later served as president from 2010 to 2015, was held as a political prisoner.

① 우루과이는 1912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이혼 청구권을 주었다.
② 우루과이는 1917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첫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
③ 우루과이는 2013년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
④ 우루과이의 군사 독재는 1985년에 시작되었다.
⑤ 호세 무히카는 대통령 임기 중에 정치범으로 갇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From the 1830s, several weaker nations that kept their independence, among them the Ottoman Empire (now Turkey), Siam (now Thailand), Persia (now Iran) and China, were also made to sign unequal treaties. Japan had to sign them from 1853, after the American naval officer Commodore Perry forced it open. When its treaties ran out in the 1910s, Japan quickly gave up free trade and lifted its industrial tariffs to about 30% on average. Latin American countries had done the same earlier, when their treaties ended in the 1870s and 1880s. Meanwhile the US, with average industrial tariffs of 35–50% from the 1830s to the Second World War, was for much of that time the world's most protectionist nation.

① 183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 · 시암 · 페르시아 · 중국도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 했다.
② 일본은 1853년부터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 했다.
③ 일본은 조약이 끝나자 공업 관세를 평균 30% 안팎으로 올렸다.
④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일본보다 늦게 자유무역을 버렸다.
⑤ 18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평균 공업 관세율은 35~50%였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Corn Laws ① introduced in 1815 protected British grain growers through measures like import duties or bans on cheaper foreign grain. Britain had had many Corn Laws since the fifteenth century, but the 1815 law caused particular anger because it came just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beginning, when factories were expanding and towns ② were growing quickly. City-dwellers, who had to buy their grain rather than grow ③ it, hated the laws. The laws' critics argued that without them Britain could import cheaper grain, ④ allowing townspeople and many rural people alike to buy food for less. Cheaper food would also let employers pay lower wages, earn more profit and invest mor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⑤ was driving the nation's prosperity.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rned beef is not (A) [calling / called] so because there is maize in it, the sense most people now give to 'corn'. Using 'corn' for maize is a fairly recent American habit; in older British English the word refers to grain of any kind. The name comes from the way the beef was cured, which in the past (B) [used to / was used to] be carried out with 'corns', or grains, of salt, though brine is usually used now. Most Brits, if they stopped to think, would see that they often meet the old meaning. Many live in towns with a Corn Exchange, (C) [which / where] the grain market was once held, and many must have studied the Corn Laws at school.

	(A)	(B)	(C)
①	calling	used to	which
②	called	was used to	where
③	called	used to	which
④	calling	was used to	where
⑤	called	used to	wher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Even so, this does not mean that power no longer matters in world trade. Stronger countries may act less ① openly and brutally than in the past, but they still use their power to shape the trading system in their own interests. First, the powerful had far more say in drawing up the agenda for the talks that produced the WTO's rules, and they made sure those rules ② favoured them. For instance, the WTO places fewer limits on protecting and subsidizing farmers than manufacturers, which is no surprise, since rich countries are relatively ③ weak in agriculture and poor ones in manufacturing. The WTO also bans 'local contents requirements', which oblige MNCs to buy a certain share of their inputs locally. This rule ④ equally benefits rich countries, since most MNCs come from them. So even when everyone obeys the same rules, the strong are likely to ⑤ gain more.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Like all such tales, the story of how free trade began contains many errors and myths. For one thing, many of the 'government restrictions' that the Friedmans attacked as harmful were exactly what had allowed British manufacturing to dominate the world before Britain turned to free trade. For another, Britain's shift to free trade was _____. In 1848, two years after the Corn Laws were abolished, more than 1,100 items still faced tariffs, a good number of them at high rates. Only by 1860, when fewer than fifty items were subject to tariffs, could Britain be called a genuinely free-trading country.

① a gradual process rather than a single step
② completed overnight by one repeal
③ forced on it by stronger nations
④ reversed soon after it began
⑤ opposed by its manufacturer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In those days, such a facility was found only at companies at the cutting edge of technology, like BASF, the German chemical giant.

LEMCO, a company named after Liebig's meat extract, was founded in London in 1865. (①) Its production plant, however, was built far away in Fray Bentos, a small Uruguayan town whose name means 'Friar Benedict' in English. (②) The name is said to come from a hermit of the seventeenth century who once lived in a cave close by. (③) The factory there came with a research and development laboratory, where scientific knowledge was used to create products and production methods that could earn money. (④) In time, LEMCO expanded its operations to several countries on three continents: Africa, Europe and South America. (⑤) Many historians therefore regard it as the first multinational food firm in the world.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n 1838 two MPs, John Bright and Richard Cobden, set up the Anti-Corn Law League; both later became heroes to Margaret Thatcher. ① With the support of non-farming groups, which were growing in number and power as industry boomed, the League ran a very effective campaign and had the law repealed in 1846. ② Milton Friedman, the twentieth century's most famous free-market economist, called the repeal the 'final victory' of the struggle against state controls on trade and industry. ③ Corned beef owes its name to the grains, or 'corns', of salt once used to cure the meat. ④ Friedman and his wife Rose wrote that it began seventy-five years of total free trade, which lasted until World War I. ⑤ According to the dominant view, this liberal order, led by Britain, brought an era of prosperity the world had never seen until the Great Depression and two world wars disrupted i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t first, LEMCO named its beef extract, unimaginatively, Lemco. Despite the dull name, it became a worldwide hit as a cheap, handy way to make beef broth, though it lacked the nutrients Liebig had hoped for. Later it became a dried cube called Oxo.

(A) As a result, canned corned beef and Oxo cubes became everyday food for working-class Europeans, for whom meat had once been a luxury. Cheap, durable and portable, they also fed soldiers in the Boer War and World War I, as well as polar explorers.

(B) Soon after the success of its extract, LEMCO produced another world-beater: canned corned beef, made from 1873. Salt-cured beef had existed in Europe for centuries, but LEMCO brought it within reach of far more people.

(C) It did so by making the meat cheaper and longer-lasting. It used cuts less costly than brisket and minced them, and canning let the meat keep far longer, so it could be shipped further.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upporters of free trade can take comfort that today's trading system is no longer stained by such 'unfree free trade'. All the unequal treaties had ended by the 1950s, and most sizeable nations had been decolonized by the 1980s. Above all, since 1995 world trade has been governed by the WTO, where every member has an equal vote, unlike other international bodies in which the strong formally have a bigger say. Even so, power has not left trade. Stronger countries no longer use it as crudely as before, but they still use it to shape and run the system to suit themselves.

→ Although today's trading system formally gives every member (A) _____ voting rights, stronger nations still (B) _____ it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① equal ..... shape
② unequal ..... shape
③ equal ..... abandon
④ unequal ..... leave
⑤ limited ..... rejec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847 the German scientist Justus von Liebig invented beef extract, but it remained too costly for most people. Then LEMCO, set up in London in 1865, began making it at Fray Bentos in Uruguay, where beef was cheap, and in 1908 the extract became a dried cube known as Oxo. 'Corn' once meant any grain, as in Britain's Corn Laws of 1815. In 1838 Richard Cobden, together with John Bright, formed the Anti-Corn Law League, and the laws were repealed in 1846. Even so, more than 1,100 items still carried tariffs in 1848. Nor was Britain the first free-trader: Latin American countries had adopted free trade decades before.

<QUIZ>

(1) In what year did Liebig invent beef extract?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Uruguayan town did LEMCO make its extract?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the extract become a dried cube?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were the Corn Laws repealed?
Answer for (4): _____

(5) Who formed the Anti-Corn Law League together with John Bright?
Answer for (5): _____

(6) How many items still carried tariffs in 1848?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Britain was the first country to practise free trad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865	N. True
B. 1847	O. 1860
C. 1862	P. John Bright
D. 1873	Q. Giebert
E. more than 1,100	R. Fray Bentos
F. Montevideo	S. 1846
G. London	T. False
H. 1815	U. 1930
I. 1908	V. 2004
J. 1838	W. 5%
K. Richard Cobden	X. 30%
L. Milton Friedman	Y. 1853
M. fewer than fifty	Z. 1995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이 업적이 놀랍긴 하지만, 축구가 우루과이가 뛰어난 유일한 분야는 아니다. (형용사 + though + S + V(양보))

02 우루과이가 브라질만큼의 인구를 가졌다면, 두 번이 아니라 121번 우승했을 것이다. (혼합 가정법)

03 우루과이는 모든 소를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첫 나라다. (the first + 명사 + to have p.p.)

04 원료가 너무 비싸서 그의 추출물을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값으로 만들 수 없었다. (too + 형용사 + to V)

05 가장 시시한 이름을 가졌는데도 그 제품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despite + 동명사)

06 통조림으로 만들어 LEMCO는 콘드 비프가 훨씬 더 오래가게 했다. (make + O + 동사원형)

07 콘드 비프는 옥수수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다. (not ~ because(부정의 범위))

08 꽤 많은 영국인이 역사 시간에 곡물법을 배웠을 것이다. (must have p.p.)

09 영국을 진정한 자유무역 국가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은 1860년이 되어서였다. (it was only ~ that(강조))

10 이 조약들은 약한 나라에서 관세 자주권을 빼앗아 자유무역을 강요했다. (impose A on B / deprive A of B)

11 부자 나라는 힘을 써서 개발도상국이 관세 허용 한도를 다 쓰지 못하게 막는다. (prevent A from -ing)

12 힘의 불균형을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나라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Only when + 절 → 주절 도치)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최다 우승 / 이탈리아 우승 · 인구	
우루과이 인구 / 우승 연도	
브라질 인구라면 우루과이의 우승 횟수	
이혼 청구권 / 여성 참정권 / 마리화나 합법화	
군사 독재 / 무히카의 대통령 임기(각주 ii)	
모든 소를 추적할 수 있게 함	
소고기 추출물 발명 / 발명자	
기베르트가 리비히의 발명을 앎	
LEMCO 설립 / 장소 / 공장	
옥소 큐브 / 통조림 콘드 비프 생산 시작	
콘드 비프의 몫(1942년 4~9월 영국 고기 배급)	
LEMCO 인수 / 가동 중단 / 세계유산(각주 v)	
곡물법 도입 / 반곡물법 동맹 / 폐지	
동맹을 만든 두 하원의원	
1848년 관세 품목 / 1860년 관세 품목	

항목	답
라틴아메리카의 자유무역 채택 / 조약 만료	
불평등 조약의 균일 관세율	
일본의 조약 체결 / 만료 뒤 공업 관세	
미국 평균 공업 관세(1830년대~2차 대전)	
WTO 출범 / 개발도상국 실제 공업 관세	
소의 생물량(각주 x)	

4-3. 통합 사고 문제 — 5장과 8장을 잇는 자리

문제

5장에서 저자는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새 산업의 미숙한 생산자들이 더 크고 뛰어난 외국 경쟁자에게 금세 쓸려 나간다고 썼고(49쪽 ¶2), 오늘날 자유무역의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도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였으며 산업의 우위를 이룬 뒤에야 자유무역을 받아들였다고 썼다(49쪽 ¶6). 8장에서 저자는 불평등 조약이 끝나자 일본이 갓 생긴 산업을 키우려고 공업 관세를 평균 30% 안팎으로 끌어올렸다고 썼고(68쪽 ¶2),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 · 북아메리카에서 스스로 무역 정책을 고를 수 있던 스무 나라 남짓 가운데 자유무역을 한 나라는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 몇 나라뿐이었다고 썼다(68쪽 ¶4).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나머지 자유무역 국가들이 어떤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했다고 저자가 보았는지 아래 68쪽 ¶4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 하나로 쓰고, 그 근거를 5장과 8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5장 또는 8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자유' 무역의 실상: All the other free-trading nations were doing so under _____, not out of free choice – weaker nat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 under unequal treaties or the Asian and African colonies of European powers, which were forced into free trade with their colonial master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9 BANANA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Banana」 (원서 PDF 72~79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7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다국적 기업은 바나나처럼 쓰기 나름인가."

이 장은 구운 식빵에 땅콩버터와 얇게 썬 바나나를 얹고 꿀을 뿌린 저자 집안의 엘비스 샌드위치로 시작한다. 바나나를 과일로만 아는 것은 바나나를 기르지 않는 나라의 이야기일 뿐, 바나나의 85%는 기르는 곳에서 소비된다고 추정되며 그곳에서는 흔히 요리해 먹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작물화된 바나나는 아메리카로 건너가 노예의 식량이 되었고, 19세기 말부터는 미국 바나나 회사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의 경제와 정치를 쥐고 흔들어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낳았다. 저자는 이를 다국적 기업 이야기로 넓혀, 다국적 기업이 새 산업과 기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이익은 어디까지나 '잠재적'이며 정책이 없으면 조립만 하는 '고립 지역'이 남는다고 말한다. 다국적 기업은 바나나처럼 생산적이지만, 한국 · 타이완처럼 규제로 기술 이전을 끌어낼 때에야 받아들인 나라에 이롭다는 것이 이 장의 결론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6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다국적 기업도 바나나처럼 쓰기 나름 – 정책이 있어야 이롭다(78쪽 ¶2~¶3) / 이익은 '잠재적'일 뿐(76쪽 ¶3) / 고립 지역의 스크루드라이버 작업(76쪽 ¶4~¶5) / 생산지에서는 바나나를 요리해 먹는다(72쪽 ¶5)
4~5	**밑줄 함축 의미**	simply a fan of it / I am with the King here / an essential cog … the engine of the export economy / El Pulpo, 'the octopus' / a tiny bit / So the gig economy wasn't invented in Silicon Valley / 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 /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 'unknown quantities' / screwdriver operations / literally the most hi-tech economy / if not a 'banana republic'
6	지칭 추론	they · their가 포르투갈인(the Portuguese)을 가리키는 73쪽 ¶3(출제는 노예를 섞는다) / It(73쪽 ¶1 = the banana) / its(74쪽 ¶1 = UFC) / their(74쪽 ¶3 = the banana companies) / its · it(75쪽 첫 줄 = the US government · the Colombian military) / they(77쪽 ¶3 = Korea and Taiwan)
7~8	내용 일치·불일치	85% · 95% · 25%(72쪽 ¶5) / 1470년대 · 1521 · 1479 · 20만 파운드(73쪽 ¶2~¶3) / 1928 · 12월 6일 · 47~2,000 · 3,000(74쪽 ¶4~75쪽 첫 줄) / 1897 · 1904 · 1950(75쪽 ¶1) / 60% · 20% · 35% · 3,500달러(77쪽 ¶1)
9~10	**어법**	be supposed to have p.p. · so much so that · 동명사 주어 · It is estimated that · it ~ that 강조 · be estimated to have been p.p. · cannot ~ without · 과거분사 후치(spread) · by the time + 과거완료 · whom · as little ~ as possible · may have p.p. ~ but · come to V · most of which · be such that · let · make + O + 동사원형 · could not have p.p. · be left with · 삽입절(which most people assume) · Only when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predominant↔minor · perishable↔durable · meagre↔ample · tight(grip) · beyond(jurisdiction) · a tiny bit↔a great deal(74쪽 ¶3) · disputed↔undisputed · superior↔inferior · isolated↔integrated · extensively↔sparingly · liberal↔strict
12	빈칸 추론	Despite being so 'hi-tech'(77쪽 ¶1) /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76쪽 ¶3) / used in the wrong way(78쪽 ¶2~¶3)
13	문장 삽입	기술이 전해지는 두 길(76쪽 ¶1): 직접 – 현지인이 일하다 지식을 가지고 옮김 → 간접(But it can also happen indirectly) – 현지 기업에서 투입물을 삼
14	무관한 문장	한국 · 타이완의 다국적 기업 규제(77쪽 ¶3)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캐번디시 품종, 78~79쪽 각주 iv)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톱니바퀴 → 수출 경제의 엔진(74쪽 첫 줄) → 철도 · 증기선 · 냉장(74쪽 ¶1) → 미국 회사의 플랜테이션 → 경제 장악 · 엘 풀포(74쪽 ¶2)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다국적 기업 규제(77쪽 ¶2): 지분 제한 · 기술 이전 · 현지 고용 · 현지 조달 요건 → 이익을 최대로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연도 · 이름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85% · 95% · 25% · 1,000 · 20만 파운드 · 10배 · 100배 · 47~2,000 · 3,000 · 50% · 60% · 20% · 35% · 3,500달러 · 3만 달러 · 6만 달러 · 90%. 연도도 많다 – 1470년대 · 1479 · 1521 · 1830년대 중반 · 1871 · 1897 · 1904 · 1928 · 1930년대 · 1950 · 1950년대 · 1960년대 중반 · 1980년대 · 1998.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생산지 소비 85% ↔ 국제 거래 디저트 바나나 95%, 아프리카 도착 1470년대 ↔ 동남아시아 1521, Chiquita = UFC ↔ Dole = SFC, 말을 만든 오 헨리 1904 ↔ 퍼뜨린 네루다 1950, 실제 사망자 47~2,000(논란) ↔ 소설 3,000 넘게, 한국 · 타이완 = 규제 ↔ 문 활짝 열기). '~라고들 한다 · 추정 · 어떤 이들에 따르면 · 대부분이 그렇게 여긴다'(allegedly · is supposed to · It is estimated · by some accounts · most people assume)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Banana」 (72~78쪽)

논증형(사람 이름을 딴 요리 → 엘비스 샌드위치 → 바나나를 먹는 두 방식 · 85% → 작물화 · 유전적으로 똑같은 바나나 → 아프리카 · 포르투갈인 · 노예의 식량 → 수출 경제의 엔진 · 미국 바나나 회사 → 엘 풀포 · 쿠데타 · 해병대 → 바나나 학살 → 바나나 공화국 → 다국적 기업의 이익 → '잠재적' 이익 · 고립 지역 · 필리핀 → 규제 · 한국과 타이완 → 결론). 핵심 축은 **다국적 기업의 잠재적 이익 vs 실제로 남는 고립 지역**, 그리고 **문 활짝 열기 vs 정책으로 이끌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2 ¶1 + 78 각주 i · ii	도입	사람 이름을 딴 요리 – 만들었다는 사람(동파육 · 시저 샐러드 · 나초) / 받았다는 사람(비프 웰링턴 · 피자 마르게리타 · 피치 멜바)
72 ¶2~¶3 + 78 각주 iii	엘비스 샌드위치	그저 팬이던 엘비스의 이름 · 바나나와 땅콩버터 · 저자 아내의 아침
72 ¶4	먹는 방식(1)	샌드위치 속은 드문 방식 · 빵 · 디저트 · 주로 과일로
72 ¶5(~73)	먹는 방식(2)	85%는 생산지에서 소비(추정) · 흔히 요리 · 플랜틴과 디저트 바나나(국제 거래의 95%) · 맥주 · 열량의 25%까지
78~79 각주 iv	캐번디시	국제 거래의 95% · 1,000가지 넘는 품종 · 1830년대 중반 팩스턴이 개발
73 ¶1 + 79 각주 v	작물화	동남아시아 원산 · 씨 없는 돌연변이 · 사람 손으로만 번식 · 유전적으로 똑같음 / 파나마병
73 ¶2	아프리카로	인도양을 건넘 · 1470년대 포르투갈인 · 반투어 banana · 1521 마젤란
73 ¶3	노예의 식량	마데이라 · 카나리아 제도 · 노예선의 주식 · 텃밭 · 에이커당 20만 파운드
74 첫 줄~¶1	수출 경제의 엔진	철도 · 증기선 · 냉장 → 미국 바나나 회사(UFC · SFC)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74 ¶2	엘 풀포	온두라스의 철도 · 전등 · 통신 / 1930년대 과테말라의 UFC / '문어'
74 ¶3	정치 지배	자체 세관 · 경찰 · 정치인 매수 · 쿠데타 · 필리버스터 · 미국 해병대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4 ¶4~75 + 79 각주 vi	바나나 학살	1928 파업 · 12월 6일 · 시에나가(47~2,000명) · 『백년의 고독』
75 ¶1~¶2	바나나 공화국	1904 오 헨리 「제독」 · 1950 네루다 / 오늘의 옷 브랜드
75 ¶3~76 ¶1	새 산업 · 기술	받아들인 나라에 해를 끼칠 수도 / 새 산업(1998 인텔 · 1960년대 중반 한국) · 기술 · 경영 전수
76 ¶2~¶3	'잠재적' 이익	세계은행 · WTO 등의 권고 · 아일랜드 · 싱가포르 / 실현에는 정부 정책이 필요
76 ¶4~77 ¶1	고립 지역	국제 인력 · 수입 투입물 → 스크루드라이버 작업 / 필리핀(첨단 60% · 1인당 3,500달러)
77 ¶2~¶3	규제	지분 제한 · 기술 이전 · 현지 고용 · 현지 조달 요건 / 한국 · 타이완 · 중국
78 ¶1	통념의 반례	자유방임이 아니라 공공 정책 개입 · 땅의 90% 가까이를 가진 싱가포르 정부
78 ¶2~¶3	결론	가장 생산적인 과일도 잘못 쓰면 해롭다 / 다국적 기업도 정책이 있을 때에야 이롭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요리 이름의 유래	만들었다는 · 받았다는 사람의 이름(allegedly) – 동파육 · 비프 웰링턴 등	그저 팬이던 사람 – 엘비스 샌드위치
바나나를 먹는 방식	생산하지 않는 나라 – 주로 과일(그대로 · 시리얼 · 요거트 토핑)	생산 지역(85% 소비 추정) – 흔히 요리(탄수화물 · 채소) · 맥주
바나나의 종류	요리용 바나나(플랜틴)	디저트 바나나 – 국제 거래의 95% / 둘은 같은 종의 다른 재배 품종
작물화의 득실	먹을 부분이 많은 씨 없는 돌연변이	자연 번식 능력 상실 · 유전적으로 똑같음 → 병에 약함(각주 v)
바나나와 유럽인	아프리카 서해안 1470년대 – 이미 적어도 수백 년 토착화	원산지 동남아시아 – 1521년에야(마젤란)
아메리카의 바나나	처음 – 노예 플랜테이션 경제의 톱니바퀴	몇 세기 뒤 – 수출 경제의 엔진
미국 바나나 회사	경제 – 철도 · 전등 · 우편 · 통신 장악(엘 풀포)	정치 – 정치인 매수 · 쿠데타 지원 · 해병대 침공
1928년 바나나 학살	역사 – 시에나가, 사망자 추정 47~2,000명(논란)	소설 – 『백년의 고독』의 마콘도, 3,000명 넘게
'banana republic'	원래 뜻 – 부자 나라 대기업이 가난한 나라를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어두운 현실	오늘 – 옷 브랜드(저자: 잘해야 무지, 나쁘면 모욕)
다국적 기업의 이익	잠재적 이익 – 새 산업 · 기술과 경영의 전수(직접 · 간접)	실제 – 고립 지역의 스크루드라이버 작업 · 낮은 일자리
다국적 기업 정책	문 활짝 열기 – 낮은 세금 · 가벼운 규제(세계은행 · WTO 등이 권고)	규제로 이끌기 – 지분 제한 · 기술 이전 · 현지 고용 · 현지 조달(일본 · 한국 · 타이완 · 핀란드)
아일랜드 · 싱가포르	통념 – 다국적 기업에 너그러워서 성공	저자 – 공공 정책 개입(맞춤 지원 · 싱가포르 정부의 토지) 덕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78쪽 각주 i	동파육 = 11세기 중국 시인 쑤둥포 · 시저 샐러드 = 20세기 초 이탈리아계 미국인 요리사 체사레 카르디니 · 나초 = 20세기 중반 멕시코 요리사 이그나시오 '나초' 아나야
78쪽 각주 ii	비프 웰링턴 =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영국 장군, 초대 웰링턴 공작 아서 웰즐리 · 피자 마르게리타 = 통일 이탈리아의 첫 왕비 마르게리타(**1871년**부터) · 피치 멜바 = 19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 소프라노 넬리 멜바
Elvis sandwich	바나나 · 땅콩버터(흔히 베이컨, 때로 꿀 · 젤리) · 엘비스 프레슬리('왕')가 늘 먹었다고 한다(is supposed to) · 각주 iii: 젤리 = 과육을 걸러 내고 만든 잼
바나나 소비	**85%**가 생산지(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 카리브)에서 소비된다고 추정 · 흔히 요리(탄수화물 · 특히 남인도에서 채소)
디저트 바나나 · 아프리카	디저트 바나나 = 국제 거래 바나나의 **95%** · 요리용 플랜틴과 같은 종의 다른 재배 품종 /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맥주 · 우간다 · 르완다 · 카메룬 농촌에서는 바나나가 하루 열량의 최대 **25%**
Cavendish(각주 iv)	국제 거래의 **95%** · 전 세계 생산의 약 절반 · 품종은 1,000가지 넘음 · **1830년대 중반** 개발 · 6대 데번셔 공작 윌리엄 캐번디시의 이름 · 개발 = 수석 정원사 조지프 팩스턴 · Musa cavendishii · 더비셔 채츠워스 하우스의 온실
작물화	동남아시아 원산 · 수천 년 전 작물화(추정) · 씨 없는 돌연변이 · 자연 번식 능력 상실 · 땅속줄기(corm)에서 난 곁순(sucker)을 옮겨 심음 · 유전적으로 똑같음
Panama disease(각주 v)	곰팡이가 일으키는 시듦병 · 캐번디시가 사라질 걱정 · **1950년대** 그로 미셸이 앞선 변종(TR One)으로 사라진 뒤 캐번디시가 대체 · 지금은 TR Four
아프리카로	기원전 2천년기~기원후 1천년기 사이 인도양을 건넘 · 포르투갈인 서해안 도착 **1470년대** · 이미 적어도 수백 년(어쩌면 수천 년) 토착화 · banana = 서중부 아프리카 반투어에서
Magellan	유럽인이 원산지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를 처음 본 것은 **1521년** · 포르투갈 선장 페르디난드 마젤란(페르낭 드 마갈량이스)의 태평양 항해
노예와 바나나	마데이라섬 · 카나리아 제도(**1479년**까지 일부 포르투갈 소유)의 설탕 노예를 먹임 · 노예선에서 쌀과 함께 주식(특히 플랜틴) · 플랜테이션의 작은 텃밭
생산성	에이커당 **20만 파운드** = 얌 수확량의 **10배** · 감자의 **100배** · 최소한의 노동
19세기 말	철도 · 증기선 · 냉장 기술 → 상하기 쉬운 농산물의 장거리 대량 수출(11장 · 2장 · 8장 참조) · 그전엔 미국에서도 소량만 팔린 사치 과일
미국 회사	United Fruit Company(UFC, 지금의 Chiquita) · 작은 경쟁사 Standard Fruit Company(SFC, 지금의 Dole) / 카리브 · 중앙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북부(콜롬비아 · 에콰도르 = 요즘 최대 수출국)
경제 지배	온두라스 – UFC · SFC가 철도 · 전등 · 우편 · 전신 · 전화 장악 / **1930년대** 과테말라 – UFC = 최대 지주 · 최대 고용주 · 최대 수출업자 · 거의 모든 철도의 주인 · El Pulpo('문어')
정치 지배	자체 세관 · 경찰 · 정치인 매수 · 쿠데타 지원 · filibuster(미국 용병, 네덜란드어 '해적'에서) · **20세기 전반** 미국 해병대의 주기적 침공 · 점령
Banana Massacre	콜롬비아 · **1928년** 가을 UFC 파업(화장실 · 의료 시설 · 현금 임금 · 직원 대우) · 미국 정부의 군사 개입 위협 · **12월 6일** 콜롬비아군 · 시에나가 · 사망자 추정 **47~2,000명**(논란) · 각주 vi: 긱 경제는 실리콘밸리 발명품이 아님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García Márquez	콜롬비아 소설가 · 노벨상 수상자 · 『백년의 고독』(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 · 소설 속 **3,000명** 넘게 · 가상 마을 마콘도
banana republic	오 헨리(본명 윌리엄 시드니 포터) **1904년** 단편 「제독(The Admiral)」 · 안추리아 = 가상의 온두라스(**1897년** 망명해 산 곳) / **1950년**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노벨상) 시 「United Fruit Co.」
새 산업	**1998년** 인텔 코스타리카 마이크로칩 조립 공장 / **1960년대 중반** 페어차일드 · 모토롤라의 한국 조립 공장(당시 트랜지스터라디오 조립이 최첨단)
다국적 기업 우대론	기업인 · 경제학자 · 세계은행 · WTO 등 — 두 팔 벌려 환영 · 낮은 세금 · 면세 · 가벼운 규제 / 아일랜드 · 싱가포르(FDI = 해외 직접 투자)가 예로 꼽힘
필리핀	어떤 이들에 따르면 가장 첨단 경제 · 제조업 수출 중 첨단 제품 **60%**(미국 약 **20%** · 한국 **35%**, 세계은행 자료) · 1인당 소득 약 **3,500달러**(한국 **3만 달러** 넘게 · 미국 약 **6만 달러**)
규제	지분 제한(핵심 부문 **50%** 미만) · 합작 투자 · 기술 이전 · 로열티 상한 · 현지 고용 · 훈련 · 현지 조달 요건 / 일본 · 한국 · 타이완 · 핀란드(2차 대전 뒤~**1980년대**)
한국 · 타이완	처음엔 저기술 부문(의류 · 봉제 인형 · 운동화)에 세금 감면 · 노동법 일부 중지 → 온갖 규제로 첨단 산업에 유도 / 삼성 · TSMC(반도체) · LG(디스플레이) · 현대-기아(자동차, 6장 참조) · 중국은 비공식 협상
78쪽 ¶1	아일랜드 · 싱가포르 = 공공 정책 개입 덕(입지도 도움 — 아일랜드의 EU 회원국 지위 · 싱가포르의 무역 요충지) · 첨단 산업(전자 · 제약) 맞춤 지원 · 싱가포르 정부 = 땅의 거의 **90%**를 가진 최대 지주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Banana」 (원서 PDF 72~78쪽) · 7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9-1 엘비스 샌드위치와 '과일' 바나나 72쪽 ¶1~¶4 + 78쪽 각주 i~iii

원문 위치 원서 72쪽 ¶1~¶4 + 78쪽 각주 i~i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2쪽 ¶1 첫 문장	dishes named after the person who (allegedly) invented them	allegedly — 전언 · 과거분사 후치
★	78쪽 각주 i	the eleventh-century Chinese poet Su Dongpo … Cesare Cardini … Ignacio 'Nacho' Anaya	인물 — 일치 후보
▲	72쪽 ¶1 둘째 문장	Or after the person whom they were (allegedly) invented for and dedicated to	whom + 뒤에 남은 전치사
★	78쪽 각주 ii	Arthur Wellesley … Queen Margherita … (from 1871) … Nellie Melba	숫자 1871 · 인물
◆	72쪽 ¶2 첫 문장	one dish that is named after someone who was simply a fan of it	밑줄 의미: 만든 이도 받은 이도 아닌 팬
★	72쪽 ¶2 둘째 문장	often, but not necessarily, with bacon; sometimes with honey or jelly	내용 일치 — 빈도 표현
★	78쪽 각주 iii	Jelly here is jam made after filtering out the fruit pulp	용어 — 젤리의 뜻
▲	72쪽 ¶2 셋째 문장	Presley is supposed to have eaten it all the time, so much so that people came to call it after him	be supposed to have p.p. · so much so that
◆	72쪽 ¶3 첫 문장	I am with the King here.	밑줄 의미: 엘비스와 같은 편
★	72쪽 ¶3 둘째 문장	one of my wife's favourite breakfast items, and I often join her in the repast	저자 집안의 아침
▲	72쪽 ¶4 첫 문장	Having it as a sandwich filling, I admit, is rather an unusual way of consuming banana	동명사 주어 → 단수 i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2쪽 ¶4 둘째 문장	banana bread or banana muffins ... the American banana split or the British banoffee pie	예시 — 빵 · 디저트
◆	72쪽 ¶4 셋째 문장	the predominant form ... is to eat it as a fruit ... (well, it is a fruit, isn't it?)	주된 방식 · 저자의 농담

내용

사람 이름을 딴 요리는 많다. 그 요리를 만들었다고들 하는(allegedly) 사람의 이름을 딴 동파육 · 시저 샐러드 · 나초가 있고, 그 요리를 만들어 바친 대상이라고들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비프 웰링턴 · 피자 마르게리타 · 피치 멜바가 있다. 각주에 따르면 앞의 셋은 각각 11세기 중국 시인 쑤둥포, 20세기 초 이탈리아계 미국인 요리사 체사레 카르디니, 20세기 중반 멕시코 요리사 이그나시오 '나초' 아나야의 이름을 땄고, 뒤의 셋은 각각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영국 장군인 초대 웰링턴 공작 아서 웰즐리, 통일 이탈리아의 첫 왕비(1871년부터) 마르게리타, 19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 소프라노 넬리 멜바의 이름을 땄다. 그런데 그저 그 음식의 팬이던 사람의 이름을 딴 요리가 하나 있으니, 엘비스 샌드위치다. 엘비스 샌드위치(또는 그냥 엘비스)는 바나나와 땅콩버터를 넣은 샌드위치로(흔히, 꼭 그렇지는 않지만 베이컨을 넣고 때로 꿀이나 젤리를 넣는다), 전설적인 미국 로큰롤 가수이자 많은 사람에게 그냥 '왕(the King)'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좋아했다. 각주에 따르면 여기서 젤리는 젤라틴 디저트가 아니라, 처음 끓인 뒤 과육을 걸러 내고 만든 잼이다. 프레슬리는 이 샌드위치를 늘 먹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다. 저자는 이 점에서 '왕'과 같은 편이다. 꿀을 살짝 뿌린 땅콩버터 바나나 샌드위치는 저자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메뉴 가운데 하나이고, 저자도 자주 함께 먹는다. 달고 부드러운 바나나 맛과 고소하고 살짝 짠 땅콩버터 맛의 조합은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물론 저자도 인정하듯 바나나를 샌드위치 속으로 먹는 것은 꽤 드문 방식이다. 사람들은 바나나로 바나나 빵 · 바나나 머핀 같은 '단 제과'나 미국의 바나나 스플릿 · 영국의 바노피 파이 같은 디저트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바나나를 먹는 주된 방식은 사과나 딸기처럼 과일로 먹는 것이다(저자는 '하긴 바나나는 과일이니까'라고 덧붙인다). 그대로 먹거나, 아침 시리얼 · 요거트 · 아이스크림에 과일 토핑으로 얹어 먹는다.

어법

- **There are a lot of dishes named after the person who (allegedly) invented them** : named after = 과거분사 후치(~의 이름을 딴). who = 주격 관계대명사. allegedly = ~라고들 한다(전언 — 사실 단정이 아님).
- **Or after the person whom they were (allegedly) invented for and dedicated to** : 앞 문장의 There are a lot of dishes named가 생략되고 after만 이어진다. whom = 뒤에 남은 전치사 for · to의 목적어(목적격 관계대명사). invented for와 dedicated to가 and로 병렬.
- **But there is one dish that is named after someone who was simply a fan of it** : that ·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one dish · someone). simply = 그저. a fan of = ~을 좋아하는 사람.
- **loved by Elvis Presley, the legendary American rock 'n' roll singer, or simply 'the King' to many people** : loved by = 과거분사구(앞의 sandwich를 설명). 콤마 사이 = Elvis Presley의 동격. or = 곧(다른 이름).
- **Presley is supposed to have eaten it all the time, so much so that people came to call it after him.** : be supposed to have p.p. = ~했다고들 한다(전언 · 완료부정사로 과거의 일). so much so that = 그 정도가 대단해서 ~할 정도다. come to V = ~하게 되다. call A after B = B의 이름을 따서 A를 부르다.
- **The combination of the sweet, creamy taste of banana with the nutty, slightly salty taste of peanut butter is simply irresistible.** : 주어의 핵심 = The combination(단수) → is. the combination of A with B = A와 B의 조합.
- **Having it as a sandwich filling, I admit, is rather an unusual way of consuming banana.** : 동명사구 주어(Having ~) → 단수 동사 is. I admit = 삽입절. rather = 꽤.

- **But the predominant form of banana consumption is to eat it as a fruit, like apple or strawberry** : be + to 부정사 = 보어(~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 like = 전치사(~처럼).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llegedly	~라고들 하는	reportedly	—
dedicate	바치다	devote	—
legendary	전설적인	fabled	obscure
drizzle	(조금) 뿌리다	sprinkle	—
repast	식사	meal	—
nutty	고소한(견과 맛의)	nut-flavoured	—
irresistible	거부할 수 없는	tempting	unappealing
filling (n.)	(샌드위치 등의) 속	stuffing	—
consume	먹다, 소비하다	eat	produce
predominant	주된	main	minor
neat (a.)	(섞지 않고) 그대로인	plain	mixed
topping	위에 얹는 것	garnish	—

내용 일치 만든 사람(allegedly) = 동파육 · 시저 샐러드 · 나초 / 받은 사람(allegedly) = 비프 웰링턴 · 피자 마르게리타 · 피치 멜바 · 각주 i: 쑤둥포(11세기 중국 시인) · 카르디니(20세기 초 이탈리아계 미국인 요리사) · 아나야(20세기 중반 멕시코 요리사) · 각주 ii: 웰즐리(워털루) · 마르게리타 왕비(1871년부터) · 멜바(오스트레일리아 소프라노) · 엘비스 샌드위치 = 그저 팬의 이름 · 바나나 · 땅콩버터(흔히 베이컨, 때로 꿀 · 젤리) · 각주 iii: 젤리 = 과육을 걸러 낸 잼 · 늘 먹었다고 한다(is supposed to) · 저자 아내의 아침 · 샌드위치 속은 드문 방식 · 주된 방식 = 과일로. **밑줄 의미** simply a fan of it = 만든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니라 그저 좋아한 사람 / I am with the King here = 저자도 엘비스처럼 이 샌드위치를 좋아한다 / well, it is a fruit, isn't it? = 과일로 먹는 게 당연하다는 농담 / 72쪽 ¶1 them(invented them) = dishes · 72쪽 ¶2 it(a fan of it) = one dish(엘비스 샌드위치) · him(call it after him) = Presley · 72쪽 ¶3 her(join her) = 저자의 아내 · 72쪽 ¶4 it(Having it) = banana.

> **한 줄 요약** 사람 이름을 딴 요리 가운데 엘비스 샌드위치는 그저 팬의 이름을 땄고, 바나나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바나나를 주로 과일로 먹는다.

9-2 생산지의 바나나는 요리한다 – 작물화와 유전적 동일성 72쪽 ¶5 ~ 73쪽 ¶1 + 78~79쪽 각주 iv · v

원문 위치 원서 72쪽 ¶5 ~ 73쪽 ¶1 + 78~79쪽 각주 iv · 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2쪽 ¶5 첫 문장	That, however, is the case only for people who live in countries that don't produce bananas.	전환점 — 제목 문항의 바탕
★	72쪽 ¶5 둘째 문장	It is estimated that 85% of bananas are consumed in places where they are produced	숫자 85% · 추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2쪽 ¶5 셋째 문장	more often than not, they are cooked – as a carbohydrate component ... or as a vegetable	내용 일치 — 요리 방식
▲	72~73쪽 ¶5 넷째 문장	it is not just the so-called 'cooking banana', also known as plantain, that is cooked	it ~ that 강조 · not just
★	72쪽 ¶5 다섯째 문장(73쪽)	95% of internationally traded bananas are dessert bananas	숫자 95% — 85%와 혼동 주의
★	78~79쪽 각주 iv	the Cavendish ... over 1,000 varieties ... developed in the mid-1830s ... Joseph Paxton	인물 · 숫자 — 캐번디시가 만들지 않음
▲	72쪽 ¶5 여섯째 문장(73쪽)	different cultivars of the same species ... often don't distinguish the two types	까닭 — 둘 다 요리하는 이유
★	72쪽 ¶5 일곱째~여덟째 문장(73쪽)	brewed into beer ... Uganda, Rwanda and Cameroon ... up to 25% of daily calorie intake	숫자 25% · 나라 이름
★	73쪽 ¶1 첫~둘째 문장	originally from South-east Asia ... estimated to have been domesticated several thousand years ago	원산지 · 추정
▲	73쪽 ¶1 셋째 문장	in which seedless mutants were selected for having more edible parts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수동
◆	73쪽 ¶1 셋째 문장	the banana lost its ability to reproduce by natural means	작물화의 대가
▲	73쪽 ¶1 넷째 문장	cannot be propagated without human intervention	이중 부정 cannot ~ without
★	73쪽 ¶1 다섯째 문장	Bananas spread in such a way are, as a result, all genetically identical.	과거분사 후치 · 수 일치 — 어법 문항
★	79쪽 각주 v	Panama disease ... Gros Michel ... in the 1950s ... TR One ... TR Four	되풀이된 실수 — 1950년대

내용

그러나 이는 바나나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바나나의 85%는 바나나를 생산하는 곳, 곧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 카리브에서 소비된다고 추정된다. 이 지역에서도 물론 바나나를 과일로 먹지만, 그보다는 요리해 먹는 경우가 더 많다. 끼니의 탄수화물로(삶고 찌고 튀기고 굽고, 무엇이든) 먹거나, (특히 남인도에서) 짭짤한 요리의 채소로 쓴다. 요리하는 것은 플랜틴이라고도 하는 이른바 '요리용 바나나'만이 아니다. '디저트 바나나'라고 부르는 더 단 품종도 요리한다. 바나나 생산 지역 밖 사람들이 바나나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디저트 바나나인데, 국제 거래되는 바나나의 95%가 디저트 바나나이기 때문이다. 각주에 따르면 국제 거래 바나나의 거의 전부(95%)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이 캐번디시라는 한 품종이다. 세계에 1,000가지가 넘는 바나나 품종이 있는데도

그렇다. 1830년대 중반에 개발된 이 품종은 6대 데번셔 공작 윌리엄 캐번디시의 이름을 땄지만, 개발한 사람은 그의 수석 정원사이자 친구인 조지프 팩스턴이다. 이 품종이 캐번디시 가문 공작령의 본거지인 더비셔 채츠워스 하우스의 온실에서 개발되었기에, 팩스턴은 고용주이자 친구를 기려 Musa cavendishii(Musa는 여러 바나나 종을 포함하는 속)라고 이름 붙였다(저자는 데번셔 공작의 본거지가 왜 데번셔가 아니라 더비셔에 있는지는 묻지 말라고 농담한다). 두 종류를 다 요리해 먹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두 종류는 같은 종의 다른 재배 품종이고, 바나나를 생산하는 많은 나라 사람들은 흔히 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바나나로 맥주도 빚는다. 우간다 · 르완다 · 카메룬 같은 나라의 농촌에서는 바나나가 하루 섭취 열량의 25%까지 차지할 수 있다. 바나나는 본디 동남아시아에서 왔고, 수천 년 전에 작물화되었다고 추정된다. 먹을 부분이 더 많은 씨 없는 돌연변이를 골라 기른 작물화 과정에서 바나나는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능력을 잃었다. 작물화된 바나나는 사람이 손을 써야만 퍼뜨릴 수 있다. 다 자란 바나나의 땅속줄기(corm)에서 자라는 곁순(sucker)을 잘라 내 다시 심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렇게 퍼진 바나나는 모두 유전적으로 똑같다. 각주에 따르면 이 때문에 바나나는 다른 작물보다, 특히 수익성이 왕인 상업 환경에서 금세 유전적으로 단일해질 수 있고, 그렇게 좁아진 유전자 풀은 병을 막기 어렵게 만든다. 지금 국제 거래 바나나의 95%를 차지하는 캐번디시가 곰팡이가 일으키는 시듦병인 이른바 파나마병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 저자는 바나나 산업이 이윤을 좇아 유전적 다양성을 줄이는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캐번디시 자체가 대체 품종이다. 그때까지 압도적인 상업 품종이던 그로 미셸이 파나마병의 앞선 변종(지금의 TR Four와 구별되는 TR One, 곧 Tropical Race One)으로 사라진 1950년대에 상업 무대에 나왔다.

어법

- **That, however, is the case only for people who live in countries that don't produce bananas.** : That = 앞 단락 내용(바나나를 주로 과일로 먹는다는 것). be the case = 사실이다, 해당하다. who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 **It is estimated that 85% of bananas are consumed in places where they are produced** : It is estimated that ~ = ~라고 추정된다(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places). 추정이므로 단정하지 말 것.
- **And it is not just the so-called 'cooking banana', also known as plantain, that is cooked.** : it is ~ that 강조 구문(강조 대상 = not just the 'cooking banana'). also known as = 다른 이름으로는. 뒤 문장 It is also the case with ~로 이어진다.
- **which is what people outside the banana-producing regions know as banana** : which = 계속적 용법(앞의 'dessert banana'를 받음).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 know A as B = A를 B로 알다.
-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domesticated several thousand years ago.** : be estimated to have been p.p. = ~되었다고 추정된다(완료 수동 부정사 — 과거의 일). It = the banana.
- **In the process of domestication, in which seedless mutants were selected for having more edible parts, the banana lost its ability to reproduce**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process). be selected for + 동명사 = ~ 때문에 골라지다. ability to V = ~하는 능력.
- **Domesticated bananas cannot be propagated without human intervention** : cannot ~ without … = …없이는 ~할 수 없다(이중 부정 → 반드시 사람 손이 필요). 조동사 + 수동(be propagated).
- **Bananas spread in such a way are, as a result, all genetically identical.** : spread = 과거분사(그렇게 퍼진 — Bananas를 꾸밈). 문장의 동사는 are(주어 Bananas 복수). as a result = 삽입.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avoury	짭짤한	salty	sweet
variety	품종	strain	—
cultivar	재배 품종	cultivated variety	—
distinguish	구별하다	differentiate	confus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rew	(술을) 빚다	ferment	—
intake	섭취(량)	consumption	—
domesticate	작물화하다, 길들이다	cultivate	—
mutant	돌연변이	variant	—
edible	먹을 수 있는	eatable	inedible
reproduce	번식하다	breed	—
propagate	번식시키다	multiply	—
intervention	개입	involvement	—
genetically identical	유전적으로 똑같은	clonal	genetically diverse
homogenous	균질한, 단일한	uniform	diverse

내용 일치 과일로 먹는 것은 비생산국 이야기 · 85% 생산지 소비(추정) — 남 ·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 카리브 · 흔히 요리(탄수화물 · 채소, 특히 남인도) · 플랜틴 = 요리용 · 디저트 바나나 = 국제 거래의 95% · 같은 종의 다른 재배 품종 · 아프리카 맥주 · 우간다 · 르완다 · 카메룬 열량 25%까지 · 각주 iv: 캐번디시(1,000가지 넘는 품종 · 1830년대 중반 · 개발 = 팩스턴) · 동남아시아 원산 · 수천 년 전 작물화(추정) · 씨 없는 돌연변이 · 자연 번식 능력 상실 · 곁순 옮겨 심기 · 유전적으로 똑같음 · 각주 v: 파나마병 · 1950년대 그로 미셸 → 캐번디시. **밑줄 의미** That … is the case only for … = 과일로 먹는다는 말은 바나나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만 맞다 / more often than not = 대개는 / lost its ability to reproduce by natural means = 작물화의 대가 — 사람 손 없이는 퍼지지 못함 / profitability is the king(각주 v) =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 72쪽 ¶5 they(are cooked) = bananas · 73쪽 ¶1 It(is estimated to have been domesticated) = the banana · its(ability) = the banana.

> **한 줄 요약** 바나나의 85%는 생산지에서 소비된다고 추정되며 흔히 요리해 먹고, 작물화된 바나나는 사람 손으로만 퍼져 모두 유전적으로 똑같다.

9-3 아프리카를 거쳐 노예의 식량으로 73쪽 ¶2 ~ 74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73쪽 ¶2 ~ 74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3쪽 ¶2 첫 문장	reached Africa sometime between the second millennium bce and the first millennium ce	시기 — 범위가 넓음
◆	73쪽 ¶2 첫 문장	(I know, it is a big timespan, but that is how it is with these things)	저자의 덧붙임 — 단정 불가
▲	73쪽 ¶2 둘째 문장	by the time the first Europeans … arrived …, bananas had been naturalized … possibly for millennia	by the time + 과거완료 · possibly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3쪽 ¶2 둘째 문장	the Portuguese, arrived in sub-Saharan Africa, on the west coast in the 1470s	숫자 1470년대
★	73쪽 ¶2 셋째 문장	adopted the word 'banana' from Bantu languages of West-Central Africa	낱말의 기원
◆	73쪽 ¶2 넷째 문장	Ironically, the Europeans first encountered bananas in their ancestral home ... only in 1521	Ironically — 원산지에서 더 늦게
★	73쪽 ¶2 넷째 문장	Ferdinand Magellan (or Fernão de Magalhães in Portuguese)	인물 — 서답형
★	73쪽 ¶3 첫 문장	feed the enslaved Africans whom they were forcing to produce sugar on the island of Madeira and the Canary Islands	지칭 문항 1순위 — they
★	73쪽 ¶3 첫 문장	(which were part owned by Portugal until 1479)	숫자 1479
★	73쪽 ¶3 둘째 문장	(especially plantains), together with rice, as a staple on slave ships	내용 일치 — 쌀과 함께
▲	73쪽 ¶3 셋째 문장	the slaves were encouraged to plant bananas on the small plots given to them ... to supplement their meagre rations	be encouraged to V · 과거분사 후치
★	73쪽 ¶3 넷째 문장	200,000 pounds per acre – ten times the yield of yams and one hundred times that of potatoes	숫자 — 배수 · that of
▲	73쪽 ¶3 다섯째 문장	on which the slave-owners wanted the slaves to spend as little time as possible	as little ~ as possible · want O to V
◆	74쪽 첫 줄	may have entered the Americas as an essential cog ... but ... it became the engine of the export economy	밑줄 의미: 톱니바퀴 → 엔진

내용

바나나는 인도양을 건너 기원전 2천년기와 기원후 1천년기 사이 어느 때 아프리카에 이르렀다(저자는 '알다시피 아주 긴 기간이지만 이런 일은 원래 그렇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최초의 유럽인, 곧 포르투갈인이 1470년대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닿았을 때 바나나는 이미 적어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그 대륙에 뿌리내려 있었다. 포르투갈인은 '바나나'라는 낱말을 서중부 아프리카의 반투어에서 받아들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인이 바나나의 원래 고향인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를 처음 만난 것은 1521년, 포르투갈 선장 페르디난드 마젤란(포르투갈어로 페르낭 드 마갈량이스)의 유명한 태평양 항해 때가 되어서였다. 포르투갈인은 마데이라섬과 카나리아 제도(1479년까지 일부를 포르투갈이 소유)에서 억지로 설탕을 생산하게 한 노예 아프리카인을 먹이는 데 바나나를 썼다.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아메리카에 실어 나르기 시작하자 포르투갈인은 바나나(특히 플랜틴)를 쌀과 함께 노예선의 주식으로 썼다.

플랜테이션에서는 노예들에게 빈약한 배급 식량을 보충할 먹을거리를 기르라고 준 작은 땅뙈기에 바나나를 심도록 권했다. 기후만 맞으면 바나나 나무는 일 년 내내 자라고 생산성이 아주 높아, 사람의 노동을 최소한으로 들이고도 에이커당 20만 파운드를 낸다. 얌 수확량의 10배, 감자의 100배다. 그래서 바나나는 노예가 맡은 땅에 딱 맞는 작물이었다. 노예 주인들은 노예가 그 땅에 되도록 시간을 적게 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바나나가 아메리카에 들어온 것은 노예 기반 플랜테이션 경제라는 기계의 없어서는 안 될 톱니바퀴로서였을지 모르지만, 몇 세기 뒤 바나나는 그 지역 많은 나라의 수출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 되었다.

어법

- **The banana crossed the Indian Ocean and reached Africa sometime between the second millennium bce and the first millennium ce** : crossed와 reached가 병렬. sometime = 어느 때(부사). between A and B = 기간의 범위.
- **by the time the first Europeans … arrived in sub-Saharan Africa …, bananas had been naturalized on the continent at least for several hundred years and possibly for millennia** : by the time + 과거 = ~할 무렵에는 → 주절은 과거완료(had been naturalized — 그 전부터 계속). possibly = 어쩌면(추측).
- **Ironically, the Europeans first encountered bananas in their ancestral home in South-east Asia only in 1521** : only in + 연도 = ~에야 비로소. Ironically =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아프리카보다 원산지에서 더 늦게 만났다는 아이러니).
- **The Portuguese used bananas to feed the enslaved Africans whom they were forcing to produce sugar** : to feed = 목적의 to부정사. whom = 목적격 관계대명사(force + O + to V의 O). they = the Portuguese.
- **the slaves were encouraged to plant bananas on the small plots given to them for the purpose of growing food to supplement their meagre rations** : encourage O to V의 수동 = be encouraged to V. given to them = 과거분사 후치. for the purpose of + 동명사 = ~할 목적으로.
- **producing 200,000 pounds per acre – ten times the yield of yams and one hundred times that of potatoes** : producing = 부대 상황 분사구문. 배수 + the + 명사 = ~의 몇 배. that of = the yield of(반복 피하기).
- **So it was an ideal crop for slave-controlled plots, on which the slave-owners wanted the slaves to spend as little time as possible.** : o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spend time on the plots). want + O + to V. as little ~ as possible = 되도록 적게.
- **The banana may have entered the Americas as an essential cog in the machinery …, but a few centuries later it became the engine of the export economy** : may have p.p. ~ but = 양보(~였을지는 몰라도). as = 자격(~로서). cog와 engine의 대비.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llennium	천년기	thousand years	—
timespan	기간	period	—
naturalize	(동식물을) 토착화하다	acclimatize	—
ancestral	조상의, 원래의	original	—
encounter	만나다	come across	avoid
enslaved	노예가 된	in bondage	free
staple (n.)	주식	basic food	luxury
plot (n.)	작은 땅	patch	—
supplement (v.)	보충하다	add to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eagre	빈약한	scanty	ample
yield (n.)	수확량	harvest	—
input (n.)	투입	contribution	output
cog	톱니바퀴(의 이)	gear	—
engine	엔진, 원동력	driving force	—

내용 일치 기원전 2천년기~기원후 1천년기 사이 인도양 건너 아프리카 · 포르투갈인 1470년대 서해안 · 이미 적어도 수백 년(어쩌면 수천 년) · banana = 서중부 아프리카 반투어 · 원산지 동남아시아에서는 1521년에야(마젤란의 태평양 항해) · 마데이라 · 카나리아 제도(1479년까지 일부 포르투갈 소유) · 노예선에서 쌀과 함께 주식(특히 플랜틴) · 노예의 작은 텃밭 · 에이커당 20만 파운드(얌의 10배 · 감자의 100배) · 최소한의 노동 · 톱니바퀴 → 수출 경제의 엔진. **밑줄 의미** a big timespan = 시기를 정확히 말할 수 없음을 인정 / Ironically = 원산지보다 아프리카에서 먼저 만난 아이러니 / an essential cog in the machinery = 노예 플랜테이션 경제를 굴러가게 한 부품 / the engine of the export economy = 수출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 / 73쪽 ¶3 they(were forcing) = the Portuguese · them(given to them) = the slaves · it(was an ideal crop) = the banana.

> **한 줄 요약** 아프리카를 거쳐 아메리카에 온 바나나는 노예를 적은 비용으로 먹이는 작물이었다가, 몇 세기 뒤 수출 경제의 엔진이 되었다.

9-4 '문어' 바나나 회사 — 경제와 정치를 쥐다 74쪽 ¶1~¶3

원문 위치 원서 74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1 첫 문장	the developments of railways, steamships and refrigeration techniques … (also see 'Rye', 'Okra' and 'Beef')	순서 문항 · 11장 · 2장 · 8장 연결
★	74쪽 ¶1 둘째 문장	Banana was one of the major beneficiaries of this development.	순서 문항의 고리
▲	74쪽 ¶1 셋째 문장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ananas had been a luxury fruit sold in small quantities even in the US	과거완료 · even
★	74쪽 ¶1 넷째 문장	the United Fruit Company (Chiquita today) and its smaller rival the Standard Fruit Company (Dole today)	서답형 — 회사 이름 짝
★	74쪽 ¶1 넷째 문장	Colombia and Ecuador, which are the biggest banana exporters in the world these days	내용 일치 — 요즘 최대 수출국
★	74쪽 ¶2 둘째 문장	in Honduras, … controlled the railways, electric lights, mail, telegraph and telephone	예시 — 온두라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2 셋째 문장	In the 1930s, in Guatemala, UFC 'was the largest landowner, the largest employer, the largest exporter ...'	숫자 1930년대 · 인용
◆	74쪽 ¶2 넷째 문장	called the US banana companies El Pulpo, 'the octopus', for having a tight grip	밑줄 의미 1순위
▲	74쪽 ¶3 첫 문장	Such near-absolute economic control naturally gave the banana companies an extremely high degree of hold over politics	give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	74쪽 ¶3 둘째 문장	their own customs and police, so much of their business w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어휘 문항 — beyond
▲	74쪽 ¶3 셋째 문장	Politicians were bought off, to guarantee 'pro-business' policies.	수동 · 목적의 to부정사
◆	74쪽 ¶3 넷째 문장	raising extremely low taxes to very low levels, making them sell unused land, strengthening worker rights a tiny bit	밑줄 의미 · 어휘 문항: 아주 작은 개혁도
★	74쪽 ¶3 넷째 문장	US mercenaries, called filibusters (derived from the Dutch word for pirates)	낱말 유래
★	74쪽 ¶3 다섯째 문장	the US Marines regularly invaded and occupied some of these countries	서답형 단어의 바탕

내용

19세기 말 철도 · 증기선 ·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하기 쉬운 농산물을 먼 곳까지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11장 · 2장 · 8장 참조). 바나나는 이 발전의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였다. 바나나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19세기 말까지는 아메리카의 바나나 생산국과 꽤 가까운 미국에서조차 적은 양만 팔리는 사치 과일이었다. 미국으로 바나나를 대량 수입할 수 있게 되자 미국 회사들, 특히 United Fruit Company(지금의 Chiquita)와 그보다 작은 경쟁사 Standard Fruit Company(지금의 Dole)가 카리브(쿠바 · 도미니카 공화국 · 아이티), 중앙아메리카(특히 온두라스 · 코스타리카 · 니카라과 · 파나마 · 과테말라), 남아메리카 북부(요즘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 대규모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세웠다. 미국 바나나 회사들은 곧 이 나라들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에서는 UFC와 SFC가 철도 · 전등 · 우편 · 전신 · 전화를 장악했다. 1930년대 과테말라에서 UFC는 '최대 지주이자 최대 고용주, 최대 수출업자였고, 그 나라 철도의 거의 전부를 가진 주인'이었다. 바나나에 기대는 나라의 많은 사람은 경제의 거의 모든 면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뜻에서 미국 바나나 회사들을 엘 풀포(El Pulpo), 곧 '문어'라고 불렀다. 이처럼 거의 절대적인 경제 장악은 당연히 바나나 회사들에 아메리카 바나나 생산국의 정치를 쥐고 흔드는 아주 큰 힘을 주었다. 바나나 회사들은 자체 세관과 경찰을 두어 사업의 많은 부분이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었다. '친기업' 정책을 보장받으려고 정치인을 매수했다. 회사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던 정부(예를 들어 극히 낮은 세금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올리거나, 회사에 쓰지 않는 땅을 팔게 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아주 조금 강화하려던 정부)에 맞선 쿠데타를 바나나 회사들이 지원했고, 때로는 필리버스터(filibuster,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온 말)라고 불린 미국 용병이 힘을 보탰다.

20세기 전반 내내 미국 해병대는 미국 회사, 특히 바나나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고 이 나라들 가운데 몇 곳을 주기적으로 침공해 점령했다.

어법

- the developments of railways, steamships and refrigeration techniques started to enable large-scale exports of perishable agricultural products over long distances : 주어 the developments(복수) → started. enable + O(목적어) = ~을 가능하게 하다.
- Due to their perishability,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ananas had been a luxury fruit sold in small quantities even in the US, which is quite close to ... : due to + 명사 = ~ 때문에. had been = 과거완료(19세기 말까지 계속). sold = 과거분사 후치.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US).
- Once the large-scale import of bananas into the US became a possibility, US companies ... established large-scale banana plantations : once = 접속사(일단 ~하자). become a possibility = 가능해지다.
- The US banana companies soon came to dominate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 come to V = ~하게 되다(변화). dominate = 타동사(전치사 없이 목적어).
- called the US banana companies El Pulpo, 'the octopus', for having a tight grip over almost all aspects of their economies : call + O + C(5형식). for + 동명사 = ~ 때문에(이유). 'the octopus' = El Pulpo의 풀이.
- Such near-absolute economic control naturally gave the banana companies an extremely high degree of hold over politics : give + 간접목적어(the banana companies) + 직접목적어(an extremely high degree of hold). such + 형용사 + 명사.
- Coups d'état against governments that tried to do things against their interests ... were supported by the banana companies, sometimes reinforced by US mercenaries : 주어 Coups d'état(복수) → were supported(수동).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governments). their = 바나나 회사들의. reinforced = 과거분사구(덧붙는 설명).
- the US Marines regularly invaded and occupied some of these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merican companies : invaded와 occupied가 병렬(같은 목적어). in order to V = ~하기 위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erishable	상하기 쉬운	spoilable	durable
beneficiary	수혜자	recipient	—
rival	경쟁자	competitor	ally
dominate	지배하다	control	—
landowner	지주	landlord	tenant
grip (n.)	움켜쥠, 장악	hold	—
near-absolute	거의 절대적인	almost total	partial
customs	세관	border control	—
jurisdiction	관할권	authority	—
buy off	매수하다	bribe	—
coup d'état	쿠데타	putsch	—
mercenary	용병	hired soldier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vade	침공하다	attack	—
occupy	점령하다	seize	liberate

내용 일치 19세기 말 철도 · 증기선 · 냉장 → 장거리 대량 수출(11장 · 2장 · 8장 참조) · 그전엔 미국에서도 사치 과일 · UFC(지금 Chiquita) · 작은 경쟁사 SFC(지금 Dole) · 카리브 · 중앙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북부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요즘 최대 수출국 · 온두라스: 철도 · 전등 · 우편 · 전신 · 전화 · 1930년대 과테말라 UFC = 최대 지주 · 고용주 · 수출업자 · 거의 모든 철도 · El Pulpo('문어') · 자체 세관 · 경찰 · 정치인 매수 · 쿠데타 지원 · filibuster(네덜란드어 '해적') · 20세기 전반 미국 해병대 침공 · 점령. **밑줄 의미** El Pulpo, 'the octopus' = 경제의 거의 모든 면을 다리로 휘감은 회사 /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나라의 법과 권한이 미치지 못함 / raising extremely low taxes to very low levels = 아주 작은 변화조차 회사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꼬집음 / a tiny bit = 아주 조금 / 74쪽 ¶1 its(smaller rival) = UFC · 74쪽 ¶2 their(economies) = 바나나에 기대는 나라들 · 74쪽 ¶3 their(interests) = the banana companies.

> **한 줄 요약** 19세기 말 대량 수출이 가능해지자 미국 바나나 회사들은 아메리카 생산국의 경제를 '문어'처럼 쥐고 정치까지 좌우했다.

9-5 바나나 학살과 '바나나 공화국' 74쪽 ¶4 ~ 75쪽 ¶2 + 79쪽 각주 vi

원문 위치 원서 74쪽 ¶4 ~ 75쪽 ¶2 + 79쪽 각주 v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4 첫 문장	gained further notoriety with the so-called Banana Massacre in Colombia	어휘 — notoriety
★	74쪽 ¶4 둘째 문장	In the autumn of 1928, the workers in UFC plantations went on strike	숫자 1928 — 서답형
▲	74쪽 ¶4 둘째 문장	demanding things most of which would be considered essential these days	수량어 + of which
★	74쪽 ¶4 둘째 문장	toilets and medical facilities; payment of wages in cash, instead of coupons … as employees, rather than as subcontractors	내용 일치 — 요구 사항
◆	79쪽 각주 vi	So the gig economy wasn't invented in Silicon Valley.	밑줄 의미: 하청 노동의 오랜 역사
▲	74쪽 ¶4 셋째 문장(75쪽)	(all too credible, given its record in the region)	given = ~을 고려하면 · its = US government
★	74쪽 ¶4 셋째 문장(75쪽)	the Colombian military decided to end it by forcible means on 6 December	날짜 — 12월 6일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4 넷째 문장(75쪽)	a large – and disputed – number … in the banana town of Ciénaga (the estimate ranges from 47 to 2,000)	숫자 — 논란 · 추정
★	74쪽 ¶4 다섯째~여섯째 문장(75쪽)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 over 3,000 striking workers are killed … Macondo	소설 ↔ 사실 구분
▲	75쪽 ¶1 첫 문장	The dominance … was such that these countries came to be called 'banana republics'.	be such that
★	75쪽 ¶1 둘째 문장	coined by … O. Henry (real name William Sydney Porter) in his 1904 short story 'The Admiral'	인물 · 연도 — 서답형
★	75쪽 ¶1 둘째 문장	Anchuria, a fictionalized version of Honduras, where he had lived in exile in 1897	숫자 1897 · 과거완료
★	75쪽 ¶1 넷째 문장	in 1950, Pablo Neruda, the Chilean poet … 'United Fruit Co.'	내용 불일치 — 만든 이 ↔ 퍼뜨린 이
◆	75쪽 ¶2 셋째 문장	The clothing brand name is 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	밑줄 의미 1순위
◆	75쪽 ¶2 넷째 문장	calling a hipster coffee grinding shop Satanic Mills … Dark Continent	비유 — 어두운 말을 가볍게 쓰기

내용

미국 바나나 회사들은 콜롬비아의 이른바 바나나 학살로 더 큰 악명을 얻었다. 1928년 가을 UFC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대부분 요즘이라면 꼭 필요하다고 여길 것들이었다. 화장실과 의료 시설을 갖출 것, 부풀린 값으로 물건을 파는 UFC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현금으로 임금을 줄 것, 노동자를 허술한 노동법이 주는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하청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대우할 것. 각주에서 저자는 '그러니 긱 경제는 실리콘밸리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파업을 곧 깨뜨리지 않으면 군사 개입하겠다고 위협한 미국 정부(이 지역에서 미국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믿을 만한 위협이었다)의 압력 아래, 콜롬비아군은 12월 6일 무력으로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군은 바나나 마을 시에나가에서 파업 노동자를 많이 쏘아 죽였는데, 그 수는 논란이 있다(추정치가 47명에서 2,000명까지 걸쳐 있다). 바나나 학살은 콜롬비아의 소설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걸작『백년의 고독』(저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고백한다)으로 우리의 집단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다. 이 책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사건을 소설로 그리는데, 3,000명이 넘는 파업 노동자가 살해되어 열차 칸에 실린 채 소설의 배경인 가상의 마을 마콘도의 바나나 플랜테이션에서 실려 나가고 학살의 모든 증거가 지워진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에서 미국 바나나 회사들의 지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이 나라들은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단편 작가 오 헨리(본명 윌리엄 시드니 포터)로, 1904년 단편「제독(The Admiral)」에서였다. 이 단편의 배경인 안추리아는 온두라스를 소설로 꾸민 곳으로, 오 헨리가 1897년 망명해 살았던 곳이다. 정부의 한심한 모습을 재정 · 조직 양면에서 보여 주는 이 이야기에서 오 헨리는 안추리아를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약 반세기 뒤인 1950년, 칠레 시인이자 또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 파블로 네루다는 '바나나 공화국'을 이야기하는 시「United Fruit Co.」를 써서 이 말을 더 널리 퍼뜨렸다.

요즘 미국과 다른 부자 나라의 많은 사람은 'banana republic'을 옷 브랜드로만 안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부자 나라의 대기업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어두운 현실을 그리려고 만든 말이다. 저자는 이 옷 브랜드 이름이 잘해야 무지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모욕적이라고 말한다. 힙스터 커피 원두 가게를 '사탄의 공장(Satanic Mills)'이라고 부르거나 고급 선글라스 가게를 '암흑 대륙(Dark Continent)'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어법

- demanding things most of which would be considered essential these days : most of which = 수량어 + of + 관계대명사(선행사 things). would be considered = 오늘이라면 그렇게 여겨질(가정의 would).
- treatment of the workers as employees, rather than as subcontractors who could not even get the minimal protection that the weak labour laws offered :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as employees ↔ as subcontractors 병렬). who = 주격,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 Under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which threatened military intervention if the strike was not broken soon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US government). if절 수동 was not broken = 시제 일치(과거).
- (all too credible, given its record in the region) : all too + 형용사 = 너무나 ~한(유감스럽게도). given + 명사 = ~을 고려하면(전치사처럼 쓰임). its = the US government's.
- The Banana Massacre has been permanently etched in our collective memory by Gabriel García Márquez : 현재완료 수동(has been etched) = 지금까지 새겨져 있음. by = 행위자.
- The dominance of the US banana companies … was such that these countries came to be called 'banana republics'. : be such that = 정도가 대단해서 ~하다(such가 보어). come to be called = 불리게 되다(수동 부정사).
- Anchuria, a fictionalized version of Honduras, where he had lived in exile in 1897 : 콤마 사이 = 동격.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Honduras). had lived = 과거완료(1904년 단편보다 앞선 일).
- But it was originally invented to describe the dark reality of the near-absolute domination of poor developing nations by large corporations from rich countries. : to describe = 목적의 to부정사. domination of A by B = B가 A를 지배함(of = 대상, by = 행위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notoriety	악명	infamy	renown
massacre	학살	slaughter	—
strike (n.)	파업	walkout	—
inflated	부풀린	exaggerated	reduced
subcontractor	하청업자	contractor	employee
credible	믿을 만한	believable	implausible
forcible	무력에 의한	violent	peaceful
disputed	논란이 있는	contested	undisputed
etch	새기다	engrave	erase
fictionalized	소설로 꾸민	dramatized	factual
coin (v.)	(말을) 만들다	invent	—
exile	망명	banishment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itiful	한심한	pathetic	admirable
offensive	모욕적인	insulting	respectful

내용 일치 콜롬비아 바나나 학살 · 1928년 가을 UFC 파업 · 화장실 · 의료 시설 · 현금 임금(쿠폰 대신) · 하청업자 아닌 직원 대우 · 각주 vi: 긱 경제는 실리콘밸리 발명이 아님 · 미국 정부의 군사 개입 위협 · 12월 6일 콜롬비아군 · 시에나가 · 사망자 47~2,000명(논란 · 추정) · 가르시아 마르케스『백년의 고독』· 소설 속 3,000명 넘게 · 마콘도(가상) · 'banana republic' = 1904 오 헨리(본명 포터)「제독」· 안추리아 = 가상의 온두라스 · 1897 망명 · 1950 네루다(칠레 · 노벨상)「United Fruit Co.」· 오늘은 옷 브랜드 · 저자: 잘해야 무지, 나쁘면 모욕. **밑줄 의미** So the gig economy wasn't invented in Silicon Valley = 노동자를 하청업자로 돌리는 수법은 오래되었다는 꼬집음 / all too credible = 미국이 실제로 개입해 온 기록 때문에 너무나 믿을 만한 / 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 = 잘해야 역사를 모르는 것, 나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 / Satanic Mills · Dark Continent = 어두운 말을 가볍게 상호로 쓰는 일 / 75쪽 첫 줄 its(record) = the US government · it(gunned down) = the Colombian military · 75쪽 ¶1 he(had lived) = O. Henry · its(government) = Anchuria.

> **한 줄 요약** 1928년 콜롬비아의 바나나 학살과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은 미국 바나나 회사들이 가난한 나라를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한 어두운 현실을 보여 준다.

9-6 다국적 기업의 이익은 '잠재적'이다 – 고립 지역의 함정 75쪽 ¶3 ~ 77쪽 ¶1

원문 위치 원서 75쪽 ¶3 ~ 77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5쪽 ¶3	multinational companies (MNCs) 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 the 'host economy'	용어 정의
▲	75쪽 ¶4 첫 문장	don't let that make you form a uniformly negative view of MNCs	let · make + O + 동사원형
★	75쪽 ¶5 첫 문장	in 1998, Intel opened a new microchip assembly factory … in Costa Rica, one of the original 'banana republics'	숫자 1998
▲	75쪽 ¶5 첫 문장	an entirely new industry that they could not have dreamed of having on their own	could not have p.p.
★	75쪽 ¶5 둘째 문장(76쪽)	Fairchild and Motorola … in the mid-1960s in South Korea … transistor radios	한국의 과거 – 일치 후보
★	76쪽 ¶1 둘째~셋째 문장	This may happen directly … But it can also happen indirectly, when MNCs buy inputs from local firms	삽입 문항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6쪽 ¶2 둘째 문장	the World Bank and the WTO, recommend developing countries to welcome MNCs with open arms	통념 — 문 활짝 열기
★	76쪽 ¶2 셋째 문장	Ireland and Singapore are often cited …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용어 FDI · 78쪽 ¶1과 연결
◆	76쪽 ¶3 첫 문장	these potential benefits from MNC presence are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밑줄 의미 1순위
★	76쪽 ¶3 둘째 문장	Their realization requires government policies that make MNCs behave in the right ways.	주장 — 정책의 필요
▲	76쪽 ¶4 첫 문장	Given the relatively low level of skills …, MNCs draw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pool	given = ~을 고려하면
◆	76쪽 ¶4 넷째 문장	rather than trying the 'unknown quantities' of local firms	밑줄 의미: 검증 안 된 현지 기업
◆	76쪽 ¶5 첫 문장	'enclaves',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economy, … 'screwdriver operations'	요지 문항 · 핵심 용어
▲	76쪽 ¶5 둘째 문장(77쪽)	most of the real benefits … do not materialize	most of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	77쪽 ¶1 첫~둘째 문장	by some accounts, … at 60% (… the US at around 20% or even Korea at 35%) … only around $3,500	빈칸 문항 · 숫자 1순위
★	77쪽 ¶1 셋째 문장	all produced by MNC subsidiaries running screwdriver operations in economic enclaves	까닭 — 빈칸의 근거

내용

바나나 공화국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부자 나라의 힘센 기업, 곧 다국적 기업(MNC) 또는 초국적 기업(TNC)이 그 투자를 받는 나라('host economy')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 준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다고 다국적 기업을 한결같이 나쁘게 보지는 말라고 말한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받아들인 나라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가 혼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수 있다. 1998년 인텔이 원조 '바나나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코스타리카에 새 마이크로칩 조립 공장을 열어 그 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것이 그런 예다. 페어차일드 · 모토롤라 같은 세계 최초의 반도체 회사들이 1960년대 중반 한국에 조립 공장을 세운 것도 그렇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의 초강대국 가운데 하나지만, 그때는 주로 수입 부품으로 트랜지스터라디오를 조립하는 일이 가장 앞선 산업에 꼽히던 가난한 나라였다. 받아들인 나라에 이미 있는 산업에서도 다국적 기업은 더 뛰어난 기술과 새 경영 기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는 직접 일어날 수 있다. 투자 유치국 시민이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서 관리자 · 기술자 · 노동자로 일하다가 새 지식을 가지고 현지 기업으로 옮기거나 아예 자기 사업을 차리는 경우다. 간접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현지 기업에서 투입물을 사면, 현지 기업은 때로 다국적 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가며 더 높은 기술 · 품질 기준을 맞추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니 다국적 기업이 내 나라에서 사업하면 잠재적 이익이 클 수 있다. 이런 이익을 들어 많은 기업인 · 경제학자와 세계은행 · WTO 같은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다국적 기업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낮은 세금이나 아예 면세를 제공하며, 가볍게 규제하거나 특히 노동 · 환경에 관한 일부 현지 규제에서 아예 빼 주라고 권한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이런 정책으로 해외 직접 투자(FDI)라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여 번영을 이룬 나라의 예로 자주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주는 이 잠재적 이익이 말 그대로 '잠재적' 이익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익을 실현하려면 다국적 기업이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으므로 다국적 기업은 높은 관리직 · 기술직을 뽑을 때 국제 인력 풀에서 데려온다. 그 결과 투자 유치국 현지인에게는 높은 지식을 흡수할 여지가 거의 없는 낮은 일자리만 남는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이유로 낮은 일자리에까지 자기 나라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는데, 일부 중국 건설 회사가 그렇다. 현지 기업의 생산 능력이 낮으므로 다국적 기업은 새로 가르쳐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큰 현지 기업이라는 '미지수'를 시험하기보다 본국이나 이미 공급망을 갖춘 나라의 늘 거래하던 공급업체에서 투입물을 수입하기를 좋아한다. 그 결과 투자 유치국에는 나머지 경제와 동떨어진 '고립 지역(enclave)'이 생기고, 그 안에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는 주로 수입한 투입물을 싼 현지 노동자가 최종 조립만 하고 현지 기업에서는 거의 사지 않는 '스크루드라이버 작업'을 한다. 이 경우 단기적인 이익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노동자의 임금, 현지 기업에서 산 일부 저기술 투입물 등), 다국적 기업이 주는 진짜 이익 대부분(더 나은 기술의 이전, 더 나은 경영 관행을 접할 기회, 노동자 · 기술자의 고급 기술 훈련)은 실현되지 않는다. '고립 경제'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는 필리핀이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필리핀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경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품 가운데 첨단 기술 제품(주로 전자 제품)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다(미국 약 20%, 한국 35%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첨단'인데도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은 약 3,500달러로, 한국의 3만 달러 이상, 미국의 약 6만 달러와 견주면 한참 낮다. 필리핀이 수출하는 전자 제품은 모두 경제적 고립 지역에서 스크루드라이버 작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 자회사가 만들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가장 극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지만,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는 대개 고립 지역의 스크루드라이버 작업으로 끝난다.

어법

- **The phenomenon of the banana republic shows how powerful corporations from rich countries … can negatively affect the 'host economy' that receives their investments.** : how =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의문부사(얼마나 · 어떻게), 주어 powerful corporations … + 동사 can affect → shows의 목적어 명사절. how powerful(얼마나 힘센)로 묶어 읽지 않도록.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 **However, don't let that make you form a uniformly negative view of MNCs.** : let + O + 동사원형(make), make + O + 동사원형(form) — 사역동사가 겹친 구조. that = 앞 단락의 내용.
- **Having MNCs around can enable economically backward economies to start an entirely new industry that they could not have dreamed of having on their own** : 동명사 주어 → can enable. enable + O + to V. could not have p.p. = ~할 수 없었을 것이다(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추측). dream of + 동명사.
- **But it can also happen indirectly, when MNCs buy inputs from local firms, which then get to learn to meet higher technological and quality standards**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local firms). get to V = ~하게 되다(기회를 얻다).
- **recommend developing countries to welcome MNCs with open arms, offer them low taxes …, regulate them lightly or even exempt them from some local regulations** : 원서는 recommend + O + to V를 쓴다(흔히 recommend that S (should) V로도 씀). to 뒤 welcome · offer · regulate · exempt가 병렬. exempt A from B = A를 B에서 면제하다.
-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se potential benefits from MNC presence are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 is that ~ = 보어 명사절. just that = 바로 그것일 뿐(대시 뒤에서 풀어 줌).

- **As a result, the locals in the host countries are left with low-level jobs, with little scope for absorbing higher-level knowledge.** : be left with = ~만 남다(수동). with little scope for + 동명사 = ~할 여지가 거의 없는(little = 부정).
- **The result is that the host country ends up with 'enclaves',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economy, in which MNC subsidiaries engage in 'screwdriver operations'** : end up with = 결국 ~을 갖게 되다. isolated = 과거분사(enclaves를 설명).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engage in = ~에 종사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ost (a.)	(투자를) 받아들이는	receiving	home
uniformly	한결같이	consistently	—
backward	뒤처진	underdeveloped	advanced
subsidiary	자회사	affiliate	parent company
superior	더 뛰어난	better	inferior
exempt (v.)	면제하다	excuse	—
realization	실현	fulfilment	—
pool (n.)	인력 풀	reserve	—
scope	여지	room	—
absorb	흡수하다	take in	—
enclave	고립 지역	isolated pocket	—
isolated	고립된	cut off	integrated
materialize	실현되다	come about	—
telling	잘 보여 주는	revealing	—

내용 일치 다국적 기업(MNC) = 초국적 기업(TNC) · 받아들인 나라에 나쁜 영향 가능 · 그러나 한결같이 나쁘게 보지 말 것 · 1998 인텔 코스타리카(원조 바나나 공화국) · 1960년대 중반 페어차일드 · 모토롤라 한국(당시 트랜지스터라디오 조립이 최첨단) · 기술 · 경영 전수(직접: 현지인이 옮김 / 간접: 현지 기업에서 투입물 구매) · 세계은행 · WTO 등 = 환영 · 낮은 세금 · 가벼운 규제 권고 · 아일랜드 · 싱가포르(FDI) · 이익은 '잠재적' · 고위직은 국제 인력 · 일부 중국 건설 회사 · 투입물 수입 · 고립 지역 · 스크루드라이버 작업 · 필리핀 첨단 60%(미국 약 20% · 한국 35%) · 1인당 약 3,500달러(한국 3만 달러 넘게 · 미국 약 6만 달러). **밑줄 의미**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 저절로 오지 않는, 가능성일 뿐인 이익 / with open arms = 두 팔 벌려(조건 없이) / 'unknown quantities' = 능력을 알 수 없는 현지 기업 / screwdriver operations = 수입 부품을 싼 노동으로 최종 조립만 하는 일 / literally the most hi-tech economy = 숫자로는 가장 첨단이지만 실속은 없음(by some accounts) / 75쪽 ¶4 that(don't let that) = 바나나 공화국 현상 · 75쪽 ¶5 they(could not have dreamed) = economically backward economies · 76쪽 ¶3 Their(realization) = 잠재적 이익 · 76쪽 ¶4 they(hire) = MNCs.

> **한 줄 요약** 다국적 기업은 새 산업과 기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이익은 '잠재적'일 뿐이라, 정책이 없으면 투자 유치국에는 스크루드라이버 작업을 하는 고립 지역만 남는다.

9-7 규제로 이익을 끌어내다 — 한국 · 타이완과 결론 77쪽 ¶2 ~ 78쪽 ¶3

원문 위치 원서 77쪽 ¶2 ~ 78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7쪽 ¶2 첫 문장	many governments have regulated MNC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them	요약문 문항의 바탕
★	77쪽 ¶2 둘째 문장	restricted the ownership share of MNCs, so that the MNCs have to go into a joint venture with a local partner	첫째 수단 — 지분 제한
★	77쪽 ¶2 셋째 문장	In key sectors, the share was usually put under 50%	숫자 50%
★	77쪽 ¶2 넷째~다섯째 문장	transfer technology … ceilings on the royalty … hire more than a certain proportion of the locals	둘째 · 셋째 수단
★	77쪽 ¶2 여섯째 문장	this is known as the 'local contents requirement'	용어 — 6장 · 8장 연결
★	77쪽 ¶2 일곱째 문장	used extensively – and successfully – by … Japan, South Korea, Taiwan and Finland between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1980s	나라 · 시기 — 일치 후보
▲	77쪽 ¶3 둘째 문장	In attracting MNCs, they initially offered tax breaks and even partial suspension of already weak national labour laws	in + 동명사 · 지칭 they
★	77쪽 ¶3 셋째 문장	contrary to prevailing opinion today, they imposed all sorts of regulations	통합 사고 빈칸 · 통념 반박
★	77쪽 ¶3 넷째 문장	Samsung (Korea) and TSMC (Taiwan) … LG … Hyundai-Kia … (see 'Noodle')	6장과 연결
★	78쪽 ¶1 첫 문장	which most people assume have succeeded … actually have done so because of public policy intervention	통념 ↔ 실제 · 삽입절
★	78쪽 ¶1 셋째 문장	the country's supreme landlord (owning almost 90% of the land)	숫자 90%
★	78쪽 ¶2 첫~둘째 문장	The banana is the most productive fruit … used in the wrong way, has led to highly negative outcomes	주장 문항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8쪽 ¶3 셋째 문장	the host country will end up as an 'enclave economy', if not a 'banana republic'	밑줄 의미: if not
▲	78쪽 ¶3 넷째 문장	Only when there are public policies ..., will host economies truly benefit	Only when 도치

내용

그러니 많은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서 얻는 이익을 최대로 하려고 다국적 기업을 규제해 온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정부들은 다국적 기업의 지분을 제한해 다국적 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현지 파트너는 그러지 않을 때보다 더 나은 회사에게서 배울 기회가 훨씬 커진다. 핵심 부문에서는 보통 지분을 50% 미만으로 두어 현지 쪽이 더 유리한 협상 위치에 서게 했다. 다국적 기업에 자회사로 기술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거나, 자회사에 기술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로열티에 상한을 두기도 했다. 때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한 노동자를 훈련하라고 의무화했다. 다국적 기업 투자의 간접 이익을 최대로 하려고 자회사에 투입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현지 공급업체에서 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현지 조달 요건(local contents requirement)'이라고 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 한국 · 타이완 · 핀란드 같은 나라가 널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썼다. 특히 한국과 타이완의 사례가 흥미롭다. 두 나라는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처음에는 첨단 기술과 관계없는 부문(의류 · 봉제 인형 · 운동화 등)에서 세금을 깎아 주고, 안 그래도 약한 국내 노동법의 일부 적용까지 멈추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와 달리 두 나라는 온갖 규제를 두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전자 ·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으로 이끌고, 다국적 기업에서 기술과 숙련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끌어냈다. 이런 정책 덕분에 한국과 타이완은 이제 반도체의 삼성(한국) · TSMC(타이완), 디스플레이의 LG(한국), 자동차의 현대-기아(한국)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6장 참조). 중국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일을 해 왔다. 다만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 몹시 들어가고 싶어 한 큰 국내 시장 덕에 중국은 협상력이 아주 커서, 지식 이전의 많은 부분을 한국 · 타이완처럼 공식 법률로 하지 않고 개별 다국적 기업과의 비공식 협상으로 정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국적 기업에 너그러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조차 실제로는 공공 정책의 개입 덕에 성공했다(전략적 입지, 곧 아일랜드의 EU 회원국 지위와 국제 무역의 핵심 요충지라는 싱가포르의 위치도 도움이 되었다). 두 나라 정부는 아무 다국적 기업이나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그저 기다리지 않고, 전자 · 제약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하려는 다국적 기업에 일부러 맞춤형 지원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땅의 거의 90%를 가진 나라 최대의 지주라는 위치를 한껏 살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다국적 기업에 좋은 입지를 적정한 임대료로 내주며 끌어들였다. 저자는 결론에서 바나나로 돌아간다.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과일이다. 그러나 그 생산성이 잘못 쓰이자 몹시 나쁜 결과를 낳았다. 처음에는 플랜테이션 주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메리카의 노예를 살려 두는 데 쓰였고, 나중에는 카리브해 안팎의 많은 나라에서 노동 착취 · 정치 부패 · 국제적 군사 침공의 원인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도 그렇다. 바나나처럼 많은 다국적 기업은 생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잘못 쓰이면 투자 유치국은 '바나나 공화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립 경제'가 되고 만다. 기술 · 노동자 숙련 · 경영 관행의 이전을 최대로 보장하는 공공 정책이 있을 때에야 투자 유치국은 다국적 기업이 있어 정말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어법

- **Given this, it is not a big surprise that many governments have regulated MNC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them.** : Given this = 이를 고려하면.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in order to V = 목적.
- **They have restricted the ownership share of MNCs, so that the MNCs have to go into a joint venture with a local partner, which will then have a much greater chance to learn** : so that = 결과 · 목적.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a local partner). much + 비교급.

- **Countries have required MNCs to transfer technology to their subsidiaries or put ceilings on the royalty they can charge** : require + O + to V. have required와 (have) put이 병렬. the royalty (that) they can charg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In attracting MNCs, they initially offered tax breaks and even partial suspension of already weak national labour laws** : in + 동명사 = ~하면서, ~할 때. they = Korea and Taiwan.
- **they imposed all sorts of regulations to direct MNC investments … and to extract the largest possible amounts of technologies** : to direct와 to extract = 목적의 to부정사 병렬. the + 최상급 + possible = 될 수 있는 한 가장 ~한.
- **Even Ireland and Singapore, which most people assume have succeeded economically because they had been liberal with MNCs, actually have done so because of public policy intervention** : which 뒤 most people assume는 삽입절 → which가 have succeeded의 주어(주격). had been = 과거완료. have done so = have succeeded(대동사).
- **But that productivity, used in the wrong way, has led to highly negative outcomes.** : used in the wrong way = 과거분사구(잘못 쓰여). has led to = 현재완료. lead to = ~을 낳다.
- **Only when there are public policies to ensure maximum transfer of technologies, worker skills and management practices, will host economies truly benefit from the presence of MNCs.** : Only + 부사절이 앞에 오면 주절이 도치된다(will host economies benefit). to ensure = policies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gulate	규제하다	control	deregulate
joint venture	합작 투자	partnership	—
ceiling	상한	cap	floor
mandate (v.)	의무화하다	require	—
extensively	널리	widely	sparingly
suspension	(적용) 중지	postponement	enforcement
prevailing	지배적인	dominant	marginal
leverage	영향력, 지렛대	clout	—
liberal	너그러운, 규제가 적은	permissive	strict
custom-made	맞춤형의	tailor-made	off-the-shelf

내용 일치 지분 제한(핵심 부문 50% 미만) · 기술 이전 · 로열티 상한 · 현지 고용 · 훈련 · 현지 조달 요건 · 일본 · 한국 · 타이완 · 핀란드(2차 대전 뒤~1980년대) · 한국 · 타이완: 처음엔 저기술 부문 세금 감면 → 온갖 규제로 첨단 산업 유도 · 삼성 · TSMC · LG · 현대-기아 · 중국 = 비공식 협상 · 아일랜드 · 싱가포르 = 공공 정책 개입 · 싱가포르 정부 땅 거의 90% · 가장 생산적인 과일. **밑줄 의미** contrary to prevailing opinion today = 문을 활짝 열어 성공했다는 통념과 달리 / if not a 'banana republic' = 바나나 공화국까지는 아니더라도 / 77쪽 ¶2 which(will then have) = a local partner · 77쪽 ¶3 they(initially offered) = Korea and Taiwan · it(gave it) = China · 78쪽 ¶2 It(was initially used) = that productivity(바나나의 생산성).

> **한 줄 요약** 다국적 기업도 바나나처럼, 정책으로 올바르게 쓸 때에만 이롭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9 BANANA]

범위	Banana (원서 PDF 72~79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o fruit in the world is as productive as the banana. Yet that very productivity, put to the wrong use, has produced terrible results. In the Americas it first kept slaves alive cheaply for plantation owners; later it fuelled labour exploitation, corrupt politics and foreign military invasions around the Caribbean. MNCs are much the same: many, like bananas, are highly productive, but if they are handled badly, a host nation may become an 'enclave economy', or even a 'banana republic'. Host economies will truly gain from MNCs only when public policies ensure that technologies, skills and management know-how are passed on as fully as possible.

① Developing countries should reject MNCs.
② Hosts need policies to benefit from MNCs.
③ Bananas should be grown on a smaller scale.
④ MNCs are more productive than local firms.
⑤ Banana firms must pay higher taxe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re bananas are not grown, people think of them simply as fruit. But some 85% of the world's bananas are estimated to be eaten where they are grown, across Africa, the Caribbean, South America and South and South-east Asia. There, bananas are more often cooked than eaten raw: they are boiled, fried or baked as a source of carbohydrate, or used as a vegetable in savoury cooking, above all in southern India. Even the sweeter 'dessert banana', which makes up 95% of the bananas traded across borders, gets cooked, partly because local people rarely tell it apart from the 'cooking banana', or plantain. Across much of Africa, people even brew bananas into beer.

① Where Bananas Grow, They Are More Than Fruit
② Why Dessert Bananas Dominate World Trade
③ Bananas: The Healthiest Fruit for Breakfast
④ How the Banana Spread from Asia to Africa
⑤ The Decline of Cooking Bananas in Africa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ince skill level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relatively low, MNCs usually fill their senior management and technical posts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market, leaving local people with low-level jobs that teach them little. Some, for political reasons, even bring in their own nationals for the lower jobs, as certain Chinese construction firms do. MNCs also tend to import their inputs from trusted suppliers abroad instead of risking untested local firms that would need training. The result is an 'enclave' cut off from the wider economy, where subsidiaries merely assemble imported parts with cheap local labour. Workers may earn wages, but the deeper benefits, such as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skills, never arrive.

① MNCs often bring host economies few real gains.
② Developing countries should train more managers.
③ Chinese firms hire the most local workers.
④ Imported inputs are better than local ones.
⑤ MNC wages are too low in developing countries.

4. 밑줄 친 <u>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u>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oday many Americans, and many others in wealthy countries, know 'banana republic' only as the name of a clothing company. The phrase, however, was first created to describe a grim reality: poor developing nations almost totally controlled by big corporations from rich countries, a reality that included coups backed by the companies and the shooting of striking workers. Using such a phrase to sell fashionable clothes is, in the author's view, <u>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u>. He compares it to calling a trendy coffee shop Satanic Mills or a luxury sunglasses shop Dark Continent.

① The brand ignores or insults a painful history.
② The brand sells clothes of poor quality.
③ The brand was created in a banana republic.
④ The brand helps people learn about history.
⑤ The brand should move its shops to Honduras.

5. 밑줄 친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ointing to the advantages MNCs can bring, many business leaders, economists and bodies such as the WTO and the World Bank urge developing countries to welcome foreign firms warmly: tax them lightly or not at all, and loosen the rules on them, especially those on the environment and labour. Singapore and Ireland are frequently held up as nations that grew rich by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is way. The trouble is that the gains MNCs promise are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They will become real only if governments adopt policies that lead MNCs to behave in the right ways.

① They come only when policies guide MNCs.
② They are larger than most experts expect.
③ They are enjoyed only by rich countries.
④ They appear as soon as MNCs arrive.
⑤ They depend on low taxes for MNC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Portuguese fed bananas to the enslaved Africans whom ① they forced to grow sugar on Madeira and in the Canary Islands, which Portugal partly owned until 1479. Later, when ② they began carrying Africans across the Atlantic as slaves, ③ they made bananas, plantains in particular, a basic food on ④ their slave ships, together with rice. On the plantations, the slaves were urged to plant bananas on the little plots handed to ⑤ them for growing extra food. The banana was ideal for such plots: in the right climate it grows all year round and yields 200,000 pounds an acre, which is ten times as much as yams, with very little labour. Owners wanted the plots to take up as little of the slaves' time as possibl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The US banana companies became even more notorious after an event now known as the Banana Massacre. In autumn 1928, workers on UFC's Colombian plantations went on strike. Most of their demands, such as toilets, medical care, wages paid in cash rather than in coupons for overpriced company stores, and being treated as employees instead of subcontractors, would be seen as basic today. The US government threatened to send in troops unless the strike ended quickly, and the Colombian army chose to crush it by force on 6 December. Soldiers shot a large number of strikers in the town of Ciénaga; estimates of the dead vary from 47 to 2,000. Gabriel García Márquez later fictionalized the event in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where more than 3,000 strikers are killed.

① 파업은 1928년 봄에 UFC 플랜테이션에서 시작되었다.
② 노동자들은 회사 상점에서 쓰는 쿠폰으로 임금을 받기를 요구했다.
③ 콜롬비아군은 12월 6일 무력으로 파업을 진압하기로 했다.
④ 시에나가에서 죽은 노동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미국 정부는 파업을 끝내려고 직접 군대를 보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Between the late nineteenth and mid-twentieth centuries, US banana companies dominated northern Sou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so completely that the countries there came to be known as 'banana republics'. The phrase was invented by O. Henry, an American writer of short stories whose real name was William Sydney Porter. It appeared in 'The Admiral', a story he published in 1904. The story takes place in Anchuria, a fictional version of Honduras, where O. Henry had spent time in exile in 1897, and it portrays a government that is pitiful both financially and organizationally. About fifty years later, in 1950, the Chilean poet and Nobel Prize winner Pablo Neruda helped spread the phrase with a poem titled 'United Fruit Co.'

①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은 미국 바나나 회사들의 지배에서 나왔다.
② 오 헨리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다.
③ 「제독」의 배경 안추리아는 온두라스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나라다.
④ 오 헨리는 「제독」을 발표한 뒤인 1897년에 온두라스로 망명했다.
⑤ 파블로 네루다는 시를 써서 이 말을 더 널리 퍼뜨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banana originally comes from South-east Asia and is believed ① to have been domesticated thousands of years ago. During domestication, people chose seedless mutants because they had more parts ② that could be eaten, and as a result the banana lost its natural ability to reproduce on its own. Domesticated bananas cannot spread without people ③ removing shoots, or suckers, from the underground stem of a mature plant and planting them again. Bananas ④ multiplied in this way ⑤ is all genetically identical, which, the author notes in a footnote, makes their diseases hard to control.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lenty of dishes carry the name of the person who supposedly invented them, and others are named after the person they were supposedly made for. But one dish (A) [named / is named] after a person who just adored it: the Elvis sandwich, a sandwich of banana and peanut butter loved by Elvis Presley, known to many as 'the King'. Presley reportedly ate it constantly, so much so (B) [that / what] the sandwich ended up carrying his name. The author sides with the King on this. This peanut butter–banana sandwich with a little honey (C) [is / are] among his wife's favourite breakfasts, and he often joins her.

	(A)	(B)	(C)
①	named	that	is
②	is named	what	are
③	is named	that	is
④	named	what	is
⑤	is named	that	ar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his almost complete economic control meant that the banana companies also had an extremely ① strong grip on politics in the countries that grew bananas. With their own customs officers and police, the companies carried out much of their business ② beyond the reach of national law. Politicians were bribed to ③ guarantee policies friendly to business. When governments tried to act against the companies' interests, even by raising extremely low taxes only to very low levels or by strengthening workers' rights a ④ great deal, the companies backed coups against them, sometimes with the help of American mercenaries known as filibusters. And during the first fifty years of the twentieth century, US Marines ⑤ regularly invaded some of these countrie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 interest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clearest case of an 'enclave economy' is the Philippines. By some accounts it is literally the world's most high-tech economy: according to World Bank figures, high-technology goods, mostly electronics, make up 60% of its manufactured exports, far above the US (about 20%) and even Korea (35%). Yet its income per head is only about $3,500, compared with over $30,000 in Korea and roughly $60,000 in the US. The reason is that its electronics exports are all made by MNC subsidiaries that simply assemble imported parts in isolated enclaves. The Philippine case shows that _____.

① a high-tech export basket does not guarantee a rich economy
② electronics exports always raise national income
③ the World Bank overstates the incomes of poor countries
④ Korea should export more high-tech goods
⑤ screwdriver operations transfer advanced technologie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But knowledge can also spread indirectly, when MNCs purchase inputs from local companies, which then learn to meet higher technical and quality standards.

MNCs can help economically backward countries launch whole new industries they could never have built alone. (①) In 1998, for example, Intel opened a microchip assembly plant in Costa Rica, itself one of the first 'banana republics', and started its semi-conductor industry. (②) Similarly, in the mid-1960s pioneering chip firms such as Fairchild and Motorola set up assembly lines in South Korea, then a poor country where assembling transistor radios from mostly imported parts was among the most advanced work. (③) Even in existing industries, MNCs can pass on better technologies and management methods. (④) This can happen directly, when local people who work for MNC subsidiaries later move to local firms or start their own, taking what they learned with them. (⑤) So the potential gains from hosting MNCs can be huge.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o draw in MNCs, Korea and Taiwan first offered tax breaks and even partly suspended labour laws in low-tech sectors such as garments and toys. ① Yet, contrary to what is widely believed today, they also placed all kinds of rules on MNCs to steer their investment into high-tech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and cars. ② They also made sure that as much technology and skill as possible was drawn out of the MNCs. ③ The Cavendish, which accounts for 95% of the bananas traded internationally, was developed in the mid-1830s. ④ As a result, the two now have world-class MNCs of their own, such as Samsung, TSMC, LG and Hyundai-Kia. ⑤ China has done something similar, though its huge market let it secure much of its technology through informal deals rather than laws.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ananas may have first come to the Americas as a vital part of the slave plantation system, but centuries later they powered the export economies of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A) These companies soon controlled the economies of the producing countries. In Honduras, UFC and SFC ran the railways and electric lights as well as the mail, telegraph and telephone, and many people in these countries called the firms El Pulpo, 'the octopus'.

(B) This shift was driven by new technolog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railways, steamships and refrigeration began to allow perishable farm goods to be exported in bulk over long distances. Before then, bananas had been a luxury sold in small amounts even in the US.

(C) Once large-scale imports became possible, US firms such as the United Fruit Company and the Standard Fruit Company set up huge plantations across the Caribbean, northern Sou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hardly surprising, then, that many governments have placed rules on MNCs to get the most out of them. They have limited how much of a local business an MNC may own, often to under 50% in key sectors, so that MNCs must form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who can then learn from them and bargain from a stronger position. They have also required MNCs to pass on technology, capped the royalties MNCs charge their subsidiaries, and obliged them to hire and train local workers or buy a set share of their inputs locally. Japan, Korea, Taiwan and Finland used such policies widely and successfully from the end of World War II to the 1980s.

→ Many governments have attached (A) _____ to MNC investment, such as ownership limits and local hiring, so that local firms and workers could (B) _____ technologies and skills from MNCs.

① conditions ..... acquire
② conditions ..... reject
③ subsidies ..... acquire
④ subsidies ..... export
⑤ freedoms ..... hid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n estimated 85% of bananas are eaten where they are grown. Europeans first saw bananas in their South-east Asian homeland only in 1521, during Magellan's voyag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US firms such as the United Fruit Company, today's Chiquita, and the Standard Fruit Company, today's Dole, built huge plantations in the Americas. In 1928, Colombian troops shot striking UFC workers in what became known as the Banana Massacre. O. Henry coined the term 'banana republic' in 1904, and Pablo Neruda spread it in 1950. High-tech goods make up 60% of the Philippines' manufactured exports, yet it remains poor. Korea and Taiwan, by contrast, imposed many rules on MNCs.

<QUIZ>

(1) What share of bananas is estimated to be eaten where they are grown?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Europeans first see bananas in South-east Asia?

Answer for (2): _____

(3) Which company is known today as Chiquita?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did the Banana Massacre take place?

Answer for (4): _____

(5) Who coined the term 'banana republic'?

Answer for (5): _____

(6) What share of the Philippines' manufactured exports is high-tech?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Korea and Taiwan let MNCs invest without any rul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521	N. O. Henry
B. 95%	O. True
C. 25%	P. 35%
D. 1479	Q. 1470s
E. 60%	R. United Fruit Company
F. Standard Fruit Company	S. False
G. 1904	T. 1897
H. Pablo Neruda	U. Dole
I. 1928	V. 1998
J. 20%	W. $3,500
K. García Márquez	X. Magellan
L. 1950	Y. Joseph Paxton
M. 85%	Z. 1930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프레슬리는 그것을 늘 먹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다. (be supposed to have p.p. / so much so that)

02 바나나를 샌드위치 속으로 먹는 것은 꽤 드문 방식이다.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03 바나나의 85%는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된다고 추정된다. (It is estimated that ~)

04 바나나는 수천 년 전에 작물화되었다고 추정된다. (be estimated to have been p.p.)

05 작물화된 바나나는 사람의 개입 없이는 번식시킬 수 없다. (cannot ~ without)

06 첫 유럽인이 도착했을 무렵, 바나나는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대륙에 토착화되어 있었다. (by the time + 과거 → 과거완료)

07 노예 주인들은 노예들이 그 땅에 되도록 적은 시간을 쓰기를 바랐다. (want + O + to V / as little ~ as possible)

08 바나나 회사들의 지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이 나라들은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be such that)

09 다국적 기업은 뒤처진 경제가 혼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새 산업을 시작하게 해 줄 수 있다. (could not have p.p.)

10 그 결과 투자 유치국 현지인에게는 낮은 일자리만 남는다. (be left with)

11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실제로는 공공 정책 덕에 그렇게 되었다. (관계대명사 + 삽입절(most people assume))

12 공공 정책이 있을 때에야 투자 유치국은 다국적 기업 덕에 정말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Only when + 절 → 주절 도치)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생산지에서 소비되는 바나나(추정)	
디저트 바나나 · 캐번디시의 국제 거래 몫	
우간다 · 르완다 · 카메룬 농촌의 하루 열량	
바나나 품종 / 캐번디시 개발(각주 iv)	
캐번디시가 그로 미셸을 대체(각주 v)	
포르투갈인의 서아프리카 도착 /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봄	
카나리아 제도 일부의 포르투갈 소유	
바나나의 에이커당 수확량	
UFC · SFC의 지금 이름	
요즘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	
UFC가 과테말라 최대 지주였던 때	
바나나 학살 / 군의 진압 날짜 / 장소	
실제 사망자 추정 / 소설 속 사망자	
'banana republic'을 만든 단편 · 작가 / 망명	
말을 퍼뜨린 시 · 시인	

항목	답
인텔의 코스타리카 공장 / 페어차일드 · 모토롤라의 한국 공장	
필리핀 제조업 수출의 첨단 제품 비율(미국 · 한국)	
1인당 소득: 필리핀 / 한국 / 미국	
핵심 부문의 다국적 기업 지분	
규제를 쓴 나라 · 시기	
싱가포르 정부가 가진 땅	

4-3. 통합 사고 문제 – 6장과 9장을 잇는 자리

문제

6장에서 저자는 현대자동차가 처음에는 포드와의 합작 투자로 세워져 포드 영국이 개발한 코티나를 주로 수입 부품으로 조립했다고 썼고(54쪽 첫 줄), 한국 정부가 자체 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생산 면허를 거두겠다고 위협했으며 국내 부품 산업이 자라도록 현대와 다른 (외국 · 국내) 회사들에 제품의 '현지 부품 비율'을 높이라고 압박했다고 썼다(55쪽 ¶4). 9장에서 저자는 많은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지분을 제한해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하게 하고 '현지 조달 요건'을 두었으며(77쪽 ¶2), 한국과 타이완이 이런 정책 덕에 현대-기아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갖게 되었다고 썼다(77쪽 ¶3).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타이완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첨단 산업으로 이끌려고 무엇을 두었다고 저자가 보았는지 아래 77쪽 ¶3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 하나로 쓰고, 그 근거를 6장과 9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6장 또는 9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한국 · 타이완의 다국적 기업 정책: However, contrary to prevailing opinion today, they imposed all sorts of _____ to direct MNC investments into hi-tech industries, like electronics and automobiles, and to extract the largest possible amounts of technologies and skills from MNC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0 COCA-COLA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oca-Cola」 (원서 PDF 80~8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워싱턴 컨센서스는 왜 라틴아메리카에서 버림받았는가."

이 장은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음료 코카콜라로 시작한다. 콜라가 너무 달아 얼음을 잔뜩 넣어 마신다는 저자는 콜라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된 이야기, 투명한 콜라를 주문한 소련의 주코프 원수 이야기, 와인 · 코카 잎 · 콜라 너트로 만든 '신경 강장제'에서 출발한 콜라의 역사를 차례로 들려준다. 이야기는 콜라에서 빠진 코카 잎을 따라 안데스로 건너가, 코카 농민 출신으로 볼리비아 대통령이 된 에보 모랄레스와 그가 맞선 '워싱턴 컨센서스', 곧 신자유주의 정책 묶음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볼리비아와 라틴아메리카 '핑크 타이드'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의 예측을 뒤엎고 평등과 성장을 함께 이루었지만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모든 나라에 같은 처방을 내린 워싱턴 컨센서스는 고객을 만족시켜 성공을 이어 가는 코카콜라와 달리 역사의 황혼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5장(새우)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개발도상국은 생산자가 자랄 '공간'이 필요하다(85쪽 ¶2) / 핑크 타이드는 신자유주의의 예측을 뒤엎었다(83쪽 ¶2~¶4) /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지 못한 한계(83쪽 ¶5) / 신자유주의는 부자 나라에서도 실패했다(85쪽 ¶1) / 워싱턴 컨센서스는 사라질 것 같다(85쪽 ¶3)
4~5	**밑줄 함축 의미**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 A brilliant manoeuvre worthy of one of the greatest military strategists / no original members left any more / 'left the band' / still in the band but only as a ghost / defied the sceptics / a bizarre travesty of socialism /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 Perish the thought / a 'cookie cutter' approach / the twilight of history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주코프와 아이젠하워 사이를 오가는 80쪽 ¶5~81쪽 첫 줄 / it(80쪽 ¶2 = Coca-Cola) / It · it(81쪽 ¶5 = kola nut) / it(82쪽 ¶1 take it out = coca leaf) / the latter(82쪽 ¶3 = 미국 정부) / them · They(83쪽 ¶3 = 핑크 타이드 정부들) / it(84쪽 첫 줄 = 정권 상실) / them(84쪽 ¶6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7~8	내용 일치·불일치	Standage와 인도의 코카콜라(80쪽 ¶3~¶4) / 콜라의 성장과 이름(81쪽 ¶3~¶4) / 1885 · 1886 · 1894 · 1910년대 중반 · 1920년대 · 1930년대 · 1938 · 1977 · 1991 · 1993 · 2016 · 2005 · 2006~19 · 0.5% · 3% · 0.57 → 0.48 · 2012~13 · 1973 · 2021 · 2022
9~10	**어법**	have + O + p.p. · find + O + 형용사 · 관계대명사 what · 이유의 분사구문 · come to V · be said to have p.p. · be seen to V · 보어 도치 · whose · 결과의 분사구문 · enable + O + to V · It is said that · 과거완료 · the latter · go on to V · 독립분사구문 · let + O + 원형 · while + 분사(양보) · respectively · as if + 과거완료 · as ~ as 뒤 도치 · 가목적어 it · in which · look set to V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dilute↔concentrate · dissident↔conformist · nondescript↔distinctive · prohibit↔permit · counterfeit↔genuine · suppress↔stimulate · synthetic↔natural · privatization↔nationalization · defy↔confirm · predecessor↔successor · rigidly↔flexibly · twilight↔dawn
12	빈칸 추론	Bolivia's performance defied the sceptics(83쪽 ¶1) /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ies are so named because(82쪽 ¶4) / a successful product requires happy customers(85쪽 ¶3) / the need for a much more active role for the state(84쪽 ¶6~85쪽 첫 줄)
13	문장 삽입	핑크 타이드의 퇴조와 귀환(83쪽 ¶6~84쪽 ¶1): 원자재 호황의 끝 → 2010년대 후반의 정권 상실 · 볼리비아의 쿠데타 → 그러나 구체제로 돌아가지 않음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의 재집권 → 2022년 브라질 전망
14	무관한 문장	안데스의 코카와 모랄레스(82쪽 ¶2~¶4)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1894년의 병입, 81쪽 ¶3)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펨버턴의 발명(81쪽 ¶1~¶2): 1885년 French Wine Coca → Vin Mariani와 콜라 너트라는 혁신 → 1886년 금주 → 설탕 · 감귤 오일 → Coca-Cola
16	요약문 완성	워싱턴 컨센서스 거부가 덜 보인 아시아(애초에 덜 엄격히 따름)와 아프리카(자금을 워싱턴 기관에 의존)(84쪽 ¶4~85쪽 첫 줄)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지역 · 비율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00년대 중반(Standage) · 200개 지역 · 1977(면허 취소) · 1991(인도의 자유화) · 1993(복귀) · 1945~46(주코프) · 1885(French Wine Coca) · 1886(금주) · 1894(병입) · 1910년대 중반 · 1920년대 · 1930년대 · 1938 · 2016(콜라 너트 대체) · 2006~19(모랄레스 재임) · 1858~72(후아레스) · 2005 · 0.5% → 3% · 0.57 → 0.48 · 1.3% · 30% → 10% · 2012~13 · 2019 · 2020 · 2021 · 2022 · 1973 · 1.6% → 0.3% · 3.1% → 0.8%. 1885는 French Wine Coca를 내놓은 해이고 1886은 알코올이 금지된 해다. 인물도 많다(Standage · 주코프 · 아이젠하워 · 펨버턴 · 로빈슨 · 모랄레스 · 후아레스 · 마두로 · 차베스 · 룰라 · 호세프 · 보리치).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합작 거부 ↔ 합작 수용, 1993 ↔ 1991, 펨버턴 ↔ 로빈슨, 서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서부, 식욕 억제 ↔ 식욕 증진, 0.5% ↔ 3%, 덜 엄격히 ↔ 똑같이 엄격히, 아시아 ↔ 아프리카). 전언 · 추측(is said to · It is also said · possibly · seem to have been · arguably · looks set to)을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oca-Cola」 (80~85쪽)

논증형(얼음 넣은 콜라 → 세계의 콜라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 주코프의 투명한 콜라 → 펨버턴의 발명과 콜라의 성장 → 콜라 너트와 코카 잎 → 안데스의 코카 → 모랄레스와 워싱턴 컨센서스 → 볼리비아의 성과 → 핑크 타이드의 성과와 한계 → 퇴조와 귀환 · 칠레의 보리치 → 아시아 · 아프리카 · 부자 나라 → 결론: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정책은 사라진다). 핵심 축은 **워싱턴 컨센서스(신자유주의) vs 국가의 적극적 역할**,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예측 vs 실제 성과**.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0 ¶1~¶2	도입	콜라를 즐겨 마시지 않음 / 너무 달아서 차게 식혀도 얼음을 (많이) 넣어 희석 · 병 · 캔째로는 안 마심
80 ¶3	세계의 콜라	수십억 명은 생각이 다름 / Standage(2000년대 중반): 200개 지역 · 'OK' 다음으로 널리 통하는 말이라고 한다
80 ¶4	자본주의의 상징	옛 소련의 반체제 청년 = 자유 / 인도 좌파 = 소비주의 · 취향 조작 / 1977 면허 취소 → 1993 복귀
80 ¶5~81 첫 줄	주코프	아이젠하워에게 소개받았다고 한다 / 1945~46 투명한 콜라 특별 주문 · 브뤼셀에서 생산
81 ¶1	발명	펨버턴 · 1885 French Wine Coca(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 / Vin Mariani / 혁신 = 콜라 너트
81 ¶2	무알코올로	1886 금주 → 알코올을 빼고 설탕 · 감귤 오일 → Coca-Cola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1 ¶3~¶4	성장과 이름	약국 소다 파운틴 · 1894 병입 · 1910년대 중반 가짜 · 1920년대 수출 · 1938 / 이름 = Frank Robinson
81 ¶5~82 첫 줄	콜라 너트	서아프리카 · 카페인 · 테오브로민 / 각성 · 식욕 억제 / 공동체 의식 / 노예선(전언)
82 ¶1	떠난 멤버	2016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 / 코카 잎은 20세기 초에 이미 '탈퇴'(코카인의 중독성)
82 ¶2	안데스의 코카	남아메리카 서부 원산 / 원주민이 씹거나 차로 · 중독 · 해 없음 · 문화 · 종교적 역할
82 ¶3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2006~19) · 두 번째 원주민 대통령 · 코카 농민 / 강제 근절 반대 운동
82 ¶4	워싱턴 컨센서스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 / 미 재무부 · IMF · 세계은행
82 ¶5~83 ¶1	볼리비아의 성과	국유화 · 로열티 인상 · 복지 확대 / 재앙 예측 ↔ 불평등 급감 · 성장률 0.5% → 3%
83 ¶2~¶4	핑크 타이드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다섯 나라 / 더 큰 평등 + 더 빠른 성장 / 예외 = 마두로
83 ¶5	한계	불평등은 여전히 높음 ·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지 못함 / 최대 실패 = 브라질
83 ¶6~84 첫 줄	퇴조	원자재 호황의 끝(2012~13) → 2010년대 후반 정권 상실(볼리비아는 쿠데타)
84 ¶1~¶3	귀환과 확산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재집권 / 멕시코 · 페루 · 콜롬비아 / 칠레 보리치(2021년 12월)
84 ¶4~85 첫 줄	아시아 · 아프리카	거부가 덜 보임 / 아시아 = 애초에 덜 엄격히 / 아프리카 = 자금 의존
85 ¶1~¶3	결론	부자 나라에서도 실패 · 개발도상국엔 재앙 / 워싱턴 컨센서스는 사라질 것 같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콜라 마시는 법	저자 – 너무 달아 얼음을 (많이) 넣어 희석	수십억 명 – 그 단맛을 좋아함
콜라의 상징	옛 소련의 반체제 청년 – 개인 · 경제 · 정치적 자유	1980년대까지 인도 좌파 – 소비주의 · 소비자 취향의 상업적 조작
인도와 코카콜라	1977 – 합작 거부로 면허 취소	1993 – 1991년 경제 자유화 직후 복귀
주코프의 콜라	보통 콜라 – 미국 자본주의의 정수	투명한 콜라 – 캐러멜 색소를 뺌 · 브뤼셀 생산 · 평범한 병
펨버턴의 음료	1885 French Wine Coca – 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	1886 이후 Coca-Cola – 알코올을 빼고 설탕 · 감귤 오일
원년 멤버	콜라 너트 – 2016년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	코카 잎 – 20세기 초 중독성 때문에 '탈퇴'
코카 잎	콜라 속 – 코카인을 줌(중독성)	안데스 원주민 – 씹거나 차로 · 중독 · 해 없음 · 문화 · 종교적 역할
볼리비아의 정책	워싱턴 컨센서스(1982~2005) – 긴축 ·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 · 성장률 연 0.5%	모랄레스 시대 – 국유화 · 로열티 인상 · 복지 확대 · 성장률 연 3%
정책의 결과	많은 경제학자의 예측 – 끔찍한 경제 재앙	실제 – 불평등 급감 · 성장 가속(회의론자를 무색하게 함)
핑크 타이드의 평가	성과 – 더 큰 평등 · 더 빠른 성장(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예외)	한계 – 높은 불평등 · 고생산성 산업 육성 실패(최대 실패 = 브라질)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거부가 덜 보인 곳	아시아 — 애초에 덜 엄격히 따름 · 빌릴 일이 적음 · 덜 이념적	아프리카 — 피해는 더 컸지만 자금을 워싱턴 기관에 더 의존
부자 나라의 성적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 느린 성장 · 높은 불평등 · 잦은 금융 위기	앞선 '혼합 경제' — 정부가 시장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억제 · 규제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oca-Cola ([제목])	(American) · 'You know what it is' / 저자는 콜라를 즐겨 마시지 않음 · 더운 여름 오후엔 얼음처럼 찬 콜라가 최고 · 너무 달아 얼음을 (많이) 넣어 희석 · 병 · 캔째 마시지 않음(필요하면 사발에라도)
Tom Standage	영국 언론인 · **2000년대 중반**에 씀 / 코카콜라 회사가 활동하는 **200개** 지역(유엔 회원국보다 많음) ·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 · 'OK' 다음으로 널리 통하는 말**이라고 한다**
콜라의 상징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미국 제품 → 미국 자본주의(의 좋은 점 · 나쁜 점) / 85쪽 각주 i: 과장하면 안 됨 · Levi's 청바지 · Marlboro 담배 · 로큰롤 밴드의 LP 음반도 상징
인도와 코카콜라	1980년대까지 인도 좌파 = 소비주의 · 취향 조작의 상징 / **1977년**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거부 → 면허 취소 / **1991년** 경제 자유화 직후 **1993년** 복귀
Georgi Zhukov	소련 원수 · 레닌그라드 ·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리를 지휘 / 전쟁 중 미국 장군(뒤에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콜라를 소개받아 반했다**고 한다**
투명한 콜라	유럽 주둔 소련 점령군 사령관 시절(**1945년 5월~1946년 6월**) 특별 요청 · 캐러멜 색소를 뺌 · **브뤼셀**에서 생산 · 평범한 병 · 주코프의 유럽 사령부로
John Pemberton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 **1885년** Pemberton's French Wine Coca(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 / 혁신 = 콜라 너트를 더함 · '신경 강장제'로 팖
Vin Mariani	코카 잎을 **6개월** 우린 와인 · 팬 = 빅토리아 여왕 · 토머스 에디슨
1886년	당시 주 시장(애틀랜타 · 풀턴 카운티) 금주 → 알코올을 빼고 설탕(코카 잎 · 콜라 너트의 쓴맛을 가리려고) · 감귤 오일 → 무알코올 Coca-Cola
콜라의 성장	약국 소다 파운틴(의약품 이미지를 위해서였을 **수도**) / **1894년** 병입 → 장거리 운송 / **1910년대 중반** 가짜 → 'Demand the genuine.' / **1920년대** 수출 / **1930년대** 국가의 상징 / **1938년** 'the sublimated essence of America'
Frank Robinson	펨버턴의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 · 두 핵심 재료(코카 잎 · 콜라(kola) 너트)에서 이름을 지음
kola nut	**서아프리카** 원산 · 카페인(커피 · 대부분의 차보다 많음) · 테오브로민(초콜릿에도 · 「Chocolate」) / 각성 · 식욕 억제 / 공동체 모임 · 통과 의례 · 조약 · 계약 의식 / 노예선이 썼다**고 한다**
원년 멤버의 탈퇴	콜라 너트 = **2016년**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 / 코카 잎 = **20세기 초** 코카인의 중독성이 드러나자 뺌 / 85쪽 각주 ii: 코카인을 완전히 뺀 '쓰고 난' 잎을 향료로만 씀
coca plant	**남아메리카 서부** 원산 / 안데스 고지대 원주민이 씹거나 차로 —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일할 때 통증 완화 · 식욕 감소 / 중독 · 해 없음 · 문화 · 종교적 역할
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2006~19**) · 라틴아메리카 두 번째 원주민 대통령(첫째 = 19세기 멕시코의 Benito Juárez, **1858~72**) · 코카 농민 / 코카 재배 강제 근절(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에 맞선 운동 / **2005년** 대통령이 됨(원서 표기)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Washington Consensus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 /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세 기관 = 미 재무부 · IMF · 세계은행 / 앞선 20년 동안 볼리비아에 해를 끼침
모랄레스의 정책	천연가스 산업(주 수출 산업) 국유화 · 공익 사업(전기 · 수도 · 철도) (적어도 일부) 국유화 · (주로 외국) 광산 회사의 로열티 인상 · 복지 지출 확대 / 많은 경제학자 = 끔찍한 재앙 예측
볼리비아의 성과	불평등 급감(85쪽 각주 iii: 지니계수 **0.57 → 0.48** · 세계은행 · ECLAC) / 1인당 소득 성장률 **연 0.5%**(워싱턴 컨센서스 시기 **1982~2005**) → **연 3%**(모랄레스 시대)
Pink Tide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좌파 · 좌파 성향 정당 집권: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에콰도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 복지 · 최저 임금 · 노조 · 무역 자유화 일부 되돌림 · 보조금 · 외국 투자자 규제
베네수엘라	예외 = 마두로(경제 붕괴) / 차베스 시대는 그래도 개선(86쪽 각주 vi: **1989~99** 정체 → **1999~2012** 연 **1.3%** · 지니계수 0.45 안팎 그대로)
핑크 타이드의 한계	불평등 여전히 높음 · 고생산성 산업 육성 부족 / 최대 실패 = 브라질(룰라 · 호세프) · 철광석 · 콩 · 소고기 수출 의존(86쪽 각주 vii: 제조업 **30%** 안팎 → 10%를 조금 넘는 수준)
퇴조와 귀환	2000년대 원자재 호황(중국)이 **2012~13년**에 끝남 → 2010년대 후반 정권 상실(볼리비아는 쿠데타) / 아르헨티나(**2019**) · 볼리비아(**2020**) 재집권 / **2022년** 봄 브라질 전망
새 좌파	멕시코 López Obrador · 페루 Pedro Castillo(각각 **2019 · 2021**) · 콜롬비아 Gustavo Petro(**2022년 6월**) / 칠레 Gabriel Boric(35세 · **2021년 12월**) · 칠레 = **1973년** 쿠데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선구자
아시아 · 아프리카	아시아 = 애초에 덜 엄격히 · 빌릴 일이 적음 · 덜 이념적 / 아프리카 = 피해는 더 큼 · 자금 의존(86쪽 각주 ix: 사하라 이남 연 **1.6%** → **0.3%** · 라틴아메리카 **3.1%** → **0.8%**)
신자유주의의 성적	부자 나라 = 1980년대 이후 느린 성장 · 높은 불평등 · 잦은 금융 위기 / 개발도상국 = 재앙 · '쿠키 커터' 방식(1980~90년대) / 사라질 **것 같다**(looks set to)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oca-Cola」 (원서 PDF 80~8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0-1 얼음 넣은 콜라,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80쪽 ¶1~¶4

원문 위치 원서 80쪽 ¶1~¶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0쪽 [제목]	Coca-Cola (American) / You know what it is	요리 설명 대신 '말이 필요 없다'는 한 줄
★	80쪽 ¶1	I cannot say I am a regular drinker of Coca-Cola – or any other type of cola	도입 — 콜라를 즐겨 마시지 않음
★	80쪽 ¶2 둘째 문장	I won't drink it straight from a bottle or a can	내용 일치
▲	80쪽 ¶2 셋째~넷째 문장	This is not because I am particular about … It is just that I need a container	not because ~ / It is just that ~
▲	80쪽 ¶2 다섯째 문장	The thing is that I want to drink Coca-Cola, even if it has been chilled, with (lots of) ice cubes in it	보어 that절 · 양보 even if
★	80쪽 ¶2 다섯째 문장	I find the drink too sweet on its own and need to have it diluted	find + O + 형용사 · have + O + p.p. — 어법 1순위
▲	80쪽 ¶3 둘째 문장	They love what to me is the overly sweet taste of Coca-Cola	관계대명사 what · 삽입된 to me
★	80쪽 ¶3 셋째 문장	Tom Standage, writing in the mid-2000s … two hundred territories … more than the United Nations has members	인물 · 숫자 — 일치 1순위
◆	80쪽 ¶3 넷째 문장(인용)	'Coca-Cola' is said to be the second most commonly understood phrase in the world, after 'OK'	전언(is said to be) — 단정 금지
▲	80쪽 ¶4 첫 문장	Being arguably the most iconic American product, Coca-Cola has come to symbolize American capitalism	분사구문 · come to V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0쪽 ¶4 둘째~셋째 문장	dissident youths in the former Soviet Union ... the left in India until the 1980s	대립 — 자유 ↔ 소비주의
★	80쪽 ¶4 넷째 문장	In 1977 ... cancelled the licence ... when the company refused to go into a joint venture with a local partner	숫자 · 까닭 — 거부 ↔ 수용 함정
★	80쪽 ¶4 다섯째 문장	came back to India in 1993, soon after its economic liberalization in 1991	1993 ↔ 1991 함정
▲	80쪽 ¶4 여섯째 문장	Few food items have been laden with so much political symbolism ... as Coca-Cola	Few ~ as ... = 최상급의 뜻
◆	85쪽 각주 i	I shouldn't overstate ... but also iconic were Levi's jeans, Marlboro cigarettes and LP records	저자의 단서 · 보어 도치

내용

저자는 코카콜라를, 아니 어떤 콜라든 즐겨 마시는 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더운 여름 오후에는 저자에게도 얼음처럼 차가운 코카콜라만 한 것이 없다. 다만 병이나 캔째로 바로 마시지는 않는다. 음료 예절에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담을 그릇이 필요해서다. 필요하다면 사발에 따라 마실 수도 있다. 요점은 차게 식힌 것이라도 얼음을 (많이) 넣어 마시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너무 달아 묽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의 수십억 명은 저자와 생각이 다르다. 그들은 저자가 보기에 지나치게 단 콜라의 맛을 좋아한다. 영국 언론인 톰 스탠디지는 2000년대 중반에, 코카콜라 회사가 활동하는 지역이 200개로 유엔 회원국보다 많고, 그 음료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이며, 'Coca-Cola'는 'OK'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하는 말이라고들 한다고 썼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미국 제품인 코카콜라는 미국 자본주의와 그 좋은 점 · 나쁜 점을 상징하게 되었다. 옛 소련의 반체제 청년 같은 이들에게 코카콜라는 개인적 · 경제적 · 정치적 자유의 상징이었다(85쪽 각주 i: 그 상징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지만 Levi's 청바지, Marlboro 담배, 로큰롤 밴드의 LP 음반도 상징이었다). 1980년대까지의 인도 좌파 같은 이들에게는 미국 자본주의의 잘못, 곧 소비주의와, 더 나쁘게는 소비자 취향의 상업적 조작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77년 인도 정부는 코카콜라 회사가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를 거부하자, 매우 상징적인 조치로 그 회사의 인도 영업 면허를 취소했다. 똑같이 상징적으로, 그 회사는 인도가 1991년 경제를 자유화한 직후인 1993년에 인도로 돌아왔다. 세계적으로 이토록 많은 정치적 상징을 짊어진 음식은 거의 없다.

어법

- **Except that I won't drink it straight from a bottle or a can** : Except that ~ = 다만 ~이라는 점은 예외다(앞 문장에 단서를 다는 말, 주절 없이 쓰였다). won't = 고집 · 거절의 will not(~하려 하지 않는다). straight = 부사(곧바로).
- **This is not because I am particular about drinking etiquette. It is just that I need a container** : This is not because ~ = ~ 때문이 아니다(because 뒤에 절; because of는 오답). It is (just) that ~ = (그저) ~이라는 것이다 — 진짜 까닭을 밝힌다. be particular about = ~에 까다롭다.
- **I could drink it from a bowl if need be** : could = 가능성(~할 수도 있다). if need be = 필요하다면(굳은 표현).
- **The thing is that I want to drink Coca-Cola, even if it has been chilled, with (lots of) ice cubes in it** : The thing is that ~ = 요점은 ~이다(that절이 보어). even if = 양보(~하더라도). has been chilled = 현재완료 수동. with + O + 전치사구(in it) = 얼음이 들어 있는 상태로.

- **as I find the drink too sweet on its own and need to have it diluted** : as = 이유. find + O + 형용사(too sweet). on its own = 그것만으로는. have + O + p.p. = O가 ~되게 하다(콜라가 '묽혀지는' 것이므로 diluted; diluting은 오답).
- **They love what to me is the overly sweet taste of Coca-Cola** :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love의 목적어절)이자 what절 안 동사 is의 주어. to me = '내가 보기에는'이라는 삽입구.
- **Being arguably the most iconic American product, Coca-Cola has come to symbolize American capitalism, and what is good and bad about it** : Being ~ = 이유의 분사구문(As it is ~). come to V = ~하게 되다. what is good and bad about it = symbolize의 둘째 목적어(관계대명사 what절), it = American capitalism.
- **Few food items have been laden with so much political symbolism on a global scale as Coca-Cola** : Few + 명사 + so much ~ as ... = ...만큼 ~한 것은 거의 없다(사실상 최상급). be laden with = ~을 잔뜩 짊어지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gular (a.)	자주 하는, 규칙적인	habitual	occasional
container	그릇, 용기	vessel	—
particular about	~에 까다로운	fussy about	indifferent to
etiquette	예절	manners	—
dilute	묽게 하다, 희석하다	thin	concentrate
overly	지나치게	excessively	moderately
territory	지역, 영토	region	—
iconic	상징적인	emblematic	—
dissident (a.)	반체제의	rebellious	conformist
epitomize	전형적으로 보여 주다	embody	—
manipulation	조작	rigging	—
joint venture	합작 투자(사업)	partnership	—
liberalization	자유화	deregulation	restriction
laden with	~을 잔뜩 실은	loaded with	free of

내용 일치 저자 = 콜라를 즐겨 마시지 않음 · 더운 여름 오후엔 얼음처럼 찬 콜라가 최고 · 병 · 캔째 마시지 않음(예절 때문이 아니라 그릇이 필요해서, 필요하면 사발에라도) · 차게 식혀도 얼음을 (많이) 넣어 묽힘(너무 달아서) · 수십억 명은 그 단맛을 좋아함 · Standage(영국 언론인, 2000년대 중반) = 200개 지역(유엔 회원국보다 많음) ·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 · 'OK' 다음으로 널리 통하는 말이라고 한다 · 옛 소련 반체제 청년 = 자유 · 1980년대까지 인도 좌파 = 소비주의 · 취향 조작 · 1977 합작 거부 → 면허 취소 · 1991 자유화 직후 1993 복귀. **밑줄 의미** need to have it diluted = 그대로는 너무 달아 얼음으로 묽혀야 한다 / what to me is the overly sweet taste = 수십억 명에게는 맛있지만 저자에게는 지나치게 단 맛 / what is good and bad about it = 콜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빛(자유)과 그림자(소비주의 · 취향 조작)를 함께 상징한다 / Few food items have been laden with so much political symbolism = 콜라만큼 정치적 의미를 짊어진 음식은 거의 없다 / 지칭: 80쪽 ¶2 it(drink it · it has been chilled · have it diluted) = Coca-Cola · 80쪽 ¶3 They = billions of people · Its drink = 코카콜라 회사의 음료 · 80쪽 ¶4 it(about it) = American capitalism · its economic liberalization = 인도의.

> **한 줄 요약** 저자는 너무 단 콜라에 얼음을 넣어 마시지만 수십억 명은 그 맛을 좋아하며, 콜라는 자유와 소비주의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두 얼굴을 상징하게 되었다.

10-2 주코프의 하얀 콜라와 펨버턴의 발명 80쪽 ¶5 ~ 81쪽 ¶4

원문 위치 원서 80쪽 ¶5 ~ 81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0쪽 ¶5 첫 문장	deftly negotiated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비유 — 밑줄 의미
★	80쪽 ¶5 첫 문장	Marshal Georgi Zhukov, who masterminded the Soviet victories … Leningrad and Stalingrad	인물 · 고유명사
◆	81쪽 첫 줄(80쪽 ¶5 둘째 문장)	He is said to have been introduced to the drink by … Dwight Eisenhower	전언 · 완료 부정사 수동 — 단정 금지
★	81쪽 첫 줄(80쪽 ¶5 셋째 문장)	(May 1945–June 1946) … a clear version of the drink, so that he could have it without being seen to be imbibing …	숫자 · 목적 so that · 지칭 문항의 바탕
★	81쪽 첫 줄(80쪽 ¶5 넷째 문장)	taking out the caramel colouring … produced in Brussels, put in a nondescript bottle	일치 — 브뤼셀 · 평범한 병
◆	81쪽 첫 줄(80쪽 ¶5 다섯째 문장)	A brilliant manoeuvre worthy of one of the greatest military strategists in history	동사 없는 문장 · 저자의 재치
★	81쪽 ¶1 첫~둘째 문장	John Pemberton of Atlanta, Georgia … In 1885 … Pemberton's French Wine Coca … coca leaf, kola nut and wine	숫자 · 순서 배열의 첫 고리
▲	81쪽 ¶1 넷째 문장	Particularly popular was Vin Mariani, a wine in which coca leaves had been steeped for six months, whose fans …	보어 도치 · in which · whose
★	81쪽 ¶1 다섯째 문장	Pemberton's innovation was to add kola nut to the mixture	혁신 = 콜라 너트
◆	81쪽 ¶1 여섯째 문장	a 'nerve tonic' (whatever that actually means – there seem to have been …)	저자의 비꼼 · 추측(seem to have been)
★	81쪽 ¶2 첫~둘째 문장	In 1886, alcohol was prohibited … added sugar (to mask the bitter taste …) and citrus oils	숫자 · 까닭 — 순서 배열
★	81쪽 ¶3 첫 문장	sold in drug stores from a soda fountain, possibly to add to its medicinal credentials	추측(possibly) ·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1쪽 ¶3 둘째 문장	It began to be bottled in 1894, thus allowing long-distance shipment	숫자 · 결과의 분사구문
★	81쪽 ¶3 셋째~여섯째 문장	mid-1910s ... 'Demand the genuine.' ... 1920s ... 1930s ... 1938 ... 'the sublimated essence of America'	연도 – 불일치 1순위
★	81쪽 ¶4	Frank Robinson, who named the drink after the two key ingredients	이름을 지은 사람 – 펨버턴 함정

내용

코카콜라라는 상징의 지뢰밭을 솜씨 좋게 헤쳐 나간 사람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레닌그라드 ·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의 승리를 지휘한 게오르기 주코프 원수다. 그는 전쟁 중에 미국의 장군(뒤에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그 음료를 소개받고 푹 빠졌다고 한다. 유럽 주둔 소련 점령군 사령관으로 있던 동안(1945년 5월~1946년 6월), 그는 미국 자본주의의 정수를 들이켜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고 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코카콜라 회사에 투명한 콜라를 만들어 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 캐러멜 색소를 빼서 만든 이 하얀 콜라는 브뤼셀에서 생산되어 특징 없는 병에 담겨 주코프의 유럽 사령부로 보내졌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 가운데 한 사람다운 멋진 책략이었다. 코카콜라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존 펨버턴이다. 1885년 그는 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이 주재료인 Pemberton's French Wine Coca를 내놓았다. 알코올과 코카 잎을 섞은 음료는 그전에도 있었다. 특히 인기 있던 것은 코카 잎을 6개월 동안 우린 와인 Vin Mariani로, 빅토리아 여왕과 토머스 에디슨도 그 팬이었다. 펨버턴의 혁신은 여기에 콜라 너트를 더한 것이었다. 이 음료는 '신경 강장제'로 팔렸다(그게 실제로 무슨 뜻이든 – 19세기 서양 세계에는 신경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1886년 펨버턴 음료의 당시 주 시장(조지아주 애틀랜타와 그 주변의 풀턴 카운티)에서 알코올이 금지되었다. 펨버턴은 알코올을 빼고, 와인 맛이 없어지자 너무 두드러진 두 주재료(코카 잎 · 콜라 너트)의 쓴맛을 가리려고 설탕을, 그리고 감귤 오일을 넣었다. 이렇게 나온 무알코올 음료가 코카콜라다. 코카콜라는 처음에 약국의 소다 파운틴에서 팔렸는데, 당시 탄산음료가 건강에 이롭다고 여겨졌으므로 의약품으로서의 신뢰를 더하려는 뜻이었을 수 있다. 1894년 병에 담기기 시작하면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져 잠재 시장이 크게 넓어졌다. 1910년대 중반에는 가짜가 나올 만큼 인기를 얻어, 회사는 'Demand the genuine.(진짜를 달라고 하세요)'라는 광고로 가짜를 물리치려 했다. 1920년대에 수출을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국가의 상징이 되었으며, 1938년에는 '미국의 승화된 정수'라고 묘사되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은 펨버턴의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랭크 로빈슨이 두 핵심 재료, 곧 코카 잎과 콜라(kola) 너트에서 따와 지었다.

어법

- **One person who deftly negotiated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is Marshal Georgi Zhukov** : 주어 One person(who ... Coca-Cola) + 동사 is.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 '코카콜라라는 상징의 지뢰밭'(that = 주격 관계대명사, 콜라가 곧 그 지뢰밭이다).
- **He is said to have been introduced to the drink by the American general (later president) Dwight Eisenhower during the war and fallen in love with it** : be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본동사보다 앞선 일에 대한 전언). to have been introduced(완료 수동)와 (to have) fallen이 and로 병렬.
- **he made a special request ... to manufacture a clear version of the drink, so that he could have it without being seen to be imbibing the essence of American capitalism** : so that + S + could = ~할 수 있도록(목적). without + 동명사 수동(being seen). see + O + V의 수동은 be seen to V(to가 살아난다) → being seen to be imbibing.

- **The white version, which was created by taking out the caramel colouring, was produced in Brussels, put in a nondescript bottle and shipped to the Marshal's European headquarters** : 계속적 which(삽입). 주어 The white version + was produced · (was) put · (was) shipped 병렬(수동). by + 동명사 = 수단.
- **In 1885, he launched Pemberton's French Wine Coca, whose main ingredients were coca leaf, kola nut and wine**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선행사 French Wine Coca — 사물에도 쓴다).
- **Particularly popular was Vin Mariani, a wine in which coca leaves had been steeped for six months, whose fans included Queen Victoria and Thomas Edison** : 보어(Particularly popular) + 동사 + 주어 도치.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 wine). had been steeped = 과거완료 수동. whose의 선행사 = Vin Mariani.
- **there seem to have been a lot of nerve problems around in the nineteenth-century Western world** : there seem to have been = ~이 있었던 것 같다(완료 부정사 = 과거 일에 대한 지금의 추측). 뒤의 진짜 주어가 복수(a lot of nerve problems)라 seem.
- **It began to be bottled in 1894, thus allowing long-distance shipment and thereby greatly enlarging its potential market** : begin to be p.p. = 수동 부정사. thus + 분사(allowing) · thereby + 분사(enlarging) = 결과의 분사구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ftly	솜씨 좋게	skilfully	clumsily
minefield	지뢰밭(위험이 숨은 곳)	hazard	—
mastermind (v.)	(계획을) 지휘하다	orchestrate	—
imbibe	마시다, 들이켜다	drink	—
nondescript	특징 없는, 평범한	plain	distinctive
manoeuvre	책략, 묘수	tactic	—
steep (v.)	(액체에) 담가 우리다	soak	—
tonic	강장제	restorative	—
prohibit	금지하다	ban	permit
mask (v.)	가리다, 감추다	disguise	reveal
prominent	두드러진	noticeable	inconspicuous
credentials	(내세울) 자격, 신뢰의 근거	qualifications	—
counterfeit	위조품	fake	genuine
repel	물리치다	fend off	attract

내용 일치 주코프 = 레닌그라드 ·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지휘 · 아이젠하워(당시 장군, 뒤에 대통령)에게 소개받았다고 한다 · 소련 점령군 사령관(1945년 5월~1946년 6월) · 투명한 콜라 = 캐러멜 색소를 뺌 · 브뤼셀 생산 · 평범한 병 · 유럽 사령부로 / 펨버턴 = 애틀랜타 · 1885 French Wine Coca(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 · Vin Mariani(코카 잎 6개월 · 빅토리아 여왕 · 에디슨) · 혁신 = 콜라 너트 · '신경 강장제' · 1886 금주(애틀랜타 · 풀턴 카운티) → 알코올 대신 설탕 · 감귤 오일 · 약국 소다 파운틴 · 1894 병입 · 1910년대 중반 가짜 · 1920년대 수출 · 1930년대 국가의 상징 · 1938 · 이름 = 동업자 Frank Robinson. **밑줄 의미**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 소련 장군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을 마시는 일 자체가 정치적 위험이었다 / A brilliant manoeuvre worthy of one of the greatest military strategists = 색만 배서 위험을 피한 꾀를 명장의 작전에 빗댄 저자의 재치 / whatever that actually means = '신경 강장제'라는 말이 모호하다는 비꼼 / 지칭: 80쪽 ¶5~81쪽 첫 줄 He · he = 주코프 · it(fallen in love with it · have it) = the drink · the Marshal = 주코프 / 81쪽 ¶1

he(launched) = Pemberton · whose(main ingredients) = French Wine Coca · whose(fans) = Vin Mariani / 81쪽 ¶3 It · it = Coca-Cola · which(tried to repel) = counterfeits.

> **한 줄 요약** 주코프는 색을 뺀 콜라로 상징의 지뢰밭을 피했고, 펨버턴이 1885년 만든 와인 음료는 1886년 금주령 뒤 설탕을 넣은 무알코올 코카콜라가 되어 미국의 상징으로 자랐다.

10-3 콜라 너트와 코카 잎, 떠나 버린 원년 멤버 81쪽 ¶5 ~ 82쪽 ¶2

원문 위치 원서 81쪽 ¶5 ~ 82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1쪽 ¶5 첫 문장	Kola nut originates in West Africa	원산지 — 남아메리카 서부(코카) 함정
▲	81쪽 ¶5 둘째 문장	caffeine (which it contains more than coffee and most teas) and theobromine (which is also contained in chocolate …)	괄호 속 관계절 두 개
★	81쪽 ¶5 셋째 문장	chewed it in order to stimulate themselves and also to suppress appetite	어휘 문항 1순위(suppress)
▲	81쪽 ¶5 셋째 문장	thus enabling its consumer 'to undergo prolonged exertion without fatigue or thirst'	enable + O + to V · 결과의 분사구문
★	82쪽 첫 줄(81쪽 ¶5 넷째 문장)	community meetings, rites of passage and ceremonies to cement treaties and contracts	문화적 역할
◆	82쪽 첫 줄(81쪽 ¶5 다섯째 문장)	It is also said that kola nut made the foul, stale water … more palatable … slave ships	전언 — 단정 금지
★	82쪽 ¶1 첫 문장	replaced by a synthetic chemical in 2016	숫자 · 서답형
◆	82쪽 ¶1 둘째 문장	like one of those ageing rock bands which … have no original members left any more	비유 — 밑줄 의미 1순위
◆	82쪽 ¶1 셋째 문장	coca leaf … had already 'left the band' more than a hundred years ago	비유 이어 쓰기 · 과거완료
★	82쪽 ¶1 셋째 문장	when cocaine's addictive quality became clear	뺀 까닭 = 중독성
◆	85쪽 각주 ii	coca leaf is still in the band but only as a ghost … 'spent' coca leaves … only as a flavouring	본문을 다듬는 단서 — 일치 함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2쪽 ¶2 첫 문장	the coca plant, which is native to western South America	원산지
★	82쪽 ¶2 둘째 문장	chewed or brewed as tea by indigenous people, to relieve pains … oxygen-poor atmosphere … reduce appetite	까닭 두 가지 · in the same way that
★	82쪽 ¶2 셋째 문장	not addictive or harmful to health and, more importantly, … play important cultural and religious roles	콜라 속 코카인과 대비
★	82쪽 ¶2 넷째 문장	Many people there grow coca plants	다음 단락(모랄레스)으로 잇는 고리

내용

콜라 너트는 서아프리카에서 비롯되었다. 콜라 너트에는 카페인(커피와 대부분의 차보다 많이 들어 있다)과 테오브로민(초콜릿에도 들어 있다 — 「Chocolate」 참조) 같은 각성 물질이 들어 있다. 이 성질 때문에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억누르려고 콜라 너트를 씹어 왔고, 덕분에 '피로나 갈증 없이 오래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다. 서아프리카 문화에서 콜라 너트를 씹는 일은 공동체 모임, 통과 의례, 조약과 계약을 굳히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콜라 너트가 먼 바닷길에서 더럽고 상한 물을 마실 만하게 해 주어 아프리카에서 오는 노예선이 그것을 썼다고도 한다. 2016년 코카콜라 속 콜라 너트는 합성 화학물질로 바뀌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예술적 견해 차이와 자존심 충돌로 오랜 세월 멤버가 바뀐 끝에 원년 멤버가 하나도 남지 않은 나이 든 록 밴드처럼 되었다. 다른 창립 멤버인 코카 잎(콜라 너트의 카페인 · 테오브로민에 더해 코카인을 주던 재료)은 이미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에 '밴드를 떠났다'. 코카인의 중독성이 분명해지자 회사가 코카 잎을 제조법에서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85쪽 각주 ii: 더 정확히 말하면 코카 잎은 유령으로만 밴드에 남아 있다. 회사는 코카인을 완전히 뽑아낸 '쓰고 난' 코카 잎을 향료로만 쓰고 있다). 코카인은 남아메리카 서부가 원산인 코카나무에서 얻는다. 특히 그 자생지 가운데 고도가 높은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들은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일할 때 통증을 덜고, 코카 잎이 (콜라 너트처럼) 식욕을 줄여 주므로 먹지 않고도 버티려고 코카 잎을 씹거나 차로 우려 왔다. 이런 방식의 코카 섭취는 중독성이 없고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더 중요하게는 콜라 너트를 함께 씹는 일처럼 안데스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원주민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화적 · 종교적 역할을 한다. 그곳의 많은 사람이 코카를 재배한다.

어법

- **It contains stimulants, like caffeine (which it contains more than coffee and most teas) and theobromine (which is also contained in chocolate …)** : 첫 which = contains의 목적어(it = kola nut이 주어) — 비교 대상은 콜라 너트와 커피 · 대부분의 차. 둘째 which = 주격, 수동 is contained.
- **Given this property, West Africans have chewed it in order to stimulate themselves and also to suppress appetite, thus enabling its consumer 'to undergo prolonged exertion …'** : Given ~ = ~을 고려하면(전치사처럼 쓰는 분사). in order to V = 목적. themselves = 재귀(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enable + O + to V. thus + 분사 = 결과.
- **It is also said that kola nut made the foul, stale water on long-distance crossings more palatable and for that reason was used by slave ships coming from Africa** : It is said that ~ = 전언(~라고 한다). make + O + 형용사 비교급(more palatable). made와 was used가 and로 병렬(주어 kola nut).
- **This has made the drink like one of those ageing rock bands which, after so many line-up changes …, have no original members left any more** : make + O + 전치사구(like ~) = O를 ~처럼 만들다. which의 선행사 = bands(복수 → have). have + O + 과거분사 left = 남은 ~이 있다(여기서는 no로 '하나도 없다').

- **coca leaf, which used to provide cocaine ..., had already 'left the band' more than a hundred years ago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 used to V = 예전에 ~했다. had left = 과거완료 — 2016년보다 앞선 일임을 보인다. 'left the band' = 밴드 비유를 이어 쓴 말.
-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hen the company decided to take it out of the formula when cocaine's addictive quality became clear** : 첫 when = 관계부사(선행사 the early twentieth century), 둘째 when = 시간 접속사. take A out of B = B에서 A를 빼다. it = coca leaf.
- **coca leaves have been chewed or brewed as tea by indigenous people, to relieve pains ... and to help themselves go on without food, as coca leaves reduce appetite (in the same way that kola nuts do)** : 현재완료 수동(오래전부터 지금까지). help + O + 원형(go on). as = 이유. in the same way that ~ = ~와 같은 방식으로. do = reduce appetite를 대신하는 대동사.
- **These forms of coca plant consumption are not addictive or harmful to health and, more importantly, ... they play important cultural and religious roles** : not A or B = A도 B도 아니다. more importantly = 삽입(더 중요하게는). they = these forms of coca plant consumpt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riginate	비롯되다	come from	—
stimulant	각성제, 흥분제	—	sedative
suppress	억누르다	curb	stimulate
prolonged	오래 계속되는	lengthy	brief
exertion	힘든 노력, 수고	effort	rest
fatigue	피로	exhaustion	vigour
rite of passage	통과 의례	—	—
cement (v.)	굳게 하다, 다지다	strengthen	weaken
palatable	먹을(마실) 만한	tasty	unpalatable
synthetic	합성의	artificial	natural
addictive	중독성의	habit-forming	—
be derived from	~에서 얻어지다	come from	—
indigenous	토착의, 원주민의	native	foreign
relieve	덜다, 완화하다	ease	aggravate

내용 일치 콜라 너트 = 서아프리카 원산 · 카페인(커피 · 대부분의 차보다 많음) · 테오브로민(초콜릿에도) ·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억누르려고 씹음 · 공동체 모임 · 통과 의례 · 조약 · 계약 의식 · 노예선이 썼다고 한다 · 2016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 / 코카 잎 = 코카인을 줌 · 20세기 초 중독성이 드러나자 뺌(100여 년 전) · 각주 ii = 코카인을 뺀 '쓰고 난' 잎을 향료로만 / 코카나무 = 남아메리카 서부 원산 · 안데스 원주민이 씹거나 차로(산소가 희박한 곳의 통증 완화 · 식욕 감소) · 중독 · 해 없음 · 문화 · 종교적 역할 · 많은 사람이 재배. **밑줄 의미** no original members left any more = 콜라 이름의 두 재료(코카 잎 · 콜라 너트)가 모두 빠졌다 / 'left the band' = 코카 잎이 제조법에서 빠졌다 / still in the band but only as a ghost = 코카인 없는 잎이 향료로만 남아 있다 / 지칭: 81쪽 ¶5 It · it(contains · chewed it) = kola nut · its consumer = 콜라 너트를 씹는 사람 / 82쪽 첫 줄 that reason = 물을 마실 만하게 해 준다는 것 / 82쪽 ¶1 This = 콜라 너트가 합성 물질로 바뀐 일 · it(take it out) = coca leaf / 82쪽 ¶2 its habitat = 코카나무의 자생지 · they(play) = 이런 코카 섭취 방식 · there = 안데스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공동체.

한 줄 요약 콜라 이름의 두 재료 가운데 코카 잎은 20세기 초에, 콜라 너트는 2016년에 빠졌지만, 안데스 원주민에게 코카 잎은 해롭지 않고 문화적 · 종교적으로 중요한 작물이다.

10-4 모랄레스와 워싱턴 컨센서스 82쪽 ¶3 ~ 83쪽 ¶1

원문 위치 원서 82쪽 ¶3 ~ 8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2쪽 ¶3 첫 문장	Evo Morales, the former Bolivian president (2006–19) and the second-ever indigenous president …	인물 · 숫자 — 서답형 단어
★	82쪽 ¶3 첫 문장	after Benito Juárez, the nineteenth-century Mexican president (1858–72)	첫 원주민 대통령 — 함정
▲	82쪽 ¶3 첫 문장	was a coca farmer himself	강조의 재귀대명사
★	82쪽 ¶3 둘째 문장	his campaign against the forcible eradication of coca farming … with strong US government support … 'War on Drugs'	일치 · the latter
★	82쪽 ¶4 첫 문장	In 2005, Morales became the president on the wave of protest against … fiscal retrenchment, trade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정책 네 가지 · 2005(원서 표기)
▲	82쪽 ¶4 첫 문장	which had ill-served his country in the preceding two decades	과거완료 · 계속적 which
★	82쪽 ¶4 둘째 문장	so named because they are advocated by … the US Treasur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이름의 까닭 · 세 기관
★	82쪽 ¶5 첫~둘째 문장	nationalized the natural gas industry … (at least partially) nationalize the 'utilities' … raised the royalties … increased social welfare spending	정책 목록 — 일치
▲	83쪽 첫 줄(82쪽 ¶5 셋째 문장)	nationalized industries, hostile policies towards foreign investors and 'downward' income redistribution being the worst things	독립분사구문(의미상 주어 + being)
★	83쪽 ¶1 첫 문장	But Bolivia's performance defied the sceptics	빈칸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3쪽 ¶1 둘째 문장	Given Morales's policies, it was natural that the country saw a dramatic fall in income inequality	가주어 it + that절
★	83쪽 ¶1 셋째 문장	from 0.5% per year during the period of Washington Consensus (1982–2005) to 3% per year during the Morales era	숫자 1순위 — 0.5 ↔ 3
★	85쪽 각주 iii	Gini coefficient ... fell from 0.57 to 0.48 ... the World Bank and ... (ECLAC)	숫자 · 지니계수의 뜻

내용

볼리비아 대통령(2006~19)을 지냈고, (19세기 멕시코 대통령(1858~72) 베니토 후아레스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역사상 두 번째 원주민 대통령이 된 에보 모랄레스는 그 자신이 코카 농민이었다. 그는 코카 재배의 강제 근절에 맞선 운동으로 정치적 두각을 나타냈다. 강제 근절은 볼리비아 정부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추진하던 것이었다. 2005년 모랄레스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곧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에 맞선 항의의 물결을 타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 정책들은 앞선 20년 동안 볼리비아에 해를 끼쳐 왔다. 이 정책들이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는 것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적으로 가장 힘센 세 경제 기구, 곧 미국 재무부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은행이 이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자 모랄레스는 나라의 주 수출 산업인 천연가스 산업을 국유화했다. 이어서 '공익 사업'(전기 · 수도 · 철도)을 (적어도 일부) 국유화하고, (주로 외국) 광산 회사가 (나라의 광물 자원을 지키는 쪽인) 정부에 내는 로열티를 올리고, 사회 복지 지출을 늘렸다. 많은 경제학자는 그의 변화가 끔찍한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면 산업 국유화, 외국 투자자에게 적대적인 정책, '아래로 향하는' 소득 재분배야말로 정부가 경제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성과는 회의론자들을 무색하게 했다. 모랄레스의 정책을 생각하면 그의 임기 동안 소득 불평등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당연했다(85쪽 각주 iii: 지니계수가 0.57에서 0.48로 떨어졌다 — 세계은행과 유엔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의 자료). 그런데 경제 성장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1인당 소득 성장률이 워싱턴 컨센서스 시기(1982~2005)의 연 0.5%에서 모랄레스 시대의 연 3%로 올랐다.

어법

- **Evo Morales, the former Bolivian president (2006–19) and the second-ever indigenous president of a Latin American country ..., was a coca farmer himself** : 주어와 동사(was) 사이에 동격 명사구 두 개가 and로 이어졌다. the second-ever = 역사상 두 번째. himself = 주어를 강조하는 재귀대명사(빼도 문장 성립).
- **He came to political prominence through his campaign against the forcible eradication of coca farming, which the Bolivian government was pursuing ...** : come to prominence = 두각을 나타내다. which = pursuing의 목적어(선행사 the forcible eradication of coca farming). was pursuing = 과거진행.
- **with strong US government support, as part of the latter's 'War on Drugs'** : the latter = 앞에 나온 둘(볼리비아 정부 · 미국 정부) 가운데 뒤의 것 = 미국 정부.
- **policies of fiscal retrenchment, trade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which had ill-served his country in the preceding two decades**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policies). had ill-served = 과거완료 — 2005년 이전 20년 동안 이어진 일.
-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ies are so named because they are advocated by the three most internationally powerful economic organizations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namely, ...** : be so named = 그렇게 이름 붙여지다. headquartered = organizations를 꾸미는 과거분사. namely = 곧(구체적으로 나열).

- **He then went on to (at least partially) nationalize the 'utilities' …, raised the royalties that (mostly foreign) mining companies paid to the government … and increased social welfare spending** : go on to V = 이어서 ~하다(to와 원형 사이에 괄호 속 부사구가 끼었다). went on · raised · increased 병렬. that = paid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 **Many economists predicted his changes would lead to a dire economic disaster – nationalized industries, hostile policies … and 'downward' income redistribution being the worst things …** : predicted (that) ~ = that 생략. 대시 뒤 = 독립분사구문(의미상 주어 nationalized industries … + being) — 그렇게 예측한 까닭을 덧붙인다.
- **the growth rate of its per capita income rose from 0.5% per year … to 3% per year during the Morales era** : rise from A to B = A에서 B로 오르다(자동사 rise — raise는 오답). per capita = 1인당.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minence	두각, 명성	fame	obscurity
forcible	강제적인	coercive	voluntary
eradication	근절	elimination	—
fiscal	재정의	budgetary	—
retrenchment	긴축, 삭감	cutback	expansion
deregulation	규제 완화	liberalization	regulation
privatization	민영화	—	nationalization
ill-serve	해를 끼치다	harm	benefit
advocate (v.)	옹호하다, 주창하다	champion	oppose
nationalize	국유화하다	—	privatize
royalty	사용료, 로열티	fee	—
dire	끔찍한	dreadful	—
defy	(예상을) 뒤엎다	confound	confirm
sceptic	회의론자	doubter	believer

내용 일치 모랄레스 = 볼리비아 대통령(2006~19) · 라틴아메리카 두 번째 원주민 대통령(첫째 = 후아레스, 19세기 멕시코, 1858~72) · 코카 농민 · 코카 재배 강제 근절(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에 맞선 운동으로 두각 · 2005년 대통령이 됨(원서 표기) · 워싱턴 컨센서스 =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 · 앞선 20년 동안 볼리비아에 해 · 이름 = 워싱턴 DC의 미 재무부 · IMF · 세계은행 / 천연가스(주 수출 산업) 국유화 · 공익 사업(전기 · 수도 · 철도) 일부 국유화 · 광산 회사 로열티 인상 · 복지 확대 · 많은 경제학자 = 재앙 예측 · 불평등 급감(지니계수 0.57 → 0.48) · 성장률 연 0.5%(1982~2005) → 연 3%. **밑줄 의미** on the wave of protest =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중의 항의를 등에 업고 / 'downward' income redistribution = 부자 쪽에서 가난한 사람 쪽으로 소득을 옮기는 일 / defied the sceptics = 재앙을 예측한 경제학자들이 틀렸음을 보여 주었다 / 지칭: 82쪽 ¶3 He = Morales · which(was pursuing) = 코카 재배의 강제 근절 · the latter's = 미국 정부의 / 82쪽 ¶4 his country = 볼리비아 · they(are advocated)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 82쪽 ¶5 his changes = 모랄레스의 정책 / 83쪽 ¶1 the country · its = 볼리비아 · his term = 모랄레스의 임기.

> **한 줄 요약** 코카 농민 출신 모랄레스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맞선 항의를 타고 집권해 국유화와 복지 확대를 밀어붙였고, 재앙이라는 예측과 달리 볼리비아는 불평등이 줄고 성장도 빨라졌다.

10-5 핑크 타이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귀환 83쪽 ¶2 ~ 84쪽 ¶1

원문 위치 원서 83쪽 ¶2 ~ 84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3쪽 ¶2 둘째 문장	Between the late 1990s and the mid-2000s … Argentina, Brazil, Ecuador, Uruguay and Venezuela … the Pink Tide	나라 · 시기 — 일치
★	85쪽 각주 iv	Néstor Kirchner and Cristina Fernández … Lula … Rousseff … Correa … Vásquez, Mujica … Chávez and Maduro	대통령 이름 — 원서 표기 Vásquez · Vázquez
▲	83쪽 ¶3 첫 문장	None of them went as far as Bolivia, but … rolled back many of the 'neo-liberal' policies	None of ~ · as far as
★	83쪽 ¶3 둘째~셋째 문장	increased welfare spending … minimum wages … trade unions … partially reversed trade liberalization … subsidies …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ors	정책 목록 — 제목 문항의 바탕
★	86쪽 각주 v	Neo-liberalism is a post-1980s version of nineteenth-century classical liberalism	용어 정의 · 차이점
★	83쪽 ¶4 첫 문장	defied the prediction by the neo-liberal orthodoxy and brought about both greater equality and faster growth	주장 — 제목 1순위
★	83쪽 ¶4 둘째~셋째 문장	The exception is Venezuela under … Nicolás Maduro … under his predecessor, Hugo Chávez … still an improvement	예외 — 마두로 ↔ 차베스
★	86쪽 각주 vi	stagnated … (1989–99) … 1.3% per year … (1999–2012) … Gini coefficient at around 0.45	숫자
◆	83쪽 ¶5 첫 문장	I am not saying that everything was going well	양보 — 요지의 출발점
★	83쪽 ¶5 셋째 문장	didn't try hard enough to develop … high-productivity industries that could replace … natural resource-based industries	요지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3쪽 ¶5 다섯째 문장	'Lula' (Squid!) Da Silva and Dilma Rousseff … let its once-mighty manufacturing industry decline beyond repair	let + O + 원형 · 최대 실패 = 브라질
★	86쪽 각주 vii	around 30% of its national output in the late 1980s declined to just above 10%	숫자
▲	83쪽 ¶6 첫 문장(84쪽 첫 줄까지)	the global commodity price boom of the 2000s, which had been fuelled by China's super-growth, came to an end in 2012–13	과거완료 수동 · 숫자
★	84쪽 첫 줄(83쪽 ¶6 둘째 문장)	all these governments, except the Venezuelan one … lost power in elections … except in Bolivia, where it was through a coup d'état	except 두 번 — 일치 함정
★	84쪽 ¶1 첫~둘째 문장	did not lead to the the restoration of a neo-liberal ancien régime … In Argentina and Bolivia … took back power	문장 삽입 1순위 · 원서 표기 the the
★	84쪽 ¶1 셋째 문장 · 86쪽 각주 viii	As I write in the spring of 2022 … Bolsonaro … Lula / Alberto Fernández 2019 · Luis Arce 2020 · Jeanine Añez	숫자 · 인물

내용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스르고 경제 성과를 높인 라틴아메리카 나라는 볼리비아만이 아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에콰도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에서 좌파나 좌파 성향의 정당이 집권했는데, 이를 '핑크 타이드(Pink Tide)'라고 부른다(85쪽 각주 iv에 각 나라의 대통령 이름이 있다). 볼리비아만큼 멀리 간 나라는 없었지만, 핑크 타이드 정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 정책 가운데 많은 것을 되돌렸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 지출을 늘렸고, 몇몇은 최저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합을 강화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에게 가는 몫을 늘렸다. 몇몇은 무역 자유화를 일부 되돌리고, 선별한 산업에 보조금을 늘리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Banana」 참조). 이들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설의 예측을 뒤엎고 더 큰 평등과 더 빠른 성장을 함께 가져왔다. 예외는 유례없이 처참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로, 그곳 경제는 무너졌다. 그러나 그 전임자 우고 차베스 시대의 베네수엘라 경제 성과는 다른 핑크 타이드 나라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어도 앞 시대의 신자유주의 정책보다는 나았다(86쪽 각주 vi). 저자는 핑크 타이드 나라에서 모든 일이 잘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줄었지만 국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매우 높았다. 더 중요하게는, 광업 · 농업처럼 장기 성장 잠재력이 한정된 전통적 천연자원 산업을 대신할 고생산성 산업을 키워 지속 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데 충분히 힘쓰지 않았다(「Anchovy」 참조). 가장 큰 실패는 브라질이었다. 룰라 다 시우바와 지우마 호세프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적 무역 · 산업 정책을 대체로 이어 가, 한때 막강했던 제조업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쇠퇴하게 내버려 두었다(86쪽 각주 vii). 핑크 타이드 말기에 브라질은 신자유주의 절정기보다 천연자원(철광석 · 콩 · 소고기) 수출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1차 상품 의존을 줄이지 못한 탓에, 중국의 초고속 성장이 부채질한 2000년대 세계 원자재 가격 호황이 2012~13년에 끝나자 핑크 타이드 나라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마두로의 독재 아래 기괴한 사회주의 흉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뺀 모든 정부가 2010년대 후반에 선거로 정권을 잃었다. 볼리비아만은 쿠데타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신자유주의 구체제의

복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에서는 짧은 공백 뒤에 핑크 타이드 정당이 다시 집권했다(86쪽 각주 viii). 저자가 이 글을 쓰는 2022년 봄, 많은 논평가는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처참한 임기와 전 대통령 룰라의 정계 복귀에 이어 브라질의 2022년 대선에서 핑크 타이드 정부가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어법

- **Bolivia isn't the only country in Latin America that has defied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improved its economic performanc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에 the only가 있으면 that을 즐겨 쓴다). has defied · (has) improved 병렬.
- **leftwing or left-leaning parties came to power in several Latin American countries … in what is known as the Pink Tide** : come to power = 집권하다. in what is known as ~ = 이른바 ~이라는 흐름 속에서(what = 관계대명사).
- **None of them went as far as Bolivia, but the Pink Tide governments rolled back many of the 'neo-liberal' policies** : None of + 복수 명사 = 아무도 ~ 않다. go as far as ~ = ~만큼 멀리 가다. roll back = 되돌리다.
- **some of them increased minimum wages and strengthened trade unions, thereby increasing the share of national income going to workers** : thereby + 분사 = 그렇게 함으로써(결과). going to workers = share를 꾸미는 현재분사.
- **Venzuela's economic performance under his predecessor, Hugo Chávez, while not being as impressive as in other Pink Tide countries, was still an improvement** : while + 분사(not being) = 양보(~이긴 하지만). 주어 performance와 동사 was 사이에 삽입. 원서 표기 Venzuela.
- **Inequality, while falling in most of them, remained still very high by international standards** : while + 현재분사 = 양보. remain + 형용사(보어). by international standards = 국제 기준으로 보면.
- **Brazil's 'Pink Tide' governments … largely continued with the liberal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 and let its once-mighty manufacturing industry decline beyond repair** : let + O + 원형부정사(decline; to decline은 오답). once-mighty = 한때 막강했던(복합 형용사). beyond repair = 회복할 수 없을 만큼.
- **the global commodity price boom of the 2000s, which had been fuelled by China's super-growth, came to an end in 2012–13** : which = 계속적 용법. had been fuelled = 과거완료 수동(호황이 끝나기 전부터 이어진 일). come to an end = 끝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ft-leaning	좌파 성향의	leftish	right-leaning
roll back	되돌리다, 철회하다	reverse	extend
minimum wage	최저 임금	—	—
trade union	노동조합	labour union	—
subsidy	보조금	grant	tax
orthodoxy	정설, 주류 이론	dogma	heterodoxy
predecessor	전임자	forerunner	successor
sustained	지속적인	lasting	short-lived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
primary commodity	1차 상품(원자재)	raw material	manufactured good
fuel (v.)	부채질하다, 촉진하다	drive	dampe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utocratic	독재적인	dictatorial	democratic
travesty	엉터리 흉내	parody	—
interlude	짧은 공백, 막간	interval	—

내용 일치 핑크 타이드 =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에콰도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만큼 멀리 가지는 않음 · 복지 확대 · 최저 임금 · 노조 강화(노동자 몫 증가) · 무역 자유화 일부 되돌림 · 선별 산업 보조금 · 외국 투자자 규제 강화 · 더 큰 평등과 더 빠른 성장 · 예외 = 마두로의 베네수엘라(차베스 시대는 개선) / 한계 = 불평등 여전히 높음 · 고생산성 산업 육성 부족 · 최대 실패 = 브라질(룰라 · 호세프, 제조업 쇠퇴, 철광석 · 콩 · 소고기 수출 의존) · 2000년대 원자재 호황(중국) 2012~13 종료 · 2010년대 후반 정권 상실(베네수엘라 제외 · 볼리비아는 쿠데타) · 구체제 복원 아님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재집권 · 2022년 봄 브라질 전망. **밑줄 의미** None of them went as far as Bolivia = 볼리비아처럼 국유화까지 밀어붙인 나라는 없다 / a bizarre travesty of socialism =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를 기괴하게 흉내 낸 것일 뿐 / did not lead to the the restoration of a neo-liberal ancien régime = 정권이 바뀌어도 신자유주의 옛 질서로 돌아가지 않았다 / 86쪽 각주 v =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의 강한 보호 · 최소한의 시장 규제 · 자유무역 · 자본 이동의 자유를 내세우되, 고전적 자유주의만큼 드러내 놓고 민주주의에 반대하지 않고, 통화(강한 중앙은행)와 지식(강한 지식재산권 보호, 「Carrot」)에서는 자유시장에 반대 / 지칭: 83쪽 ¶3 them · They = 핑크 타이드 정부들 / 83쪽 ¶4 his predecessor = 마두로의 전임자(차베스) / 83쪽 ¶5 its = 브라질의 · whose = 천연자원 산업의 / 84쪽 첫 줄 it(was through a coup) = 정권 상실.

> **한 줄 요약** 핑크 타이드 정부들은 신자유주의를 되돌려 평등과 성장을 함께 이루었지만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지 못해 원자재 호황이 끝나자 정권을 잃었고, 그래도 신자유주의 구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

10-6 칠레의 선택,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의 황혼 84쪽 ¶2 ~ 85쪽 ¶3

원문 위치 원서 84쪽 ¶2 ~ 85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4쪽 ¶2 첫~둘째 문장	countries that had not joined the Pink Tide … Mexico and Peru … López Obrador and Pedro Castillo … 2019 and 2021 respectively	respectively — 짝 맞추기 함정
★	84쪽 ¶3 첫 문장	Gabriel Boric, a thirty-five-year-old former student activist … Frente Amplio, or the Broad Front … December 2021	인물 · 숫자
★	84쪽 ¶3 둘째 문장	Since the military coup in 1973, Chile had been the trailblazer for neo-liberalism … even anticipating … Thatcher and Reagan	과거완료 계속 · 숫자
◆	84쪽 ¶3 셋째~넷째 문장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Perish the thought…	밑줄 의미 1순위 · as if + 과거완료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4쪽 ¶4	The rejection … has been less visible in other parts of the developing world, such as Asia and Africa	요약문의 주제문
▲	84쪽 ¶5 첫 문장	had not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ies in the first place as rigidly as di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as ~ as 뒤 도치 · 요약문 (A)
★	84쪽 ¶5 둘째~셋째 문장	relatively few Asian countries have had to borrow heavily … less ideological approach … not implemented in their extreme forms	아시아의 까닭 세 가지
★	84쪽 ¶6 첫 문장	have found it more difficult to openly reject them, given their greater dependence on the Washington institutions for financing	가목적어 it · 요약문 (B)
★	85쪽 첫 줄(84쪽 ¶6 둘째 문장)	the need for a much more active role for the state than what is recommended by the Washington Consensus	아프리카의 변화
★	85쪽 ¶1 둘째 문장	slower growth, higher inequality and more frequent financial crises … the 'mixed economy', in which the government played a more active … role	어법 1순위(in which)
★	85쪽 ¶2 둘째 문장	create the 'space' for their producers to 'grow up' … trade protection, subsidies, regulation of foreign investors	주장 1순위 · 통합 사고 빈칸
◆	85쪽 ¶2 셋째 문장	a 'cookie cutter' approach, in which the same set of policies was recommended to all countries	비유 — 밑줄 의미
◆	85쪽 ¶3	a successful product requires happy customers … looks set to disappear into the twilight of history	결론 · 첫머리 되받기 · 추측(looks set to)

내용

게다가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에는 핑크 타이드에 끼지 않았던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도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페드로 카스티요가 각각 2019년과 2021년에 대통령이 되었다. 2022년 6월에는 구스타보 페트로가 콜롬비아 역사상 첫 좌파 대통령으로 뽑혔다. 이 흐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2021년 12월 칠레 대선에서 좌파 정당 연합인 Frente Amplio(곧 Broad Front)를 대표한 35세의 전 학생 운동가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가 이긴 것이다. 1973년 군사 쿠데타 이래 칠레는

라틴아메리카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였고, 1980년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지르기까지 했다(「Okra」 참조). 그러니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발상지였고, 또한 그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보리치를 칠레가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마치 미국인들이 코카콜라 금지에 표를 던진 것과 같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에 대한 거부는 아시아 ·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덜 눈에 띄었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이 지역 나라들이 애초에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만큼 엄격하게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경제 성과가 좋아 워싱턴 기관들에서 크게 빌려야 했던 아시아 나라는 비교적 적었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도 적었다. 또 많은 아시아 나라는 경제 정책에 덜 이념적으로 접근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때에도 라틴아메리카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라틴아메리카보다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지만(86쪽 각주 ix), 자금을 워싱턴 기관들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 놓고 거부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래도 지난 10년 남짓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져 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자 나라에서조차 잘 작동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에 이 나라들은 그 앞의 '혼합 경제' 시기보다 성장은 느리고 불평등은 크고 금융 위기는 잦았다. 혼합 경제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의 힘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데 더 적극적인 — 신자유주의의 눈으로 보면 더 간섭하는 — 역할을 했다(86쪽 각주 x: 저자의 앞 책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참조). 그러나 개발도상국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들의 필요에 특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설은, 개발도상국은 무역 보호 · 보조금 · 외국 투자자 규제와 그 밖의 정부 지원으로 생산자들이 '자라나' 더 높은 생산성의 산업에 뛰어들 능력을 갖출 '공간'을 만들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Prawn」 · 「Banana」 참조). 설상가상으로 특히 1980~90년대에 워싱턴 기관들의 정책 권고는 깎아내리는 말로 '쿠키 커터(cookie cutter)' 방식이라 불리게 된 것, 곧 나라마다 경제 조건과 사회 · 정치 환경이 달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정책 묶음을 권하는 방식을 취했다. 코카콜라의 계속된 성공은 (저자처럼) 아주 만족하지는 않는 소수가 있더라도 성공한 제품에는 만족한 고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묶음은, 한때 개발도상국에서 그토록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역사의 황혼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어법

- **In Mexico and Peru, left-leaning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and Pedro Castillo took the presidency in 2019 and 2021 respectively** : respectively = 각각(앞의 순서대로 짝지음: 멕시코 · 로페스 오브라도르 · 2019 / 페루 · 카스티요 · 2021).
- **Since the military coup in 1973, Chile had been the trailblazer for neo-liberalism not just in Latin America but in the world, even anticipating the neo-liberal policies of Margaret Thatcher and Ronald Reagan** : had been = 과거완료 계속(2021년 선거 때까지 이어진 상태). not just A but B = A뿐 아니라 B도. anticipating = 분사구문(~을 앞지르기까지 하며).
- **So when Chile elected Boric as the president, who had declared that …,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 who의 선행사 = Boric(사이에 as the president가 끼었다). had declared = 선거보다 앞선 일. as if + 과거완료 = 마치 ~했던 것 같은(사실과 반대).
-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ad not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ies in the first place as rigidly as di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 in the first place = 애초에. as ~ as 뒤 비교절에서 대동사 did와 주어가 도치(as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did와 같다).
- **Their generally good economic performance has meant that relatively few Asian countries have had to borrow heavily …, making it less necessary for them to adopt neo-liberal policies** : mean that ~ = ~이라는 결과를 낳다. few = 거의 없는(부정의 뜻). making it(가목적어) + 형용사 + for + 의미상 주어 + to V(진목적어).
- **The African countries, even though they have suffered even more than di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 have found it more difficult to openly reject them** : even though = 양보. than did ~ = 비교절 도치. find + it(가목적어) + 형용사 + to V. to openly reject = 분리 부정사. them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 **these countries have had slower growth, higher inequality and more frequent financial crises than they had in the preceding decades of the 'mixed economy', in which the government played a more active ... role**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뒤가 완전한 절 → which만 쓰면 오답). than they had = 앞선 수십 년과의 비교(had = 대동사).
- **Unable to make its customers happy,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y package, once so dominant in the developing world, looks set to disappear into the twilight of history** : Unable ~ = (Being) unable ~의 분사구문(이유). once so dominant = 주어를 덧붙여 설명하는 형용사구(한때 그토록 지배적이던). look set to V = ~할 것 같다(추측 — 단정이 아니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ctivist	운동가	campaigner	—
coalition	연합	alliance	—
coup	쿠데타	overthrow	—
trailblazer	선구자	pioneer	follower
anticipate	앞지르다, 앞서 하다	foreshadow	—
rigidly	엄격하게	strictly	flexibly
ideological	이념적인	doctrinaire	pragmatic
intrusive	간섭하는	meddlesome	unobtrusive
restrain	억제하다	curb	unleash
unsuited	맞지 않는	unfit	suited
derogatorily	깎아내려	disparagingly	approvingly
twilight	황혼, 쇠퇴기	decline	dawn

내용 일치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2019) · 페루 카스티요(2021) · 콜롬비아 페트로(2022년 6월, 첫 좌파) · 칠레 보리치(35세 전 학생 운동가 · Frente Amplio · 2021년 12월) · 칠레 = 1973 군사 쿠데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대처 · 레이건보다 앞섬) / 아시아 = 애초에 덜 엄격히 따름 · 크게 빌린 나라가 적음 · 덜 이념적 · 극단적 시행 없음 / 아프리카 = 피해는 더 큼 · 자금 의존으로 드러내 놓고 거부하기 어려움 · 지난 10년 남짓 더 적극적인 국가 역할의 필요 인식 / 부자 나라 = 1980년대 이후 느린 성장 · 높은 불평등 · 잦은 금융 위기 / 개발도상국 = 재앙 · 생산자가 자랄 '공간' · 쿠키 커터 방식(1980~90년대) / 결론 = 만족한 고객 없이 성공 없음 · 사라질 것 같다. **밑줄 의미**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이 신자유주의를 버린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 Perish the thought = 그런 일은 생각도 하기 싫다는 농담 / more intrusive, from the neo-liberal point of view = 같은 정부 역할을 신자유주의는 '간섭'으로 본다 / a 'cookie cutter' approach = 쿠키 틀로 찍어 내듯 모든 나라에 같은 정책 / the twilight of history = 워싱턴 컨센서스가 저물어 간다(looks set to = 추측) / 지칭: 84쪽 ¶5 Their · them = 아시아 나라들 / 84쪽 ¶6 them(reject them)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 85쪽 ¶1 these countries = 부자 나라 / 85쪽 ¶3 it(happy with it) = 성공한 제품(코카콜라) · its customers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묶음의 고객.

> **한 줄 요약** 신자유주의의 선구자 칠레마저 좌파를 택했고 아시아 · 아프리카에서는 거부가 덜 드러났지만, 개발도상국을 만족시키지 못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역사의 황혼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0 COCACOLA]

범위	Coca-Cola (원서 PDF 80~8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eo-liberal policies have been a disaster for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y ignored what those countries actually needed. Most importantly, neo-liberal orthodoxy denied that a poor economy can advance only if its producers are given the chance to mature and gain the capabilities for higher-productivity industries. That takes trade protection, subsidies, rules on foreign investors and other government support. Worse, in the 1980s and 1990s the Washington institutions took a scornfully named 'cookie cutter' approach, prescribing the same package to every country whatever its conditions.

① Poor countries should copy rich countries' policies.
② Poor countries should borrow more from Washington.
③ Foreign investors should face no regulation.
④ Poor countries need state support for their producers to grow.
⑤ Trade protection makes producers lazy.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olivia was not alone in rejecting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prospering. From the late 1990s to the mid-2000s, left-wing or left-leaning parties won power in Brazil, Argentina, Venezuela, Ecuador and Uruguay, a shift now called the Pink Tide. Though less radical than Bolivia, they undid many neo-liberal policies. They spent more on welfare for the poor, and some raised minimum wages and strengthened unions, giving workers a larger share of national income. Against neo-liberal forecasts, the result was more equality and quicker growth. The exception is Maduro's Venezuela, whose economy collapsed.

① The Pink Tide: Proving the Forecasts Wrong
② Why Bolivia Copied Its Neighbours
③ Venezuela: A Model for the Region
④ Trade Unions Against Left-Wing Governments
⑤ How Neo-liberalism Saved Latin America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does not claim that the Pink Tide nations got everything right. Inequality fell in most of them but remained very high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More seriously, their governments did too little to build high-productivity industries able to replace mining, agriculture and other natural resource industries, whose long-run growth potential is limited. Brazil was the biggest failure in this respect. Under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it largely kept the free-market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it had inherited from neo-liberal times and allowed its once-mighty factories to wither past saving.

① Inequality kept rising under the Pink Tide.
② Mining and agriculture offer the best growth.
③ Brazil was the Pink Tide's greatest success.
④ Free-market policies saved Brazil's industry.
⑤ The Pink Tide neglected high-productivity industries.

4. 밑줄 친 has no original members lef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oca-Cola was named after its two key ingredients, the coca leaf and the kola nut. In 2016, however, a synthetic chemical took the place of the kola nut in the drink. Coca-Cola has thus become like an ageing rock band that, after years of line-up changes caused by artistic disagreements and clashing egos, has no original members left. The coca leaf, the drink's other founding member, which once supplied cocaine, had already 'quit the band' over a century earlier,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company took it out of the recipe once it had become obvious how addictive cocaine was.

① the drink has kept changing its advertising
② the company has replaced all its founding managers
③ neither of the drink's two original key ingredients remains in it
④ the drink no longer appeals to its original fans
⑤ the recipe has stayed the same since the beginning

5. 밑줄 친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most striking sign of Latin America's turn to the left came in Chil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2021, voters chose Gabriel Boric, a 35-year-old former student activist who represented the Broad Front, a coalition of left-wing parties. Ever since its military coup of 1973, Chile had led the way for neo-liberalism, not only in Latin America but across the world, getting there even before Margaret Thatcher and Ronald Reagan did in the 1980s. Boric had declared that Chile, the birthplace of neoliberalism, would also be its grave. So when such a man won,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① Chile's voters had turned against American products
② Americans were likely to follow Chile's example soon
③ Boric planned to ban foreign soft drinks in Chile
④ the election result was of little real importance
⑤ neo-liberalism's pioneer rejecting it was almost unthinkabl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Coca-Cola was a symbolic minefield, but Marshal Georgi Zhukov, who directed the Soviet triumphs against the Nazis at Leningrad and Stalingrad, found a clever way through it. During the war, it is said, Dwight Eisenhower introduced the drink to ① him; at the time ② he was an American general, though he later became president. Between May 1945 and June 1946, while commanding the Soviet occupying forces in Europe, Zhukov asked the company for a colourless version, so that ③ he could enjoy it without being caught drinking the essence of American capitalism. With the caramel colouring removed, the clear drink was made in Brussels, put in a plain bottle and sent to ④ his European headquarters. It was a clever move, worthy of a great strategist like ⑤ him.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Unlike the author, billions love Coca-Cola's very sweet taste. Writing in the mid-2000s, the British journalist Tom Standage noted that the company operated in two hundred territories, more than the UN had members, and that 'Coca-Cola' was reportedly the most widely understood phrase on earth after 'OK'. Arguably America's most iconic product, the drink came to stand for both the good and the bad sides of American capitalism. To dissident young people in the former Soviet Union, it meant freedom; to the Indian left until the 1980s, it embodied consumerism and the manipulation of what consumers want. In 1977, India cancelled the company's licence after it declined to set up a joint venture with an Indian partner. It returned in 1993, soon after India liberalized its economy in 1991.

① 저자는 많은 사람처럼 코카콜라의 단맛을 좋아한다.
② Standage에 따르면 코카콜라 회사가 활동하는 지역은 유엔 회원국 수보다 적다.
③ 옛 소련의 반체제 청년들에게 코카콜라는 자유를 뜻했다.
④ 인도 정부는 코카콜라가 현지 기업과 합작하려 하자 면허를 취소했다.
⑤ 코카콜라 회사는 1991년에 인도로 돌아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At first, Coca-Cola was sold from soda fountains in drug stores, perhaps to strengthen its image as a medicine, since fizzy drinks were then thought to be good for health. Bottling began in 1894, which made it possible to ship the drink over long distances and so hugely expanded its possible market. By the middle of the 1910s it was popular enough to attract fakes, and the company fought back with an advertising campaign urging people to 'Demand the genuine.' Exports started in the 1920s, and by the 1930s the drink had turned into a national icon. A 1938 description called it 'the sublimated essence of America'. The name itself came from Frank Robinson, one of Pemberton's business partners, who took it from the drink's two key ingredients.

① 처음에는 약국의 소다 파운틴에서 팔렸다.
② 1894년에 병에 담기 시작해 먼 곳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③ 1910년대 중반에는 가짜가 나올 만큼 인기를 얻었다.
④ 코카콜라라는 이름은 펨버턴이 두 핵심 재료에서 따와 직접 지었다.
⑤ 1938년에 '미국의 승화된 정수'라고 묘사되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Even in the rich countries, neo-liberal policies have not delivered. Since the neo-liberal era began in the 1980s, these economies ① have grown more slowly, become more unequal and suffered financial crises more often than they ② did in the earlier 'mixed economy' decades. In that era, ③ which the state took a more active part in holding back and regulating market forces, growth was faster. Neo-liberals, of course, would describe that part as ④ intrusive rather than active. Yet the record of their own policies in the rich world ⑤ looks poor next to that of the mixed-economy decade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admits that he seldom drinks Coca-Cola, or any cola at all. Still, on a hot summer afternoon, nothing beats an ice-cold Coke, even for him. He refuses, however, (A) [to drink / drinking] it directly out of a can or bottle. This is not (B) [because / because of] he cares about drinking etiquette; he simply needs a container, and he would even use a bowl if he had to. What he wants is Coca-Cola with plenty of ice cubes in it, even when it is already cold, as he finds the drink too sweet by itself and needs to have it (C) [diluted / diluting].

	(A)	(B)	(C)
①	to drink	because	diluted
②	to drink	because of	diluted
③	drinking	because	diluted
④	drinking	because of	diluting
⑤	to drink	because	diluting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Kola nut comes originally from West Africa. It contains ① stimulants such as caffeine, in larger amounts than coffee or most kinds of tea, and theobromine, a substance that chocolate also contains. Thanks to this quality, people in West Africa have long chewed kola nut to keep themselves alert and to ② increase their appetite, which lets them endure long, hard effort without tiredness or thirst. In West African cultures, chewing kola nut together plays an ③ important part in community gatherings, rites of passage and ceremonies held to ④ seal treaties and contracts. Kola nut is also said to have made the dirty, stale water carried on long sea voyages more ⑤ drinkable, which is why ships carrying slaves from Africa used it.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nce in office, Morales nationalized natural gas, Bolivia's main export industry. He went on to bring the 'utilities' (power, water and the railways) at least partly under state ownership, raised the royalties that mining companies, mostly foreign, paid to the government, and spent more on social welfare. Many economists warned that these moves would end in economic disaster, since, according to the Washington Consensus, nationalization, hostility to foreign investors and 'downward' redistribution of income are the worst things a government can do to an economy. Yet Bolivia's record _____. Income inequality fell sharply, as might be expected from his policies, but growth also sped up: per capita income, which had grown by 0.5% a year in the Washington Consensus period (1982–2005), grew by 3% a year under Morales.

① proved the doubters wrong
② confirmed the economists' fears
③ depended on foreign investors
④ remained much the same as before
⑤ was hidden from the public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ese changes of government, however, did not bring back the old neo-liberal order.

Having failed to cut their reliance on primary commodities, the Pink Tide countries took a heavy blow when the 2000s commodity boom, driven by China's super-growth, ended in 2012–13. (①) Consequently, in the late 2010s every one of these governments lost power except Venezuela's, which had become a strange parody of socialism under Maduro's autocratic rule. (②) Most were voted out, but in Bolivia the government fell in a coup d'état. (③) Pink Tide parties regained power in both Argentina and Bolivia after only a brief break. (④) In spring 2022, the author notes, many commentators thought the Pink Tide might win Brazil's 2022 election again after Jair Bolsonaro's disastrous presidency. (⑤) Meanwhile, some countries outside the Pink Tide were moving left too.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Cocaine is obtained from the coca plant, native to western South America. ① In the high Andes, indigenous people have long chewed the leaves or made tea from them, easing pain while working in thin air and going without food, as the leaves curb appetite. ② Used this way, coca is neither addictive nor harmful, and it plays significant cultural and religious roles in indigenous communities. ③ Evo Morales, a former Bolivian president, was himself a coca farmer who rose to prominence by fighting the US-backed forced eradication of coca farming. ④ Bottling of Coca-Cola started in 1894, which let the drink travel long distances. ⑤ In 2005 he became president on a wave of protest against the 'Washington Consensus', which had long served his country badly.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inventor of Coca-Cola was John Pemberton, who lived in Atlanta, Georgia.

(A) In 1886, however, alcohol was banned in Atlanta and the surrounding Fulton County, at that time the main market for his drink. So Pemberton removed the alcohol and added sugar, to hide the bitterness of the coca leaf and kola nut, along with citrus oils. This alcohol-free version was named Coca-Cola.

(B) This wine-based drink was not the first to combine alcohol with coca leaf. Vin Mariani, a wine with coca leaves soaked in it for half a year, was especially popular, counting Queen Victoria and Thomas Edison among its fans. What was new about Pemberton's recipe was the kola nut, and the drink was marketed as a 'nerve tonic'.

(C) In 1885 he brought out Pemberton's French Wine Coca, made mainly from wine, kola nut and coca leaf.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sia and Africa, two other regions of the developing world, have turned against the neo-liberal Washington Consensus less visibly than Latin America. In Asia, this is mainly because countries had never followed those policies as strictly as Latin America had. Because their economies generally did well, few Asian nations needed large loans from the Washington institutions, so they felt less pressure to go neo-liberal. Their less ideological approach also kept the neo-liberal measures they did adopt from being pushed to extremes. African countries suffered from these policies even more than Latin America did, but they have found open rejection harder, since they rely more on Washington for funding. Even so, Africans increasingly see the need for a more active state.

→ The rejection of the Washington Consensus has been less visible in Asia, which had followed it less (A) _____, and in Africa, which is more (B) _____ on the Washington institutions for funding.

① loosely ..... dependent
② rigidly ..... dependent
③ rigidly ..... independent
④ rigidly ..... critical
⑤ loosely ..... independe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885, John Pemberton launched French Wine Coca; after alcohol was banned in 1886, he turned it into Coca-Cola, a name invented by his partner Frank Robinson. Kola nut, one of its two key ingredients, comes from West Africa, while the coca plant grows natively in western South America. In 2016, a synthetic chemical took the place of kola nut. In 1977, India cancelled the company's licence, though the company returned in 1993. In Bolivia, per capita income grew by 0.5% a year under the Washington Consensus but by 3% a year under Morales. Asian countries had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less rigidly than Latin American countries.

<QUIZ>

(1) In what year did the Indian government cancel Coca-Cola's licence?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John Pemberton launch French Wine Coca?

Answer for (2): _____

(3) Who invented the name Coca-Cola?

Answer for (3): _____

(4) Where does kola nut come from?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did a synthetic chemical take the place of kola nut?

Answer for (5): _____

(6) By how much a year did Bolivia's per capita income grow under Morales?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Asian countries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as rigidly as Latin American countri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False	N. 1.3%
B. 1886	O. 1885
C. western South America	P. Tom Standage
D. 0.5%	Q. 1938
E. 1993	R. Frank Robinson
F. 1977	S. 2005
G. True	T. Dwight Eisenhower
H. 1894	U. 2016
I. Atlanta	V. 2012
J. 1991	W. Brussels
K. John Pemberton	X. 1973
L. 3%	Y. 2021
M. West Africa	Z. Benito Juárez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나는 그 음료가 그것만으로는 너무 달다고 여겨서 묽혀야 한다. (find + O + 형용사 / have + O + p.p.)

02 그들은 내게는 지나치게 단 코카콜라의 맛을 좋아한다. (관계대명사 what)

03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미국 제품이어서 코카콜라는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게 되었다. (분사구문 / come to V)

04 그는 전쟁 중에 그 음료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be said to have p.p.)

05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Vin Mariani였는데, 그 팬 가운데에는 빅토리아 여왕도 있었다. (보어 도치 / whose)

06 그것은 1894년에 병에 담기기 시작해 장거리 운송을 가능하게 했다. (begin to be p.p. / 결과의 분사구문)

07 콜라 너트가 아프리카에서 오는 노예선에서 쓰였다고도 한다. (It is said that)

08 그는 이어서 공익 사업을 국유화했다. (go on to V)

09 브라질 정부는 한때 막강했던 제조업이 쇠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let + O + 원형부정사)

10 그것은 마치 미국인들이 코카콜라를 금지하기로 투표한 것과 같았다. (as if + 과거완료)

11 아시아 나라들은 애초에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만큼 엄격하게 그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 (as ~ as 뒤 도치)

12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묶음은 역사의 황혼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look set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가 콜라를 마시는 방법	
Standage가 든 숫자 / 시기	
'Coca-Cola'보다 널리 통한다고 하는 말	
인도의 면허 취소 / 복귀 / 경제 자유화	
주코프에게 콜라를 소개했다고 하는 사람	
투명한 콜라를 만든 곳 / 방법	
콜라의 발명자 / 1885년의 음료	
Vin Mariani의 팬	
알코올을 뺀 해 / 대신 넣은 것	
병입 / 수출 / 국가의 상징	
이름을 지은 사람	
콜라 너트의 원산지 / 코카의 원산지	
콜라 너트를 뺀 해 / 코카 잎을 뺀 때	
모랄레스의 재임 / 그 앞의 원주민 대통령	
워싱턴 컨센서스의 네 정책 / 세 기관	

항목	답
볼리비아의 1인당 소득 성장률 / 지니계수	
핑크 타이드의 나라(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핑크 타이드의 최대 실패 / 제조업 비중	
원자재 호황이 끝난 때	
보리치의 당선 /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였던 기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 성장률	

4-3. 통합 사고 문제 – 5장과 10장을 잇는 자리

문제

5장에서 저자는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은 저절로 바뀌지 않고 크게 바꾸는 데 적어도 20년이 걸리므로 그런 변화는 자유무역 아래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새 산업의 미숙한 생산자들이 더 크고 뛰어난 외국 경쟁자에게 금세 쓸려 나간다고 썼다(49쪽 ¶2). 또 아이를 다 자랄 때까지 보호하고 기르듯,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의 정부는 젊은 산업이 생산 능력을 키워 뛰어난 외국 경쟁자와 겨룰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길러야 한다는 '유치산업' 논리를 소개했다(49쪽 ¶3). 10장에서 저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를 내세웠다고 썼고(82쪽 ¶4), 핑크 타이드 정부들이 천연자원 산업을 대신할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는 데 충분히 힘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83쪽 ¶5),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특히 맞지 않아 그들에게 재앙이었다고 썼다(85쪽 ¶2). 이를 바탕으로, 아래 85쪽 ¶2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s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5장과 10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5장 또는 10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것: Above all, the neo-liberal orthodoxy denied the fact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develop their economies only if they can create the '_____' for their producers to 'grow up' and acquire the capabilities to engage in higher-productivity industries through trade protection, subsidies, regulation of foreign investors and other supportive government measure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1 RYE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Rye」 (원서 PDF 88~93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보수주의자가 만든 복지국가는 정말 '공짜'인가."

이 장은 저자가 직접 만든 요리, 토마토 살사와 구운 고등어를 얹은 호밀 크리스프브레드로 시작한다. 1980년대 중반 다들 미국으로 유학 가던 때 영국을 고른 저자는 비경제학자들에게 '최고의 추리 소설이 나오는 나라라서'라고 둘러댔고, 애거사 크리스티의 A Pocket Full of Rye를 읽으며 품었던 '호밀이 뭘까'라는 궁금증을 영국에 가서야 풀었다. 이야기는 북유럽의 상징이 된 호밀을 따라 독일로 건너가, 호밀을 기르는 융커와 중공업 자본가를 묶은 비스마르크의 '철과 호밀의 결혼', 그리고 그가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세운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로 이어진다. 저자는 복지국가가 부자의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를 주는 제도라는 오해를 반박하며, 복지국가는 모두가 값을 내고 함께 대량으로 사서 값을 낮추는 사회 보험 묶음이자 자본주의가 낳는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2장(오크라)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92쪽 ¶5) / 진보 세력이 아니라 비스마르크가 처음 만들었다(90쪽 ¶4~¶5) /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보험 묶음(92쪽 ¶2~¶3) / 호밀 덕분에 누리는 안전과 번영(93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to put it mildly / committing career suicide – even before it had begun / a pat answer /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 grow behind protective walls / to keep socialism at bay / 'buying off' workers / So is its very nature / free at the point of access /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 / a humble, hardy grain
6	지칭 추론	he · his · them이 비스마르크와 융커 사이를 오가는 90쪽 ¶2 / them(88쪽 ¶3 = 경제학자 · 교사 · 친구들) · it(88쪽 ¶3 = career) / her(89쪽 ¶2 = 미스 마플) / It(90쪽 ¶3 = 동맹) / They · it(91쪽 ¶2 = 사회주의자들 · 복지국가) / It(92쪽 ¶2 = 복지국가) / that(92쪽 ¶3 = healthcare cost)
7~8	내용 일치·불일치	호밀의 나라(89쪽 ¶5~90쪽 첫 줄) / 영국에서 맛본 호밀(89쪽 ¶4) / 1980년대 중반 · 100권 · 20억 권 · 1866~8 · 33% · 1871 · 1879 · 1883 · 1884 · 1889 · 1878~1888 · 1927 · 1905 · 2018 · 27% · 14% · 40% · 2.5배 · 17% · 6.8% · 12% · 1930 · 1980
9~10	**어법**	to put it mildly · 동명사 주어 · 과거완료 수동 · be disillusioned by · than 뒤 도치 · stop + O + from -ing · 독립분사구문 · 전치사구 도치 · whose · 완료 분사구문의 부정 · the last + 명사 + to have p.p. · so ~ that · get + O + (to) V · allow + O + to V · It was ~ who 강조 · be credited for · not ~ because · unless · It is ~ that 강조 · So + V + S · 삽입절 it is believed · 분사구문(조건) · compare A with B · without 가정법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hrewd↔naive · hardy↔delicate · ditch↔keep · superior↔inferior · propel↔hinder · catch up with↔fall behind · consolidate↔weaken · overthrow↔uphold · embrace↔reject · burdensome↔light · fragmented↔unified · inevitable↔avoidable · expensive↔cheaper
12	빈칸 추론	rye is something similar to wheat(89쪽 ¶3) / welfare benefits are not free(91쪽 ¶5) / by buying in bulk(92쪽 ¶3) / the inevitable insecurity that capitalism creates(92쪽 ¶5)
13	문장 삽입	복지국가의 본질에 대한 오해(91쪽 ¶3~¶4): 기원만이 아니라 본질도 오해 →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를 준다는 생각 → 그 '공짜'는 부자의 세금으로(it is believed) → 부자에게 무임승차 → 'welfare scroungers'
14	무관한 문장	추리 소설 이야기(88쪽 ¶4~89쪽 ¶1)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당시 한국인의 유학 = 미국 유학, 88쪽 ¶1)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최초의 복지국가(90쪽 ¶6~91쪽 첫 줄): 1871 산재 보험 → 일부 노동자만이지만 세계 첫 공적 보험 → 1879 권력 강화 · 1883 건강 보험 · 1889 연금 · 1884 확대 → 실업 보험은 프랑스, 그래도 첫 복지국가
16	요약문 완성	'공짜'는 없다(91쪽 ¶5~92쪽 ¶1):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 간접세(27% ↔ 14%) → 이용하는 시점에만 무료(NHS)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나라 · 비율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980년대 중반(유학) · 100권 넘게 · 20억 권 · 1866~8(핀란드 기근) · 33%(독일 ↔ 폴란드) · 1871(통일 · 산재 보험) · 1879(철과 호밀의 결혼) · 1883(건강 보험) · 1884(산재 보험 확대) · 1889(연금) · 1878~1888(사회주의자 법) · 1905(프랑스) · 1927(독일 실업 보험) · 2018 · 27% · 14% · 40% · 2.5배 · 17% · 6.8% · 12% · 1930 · 1980 · 2010~16. 1883은 건강 보험, 1884는 산재 보험 확대, 1889는 연금이다. 나라도 많다(터키 · 러시아 · 폴란드 · 독일 · 핀란드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아일랜드 · 스위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러시아 ↔ 폴란드(1인당 소비), 독일 ↔ 프랑스(첫 실업 보험), 진보 세력 ↔ 비스마르크, 금지 ↔ 금지까지는 못함, 27% ↔ 14%, 최고 ↔ 최악의 건강 기록, 마플 ↔ 푸아로, 진한 빵 ↔ 가벼운 빵). 전언 · 단서(it is believed · may (but may not) · sometimes wrongly · Some of you may not be convinced)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Rye」 (88~93쪽)

논증형(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영국 유학과 '추리 소설' → 크리스티와 '호밀이 뭘까' → 호밀 맛보기 · 호밀의 나라 독일 → 철과 호밀의 결혼 → 비스마르크의 또 다른 유산 = 복지국가 → 사회주의를 막으려던 복지 → 좌우의 수용 → '공짜'라는 오해 → 모두가 낸다 → 함께 사는 사회 보험 · 미국 의료 → 결론: 우리의 안전과 번영은 호밀 덕분). 핵심 축은 **복지국가에 대한 통념(진보의 산물 · 공짜) vs 실제(보수주의자의 발명 · 모두가 내는 보험)**, 그리고 **분산된 구매 vs 집단 구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8 [제목]	요리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토마토 살사 + 구운 고등어 / 저자의 요리 · 멸치 액젓 약간
88 ¶1~¶3	영국 유학	1980년대 중반 · 유학 = 미국 / 더 다원적인 영국 경제학 / 둘러댄 대답 = 추리 소설
88 ¶4~89 ¶1	추리 소설	셜록 홈스 · 고전 100권 넘게 / 최고 = 애거사 크리스티(20억 권)
89 ¶2~¶3	호밀이란?	A Pocket Full of Rye · 미스 마플 / homil = '북방 유목민의 밀'
89 ¶4	호밀 맛보기	Ryvita · 펌퍼니켈은 너무 묵직 · 캐러웨이 / 핀란드(1866~8 기근)
89 ¶5~90 첫 줄	호밀의 나라	터키 원산 · 북유럽의 상징 / 러시아 · 폴란드 · 독일(33%)
90 ¶1	철과 호밀의 결혼	비스마르크가 주선한 융커 + 중공업 자본가 동맹
90 ¶2	1879년의 전환	국민자유당을 버림 / 중공업 관세 ↔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90 ¶3	동맹의 결과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영국을 따라잡음 / 비싼 식량은 큰 문제 아님
90 ¶4~¶5	또 하나의 유산	복지국가 / 진보 세력이 아니라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가 처음
90 ¶6~91 첫 줄	최초의 복지국가	1871 산재 보험 · 1883 건강 보험 · 1884 확대 · 1889 연금 / 실업 보험은 프랑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91 ¶1	도입의 까닭	반사회주의자 · 1878~88 사회주의자 법 /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91 ¶2	좌우의 수용	처음엔 사회주의자들이 반대 → 대공황 뒤 좌파 → 2차 대전 뒤 중도 우파도
91 ¶3~¶4	본질에 대한 오해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 · 부자의 세금 · 'welfare scroungers'
91 ¶5~92 ¶1	공짜는 없다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 간접세(27% ↔ 14%) / 이용 시점에만 무료(NHS)
92 ¶2~¶3	사회 보험 묶음	모두가 함께 사는 보험 · 재분배는 주된 역할 아님 / 대량 구매로 싸게
92 ¶4	미국의 의료	GDP 17% · 최악의 건강 기록 / 쪼개진 체계 · Groupon
92 ¶5~93 ¶1	결론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더 역동적으로 / 호밀 덕분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유학지	대부분의 한국인 – 유학 = 미국 유학	저자 – 영국(다원적 경제학 · '추리 소설')
경제학 교육	한국 학부 – 좁고 기술적인 신고전파	당시 영국 – 케인스 · 마르크스 학파 등 더 다원적
유학의 까닭	진짜 까닭 –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환멸	둘러댄 대답 – 최고의 추리 소설이 나오는 나라
좋아하는 탐정	미스 마플 – 날카로운 관찰 · 재치 · 심리 이해	에르큘 푸아로 – 그래도 저자가 가장 좋아함
호밀빵	진한 빵(펌퍼니켈) – 저자 입맛에 너무 묵직	가벼운 빵(특히 캐러웨이 씨) – 아주 좋아함
호밀과 밀	호밀 – 거친 북쪽 기후에서도 자라는 강인한 곡물	밀 – 더 연약한 사촌 · 더 잘 알려짐
철과 호밀의 결혼	융커 – 주로 프로이센의 지주 귀족 · 호밀 생산	중공업 자본가 – 서쪽 라인란트 · 철강
맞교환	중공업 – 뛰어난 영국 생산자에 맞선 관세 보호	융커 – 값싼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보호
복지국가의 기원	통념 – 진보 세력(뉴딜 민주당 · 영국 노동당 · 스칸디나비아 사민당)	사실 –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
사회주의자의 태도	처음 – 노동자를 '매수'해 혁명을 막는 수단이라며 반대	나중 – 개혁 성향이 이겨 확대를 요구(특히 대공황 뒤)
복지국가의 본질	오해 – 부자의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를 줌	저자 – 모두가 내고 함께 대량으로 사는 사회 보험 묶음
의료비	미국 – GDP 17% · 쪼개진 체계 · 최악의 건강 기록	다른 부자 나라 – 6.8%(아일랜드)~12%(스위스) · 더 통합된 체계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Mackerel … rye crispbread ([제목])	(my recipe) /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토마토 살사(파슬리 · 토마토 · 올리브 · 고추 · 멸치 액젓 약간) + 구운 고등어 필레 조각
영국 유학	**1980년대 중반** 대학원 /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인이 의아해함 · 당시 한국인의 유학 = 미국 유학 / 영국 = 쇠퇴하는 나라로 여겨짐 · 한국과 역사적 연결 없음
유학의 까닭	신고전파 경제학에 환멸 · 당시 영국 경제학 = 더 다원적 / 주변 = '경력 자살' / 비경제학자에게 = 'deduction novels'(choori-sosurl의 직역)의 본고장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추리 소설	어린 시절 Arthur Conan Doyle의 셜록 홈스로 입문 / 중등학교 때 고전 **100권 넘게**(Maurice LeBlanc · Ellery Queen · Georges Simenon · Raymond Chandler · G. K. Chesterton 등)
Agatha Christie	저자에게 이 장르의 군주 · **20억 권** 판매 / 거의 반세기 · 여러 번 다시 읽어도 놀람(The ABC Murders ·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등)
A Pocket Full of Rye	미스 마플이 나옴 · 제목은 동요 'Sing a Song of Sixpence'에서 / 93쪽 각주 i: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저자가 좋아하는 작품 · 부당하게 저평가
두 탐정	Miss Marple = 무해해 보이는 미혼 여성 · 날카로운 관찰 · 재치 · 심리 이해 / Hercule Poirot = 오만 ·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만 인정 많은 벨기에 탐정 · 저자가 가장 좋아함
homil	'북방 유목민의 밀' · mil = 밀 · ho = 중앙 · 북아시아 유목민에게서 왔다고 (때로는 잘못) 여기는 것에 붙이는 접두사 / 만주 · 몽골 · 티베트 · 우즈베키스탄 · 터키
영국에서 맛본 호밀	첫 음식 = Ryvita(영국의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고소하고 살짝 신맛 · 대학원생 시절 밤참 / 펌퍼니켈 같은 진한 빵은 너무 묵직 · 가벼운 빵(특히 캐러웨이 씨)을 좋아함
핀란드	소나무 껍질 가루를 섞은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소나무 껍질 가루 = 예전의 기근 음식 ·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기근을 겪은 나라(**1866~8**)
호밀의 나라	원산 = 오늘날의 **터키** · 북유럽 식량 체계의 상징 / 최대 소비국 = **러시아** / 1인당 소비 최대 · 최대 수출국 = **폴란드** / 최대 생산국 = **독일**(폴란드보다 **33%** 많음)
marriage of iron and rye	비스마르크(통일 독일의 첫 총리)가 주선한 동맹 / 융커(주로 프로이센의 지주 귀족) + 중공업 신흥 자본가(서쪽 라인란트)
1879년	**1871년** 통일 이후의 연정 파트너 국민자유당(자유무역 지지)을 버림 / 라인란트 중공업(철강)에 관세 ↔ 융커에게 값싼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미국 곡물	북아메리카 대평원 정착 증가(Little House on the Prairie · 「Okra」) · 대평원에서 동해안 주요 항구로 곡물을 나르는 철도
동맹의 결과	'Iron Chancellor' / 철강 · 기계 · 화학이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영국을 따라잡음 / 식량은 더 비쌌지만 소득이 높아져 큰 문제가 아님
최초의 복지국가	**1871년** 산재 보험(세계 첫 노동자 공적 보험 · 일부 노동자만) / **1883년** 공적 건강 보험 · **1889년** 공적 연금(둘 다 전례 없음) / **1884년** 산재 보험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
실업 보험	세계 첫 실업 보험 = 프랑스 / 93쪽 각주 ii: 독일은 **1927년** · 그 전에 **1905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도입
반사회주의자 비스마르크	**1878~1888년** 사회주의자 법(사회민주당 활동을 크게 제한 · 금지까지는 아님) / 삶의 큰 충격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사회주의에 끌린다고 봄
복지국가의 수용	처음 = 사회주의자(특히 독일)가 반대('매수') / 좌파 = 개혁 성향이 이겨 확대 요구(특히 대공황 뒤) / 2차 대전 뒤 = 유럽 중도 우파도(소련 블록과의 체제 경쟁)
'공짜'라는 오해	'welfare scroungers' = 복지 수급자를 비난하는 영국 표현 / 실제 =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 간접세(부가가치세 · 일반 판매세 · 수입 관세) / 이용 시점에만 무료(영국 NHS)
간접세 부담(영국, 2018)	가장 가난한 **20%** 가구 = 소득의 **27%** · 가장 부유한 **20%** = 약 **14%** / 93쪽 각주 iii: 생활임금 이하를 주고 조세 피난처로 세금을 피하는 기업이라면 예외
미국의 의료비	GDP 대비 다른 부자 나라보다 적어도 **40%** · 많게는 **2.5배** / 17% ↔ 아일랜드 **6.8%**~스위스 **12%** / 보편적 공적 건강 보험이 없는 유일한 부자 나라 · 최악의 건강 기록
복지국가의 성장	93쪽 각주 v: **1930년** GDP의 1~2%(독일 4.8%) → **1980년** 평균 15.4% → 오늘날(**2010~16**) 20.8%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도 확산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Rye」 (원서 PDF 88~93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1-1 영국 유학과 '추리 소설' 88쪽 ¶1 ~ 89쪽 ¶1

원문 위치 원서 88쪽 ¶1 ~ 89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8쪽 [제목]	Mackerel with tomato salsa on rye crispbread (my recipe)	저자 자신의 요리 · 멸치 액젓 약간
★	88쪽 ¶1 첫 문장	When I decided to pursue my graduate studies in Britain in the mid-1980s, most Koreans … were puzzled, to put it mildly	시기 · 독립부정사
★	88쪽 ¶1 둘째 문장	studying abroad for Koreans meant studying in the US	동명사 주어 · 무관한 문장의 출처
▲	88쪽 ¶1 셋째 문장	which was considered to be a country in decline … as my country had been deemed unworthy of the British Empire's famously acquisitive attention	과거완료 수동 · 저자의 재치
★	88쪽 ¶2 첫 문장	I was disillusioned by the rather narrow, technical Neoclassical economics	유학의 진짜 까닭 · 어법 (A)
▲	88쪽 ¶2 둘째 문장	a more pluralistic approach to economics than did their US counterparts	than 뒤 도치 · 어법 (B)
◆	88쪽 ¶3 첫 문장	I was committing career suicide – even before it had begun	비유 · 과거완료
★	88쪽 ¶3 둘째 문장	a pat answer … 'deduction novels' – the literal translation of choori-sosurl	둘러댄 대답
▲	88쪽 ¶3 셋째 문장	This seemed to stop most people from asking any further questions, even if I could tell that they thought me weird	stop + O + from -ing · 어법 (C)
★	88쪽 ¶4 첫~둘째 문장	the Sherlock Holmes stories of Arthur Conan Doyle … 'The Red-Headed League'	인물 · 작품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8쪽 ¶4 셋째 문장(89쪽 첫 줄까지)	I read over one hundred classic 'deduction novels'	숫자
★	89쪽 ¶1 첫 문장	The undisputed monarch of the genre … Agatha Christie … her two billion book sales providing proof	숫자 · 독립분사구문
▲	89쪽 ¶1 둘째 문장	I still get jolts from the paradigm-shifting plot devices and narratives of Christie classics	반세기 뒤에도 — 일치

내용

1980년대 중반 저자가 영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기로 했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인은 좋게 말해 어리둥절해했다. 당시 한국인에게 유학이란 곧 미국 유학이었다(조금 덜하긴 해도 지금도 그렇다). 다른 나라, 특히 영국에는 그냥 가지 않았다. 영국은 쇠퇴하는 나라로 여겨졌고, 한국과 역사적 연결도 없었다(저자의 나라는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 들기로 유명한 대영제국의 관심조차 받을 만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저자가 영국을 고른 것은 한국의 학부 과정에서 배우던, 꽤 좁고 기술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안타깝게도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영국의 경제학과들은 케인스 학파 · 마르크스 학파와 다른 학파를 가르치며 미국의 경제학과들보다 더 다원적으로 경제학에 접근했으므로, 저자에게는 영국이 경제학을 더 넓게 공부하기에 더 좋은 곳으로 보였다. 이 까닭을 들은 경제학자 · 교사 · 친구들 대부분은 저자가 경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력 자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경제학자들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저자는 왜 가느냐고 물으면 준비해 둔 대답을 했다. 자신은 '추리 소설'(detective novels를 가리키는 한국어 choori-sosurl을 직역한 'deduction novels')의 열렬한 팬이고, 최고의 추리 소설이 나오는 곳이 영국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별나다고 여기는 것이 보이긴 했지만, 이 대답에 대부분은 더 묻지 않았다. 저자는 어린 시절 아서 코넌 도일의 셜록 홈스 이야기로 추리 소설을 처음 접했다. 'The Red-Headed League' 같은 단편은 기발한 줄거리로 저자를 놀라게 했고, The Sign of Four ·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같은 장편의 끔찍한 장면은 저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중등학교 때는 모리스 르블랑(그의 아르센 뤼팽 이야기는 넷플릭스 시리즈 Lupin으로 멋지게 되살아나고 있다), 엘러리 퀸, 조르주 심농, 레이먼드 챈들러, G. K. 체스터턴 등의 고전 '추리 소설'을 100권 넘게 읽었다. 그러나 저자에게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듯) 이 장르의 이론의 여지 없는 군주는 애거사 크리스티이며, 20억 권의 판매 부수가 그 증거다. 해가 지나며 저자는 존 르 카레 · 요 네스뵈 · 안드레아 카밀레리 · 프레드 바르가스 같은 작가의 작품을 탐독하며 고전 퍼즐형 추리 소설보다 넓은 범죄 · 첩보 소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도 거의 반세기가 지나 여러 번 다시 읽은 뒤에도 The ABC Murders ·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 4:50 from Paddington · And Then There Were None · Five Little Pigs 같은 크리스티의 고전에서 판을 뒤집는 장치와 서술에 여전히 깜짝 놀란다.

어법

- **most Koreans, including my parents, were puzzled, to put it mildly** : to put it mildly = 독립부정사(좋게 말해서). puzzled = 감정을 느끼는 쪽이라 과거분사. including my parents = 삽입된 전치사구.
- **At the time (as it still does, albeit a little less), studying abroad for Koreans meant studying in the US** : 동명사 주어(studying abroad) → 단수 동사 meant. mean + 동명사 = ~을 뜻하다. does = means studying in the US를 대신하는 대동사. albeit = 비록 ~이지만(뒤에 구).
- **Britain, which was considered to be a country in decline and didn't even have any historical links with Korea (as my country had been deemed unworthy of …)** : 계속적 which의 동사 was considered · didn't have가 and로 병렬. as = 이유. had been deemed = 과거완료 수동(deem + O + 형용사의 수동).

- **I was disillusioned by the rather narrow, technical Neoclassical economics I was being taught** : be disillusioned by = ~에 환멸을 느끼다(수동). economics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as being taught = 과거진행 수동.
- **British economics departments offered a more pluralistic approach to economics than did their US counterparts** : than 뒤 대동사 did + 주어 도치(= than their US counterparts did). did = offered를 대신한다.
- **most of them told me that I was committing career suicide – even before it had begun** : before + 과거완료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경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it = career.
- **This seemed to stop most people from asking any further questions, even if I could tell that they thought me weird** : stop + O + from -ing = O가 ~하지 못하게 하다(from 뒤 동명사; to ask는 오답). think + O + 형용사(weird). even if = 양보.
- **The undisputed monarch of the genre for me, however, was Agatha Christie – as she is for many people – her two billion book sales providing proof** : 대시 뒤 = 독립분사구문(의미상 주어 her two billion book sales + providing). as she is =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듯.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ursue	추구하다, (공부를) 밟다	follow	abandon
puzzled	어리둥절한	baffled	—
albeit	비록 ~이지만	although	—
decline (n.)	쇠퇴	downturn	rise
deem	여기다	consider	—
unworthy	~할 가치가 없는	undeserving	worthy
acquisitive	손에 넣으려 드는, 탐욕스러운	greedy	—
disillusioned	환멸을 느낀	disenchanted	—
pluralistic	다원적인	diverse	—
counterpart	(대응하는) 상대	equivalent	—
pat (a.)	준비된, 판에 박힌	glib	—
ingenuity	기발함, 독창성	inventiveness	—
undisputed	이론의 여지가 없는	unchallenged	disputed
devour	탐독하다	consume	—

내용 일치 1980년대 중반 영국 대학원 ·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인이 의아해함 · 당시 유학 = 미국 유학 · 영국 = 쇠퇴하는 나라 · 한국과 역사적 연결 없음 / 진짜 까닭 = 좁고 기술적인 신고전파에 대한 환멸 · 당시 영국 경제학은 더 다원적(케인스 · 마르크스 등) · 주변에서는 '경력 자살' / 비경제학자에게 = '추리 소설'(choori-sosurl의 직역 deduction novels) 대답 · 대부분 더 묻지 않음 / 어린 시절 셜록 홈스로 입문 · 중등학교 때 고전 100권 넘게 · 최고 = 크리스티(20억 권) · 반세기가 지나도 놀람. **밑줄 의미** to put it mildly = '어리둥절' 정도로는 부족할 만큼 놀랐다 / committing career suicide – even before it had begun = 시작도 하기 전에 경력을 망치는 선택 / a pat answer =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대답 / unworthy of the British Empire's famously acquisitive attention = 무엇이든 탐내던 대영제국조차 탐내지 않았다는 저자의 비꼼 / 지칭: 88쪽 ¶1 my country = 한국 / 88쪽 ¶2 their US counterparts = 미국의 경제학과들 / 88쪽 ¶3 this reason = 다원적 경제학 · them = 경제학자 · 교사 · 친구들 · it(had begun) = career · they(asked · thought) = 비경제학자들 / 88쪽 ¶4 his = 코넌 도일의 · their plots = 단편들의 / 89쪽 ¶1 she · her = 크리스티.

한 줄 요약 1980년대 중반 미국 대신 영국 유학을 고른 저자는 진짜 까닭인 다원적 경제학 대신 '추리 소설'을 둘러댔고, 그가 가장 아끼는 작가는 애거사 크리스티다.

11-2 호밀이란 무엇인가 – 추리 소설에서 독일까지 89쪽 ¶2 ~ 90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89쪽 ¶2 ~ 90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9쪽 ¶2 첫 문장	Among my favourite Agatha Christie stories was A Pocket Full of Rye, featuring Miss Marple	전치사구 도치 · 작품
◆	93쪽 각주 i	This is not one of the most well-known of her works … I think it is unfairly undervalued	저자의 평가
▲	89쪽 ¶2 첫 문장	the harmless-looking spinster whose shrewd observation, sharp wit and profound understanding … make her a most formidable sleuth	whose · make + O + 명사
★	89쪽 ¶2 첫 문장(괄호)	although Hercule Poirot … is still my favourite	가장 좋아하는 탐정 — 마플 함정
▲	89쪽 ¶2 셋째 문장	Never mind the nonsensical nature of the nursery rhyme, 'Sing a Song of Sixpence', from which the title is derived	전치사 + 관계대명사
★	89쪽 ¶3 첫 문장	Homil means 'northern nomads' wheat' – mil meaning wheat and ho being a prefix	독립분사구문 · 빈칸 문항
◆	89쪽 ¶3 첫 문장	anything that we think (sometimes wrongly) came from nomadic peoples of Central and Northern Asia	삽입절 · 단서 sometimes wrongly
★	89쪽 ¶3 둘째 문장	So I knew that rye is something similar to wheat … never having eaten anything made with the grain	빈칸 1순위 · 완료 분사구문의 부정
★	89쪽 ¶4 둘째 문장	Ryvita, the British rye crispbread, was the first thing I got to try	내용 불일치 문항
▲	89쪽 ¶4 다섯째 문장	I found dark rye breads, like the German pumpernickel, a bit too dense … but loved the lighter ones, especially those with caraway seeds	find + O + 형용사 · 불일치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9쪽 ¶4 여섯째 문장	pine bark flour (which used to be a famine food; Finland is actually the last European country to have experienced famine – during 1866–8)	숫자 · 완료 부정사
★	89쪽 ¶5 첫 문장	Rye is originally from modern-day Turkey … a hardy grain … where its more delicate cousin wheat cannot	원산지 · 생략
★	89쪽 ¶5 둘째 문장	Russia claims the title of the biggest consumer … Poland has the highest per capita consumption and is also the biggest exporter	일치 1순위
★	90쪽 첫 줄(89쪽 ¶5 셋째 문장)	the world champion of rye is Germany, producing the largest amount …, 33% more than … Poland	숫자
▲	90쪽 첫 줄(89쪽 ¶5 넷째 문장)	Rye is so important for Germany that it even features prominently in its historiography	so ~ that · 다음 유닛으로 잇는 고리

내용

저자가 좋아한 크리스티 작품 가운데 하나는 A Pocket Full of Rye였다(93쪽 각주 i: 크리스티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저자가 좋아하는 작품이며,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는 미스 마플이 나온다. 무해해 보이는 미혼 여성이지만 날카로운 관찰력, 예리한 재치,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에 매우 만만찮은 탐정이다(그래도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탐정은 멋진 콧수염을 기른, 오만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만 인정 많은 벨기에 탐정 에르큘 푸아로다). 이야기도 기발했지만 저자는 제목에도 호기심을 느꼈다. (크리스티의 다른 여러 제목처럼) 제목을 따온 동요 'Sing a Song of Sixpence'가 터무니없다는 점은 제쳐 두더라도, 호밀(rye), 한국어로 homil이란 무엇일까? homil은 '북방 유목민의 밀'이라는 뜻이다. mil은 밀이고, ho는 중앙 · 북아시아 유목민에게서 왔다고 한국인이 (때로는 잘못) 여기는 것이면 무엇에나 붙이는 접두사다. 만주에서 몽골과 티베트를 거쳐 우즈베키스탄과 터키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호밀이 밀과 비슷한 무엇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곡물로 만든 것을 먹어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다. 영국에 가자 저자는 호밀을 먹어 봐야 했다. 가장 좋아하는 추리 소설 가운데 하나에서 핵심 장치인 곡물을 계속 모르고 지낼 수는 없었다. 처음 맛본 것은 영국의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Ryvita였다. 고소하고 살짝 신 호밀 맛이 아주 좋아, 대학원생 시절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밤참으로 자주 먹었다. 이어 여러 호밀빵을 맛보았는데, 독일의 펌퍼니켈 같은 진한 호밀빵은 저자 입맛에 좀 너무 묵직했지만 더 가벼운 빵, 특히 캐러웨이 씨를 넣은 빵은 아주 좋아했다. 나중에 핀란드를 방문하면서는 핀란드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특히 소나무 껍질 가루를 섞은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소나무 껍질 가루는 예전에 기근 때 먹던 음식으로, 핀란드는 실제로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기근(1866~8)을 겪은 나라다. 그 빵을 먹으면 조금 쌀쌀한 북쪽 숲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호밀은 원래 오늘날의 터키에서 왔지만, 더 연약한 사촌인 밀이 자라지 못하는 거친 북쪽 기후에서도 자라는 강인한 곡물로서 북유럽 식량 체계의 상징이 되었다. 러시아가 최대 소비국이고, 폴란드는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으며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밀의 세계 챔피언은 독일로, 2위 생산국 폴란드보다 33% 많은,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한다. 호밀은 독일에 너무 중요해서 독일의 역사 서술에서도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어법

- **Among my favourite Agatha Christie stories was A Pocket Full of Rye, featuring Miss Marple** : 전치사구(Among ...) + 동사 + 주어 도치. 주어가 작품 하나이므로 was. featuring = ~이 나오는(분사구).
- **the harmless-looking spinster whose shrewd observation, sharp wit and profound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make her a most formidable sleuth**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셋(and)이라 make. make + O + 명사(보어). a most + 형용사 = 매우 ~한(최상급이 아니다).
- **Never mind the nonsensical nature of the nursery rhyme, ..., from which the title is derived** : Never mind ~ = ~은 제쳐 두고. from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be derived from에서 from이 앞으로 나왔다).
- **Homil means 'northern nomads' wheat' – mil meaning wheat and ho being a prefix that we Koreans put on anything that we think (sometimes wrongly) came from nomadic peoples** : 독립분사구문 두 개(mil meaning · ho being). anything that we think came from ~ = 관계대명사 that이 삽입절 we think 뒤 came의 주어.
- **I had no idea what it actually was, never having eaten anything made with the grain** : 완료 분사구문의 부정(never + having p.p.) = 먹어 본 적이 없어서(이유). no idea 뒤 간접의문문 what it actually was. made with = anything을 꾸미는 과거분사.
- **a hardy grain that grows in the harsh northern climes where its more delicate cousin wheat cannot**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climes). cannot 뒤 grow 생략. its more delicate cousin과 wheat는 동격.
- **Finland is actually the last European country to have experienced famine – during 1866–8** : the last + 명사 + to V = 마지막으로 ~한. to have p.p. = 완료 부정사(이미 지난 1866~8년의 일).
- **Rye is so important for Germany that it even features prominently in its historiography** :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feature (v.) = 등장하다(자동사). its = 독일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pinster	미혼 여성(예스러운 말)	—	—
shrewd	날카로운, 기민한	astute	naive
formidable	만만찮은	redoubtable	feeble
sleuth	탐정	detective	—
intrigue (v.)	호기심을 자아내다	fascinate	bore
nonsensical	터무니없는	absurd	sensible
prefix	접두사	—	suffix
nomadic	유목의	wandering	settled
swath	넓은 지역	expanse	—
dense	(빵이) 묵직한, 빽빽한	heavy	light
famine	기근	starvation	abundance
hardy	강인한, 잘 견디는	robust	delicate
per capita	1인당	per person	—
historiography	역사 서술	—	—

내용 일치 A Pocket Full of Rye = 미스 마플이 나옴 · 제목은 동요 'Sing a Song of Sixpence'에서 · 93쪽 각주 i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자가 좋아함 · 부당하게 저평가 / 미스 마플 = 무해해 보이는 미혼 여성 · 날카로운 관찰 · 재치 · 심리 이해 · 가장

좋아하는 탐정은 푸아로 / homil = '북방 유목민의 밀' · ho = 유목민에게서 왔다고 (때로는 잘못) 여기는 것에 붙임 / Ryvita가 처음 · 고소하고 살짝 신맛 · 밤참 · 진한 펌퍼니켈은 너무 묵직 · 가벼운 빵(캐러웨이 씨) 좋아함 · 핀란드 소나무 껍질 가루(기근 음식) · 1866~8 기근 / 터키 원산 · 북유럽의 상징 · 러시아 최대 소비 · 폴란드 1인당 소비 · 수출 1위 · 독일 생산 1위(폴란드보다 33% 많음). **밑줄 의미** a key plot device = 호밀이 이 추리 소설의 핵심 장치 / burning the midnight oil =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 make you feel like you are standing in a slightly chilly northern forest = 소나무 껍질 맛이 북쪽 숲을 떠올리게 한다 / its more delicate cousin wheat = 밀은 호밀보다 추위에 약한 친척 곡물 / 지칭: 89쪽 ¶2 her(make her) = 미스 마플 · the title = A Pocket Full of Rye의 제목 / 89쪽 ¶3 it(what it actually was) = rye · the grain = 호밀 / 89쪽 ¶4 it(ate it) = Ryvita(호밀) · the ones · those = 크리스프브레드 · 호밀빵 / 89쪽 ¶5 it(has come to symbolize) · its = 호밀 / 90쪽 첫 줄 it(features) = 호밀 · its historiography = 독일의.

> **한 줄 요약** 크리스티의 소설 제목 속 호밀이 궁금했던 저자는 영국에서 호밀을 맛보았고, 터키에서 온 이 강인한 곡물은 북유럽의 상징이자 독일 역사에 두드러지는 작물이 되었다.

11-3 철과 호밀의 결혼 90쪽 ¶1 ~ ¶3

원문 위치 원서 90쪽 ¶1 ~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0쪽 ¶1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is the nickname for the political alliance brokered by Otto von Bismarck, the first chancellor of unified Germany	별명 · 인물
★	90쪽 ¶1	between the Junkers, the landed nobility mainly based in Prussia, and the newly emerging capitalists in 'heavy' industries, concentrated in the Rhineland	동맹의 두 축 — 지칭 문항
★	90쪽 ¶2 첫 문장	In 1879, Bismarck ditched his longstanding coalition partner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of 1871, the National Liberals, who supported, among other things, free trade	숫자 · 1871 ↔ 1879
▲	90쪽 ¶2 둘째 문장	He forged a new protectionist power bloc by getting the politically powerful rye-producing Junkers accept tariff protection	by + 동명사 · get + O + (to) V(원서 표기)
★	90쪽 ¶2 둘째 문장	the Rhenish heavy industries, like iron and steel, then struggling against superior British producers	관세가 필요했던 까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0쪽 ¶2 셋째 문장	he offered the Junkers tariff protection against cheap American grains that were beginning to flood into the European markets	맞교환 — 지칭 ④
★	90쪽 ¶2 셋째 문장	the increased settlement of the North American prairie (think … Little House on the Prairie – also see 'Okra') and the development of railways	미국 곡물의 두 까닭 · 「Okra」
◆	90쪽 ¶3 첫 문장	brokered by the 'Iron Chancellor', propelled the German economy to new heights	별명 · 어휘 ①
★	90쪽 ¶3 둘째 문장	to grow behind protective walls and eventually catch up with the leading producers in Britain	어휘 문항 ②③
▲	90쪽 ¶3 둘째 문장	even though it meant more expensive food than would have been under free trade in agriculture	가정의 비교 · 어휘 ④(expensive ↔ cheaper)
◆	90쪽 ¶3 둘째 문장(괄호)	(but then most people had a higher income …, so higher food prices did not matter much)	저자의 단서

내용

'철과 호밀의 결혼'은 통일 독일의 첫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주선한 정치 동맹의 별명이다. 이 동맹은 주로 프로이센에 기반을 둔 지주 귀족인 융커(Junkers)와, 서쪽 라인란트에 몰려 있던 '중'공업의 신흥 자본가를 묶었다. 1879년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오래 함께해 온 연정 파트너로서 무엇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던 국민자유당을 버렸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센, 호밀을 생산하는 융커가, 당시 뛰어난 영국 생산자들에 맞서 고전하던 라인란트의 철강 같은 중공업에 대한 관세 보호를 받아들이게 해 새로운 보호주의 권력 블록을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 비스마르크는 융커에게, 유럽 시장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값싼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보호를 내주었다. 미국 곡물이 밀려든 것은 북아메리카 대평원에 정착이 늘고(1970년대 미국 드라마 Little House on the Prairie를 떠올려 보라 — 「Okra」 참조), 대평원의 곡물을 동해안의 주요 항구로 실어 나를 철도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철의 재상(Iron Chancellor)'이 주선한, 호밀 생산자와 철 생산자의 이 동맹은 독일 경제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덕분에 철강 · 기계 · 화학 같은 새 중공업은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마침내 영국의 선도 생산자들을 따라잡았다. 농업이 자유무역이었다면 그랬을 것보다 식량이 비싸졌지만, 독일의 산업화가 더 성공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더 높은 소득을 얻었으므로 높은 식량 가격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어법

- **the political alliance brokered by Otto von Bismarck, …, between the Junkers, …, and the newly emerging capitalists in 'heavy' industries** : brokered = alliance를 꾸미는 과거분사. between A and B의 A · B 뒤에 각각 동격 설명이 끼었다.

- **Bismarck ditched his longstanding coalition partner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of 1871, the National Liberals, who supported, among other things, free trade** : the National Liberals = 앞 명사구와 동격. who = 계속적 용법. among other things = 삽입(여러 가운데서도).
- **He forged a new protectionist power bloc by getting the politically powerful rye-producing Junkers accept tariff protection** : by + 동명사 = 수단. '~하게 하다'의 get은 get + O + to V가 표준 어법인데 원서는 to 없이 accept로 적었다(원서 표기).
- **the Rhenish heavy industries, like iron and steel, then struggling against superior British producers** : then struggling = (which were) then struggling — 당시 ~하고 있던(분사구). superior는 그 자체로 비교의 뜻이라 more를 붙이지 않는다.
- **cheap American grains that were beginning to flood into the European markets, thanks to the increased settlement … and the development of railways that could bring the grains …** :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두 번. thanks to 뒤에 명사구 두 개(settlement · development)가 and로 병렬.
- **This alliance between the rye producers and the iron producers, brokered by the 'Iron Chancellor', propelled the German economy to new heights** : 주어(This alliance …) + 삽입된 과거분사구 + 동사 propelled. propel A to B = A를 B로 밀어 올리다.
- **It allowed the new heavy industries – iron, steel, machinery, chemicals – to grow behind protective walls and eventually catch up with the leading producers in Britain** : allow + O + to V. to grow와 (to) catch up이 and로 병렬. It = 앞 문장의 동맹.
- **even though it meant more expensive food than would have been under free trade in agriculture** : than would have been ~ = 사실과 반대되는 경우와의 비교(농업이 자유무역이었다면 그랬을 것보다). even though = 양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lliance	동맹	coalition	rivalry
broker (v.)	주선하다, 중재하다	arrange	—
landed	땅을 가진	propertied	landless
nobility	귀족(계급)	aristocracy	commoners
ditch (v.)	버리다	abandon	keep
forge (v.)	(관계를) 만들어 내다	build	break
protectionist	보호무역주의의	—	free-trade
tariff	관세	duty	—
superior	뛰어난	better	inferior
flood into	~로 밀려들다	pour into	—
settlement	정착	colonization	—
propel	밀어 올리다, 나아가게 하다	drive	hinder
catch up with	따라잡다	draw level with	fall behind
industrialization	산업화	—	deindustrialization

내용 일치 '철과 호밀의 결혼' = 비스마르크(통일 독일의 첫 총리)가 주선한 동맹 · 융커(주로 프로이센의 지주 귀족) + 중공업 신흥 자본가(서쪽 라인란트) / 1879 = 1871년 통일 이후의 연정 파트너 국민자유당(자유무역 지지)을 버림 · 융커가 라인란트 중공업(철강)의 관세를 받아들이게 함 · 대가로 융커에게 값싼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 미국 곡물 = 대평원 정착 증가 · 동해안

항구로 가는 철도 / 결과 = 독일 경제를 새 높이로 · 철강 · 기계 · 화학이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영국을 따라잡음 · 식량은 더 비쌌지만 소득이 높아져 큰 문제 아님. **밑줄 의미**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 철(중공업 자본가)과 호밀(융커 지주)의 정치적 결합 / grow behind protective walls = 관세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다 / propelled the German economy to new heights = 독일 경제를 크게 끌어올렸다 / so higher food prices did not matter much = 소득이 더 올라 비싼 식량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저자의 단서 / 지칭: 90쪽 ¶2 his(coalition partner) · He · he = 비스마르크 · who = 국민자유당 · that(were beginning) = 미국 곡물 · that(could bring) = 철도 / 90쪽 ¶3 It(allowed) · it(meant) = 동맹(곡물 관세를 포함한 맞교환).

> **한 줄 요약** 1879년 비스마르크는 호밀을 기르는 융커와 중공업 자본가를 서로의 관세로 묶었고, 이 '철과 호밀의 결혼' 덕분에 독일 중공업은 보호 속에서 자라 영국을 따라잡았다.

11-4 골수 보수주의자가 세운 첫 복지국가 90쪽 ¶4 ~ 91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90쪽 ¶4 ~ 91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0쪽 ¶4 둘째 문장	There is another legacy of his that has had even an bigger impact – and far beyond Germany: the establishment of the welfare state	전환 · 원서 표기 an bigger
★	90쪽 ¶5	Many people think that the welfare state is the product of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like the New Deal Democrats …	통념 — 제목 1순위
★	90쪽 ¶5	but it actually was the arch-conservative Bismarck who created it first	It was ~ who 강조 · 사실
★	90쪽 ¶6 첫 문장	In 1871, soon after unifying Germany, which had until then been divided into dozens of political entities (around 300 …)	숫자 · 순서 문항의 주어진 글
▲	90쪽 ¶6 첫 문장	an insurance programme protecting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현재분사의 뒤 수식
★	90쪽 ¶6 둘째 문장	Although it covered only a limited range of workers, rather than being a universal scheme, it was the world's first public insurance for working people	순서 (B)
★	90쪽 ¶7 첫 문장	Once he consolidated his power with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in 1879 … public health insurance in 1883 and a public pension in 1889	숫자 1순위 · 순서 (C)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첫 줄(90쪽 ¶7 둘째 문장)	In 1884, he extended his earlier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to cover all workers	1884 — 연도 함정
★	91쪽 첫 줄(90쪽 ¶7 셋째 문장)	Germany didn't quite manage to introduce the first-ever unemployment insurance (that honour goes to France)	독일 ↔ 프랑스 함정 · 순서 (A)
◆	93쪽 각주 ii	Germany introduced unemployment insurance in 1927 ... starting with France in 1905	숫자
★	91쪽 첫 줄	but Bismarck can be credited for establishing the first welfare state in history	결론

내용

비스마르크의 유산은 독일 중공업의 발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영향을, 그것도 독일을 훨씬 넘어서 끼친 유산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복지국가의 수립이다. 많은 사람은 복지국가가 미국의 뉴딜 민주당, 영국 노동당,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당 같은 '진보' 정치 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국가를 처음 만든 사람은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였다. 1871년, 그때까지 수십 개(18세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 300개)의 정치 단위로 나뉘어 있던 독일을 통일한 직후,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를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가 아니라 일부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것은 노동하는 사람을 위한 세계 최초의 공적 보험이었다. 1879년 '철과 호밀의 결혼'으로 권력을 굳히자 비스마르크는 복지 정책을 더 서둘러, 1883년 공적 건강 보험을, 1889년 공적 연금을 도입했다. 둘 다 세계 어디에도 전례가 없던 것이다. 1884년에는 앞서 만든 산재 보험을 모든 노동자로 넓혔다. 독일은 현대 복지국가의 또 다른 핵심인 실업 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그 영예는 프랑스에 돌아간다(93쪽 각주 ii: 독일은 1927년에 실업 보험을 도입했는데, 그때는 1905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미 여러 나라가 도입한 뒤였다). 그래도 비스마르크는 역사상 최초의 복지국가를 세운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

어법

- **Bismarck's legacy didn't end with the development of German heavy industries** : end with ~ = ~으로 끝나다. 부정문이므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 다음 문장에서 또 다른 유산을 꺼낸다.
- **There is another legacy of his that has had even an bigger impact – and far beyond Germany: the establishment of the welfare state** : a legacy of his = 이중 소유격. even + 비교급 = 훨씬 더. 원서 표기 an bigger(보통은 a bigger). 콜론 뒤 = legacy의 내용.
- **it actually was the arch-conservative Bismarck who created it first** : It was ~ who ... 강조 구문(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라 who). 앞 절의 통념(진보 세력)과 맞선다.
- **soon after unifying Germany, which had until then been divided into dozens of political entities** : after + 동명사(의미상 주어 = Bismarck). had been divided = 과거완료 수동(통일 이전까지 이어진 상태).
- **Although it covered only a limited range of workers, rather than being a universal scheme, it was the world's first public insurance for working people** : Although = 양보. rather than + 동명사 = ~이 아니라. 두 it = 1871년의 보험 제도.
- **Once he consolidated his power ..., Bismarck accelerated his push for welfare measures and introduced public health insurance in 1883 and a public pension in 1889 – both unprecedented anywhere in the world** : Once = ~하자(접속사). 대시 뒤 both unprecedented = 앞의 두 제도를 덧붙여 설명하는 형용사구.

- **In 1884, he extended his earlier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to cover all workers** : extend A to V = A를 넓혀 ~하게 하다. earlier = 1871년에 만든 것을 가리킨다.
- **Bismarck can be credited for establishing the first welfare state in history** : be credited for -ing = ~한 공로를 인정받다(조동사 + 수동). for 뒤 동명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gacy	유산	heritage	—
progressive	진보적인	reformist	conservative
arch-conservative	골수 보수주의자(의)	reactionary	—
unify	통일하다	unite	divide
entity	독립체, 단위	unit	—
universal	보편적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comprehensive	selective
scheme	제도	programme	—
consolidate	굳히다, 강화하다	strengthen	weaken
accelerate	서두르다, 가속하다	speed up	slow down
unprecedented	전례 없는	unheard-of	commonplace
extend	넓히다, 확대하다	expand	restrict
pension	연금	—	—
keystone	핵심, 요체	cornerstone	—
credit (v.)	(공로를) 인정하다	acknowledge	—

내용 일치 비스마르크의 또 다른 유산 = 복지국가(독일을 훨씬 넘어선 영향) / 통념 = 진보 세력(뉴딜 민주당 · 영국 노동당 · 스칸디나비아 사민당)의 산물 · 사실 =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가 처음 / 1871 = 통일 직후(그전엔 수십 개, 18세기엔 약 300개 단위) · 산재 보험 · 일부 노동자만 · 세계 첫 노동자 공적 보험 / 1879 권력 강화 → 1883 공적 건강 보험 · 1889 공적 연금(전례 없음) · 1884 산재 보험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 / 첫 실업 보험 = 프랑스(1905) · 독일 1927(각주 ii) / 그래도 역사상 첫 복지국가. **밑줄 의미** even an bigger impact – and far beyond Germany = 중공업보다 더 크고, 독일 밖까지 퍼진 영향 / the arch-conservative Bismarck = 진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제도를 보수의 상징이 만들었다는 반전 / that honour goes to France = 첫 실업 보험의 영예는 프랑스의 것 / 지칭: 90쪽 ¶4 his = 비스마르크의 / 90쪽 ¶5 it(created it) = the welfare state / 90쪽 ¶6 which = Germany · it(covered · was) = 1871년의 산재 보험 / 90쪽 ¶7 he · his = 비스마르크 · both = 건강 보험과 연금 / 91쪽 첫 줄 another keystone = 실업 보험.

> **한 줄 요약** 복지국가는 진보 세력이 아니라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가 1871년 산재 보험에서 시작해 건강 보험 · 연금으로 넓히며 처음 세운 것이다.

11-5 사회주의를 막으려던 복지, 그리고 '공짜'라는 오해 91쪽 ¶1 ~ 92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91쪽 ¶1 ~ 92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1 첫~둘째 문장	Bismarck didn't introduce the welfare state because he was a 'socialist' … He was a famous anti-socialist	not ~ because — 부정의 범위
★	91쪽 ¶1 셋째 문장	Between 1878 and 1888, he maintained the so-called anti-socialist laws … although they fell short of banning the party altogether	숫자 · 금지 ↔ 금지까지는 못함
▲	91쪽 ¶1 넷째 문장	unless workers were given protection against major shocks of life …, they would be attracted to socialism	unless · 시제 일치
◆	91쪽 ¶1 다섯째 문장	in order to keep socialism at bay	밑줄 의미 1순위
★	91쪽 ¶2 첫~둘째 문장	many socialists, especially in Germany, were against the welfare state in the beginning … 'buying off' workers	어법 문항 ①
★	91쪽 ¶2 셋째 문장	reformist tendencies beat revolutionary ones … especially following the Great Depression	어법 문항 ②③
★	91쪽 ¶2 넷째 문장	they realized that giving security to ordinary citizens was vital for achieving political stability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 어법 ⑤
◆	91쪽 ¶3	It is not just in terms of its origin that the welfare state is misunderstood. So is its very nature.	강조 구문 · So + V + S — 전환
★	91쪽 ¶4 첫 문장	The most common misunderstanding … is that its main function is to give 'free' stuff to poorer people	문장 삽입 문항
◆	91쪽 ¶4 둘째 문장	These 'freebies' are, it is believed, paid for by the taxes that richer people pay	전언(it is believed) — 주어진 문장
★	91쪽 ¶4 셋째 문장	a vehicle for poorer people to free-ride on richer people … 'welfare scroungers'	통념의 표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5 첫~둘째 문장	However, welfare benefits are not free. Everyone pays for them.	요약문 (A) · (B)
★	91쪽 ¶5 셋째~다섯째 문장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income tax … 'indirect taxes'	세 가지 부담
★	92쪽 첫 줄	in the UK, as of 2018, the poorest 20% of households paid 27% of their income in indirect taxes, while the richest 20% paid only about 14%	숫자 1순위

내용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를 도입한 것은 그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요즘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소리를 듣기 쉽지만, 그는 이름난 반사회주의자였다. 1878년부터 1888년까지 그는 이른바 사회주의자 법을 유지해 사회민주당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다만 당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가 삶의 큰 충격(산업 재해 · 질병 · 노령 · 실업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사회주의에 끌릴 것임을 절실히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비스마르크는 요즘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적'이라고 여기는 그 복지 제도들을,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시작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자, 특히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에 복지국가에 반대했다. 그들은 복지국가를, 노동자를 '매수해'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좌파 운동 안에서 개혁 성향이 혁명 성향을 이겼고, 좌파 정당들은 특히 대공황 뒤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고 그 확대를 적극 요구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유럽의 많은 중도 우파 정당까지 복지국가를 받아들였다. 특히 소련 블록 나라들과의 체제 경쟁 앞에서, 보통 시민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오해받는 것은 기원만이 아니다. 그 본질도 오해받는다. 가장 흔한 오해는 복지국가의 주된 기능이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 지원 · 연금 · 주거 보조금 · 의료 · 실업 수당 같은 '공짜'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공짜'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고들 믿는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무임승차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며, 이런 생각은 복지 수급자를 비난하는 데 쓰이는, 점점 흔해지는 영국 표현 'welfare scroungers'(복지에 빌붙는 사람들)에 드러난다. 그러나 복지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모두가 그 값을 낸다. 사람들이 받는 복지 혜택의 상당수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내는 '사회보장' 기여금, 곧 노령 · 실업 같은 일에 대비한 특정 공적 보험 제도에 묶인 납부금으로 마련된다. 또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세를 낸다('균일세'를 매기는 나라가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소득에서 더 낮은 비율을 소득세로 내지만). 게다가 소득세나 사회 보장 기여금을 면제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 일반 판매세 · 수입 관세 같은 '간접세'를 낸다. 실제로 이 세금들은 비율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무겁다. 예를 들어 2018년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20% 가구는 소득의 27%를 간접세로 냈지만, 가장 부유한 20%는 약 14%만 냈다.

어법

- **Bismarck didn't introduce the welfare state because he was a 'socialist', as anyone supporting the welfare state is apt to be called these days** : not ~ because … = …라서 ~한 것은 아니다(부정이 because절에 걸린다). as = '~처럼'(관계사적 as). be apt to V = ~하기 쉽다. supporting = anyone을 뒤에서 꾸미는 현재분사.
- **But he was acutely aware that, unless workers were given protection against major shocks of life …, they would be attracted to socialism** : unless = if not. 주절이 과거(was aware)라 that절도 과거 시제(were given · would be)로 맞췄다. give + O + O의 수동 = be given + O.
- **Bismarck initiated those welfare schemes that many people these days consider 'socialist' in order to keep socialism at bay** : consider + O + 보어에서 O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앞에 나갔다. in order to V = 목적. keep ~ at bay = ~을 막다.

- **They saw it as a way of 'buying off' workers and stopping them from overthrowing capitalism** : see A as B = A를 B로 보다. of 뒤 동명사 두 개(buying off · stopping) 병렬. stop + O + from -ing.
- **as they realized that giving security to ordinary citizens was vital for achieving political stability** : 동명사 주어(giving security …)는 단수 → was. vital for -ing = ~에 꼭 필요한.
- **It is not just in terms of its origin that the welfare state is misunderstood. So is its very nature.** : It is ~ that 강조 구문(부사구 in terms of its origin을 강조). So + be + 주어 = ~도 그렇다(앞 문장의 is misunderstood를 받는다). very = 바로 그(강조).
- **These 'freebies' are, it is believed, paid for by the taxes that richer people pay** : it is believed = 삽입절(그렇게들 믿는다 — 전언). pay for의 수동 = be paid for(for를 빠뜨리면 오답).
- **even the poorest people who are exempt from income tax 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y 'indirect taxes' when they buy things** : 주어 the poorest people + 관계절(who … contributions) + 동사 pay(복수). be exempt from = ~을 면제받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e apt to	~하기 쉽다	be likely to	—
acutely	절실히, 날카롭게	keenly	dimly
keep ~ at bay	막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fend off	—
buy off	매수하다	bribe	—
overthrow	뒤엎다, 타도하다	topple	uphold
reformist	개혁주의의	—	revolutionary
embrace	받아들이다	adopt	reject
freebie	공짜(로 주는 것)	handout	—
free-ride	무임승차하다	freeload	—
denounce	비난하다	condemn	praise
recipient	받는 사람, 수급자	beneficiary	donor
contribution	(사회 보험) 기여금, 납부금	payment	—
exempt from	~이 면제된	free from	subject to
burdensome	부담스러운	onerous	light

내용 일치 비스마르크 = 사회주의자라서가 아님 · 이름난 반사회주의자 · 1878~1888 사회주의자 법(사회민주당 활동 크게 제한 · 금지까지는 아님) · 보호가 없으면 노동자가 사회주의에 끌린다고 봄 ·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복지 시작 / 처음엔 사회주의자(특히 독일)가 반대('매수') · 좌파 = 개혁 성향이 혁명 성향을 이김 · 대공황 뒤 확대 요구 · 2차 대전 뒤 유럽 중도 우파도(소련 블록과의 체제 경쟁) / 오해 =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 · 부자의 세금으로(it is believed) · 무임승차 · 'welfare scroungers' / 실제 = 모두가 냄 ·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 간접세 · 간접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무거움(2018 영국 27% ↔ 14%). **밑줄 의미** to keep socialism at bay = 노동자가 사회주의로 기울지 못하게 막다 / 'buying off' workers = 복지로 노동자를 달래 혁명을 포기하게 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 So is its very nature = 기원만이 아니라 본질도 오해받는다 / 'welfare scroungers' = 복지 수급자를 남에게 빌붙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말 / 지칭: 91쪽 ¶1 He · he = 비스마르크 · they(fell short) = 사회주의자 법 · they(would be attracted) = workers / 91쪽 ¶2 They = 사회주의자들 · it(saw it) = 복지국가 · them(stopping them) = workers · ones = tendencies · they(realized) = 중도 우파 정당 / 91쪽 ¶4 its = 복지국가의 · It(is seen) = 복지국가 / 91쪽 ¶5 them(pays for them) = welfare benefits · they(live · buy) = 가난한 사람들.

한 줄 요약 반사회주의자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복지국가를 만들었고, 복지가 부자의 세금으로 주는 '공짜'라는 생각과 달리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가 그 값을 낸다.

11-6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보험 92쪽 ¶1 ~ 93쪽 ¶1

원문 위치 원서 92쪽 ¶1 ~ 9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2쪽 ¶1 첫 문장	Understood this way, no one is getting 'free' stuff through the welfare state	분사구문(조건) · 결론
◆	93쪽 각주 iii	Unless they are corporations that pay their workers below the living wage … booking their income in tax havens	저자의 단서(예외)
★	92쪽 ¶1 둘째~넷째 문장	'free at the point of access' … the NHS (National Health Service) … But you have paid for your hospital visit	요약문의 마지막 문장
★	92쪽 ¶2 첫 문장	a package of social insurances, covering eventualities that can happen to anyone, collectively purchased by all citizens	요지 1순위
◆	92쪽 ¶2 둘째 문장	It may (but may not …) have an element of downward redistribution of income, but that is not even its main role	단서 — 단정 금지
★	92쪽 ¶3 첫 문장	we all get the same package of insurances at a lower price by buying in bulk	요지
★	92쪽 ¶3 둘째 문장	the US, which is the only rich country that does not have universal public health insurance	일치
★	92쪽 ¶4 첫 문장	at least 40% more and up to two-and-a-half times more … (17% of GDP against the range of 6.8% for Ireland to 12% for Switzerland)	숫자 1순위
★	92쪽 ¶4 둘째~셋째 문장	the worst health records in the rich world … fragmented and thus cannot benefit from collective purchases	까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3쪽 각주 iv	higher income inequality … 'status anxiety' … The Spirit Level … 'food deserts'	다른 까닭들
◆	92쪽 ¶4 다섯째 문장	if you have participated in collective purchase schemes, like Groupon,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	밑줄 의미 1순위
★	92쪽 ¶5 첫 문장	the most effective way of dealing with the inevitable insecurity that capitalism creates in its pursuit of economic dynamism	주장 · 통합 사고 빈칸
★	92쪽 ¶5 둘째 문장	it reduces people's resistance to new technologies and new working practices – the Nordic countries	주장 · 「Strawberry」
★	93쪽 첫 줄 · 93쪽 각주 v	spreading and growing, despite the continuous attack … since the 1980s / 1930 1–2% · 4.8% · 1980 15.4% · 20.8%	숫자
◆	93쪽 ¶1	owe their security – and prosperity – to a humble, hardy grain … could not have forged	결론 · without 가정법

내용

이렇게 이해하면 복지국가를 통해 '공짜'를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93쪽 각주 iii: 노동자에게 생활임금보다 적게 주어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복지국가에 기대게 만들면서, 소득을 조세 피난처에 올려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라면 예외다). 무엇이 '공짜'로 보인다면, 그것은 '이용하는 시점에 무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NHS(국민보건서비스) 아래의 공공 의료 덕분에 병원에 갈 때마다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병원 방문의 값은 세금과 사회 보장 기여금으로 이미 냈다(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낸다). 복지국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 모든 시민이 함께 사는 사회 보험의 묶음으로 보는 편이 낫다.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아래로 향하는 소득 재분배의 요소가 있을 수도(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된 역할조차 아니다. 복지국가의 요점은 시민(과 장기 거주자)인 우리 모두가 대량으로 사서 같은 보험 묶음을 더 낮은 값에 얻는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방법은, 보편적 공적 건강 보험이 없는 유일한 부자 나라인 미국의 의료비를 다른 부자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GDP 대비로 미국은 비슷하게 부유한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에 적어도 40%, 많게는 2.5배를 더 쓴다(GDP의 17% 대 아일랜드 6.8%~스위스 12%). 그런데도 미국의 건강 기록은 부자 나라 가운데 최악이어서, 미국에서는 '건강'이 다른 부자 나라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93쪽 각주 iv: 미국의 더 큰 소득 불평등은 스트레스가 크고 식사가 부실한 사람을 비율상 더 많이 만들고, Richard Wilkinson과 Kate Pickett의 유명한 책 The Spirit Level에 따르면 불평등이 클수록 건강에 해로운 '지위 불안'도 커진다. 가공식품 산업의 힘이 더 커 미국인은 건강에 나쁜 음식을 더 먹고, 미국 도시가 지어진 방식 때문에 값싸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이 더 많다), 중요한 까닭 하나는 미국 의료 체계가 쪼개져 있어 더 통합된 체계를 가진 나라만큼 집단 구매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병원(또는 병원 그룹)마다 '대량 구매' 할인을 누리는 국가 체계를 거치지 않고 약품과 장비를 따로 사야 하고, 의료 보험 회사마다 (이윤을 좇는 기업이라 더 높은 보험료를 매기는 데다)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통합 체계가 아닌 자체 행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집단 비용 절감'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 독자도 있겠지만, Groupon 같은 공동 구매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복지국가의 바탕 생각을 받아들인 셈이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경제적 역동성을 좇으며 만들어 내는, 피할 수 없는 불안정(insecurity)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더욱이 잘 설계되면 복지국가는 새 기술과 새 노동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북유럽 나라들이 가장 좋은 예다(「Strawberry」 참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복지국가가 퍼지고 커져 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93쪽 각주 v: 1930년 오늘날 부자 나라들의 복지 지출은 대개 GDP의 1~2%였고 독일이 4.8%로 가장 컸다. 1980년에는 평균 15.4%, 오늘날(2010~16년)에는 20.8%다).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더 잘 알려진 사촌인 밀보다 못하다고 흔히 여겨지는 보잘것없고 강인한 곡물에 빚지고 있다. 프로이센 지주들이 생산한 호밀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해 준 정치 동맹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법

- **Understood this way, no one is getting 'free' stuff through the welfare state** : Understood this way = (If it is) understood this way — 수동 분사구문(조건). 의미상 주어 = 복지국가(앞 단락의 내용).
- **If anything looks 'free', it is because it is 'free at the point of access'** : it is because ~ = 그것은 ~ 때문이다(까닭을 밝히는 구문). look + 형용사(보어).
- **But you have paid for your hospital visit (and will keep paying for it in the future) through your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have paid = 현재완료(이미 냈다). will keep -ing = 계속 ~할 것이다. through = 수단.
- **The welfare state is better seen as a package of social insurances, covering eventualities that can happen to anyone, collectively purchased by all citizens** : be better seen as ~ = ~로 보는 편이 낫다. covering(능동 · 현재분사)과 purchased(수동 · 과거분사)가 둘 다 package를 꾸민다.
- **The point of the welfare state is that, as citizens (and long-term residents), we all get the same package of insurances at a lower price by buying in bulk** : be동사 뒤 that절 = 보어. as = 자격(~으로서). by + 동명사 = 수단.
- **compare healthcare cost in the US, ..., with that in other rich countries** : compare A with B. that = healthcare cost(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 **the country has the worst health records in the rich world, meaning that 'health' is far more expensive in the US** : meaning that ~ = 결과 · 해석을 덧붙이는 분사구문(그러니 ~라는 뜻이다). far + 비교급 = 훨씬.
- **For without protecting the rye produced by Prussian landlords, Bismarck could not have forged the political alliance that enabled him to build the first welfare state** : For = 이유의 접속사. without ~ = if절을 대신하는 가정(~하지 않았다면) + could not have p.p.(가정법 과거완료). enable + O + to V.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ccess	이용, 접근	entry	—
socialized	공영화된	public	private
eventuality	만일의 사태	contingency	—
collectively	집단으로, 함께	jointly	individually
redistribution	재분배	reallocation	—
in bulk	대량으로	wholesale	—
fragmented	쪼개진, 분산된	divided	unified
premium	보험료	—	—
buy into	(생각을) 받아들이다	accept	rejec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avoidable
insecurity	불안정, 불안	uncertainty	security
dynamism	역동성	vitality	stagnation
resistance	저항	opposition	acceptance
humble	보잘것없는	modest	grand

내용 일치 복지국가로 '공짜'를 얻는 사람은 없음(각주 iii = 생활임금 이하 · 조세 피난처 기업은 예외) · 이용 시점에만 무료(NHS) · 이미 세금 · 기여금으로 냄 / 사회 보험 묶음 · 모든 시민이 함께 삼 · 재분배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 주된 역할 아님 · 대량 구매로 더 싸게 / 미국 = 보편적 공적 건강 보험 없는 유일한 부자 나라 · 적어도 40% 많게는 2.5배 · 17%(아일랜드 6.8% ~ 스위스 12%) · 최악의 건강 기록 · 쪼개진 체계 · Groupon /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잘 설계되면 더 역동적(북유럽) · 1980년대 이후 공격에도 확산(각주 v) / 안전과 번영 = 호밀 덕분. **밑줄 의미** free at the point of access =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을 뿐, 값은 이미 냈다 / collectively purchased by all citizens = 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보험 /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 = 함께 사서 값을 낮추는 공동 구매의 논리를 이미 받아들였다 / a humble, hardy grain = 밀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호밀이 복지국가를 낳은 동맹의 바탕 / 지칭: 92쪽 ¶1 it(is because) = 공짜로 보이는 것 · it(paying for it) = hospital visit / 92쪽 ¶2 It · its = 복지국가 · that(is not even) = 소득 재분배 / 92쪽 ¶3 that(with that) = healthcare cost / 92쪽 ¶4 the country = 미국 · them(buying them) = medicines and equipment · its counterparts = 다른 나라의 의료 체계 / 92쪽 ¶5 it(reduces) = 복지국가 / 93쪽 ¶1 him = 비스마르크.

> **한 줄 요약** 복지국가는 모두가 값을 내고 함께 대량으로 사는 사회 보험이며 자본주의의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출발은 비스마르크가 보호한 호밀에 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1 RYE]

범위	Rye (원서 PDF 88~93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apitalism keeps chasing economic dynamism, and in doing so it unavoidably leaves people insecure. The welfare state has turned out to be the best tool we have for handling this insecurity. What is more, a well-designed welfare state can give capitalist economies still more dynamism, because people who feel protected resist new technologies and new ways of working less fiercely; the Nordic countries show this best. Small wonder, then, that welfare states have kept growing despite neo-liberal attacks since the 1980s. People in rich countries today owe their security, and their prosperity, to the welfare state.

① Welfare states should be cut back for growth.
② Good welfare states make capitalism safer and more dynamic.
③ New technologies should be slowed down.
④ Neo-liberal attacks have shrunk welfare states.
⑤ Prosperity matters more than security.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ismarck left behind more than Germany's heavy industries. Another of his legacies has had an even greater impact, one felt far beyond Germany's borders: the creation of the welfare state.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welfare state grew out of 'progressive' political movements, such as the New Deal Democrats in America, Britain's Labour Party or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Scandinavia. In reality, the first person to build one was Bismarck, a deeply conservative statesman. In other words, a system that many credit to progressives was pioneered by an arch-conservative.

① A Conservative Father of the Welfare State
② How the New Deal Created Welfare
③ Bismarck's Failure in Heavy Industry
④ Why Progressives Opposed Insurance
⑤ The Welfare State: A German Affair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better to think of the welfare state as a bundle of social insurances that all citizens buy together, covering misfortunes that could happen to anyone. Depending on the design of taxes and welfare programmes, it may or may not shift some income from the rich to the poor, but that is not really its central job. The real point is that all of us, citizens and long-term residents alike, obtain the same set of insurances more cheaply because we purchase them in bulk. Healthcare in the US, the only rich country lacking universal public health insurance, shows this clearly.

① Its main role is to take money from the rich.
② Buying insurance alone is cheaper than buying together.
③ Welfare should go only to the poorest citizens.
④ Long-term residents should be left out of it.
⑤ It is mainly cheaper insurance that all buy in bulk.

4. 밑줄 친 <u>to keep socialism at bay</u>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Bismarck set up the welfare state, but not because he was a 'socialist', the label now readily attached to anyone who backs it. In fact, he was a well-known anti-socialist. From 1878 to 1888 he kept in place what were called anti-socialist laws, which severely limited wha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ould do, though they stopped short of banning it entirely. Yet he understood very well that workers left without protection against life's major shocks, such as industrial accidents, illness, old age and unemployment, would be drawn to socialism. So he started welfare schemes that many people now call 'socialist' precisely <u>to keep socialism at bay</u>.

① to stop workers from being drawn to socialism
② to spread socialist ideas among workers
③ to ba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ompletely
④ to prove that he was a true socialist
⑤ to make workers pay for their own insurance

5. 밑줄 친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s a share of GDP, American healthcare spending is at least 40%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of similar wealth, yet America's health records are the worst in the rich world. One important reason is that American healthcare is fragmented, so it cannot gain from buying together as much as more unified systems elsewhere can. Each hospital or hospital group buys its own medicines and equipment instead of enjoying national 'bulk buy' discounts, and each profit-seeking insurance company runs its own administration rather than sharing one that benefits from economies of scale. Some readers may doubt this argument for saving costs collectively. But if you have ever joined a group-buying scheme such as Groupon, then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

① you have already paid taxes to fund the welfare state
② you have already been cheated by private companies
③ you already depend on welfare benefits for survival
④ you already accept the logic of getting things cheaper by buying together
⑤ you have already rejected the idea of collective purchas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Otto von Bismarck, unified Germany's first chancellor, arranged an alliance that came to be called a 'marriage of iron and rye', joining the Junkers, landed nobles based mainly in Prussia, with the new capitalists of heavy industry in the Rhineland. In 1879, Bismarck dropped the National Liberals, ① his coalition partner since unification in 1871, who among other things favoured free trade. ② He then built a new protectionist bloc by persuading the powerful rye-growing Junkers to accept tariffs for Rhenish iron and steel, which were then struggling against stronger British rivals. In return, ③ he gave ④ them tariff protection against cheap American grain, which was beginning to flood European markets. The deal also helped Bismarck tighten ⑤ his grip on powe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Rye first came from what is now Turkey, but it has become a symbol of Northern European food systems: a tough grain that thrives in harsh northern climates where wheat, its more delicate relative, cannot grow. Russia is the largest consumer of rye, while Poland eats the most per person and also exports more of it than any other country. The true world champion of rye, however, is Germany, which produces the most, 33% more than Poland, the second-largest producer. Rye matters so much to Germany that it even appears prominently in the way German history has been written.

① 호밀은 원래 북유럽에서 비롯된 곡물이다.
② 호밀은 밀보다 연약해 추운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③ 1인당 호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다.
④ 호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폴란드다.
⑤ 독일의 호밀 생산량은 폴란드보다 33% 적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Once the author arrived in Britain, he felt he had to eat rye, since it was central to one of his favourite detective stories. The first thing he tried was Ryvita, a British rye crispbread. He loved rye's nutty, slightly sour taste and often had it as a snack late at night while working hard as a graduate student. Among rye breads, he thought dark ones such as German pumpernickel were rather too dense, but he loved the lighter kinds, especially those containing caraway seeds. Later, on visits to Finland, he came to love Finnish rye crispbreads, above all those mixed with pine bark flour, once a famine food. Finland, in fact, was the last European country to suffer a famine, in 1866–8.

① 저자가 처음 맛본 호밀 음식은 영국의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Ryvita였다.
② 저자는 대학원생 시절 호밀을 밤참으로 자주 먹었다.
③ 저자는 독일의 펌퍼니켈 같은 진한 호밀빵을 가장 좋아했다.
④ 소나무 껍질 가루는 예전에 기근 때 먹던 음식이었다.
⑤ 핀란드는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기근을 겪은 나라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For exactly this reason, many socialists, particularly in Germany, opposed the welfare state at first. They viewed it as a tool for 'buying off' workers and ① keeping them from toppling capitalism by revolution. Over time, however, reformist tendencies within the left ② beat revolutionary ones, and left-wing parties came ③ to accept the welfare state and push hard for its growth, especially once the Great Depression had struck.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many centre-right parties in Europe embraced it as well, ④ realizing that giving ordinary citizens security ⑤ were essential for political stability, all the more so when the Soviet bloc was offering a rival system.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chose Britain for his studies because he (A) [disillusioned / was disillusioned] by the narrow, technical Neoclassical economics taught in his undergraduate course in Korea. Back then, economics departments in Britain took a more pluralistic approach than (B) [did / were]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eaching Keynesian, Marxist and other schools. When he explained this, most economists, teachers and friends told him he was ruining his career before it had even started. Since the real reason was too complicated for non-economists, he came up with a ready answer: he loved 'deduction novels', and Britain produced the best of them. This answer stopped most people from (C) [asking / to ask] more questions, though he could tell they found him strange.

	(A)	(B)	(C)
①	disillusioned	did	asking
②	was disillusioned	did	asking
③	was disillusioned	were	to ask
④	disillusioned	were	asking
⑤	was disillusioned	did	to ask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he deal between rye producers and iron producers, arranged by the 'Iron Chancellor', ① propelled Germany's economy to new heights. Shielded by tariffs, the new heavy industries, such as iron, steel, machinery and chemicals, could grow behind ② protective walls and in time ③ catch up with Britain's top producers. This did mean, however, that food was ④ cheaper than it would have been if farming had been left to free trade. But since most people came to earn more thanks to Germany's mor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the higher food prices were only a ⑤ minor concern for them.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ne of the author's favourite Agatha Christie novels is A Pocket Full of Rye, which features Miss Marple, a harmless-looking spinster with a sharp eye, quick wit and deep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The story was clever, but the title also puzzled him: what was rye? In Korean, rye is homil, literally 'northern nomads' wheat': mil is wheat, and ho is a prefix that Koreans attach to anything they believe, sometimes wrongly, to have come from the nomads of Central and Northern Asia, a vast region covering Manchuria, Mongolia, Tibet, Uzbekistan and Turkey. So the author knew that rye was _____, but having never eaten anything made from it, he had no idea what it really was.

① a spice from Central Asia
② a grain much like wheat
③ a nomadic people of the north
④ a kind of Korean rice cake
⑤ a song about sixpenc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ose 'freebies', so the belief goes, are paid for out of the taxes of the better-off.

It is not only the origin of the welfare state that people get wrong; its very nature is misunderstood too. (①) The most common error is to think that its chief purpose is to hand out 'free' things to poorer people, such as income support, pensions, housing subsidies, healthcare and unemployment benefit. (②) In other words, the welfare state is regarded as a vehicle that lets the poor free-ride on those better-off taxpayers. (③) This view is reflected in 'welfare scroungers', an expression heard more and more often in Britain. (④) The phrase is used to condemn the people who receive welfare.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he author first met detective fiction as a boy, through Arthur Conan Doyle's Sherlock Holmes stories. ① Many of the short stories, such as 'The Red-Headed League', amazed him with their clever plots, while frightening scenes from novels like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stayed with him. ② In secondary school he read more than a hundred classic 'deduction novels', by writers such as Maurice LeBlanc, Ellery Queen, Georges Simenon and G. K. Chesterton. ③ In those days, going abroad to study meant, for Koreans, going to the US. ④ For him, though, the undisputed ruler of the genre was Agatha Christie, whose two billion book sales show that many agree. ⑤ Even after nearly fifty years and several rereadings, classics of hers such as The ABC Murders and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still give him a jol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1871, soon after he unified Germany, Bismarck set up an insurance scheme protecting workers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A) Germany did not quite manage to be the first country with unemployment insurance, another cornerstone of the modern welfare state; that honour belongs to France. Still, Bismarck deserves the credit for building history's first welfare state.

(B) Although the scheme covered only some groups of workers rather than everyone, it was the first public insurance scheme for workers anywhere in the world.

(C) Having tightened his hold on power in 1879 with the iron-rye alliance, he pushed ahead faster with welfare measures, introducing state health insurance in 1883 and state pensions in 1889, neither of which had existed anywhere before. In 1884 he also widened his earlier accident insurance to include all worker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obody, in fact, gets welfare benefits for nothing. Many benefits are funded b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which most taxpayers make to public insurance schemes against risks like old age and unemployment. Most people also pay income tax, though the poor usually pay a smaller share of their income in this tax than the rich do. Even the poorest, who pay neither, pay indirect taxes such as VAT and sales tax when they shop, and these hit the poor far harder: in the UK in 2018, the bottom fifth of households handed over 27% of their income as indirect taxes, the top fifth only about 14%. Some things look 'free' only because, like a visit to an NHS hospital, they cost nothing at the point of use.

→ Although welfare benefits may seem (A) _____ when people use them, everyone, even the poorest, actually (B) _____ them through taxes and contributions.

① free ..... pays for
② free ..... avoids
③ costly ..... pays for
④ costly ..... receives
⑤ unfair ..... avoid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Rye originally comes from present-day Turkey. Russia eats the most rye, Poland eats the most per person, and Germany grows the most. In Germany, Bismarck brought in accident insurance for workers in 1871, then health insurance (1883) and a state pension (1889). Unemployment insurance, however, was first introduced not by Germany but by France. In the UK in 2018, the poorest fifth of households spent 27% of their income on indirect taxes, while the richest fifth spent about 14%. The US spends 17% of its GDP on healthcare, more than other rich countries, yet it has the worst health records among them.

<QUIZ>

(1) Which country has the highest rye consumption per person?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Bismarck introduce health insurance?

Answer for (2): _____

(3) Which country first introduced unemployment insurance?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did Bismarck introduce a state pension?

Answer for (4): _____

(5) Where does rye originally come from?

Answer for (5): _____

(6) What share of their income did the poorest fifth of UK households pay in indirect taxes in 2018?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US has the best health records among rich countri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889	N. Poland
B. True	O. 1883
C. False	P. Finland
D. Turkey	Q. 1866
E. Russia	R. Britain
F. Germany	S. 33%
G. 1871	T. 12%
H. 14%	U. 1878
I. 27%	V. 6.8%
J. 1879	W. 1927
K. 17%	X. 1905
L. 1884	Y. Switzerland
M. France	Z. Ireland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때 한국인에게 유학이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뜻했다.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02 영국의 경제학과들은 미국의 경제학과들보다 더 다원적인 접근을 제공했다. (than 뒤 대동사 · 도치)

03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묻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stop + O + from -ing)

04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거사 크리스티 작품 가운데 하나는 A Pocket Full of Rye였다. (전치사구 도치)

05 그 곡물로 만든 것을 먹어 본 적이 없어서 나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완료 분사구문의 부정)

06 핀란드는 기근을 겪은 마지막 유럽 나라다. (the last + 명사 + to have p.p.)

07 호밀은 독일에 너무 중요해서 독일의 역사 서술에서도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so ~ that)

08 그것은 새 중공업이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마침내 영국의 선도 생산자들을 따라잡게 해 주었다. (allow + O + to V)

09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은 사실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였다. (It was ~ who 강조)

10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그 복지 제도들을 시작했다. (in order to V / keep ~ at bay)

11 복지국가가 오해받는 것은 그 기원의 면에서만이 아니다. (It is ~ that 강조)

12 프로이센 지주들이 생산한 호밀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비스마르크는 그 정치 동맹을 만들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without + 가정법 과거완료)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가 영국 유학을 정한 때	
당시 한국인에게 유학이란	
영국을 고른 진짜 까닭 / 둘러댄 대답	
중등학교 때 읽은 고전 추리 소설	
애거사 크리스티의 판매 부수	
A Pocket Full of Rye의 탐정 /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탐정	
homil의 뜻	
영국에서 처음 맛본 호밀 음식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기근을 겪은 나라 / 시기	
호밀의 원산지	
최대 소비국 / 1인당 소비 · 수출 1위 / 최대 생산국	
'철과 호밀의 결혼'의 두 세력	
국민자유당을 버린 해 / 독일 통일	
값싼 미국 곡물이 밀려든 두 까닭	
산재 보험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확대 / 연금	

항목	답
첫 실업 보험 / 독일의 실업 보험	
사회주의자 법의 기간	
영국의 간접세 부담(2018)	
미국의 의료비(GDP 대비)	
복지 지출(GDP 대비, 93쪽 각주 v)	

4-3. 통합 사고 문제 — 2장과 11장을 잇는 자리

문제

2장에서 저자는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는 재산 소유자의 자유이며, 그와 부딪치는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 이를테면 노동자가 단체 행동을 할 자유나 강한 복지국가가 실업자에게 주는, 새 일자리를 조금 더 가려 고를 자유는 기껏해야 무시되고 나쁘면 역효과를 낳는다고 비난받는다고 썼다(32쪽 ¶2). 또 지난 150년 동안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으로 된 것은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복지국가의 도입을 들고 「Rye」를 참조하라고 적었다(32쪽 ¶3). 11장에서 저자는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를 삶의 큰 충격(산업 재해 · 질병 · 노령 · 실업 등)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회주의에 끌릴 것임을 알았다고 썼고(91쪽 ¶1),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 기술과 새 노동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썼다(92쪽 ¶5). 이를 바탕으로, 아래 92쪽 ¶5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i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2장과 11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장 또는 11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자본주의가 낳는 것: The welfare state has become the most effective way of dealing with the inevitable _____ that capitalism creates in its pursuit of economic dynamism.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2 CHICKEN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hicken」 (원서 PDF 94~99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채식주의자에게 닭을 주는 평등은 왜 공정하지 않은가."

이 장은 저자가 직접 만든 요리, 채소와 함께 구운 하리사 치킨으로 시작한다. 숭배도 경멸도 받지 않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이면 누구나 먹는 듯한 '보편적인 고기' 닭은 그래서 항공사의 기내식이 되는데, 저자는 채식주의자 승객에게도 닭고기만 내주며 '모두가 평등하니 특별 대우는 없다'고 한 소련 시절 Aeroflot 승무원의 일화를 들려준다. 이야기는 여기서 평등과 공정의 문제로 넘어가,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사회주의식 평등도, 경제에 대한 기여에 따른 보상만 내세우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공정도 시야가 좁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공정한 경쟁에 기회의 평등이 결정적이지만, 외다리 주자가 낀 경주가 공정하지 않듯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히 높은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며, 불평등 논쟁은 결과와 기회만 보느라 필요와 능력을 놓쳐 왔다고 말하며, 채식주의자에게 닭을 주는 항공사도 극소수만 탈 수 있는 비싼 항공사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글을 맺는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장(도토리)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불평등 논쟁은 결과와 기회만 보고 필요와 능력을 놓쳤다(98쪽 ¶3) / 다른 필요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의 조건(95쪽 ¶5) /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98쪽 ¶1) / 기회의 평등은 결정적이다(97쪽 ¶2)
4~5	**밑줄 함축 의미**	Poor chicken / the universal meat / taken this policy to the extreme / Everybody's equal on Aeroflot / There's no special treatment / an equal footing / an equally blinkered view / equality in poverty / 'voluntarily' /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 the race of life / a ticket that few of us can afford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저자의 인도인 친구와 채식주의자 승객 사이를 오가는 94쪽 ¶4~95쪽 첫 줄 / it(94쪽 ¶1 = chicken) / which(94쪽 ¶3 = airlines) / them(96쪽 첫 줄 = 채식주의자 · 셀리악병 환자 · 여성) / they(96쪽 ¶2 = 자유시장 경제학자) / those(97쪽 ¶1 = '여성적' 과목) / they(98쪽 ¶1 = all children)
7~8	내용 일치·불일치	Aeroflot 일화(94쪽 ¶4~95쪽 첫 줄) /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 아파르트헤이트(96쪽 ¶5) / 저자의 대학 시절(97쪽 ¶1) / 1980년대 말 · 1928~35 · 1946~8 · 1871 · 1920 · 1948 · 1980년대 초 · 6명/360명 · 11명/1,200명 · 50% · 36% · 38% · 5~10% · 30% · 15% · 3~4파운드
9~10	**어법**	Neither + 도치 · 대동사 do · of whose · a friend of mine · used to V · overhear + O + 원형 · 동격 that · whether A or B · Not only 도치 · 동명사 주어 · hence + 명사구 · respectively · albeit · let + O + 원형 · not A until B · 가목적어 it · if not · 과거완료 수동 · may have p.p. · have + O + p.p. · require that + 원형 · neither +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venerate↔despise · docile↔unruly · obstinate↔compliant · diverge↔converge · even-handed↔biased · blinkered↔broad-minded · counter-productive↔productive · trivial↔significant · abolish↔establish · rampant↔rare · deprived↔privileged · neglect↔attend to
12	빈칸 추론	rewarded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s(96쪽 ¶3) / equality of opportunity(96쪽 ¶4) / not giving them special treatment(95쪽 ¶5) / the minimum necessary capabilities(98쪽 첫 줄)
13	문장 삽입	기본 욕구 단락(95쪽 ¶2~¶3): 심각한 문제 → 같은 기본 욕구 인정 → 봉건 ·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발 → However, 기본을 넘어서면 필요가 갈라진다
14	무관한 문장	기회의 평등과 같은 규칙(97쪽 ¶2~¶4)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힌두교도 · 한국인이 꺼리는 고기, 94쪽 ¶1)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빵의 예(95쪽 ¶4): 주식인 빵 → 심각한 식량 부족 때 같은 양은 공정해 보임(1928~35 · 1946~8) → However, 발효 밀빵은 못 먹는 사람 → For another example, 같은 크기의 화장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길(98쪽 ¶2): 시장 규제(소농 · 소상점 보호, 금융 · 노동 시장 규제) → 그러나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가 더 효과적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나라 · 숫자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980년대 말(Aeroflot 일화) · 1928~35(소련의 식량 부족) · 1946~8(영국) · 1871(비국교도) · 1920(옥스퍼드의 여성 학위) · 1948(케임브리지) · 1980년대 초(저자의 대학 시절) · 6명/360명 남짓(경제학과) · 11명/1,200명 넘게(공학부) · 50% · 36% · 38% · 5~10%(각주 iii) · 30%~40% · 15%(각주 iv) · 3~4파운드(1.5~2kg). 1920은 옥스퍼드, 1948은 케임브리지가 여성에게 학위를 준 해다. 나라와 인물도 많다(Aeroflot · 모스크바 · 마오의 중국 · 크메르 루주 · 아파르트헤이트 · 키프로스 · 덴마크 · 러시아 · 스위스 · 한국 · Aldous Huxley).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숭배 ↔ 경멸, 소 ↔ 돼지, 1920 ↔ 1948,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6명 ↔ 11명, 공식 규정 있음 ↔ 없음, 기회의 평등으로 충분 ↔ 부족, 시장 규제 ↔ 복지국가가 더 효과적, 좌파 = 결과 ↔ 우파 = 기회). 전언 · 추측(Apparently · seems to · may be partly · may even be · I am told · perhaps)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주장(argue · opine · assert · they say)을 저자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hicken」 (94~98쪽)

논증형(가엾은 닭 → 보편적인 고기 → 항공사의 닭 → Aeroflot의 '특별 대우는 없다' → 소련식 평등 원칙 → 같은 기본 욕구와 갈라지는 필요 → 빵 · 화장실 → 다르게 대하기 = 공정의 조건 → 반대편의 자유시장 경제학자 → 기여에 따른 보상 →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 → 공식 · 비공식 차별 → 외다리 주자의 경주 → 결과의 평등 → 시장 규제와 복지국가 → 결론: 필요와 능력을 놓친 불평등 논쟁). 핵심 축은 **같은 대우 vs 필요에 따른 대우**, 그리고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94 ¶1	도입	가엾은 닭 / 숭배도 경멸도 제대로 된 미움도 받지 않음 / 고기를 먹는 사람은 닭도 먹는 것 같다
94 ¶2	보편적인 고기	작고 온순해 존재감이 낮음(일부일 수도) / 주로 다양한 쓰임 · 무난한 맛 · 쉬운 조리 / 온갖 요리법
94 ¶3	항공사의 선택	좁은 공간에서 온갖 취향 · 금기를 맞춰야 해 닭 / Aeroflot는 소련 시절 이를 극단까지(것 같다)
94 ¶4~95 첫 줄	Aeroflot 일화	1980년대 말 인도인 친구 · 모스크바 경유 · 가장 싼 표 / 채식주의자 승객 → '모두 평등, 특별 대우 없음'
95 ¶1	소련의 원칙	모두가 똑같이 귀한 인간 → 똑같이 대우 · 같은 배급 / 98쪽 각주 i: 실제로는 격차 · 엘리트 특혜
95 ¶2~¶3	문제 제기	같은 기본 욕구 → 봉건 · 자본주의 사회 고발 / 그러나 기본을 넘어서면 필요가 갈라진다
95 ¶4	빵과 화장실	식량 부족 때 같은 빵(1928~35 · 1946~8) / 발효 밀빵 · 같은 크기의 화장실 = 불공정
95 ¶5~96 첫 줄	공정의 조건	다른 필요를 다르게 대하는 것 = 특혜가 아니라 공정의 조건 · 대등한 위치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96 ¶1	반대편	자유시장 경제학자도 똑같이 시야가 좁다(방식은 완전히 다름)
96 ¶2	그들의 진단	비슷한 보수 → 유능한 사람에게 불공정 · 의욕 저하 → 빈곤 속의 평등
96 ¶3	그들의 처방	능력껏 경쟁 · 결과 수용 → 가장 생산적 · 가장 공정(기여에 따른 보상)
96 ¶4~¶5	전제 조건	기회의 평등 /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 /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1871 · 1920 · 1948) · 아파르트헤이트
96 ¶6~97 첫 줄	오늘의 차별	공식 차별은 대부분 폐지 ·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없음 / 직장의 여성 · 인종 차별
97 ¶1	자발적 회피	'남성적' 과목 / 저자의 동기 360명 남짓 중 여학생 6명 · 공학부 1,200명 넘게 중 11명
97 ¶2	기회의 평등	능력과 무관한 특성으로 막히면 결과는 생산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음 · 기회의 평등은 결정적
97 ¶3~98 첫 줄	외다리 주자	같은 기회 · 같은 규칙이어도 부족 / 최소한의 능력 없으면 기회의 평등은 무의미
98 ¶1	결과의 평등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 → 기르는 사람들의 처지 차이가 작아야 → 상당한 결과의 평등
98 ¶2	이루는 방법	시장 규제(스위스 · 한국) / 더 효과적인 것 = 복지국가의 재분배
98 ¶3~¶4	결론	좌파는 결과만 · 우파는 기회만 → 필요와 능력을 놓침 / 두 항공사 모두 싫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닭의 대접	숭배받는 동물 – 힌두교도의 소	경멸받는 동물 – 무슬림 · 유대인의 돼지(닭은 어느 쪽도 아님)
Aeroflot	단점 – 편안함 · 시간 엄수 · 승무원 태도 등 모든 면에서 형편없음(이라고 한다)	장점 – 표가 단연 가장 쌈
소련의 평등	이론 – 장관이든 청소부든 같은 배급 · 특별 대우 없음	실제(98쪽 각주 i) – 상당한 임금 격차 · 정치 엘리트의 특혜
사람의 필요	기본 욕구 – 깨끗한 물 · 안전한 거처 · 영양 있는 음식(모두 같음)	기본을 넘어선 필요 – 꽤 빨리 갈라짐
같은 대우의 예	공정해 보임 – 식량 부족 때 같은 빵 · 같은 크기의 남녀 화장실	실제로는 불공정 – 셀리악병 · 유월절 · 여자 화장실 밖의 긴 줄
다르게 대하기	승무원의 생각 – 특별 대우	저자 –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 대등한 위치에 세우기
정치적 스펙트럼	사회주의자 – 모두를 똑같이 대함	자유시장 경제학자 – 기여에 따른 보상(똑같이 시야가 좁음)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주장	좁은 범위의 보수 – 불공정 · 역효과 · 빈곤 속의 평등	능력껏 경쟁 · 결과 수용 – 가장 생산적 · 가장 공정
차별의 형태	공식적 –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에 따른 제한(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 아파르트헤이트)	비공식적 · 스스로 부과한 – '남성적' 과목을 '자발적으로' 피함
공정한 경주	같은 출발선 · 같은 규칙	최소한의 능력(외다리 · 한쪽 눈이 먼 주자는 불공정) · 각주 vi: 패럴림픽 · 체급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길	시장 규제 — 소농 · 소상점 보호(스위스 · 한국) · 금융 · 노동 시장 규제	복지국가의 재분배 — 직접 소득 이전 · 양질의 기본 서비스(더 효과적)
불평등 논쟁	좌파 — 결과의 평등만 · 필요와 능력의 차이를 무시	우파 — 기회의 평등만 · 능력의 평등에 부모 세대의 결과 평등이 필요함을 모름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hicken ([제목])	Grilled harissa chicken with vegetables(저자의 요리) · 닭 · 가지 · 애호박 · 양파를 하리사 · 올리브유 · 소금에 재운 뒤 구움
닭의 대접	숭배하는 문화도(힌두교도의 소처럼) 깎아내리는 문화도(무슬림 · 유대인의 돼지처럼) 저자는 알지 못함 · 제대로 미움받지도 않음
취향으로 피하는 고기	힌두교도 =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흔히 안 먹음 · 많은 한국인 = 금기가 없는데도 양고기를 안 먹음
보편성의 까닭	작고 비교적 온순한 새 → 낮은 존재감(일부일 **수도**) / 주로(**틀림없이**) 단백질원의 다양한 쓰임 · 무난한 맛 · 조리의 쉬움
닭 요리	튀김(미국 남부 · 일본 tori kara-age · 한국 yangnyum chicken) · 지짐(중국 · 태국 등) · 스튜(coq au vin · 북아프리카 tagine) · 구이(유럽 로스트 · 남아시아 tandoori) · 불구이(말레이 · 태국 satay · 아프리카-포르투갈 piri-piri) · 훈연 구이(자메이카 jerk) · 삶기(한국 sam-gye-tang · 유대인 치킨 수프) / 일본의 닭 요리 전문점에서 닭 사시미
항공사	좁은 공간에서 온갖 취향 · 금기를 맞춰야 해 닭을 고름 / Aeroflot(러시아) = 소련 시절 이 정책을 극단까지 밀고 간 **것 같다**(원서 표기 have had taken)
Aeroflot 일화	**1980년대 말** 저자 = 케임브리지 대학원생 · 인도인 친구 · 모스크바 경유 / 모든 면에서 형편없었다**고 한다** · 표가 단연 가장 쌈 · 기내식은 닭뿐(친구의 말)
승무원의 말	채식주의자 승객에게: 안 된다 · 모두가 평등 · 사회주의 항공사 · 특별 대우는 없다
소련의 원칙	모두가 똑같이 귀한 인간 → 똑같이 대우 / 장관 · 의사 · 광부 · 청소부 = 같은 빵 · 설탕 · 소시지 배급 · 해마다 신발 한 켤레 · 집단 공급
98쪽 각주 i	이론일 뿐 · 상당한 임금 격차(자본주의 나라보다는 훨씬 작음) · 정치 엘리트 = 더 나은 집 · 특별 상점(흔히 수입품) · 자본주의 나라 여행(사치품 구입)
기본 욕구	깨끗한 물 · 안전한 거처 · 영양 있는 음식 / 사회주의 원칙 = 봉건 · 자본주의 사회(굶어 죽는 사람 · 사치에 빠진 사람)에 대한 중요한 고발
빵	주식 · 심각한 식량 부족 때 같은 양은 공정해 보일 수 있음(소련 농업 집단화 뒤 **1928~35** · 영국 2차 대전 뒤 **1946~8**) / 발효 밀빵 = 셀리악병 환자 ·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은 못 먹음(**아마도**)
화장실	인구의 대략 절반이 남성 · 절반이 여성 → 같은 크기는 공평해 보임 / 여성은 시간 · 공간이 더 필요 → 영화관 · 공연장 등의 긴 줄
공정의 조건	다른 필요를 다르게 대하기 = 특혜가 아님 ·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 채식 기내식 · 글루텐 없는 빵 · 더 많은 여자 화장실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주장	사회주의는 비슷한 보수로 실패(저자: 마오의 중국 · 크메르 루주의 캄보디아 외에는 '똑같지' 않았음) / 발명가 · 투자 은행가 · 뇌 외과의 · 연예인 = 큰 기여 / 빈곤 속의 평등 · 능력껏 경쟁 → 가장 생산적 · 가장 공정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기회의 평등	기여에 따른 보수 원칙의 전제 조건 · 사소하지 않음 / 과거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에 따른 교육 · 직업 제한(「Acorn」)
Oxford · Cambridge	비국교도(가톨릭 · 유대인 · 퀘이커) **1871년**까지 불허 · 여성 학위 **1920**(옥스퍼드) · **1948**(케임브리지) / 99쪽 각주 ii: 더럼도 1871년 뒤 · 여성은 19세기 말부터 공부는 허용
Apartheid	남아프리카 · 흑인과 '유색인'(혼혈을 가리키는 아파르트헤이트 용어) = 재정 부족 · 과밀한 비백인 대학 → 괜찮은 일자리 거의 불가능
오늘의 차별	공식 차별은 대부분 폐지 ·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이룬 나라는 없음 / 직장의 여성(성차별적 시각) · 모든 다인종 사회의 인종 차별
저자의 대학 시절	한국 · **1980년대 초** · 경제학과 360명 남짓 중 여학생 **6명** · 공학부 1,200명 넘게 중 **11명** / 99쪽 각주 iv: 지금 경제학과 **30%** 넘어 40%에 가까움 · 공학부 **15%** 안팎
99쪽 각주 iii	공학 졸업생 중 여성: 키프로스 **50%** · 덴마크 **36%** · 러시아 **38%** · 한국 · 일본 **5~10%** (UNESCO)
legacy students	미국 대학 · 부모나 조부모가 다닌 대학 입학에서 유리 → 규칙은 흔히 조작된다
99쪽 각주 vi	패럴림픽 · 성별 · 연령 · 체급(복싱 · 레슬링 · 태권도 · 역도) / 가벼운 체급 복싱의 체중 범위 **3~4파운드(1.5~2kg)**
결과의 평등	모든 아이 = 영양 · 의료 · 교육 · 놀이 시간 / 집단 탁아소(Aldous Huxley『Brave New World』 · 오늘날 북한 — 엘리트용 더 좋은 탁아소가 있다**고 들었다**)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길	시장 규제 = 스위스 · 한국의 소농(농산물 수입 제한) · 소상점(대형 유통업체 제한) 보호 · 금융 규제 · 노동 시장 규제(최저 임금 · 병가 수당) / 더 효과적 = 복지국가의 재분배(「Rye」)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hicken」 (원서 PDF 94~98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2-1 모두가 먹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닭 94쪽 ¶1~¶3

원문 위치 원서 94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4쪽 [제목]	Grilled harissa chicken with vegetables (my recipe)	저자의 요리 — 하리사에 재운 닭 · 채소 구이
◆	94쪽 ¶1 첫~둘째 문장	Poor chicken. No one takes it seriously.	동사 없는 첫 문장 · 목차의 부제(no one takes seriously)와 연결
▲	94쪽 ¶1 셋째 문장	I know of no culture which venerates it, as Hindus do the cow	대동사 do(= venerate) · 어휘(venerate)
▲	94쪽 ¶1 넷째 문장	Neither is there a culture that denigrates it, in the way Muslims and Jews do the pig	Neither + 도치 — 어법 1순위
◆	94쪽 ¶1 다섯째 문장	Chicken is not even disliked properly	밑줄 의미 — 미움받을 존재감조차 없음
★	94쪽 ¶1 여섯째 문장	not out of religious or cultural taboos but out of distaste – Hindus can but often won't eat pork, while many Koreans simply won't eat lamb	not A but B · 예시 — 일치
★	94쪽 ¶1 일곱째 문장	anyone who is willing to eat meat seems willing to eat chicken	추측(seems) — 보편성
◆	94쪽 ¶2 첫 문장	may be partly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profile of the creature itself – a small, relatively docile bird	추측(may be partly) · 어휘(docile ↔ obstinate)
★	94쪽 ¶2 둘째 문장	it must mainly have to do with its versatility as a source of protein, with its rather neutral taste and with the relative ease of cooking	까닭 세 가지 · 어휘 문항의 바탕
★	94쪽 ¶2 셋째 문장	cooked in every conceivable way – deep-fried … stewed … roasted … flame-grilled … smoke-grilled … boiled … you name it	요리법 짝 맞추기 — 일치 함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4쪽 ¶2 넷째 문장	a restaurant in Japan, every single one of whose dishes was made with chicken	of whose · 단수 동사
★	94쪽 ¶3 첫 문장	Given its status as the universal meat, it is not a surprise that chicken is the choice of airlines	Given ~ · 가주어 it · 지칭(which = airlines)
◆	94쪽 ¶3 둘째 문장	Aeroflot … seems to have had taken this policy to the extreme during its Soviet days	추측 · 원서 표기 have had taken · 일화로 잇는 고리

내용

가엾은 닭. 아무도 닭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힌두교도가 소를 숭배하듯 닭을 숭배하는 문화를 저자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무슬림과 유대인이 돼지를 깎아내리듯 닭을 깎아내리는 문화도 없다. 닭은 제대로 미움받지조차 않는다. 종교적 · 문화적 금기가 아니라 그저 싫어서 어떤 고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힌두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흔히 먹으려 하지 않고, 많은 한국인은 아무 금기가 없는데도 양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닭도 먹을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닭이 이처럼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소 · 말 · 돼지처럼) 덩치 큰 동물도 (양 · 염소처럼) 억세고 고집 센 동물도 아닌, 작고 비교적 온순한 새라서 존재감이 비교적 낮은 것이 일부 까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된 까닭은 틀림없이 단백질원으로서의 다양한 쓰임새, 꽤 무난한 맛, 비교적 쉬운 조리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닭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요리된다. 튀기고(미국 남부의 프라이드치킨, 일본의 도리 가라아게, 한국의 양념치킨), 기름에 지지고(일일이 이름을 대기 어려울 만큼 많은 중국 · 태국 등의 요리), 스튜로 끓이고(프랑스의 코코뱅, 북아프리카의 치킨 타진), 굽고(유럽의 여러 로스트 치킨, 남아시아의 탄두리 치킨), 불에 굽고(말레이 · 태국의 사테, 아프리카-포르투갈의 피리피리 치킨), 훈연해 굽고(자메이카의 저크 치킨), 삶는다(찹쌀 · 인삼 뿌리와 함께 삶은 한국의 삼계탕, 유대인의 치킨 수프). 저자는 모든 요리를 닭으로 만드는 일본의 한 식당에서 닭 사시미까지 먹어 보았다. 이렇게 보편적인 고기이니, 좁은 공간에서 온갖 음식 취향과 금기를 맞춰야 하는 항공사가 닭을 고르는 것도 놀랍지 않다. 러시아 항공사 Aeroflot는 소련 시절 이 방침을 극단까지 밀고 간 것 같다.

어법

- **I know of no culture which venerates it, as Hindus do the cow** : know of = ~에 대해 (들어서) 알다. no culture = 그런 문화가 하나도 없다(부정어가 목적어에 붙었다). which = 주격 관계대명사. as Hindus do the cow = do는 venerate를 대신하는 대동사(힌두교도가 소를 숭배하듯).
- **Neither is there a culture that denigrates it, in the way Muslims and Jews do the pig** : 부정어 Neither가 문장 앞에 와서 be동사와 주어가 도치(Neither is there ~ = ~도 없다). in the way (that) ~ = ~하는 방식으로. do = denigrate를 대신하는 대동사.
- **There are people who would shun certain meats not out of religious or cultural taboos but out of distaste** : would = 습성 · 경향(~하곤 한다). not A but B = A가 아니라 B. out of = ~에서 비롯되어(동기).
- **Hindus can but often won't eat pork, while many Koreans simply won't eat lamb, despite having no food taboo about it** : can과 won't가 eat pork를 함께 받는다. won't = 고집 · 거절의 will not. while = 대조. despite + 동명사(having) — despite of는 오답. it = lamb.
- **This universal acceptability of chicken may be partly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profile of the creature itself** : may be because of + 명사구 = ~ 때문일 수도 있다(추측). itself = 강조의 재귀대명사(그 동물 자체).

- **But it must mainly have to do with its versatility as a source of protein, with its rather neutral taste and with the relative ease of cooking** : must = 강한 추측(~임에 틀림없다). have to do with = ~와 관련이 있다. with가 세 번 되풀이되며 까닭을 병렬.
- **I have even eaten chicken sashimi in a restaurant in Japan, every single one of whose dishes was made with chicken** : 수량어 + of + whose(선행사 a restaurant). 주어 every single one → 단수 동사 was. 현재완료(경험) have eaten.
- **Given its status as the universal meat, it is not a surprise that chicken is the choice of airlines, which have to cater for so many different food preferences and taboos in a confined space** : Given ~ = ~을 고려하면.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airlines → 복수 have). cater for = ~의 요구를 맞추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enerate	숭배하다	revere	despise
denigrate	깎아내리다, 폄하하다	belittle	praise
shun	피하다	avoid	embrace
taboo	금기	prohibition	—
distaste	싫어함, 혐오	dislike	liking
profile	존재감, 눈에 띄는 정도	prominence	—
docile	온순한	tame	unruly
hulking	덩치 큰	bulky	tiny
obstinate	고집 센	stubborn	compliant
versatility	다양한 쓰임새	adaptability	—
neutral	(맛이) 무난한, 특색이 강하지 않은	mild	strong
conceivable	생각할 수 있는	imaginable	inconceivable
cater for	~의 요구를 맞추다	provide for	—
confined	좁은, 한정된	cramped	spacious

내용 일치 닭을 숭배하는 문화도 깎아내리는 문화도 저자는 알지 못함 · 소(힌두교도가 숭배) · 돼지(무슬림 · 유대인이 깎아내림) · 취향으로 피하는 고기 = 힌두교도의 돼지고기(먹을 수는 있지만 흔히 안 먹음) · 많은 한국인의 양고기(금기 없음) · 고기를 먹을 사람은 닭도 먹는 것 같다 / 보편성의 까닭 = 작고 비교적 온순한 새라 존재감이 낮음(일부일 수도) · 주로 단백질원의 다양한 쓰임 · 무난한 맛 · 조리의 쉬움 · 요리법: 튀김(미국 남부 · 일본 도리 가라아게 · 한국 양념치킨) · 지짐(중국 · 태국 등) · 스튜(코코뱅 · 치킨 타진) · 구이(로스트 치킨 · 탄두리) · 불 구이(사테 · 피리피리) · 훈연 구이(저크 치킨) · 삶기(삼계탕 · 유대인 치킨 수프) · 일본의 닭 요리 전문점에서 닭 사시미 / 항공사 =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취향 · 금기 → 닭 · Aeroflot(러시아)는 소련 시절 극단까지 밀고 간 것 같다. **밑줄 의미** Poor chicken = 모두가 먹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대접하지 않는 닭에 대한 짐짓 동정 / Chicken is not even disliked properly = 미움받을 만큼의 존재감조차 없다 / the universal meat = 누구나 먹는 고기 / taken this policy to the extreme = 닭만 내놓는 방식을 끝까지 밀고 갔다 / 지칭: 94쪽 ¶1 it(takes it · venerates it · denigrates it) = chicken · it(no food taboo about it) = lamb / 94쪽 ¶2 the creature itself = 닭이라는 동물 · it(must mainly have to do) = 닭의 보편적 수용성 · it(is cooked) = chicken · whose(dishes) = 일본의 그 식당 / 94쪽 ¶3 which = airlines · this policy = 닭을 기내식으로 고르는 방침 · its Soviet days = Aeroflot의.

한 줄 요약 닭은 숭배도 경멸도 받지 않지만 다양한 쓰임과 무난한 맛 덕분에 누구나 먹는 보편적인 고기가 되었고, 그래서 항공사의 기내식으로 뽑힌다.

12-2 Aeroflot의 닭고기와 '특별 대우는 없다' 94쪽 ¶4 ~ 95쪽 ¶1

원문 위치 원서 94쪽 ¶4 ~ 95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4쪽 ¶4 첫 문장(95쪽 첫 줄까지)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in Cambridge in the late 1980s, an Indian friend of mine used to fly home with Aeroflot, via Moscow	인물 · 시기 · 경로 — 일치
◆	95쪽 첫 줄(94쪽 ¶4 둘째 문장)	Apparently the airline was awful in every conceivable way	전언(Apparently) — 단정 금지
★	95쪽 첫 줄(94쪽 ¶4 둘째 문장)	many Indians stoically endured it, as their tickets were by far the cheapest	까닭 — 일치 · by far + 최상급
★	95쪽 첫 줄(94쪽 ¶4 셋째 문장)	According to my friend, sickly white, goose-bumpy, tasteless chicken was the only inflight meal available	친구의 말 — 전언
▲	95쪽 첫 줄(94쪽 ¶4 넷째 문장)	my friend overheard a fellow Indian passenger ask a stewardess whether he could have something other than chicken	지각동사 + O + 원형 · 지칭 문항의 바탕(he)
◆	95쪽 첫 줄(94쪽 ¶4 마지막 문장)	'No, you cannot. Everybody's equal on Aeroflot. It's a socialist airline. There's no special treatment.'	밑줄 의미 1순위 · 장 전체의 출발점
★	95쪽 ¶1 첫 문장	an extreme version of the Soviet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be treated equally, because everyone is a human being who is equally valuable	동격 that · 원칙의 근거
★	95쪽 ¶1 둘째 문장	whether someone was a government minister, a medical doctor, a coal miner or a cleaner, each person would be given the same ration	whether A or B(양보) · 어휘(ration)
★	95쪽 ¶1 둘째 문장	bread, sugar, sausages, an annual pair of shoes and everything else through collective provisions	배급 품목 — 일치
◆	95쪽 ¶1 셋째 문장	No special treatment.	승무원의 말 되받기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8쪽 각주 i 첫~둘째 문장	That was the theory. The practice was rather different.	이론 ↔ 실제 — 일치 함정
▲	98쪽 각주 i 셋째 문장(99쪽으로 이어짐)	Not only were there substantial pay differentials … but the political elite did get special treatment	Not only 도치 · 강조의 did
★	99쪽 각주 i(이어짐)	better housing, access to special stores … and opportunities to travel to capitalist countries	엘리트의 특혜 — 일치

내용

1980년대 말 저자가 케임브리지의 대학원생이던 시절, 저자의 인도인 친구는 모스크바를 거쳐 Aeroflot로 고향에 다니곤 했다. 듣기로는 이 항공사가 편안함 · 시간 엄수 · 승무원의 태도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형편없었지만, 표가 단연 가장 쌌기 때문에 많은 인도인이 묵묵히 견뎠다. 친구의 말로는 기내식이라고는 핏기 없이 허옇고 닭살이 돋은 맛없는 닭고기뿐이었다. 한번은 친구가 Aeroflot 비행기에서, 같은 인도인 승객이 승무원에게 닭 말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가, 말하자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승무원은 이렇게 받아쳤다. '아뇨, 안 됩니다. Aeroflot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회주의 항공사니까요.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이 대답은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한 인간이므로 모두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소련 원칙의 극단적인 형태였다. 그래서 정부 장관이든 의사든 광부든 청소부든, 누구나 같은 양의 빵 · 설탕 · 소시지, 해마다 신발 한 켤레, 그 밖의 모든 것을 집단 공급으로 배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특별 대우는 없다. (98쪽 각주 i: 그것은 이론이었고 실제는 꽤 달랐다. 사람들 사이에 (자본주의 나라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치 엘리트는 실제로 특별 대우를 받았다 — 더 좋은 집, 더 좋은 (흔히 수입) 상품을 파는 특별 상점, 그리고 이를테면 고국의 보통 사람은 구할 수 없는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자본주의 나라로 여행할 기회.)

어법

- **an Indian friend of mine used to fly home with Aeroflot, via Moscow** : a friend of mine = 이중 소유격(a my friend는 오답). used to V = 예전에 ~하곤 했다. home = 부사(to home은 오답). via = ~을 거쳐.
- **Apparently the airline was awful in every conceivable way …, but many Indians stoically endured it, as their tickets were by far the cheapest** : Apparently = 듣기로는(전언 — 저자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다). as = 이유. by far + 최상급 = 단연 가장 ~.
- **my friend overheard a fellow Indian passenger ask a stewardess whether he could have something other than chicken** : overhear + O + 원형부정사(ask) = O가 ~하는 것을 우연히 듣다. ask + O + whether절(간접의문문). other than = ~ 말고.
- **because he was, well, a vegetarian** : well = 말을 고르는 삽입어(문장 성분이 아니다). he = 동료 인도인 승객.
- **the Soviet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be treated equally, because everyone is a human being who is equally valuable** : that = 동격 접속사(principle의 내용, 뒤가 완전한 절). should be treated = 조동사 + 수동.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human being).
- **So, whether someone was a government minister, a medical doctor, a coal miner or a cleaner, each person would be given the same ration of bread, sugar, sausages …** : whether A, B, C or D = ~이든 ~이든(양보 부사절). each + 단수 명사. would be given = give의 수동(사람이 주어) —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 **Not only were there substantial pay differentials between different people …, but the political elite did get special treatment** : 부정어구 Not only가 문장 앞 → were there 도치. did get = 강조의 do(실제로 받았다).

- **opportunities to travel to capitalist countries (where they could, among other things, buy luxury goods not available to ordinary people back home)**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capitalist countries). among other things = (다른 여러 일 가운데) 이를테면(삽입). not available ~ = goods를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	postgraduate	—
punctuality	시간 엄수	timeliness	lateness
stoically	묵묵히, 꿋꿋이	patiently	—
endure	견디다	tolerate	—
sickly	(빛깔이) 핏기 없는	pale	healthy
overhear	우연히 듣다	—	—
vegetarian	채식주의자	—	meat-eater
quip (v.)	재치 있게 받아치다	joke	—
principle	원칙	tenet	—
ration	배급량	allowance	—
annual	해마다의	yearly	—
collective	집단의, 공동의	communal	individual
differential	(임금 등의) 격차	gap	—
elite	엘리트, 특권층	upper class	the masses

내용 일치 1980년대 말 저자 = 케임브리지 대학원생 · 인도인 친구가 모스크바를 거쳐 Aeroflot로 귀국하곤 함 · 항공사는 모든 면(편안함 · 시간 엄수 · 승무원 태도 등)에서 형편없었다고 한다 · 표가 단연 가장 싸서 많은 인도인이 묵묵히 견딤 · 친구에 따르면 기내식은 핏기 없고 닭살이 돋은 맛없는 닭뿐 · 동료 인도인 승객(채식주의자)이 닭 말고 다른 것을 청함 → 승무원: 안 된다 · 모두가 평등 · 사회주의 항공사 · 특별 대우는 없다 / 소련 원칙 =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한 인간이므로 똑같이 대우 · 장관 · 의사 · 광부 · 청소부 모두 같은 빵 · 설탕 · 소시지, 해마다 신발 한 켤레, 그 밖의 모든 것을 집단 공급으로 / 각주 i = 이론일 뿐 · 실제로는 상당한 임금 격차(자본주의 나라보다는 훨씬 작음) · 정치 엘리트의 특별 대우(더 좋은 집 · 특별 상점 · 자본주의 나라 여행). **밑줄 의미** Everybody's equal on Aeroflot = 채식주의자에게도 닭을 주는 것이 '평등'이라는 극단적 논리 / There's no special treatment = 다른 필요를 채워 주는 일을 특혜로 여김 / an extreme version of the Soviet principle = 승무원의 말은 소련식 평등 원칙을 극단으로 밀고 간 것 / That was the theory = 실제 소련에는 격차와 특혜가 있었다 / 지칭: 95쪽 첫 줄 it(endured it) = the airline · their tickets = 인도인 승객들의 · his(Aeroflot flights) = 저자의 친구 · he(could have · was a vegetarian) = 동료 인도인 승객 · It's(a socialist airline) = Aeroflot / 95쪽 ¶1 each person = 장관 · 의사 · 광부 · 청소부 누구든 / 99쪽 각주 i they(could buy) = 정치 엘리트 · back home = 소련.

> **한 줄 요약** 채식주의자 승객에게도 닭만 준 Aeroflot 승무원의 '특별 대우는 없다'는 말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는 소련식 평등 원칙의 극단적 형태였다.

12-3 같은 대우는 왜 불공정한가 – 빵과 화장실 95쪽 ¶2 ~ 96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95쪽 ¶2 ~ 96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5쪽 ¶2	There is a serious problem with this way of approaching equality and fairness	문제 제기 – 주제문
▲	95쪽 ¶3 첫 문장	It is true that, as human beings, we all have the same 'basic needs'	It is true that ~ → However(양보 → 반박)
★	95쪽 ¶3 둘째 문장	the socialist principle is an important indictment of the practices in feudal and capitalist societies, where some people starve to death while others wallow in luxury	인정할 점 · 어휘(indictment)
★	95쪽 ¶3 셋째 문장	once we depart from the basics, our needs begin to diverge pretty quickly	문장 삽입 1순위 · 어휘(diverge)
▲	95쪽 ¶4 첫 문장	Take the case of bread – a staple food item in many societies	명령문으로 예를 듦 · 순서 배열의 첫 고리
★	95쪽 ¶4 둘째 문장	may sound fair in times of grave food shortage (… 1928–35 or the UK … 1946–8)	숫자 – 일치
★	95쪽 ¶4 셋째 문장	leavened wheat bread, which some people simply cannot eat – perhaps because they have coeliac disease, perhaps because they are Jews observing Passover	까닭 두 가지 – 추측(perhaps)
★	95쪽 ¶4 넷째 문장	providing male and female toilets of the same size … may sound even-handed … but it is a very unfair thing, as women need more time and space	동명사 주어 · 어휘(even-handed)
◆	95쪽 ¶4 넷째 문장	hence the snaking queues outside female public toilets	hence + 명사구 · 그림 같은 증거
★	95쪽 ¶5 첫 문장	treating people with different needs in the same way … is fundamentally unfair	요지 · 동명사 주어 → is
◆	95쪽 ¶5 둘째~셋째 문장	treating people with different needs differently is not giving them special treatment.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of fairness	제목 1순위 · 승무원의 말 뒤집기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5쪽 ¶5 넷째 문장(96쪽 첫 줄까지)	we are not showing favouritism to vegetarians, coeliac sufferers or women, respectively	respectively — 짝 맞추기
◆	96쪽 첫 줄(95쪽 ¶5 다섯째 문장)	We are simply putting them on an equal footing as the others in their fulfilment of basic needs	밑줄 의미 · 지칭(them)

내용

이처럼 평등과 공정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같은 '기본 욕구'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깨끗한 물, 안전한 거처, 영양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원칙은,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다른 사람은 사치에 빠져 지내는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관행을 고발하는 중요한 비판이다. 그러나 기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필요는 꽤 빨리 갈라지기 시작하고,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많은 사회의 주식인 빵을 예로 들어 보자. 모두에게 하루에 같은 양의 빵을 주는 것은 (농업 집단화 뒤 식량이 부족했던 1928~35년의 소련이나 2차 세계대전 뒤 식량이 부족했던 1946~8년의 영국처럼) 심각한 식량 부족 때에는 공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빵이 발효시킨 밀빵이라면 공정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빵을 아예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셀리악병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이어서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공공건물에 같은 크기의 남녀 화장실을 두는 것은 인구의 대략 절반이 남성이고 나머지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은 화장실에서 시간과 공간이 더 필요하므로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다. 영화관 · 공연장 같은 곳의 여자 공중화장실 밖에 구불구불 길게 늘어선 줄이 그 결과다. 요컨대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 — 채식주의자에게 닭고기를, 셀리악병 환자에게 밀빵을 주고,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화장실 공간을 배정하는 것 — 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 Aeroflot 승무원의 생각과 달리,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다. 기내식에 채식 선택지를 두고, 글루텐 없는 빵을 내놓고,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 때 우리는 채식주의자 · 셀리악병 환자 · 여성을 각각 편애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본 욕구를 채우는 데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위치에 세우는 것이다.

어법

- **It is true that, as human beings, we all have the same 'basic needs' ... However, once we depart from the basics, ...** : It is true that ~. However ~ = 양보(인정) 뒤에 반박. as = 자격(~으로서). once = 접속사(일단 ~하면).
- **feudal and capitalist societies, where some people starve to death while others wallow in luxury**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societies,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 some ~ others ~ = 어떤 이들은 ~ 다른 이들은 ~. starve to death = 굶어 죽다.
- **our needs begin to diverge pretty quickly, and treating everyone in the same way becomes problematic** : 동명사구 주어(treating ~) + 단수 동사 becomes. pretty = 부사(꽤). become + 형용사(보어).
- **Giving everyone the same amount of bread per day may sound fair in times of grave food shortage** : 동명사구 주어 + may sound + 형용사(fair; fairly는 오답). give + 간접목적어(everyone) + 직접목적어(the same amount).
- **it isn't fair if the bread is leavened wheat bread, which some people simply cannot eat – perhaps because ..., perhaps because ...** : which = ea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계속적 관계대명사. perhaps because ~를 되풀이해 까닭을 추측으로 나열한다(단정이 아니다).
- **providing male and female toilets of the same size in a public building may sound even-handed, given that roughly half the population is male and the other half female** : 동명사구 주어(providing ~). given that ~ = ~을 고려하면. the other half (is) female — 되풀이되는 is를 생략.

- **as women need more time and space in the toilet – hence the snaking queues outside female public toilets** : as = 이유. hence + 명사구 = 그래서 ~이 생긴다(동사 없이 결과를 덧붙인다).
- **In offering vegetarian options ..., providing gluten-free bread or making female toilets more numerous, we are not showing favouritism to vegetarians, coeliac sufferers or women, respectively** : In + 동명사 = ~할 때, ~함에 있어. make + O + 형용사(more numerous). respectively = 각각(앞의 세 조치와 세 집단을 순서대로 짝짓는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dictment	고발, 비판	condemnation	endorsement
feudal	봉건의	—	—
wallow in	~에 빠져 지내다	revel in	—
diverge	갈라지다	differ	converge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troublesome	unproblematic
staple (a.)	주된, 기본의	basic	—
grave	심각한	serious	trivial
leavened	(빵이) 발효된, 부풀린	raised	unleavened
even-handed	공평한	impartial	biased
snaking	구불구불 늘어선	winding	straight
allocate	배정하다	assign	—
favouritism	편애, 특혜	partiality	impartiality
footing	입장, 위치	standing	—
fulfilment	충족	satisfaction	—

내용 일치 이런 평등 · 공정 접근법에는 심각한 문제 · 인간으로서 같은 기본 욕구(깨끗한 물 · 안전한 거처 · 영양 있는 음식) · 그 점에서 사회주의 원칙은 봉건 · 자본주의 사회(굶어 죽는 사람과 사치에 빠진 사람)에 대한 중요한 고발 · 기본을 넘어서면 필요가 꽤 빨리 갈라짐 / 빵 = 많은 사회의 주식 · 심각한 식량 부족 때 같은 양은 공정해 보일 수 있음(소련 농업 집단화 뒤 1928~35 · 영국 2차 대전 뒤 1946~8) · 발효 밀빵이면 불공정(셀리악병 ·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 — perhaps) / 같은 크기의 남녀 화장실 = 공평해 보이지만 여성은 시간 · 공간이 더 필요 → 영화관 · 공연장 등 여자 화장실 밖의 긴 줄 / 다른 필요를 같게 대하면 근본적으로 불공정 · 다르게 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 채식 기내식 · 글루텐 없는 빵 · 더 많은 여자 화장실 = 편애가 아니라 기본 욕구 충족에서 대등한 위치에 세우는 것. **밑줄 의미** There is a serious problem with this way =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평등관의 한계 / our needs begin to diverge = 기본 욕구를 넘어서면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다 / hence the snaking queues = 같은 크기의 화장실이 불공정하다는 증거 / not giving them special treatment = 다른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 putting them on an equal footing = 기본 욕구를 채우는 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세운다 / 지칭: 95쪽 ¶2 this way of approaching = 소련식 '똑같이 대하기' / 95쪽 ¶3 where = 봉건 · 자본주의 사회 / 95쪽 ¶4 they(have coeliac disease) = 발효 밀빵을 못 먹는 사람들 · it(is a very unfair thing) = 같은 크기의 화장실을 두는 일 / 95쪽 ¶5 them(giving them) = 필요가 다른 사람들 · It(is one of) = 다르게 대하는 것 / 96쪽 첫 줄 them = 채식주의자 · 셀리악병 환자 · 여성 · the others = 나머지 사람들.

> **한 줄 요약** 기본 욕구를 넘어서면 필요가 갈라지므로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면 불공정하며,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의 조건이다.

12-4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공정 – 기여에 따른 보상 96쪽 ¶1-¶3

원문 위치 원서 96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6쪽 ¶1 앞 *	(구분 표시 *)	장면 전환 – 사회주의자에서 반대편의 자유시장 경제학자로
◆	96쪽 ¶1	free-market economists, have an equally blinkered view of equality and fairness, albeit in a totally different way	밑줄 의미 1순위 · albeit
★	96쪽 ¶2 첫 문장	the socialist system didn't work because it tried to ensure low inequality by paying everyone similarly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주장(argue) – 저자의 주장과 구분
◆	96쪽 ¶2 첫 문장 괄호	(it was never the 'same', except in extreme cases like Maoist China or Cambodia under Khmer Rouge)	저자의 단서 – 일치 함정
★	96쪽 ¶2 둘째 문장	There are inventors, investment bankers, brain surgeons and entertainers, the free-marketeers point out, who make huge contributions	삽입절 · 떨어진 관계절(who의 선행사)
★	96쪽 ¶2 셋째 문장	most people are competent at what they do while there are some who are suited only for the most basic jobs	대조 while
▲	96쪽 ¶2 넷째 문장	trying to achieve low inequality by paying people within a narrow range spells disaster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 spell(초래하다)
★	96쪽 ¶2 다섯째 문장	not only unfair for the more capable people … but it is also socially counter-productive because it makes the more capable people less motivated	not only A but also B · make + O + 형용사
◆	96쪽 ¶2 여섯째 문장	This can only bring equality in poverty, free-market economists opine	밑줄 의미 · 그들의 의견(opin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6쪽 ¶3 첫 문장	we should let individuals compete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and accept the outcome of the competition, even if ...	let + O + 원형 · 빈칸의 바탕
★	96쪽 ¶3 둘째 문장	the most productive because individuals will have the highest incentive ..., the fairest because they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s	빈칸 1순위 · 두 까닭의 병렬

내용

흥미롭게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사회주의자의 반대편 끝에 있는 사람들, 곧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평등과 공정에 대해 똑같이 좁은 시야를 지니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 까닭이, 사람마다 경제에 하는 기여가 엄청나게 다른데도 모두에게 비슷하게 보수를 주어 불평등을 낮게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저자는 괄호 안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이나 크메르 루주 치하의 캄보디아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빼면 보수가 '똑같았던' 적은 없었다고 덧붙인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발명가 · 투자 은행가 · 뇌외과의 · 연예인처럼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머지 가운데 대부분은 제 일을 잘해 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에만 맞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좁은 범위 안에서 보수를 주어 불평등을 낮추려 하면 재앙을 부른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여에 걸맞은 것보다 (때로는 훨씬) 적게 보상받는 더 유능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혁신하려는 의욕을 꺾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견해로는 이는 빈곤 속의 평등만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은, 어떤 견해로 보면 지나치게 불평등해 보이는 소득 분배가 나오더라도 개인들이 능력껏 경쟁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공정한 체제라고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산출을 최대한 늘릴 가장 큰 유인을 갖게 되므로 가장 생산적이고, 경제에 대한 기여에 따라 보상받으므로 가장 공정하다는 것이다.

어법

- those at the other end of the political spectrum from the socialists, namely, free-market economists, have an equally blinkered view ..., albeit in a totally different way : those = 사람들(at ~ 전치사구가 꾸밈). namely = 곧(동격을 밝힘). 주어 those → 복수 동사 have. albeit = 비록 ~이지만(뒤에 절이 아니라 구가 온다).
- the socialist system didn't work because it tried to ensure low inequality by paying everyone similarly ..., despite the fact that different people make vastly different contributions : by + 동명사 = 수단. despite the fact that ~ = ~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despite 바로 뒤에는 절이 올 수 없어 the fact that을 쓴다).
- There are inventors, investment bankers, brain surgeons and entertainers, the free-marketeers point out, who make huge contributions to the economy : the free-marketeers point out = 삽입절. who의 선행사 = inventors ... entertainers(삽입절을 건너뛰어 이어진다).
- trying to achieve low inequality by paying people within a narrow range spells disaster : 동명사구 주어(trying ~) → 단수 동사 spells. spell disaster = 재앙을 부르다.
- This is not only unfair for the more capable people who are rewarded less (sometimes far less) than their contributions merit but it is also socially counter-productive : not only A but (it is) also B. far = 비교급 강조(훨씬). merit = 동사(~을 받을 만하다) — than 뒤 비교절의 동사로, 받을 만한 보상(목적어)은 생략되었다.
- because it makes the more capable people less motivated to work hard, invest and innovate : make + O + 형용사(motivated). to work, (to) invest, (to) innovate 병렬. it = 좁은 범위의 보수로 불평등을 낮추려는 것.

- **we should let individuals compete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and accept the outcome of the competition, even if it produces a distribution of income that may seem excessively unequal** : let + O + 원형부정사(compete; to compete는 오답). accept는 should에 이어진다(let과 병렬). even if = 양보. to the best of one's abilities = 능력껏.
- **the most productive because individuals will have the highest incentive to maximize their outputs, the fairest because they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s** : 콜론 뒤에서 (it is) the most productive because ~ / (it is) the fairest because ~ 두 구가 병렬. according to = ~에 따라.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pectrum	스펙트럼, 범위	range	—
blinkered	시야가 좁은, 편협한	narrow-minded	broad-minded
albeit	비록 ~이지만	although	—
vastly	엄청나게	hugely	slightly
competent	유능한, 제 몫을 하는	capable	incompetent
spell (v.)	(나쁜 결과를) 부르다	mean	—
merit (v.)	~을 받을 만하다	deserve	—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는	self-defeating	productive
motivated	의욕이 있는	driven	unmotivated
innovate	혁신하다	—	—
opine	의견을 말하다	state	—
assert	주장하다	claim	deny
excessively	지나치게	overly	moderately
incentive	유인, 동기	motivation	disincentive

내용 일치 자유시장 경제학자 =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사회주의자의 반대편 · 저자: 그들도 똑같이 시야가 좁다(방식은 완전히 다름) / 그들의 주장: 사회주의는 모두에게 비슷하게 보수를 줘 불평등을 낮추려 해서 실패 · 저자의 괄호: '똑같지'는 않았음(마오의 중국 · 크메르 루주의 캄보디아 같은 극단적 경우는 예외) · 발명가 · 투자 은행가 · 뇌 외과의 · 연예인 = 큰 기여 · 대부분은 제 일에 유능 · 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만 맞음 · 좁은 범위의 보수 = 재앙 · 유능한 사람에게 불공정 + 의욕을 꺾어 역효과 · 빈곤 속의 평등뿐 / 그러므로 능력껏 경쟁하게 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 가장 생산적(산출을 최대화할 유인) · 가장 공정(기여에 따라 보상) — 모두 그들의 주장(argue · opine · assert · they say). **밑줄 의미** an equally blinkered view = 자유시장 경제학자도 사회주의자처럼 평등 · 공정을 한쪽으로만 본다(어떻게 좁은지는 뒤 단락에서) / spells disaster = 보수 격차를 좁히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그들의 주장 / equality in poverty =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지는 평등 / 지칭: 96쪽 ¶2 it(tried) = the socialist system · it(was never the 'same') = 사회주의 체제의 보수 · who(make huge contributions) = 발명가 · 투자 은행가 · 뇌 외과의 · 연예인 · they(argue) = free-market economists · This(is not only unfair) = 좁은 범위의 보수로 불평등을 낮추려는 것 / 96쪽 ¶3 it(produces) = 경쟁의 결과 · they(say) = 자유시장 경제학자 · they(will be rewarded) = individuals.

> **한 줄 요약**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비슷한 보수가 유능한 사람에게 불공정하고 의욕을 꺾는다며, 능력껏 경쟁해 기여에 따라 보상받는 체제가 가장 생산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12-5 기회의 평등이라는 전제 조건과 차별 96쪽 ¶4 ~ 97쪽 ¶2

원문 위치 원서 96쪽 ¶4 ~ 97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6쪽 ¶4 첫~둘째 문장	The validity of the principle … has an important pre-condition. It is that everyone has the chance to try for the best possible jobs – namely, there should be equality of opportunity	통합 사고 빈칸 · 보어 that절
★	96쪽 ¶5 첫~둘째 문장	This is not a trivial condition. … formal restrictions on people's choice of education and occupation because of caste, gender, race and religion (see 'Acorn')	1장과 잇는 고리
★	96쪽 ¶5 셋째 문장	did not accept non-Anglicans (e.g., Catholics, Jews, Quakers) until 1871 and didn't award degrees to women until 1920 and 1948 respectively	숫자 · respectively — 일치 1순위
★	99쪽 각주 ii	Oxford, Cambridge and Durham only after 1871 … 1920 in Oxford and 1948 in Cambridge	더럼 추가 · 짝 확인
▲	96쪽 ¶5 넷째 문장	were forced to study at severely under-funded and crowded non-white universities,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get decent jobs	결과의 분사구문 + 가목적어 it
★	96쪽 ¶6 첫 문장(97쪽 첫 줄까지)	most of these formal discriminations have been abolished, but no country has achieved true equality of opportunity	어법 문항의 바탕
★	97쪽 첫 줄(96쪽 ¶6 둘째 문장)	the sexist view that women are less likely to put career above family, if not the mistaken and downright offensive view that they are inherently inferior	동격 that · if not
★	97쪽 첫 줄(96쪽 ¶6 셋째 문장)	Racial discrimination … is still rampant in all multi-racial societies, which give greater opportunities to less able people from ethnic-majority backgrounds	주어 – 동사 수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7쪽 ¶1 첫 문장	The discrimination may even be partly self-imposed	추측 — 단정 금지
★	97쪽 ¶1 둘째 문장	'masculine' – science, engineering, economics – … 'voluntarily' choose not to study these subjects	따옴표 = 진짜 자발이 아님
★	99쪽 각주 iii	50% … in Cyprus … 36% and 38% in Denmark and Russia. In Korea and Japan, it is just 5–10%	숫자 — 일치
★	97쪽 ¶1 셋째 문장	in the early 1980s, there were only six female students in the cohort of 360 or so, … eleven female students among a cohort of over 1,200	숫자 1순위 — 6 · 360 · 11 · 1,200
★	99쪽 각주 iv	over 30%, approaching 40% … rising to around 15%	오늘날의 숫자
★	97쪽 ¶1 넷째 문장	There was no formal rule … because they had been socialized to think those suited them better	불일치 1순위 · 과거완료 수동
◆	99쪽 각주 v	not to say that these choices are entirely … due to … 'internalizing' sexist social norms … parents … relatives and friends	저자의 단서
★	97쪽 ¶2	the outcome of the competition cannot be seen as being the most productive or the fairest one. Equality of opportunity is vital	결론 — 주장

내용

기여에 따라 보수를 준다는 원칙이 타당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 곧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조건이 아니다. 과거 많은 사회는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 때문에 사람들의 교육 · 직업 선택을 공식적으로 제한했다(「Acorn」 참조).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은 1871년까지 (가톨릭교도 · 유대인 · 퀘이커교도 같은) 비국교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성에게는 각각 1920년과 1948년이 되어서야 학위를 주었다(99쪽 각주 ii: 비국교도는 1871년 이후에야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 더럼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여성은 19세기 말부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학위는 옥스퍼드에서 1920년, 케임브리지에서 1948년에야 받았다).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아래에서 흑인과 '유색인'(혼혈을 가리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용어)은 재정이 몹시 부족하고 붐비는 비백인 대학에서 공부해야 했고,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오늘날 이런 공식적 차별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이룬 나라는 없다. 직장에서 여성은, 타고나기를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그릇되고 몹시 모욕적인 시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은 가정보다 경력을 앞세울 가능성이 낮다는 성차별적 시각 때문에 남성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교육 · 노동 시장 · 일터의 인종 차별은 모든 다인종 사회에서 여전히 만연해, 소수 인종 출신의 더 유능한 사람보다 다수 인종 출신의 덜 유능한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준다. 차별은 심지어 부분적으로 스스로 부과한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사회에서 과학 · 공학 · 경제학 같은 과목은 '남성적'이라고 널리 여겨지고, 똑똑한 젊은 여성 다수는 적성으로 보면 아주 잘 맞을 때에도 이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다(99쪽 각주 iii: 나라마다 차이가 커서, 공학 졸업생 가운데 여성이 키프로스는 50%, 덴마크와 러시아는 36%와 38%지만 한국과 일본은 5~10%에 그친다 — UNESCO 자료).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저자가 다닌 경제학과 학부 과정에는 360명 남짓한 동기 가운데 여학생이 6명뿐이었고, 공학부에는 1,200명이 넘는 동기 가운데 여학생이 11명뿐이었다(99쪽 각주 iv: 요즘 저자의 모교 경제학과 여학생 비율은 30%를 넘어 40%에 가깝고, 공학부도 15% 안팎으로 올랐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40년 전보다 훨씬 낫다). 여학생은 공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할 수 없다는 공식 규정은 없었지만, 똑똑한 여학생 다수는 영문학이나 심리학 같은 '여성적' 과목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골랐다(99쪽 각주 v: 스스로 검열했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런 선택이 전적으로 또는 꼭 주로 여학생 개인이 성차별적 사회 규범을 '내면화'한 탓이라는 뜻은 아니다. 부모의 뜻에 꺾인 이도, 친척 · 친구의 못마땅한 눈길을 두려워한 이도 있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별 · 종교 · 인종처럼 그 일을 해낼 능력과 아무 관계 없는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공식적 · 비공식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에 들어서는 것조차 막힌다면, 그 경쟁의 결과는 가장 생산적이거나 가장 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회의 평등은 결정적이다.

어법

- **It is that everyone has the chance to try for the best possible jobs – namely, there should be equality of opportunity** : It = 앞 문장의 an important pre-condition. that절 = 보어(완전한 절). the best possible = 가능한 한 가장 좋은. namely = 곧.
- **did not accept non-Anglicans ... until 1871 and didn't award degrees to women until 1920 and 1948 respectively** : not A until B = B가 되어서야 A했다. respectively = 앞의 Oxford · Cambridge와 1920 · 1948을 순서대로 짝짓는다.
- **Blacks and 'coloureds' ... were forced to study at ...,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get decent jobs** : be forced to V = 강요받다(수동). making it(가목적어) + 형용사 + for + 의미상 주어 + to V(진목적어) = 결과의 분사구문.
- **Women in workplaces are not given the same opportunity as men based on the sexist view that women are less likely to put career above family, if not the ... view that they are inherently inferior to men** : the same A as B. based on = ~에 근거해. that = 동격(두 번 모두). if not ~ = ~까지는 아니더라도(어쩌면 ~이기까지 한). be inferior to(than은 오답).
- **Racial discrimination in education, the job market and the workplace is still rampant in all multi-racial societies, which give greater opportunities to less able people ... over more capable ones** : 주어 discrimination(단수) → is. which의 선행사 = all multi-racial societies(복수 → give). ones = people. give A to B over C = C보다 B에게 A를 주다.
- **a lot of bright young women 'voluntarily' choose not to study these subjects even when their aptitudes may make them entirely suitable** : choose not to V = 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make + O + 형용사(suitable). even when = ~할 때조차.
- **many bright female students chose to study 'feminine' subjects ..., because they had been socialized to think those suited them better** : had been socialized = 과거완료 수동(고르기 전부터 길들여져 있었다). think (that) ~ = that 생략. those = 'feminine' subjects.
- **if some people are prevented, formally and informally, from even entering the competition ... due to characteristic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ir capabilities** : prevent + O + from -ing의 수동 = be prevented from -ing. have nothing to do with = ~와 아무 관계가 없다. cannot be seen as being ~ = ~으로 볼 수 없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alidity	타당성	soundness	invalidity
pre-condition	전제 조건	prerequisit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rivial	사소한	minor	significant
caste	카스트(세습 신분)	—	—
under-funded	재정이 부족한	underfinanced	well-funded
abolish	폐지하다	do away with	establish
sexist	성차별적인	—	—
downright	노골적으로, 완전히	utterly	—
inherently	본래, 타고나기를	intrinsically	—
inferior	열등한	lesser	superior
rampant	만연한	widespread	rare
aptitude	적성	talent	—
cohort	(같은 해의) 동기 집단	class	—
socialize	(사회 규범에) 길들이다	condition	—

내용 일치 기여에 따른 보수 원칙의 전제 = 모두가 가장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 = 기회의 평등 · 사소한 조건이 아님 · 과거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에 따른 교육 · 직업 선택의 공식 제한(「Acorn」) ·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 1871년까지 비국교도(가톨릭 · 유대인 · 퀘이커) 불허 · 여성 학위 옥스퍼드 1920 · 케임브리지 1948(각주 ii: 더럼도 1871년 뒤에야 · 여성은 19세기 말부터 공부는 허용) · 아파르트헤이트 = 흑인 · '유색인'은 재정 부족 · 과밀한 비백인 대학 → 괜찮은 일자리 거의 불가능 / 오늘날 공식 차별은 대부분 폐지 ·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이룬 나라는 없음 · 직장 여성(성차별적 시각) · 인종 차별은 모든 다인종 사회에 만연 / 차별은 부분적으로 스스로 부과된 것일 수도 · '남성적' 과목(과학 · 공학 · 경제학) · 1980년대 초 저자의 경제학과 = 360명 남짓 중 여학생 6명 · 공학부 = 1,200명 넘게 중 11명 · 공식 규정은 없었음 · '여성적' 과목(영문학 · 심리학)을 고름 · 각주 iii: 키프로스 50% · 덴마크 36% · 러시아 38% · 한국 · 일본 5~10% · 각주 iv: 지금 모교 경제학과 30% 넘어 40%에 가까움 · 공학부 15% 안팎 / 능력과 무관한 특성으로 경쟁에서 막히면 결과는 가장 생산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음 · 기회의 평등은 결정적. **밑줄 의미** This is not a trivial condition = 기회의 평등은 당연히 갖춰지는 조건이 아니다(과거엔 공식적으로 막혔다) / 'voluntarily' = 겉으로는 자발적 선택이지만 사회의 시선에 길들여진 결과 / self-imposed = 공식 규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가로막는 차별(may even be partly — 추측) / Equality of opportunity is vital =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원칙도 기회의 평등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 지칭: 96쪽 ¶4 It(is that) = an important pre-condition / 96쪽 ¶5 This = 기회의 평등이라는 조건 · them(for them to get) = 흑인과 '유색인' / 97쪽 첫 줄 they(are inherently inferior) = women · which = all multi-racial societies · ones = people / 97쪽 ¶1 them(make them entirely suitable) = bright young women · those(suited them) = '여성적' 과목 / 97쪽 ¶2 those jobs = 가장 좋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

> **한 줄 요약** 기여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려면 기회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공식 차별은 사라졌어도 성 · 인종 차별과 스스로 부과한 차별 때문에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아직 없다.

12-6 외다리 주자의 경주 – 필요 · 능력 · 결과의 평등 97쪽 ¶3 ~ 98쪽 ¶4

원문 위치 원서 97쪽 ¶3 ~ 98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7쪽 ¶3 첫 문장	let us suppose that, in some future society (hopefully not too far into the future), we somehow achieve true equal opportunity	가정 · 저자의 바람(hopefully)
★	97쪽 ¶3 둘째 문장 괄호	rules are often rigged – just think about 'legacy' students in American universities	예 – 일치
★	97쪽 ¶3 셋째 문장 ~ ¶4	Can we then say that we should accept whatever inequality exists …? Unfortunately, even then, we cannot.	질문 → 답 · 생략
★	97쪽 ¶5 첫 문장	everyone having equal opportunity to compete under the same rules does not mean that the competition is truly fair	의미상 주어 + 동명사 주어
◆	97쪽 ¶5 둘째 문장	We don't call a race fair simply because everyone starts from the same starting line if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밑줄 의미 1순위 · call + O + 형용사
◆	99쪽 각주 vi	Paralympics … gender division, age groups and weight classes … the weight band is 3–4 pounds, or 1.5–2 kilograms	숫자 · 체급 – 일치
★	97쪽 ¶5 셋째 문장	some may have had their brain developments stunted due to childhood malnutrition while others may have had sub-standard education	have + O + p.p. · 추측 may have p.p.
★	98쪽 첫 줄(97쪽 ¶5 넷째 문장)	equality of opportunity is meaningless unless every member of society has the minimum necessary capabilities	요지 · unless
★	98쪽 ¶1 첫~둘째 문장	ensure that all children develop minimum capabilities before they join the race … nutrition, healthcare, education and playtime	요지 1순위 · whos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8쪽 ¶1 셋째 문장	the differences in circumstances among those who are raising children … should not be too large	require that + S + (should) V
◆	98쪽 ¶1 넷째 문장	collective creches, like in Aldous Huxley's Brave New World or in North Korea today (although even there, I am told, …)	전언(I am told) — 단정 금지
★	98쪽 ¶1 다섯째 문장	equality of opportunity is not enough; we need a relatively high degree of equality of outcome	주장 1순위
★	98쪽 ¶2 첫~넷째 문장	regulations of markets … Switzerland and South Korea … small farms … small shops … financial regulations … labour market regulations	요약문 (A) · 예시
★	98쪽 ¶2 다섯째 문장	more effectively achieved by redistribution through the welfare state … (see 'Rye')	요약문 (B)
★	98쪽 ¶3	only thought of outcomes and opportunities, while neglecting needs and capabilities. The left … The right …	주장 · 좌우 대비
◆	98쪽 ¶4	We don't want to fly with an airline which thinks giving chicken to vegetarians is fair. However, neither do we want …	첫머리 되받기 · neither 도치

내용

이제 (바라건대 너무 먼 미래는 아닌) 어느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모두에게 진정으로 평등한 경쟁 기회를 마련했다고 해 보자. 또 모두가 같은 규칙에 따라 경기한다고 가정해 보자(실제로는 규칙이 흔히 조작된다 — 부모나 조부모가 다닌 대학에 지원할 때 입학에서 유리한 미국 대학의 'legacy' 학생을 떠올려 보라). 그렇다면 모두가 같은 경기에서 같은 규칙에 따라 같은 경쟁 기회를 가졌으니 그 사회에 있는 어떤 불평등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때조차 그럴 수 없다.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 경쟁할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해서 그 경쟁이 진정으로 공정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주자는 다리가 하나뿐이거나 한쪽 눈이 멀었다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주를 공정하다고 하지는 않는다(99쪽 각주 vi: 실제 스포츠에서 우리는 참가자의 능력 차이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 패럴림픽을 두고 성별 · 연령 · 체급을 나눈다. 복싱 · 레슬링 · 태권도 · 역도처럼 체급이 있는 종목에서는 공정한 경기에 대한 관점이 매우 엄격해, 가벼운 체급의 복싱에서는 체중 범위가 3~4파운드(1.5~2kg)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이론상 모두가 원하는 어떤 일자리에든 도전할 기회가 같다고 해서, 일부 참가자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능력이 없다면 그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의 영양실조로 뇌 발달이 저해되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은 교육 재정이 평균에 못 미치는 궁핍한 지역에서 자라 수준 이하의 교육을 받았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회를 활용할 최소한의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기회의 평등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삶의 경주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만들려면 모든 아이가 경주에 들어서기 전에 최소한의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아이가 영양 · 의료 · 교육, 그리고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놀이 시간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는 다시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 — 부모 · 친척 · 보호자 — 사이의 처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올더스 헉슬리의『Brave New World』나 오늘날의 북한처럼 모든 아이를 집단 탁아소에서 기를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저자가 듣기로는 그곳에도 정치 엘리트를 위한 더 좋은 탁아소가 있다). 요컨대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결과의 평등은 시장 규제로 높일 수 있다. 어떤 규제는 경제적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한국은 (농산물 수입을 제한해) 소농을, (대형 유통업체를 제한해) 소상점을 보호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낮춘다. 금융 규제(고수익 · 고위험 투기 활동의 제한)나 노동 시장 규제(적절한 최저 임금의 시행, 병가 수당 인상)로도 불평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매우 평등한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가 보여 주듯, 결과의 평등은 직접 소득 이전이든 교육 · 의료 · 수도 같은 양질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이든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Rye」 참조). 불평등 논쟁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람들이 결과와 기회만 생각하고 필요와 능력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좌파는 개인마다 필요와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채 모두의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겨 왔다. 우파는 기회의 평등이면 충분하다고 믿어 왔는데,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에는 개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능력의 평등이 필요하며, 이는 소득 재분배 · 양질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 시장 규제로 이룬 부모 세대 사이의 상당한 결과의 평등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채식주의자에게 닭고기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항공사를 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취향과 필요에 맞춘 여러 기내식(어쩌면 닭 요리도 한 가지가 넘는?)을 내놓되 우리 가운데 극소수만 감당할 수 있는 표값을 대가로 하는 항공사를 타고 싶지도 않다.

어법

- **Now, let us suppose that ... we somehow achieve true equal opportunity for everyone to compete. Also, let us also assume that everyone is playing by the same rules** : let us + 원형 = ~해 보자(제안). suppose · assume that ~ = 가정. for everyone to compete = opportunity를 꾸미는 to부정사(for + 의미상 주어). Also와 also가 겹친 것은 원서 표기.
- **Can we then say that we should accept whatever inequality exists in such a society ...? Unfortunately, even then, we cannot.** : whatever + 명사 = 어떤 ~이든(복합관계형용사, whatever inequality가 exists의 주어). we cannot (say that ...) = 되풀이를 피한 생략.
- **everyone having equal opportunity to compete under the same rules does not mean that the competition is truly fair** : everyone = 동명사 having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구 주어 → 단수 does not mean.
- **We don't call a race fair simply because everyone starts from the same starting line if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 call + O + 형용사(fair). not ~ simply because ... = 단지 …라는 이유로 ~하지는 않는다. if = 조건(~라면).
- **some may have had their brain developments stunted due to childhood malnutrition while others may have had sub-standard education** : may have p.p. = 과거 일에 대한 추측. have + O + p.p.(stunted) = O가 ~당하다(피해). due to + 명사. some ~ others ~ 대조.
- **This requires that all of them get adequate provision of nutrition, healthcare, education and playtime (whose importance in child development is increasingly recognized)** : require that + S + (should) 원형 — 바로 다음 문장은 should not be too large로 should를 그대로 썼다. whose의 선행사 = playtime. is increasingly recognized = 현재 수동.
- **greater equality of outcome is more effectively achieved by redistribution through the welfare state – whether it is through direct income transfers or through guaranteeing equal access to quality 'basic services'** : be achieved by ~ = 수동. whether it is A or B = A든 B든. through + 동명사(guaranteeing).
- **However, neither do we want to fly an airline which offers a range of meal alternatives ... but only at the cost of a ticket that few of us can afford** : neither + 조동사 + 주어 = ~도 아니다(도치). at the cost of ~ = ~을 대가로. few of us = 우리 가운데 거의 없는(부정의 뜻).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ig (v.)	조작하다	manipulate	—
contestant	참가자	competitor	—
stunt (v.)	(성장을) 저해하다	hinder	foster
malnutrition	영양실조	undernourishment	—
sub-standard	수준 이하의	inferior	first-rate
deprived	궁핍한, 혜택받지 못한	disadvantaged	privileged
adequate	충분한	sufficient	inadequate
provision	공급, 제공	supply	—
guardian	보호자	custodian	—
creche	탁아소	nursery	—
speculative	투기적인	risky	—
enforcement	시행	implementation	—
redistribution	재분배	—	—
neglect	소홀히 하다	overlook	attend to

내용 일치 가정: 진정한 기회의 평등 · 같은 규칙(실제로는 규칙이 흔히 조작됨 — 미국 대학의 'legacy' 학생: 부모 · 조부모가 다닌 대학 입학에서 유리) → 그래도 어떤 불평등이든 받아들일 수는 없다 / 외다리 · 한쪽 눈이 먼 주자 → 같은 출발선이어도 공정하지 않음 · 현실: 어린 시절 영양실조로 뇌 발달 저해 · 교육 재정이 평균 이하인 궁핍한 지역의 수준 이하 교육(may have — 추측) · 최소한의 능력 없으면 기회의 평등은 무의미 · 각주 vi: 패럴림픽 · 성별 · 연령 · 체급(복싱 · 레슬링 · 태권도 · 역도) · 가벼운 체급 복싱 3~4파운드(1.5~2kg) / 모든 아이가 경주 전에 최소한의 능력 → 영양 · 의료 · 교육 · 놀이 시간 → 기르는 사람들(부모 · 친척 · 보호자)의 처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집단 탁아소 — 『Brave New World』 · 오늘날 북한 — 가 아니라면 · 그곳에도 엘리트용 더 좋은 탁아소가 있다고 들었다) ·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 상당히 높은 결과의 평등 / 시장 규제(스위스 · 한국의 소농 · 소상점 보호 · 금융 · 노동 시장 규제) · 그러나 복지국가의 재분배(직접 소득 이전 · 양질의 기본 서비스 — 교육 · 의료 · 수도)가 더 효과적(「Rye」) / 좌파 = 결과만 · 우파 = 기회만 → 필요와 능력을 놓침 / 채식주의자에게 닭을 주는 항공사도, 극소수만 감당할 표값의 항공사도 싫다. **밑줄 의미**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 경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없는 참가자 / the race of life = 삶의 경쟁 / equality of opportunity is meaningless = 능력이 없으면 기회를 쓸 수 없다 / even perhaps more than one type of chicken dish? =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저자의 농담 / only at the cost of a ticket that few of us can afford = 다양한 필요를 채워 주더라도 그 값이 극소수만 감당할 정도라면 원하지 않는다 / 지칭: 97쪽 ¶3 who(get advantage) = 'legacy' students / 97쪽 ¶5 some ↔ others = 경쟁 참가자 일부 / 98쪽 ¶1 they(join the race) = all children · whose = playtime의 · there = 집단 탁아소(『Brave New World』 · 북한) / 98쪽 ¶3 their parents' generation = 개인들의 부모 세대 / 98쪽 ¶4 which(thinks · offers) = airline.

> **한 줄 요약** 같은 기회와 같은 규칙만으로는 공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도록 상당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며, 불평등 논쟁은 필요와 능력을 함께 보아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2 CHICKEN]

범위	Chicken (원서 PDF 94~99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inequality debate has long gone astray, because people have looked only at outcomes and opportunities and ignored needs and capabilities. Those on the left assume that fairness means identical outcomes for all, forgetting that individuals differ in what they need and what they can do. Those on the right hold that equal opportunity is enough, not seeing that truly fair competition demands some equality of capabilities. That requires a fair degree of equal outcomes among the parents' generation, brought about by redistributing income, opening up good basic services and regulating markets.

① Only equal outcomes are fair.
② Equal opportunity alone ensures fair competition.
③ Fairness must take account of needs and capabilities.
④ Markets should not be regulated.
⑤ The inequality debate should focus on outcome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short, it is deeply unfair to treat people whose needs differ as though they were all alike – serving chicken to vegetarians, handing wheaten bread to coeliacs or giving women no more toilet space than men. The Aeroflot stewardess believed otherwise, but responding differently to different needs is not a form of special treatment; it is among the most essential conditions of fairness. Offering vegetarian meals, gluten-free bread or more women's toilets does not mean favouring vegetarians, coeliacs or women. We are simply making sure that, in meeting their basic needs, they stand on the same footing as everyone else.

① Special Treatment: The Enemy of Fairness
② Different Needs, Different Treatment: The Heart of Fairness
③ Why Airlines Should Serve Only Chicken
④ Favouritism Toward Minorities Must End
⑤ Basic Needs Are the Same for Everyon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f the race of life is to be truly fair, every child must develop minimum capabilities before joining it. All children therefore need enough food, healthcare, schooling and playtime, the last increasingly seen as vital for development. This, in turn, means that the circumstances of those who bring up children, such as parents, guardians and other relatives, must not differ too widely, unless we intend to bring up all children in collective creches, as in North Korea today. In short, equal opportunity is not enough; we also need a fairly high degree of equal outcomes.

① Children should grow up in collective creches.
② A fair race of life requires fairly equal outcomes too.
③ Playtime matters more than education.
④ Equal opportunity is all a fair society needs.
⑤ North Korea treats all children equally.

4. 밑줄 친 an equally blinkered view of equality and fairnes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uriously, free-market economists, at the far political extreme from the socialists, hold an equally blinkered view of equality and fairness, though in an entirely different way. In their eyes, socialism failed because it paid people similarly even though their contributions to the economy differ enormously. Brain surgeons, inventors and entertainers, they say, contribute hugely, while some people are fit only for the simplest work. Squeezing pay into a narrow range is thus unfair to the more capable, who are paid less than they deserve, and it also kills their motivation to work hard, to invest and to innovate. The only result, they claim, is equality in poverty.

① they, too, see fairness from only one narrow angle
② they agree that everyone should be paid the same
③ they care more about politics than the economy
④ they understand fairness better than socialists do
⑤ they refuse to reward anyone's contributions

5. 밑줄 친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qual opportunity to compete under identical rules does not, on its own, make a competition genuinely fair. We would hardly describe a race as fair just because all the runners set off from one starting point when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Real life works the same way. Even if everyone, in principle, may apply for any job they wish, the contest is not fair when certain contestants lack the minimum capabilities required. Some may have suffered stunted brain development through malnutrition in childhood; others may have received poor schooling after growing up in poor neighbourhoods where spending on education is below average. Unless all members of society possess these minimum capabilities, equal opportunity is meaningless.

① some runners have broken the rules of the race
② the starting line has been drawn in the wrong place
③ disabled people should not take part in competitions
④ some contestants have received special treatment
⑤ some contestants lack the minimum capabilities needed to compet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Back in the late 1980s, a friend of the author's from India used to fly home on Aeroflot, with ① his route passing through Moscow. The airline was reportedly awful in every way imaginable – comfort, punctuality, the cabin crew's attitude – yet many Indians stoically put up with it, as its fares were by far the lowest. According to ② him, the only in-flight meal on offer was pale, goose-bumpy, tasteless chicken. During one of ③ his trips on Aeroflot, ④ he heard another Indian traveller ask a flight attendant for a non-chicken option, since ⑤ he was, well, a vegetarian. The stewardess shot back that there could be no exception: on a socialist airline, all passengers were equal and nobody got special treatment.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Paying people according to what they contribute is a valid principle only if one important condition is met: everyone must have the chance to compete for the best jobs.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equal opportunity. This condition is far from trivial. In the past, many societies formally limited people's choice of education and jobs on the grounds of gender, caste, religion and race. Oxford and Cambridge, for example, admitted no non-Anglicans until 1871, and women had to wait until 1920 (Oxford) and 1948 (Cambridge) to receive degrees. Under South Africa's Apartheid, Blacks and 'coloureds' had to attend badly under-funded, crowded non-white universities, which made it nearly impossible for them to find decent jobs.

① 기여에 따른 보수 원칙은 전제 조건 없이도 타당하다.
②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1871년까지 비국교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 케임브리지는 옥스퍼드보다 먼저 여성에게 학위를 주었다.
④ 과거의 공식 제한은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⑤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흑인들은 재정이 넉넉한 대학에 다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Part of the discrimination may even come from people themselves. In many societies, subjects such as science, engineering and economics are widely regarded as 'masculine', and many talented young women 'voluntarily' avoid them even when their aptitudes would make them perfectly suited. When the author studied economics as an undergraduate in the early 1980s in South Korea, only six of his roughly 360 classmates were women, and only eleven women were among the more than 1,200 engineering students. No formal rule kept women out of these subjects, yet many bright female students chose 'feminine' ones such as English literature or psychology, having been socialized to believe these suited them better. Today, the author reports, women make up over 30% of economics students at his old university.

① 차별은 부분적으로 스스로 부과된 것일 수도 있다.
② 많은 사회에서 과학 · 공학 · 경제학은 '남성적' 과목으로 여겨진다.
③ 저자의 경제학과 동기 약 360명 가운데 여학생은 6명뿐이었다.
④ 오늘날 저자의 모교 경제학과 여학생 비율은 30%를 넘는다.
⑤ 당시 여학생의 공학 · 경제학 공부를 막는 공식 규정이 있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oday, most of these formal barriers ① have been removed, but no country has truly achieved equal opportunity. Women at work are denied the same chances as men because of the sexist view that they are less likely ② to place their careers above their families, if not the false and offensive view that they are naturally inferior to men. In schools, the labour market and workplaces, racial discrimination ③ remain widespread in every multi-racial society. Such societies favour less able members of ethnic majorities over more capable ④ ones from minorities, ⑤ giving the former greater opportunities than the latter.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stewardess's reply was, of course, an extreme expression of the Soviet idea that all people deserved identical treatment because every human being (A) [is / being] equally valuable. Whether a person was a minister, a doctor, a cleaner or a coal miner, each (B) [was / were] supposed to receive identical rations of bread, sugar and sausages, one pair of shoes a year and everything else through collective provision. That, however, was only the theory. In practice, not only (C) [were there / there were] considerable pay gaps between people, though far smaller than those under capitalism, but the political elite also enjoyed special treatment, from better housing to special stores selling better, often imported, goods.

	(A)	(B)	(C)
①	is	was	were there
②	is	were	were there
③	being	was	there were
④	being	were	were there
⑤	is	was	there wer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Poor chicken – nobody takes it seriously. The author knows of no culture that worships it the way Hindus revere the cow, and none that ① despises it the way Muslims and Jews view the pig. Some people ② avoid certain meats out of simple distaste rather than religious or cultural taboo, yet it seems that anyone who eats meat at all will also eat chicken. This universal ③ acceptance may be partly due to the bird's low profile: it is small and fairly ④ aggressive, not a hulking beast like a cow or a stubborn creature like a goat. Mainly, though, it must be explained by chicken's ⑤ versatility as a protein source, its rather neutral taste and how easy it is to cook.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ccording to free-market economists, the right response is to let individuals compete as hard as their talents allow and then to accept whatever the competition produces, even if the resulting spread of incomes strikes some observers as far too unequal. Such a system, they claim, is both the fairest and the most productive arrangement. It is the most productive because people will have the strongest possible reason to push their output as high as it can go. And it is the fairest because, under it, each person will be _____. Paying everyone within a narrow band, by contrast, would only bring equality in poverty, in their view.

① given the same income as everyone else
② paid in proportion to what they contribute to the economy
③ protected from the results of competition
④ rewarded according to their basic needs
⑤ guaranteed a job that suits their abilitie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Once we move beyond these basics, however, our needs start to differ quite quickly, and treating everyone identically becomes a problem.

The Soviet principle held that all people deserved equal treatment because every person is equally valuable. (①) Yet this approach to equality and fairness has a serious flaw. (②) Admittedly, every human being shares certain 'basic needs', such as clean water, safe shelter and nutritious food. (③) Seen this way, the socialist principle is a powerful indictment of feudal and capitalist societies – societies in which some people die of hunger while others live in extravagant luxury. (④) A vegetarian who is served chicken on a flight, for instance, is not being treated fairly at all. (⑤) Different needs call for different treatment.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f some people are barred, formally or informally, from even competing for the best schools and jobs because of traits unrelated to their ability, such as race, religion or gender, the result is neither the fairest nor the most productive. ① Equal opportunity is therefore vital. ② Imagine that some future society somehow manages to give everyone a truly equal chance to compete. ③ Hindus can eat pork but often choose not to, while many Koreans refuse lamb though they have no taboo against it. ④ Imagine, too, that everyone plays by the same rules, although in reality rules are often rigged, as with 'legacy' students, who are favoured in admissions to American universities since a parent or grandparent studied there. ⑤ Could we then accept any inequality such a society produced? Sadly, even then, we could no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ink about bread, which many societies rely on as a staple.

(A) But this is not fair if the bread is made from leavened wheat, which certain people cannot eat at all – perhaps because they suffer from coeliac disease, or because, as Jews, they are observing Passover.

(B) Likewise, equal-sized male and female toilets in a public building may look even-handed, since men and women each make up about half the population, but they are actually very unfair, because women require more time and room; hence the long queues outside women's toilets in cinemas and concert halls.

(C) During a severe food shortage, such as the Soviet Union's in 1928–35 after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or Britain's in 1946–8 after the Second World War, handing everyone the same daily amount of bread may seem fair.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arkets can be regulated in ways that bring about greater equality of outcome. Some regulations protect weaker economic players from stronger ones: Switzerland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reduce income inequality by sheltering small farms through limits on agricultural imports, or small shops through limits on large retailers. Inequality could also be lowered by financial rules, such as curbing high-profit but high-risk speculation, or by labour market rules, such as enforcing a decent minimum wage or raising sick pay. Yet Europe's very equal welfare states show that redistribution by the welfare state, whether by direct income transfers or by guaranteeing that everyone can equally use good-quality basic services like education, healthcare and water, is a more effective route.

→ Greater equality of outcome can be pursued by (A) _____ markets, but the experience of Europe's welfare states suggests that it is achieved more effectively through (B) _____.

① regulating ..... redistribution
② regulating ..... competition
③ deregulating ..... redistribution
④ deregulating ..... privatization
⑤ expanding ..... competition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n Indian friend of the author's used to fly home on Aeroflot, the Russian airline, which, according to the friend, served only chicken in flight. Oxford and Cambridge refused non-Anglicans until 1871; women received degrees from Oxford in 1920 but had to wait until 1948 at Cambridge. In the early 1980s, in the author's economics course in South Korea, only six of roughly 360 students were women. Some people cannot eat wheat bread because they have coeliac disease. Switzerland and South Korea protect small farms and shops in order to lower income inequality. The author argues that equal opportunity alone is not sufficient: a fairly high level of equal outcomes is needed as well.

<QUIZ>

(1) Which airline served only chicken in flight, according to the author's friend?

Answer for (1): _____

(2) Until what year did Oxford and Cambridge refuse to accept non-Anglicans?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Cambridge begin to award degrees to women?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women were in the author's economics course?

Answer for (4): _____

(5) What disease stops some people from eating wheat bread?

Answer for (5): _____

(6) Which country, along with Switzerland, protects small farms and shops to lower income inequality?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author thinks equal opportunity alone is enough?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871	N. South Korea
B. 1920	O. coeliac disease
C. True	P. Passover
D. eleven	Q. 1980
E. Moscow	R. Aeroflot
F. 1928	S. False
G. 360	T. 1948
H. Japan	U. Denmark
I. six	V. 1935
J. 1946	W. Aldous Huxley
K. malnutrition	X. 15%
L. Cyprus	Y. 30%
M. 1,200	Z. Khmer Rouge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힌두교도가 소를 숭배하듯 닭을 숭배하는 문화를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know of no + 명사 / 대동사 do)

02 닭을 깎아내리는 문화도 없다. (Neither + 도치)

03 나의 인도인 친구는 모스크바를 거쳐 Aeroflot로 귀국하곤 했다. (a friend of mine / used to V)

04 내 친구는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닭 말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overhear + O + 원형 / whether)

05 모두에게 하루에 같은 양의 빵을 주는 것은 공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동명사 주어 + sound + 형용사)

06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동명사 주어 / 동명사 보어)

07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평등과 공정에 대해 똑같이 좁은 시야를 지니고 있다. (albeit)

08 우리는 개인들이 능력껏 경쟁하게 해야 한다. (let + O + 원형부정사)

09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각각 1920년과 1948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학위를 주었다. (not ~ until / respectively)

10 그들은 그 과목들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과거완료 수동)

11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의 영양실조로 뇌 발달이 저해되었을 수도 있다. (may have p.p. / have + O + p.p.)

12 그러나 우리는 극소수만 감당할 수 있는 표값을 대가로 여러 기내식을 내놓는 항공사를 타고 싶지도 않다. (neither + 도치 / at the cost of)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닭과 대비한 숭배 / 경멸의 동물	
취향으로 피하는 고기	
닭이 보편적인 주된 까닭	
한국의 닭 요리 두 가지	
저자가 닭 사시미를 먹은 곳	
Aeroflot 일화의 시기 / 경유지	
인도인들이 Aeroflot를 견딘 까닭	
소련의 배급 품목	
사람의 기본 욕구 세 가지	
식량 부족의 두 시기	
발효 밀빵을 못 먹는 두 경우	
큰 기여를 한다는 네 직업(자유시장 경제학자)	
사회주의 보수가 '똑같았던' 극단적 예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의 비국교도 / 여성 학위	
저자의 경제학과 / 공학부 여학생	

항목	답
공학 졸업생 중 여성(각주 iii)	
규칙 조작의 예	
가벼운 체급 복싱의 체중 범위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네 가지	
소농 · 소상점을 보호하는 두 나라	
불평등 논쟁이 놓친 두 가지	

4-3. 통합 사고 문제 — 1장과 12장을 잇는 자리

문제

1장에서 저자는 남아시아의 힌두교나 동아시아의 유교와 달리 이슬람 문화에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을 제한해 사회 이동성을 막는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썼고, 유교 사회에서는 장인과 상인의 아들은 관리 등용 시험(civil service exam)조차 볼 수 없었다고 했다(23쪽 ¶2). 또 올바른 경제 · 사회 정책은 어떤 문화에서든 발전과 기회의 평등 같은 좋은 것들을 북돋울 수 있다고 썼다(25쪽 ¶2). 12장에서 저자는 과거 많은 사회가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 때문에 교육과 직업 선택을 공식적으로 제한했다며 「Acorn」을 참조하게 했고(96쪽 ¶5), 공식 규정이 없어도 많은 여학생이 '남성적' 과목을 '자발적으로' 피했다고 썼다(97쪽 ¶1). 이를 바탕으로, 아래 96쪽 ¶4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o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1장과 12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장 또는 12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보수 원칙의 전제 조건: It is that everyone has the chance to try for the best possible jobs – namely, there should be equality of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바른에듀케이션 · 원서 해부 노트 시리즈 ·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3 CHILLI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hilli」 (원서 PDF 100~10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어디에나 있는 고추와 돌봄은 왜 셈에서 빠지는가."

이 장은 저자의 장모가 담그는 고추김치로 시작한다. 고추의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캡사이신이 뇌를 속여 일으키는 통증이고, 그 매운 정도를 재는 스코빌 척도까지 있다. 저자는 친구 덩컨과 런던의 쓰촨 식당에 갔다가 고추 표시가 없는 요리에 마른 고추가 대여섯 개나 들어 있던 일을 들려준다. 고추가 너무 흔해서 아예 세지 않은 그 식당처럼, 우리 경제는 어디에나 있는 무급 돌봄 노동을 GDP에서 빼고, '필수 노동자'라 불리는 유급 돌봄 노동자에게도 박봉을 준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는 그 까닭으로 성차별과 시장의 '1달러 1표' 방식을 들고, 돌봄에 대한 관점 · 관행 · 제도를 함께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2장(닭)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돌봄에 대한 관점 · 관행 · 제도를 바꿔야 한다(104쪽 ¶2~¶5) / 셈에서 빠진 무급 돌봄은 여성의 기여를 깎아내린다(102쪽 ¶3) / 필요하기에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104쪽 ¶6~105쪽 첫 줄) / 어디에나 있으면 당연시되고 셈에서 빠진다(101쪽 ¶6)
4~5	**밑줄 함축 의미**	a chemical trickery of the highest sophistication / a berry in disguise / just an indicator of relative hotness / taken for granted / 'working mothers' / 'one-dollar-one-vote' / something of a paradox / 'heroes' / a 'space race' / at best ... at worst / or even unvalued / 'Claps don't pay the bills'
6	지칭 추론	he · his가 덩컨과 저자 사이를 오가는 101쪽 ¶2~¶3 / she(101쪽 ¶3 = the waitress) / it(100쪽 ¶2 = capsaicin) / it(101쪽 ¶7 = GDP) / they(102쪽 ¶1 = 무급 돌봄 활동) / which(102쪽 ¶2 = the economy) / They(103쪽 ¶1 = 필수 노동자) / during which(104쪽 첫 줄 = a pandemic)
7~8	내용 일치·불일치	스코빌 척도와 SHU(100쪽 ¶3 · 105쪽 각주 i) / 필수 노동자(103쪽 첫 줄~¶1 · 105쪽 각주 vi) / 1912 · 5명/3명 · 10,000 · 100 미만 · 10,000~25,000 · 50,000~100,000 · 100,000~750,000 · 220만 · 2000년대 초 · 0~5 · 5~6개 · 30~40% · 2020.1.30 · 2020.3.11 · 20% · 45% · 10주 · 2021.3 · 1%
9~10	**어법**	what I call · fool A into -ing · such a + 명사 + that · by + 동명사 병렬 · let + O + 원형 · must have p.p. · albeit · be taken for granted · make + O + 형용사 · 가주어 it + not to V · without which · as if · 독립 분사구문 · 대동사 do · It is ~ that 강조 · without whose · however + 형용사 · hence + 명사구 · together with + 단수 동사 · if we are to V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fiery↔mild · unthinkable↔conceivable · discerning↔undiscriminating · intuitive↔counter-intuitive · extended↔limited · ubiquitous↔rare · invisible↔visible · reinforce↔weaken · disproportionately↔proportionately · underrate↔overrate · biased↔impartial · cement↔weaken
12	빈칸 추론	두 어머니의 사고 실험 – 돌봄은 그대로인데 GDP만 늘어남(102쪽 ¶2) / makes a huge chunk of economic activities invisible(102쪽 ¶1) / just an indicator of relative hotness(101쪽 ¶3) / how much people are willing to pay for it(103쪽 ¶4)
13	문장 삽입	필수 노동자의 박봉(103쪽 ¶2~¶3): 거의 모두 박봉 → 역설 → 첫째 까닭 성차별 → 여성이 저임금 돌봄 직종에 불균형하게 많음 → These women ~(지시어가 단서)
14	무관한 문장	GDP에서 빠지는 활동(102쪽 ¶1)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스코빌 척도의 평가단, 100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쓰촨 식당 이야기에서 경제로(101쪽 ¶4~¶7): 고추를 골라냄 → 행복한 결말 → 어디에나 있으면 당연시 · 셈에서 빠짐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셈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제도의 변화(104쪽 ¶5 · 105쪽 각주 ix): 복지 제도 · 최저 임금 · 돌봄 시장화 제한 / NHS 박수 10주 → 1% 인상 → 'Claps don't pay the bills'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직업 · 숫자 · 도시 · 비율 · 명칭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912(스코빌 척도) · 평가단 5명 중 과반 3명 · 1 : 10,000 → 10,000 SHU · 각주 i의 SHU(피망 100 미만 · 청양고추 10,000~25,000 · 타이 버즈아이 50,000~100,000 · 하바네로 100,000~750,000 · Carolina Reaper 최고 220만) · 고추 그림 0~2,3개 · 2000년대 초(쓰촨 식당) · 고추 표시 0~5개 · 마른 고추 5~6개 · 30~40%(무급 돌봄) · 2020년 1월 30일 · 3월 11일(WHO) · 20% · 45%(성별 임금 격차) · 10주 · 2021년 3월 · 1%(NHS). 1912는 스코빌, 2000년대 초는 쓰촨 식당이다. 나라 · 도시와 인물도 많다(멕시코 · 페루 · 한국 · 런던 · 영국 · 미국 · 파키스탄 · 시에라리온 · 태국 · 필리핀 · 파나마 · Wilbur Scoville · Duncan Green · Allison Daminger).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맛 ↔ 통증, 조직 손상 있음 ↔ 없음, 약사 ↔ 다른 직업, 5명 ↔ 3명, 0~5 ↔ 0~2,3, 고추의 양 ↔ 상대적 매운 정도, 30~40% ↔ 20%, key workers(영국) ↔ essential employees(미국), 박봉 ↔ 고임금, 성차별 ↔ '1달러 1표'(더 중요한 까닭), care credits로 일부만 해결 ↔ 완전히 해결). 저자의 짐작(must have felt) · 가정(would amount to, if valued)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저자의 제안(should · need to)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hilli」 (100~105쪽)

논증형(두려운 매운맛 → 맛이 아니라 통증 → 스코빌 척도 → 식당의 직관적 척도 → 쓰촨 식당의 '고추 없는' 요리 → 상대적 매운 정도일 뿐 → 어디에나 있으면 셈에서 빠진다 → GDP와 무급 돌봄 → 두 어머니의 사고 실험 → '일하는 어머니'와 연금 → 팬데믹의 필수 노동자 → 박봉의 역설 → 성차별 · '1달러 1표' → 관점 · 관행 · 제도 → 결론: 필요하기에 보이지 않는다). 핵심 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vs 셈에서 빠지는 것**, 그리고 **필수성 vs 시장 가격**.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00 [제목]	요리	고추김치(저자 장모의 요리) – 풋고추를 고춧가루 · 다진 마늘 · 멸치젓에 절임
100 ¶1	도입	많은 사람이 매운맛을 두려워함 / '고추 벨트'(멕시코~한국) 사람들에겐 고추 없는 음식은 상상할 수 없음
100 ¶2	매운맛의 정체	맛이 아니라 통증 · 캡사이신은 조직을 직접 손상하지 않고 뇌를 속임
100 ¶3	스코빌 척도	1912년 미국 약사 Wilbur Scoville / 평가단 5명 중 3명 · SHU / 105쪽 각주 i: 고추별 SHU
101 첫 줄	직관적 척도	음식이 순한 나라에서 '고추 벨트' 음식을 파는 식당 – 고추 그림 0~2,3개
101 ¶1	쓰촨 식당	2000년대 초 런던 · Duncan Green과 함께 / 고추 표시 0~5개
101 ¶2	주문	저자는 고추 적은 요리 · 덩컨은 보험 삼아 고추 표시 없는 요리
101 ¶3	반전	'고추 없음' 요리에 마른 고추 5~6개 / 표시는 고추의 양이 아니라 상대적 매운 정도
101 ¶4~¶5	결말	고추를 골라내도 조금 매움 · 땀과 눈물 / 고추를 좋아하게 되어 단골
101 ¶6	전환	어디에나 있으면 당연시 → 셈에서 빠짐 / 경제학의 최고 예 = 무급 돌봄 노동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01 ¶7~102 ¶1	GDP의 한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셈 → 자가 소비 농산물 · 무급 돌봄(GDP의 30~40%) 누락
102 ¶2	사고 실험	두 어머니가 아이를 맞바꿔 돌보며 돈을 주고받으면 돌봄은 그대로인데 GDP 증가
102 ¶3	여성의 기여	'일하는 어머니'라는 말 → 성차별적 편견 강화 / '유급 고용 중인' 어머니로 부르자
102 ¶4	실질적 결과	유급 노동 시간 감소 → 연금 수급권 부족 → 노후 빈곤 위험
103 첫 줄~¶2	유급 돌봄	팬데믹 · key workers · essential employees · '영웅' / 그러나 거의 모두 박봉 – 역설
103 ¶3	까닭 1	뿌리 깊은 성차별 – 여성이 저임금 돌봄 직종에 불균형하게 많음
103 ¶4~104 첫 줄	까닭 2(더 중요)	시장의 '1달러 1표' / 팬데믹 한가운데 억만장자의 '우주 경쟁'
104 ¶1~¶5	처방	관점(돌봄은 필수 · 시장이 가치를 정하지 않음 · 여성의 일 아님) · 관행 · 제도
104 ¶6~105 첫 줄	결론	필요하기에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음 / 덩컨처럼 관점을 바꾸자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고추의 매운맛	느낌 – 타는 듯한 통증(입 · 눈물 · 땀 · 장 경련)	실제 – 직접적인 조직 손상 없음(캡사이신이 뇌를 속임)
고추 척도	스코빌 척도 – 정밀(평가단 · 희석 · SHU)	식당의 척도 – 덜 정밀하지만 직관적(고추 그림 0~2,3개 · 쓰촨 식당은 0~5개)
고추 표시의 뜻	덩컨의 생각 – 표시 0개 = 고추 없음	종업원의 설명 – 상대적 매운 정도일 뿐 고추의 양이 아님
셈에 드는 것과 빠지는 것	GDP에 드는 것 –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빠지는 것 – 자가 소비 농산물 · 무급 돌봄 노동(시장 가격으로 GDP의 30~40%)
두 어머니의 실험	돌봄의 양 – 그대로 · 살림도 그대로	GDP – 늘어남(서로 더 받으면 더 늘어남, 105쪽 각주 iv)
'일하는 어머니'	통념 – 집에 있는 어머니는 일하지 않음	저자 – 집안 돌봄 노동이 남성 파트너의 유급 노동보다 흔히 훨씬 많음 · '유급 고용 중인' 어머니로
돌봄의 과소평가	무급 돌봄 – 연금 수급권 부족 · 노후 빈곤 위험	유급 돌봄 – 필수인데도 박봉(최고 수준의 의사는 예외)
필수 노동자의 대우	말과 상징 – key workers · '특권' · '영웅' · 박수(10주)	실제 보상 – 박봉 · 2021년 3월 NHS 1% 인상 제시('뺨 때리기')
시장의 결정 방식	'1달러 1표' – 얼마를 낼 의사가 있는가	'1인 1표' –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가
시장의 결과	필수품 – 살 돈이 없으면 셈에 들지 않음(기본 식료품 · 의료 · 교육 · 요양원)	비필수품 – 돈을 내면 공급됨(억만장자의 '우주 경쟁')
시장에 대한 평가(105쪽 각주 vii)	장점 – 방대한 정보의 집계 · 처리 / 생산성을 높이는 유인	한계 – 이 책의 여러 장에서 다룸 · 장점과 견주어 보아야
바꿔야 할 것	관점 · 관행 – 돌봄은 필수 · 임금 격차 축소 · 남성 중심 직종 개방 · 인종 차별 퇴치	제도 – 유급 돌봄 휴가 · 저렴한 보육 · carer credits · 최저 임금 · 돌봄 시장화 제한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hilli ([제목])	Chilli kimchi(한국 · 저자 장모의 요리) · 풋고추를 고춧가루 · 다진 마늘 · myulchi-jut(멸치젓)에 절임
매운맛의 불편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입이 타는 듯함 · 눈물 · 통증으로 나는 땀 · 장 경련까지
'Chilli Belt'(저자의 이름)	멕시코('chilli'라는 이름의 출처) · 페루 · 카리브해 유역 · 북아프리카 ·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중국 · 북쪽으로 한국까지
캡사이신	매운맛의 주된 원천 · 특히 점막에 타는 듯한 통증 · 직접적인 조직 손상은 없음 / 극단적 온도 · 산성 · 부식성 물질 · 긁힘을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에 결합해 뇌를 속임 / 고추 = 변장한 베리(「Strawberry」)
Scoville Scale	미국 약사 Wilbur Scoville · **1912년** / 말린 표본을 알코올에 녹여 매운 성분(capsaicinoids) 추출 → 설탕물로 희석 → 평가단 **5명** / 과반(**3명**)이 못 느끼는 희석 배수 = SHU(1 : 10,000 → **10,000** SHU)
105쪽 각주 i	피망 **100 미만** · 청양고추(더 매운 한국 고추) **10,000~25,000** · 타이 버즈아이 **50,000~100,000** · 하바네로 **100,000~750,000**(품종에 따라) · Carolina Reaper 최고 **220만** SHU(기네스 세계 기록)
직관적인 척도	고유 음식이 순한 나라에서 '고추 벨트' 음식을 파는 음식점 · 메뉴의 요리 옆 고추 그림 **0~2개 또는 3개**
쓰촨 식당	런던 · **2000년대 초** · Duncan Green(유명한 개발 운동가)과 방문 · 고추 표시 **0~5개** / 고추가 생 · 말린 · 간 · 절인 것과 두반장 · 고추기름으로 들어가니 더 세밀한 척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짐작)
105쪽 각주 ii	덩컨 = '사회 변화의 과학'이라는 새 분야의 개척자 · 저서 From Poverty to Power · How Change Happens
주문과 반전	저자는 고추 5개까지 원했지만 자제 · 덩컨은 보험 삼아 고추 표시 없는 요리 → 새끼손가락만 한 튀긴 마른 고추 **5~6개** / 표시 = 상대적 매운 정도일 뿐 고추의 양이 아님
결말	고추를 골라냈지만 여전히 조금 매움 · 다른 요리는 땀과 눈물 속에 다 먹고 좋아함 → 고추를 좋아하게 되어 단골
GDP	경제 산출의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 ·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셈 / 가장 큰 문제 = '자본주의적' 관점(가치를 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 가격)
셈에서 빠지는 것	개도국: 농촌 사람들이 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를 직접 소비 / 무급 돌봄: 출산 · 양육 · 공부 돕기 · 노인 · 장애인 돌봄 · 요리 · 청소 · 빨래 · 가사 관리(미국 사회학자 Allison Daminger의 '인지 노동') – 시장 가격으로 치면 GDP의 **30~40%**
사고 실험(105쪽 각주 iii · iv)	두 어머니가 아이를 맞바꿔 돌보며 같은 시세를 주고받음 → 돌봄의 양은 같은데 GDP 증가 / 저자가 만든 것은 아님(처음 본 곳은 기억 못 함) · 서로 더 받으면 GDP가 더 늘어남
'working mothers'	집에 있는 어머니는 일하지 않는다는 듯한 말 → 성차별적 편견 강화 / '유급 고용 중인(in paid employment)' 어머니로 부르자(저자의 제안)
연금	기초 국가 연금을 넘는 수급권은 임금에 연동 → 여성은 덜 쌓음 / 일부 유럽 나라의 'care credits'(일부만 해결) → 노후 빈곤 위험 증가
105쪽 각주 v	WHO: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 **2020년 3월 11일** 팬데믹 선언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필수 노동자	유급 돌봄(의사 · 간호사 · 구급차 운전사 · 보육 · 노인 돌봄 · 교육) + 사회 재생산(식량 · 생필품 생산 · 유통 · 대중교통 · 건물 · 기반 시설 청소 · 수리) / 영국 key workers · 미국 essential employees · '영웅'
105쪽 각주 vi	영국 key workers: 개점 전 장보기 · 부족한 생필품 우선 구매 · 학교가 문을 닫아도 자녀 등교
박봉의 역설	최고 수준의 의사를 빼면 거의 모두 박봉 / 까닭 1: 성차별(특히 유색인 · 이민자 여성이 간호 · 보육 · 요양원 · 가사 서비스에 불균형하게 많음) · 까닭 2(더 중요): 시장의 '1달러 1표'(「Garlic」 · 「Lime」)
억만장자의 '우주 경쟁'	팬데믹 한가운데 · 보호 장비 부족으로 의료진 감염 · 의료진 · 장비 부족으로 환자 사망 · 돌봄 부족으로 요양원 거주자 감염
105쪽 각주 vii	시장의 장점 둘: 방대한 정보의 집계 · 처리(사회주의 중앙 계획의 실패가 증명) · 소비자에게 잘 봉사하는 아이디어에 보상해 생산성 향상 유인
105쪽 각주 viii	성별 임금 격차 세계 평균 약 **20%** · 파키스탄 · 시에라리온 **45%**까지 · 태국 **0** · 필리핀 · 파나마는 마이너스 / ILO, Understanding the Gender Pay Gap(**2020년 6월**)
105~106쪽 각주 ix	NHS 노동자 · 2020년 팬데믹 초기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박수(Clap for Our Carers, **10주**) / **2021년 3월** 정부의 **1%** 인상 제시 → '뺨 때리기' / 'Claps don't pay the bills'
처방(104쪽 ¶3~¶5)	관점(돌봄은 필수 · 시장이 가치를 정한다는 생각 ·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 버리기) · 관행(임금 격차 축소 · 남성 중심 직종 개방 · 인종 차별 퇴치) · 제도(남녀 모두 더 긴 유급 돌봄 휴가 · 저렴한 보육 · carer credits · 최저 임금 인상 · 근로 조건의 법적 요건 · 돌봄 시장화 제한 · 규제)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hilli」 (원서 PDF 100~10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3-1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 — 캡사이신과 스코빌 척도 100쪽 ¶1~¶3

원문 위치 원서 100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0쪽 [제목]	Chilli kimchi (Korean, my mother-in-law's recipe)	저자 장모의 요리 — 풋고추를 고춧가루 · 다진 마늘 · 멸치젓에 절임
★	100쪽 ¶1 첫 문장	A lot of people are, understandably, scared of the hot taste of chilli	삽입 부사 understandably · 도입
★	100쪽 ¶1 둘째 문장	burning mouth, watering eyes, pain-induced sweating and even intestinal cramps	불편 네 가지 — 일치
▲	100쪽 ¶1 셋째 문장	For people from what I call the 'Chilli Belt' … the idea of eating food without the sharp pleasure from the heat of chilli is unthinkable	what I call · the idea of + 동명사 · 어휘(unthinkable)
★	100쪽 ¶1 셋째 문장	ranging from Mexico (where the name 'chilli' comes from), Peru, … China and up north to Korea	고추 벨트의 지역 — 일치
◆	100쪽 ¶2 첫 문장	The hotness of chilli is not really a taste but a pain	not A but B · 단락의 주제문
◆	100쪽 ¶2 둘째 문장	a chemical trickery of the highest sophistication, conjured up by the berry (yes, it is a berry in disguise – see 'Strawberry')	밑줄 의미 1순위 · 목차 부제의 trickster berry
▲	100쪽 ¶2 셋째 문장	Despite the burning pain it causes, … capsaicin, the main source of the hot taste in chilli, does not actually cause any direct tissue damage	despite + 명사구 · 동격
★	100쪽 ¶2 넷째~다섯째 문장	It just fools our brain into believing … It does so by binding itself to one of our sensory receptors	fool A into -ing · by + 동명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0쪽 ¶3 첫 문장	Chilli's hotness is such an issue that a dedicated scale has been invented to measure it	such a + 명사 + that · 현재완료 수동
★	100쪽 ¶3 둘째 문장	the Scoville Scale, after Wilbur Scoville, an American pharmacist, who, in 1912, came up with the idea	인물 · 직업 · 연도 — 일치
★	100쪽 ¶3 셋째 문장	dissolving a dried specimen in alcohol, diluting it with sugared water and letting a panel of five tasters decide	by + 동명사 셋 병렬 · let + O + 원형
★	100쪽 ¶3 넷째 문장	if the majority (that is, three out of five) … 10,000 parts of water, the chilli will get a Scoville Heat Unit (SHU) of 10,000	숫자 — 일치 함정(3명 · 5명)
◆	105쪽 각주 i	Bell peppers … below 100 … cheongyang … 10,000 and 25,000 … The Carolina Reaper, with up to 2.2 million SHU	숫자 — 일치

내용

많은 사람이 고추의 매운맛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불같은 맛은 입이 타는 듯한 느낌, 눈물, 통증 때문에 나는 땀, 심지어 장 경련까지 여러 가지 불편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고추 벨트(Chilli Belt)'라고 부르는 지역 — ('chilli'라는 이름이 나온) 멕시코에서 페루, 카리브해 유역,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을 거쳐 북쪽으로 한국까지 — 의 사람들에게는 고추의 열기가 주는 짜릿한 즐거움 없이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다. 고추의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이다. 그것은 (사실은 변장한 베리인) 고추가 만들어 낸, 더없이 정교한 화학적 속임수다. 고추 매운맛의 주된 원천인 캡사이신은 특히 점막에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지만 실제로 조직을 직접 손상하지는 않는다. 그저 우리 몸이 그런 손상을 입고 있다고 뇌가 믿게 속일 뿐이다. 캡사이신은 극단적인 온도, 산성 · 부식성 물질과의 접촉, 긁히거나 쓸리는 자극을 몸이 감지하게 하는 감각 수용체 가운데 하나에 달라붙어 그렇게 한다. 고추의 매운맛은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그것을 재는 전용 척도까지 발명되었다. 1912년 이 생각을 해 낸 미국 약사 Wilbur Scoville의 이름을 딴 스코빌 척도다. 말린 고추 표본을 알코올에 녹여 매운 성분(capsaicinoids)을 뽑아내고, 이를 설탕물로 희석한 뒤, 다섯 명의 평가단에게 매운맛이 느껴지는지 판단하게 한다. 고추 1을 이를테면 물 10,000에 희석했을 때 평가단의 과반(다섯 명 중 세 명)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면 그 고추는 10,000 스코빌 열 단위(SHU)를 받는다. (105쪽 각주 i: 피망은 100 SHU 미만, 더 매운 한국 고추 품종인 청양고추는 10,000~25,000 SHU, 타이 버즈아이 고추는 50,000~100,000 SHU, 하바네로는 품종에 따라 100,000~750,000 SHU이며, 가장 매운 표본이 220만 SHU에 이르는 Carolina Reaper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올라 있다.)

어법

- **A lot of people are, understandably, scared of the hot taste of chilli. To those who are not used to it, its fiery flavour can be a source of a range of discomforts** : understandably = 문장 전체를 꾸미는 삽입 부사(그럴 만도 하게). be scared of = ~을 두려워하다. be used to + 명사 = ~에 익숙하다(used to V '~하곤 했다'와 구분). those who = ~하는 사람들.

- **For people from what I call the 'Chilli Belt', … the idea of eating food without the sharp pleasure from the heat of chilli is unthinkable** : what I call ~ = 내가 ~라고 부르는 것(관계대명사 what이 call + O + C의 O 자리). the idea of + 동명사(eating) = ~한다는 생각. 주어 the idea → 단수 is.
- **It is actually a chemical trickery of the highest sophistication, conjured up by the berry** : of + 추상명사 = 형용사(of the highest sophistication = 더없이 정교한). conjured up by ~ = trickery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구(베리가 만들어 낸).
- **Despite the burning pain it causes, especially to our membranes, capsaicin, the main source of the hot taste in chilli, does not actually cause any direct tissue damage** : despite + 명사구(it causes는 pain을 꾸미는 관계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capsaicin과 the main source …는 동격. 주어 capsaicin → does not cause.
- **It just fools our brain into believing that our body is undergoing such damage. It does so by binding itself to one of our sensory receptors** : fool A into -ing = A를 속여 ~하게 하다. does so = fools our brain …를 대신한다. by + 동명사 = ~함으로써. bind itself to = 재귀대명사(스스로를 ~에 붙이다).
- **Chilli's hotness is such an issue that a dedicated scale has been invented to measure it** : such a(n) + 명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 has been invented = 현재완료 수동. to measure = 목적의 to부정사.
- **It is called the Scoville Scale, after Wilbur Scoville, an American pharmacist, who, in 1912, came up with the idea** : after ~ = ~의 이름을 따서. Wilbur Scoville과 an American pharmacist는 동격. who = 계속적 용법(선행사 Wilbur Scoville). come up with = 생각해 내다.
- **It measures the 'heat' of a chilli by extracting the heat components … by dissolving a dried specimen in alcohol, diluting it with sugared water and letting a panel of five tasters decide whether they can feel the heat** : by + 동명사 셋(dissolving · diluting · letting) 병렬. let + O + 원형부정사(decide; to decide는 오답). whether = ~인지(명사절).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derstandably	이해할 만하게, 당연히	naturally	—
fiery	불같이 매운	hot	mild
cramp	경련	spasm	—
unthinkable	상상할 수 없는	inconceivable	conceivable
trickery	속임수	deception	honesty
sophistication	정교함	complexity	simplicity
conjure up	만들어 내다	produce	—
in disguise	변장한, 겉모습을 바꾼	disguised	—
membrane	(점)막	—	—
receptor	수용체	—	—
corrosive	부식성의	caustic	—
abrasion	긁힘, 쓸림	scrape	—
specimen	표본	sample	—
dilute	희석하다	thin	concentrate

내용 일치 고추김치 = 저자 장모의 요리(풋고추를 고춧가루 · 다진 마늘 · 멸치젓에 절임) /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운맛의 불편: 입이 타는 듯함 · 눈물 · 통증으로 나는 땀 · 장 경련까지 / 고추 벨트(저자의 이름) = 멕시코('chilli'라는 이름의 출처) ·

페루 · 카리브해 유역 · 북아프리카 ·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중국 · 북쪽으로 한국까지 — 고추 없는 음식은 상상할 수 없음 / 매운맛 = 맛이 아니라 통증 · 고추는 변장한 베리(「Strawberry」) · 캡사이신 = 주된 원천 · 특히 점막에 타는 듯한 통증 · 직접적인 조직 손상은 없음 · 감각 수용체에 붙어 뇌를 속임 / 스코빌 척도 = 미국 약사 Wilbur Scoville · 1912년 · 알코올에 녹여 추출 → 설탕물로 희석 → 평가단 5명 · 과반(3명)이 못 느끼는 희석 배수(1 : 10,000이면 10,000 SHU) / 각주 i: 피망 100 미만 · 청양고추 10,000~25,000 · 타이 버즈아이 50,000~100,000 · 하바네로 100,000~750,000 · Carolina Reaper 최고 220만(기네스 세계 기록). **밑줄 의미** a chemical trickery of the highest sophistication = 실제 손상 없이 뇌가 손상을 느끼게 만드는 정교한 속임수 / a berry in disguise = 고추는 겉보기와 달리 베리다 / the sharp pleasure from the heat of chilli = 고추 벨트 사람들에게 매운맛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 / such an issue = 매운 정도를 따로 잴 만큼 중요한 문제 / 지칭: 100쪽 ¶1 it(not used to it) = 고추의 매운맛 · its(fiery flavour) = chilli의 / 100쪽 ¶2 It(is actually) = 고추의 매운맛 · it(causes) · It(just fools · does so) = capsaicin / 100쪽 ¶3 it(to measure it) = 고추의 매운맛 · It(is called · measures) = 그 전용 척도 · who = Wilbur Scoville · they(can feel) = 다섯 명의 평가단.

> **한 줄 요약** 고추의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캡사이신이 뇌를 속여 일으키는 통증이며, 그 매운 정도를 재려고 1912년 스코빌 척도가 만들어졌다.

13-2 고추 표시가 없는 요리에 든 고추 — 쓰촨 식당 이야기 101쪽 첫 줄 ~ ¶5

원문 위치 원서 101쪽 첫 줄 ~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1쪽 첫 줄 첫 문장	Not as discerning as the Scoville scale, but a more intuitive chilli scale has evolved among restaurants serving food from the Chilli Belt in countries where native food is mild	not as ~ as · 현재분사 serving · 관계부사 where
★	101쪽 첫 줄 둘째 문장	zero to two or three pictures of chillies next to the dishes in the menu, denoting their chilli contents	분사구문 denoting · 숫자
★	101쪽 ¶1 첫 문장	A Sichuan restaurant in London that I visited with my friend Duncan Green, the renowned development campaigner, in the early 2000s deployed a rather extended chilli scale; its chilli signs ranged from zero to five	인물 · 시기 · 0~5 — 일치 · 어휘(extended)
◆	105쪽 각주 ii	Duncan is also a pioneer in the emerging field of 'science of social change'	덩컨의 소개 — 저서 두 권
★	101쪽 ¶1 둘째 문장	Most Sichuan dishes contain chilli in some form … so the restaurant must have felt that it needed a finer scale	must have p.p. — 저자의 짐작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1쪽 ¶2 첫 문장	As a good Korean, I wanted go all the way up to portions with five chillies, but I checked myself	원서 표기 wanted go · check oneself
★	101쪽 ¶2 둘째 문장	Duncan, while being excited by the challenge of spicy flavours, ordered a dish with no chilli sign as an insurance	지칭 문항의 바탕 · 보험 삼아
▲	101쪽 ¶2 셋째 문장	if worst came to worst and he found the other dishes too hot, he would have at least one to enjoy	관용 표현 · find + O + 형용사
◆	101쪽 ¶3 첫 문장	When the food arrived, however, Duncan blanched	반전 · 어휘(blanch)
★	101쪽 ¶3 둘째 문장	His 'no chilli' dish had five or six pinkie-sized fried dried chillies in it	숫자 — 일치
▲	101쪽 ¶3 넷째 문장	she explained that a dish having no chilli sign next to it didn't mean that there was no chilli in it	현재분사 having · 단수 주어
◆	101쪽 ¶3 다섯째 문장	just an indicator of relative hotness, not the indication of the amount of chilli in it	밑줄 의미 · 장 전체의 비유
▲	101쪽 ¶4 둘째 문장	he tried all of them and liked them, albeit with some sweat and tears	albeit + 구
★	101쪽 ¶5	Duncan grew to like the taste of chilli and kept going back to the restaurant, which eventually became one of his favourites	grow to V · 계속적 which · 결말

내용

스코빌 척도만큼 정밀하지는 않지만 더 직관적인 고추 척도가, 고유 음식이 순한 나라에서 '고추 벨트'의 음식을 파는 식당들 사이에 생겨났다. 손님들이 고추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메뉴의 요리 옆에 고추 그림을 0개에서 2~3개까지 붙여 고추 함량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2000년대 초 저자가 유명한 개발 운동가인 친구 Duncan Green과 함께 간 런던의 한 쓰촨 식당은 이 척도를 꽤 늘려, 고추 표시가 0개에서 5개까지 있었다(105쪽 각주 ii: 덩컨은 '사회 변화의 과학'이라는 새 분야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쓰촨 요리 대부분에는 (생 · 말린 · 간 · 절인 고추, 그리고 두반장과 고추기름의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고추가 들어가므로, 그 식당은 요리들의 매운 정도를 제대로 구별하려면 흔한 2~3개짜리보다 더 세밀한 척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저자는 '좋은 한국인'답게 고추 다섯 개짜리까지 가고 싶었지만, 덩컨이 매운맛을 많이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제하고 고추가 적은 요리를 골랐다. 덩컨은 매운맛에 도전한다는 생각에 들떴으면서도 보험 삼아 고추 표시가 없는 요리를 하나 주문했다. 최악의 경우 다른 요리가 너무 맵더라도 즐길 요리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테니, 저자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음식이 나오자 덩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추 없는' 요리에 새끼손가락만 한 튀긴 마른 고추가 대여섯 개 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리둥절해진 덩컨이 종업원에게 착오가 있는지 묻자 종업원은 착오가 없다고 했다. 덩컨이 고추가 없는 요리를 주문했다고 항의하자, 종업원은 특별히 이해가 느린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교사 같은 인내심으로, 고추 표시가 없다고 해서 고추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고추 표시는 상대적인 매운 정도를 나타낼 뿐 고추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명을 받아들인 가엾은 덩컨은 요리에서 고추를 골라냈지만, 매운 성분 일부가 이미 음식에 배어 있어 여전히 조금 매웠다. 다른 요리들은, 칭찬할 만하게도, 땀과 눈물을 좀 흘리면서도 모두 먹어 보고 좋아했다.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난다. 덩컨은 고추 맛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식당을 계속 찾았으며, 그 식당은 결국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어법

- **Not as discerning as the Scoville scale, but a more intuitive chilli scale has evolved among restaurants serving food from the Chilli Belt in countries where native food is mild** : (Though it is) not as + 원급 + as ~ = ~만큼 …하지는 않지만(양보의 뜻). serving = restaurants를 꾸미는 현재분사.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countries).
- **The scale has zero to two or three pictures of chillies next to the dishes in the menu, denoting their chilli contents** : denoting ~ = 분사구문(그리고 그것으로 ~을 나타낸다). their = the dishes'.
- **A Sichuan restaurant in London that I visited with my friend Duncan Green, the renowned development campaigner, in the early 2000s deployed a rather extended chilli scale** : 주어가 길다 — A Sichuan restaurant … in the early 2000s까지가 주어, 동사는 deployed.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Duncan Green = the renowned development campaigner(동격).
- **so the restaurant must have felt that it needed a finer scale than the usual two or three chillies in order to properly distinguish its dishes from one another** :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과거 일에 대한 저자의 짐작). in order to = 목적. distinguish A from B = A를 B와 구별하다.
- **As a good Korean, I wanted go all the way up to portions with five chillies, but I checked myself and ordered options with fewer chillies, for Duncan could not take too much chilli heat** : want + to V가 바른 꼴(wanted go는 원서 표기). check oneself = 자제하다. for = 이유를 덧붙이는 접속사(콤마 뒤).
- **if worst came to worst and he found the other dishes too hot, he would have at least one to enjoy** : if worst came to worst = 최악의 경우에는(관용 표현). 과거 시점에서 앞일을 내다본 말이라 came · found · would로 시제를 맞췄다. find + O + 형용사(too hot). one to enjoy =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she explained that a dish having no chilli sign next to it didn't mean that there was no chilli in it** : having ~ = a dish를 꾸미는 현재분사구. 주어 a dish(단수) → didn't mean. 주절이 과거(explained)라 that절도 과거(didn't · was).
- **As for the other dishes, to his credit, he tried all of them and liked them, albeit with some sweat and tears** : as for = ~에 관해서는. to one's credit = 칭찬할 만하게도. albeit = 비록 ~이지만(뒤에 구가 온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scerning	정밀하게 분별하는	discriminating	undiscriminating
intuitive	직관적인	instinctive	counter-intuitive
denote	나타내다	indicate	—
renowned	유명한	famous	obscure
campaigner	운동가	activist	—
deploy	사용하다, 배치하다	employ	—
extended	늘린, 확장된	expanded	limited
distinguish	구별하다	differentiate	confuse
insurance	보험, 대비책	safeguard	—
blanch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pale	flush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affled	어리둥절한	puzzled	—
protest	항의하다	object	agree
indicator	지표	sign	—
albeit	비록 ~이지만	although	—

내용 일치 직관적인 척도 = 스코빌 척도만큼 정밀하지는 않음 · 고유 음식이 순한 나라에서 '고추 벨트' 음식을 파는 식당 · 고추 그림 0~2,3개 / 쓰촨 식당 = 런던 · 2000년대 초 · 유명한 개발 운동가 Duncan Green과 방문 · 고추 표시 0~5개 · 쓰촨 요리 대부분에 고추(생 · 말린 · 간 · 절인 · 두반장 · 고추기름) → 더 세밀한 척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저자의 짐작) · 각주 ii: 덩컨 = '사회 변화의 과학'의 개척자 / 저자는 고추 5개까지 원했지만 자제 · 덩컨은 보험 삼아 고추 표시 없는 요리 · 저자도 현명하다고 봄 / 음식이 나오자 덩컨이 질림 · 새끼손가락만 한 튀긴 마른 고추 5~6개 · 종업원: 착오 없음 · 표시 = 상대적 매운 정도일 뿐 고추의 양이 아님 / 고추를 골라냈지만 여전히 조금 매움 · 다른 요리는 땀과 눈물 속에 다 먹고 좋아함 · 고추를 좋아하게 되어 단골. **밑줄 의미** Not as discerning … but a more intuitive = 정밀함 대신 한눈에 알아보기 쉬움 / as an insurance = 다른 요리가 너무 매울 때를 대비한 안전판 / Duncan blanched = 고추가 든 '고추 없음' 요리를 보고 당황함 / with the patience of a schoolteacher = 종업원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 / just an indicator of relative hotness = 어디에나 있는 고추는 아예 세지 않는다 — 돌봄 노동의 비유 / 지칭: 101쪽 첫 줄 their(chilli contents) = the dishes' / 101쪽 ¶1 its(chilli signs · its dishes) = 그 쓰촨 식당 · it(needed) = the restaurant / 101쪽 ¶2 he(found · would have) = Duncan · one(to enjoy) = 요리 하나 / 101쪽 ¶3 His(dish) · he(asked) = Duncan · she = the waitress · it(next to it) = 그 요리 / 101쪽 ¶4 it(making it) = the food · them = the other dishes / 101쪽 ¶5 which = the restaurant · his = Duncan의.

> **한 줄 요약** 쓰촨 식당의 고추 표시는 상대적인 매운 정도만 나타낼 뿐이어서 '고추 없음' 요리에도 고추가 들어 있었고, 덩컨은 그 일을 계기로 고추를 좋아하게 되었다.

13-3 어디에나 있으면 셈에서 빠진다 — GDP와 무급 돌봄 노동 101쪽 ¶6 ~ 102쪽 ¶2

원문 위치 원서 101쪽 ¶6 ~ 102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1쪽 ¶6 첫 문장	When something is ubiquitous, it is taken for granted	주제문 · 어휘(ubiquitous)
★	101쪽 ¶6 둘째 문장	it does not get counted, like chilli in the 'chilli scale' of the Sichuan restaurant in my story	음식에서 경제로 넘어가는 다리
★	101쪽 ¶6 셋째 문장	The supreme example of this category in economics is the unpaid care work done at home or in the community	장의 논점 제시
★	101쪽 ¶7 첫 문장	Gross Domestic Product, or GDP, counts only things that are exchanged in the market	동격 ·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1쪽 ¶7 둘째 문장(102쪽 첫 줄까지)	a very 'capitalist' view that, given how different people value the same thing differently, the only way to decide how valuable something is to the society is to see what price it commands in the market	동격 that · 간접의문문 · to부정사 보어
★	102쪽 ¶1 첫 문장	This practice of counting only marketed activities makes a huge chunk of economic activities invisible	make + O + 형용사 · 빈칸 후보
★	102쪽 ¶1 둘째~셋째 문장	a lot of rural people consume at least a part of what they produce … it does not get captured in GDP statistics	개도국의 농산물 — 일치
★	102쪽 ¶1 넷째 문장	child-bearing, child-rearing, educational help to children, car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cooking, cleaning, laundry and household management	무급 돌봄의 목록 — 일치
◆	102쪽 ¶1 넷째 문장 괄호	what the American sociologist Allison Daminger calls 'cognitive labour'	인물 · 용어
★	102쪽 ¶1 다섯째 문장	they would amount to 30–40% of GDP, if valued at market prices	숫자 · 가정(would)
◆	102쪽 ¶2 둘째 문장	If two mothers swapped their children … GDP will increase, even if the amount of childcare remains the same	사고 실험 · 빈칸 1순위
◆	105쪽 각주 iii · iv	I haven't invented this thought experiment … these mothers can increase GDP even more simply by charging each other more	출처 · 덧붙인 농담
▲	102쪽 ¶2 셋째 문장	it is deeply problematic not to count those activities without which human society, not to speak of the economy (which is nestled in society), cannot exist in the first place	가주어 it + not to V · 전치사 + which

내용

어떤 것이 어디에나 있으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면 셈에 들지 않는다. 저자의 이야기 속 쓰촨 식당의 '고추 척도'에서 고추가 셈에 들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경제학에서 이런 경우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 돌봄 노동이다. 경제 산출을 재는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센다. 경제학의 다른 모든 척도처럼 GDP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같은 것이라도 사람마다

가치를 다르게 매기므로 어떤 것이 사회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값을 받는지 보는 것이라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관점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활동만 세는 이런 관행은 경제 활동의 큰 덩어리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은 농촌 사람이 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를 직접 소비하므로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이 셈에서 빠진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그 몫은 GDP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 나라에서든 개발도상국에서든, 시장에 기초한 이 산출 척도 때문에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 돌봄 활동 — 출산, 양육,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일, 노인과 장애인 돌봄, 요리, 청소, 빨래, (미국 사회학자 Allison Daminger가 '인지 노동'이라 부르는 것을 포함하는) 가사 관리 — 은 국민 산출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활동들을 시장 가격으로 매긴다면 GDP의 30~40%에 이를 텐데도 그렇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돌봄 노동을 세지 않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는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 알 수 있다(105쪽 각주 iii: 저자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처음 어디서 보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두 어머니가 아이를 맞바꿔 서로의 아이를 돌보면서 서로에게 (같은) 보육 시세를 치른다면, 두 사람의 살림은 달라지지 않고 돌봄의 양도 그대로인데 GDP는 늘어난다(105쪽 각주 iv: 더 나아가 서로 더 많이 받기만 해도 GDP를 더 늘릴 수 있다). 더 개념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를 품고 있는) 인간 사회 자체가 애초에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활동들을 세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어법

- **When something is ubiquitous, it is taken for granted. And when something is taken for granted, it does not get counted** : be taken for granted = take ~ for granted(당연하게 여기다)의 수동. get + p.p.(counted) = 동작을 나타내는 수동.
- **The most widely used measure of economic output, Gross Domestic Product, or GDP, counts only things that are exchanged in the market** : 주어 The ... measure와 Gross Domestic Product는 동격, 동사는 단수 counts. or = 곧(다른 이름).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 **it is based on a very 'capitalist' view that, given how different people value the same thing differently, the only way to decide how valuable something is to the society is to see what price it commands in the market** : that = 동격 접속사(view의 내용). given ~ = ~을 고려하면. how valuable something is = 간접의문문(how + 형용사 + 주어 + 동사). 주어 the only way ... → 동사 is → 보어 to see. what price it commands = 간접의문문.
- **This practice of counting only marketed activities makes a huge chunk of economic activities invisible** : make + O + 형용사(invisible; invisibly는 오답). 주어 This practice(단수) → makes. of + 동명사(counting).
- **These activities are not count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would amount to 30–40% of GDP, if valued at market prices** : despite the fact that + 절(despite 바로 뒤에는 절이 올 수 없다). if (they were) valued = 주어 · be 동사 생략. would = 가정(시장 가격으로 매긴다면).
- **If two mothers swapped their children and took care of each other's child, while paying each other the (same) going rate for childcare (which will leave both of them financially unaffected), GDP will increase** : 조건절은 과거형(swapped · took), 주절은 will increase — 원서 표기 그대로(교과서식 가정법이라면 would increase). each other's + 단수 child. which = 앞 내용을 받는 계속적 용법. leave + O + 형용사(unaffected).
- **it is deeply problematic not to count those activities without which human society, not to speak of the economy (which is nestled in society), cannot exist in the first place** : 가주어 it + 진주어 not to count(to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전치사 + 관계대명사(without which, 선행사 those activities). not to speak of = ~은 말할 것도 없고. in the first place = 애초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omnipresent	rare
take ~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	appreciate
supreme	가장 두드러진, 최고의	foremost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utput	산출, 생산량	production	input
command (v.)	(값을) 받다	fetch	—
chunk	큰 덩어리, 상당 부분	portion	—
invisible	보이지 않는	unseen	visible
rural	시골의	rustic	urban
capture	담아내다, 포착하다	record	omit
cognitive	인지의	mental	—
absurdity	터무니없음	ridiculousness	—
swap	맞바꾸다	exchange	—
going rate	시세	market rate	—
nestle	(안에) 자리 잡다, 품기다	embed	—

내용 일치 어디에나 있으면 당연시 → 셈에서 빠짐(쓰촨 식당의 고추 척도처럼) · 경제학의 최고 예 = 가정 · 공동체의 무급 돌봄 노동 / GDP = 경제 산출의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 ·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셈 · 가장 큰 문제 = 가치를 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 가격이라는 '자본주의적' 관점 / 개도국: 농촌 사람들이 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를 직접 소비 → GDP 통계에 안 잡힘 / 무급 돌봄: 출산 · 양육 · 공부 돕기 · 노인 · 장애인 돌봄 · 요리 · 청소 · 빨래 · 가사 관리(Allison Daminger의 '인지 노동') — 시장 가격으로 치면 GDP의 30~40%(가정) / 사고 실험: 두 어머니가 아이를 맞바꿔 같은 시세를 주고받음 → 살림 · 돌봄의 양은 그대로인데 GDP 증가 · 각주 iii: 저자가 만든 것은 아님 · 각주 iv: 서로 더 받으면 더 늘어남 / 사회도 경제도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활동을 세지 않는 것은 문제. **밑줄 의미** taken for granted = 너무 흔해서 고마움도 의식도 하지 않음 / like chilli in the 'chilli scale' = 쓰촨 요리에 늘 드는 고추를 표시에 세지 않은 것처럼 / a very 'capitalist' view = 시장 가격만이 가치를 정한다는 관점 / invisible = 통계에 잡히지 않아 없는 것처럼 됨 / GDP will increase, even if the amount of childcare remains the same = GDP는 실제 돌봄이 아니라 돈의 흐름만 잰다 / 지칭: 101쪽 ¶7 it(has its problems · is based) = GDP / 102쪽 첫 줄 it(commands) = something / 102쪽 ¶1 they(consume · produce) = rural people · it(does not get captured)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농업 생산 · they(would amount) = 무급 돌봄 활동 / 102쪽 ¶2 both of them = 두 어머니 · which(is nestled) = the economy.

> **한 줄 요약**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세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어 당연시되는 무급 돌봄 노동은 GDP의 30~40%에 이를 만한데도 셈에서 빠진다.

13-4 보이지 않는 집안일과 여성 – '일하는 어머니'와 연금 102쪽 ¶3~¶4

원문 위치 원서 102쪽 ¶3~¶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2쪽 ¶3 첫 문장	Given that the vast bulk of unpaid care work is done by women, not counting it means a big undervaluation of women's contribution to our economy – and society	given that · 동명사의 부정 · 요지 1순위
◆	102쪽 ¶3 둘째 문장	This 'invisibility' of household work is such that we talk of 'working mothers', as if mothers who stay at home do not 'work'	be such that · as if · 밑줄 의미
★	102쪽 ¶3 셋째 문장	This reinforces the sexist prejudice that women do nothing when they are at home	동격 that · 어휘(reinforce)
▲	102쪽 ¶3 셋째 문장	when the amount of labour put into care work at home is often much larger than what their male partners put into their paid employment	대조의 when · 과거분사 put · what
◆	102쪽 ¶3 넷째 문장	We should refer to 'working' mothers as those 'in paid employment' as a step towards giving full social recognition to unpaid care work	저자의 제안 · refer to A as B
★	102쪽 ¶4 첫~둘째 문장	Undervaluation of care work is not just a matter of social recognition. It has material consequences for women.	전환 – 인정에서 실질적 결과로
★	102쪽 ¶4 셋째 문장	Women tend to take on caring roles … more often and thus spend less time in paid employment than men do	대동사 do · 어법 문항의 바탕
▲	102쪽 ¶4 넷째 문장	Since pension entitlement (beyond basic state pension) is tied to one's wages, … other things being equal, women cannot accumulate as much pension entitlement as men can	단수 주어 → is · 독립 분사구문 · as much ~ a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2쪽 ¶4 넷째 문장	in some European countries this is partly (but only partly) addressed by measures like 'care credits'	일치 함정(일부만 해결)
★	102쪽 ¶4 다섯째 문장	This, in turn, greatly increases the chance of women who devote time to unpaid care work ending up in poverty in old age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결과

내용

무급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을 세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 그리고 사회 – 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크게 과소평가한다는 뜻이다. 집안일은 너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마치 집에 있는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듯이 '일하는 어머니(working mothers)'라는 말을 쓴다. 이런 말은 여성이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성차별적 편견을 강화한다. 실제로는 여성이 집에서 돌봄 노동에 들이는 노동의 양이 남성 파트너가 유급 일자리에 들이는 양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흔한데도 말이다. 저자는 무급 돌봄 노동에 온전한 사회적 인정을 주기 위한 한 걸음으로, '일하는' 어머니를 '유급 고용 중인(in paid employment)'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돌봄 노동의 과소평가는 사회적 인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에서 아프거나 나이 든 친척을 돌보는 일까지) 돌봄 역할을 남성보다 더 자주 떠맡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유급 노동에 쓰는 시간이 남성보다 적다. (기초 국가 연금을 넘어서는) 연금 수급권은 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은 남성만큼 연금 수급권을 쌓을 수 없다. 일부 유럽 나라에서는 보육과 노인 돌봄에 쓴 시간에 대한 'care credits' 같은 제도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만)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 무급 돌봄 노동에 시간을 바치는 여성이 노년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어법

- **Given that the vast bulk of unpaid care work is done by women, not counting it means a big undervaluation of women's contribution to our economy – and society** : given that ~ = ~을 고려하면.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not counting). 동명사구 주어 → 단수 means. it = unpaid care work.
- **This 'invisibility' of household work is such that we talk of 'working mothers', as if mothers who stay at home do not 'work'** : be such that ~ = ~할 정도다. as if + 직설법 현재(do not) – 원서는 가정법 과거(did not)가 아니라 현재형을 썼다. talk of = ~라는 말을 쓰다.
- **This reinforces the sexist prejudice that women do nothing when they are at home, when the amount of labour put into care work at home is often much larger than …** : that = 동격 접속사(prejudice의 내용). 둘째 when = '~인데도'(대조). put into ~ = labour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much + 비교급(larger).
- **than what their male partners put into their paid employment** :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put의 목적어 자리, '~이 들이는 것').
- **We should refer to 'working' mothers as those 'in paid employment' as a step towards giving full social recognition to unpaid care work** : refer to A as B = A를 B라고 부르다. those = people(여기서는 mothers). towards + 동명사(giving). give A to B.
- **Women tend to take on caring roles … more often and thus spend less time in paid employment than men do** : tend to V = ~하는 경향이 있다. take on과 spend가 tend to에 병렬. do = spend time in paid employment를 대신하는 대동사.
- **Since pension entitlement (beyond basic state pension) is tied to one's wages, this means that, other things being equal, women cannot accumulate as much pension entitlement as men can** : 주어 pension

entitlement(단수) → is tied. other things being equal = 독립 분사구문(다른 조건이 같다면). as much + 불가산 명사 + as. can 뒤 accumulate … 생략.

- **This, in turn, greatly increases the chance of women who devote time to unpaid care work ending up in poverty in old age** : 전치사 of + 의미상 주어(women who …) + 동명사(ending up). end up + 전치사구 = 결국 ~하게 되다. in turn = 결과적으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ulk	대부분	majority	minority
undervaluation	과소평가	underestimation	overvaluation
contribution	기여	input	—
invisibility	보이지 않음	obscurity	visibility
reinforce	강화하다	strengthen	weaken
sexist	성차별적인	chauvinistic	—
prejudice	편견	bias	—
recognition	인정	acknowledgement	disregard
material	실질적인, 물질적인	tangible	immaterial
entitlement	수급권, 자격	right	—
accumulate	쌓다	amass	deplete
address (v.)	(문제를) 다루다	tackle	ignore
devote	(시간을) 바치다	dedicate	—
in turn	결과적으로, 이어서	consequently	—

내용 일치 무급 돌봄의 대부분을 여성이 함 → 세지 않으면 여성의 기여를 크게 과소평가 / 집안일의 '보이지 않음' → '일하는 어머니'라는 말(집에 있는 어머니는 일하지 않는다는 듯) → 여성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성차별적 편견 강화 · 실제로는 집안 돌봄 노동이 남성 파트너의 유급 노동보다 흔히 훨씬 많음 / 저자의 제안: '일하는' 어머니를 '유급 고용 중인' 어머니로 부르자(온전한 사회적 인정을 향한 한 걸음) / 실질적 결과: 여성은 돌봄 역할(출산 · 양육 · 아프거나 나이 든 친척 돌봄)을 더 자주 맡음 → 유급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적음 → 기초 국가 연금을 넘는 수급권은 임금에 연동 → 남성만큼 못 쌓음 · 일부 유럽 나라의 'care credits'가 부분적으로만 해결 → 노후 빈곤 가능성 크게 증가. **밑줄 의미** a big undervaluation of women's contribution = 무급 돌봄을 세지 않으면 여성이 경제 · 사회에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된다 / 'working mothers' = 유급 노동만 '일'로 치는 말버릇 / as if mothers who stay at home do not 'work' = 집안 돌봄은 일로 여기지 않음 / those 'in paid employment' = 일의 유무가 아니라 임금의 유무로 구분하자 / partly (but only partly) = 해결이 아직 한참 모자람 / 지칭: 102쪽 ¶3 it(not counting it) = unpaid care work · they(are at home) · their(male partners) = women / 102쪽 ¶4 It(has material consequences) = 돌봄 노동의 과소평가 · this(means) = 연금이 임금에 연동된 사실 · this(is partly addressed) = 여성이 연금 수급권을 덜 쌓는 문제 · This(in turn) = 연금 수급권 부족.

> **한 줄 요약** 무급 돌봄을 세지 않는 것은 여성의 기여를 깎아내리고 성차별적 편견을 강화하며, 유급 노동 시간이 적은 여성의 연금을 줄여 노후 빈곤 위험까지 높인다.

13-5 필수 노동자는 왜 박봉인가 – 성차별과 '1달러 1표' 103쪽 첫 줄 ~ 104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03쪽 첫 줄 ~ 104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3쪽 첫 줄 첫 문장	It is not just unpaid care work but also paid care work that is undervalued, compared to the contribution that it makes to society	It is ~ that 강조 · not just A but also B
★	103쪽 첫 줄 둘째 문장	We saw this in the most stark and tragic w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105쪽 각주 v: WHO 2020년 1월 30일 · 3월 11일
▲	103쪽 ¶1 첫 문장	there are some people without whose work our very existence as society is impossible	전치사 + whose
★	103쪽 ¶1 둘째~셋째 문장	paid care work – in medical professions … childcare, senior care, teaching … ('social reproduction' is the technical term)	목록 · 용어 – 일치
★	103쪽 ¶1 넷째 문장	designated 'key workers' in the UK and 'essential employees' in the US and were given 'privileges'	명칭 – 일치 · 105쪽 각주 vi
◆	103쪽 ¶1 다섯째 문장	They were even hailed as 'heroes'.	밑줄 의미 · 105쪽 각주 ix와 연결
★	103쪽 ¶2 첫 문장	almost all those 'essential' workers, with the exceptions of top medical doctors, are poorly paid	예외 – 일치
◆	103쪽 ¶2 둘째~셋째 문장	this is something of a paradox. If some activities are essential, shouldn't those who are engaged in them be paid the best, by definition?	수사 의문문 · 문장 삽입의 바탕
★	103쪽 ¶3 첫 문장	the same as what is behind the neglect of unpaid care work – that is, the deep-rooted practice of gender discrimination	까닭 1 · 통합 사고 빈칸
★	103쪽 ¶3 둘째 문장	women, especially women of colour and immigrant women,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in low-paid caring professions	일치 · 어휘(disproportionately)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3쪽 ¶3 셋째 문장	These female workers are not only paid less than their male colleagues doing similar jobs, but they are paid much lower wages than what male workers with comparable abilities would be paid	not only A but B · much + 비교급
★	103쪽 ¶4 첫~둘째 문장	Another, more important, reason ... the market is based on 'one-dollar-one-vote', rather than 'one-person-one-vote', system (also see 'Garlic' and 'Lime')	까닭 2 · 밑줄 의미 1순위
▲	103쪽 ¶4 넷째 문장	However essential something is for some people's survival, it does not count in the market	however + 형용사(양보)
◆	103쪽 ¶4 일곱째 문장(104쪽 첫 줄까지)	Hence the absurd situation that billionaires had a 'space race' in the middle of a pandemic	hence + 명사구 · 동격 that
◆	105쪽 각주 vii	Lest the reader form an excessively negative view of the market, let me add that it has its merits	lest · 시장의 장점 두 가지

내용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무급 돌봄 노동만이 아니라 유급 돌봄 노동이기도 하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를 가장 극명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보았다(105쪽 각주 v: 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발생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 선언했다). 팬데믹 동안 많은 나라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일 없이는 우리가 사회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는 의료(의사 · 간호사 · 구급차 운전사), 보육, 노인 돌봄, 교육 등에서 유급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돌봄 노동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회의 생존과 재생(전문 용어로 '사회 재생산')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 식량과 생필품을 생산하는 사람,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슈퍼마켓 직원 · 배달원), 대중교통 노동자, 건물과 기반 시설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사람 등 — 도 포함되었다.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key workers', 미국에서는 'essential employees'로 지정되어 장보기나 자녀 교육 같은 일에서 '특권'을 받았고(105쪽 각주 vi: 영국의 key workers는 개점 시간 전에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부족한 기본 식품 · 생활용품을 우선 살 수 있었고, 학교가 전반적으로 문을 닫았을 때도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심지어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이 경험에서 드러난 한 가지는 최고 수준의 의사를 빼면 그 '필수' 노동자들이 거의 모두 박봉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는 일종의 역설이다. 어떤 활동이 필수적이라면, 정의상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야 하지 않는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돌봄 노동조차 과소평가되는 한 가지 까닭은 무급 돌봄 노동이 소홀히 여겨지는 까닭과 같다. 곧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이다. 한 장에서 다 다룰 수 없는 여러 이유로, 여성 — 특히 유색인 여성과 이민자 여성 — 은 간호, 보육, 노인 요양원 서비스, 가사 서비스 같은 저임금 돌봄 직종에 불균형하게 많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 동료보다 적게 받을 뿐 아니라, 비슷한 능력의 남성 노동자가 남성 중심 직종에서 받을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다. 다시 말해 여성의 일은 임금을 받아 GDP에 잡힐 때조차 과소평가된다. 이 역설적 상황의 또 다른, 더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정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시장이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Garlic」 · 「Lime」 참조). 이 체제에서 어떤 것의 값을 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얼마를 낼

의사가 있는가다. 어떤 것이 일부 사람들의 생존에 아무리 필수적이어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살 돈이 없으면 시장에서는 셈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 식료품이든 의료든 교육이든 요양원 서비스든, '필수' 재화와 서비스는 크게 과소평가된다. 동시에 상식으로 보아 아무리 불필요하고 엉뚱한 것이라도 누군가 돈을 낼 의사만 있으면 공급된다. 그래서 팬데믹 한가운데서 억만장자들이 '우주 경쟁'을 벌이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 많은 의료진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가 없어 병에 걸렸고, 코로나19 환자들은 의료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 죽어 갔으며, 요양원 거주자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었다. (105쪽 각주 vii: 독자가 시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저자는 시장의 장점 두 가지를 덧붙인다. 복잡한 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게 해 준다는 것 — 사회주의 중앙 계획의 실패가 이를 증명한다 — 과, 소비자에게 잘 봉사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보상해 생산성을 높일 유인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점들은 이 책의 여러 장에서 다룬 시장의 한계와 견주어 보아야 한다.)

어법

- **It is not just unpaid care work but also paid care work that is undervalued, compared to the contribution that it makes to society** : It is ~ that 강조 구문(not just A but also B를 강조). compared to = ~에 비해. 둘째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make a contribution의 contribution).
- **there are some people without whose work our very existence as society is impossible** : 전치사 + whose + 명사(without whose work = 그들의 일이 없으면). very = 강조 형용사(바로 그 ~ 자체).
- **They also included those whose work is not care work per se but is necessary for the survival and the renewal of society** : those whose ~ = ~한 사람들. not A but B. per se = 그 자체로.
- **People who work in such professions were designated 'key workers' in the UK and 'essential employees' in the US and were given 'privileges'** : designate + O + C의 수동(were designated + 명사 보어). give의 수동(were given + 목적어).
- **If some activities are essential, shouldn't those who are engaged in them be paid the best, by definition?** : 부정 의문문 형태의 수사 의문문(당연히 가장 많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 be engaged in = ~에 종사하다. by definition = 정의상.
- **These female workers are not only paid less than their male colleagues doing similar jobs, but they are paid much lower wages than what male workers with comparable abilities would be paid in male-dominated professions** : not only A but (also) B. doing = colleagues를 꾸미는 현재분사. much + 비교급(lower). what = pay + 사람 + 임금의 수동에서 남은 목적어(임금) 자리.
- **However essential something is for some people's survival, it does not count in the market if those people do not have the money to pay for it** : however + 형용사 + S + V = 아무리 ~해도(양보). count = 자동사(셈에 들다, 중요하다). to pay for = money를 꾸미는 to부정사.
- **Hence the absurd situation that billionaires had a 'space race' in the middle of a pandemic, during which many healthcare staff were getting sick** : hence + 명사구(동사 없이 결과를 덧붙인다). that = 동격(situation의 내용). during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 pandemic). were getting = 과거진행.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tark	극명한	harsh	mild
per se	그 자체로	intrinsically	—
renewal	재생, 갱신	regeneration	—
designate	지정하다	name	—
privilege	특권, 혜택	advantage	disadvantage
hail	칭송하다	acclaim	criticiz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aradox	역설	contradiction	—
deep-rooted	뿌리 깊은	entrenched	superficial
encompass	아우르다, 다 다루다	cover	exclude
disproportionately	불균형하게, 지나치게 많이	unevenly	proportionately
comparable	비슷한, 견줄 만한	similar	incomparable
crux	핵심	heart	—
commonsensical	상식적인	sensible	—
absurd	터무니없는	ridiculous	sensible

내용 일치 무급뿐 아니라 유급 돌봄도 기여에 비해 과소평가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남(각주 v: WHO 2020년 1월 30일 비상사태 · 3월 11일 팬데믹) / 그들의 일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 유급 돌봄(의사 · 간호사 · 구급차 운전사 · 보육 · 노인 돌봄 · 교육) + 사회 재생산(식량 · 생필품 생산 · 유통 · 대중교통 · 건물 · 기반 시설 청소 · 수리) · 영국 key workers · 미국 essential employees · 장보기 · 자녀 교육의 '특권'(각주 vi) · '영웅' / 최고 수준의 의사를 빼면 거의 모두 박봉 — 역설 / 까닭 1 = 뿌리 깊은 성차별: 여성(특히 유색인 · 이민자 여성)이 저임금 돌봄 직종(간호 · 보육 · 요양원 · 가사 서비스)에 불균형하게 많음 · 남성 동료보다 적게, 비슷한 능력의 남성이 남성 중심 직종에서 받을 임금보다 훨씬 적게 / 까닭 2(더 중요) = 시장의 '1달러 1표' · 필요한 사람 수가 아니라 낼 의사가 있는 돈이 값을 정함 · 필수품도 돈이 없으면 셈에 안 듦 · 불필요한 것도 돈만 내면 공급 → 팬데믹 중 억만장자의 '우주 경쟁' / 각주 vii: 시장의 장점(정보 집계 · 처리, 생산성 유인)도 있지만 한계와 견주어야. **밑줄 의미** in the most stark and tragic way = 팬데믹에서 유급 돌봄의 저평가가 가장 뚜렷하고 비극적으로 드러남 / 'privileges' · 'heroes' = 따옴표 — 말뿐인 대우 / something of a paradox = 필수적인데 박봉인 모순 / 'one-dollar-one-vote' =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의 목소리가 큰 시장의 결정 방식 / a 'space race' = 상식으로 보아 불필요한 것도 돈만 내면 공급되는 시장의 결과 / 지칭: 103쪽 첫 줄 it(makes) = paid care work · this(We saw this) = 유급 돌봄의 과소평가 / 103쪽 ¶1 These(included) = 그런 사람들 · They(were even hailed) = 필수 노동자 / 103쪽 ¶2 them(engaged in them) = 필수적인 활동 / 103쪽 ¶3 they(are paid) = 여성 돌봄 노동자 · it(is paid) = women's work / 103쪽 ¶4 it(pay for it) = something · those people = 그것이 생존에 필수적인 사람들 / 104쪽 첫 줄 which(during which) = a pandemic · they(did not have · could not get) = 의료진 · 요양원 거주자.

> **한 줄 요약** 필수 노동자라 불린 유급 돌봄 노동자들이 박봉인 역설은 뿌리 깊은 성차별과, 더 중요하게는 필요가 아니라 돈이 값을 정하는 시장의 '1달러 1표' 방식에서 나온다.

13-6 돌봄을 다시 보기 — 관점 · 관행 · 제도의 변화 104쪽 ¶1 ~ 105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04쪽 ¶1 ~ 105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4쪽 ¶1 첫 문장	Like how the Sichuan restaurant in my story treated chillies, we have come to take the presence of unpaid care work, mostly done by women, for granted	이야기 되받기 · take A for granted
▲	104쪽 ¶1 둘째 문장	This sexist bias and the accompanying practice of gender discrimination, when combined with the very way in which the market values things, have resulted in a significant undervaluation of paid care work too	A and B → 복수 have · when (they are) combined
★	104쪽 ¶1 셋째 문장	we are at best grossly underrating and at worst completely ignoring many of the most essential human activities	at best ~ at worst · 어휘(underrate)
★	104쪽 ¶2	we need to change our perspectives, practic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care work	주장 1순위 · 세 갈래
★	104쪽 ¶3 둘째~넷째 문장	recognize the importance, or rather the essential nature, of care work … stop thinking that the value of something should be determined by the market … part with the idea that care work is women's work	관점의 변화 세 가지
★	104쪽 ¶4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opening up traditionally male-dominated professions more to women and fighting racial discrimination (so that …)	관행의 변화 · so that
◆	105쪽 각주 viii	around 20% on average worldwide … as high as 45% as in Pakistan or Sierra Leone … zero, as in Thailand, or even negative	숫자 · 나라 — 일치
★	104쪽 ¶5 둘째 문장	granting of longer paid care leave for both genders … affordable childcare … 'carer credits' in calculating pensions	제도(복지) · 원서 표기 carer credits(102쪽 ¶4는 care credit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4쪽 ¶5 셋째~넷째 문장	the raising of minimum wag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 the marketization of care services should be restricted and carefully regulated	요약문의 바탕 · 조동사 수동
◆	105~106쪽 각주 ix	Clap for Our Carers … ten weeks … the March 2021 pay settlement … a 1% rise … 'slap in the face' … 'Claps don't pay the bills'	요약문의 근거 · 숫자
◆	104쪽 ¶6 첫~둘째 문장	Food without chillies is unthinkable for billions … Life without care work … is unthinkable for all humanity	대구 — 고추와 돌봄
★	104쪽 ¶6 셋째 문장(105쪽 첫 줄까지)	their very necessity and thus ubiquity make chillies and care activities invisible and thus undervalued – or even unvalued	복수 주어 + make + O + 형용사 · 제목 1순위
◆	105쪽 첫 줄(104쪽 ¶6 넷째 문장)	Duncan's acceptance of the different perspective on chilli … has opened new food horizon for him	단수 주어 → has · 원서 표기(new food horizon)
★	105쪽 첫 줄(104쪽 ¶6 다섯째 문장)	we need to change our perspectives, practic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care work if we are to build a better world that is more balanced, more nurturing and fairer	if + be to V · 결론

내용

저자의 이야기 속 쓰촨 식당이 고추를 다룬 것처럼, 우리는 경제와 사회가 그것 없이 존재할 수 없는데도 주로 여성이 하는 무급 돌봄 노동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런 성차별적 편견과 그에 따르는 성차별 관행이 시장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 자체와 결합하면서 유급 돌봄 노동도 크게 과소평가되었다. 두 측면이 결합한 결과, 우리는 가장 필수적인 인간 활동 가운데 많은 것을 좋게 보아도 크게 과소평가하고 나쁘게 보면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인간의 복지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완전히 편향된 시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돌봄 노동에 관한 우리의 관점, 관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 첫째, 관점이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돌봄 노동이 인간의 생존과 복지에 중요하다는 것, 아니 오히려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것의 가치를 시장이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멈춰야 하고, 돌봄 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둘째, 관점의 변화는 관행의 변화를 통해 현실이 되어야 한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105쪽 각주 viii: 세계 평균 약 20%로, 파키스탄 · 시에라리온처럼 45%에 이르기도 하고 태국처럼 0이거나 필리핀 · 파나마처럼 마이너스이기도 하다 — ILO, 2020년 6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던 직종을 여성에게 더 열고, (저임금 돌봄 노동이 소수 민족 여성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인종 차별과 싸워야 한다. 셋째, 관점과 관행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로 사회적으로 굳혀야 한다.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은 복지 제도의 변화로 공식화해야 한다. 남녀 모두에게 (보육 · 노인 돌봄 · 아픈 친척이나 친구 돌봄을 위한) 더 긴 유급 돌봄 휴가를 주고, 집에 있는 부모와 유급 고용 중인 부모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보육을 제공하고, 연금을 계산할 때 'carer credits'를 (없는 곳에서는)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이다. 유급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은 최저 임금 인상과, 돌봄 부문의 더 나은 근로 조건에 대한 법적 요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더 넓게는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를 제한하고 신중하게 규제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가 기본 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해야 한다(105~106쪽 각주 ix: 2020년 팬데믹 초기 수백만 명이 NHS 노동자를 '영웅'이라 부르며 Clap for Our Carers라는 이름으로 10주 동안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박수를 쳤지만, 2021년 3월 영국 정부는 1% 인상을 제시했고 NHS 노동자들은 이를 '뺨 때리기'라고 했다. 변화를 영구적으로 만들려면 감정과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부족하고 — 'Claps don't pay the bills' — 제도의 변화가 뒷받침해야 한다). 고추 없는 음식은 세계 수십억 명에게 상상할 수 없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돌봄 노동 없는 삶은 모든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필요성, 그래서 생기는 편재성 때문에 고추와 돌봄 활동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과소평가되거나 아예 평가조차 받지 못한다. 쓰촨 식당이 고추에 대해 지닌 다른 관점을 덩컨이 받아들이고 먹는 습관을 바꾼 덕분에, 그에게는 새로운 음식의 지평이 열리고 더 나은 식생활이 찾아왔다. 마찬가지로 더 균형 잡히고, 더 잘 보살피며, 더 공정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돌봄 노동에 관한 관점, 관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

어법

- **we have come to take the presence of unpaid care work, mostly done by women, for granted** : come to V = ~하게 되다. take A for granted에서 목적어 A가 길어 for granted가 뒤로 밀렸다. mostly done by women = unpaid care work를 꾸미는 과거분사구(삽입).
- **This sexist bias and the accompanying practice of gender discrimination, when combined with the very way in which the market values things, have resulted in a significant undervaluation of paid care work too** : A and B 복수 주어 → have. when (they are) combined = 주어 · be동사 생략.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the way how는 오답). result in = ~을 낳다.
- **we are at best grossly underrating and at worst completely ignoring many of the most essential human activities and thus creating a totally biased view** : at best ~ at worst ~ = 좋게 보아야 ~, 나쁘게 보면 ~. are 뒤에 underrating · ignoring · creating이 진행형으로 병렬.
- **We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r rather the essential nature, of care work, both paid and unpaid, for human survival and welfare** : or rather = 아니 오히려(앞말을 더 정확히 고쳐 말함). the importance와 the essential nature가 of care work를 함께 받는다.
- **the changes in our perspectives need to be translated into reality through changes in our practices –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 : need to be p.p. = 수동의 to부정사. translate A into B = A를 B로 바꾸다. 대시 뒤 동명사(reducing · opening · fighting)가 practices를 풀어 쓴다.
- **fighting racial discrimination (so that poorly paid care work does not become the only option for ethnic-minority women)** : so that + S + V = ~하도록(목적).
- **Recognition of unpaid care work should be formalized by changes in the welfare system – ... and the introduction (where it doesn't exist) or strengthening of 'carer credits' in calculating pensions** : should be p.p. = 조동사 수동. the introduction과 strengthening이 of 'carer credits'를 함께 받는다. where = ~인 곳에서는(접속사).
- **their very necessity and thus ubiquity make chillies and care activities invisible and thus undervalued ... we need to change ... if we are to build a better world** : 복수 주어(necessity and ubiquity) → make. make + O + 형용사(invisible) · 과거분사(undervalued). if we are to V = ~하려면(be to의 의도).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ccompanying	수반하는, 따르는	attendant	—
underrate	과소평가하다	underestimate	overrate
grossly	크게, 심하게	greatly	slightl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iased	편향된	one-sided	impartial
perspective	관점	viewpoint	—
institution	제도	establishment	—
part with	버리다, 내놓다	give up	keep
wage gap	임금 격차	pay gap	—
cement (v.)	굳히다, 공고히 하다	consolidate	weaken
formalize	공식화하다	institutionalize	—
affordable	감당할 수 있는	inexpensive	unaffordable
marketization	시장화	commercialization	—
ubiquity	어디에나 있음	omnipresence	rarity
nurturing	잘 보살피는	caring	neglectful

내용 일치 쓰촨 식당이 고추를 다룬 것처럼 우리는 주로 여성이 하는 무급 돌봄을 당연시하게 됨 · 성차별적 편견 · 성차별 관행 + 시장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 → 유급 돌봄도 크게 과소평가 · 필수 활동을 좋게 보아도 과소평가, 나쁘게 보면 무시 → 복지에 대한 편향된 시각 / 처방: 관점(돌봄은 필수 · 시장이 가치를 정한다는 생각 멈추기 ·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 버리기) · 관행(성별 임금 격차 축소 · 남성 중심 직종을 여성에게 개방 · 인종 차별 퇴치) · 제도(남녀 모두 더 긴 유급 돌봄 휴가 · 모든 부모에게 저렴한 보육 · carer credits 도입 · 강화 · 최저 임금 인상 · 근로 조건의 법적 요건 · 돌봄 시장화 제한 · 규제) / 각주 viii: 임금 격차 세계 평균 약 20% · 파키스탄 · 시에라리온 45% · 태국 0 · 필리핀 · 파나마 마이너스(ILO, 2020년 6월) / 각주 ix: NHS · Clap for Our Carers 10주 · 2021년 3월 1% 인상 = '뺨 때리기' / 결론: 필요하기에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음 · 덩컨은 관점을 바꿔 새 음식 지평 · 우리도 관점 · 관행 · 제도를 바꿔야. **밑줄 의미** at best grossly underrating and at worst completely ignoring = 가장 필수적인 활동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다 / or rather the essential nature =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된다 / socially cemented by institutional changes = 생각과 습관의 변화는 제도로 굳혀야 오래간다 / 'Claps don't pay the bills' = 박수 같은 감정 표현은 임금을 대신하지 못한다 / or even unvalued = 낮게 평가되는 정도를 넘어 아예 값이 매겨지지 않는다 / opened new food horizon = 관점을 바꾸면 새 세계가 열린다 — 돌봄에 대한 관점 전환의 비유 / 지칭: 104쪽 ¶1 it(without it) = unpaid care work · these two aspects = 성차별(무급 돌봄의 당연시)과 시장의 가치 매김 방식 / 104쪽 ¶5 it(doesn't exist) = 'carer credits' / 104쪽 ¶6 their(very necessity) = chillies와 care work의 / 105쪽 첫 줄 him = Duncan.

> **한 줄 요약** 성차별과 시장의 가치 매김 방식이 겹쳐 필수적인 돌봄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으므로, 덩컨이 고추에 대한 관점을 바꿨듯 우리도 돌봄에 대한 관점 · 관행 · 제도를 바꿔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3 CHILLI]

범위	Chilli (원서 PDF 100~10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o put this right, we must change how we think about, carry out and organize care work. First, our perspectives must shift. Care work, paid and unpaid alike, is not merely important but essential to human survival and welfare. We must stop believing that the market should decide what things are worth, and drop the notion that caring is women's work. These new views must then be put into practice: by narrowing the gender wage gap, opening male-dominated professions to more women and combating racial discrimination, so that low-paid care work is not the only job open to ethnic-minority women.

① Care work should be valued by the market.
② We must treat care work as essential and act on it.
③ Women should stay in caring professions.
④ The gender wage gap is not worth worrying about.
⑤ Care work has nothing to do with racism.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 billions of people, a meal without chillies is unimaginable; for all of humanity, life without care work, paid or unpaid, is unimaginable. Yet precisely because they are so necessary, and therefore found everywhere, chillies and care become invisible – and so undervalued, or not valued at all. When Duncan accepted the Sichuan restaurant's different way of looking at chilli and changed the way he ate, a whole new world of food opened up to him, and his culinary life improved. In the same way, if we want a fairer, more balanced and more caring world, we must change the way we see care work, the way we do it and the institutions that govern it.

① Too Necessary to Be Noticed: Rethinking Care Work
② How Chillies Conquered the World
③ Duncan's Mistake at a Sichuan Restaurant
④ Why Care Work Should Be Left to the Market
⑤ The Hidden Dangers of Spicy Food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ecause women do the vast majority of unpaid care work, failing to count it seriously understates what women contribute to the economy and to society. Household work is so invisible that we speak of 'working mothers', as though stay-at-home mothers did no work. This strengthens the sexist assumption that women at home are idle, even though the labour they put into caring often far exceeds what their male partners spend on paid work. As a first step towards fully recognizing unpaid care, the author suggests calling 'working' mothers mothers 'in paid employment'.

① Stay-at-home mothers should find paid jobs.
② Men do more care work than women.
③ We should say 'working mothers' more often.
④ Uncounted care work hides women's contribution.
⑤ Paid work matters more than care work.

4. 밑줄 친 a chemical trickery of the highest sophisticati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hotness of chilli is really a pain rather than a taste. It is, in fact, a chemical trickery of the highest sophistication, devised by the chilli – which, surprisingly, is a berry in disguise. Capsaicin, the chief source of chilli's heat, produces a burning sensation, particularly in our membranes, yet it does no direct harm to our tissues. Instead, it binds to a sensory receptor in the body, the one that lets the body sense extreme temperatures, contact with acidic or corrosive substances, or scraping and rubbing. In this way, it deceives the brain into believing that the body is being injured.

① a reaction that seriously damages body tissue
② a method for measuring how hot a chilli is
③ an artificial flavour added to chillies
④ a process that makes chillies taste sweeter
⑤ a trick that makes the brain sense injury that is not there

5. 밑줄 친 'one-dollar-one-vot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 second and more important cause of this paradox is that in capitalist economies the market decides what goods and services are worth. At the heart of the trouble lies the fact that the market decides on a 'one-dollar-one-vote' basis rather than a 'one-person-one-vote' basis. What fixes a price is the amount people will pay for something, not the number of people who need it. However vital a thing may be for some people's survival, it counts for nothing in the market if they lack the money to buy it. As a result, essentials such as basic food, healthcare, education and care-home services are hugely undervalued, while even something quite pointless will be supplied if some people will pay for it – hence billionaires racing into space during a pandemic.

① people's influence in the market depends on how much money they can spend
② every person has an equal say in deciding prices
③ governments set prices according to people's needs
④ goods that many people need are always the most valuable
⑤ voters choose which services the market should supply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author's friend Duncan could not take much heat, so when the two visited a Sichuan restaurant in London, ① he ordered one dish without any chilli sign as a safeguard: if the rest proved too fiery, ② he would at least have something to enjoy. Being a good Korean, the author was tempted by the five-chilli dishes, but ③ he held back and ordered milder ones for his friend's sake. When the food came, however, Duncan turned pale, for ④ his 'no chilli' dish contained five or six small fried dried chillies. Puzzled, ⑤ he asked the waitress if something had gone wrong. With the patience of a teacher speaking to a slow pupil, she explained that the sign showed only relative hotness, not how much chilli a dish contained.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Chilli's heat matters so much that a special scale was created to measure it. The Scoville Scale takes its name from Wilbur Scoville, the American pharmacist who devised it in 1912. It extracts a chilli's heat compounds by dissolving a dried sample in alcohol, dilutes the extract with sugary water and asks a panel of five tasters whether they can still feel any heat. If most of them – three of the five – can no longer detect it once the chilli has been diluted, for instance, in 10,000 parts of water, it is given a rating of 10,000 Scoville Heat Units (SHU). Bell peppers score under 100 SHU, Korea's cheongyang chilli 10,000–25,000, Thai bird's-eye chilli 50,000–100,000 and habaneros 100,000–750,000, depending on the variety.

① 스코빌 척도는 1912년 미국의 한 화학자가 고안했다.
② 매운 성분은 말린 고추를 설탕물에 녹여 뽑아낸다.
③ 평가단 다섯 명 가운데 두 명만 매운맛을 못 느껴도 그 희석 배수가 SHU가 된다.
④ 한국의 청양고추는 10,000~25,000 SHU이다.
⑤ 타이 버즈아이 고추는 피망보다 덜 맵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Not only unpaid but also paid care work is undervalued compared with what it contributes to society, as the Covid-19 pandemic showed most starkly. Many countries then came to see that some people's work is indispensable to society's very existence. These included paid carers in medicine, childcare, senior care and teaching, and also people whose jobs are not care work as such but are needed for society to survive and renew itself, from food producers and delivery workers to cleaners. The UK called them 'key workers', and the US 'essential employees'. British key workers could shop before supermarkets opened or get priority access to scarce basics, and their children could keep attending school while schools were closed to most pupils. Some even called them 'heroes'.

① 돌봄 노동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② 팬데믹 동안 많은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일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③ 돌봄 노동 그 자체는 아니어도 사회의 생존과 재생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④ 영국에서는 이들을 'key workers', 미국에서는 'essential employees'라고 불렀다.
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영국 key workers의 자녀도 학교에 갈 수 없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Undervaluing care work is not only a question of social recognition; it also has material consequences for women. Because women take on caring roles more often than men, they tend to work fewer hours for pay than men ① do. Since pension rights beyond the basic state pension ② is linked to wages, women, other things ③ being equal, cannot build up as much entitlement as men. Some European countries partly offset this with 'care credits', which reward the time ④ spent looking after children and elderly relatives. Even so, women who devote years to unpaid care face a far greater risk of ⑤ ending up poor in old ag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Just as the Sichuan restaurant treated chillies, we now take for granted unpaid care work, most of which (A) [is / being] done by women, even though neither our economy nor our society could survive without such work. This sexist bias, together with the gender discrimination that comes with it, (B) [has / have] combined with the market's way of valuing things to cause a serious undervaluation of paid care work as well. The result is that we badly underrate at best, and completely overlook at worst, many of humanity's most vital activities, (C) [creating / created] a distorted picture of what really matters for human welfare.

	(A)	(B)	(C)
①	is	have	creating
②	being	has	created
③	is	has	creating
④	being	have	creating
⑤	is	has	creat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Many people, understandably, fear chilli's heat. To those not ① accustomed to it, the fiery taste can bring burning mouths, watering eyes and even stomach cramps. Yet for people in what the author calls the 'Chilli Belt', stretching from Mexico up to Korea, food without chilli's sharp heat is ② unimaginable. In countries whose native food is ③ mild, restaurants serving Chilli Belt food use a simple scale – zero to two or three chilli pictures beside each dish – to spare diners pain. One Sichuan restaurant in London, which the author visited in the early 2000s, used a more ④ limited scale, running from zero to five chillies: since chilli goes into almost every Sichuan dish in one form or another, it needed a ⑤ finer scale to tell its dishes apart.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 simple thought experiment shows how absurd it is to leave unpaid care work uncounted. Suppose two mothers exchange children, each looking after the other's child and paying the other the same standard fee for childcare. Neither mother ends up any richer or poorer, and the children receive exactly as much care as before. Yet, because money now changes hands in the market, GDP goes up. In this way, _____. The author adds, half in jest, that the two mothers could push GDP even higher just by raising the fees they charge each other.

① both mothers become better off financially
② measured output can rise while the actual care provided stays exactly the same
③ the amount of childcare falls as GDP rises
④ childcare becomes cheaper once it is sold in the market
⑤ unpaid care work is already fully included in GDP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For many reasons, women – particularly immigrant women and women of colour – make up a disproportionate share of low-paid caring jobs such as nursing, childcare and domestic service.

One lesson of the pandemic was that nearly all 'essential' workers, apart from top doctors, receive low pay. (①) This is rather paradoxical: if certain work is essential, shouldn't the people doing it be the best paid, by definition? (②) One reason why even paid care work is undervalued is the same one that explains why unpaid care is ignored: deeply rooted gender discrimination. (③) These women earn less than men doing similar jobs, and far less than equally able men would earn in male-dominated fields. (④) In other words, even paid work, which GDP does count, is valued too low when women do it. (⑤) A second, more important reason lies in how the market sets values.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Counting only activities that are sold in the market leaves a huge part of economic activity out of sight. ① In developing countries, much farm output goes uncounted, since many rural people consume some of what they grow, and what is never sold never enters GDP statistics. ② In rich and poor countries alike, unpaid care work in homes and local communities is likewise left out of national output. ③ This includes bearing and raising children, helping them learn, caring for elderly and disabled people, cooking, cleaning, laundry and running a household, which involves what one sociologist has labelled 'cognitive labour'. ④ The Scoville test asks five tasters whether they can still feel the heat of a diluted chilli extract. ⑤ Valued at market prices, these activities would be worth 30–40% of GDP.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Resigned to his fate, Duncan picked the chillies out of his food, yet it remained slightly too hot for him. Still, he bravely tried every other dish and liked them all, though not without sweat and tears.

(A) GDP, the standard measure of economic output, is a case in point: it counts only what is exchanged in the market, on the 'capitalist' view that the price something fetches is the only way to judge its worth to society.

(B) The story ended happily, though. Duncan came to enjoy chilli and kept returning to the restaurant, which in time became one of his favourites.

(C) What is everywhere tends to be taken for granted, and what is taken for granted goes uncounted, just like the chilli in that restaurant's chilli scale. In economics, the supreme example is unpaid care work in homes and communitie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ew perspectives and practices around care work need to be fixed in place by institutional change. The welfare system should recognize unpaid care through extended paid care leave for both men and women, affordable childcare for all parents and new or stronger 'carer credits' in pension calculations. Paid carers deserve higher minimum wages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guaranteed by law, and the marketization of care should be limited and regulated so that everyone can get basic care. The case of NHS workers shows why. Early in the pandemic, millions applauded them weekly as 'heroes' for ten weeks, yet in March 2021 the government offered them a 1% pay rise – a 'slap in the face', many said. As one campaign slogan said, 'Claps don't pay the bills.'

→ Changes in how we think about and practise care work will last only if they are (A) _____ by institutional reforms, for, as the NHS case shows, public (B) _____ alone does not raise carers' pay.

① cemented ..... applause
② cemented ..... legislation
③ replaced ..... applause
④ weakened ..... funding
⑤ replaced ..... legislation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Many people fear the heat of chilli, whose name comes from Mexico. In 1912 Wilbur Scoville, an American pharmacist, created a scale that rates this heat with the help of a panel of five tasters. In the early 2000s, the author and his friend Duncan Green ate at a Sichuan restaurant in London, where Duncan ordered a dish with zero chilli signs, only to find several dried chillies in it. The author argues that unpaid care work is overlooked in the same way: valued at market prices, it would be worth 30–40% of GDP. During the pandemic, the UK called many vital workers 'key workers', yet almost all of them, apart from top doctors, are poorly paid.

<QUIZ>

(1) What was Wilbur Scoville's profession?

Answer for (1): _____

(2) How many tasters are on the panel used for the Scoville scale?

Answer for (2): _____

(3) In which city was the Sichuan restaurant that the author visited with Duncan?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chilli signs did Duncan's dish have on the menu?

Answer for (4): _____

(5) What share of GDP would unpaid care work be worth at market prices?

Answer for (5): _____

(6) What did the UK call many vital workers during the pandemic?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almost all essential workers, apart from top doctors, are well paid?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campaigner	N. 10,000
B. three	O. five
C. Mexico	P. 2.2 million
D. six	Q. 1%
E. 30–40%	R. key workers
F. 20%	S. False
G. essential employees	T. London
H. zero	U. Korea
I. True	V. 45%
J. 1912	W. Duncan Green
K. heroes	X. waitress
L. Peru	Y. Sichuan
M. pharmacist	Z. sociologist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고추의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이다. (not A but B)

02 캡사이신은 우리 몸이 손상을 입고 있다고 믿도록 뇌를 속인다. (fool A into -ing)

03 고추의 매운맛은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그것을 재는 전용 척도가 발명되었다. (such a + 명사 + that / 현재완료 수동)

04 그 식당은 요리들을 서로 구별하려면 더 세밀한 척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 distinguish A from B)

05 그는 땀과 눈물을 좀 흘리기는 했지만 다른 요리를 모두 먹어 보고 좋아했다. (albeit)

06 어떤 것이 어디에나 있으면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be taken for granted)

07 시장에서 거래되는 활동만 세는 관행은 경제 활동의 큰 덩어리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of + 동명사 / make + O + 형용사)

08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은 남성만큼 많은 연금 수급권을 쌓을 수 없다. (독립 분사구문 / as much ~ as)

09 저평가되는 것은 무급 돌봄 노동뿐 아니라 유급 돌봄 노동이기도 하다. (It is ~ that 강조 / not just A but also B)

10 어떤 것이 아무리 필수적이어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살 돈이 없으면 시장에서는 셈에 들지 않는다. (however + 형용사)

11 우리는 주로 여성이 하는 무급 돌봄 노동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come to V / take A for granted)

12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돌봄 노동에 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if + be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고추김치의 재료	
'chilli'라는 이름의 출처 / 고추 벨트의 북쪽 끝	
고추 매운맛의 주된 원천	
스코빌 척도의 고안자 · 해	
평가단 / 판정 기준	
청양고추 / Carolina Reaper의 SHU	
보통 식당 메뉴의 고추 그림	
쓰촨 식당의 장소 · 시기 · 고추 표시	
덩컨의 '고추 없음' 요리에 든 고추	
고추 표시가 뜻하는 것	
GDP가 세는 것	
'인지 노동'이라는 말을 쓴 사람	
무급 돌봄을 시장 가격으로 치면	
'일하는 어머니' 대신 쓰자는 말	
연금 불이익을 일부 메우는 제도	

항목	답
WHO의 비상사태 / 팬데믹 선언	
필수 노동자의 영국 / 미국 이름	
박봉의 두 까닭	
성별 임금 격차(105쪽 각주 viii)	
NHS 박수 기간 / 2021년 3월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바꿔야 할 세 가지	

4-3. 통합 사고 문제 – 12장과 13장을 잇는 자리

문제

12장에서 저자는 공식적인 차별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일터의 여성은 '가정보다 경력을 앞세울 가능성이 적다'는 성차별적 시각 때문에 남성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썼고(96쪽 ¶6~97쪽 첫 줄), 공식 규정이 없는데도 많은 여학생이 '남성적' 과목을 '자발적으로' 피했다고 했다(97쪽 ¶1). 13장에서 저자는 여성, 특히 유색인 여성과 이민자 여성이 저임금 돌봄 직종에 불균형하게 많고 비슷한 능력의 남성이 남성 중심 직종에서 받을 임금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고 썼으며(103쪽 ¶3), 처방으로 남성 중심 직종을 여성에게 더 열고 인종 차별과 싸우자고 했다(104쪽 ¶4). 이를 바탕으로, 아래 103쪽 ¶3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d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12장과 13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2장 또는 13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유급 돌봄이 저평가되는 첫째 까닭: One reason for the undervaluation of even marketed care work is the same as what is behind the neglect of unpaid care work – that is, the deep-rooted practice of gender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4 LIME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Lime」 (원서 PDF 108~114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영국 해군의 라임은 기후 위기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장은 라임즙과 설탕에 카샤사나 보드카를 섞는 브라질 칵테일 카이피리냐 · 카이피로스카로 시작한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떠받친 영국 해군의 힘은 작고 값싼 과일 라임에서도 나왔다. 수많은 선원을 죽이던 괴혈병을 영국 해군은 감귤류 즙을 배급에 의무로 넣고 럼에 섞어 모두가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없앴다. 이야기는 카이피리냐의 나라 브라질이 사탕수수로 에탄올 연료를 키워 온 역사를 거쳐 기후 위기로 넘어가고, 저자는 새 기술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시장의 유인과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라임의 효과를 살린 것이 영국 해군의 집행이었듯, 기후 위기의 해법도 개인의 변화가 단호한 대규모 공공 행동과 결합할 때 실현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6장(국수)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기후 변화의 해법은 개인의 시장 선택에 맡길 수 없고 집단 행동으로 실행해야 한다(113쪽 ¶5) / 정부 정책이 뒷받침할 때에야 개인이 생활을 바꿀 수 있다(113쪽 ¶1) / 감귤류 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적용한 영국 해군(109쪽 ¶4) / 시장의 유인과 개인의 선택으로는 부족하다(112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from the British point of view, of course / Britannia rules the waves / sealed Britain's global naval supremacy / died off like flies / sugar, sugar and lime! / More Brazilian than Cachaça / And lots of them / easier said than done / a one-dollar-one-vote, rather than one-person-one-vote system / as good as doing nothing / a 'race to the bottom' / So it is with climate change
6	지칭 추론	it · its가 영국과 그 육군 · 해군 사이를 오가는 108쪽 ¶1~¶3 / it(109쪽 ¶4 = lemon juice) / whose(109쪽 ¶4 = vitamin C의) / its(110쪽 ¶1 = Brazil) / them(110쪽 ¶5 = new technologies) / they(112쪽 ¶2 = private sector firms) / they(112쪽 ¶4 = such technologies) / his(113쪽 ¶4 = the individual sailor)
7~8	내용 일치·불일치	대영제국의 규모(108쪽 ¶1) / 트라팔가르(108쪽 ¶2) / 괴혈병(109쪽 ¶1~¶3) / 레몬에서 라임으로(109쪽 ¶4~¶5) / 브라질의 에탄올(110쪽 ¶1~¶2) / 5억 3,100만 · 1938 · 3,400만 km^2 · 1922 · 16세기 · 1805 · 15세기 말 · 20세기 · 50% · 200만 · 1795 · 1908 · 5% · 1973 · 1975 · 1985 · 96% · 2003 · 15% · 15~35% · 25%
9~10	**어법**	allow + O + to V · making it possible for it to V · as ~ goes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not infrequent · whose · be said to have p.p. · come to be p.p. · make + O + 명사 · If distilled · 과거완료 · No wonder · 동격 that · It is ~ that 강조 · so that + can · easier said than done · If left to · not because A but because B · should they have p.p.(if 생략 도치) · only when · be to V · leave it to ~ to V · require that + 원형 · So it is with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dispersed↔concentrated · inegalitarian↔egalitarian · prevalent↔rare · compulsory↔optional · mandatory↔optional · intermittent↔constant · resistant↔vulnerable · inevitable↔avoidable · concerted↔uncoordinated · reluctant↔eager · myopia↔foresight · disclose↔conceal
12	빈칸 추론	not just as energy sources but in the making of key materials(111쪽 ¶1) / the first to apply the solution systematically(109쪽 ¶4) / short-term results(112쪽 ¶2) / only thanks to government intervention(112쪽 ¶3)
13	문장 삽입	새 기술 단락(110쪽 ¶4~111쪽 첫 줄): 이미 벌어지는 일 → 과학적 합의 → First, we need new technologies → Above all, 대체 에너지 → 탄소 포집 → 전기 저장
14	무관한 문장	식습관 단락(111쪽 ¶6~112쪽 첫 줄)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바이오디젤의 원료, 110쪽 ¶3)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브라질 에탄올의 역사(110쪽 ¶1): 카샤사 → 에탄올 → 20세기 초부터 실험 → 대공황 · 2차 대전 때 5% 의무 · 보조금 → 전쟁 뒤 쇠퇴 → 1973 석유 파동 뒤 야심 찬 계획
16	요약문 완성	민간의 근시안과 정부의 역할(112쪽 ¶3): 단기 시야 →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기술은 정부 자금(정보 기술 · 생명공학 · 태양광 · 풍력)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장소 · 별명 · 술 · 숫자 · 회사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5억 3,100만 명(1938) · 3,400만 km^2(1922) · 16세기(해군 경쟁의 시작) · 1805(트라팔가르) · 15세기 말(원양 항해의 시작) · 20세기(괴혈병의 원인 · 비타민 C 확인) · 50%(가정했다고 한다) · 200만 명(추정) · 1795(레몬즙 의무화) · 10여 년(괴혈병이 사라지기까지) · 1908(Model-T, 각주 iv) · 5%(혼합 의무) · 1973(1차 석유 파동) · 1975(Proálcool) · 1985 · 96% · 2003(flexi-fuel) · 15%(에너지 생산) · 15~35%(농업) · 25%(쇠고기). 15%는 두 번 나온다 – 에탄올이 브라질 연간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몫(110쪽 ¶2)과 농업 배출 추정치의 아래쪽 끝(111쪽 ¶6). 인물 · 회사 · 이름도 많다(Horatio Nelson · Columbus · Henry Ford · Fiat · Volkswagen · Jennifer Eaglin · grog · limeys · hard tack · cachaça · caipiroska).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레몬 ↔ 라임, 산도 ↔ 비타민 C, 처음 체계적으로 적용 ↔ 처음 발견, 15세기 ↔ 20세기, Fiat ↔ Volkswagen, 96% ↔ 15%, 충분하다 ↔ 충분하지 않다, 개인의 선택 ↔ 집단 행동). 전언 · 추정(are said to have · It is estimated · may have been · hopefully · could)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원서가 '잘못 믿었다(mistakenly believed)'고 한 당시의 생각을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Lime」 (108~113쪽)

논증형(대영제국의 성공 → 산업 · 분할 통치 · 해군 → 해군 패권과 트라팔가르 → 섬나라의 이점 → 라임의 등장 → 괴혈병 → 감귤류 즙 → 영국 해군의 체계적 적용(1795 · grog · 라임) → limeys → 브라질의 카이피리냐 → 사탕수수 에탄올과 Proálcool → 바이오 연료 → 기후 위기 → 새 기술 → 생활 방식 → 공공 행동(시장의 근시안 · 1달러 1표 · 개인 선택의 한계) → 결론: 라임처럼 집단 행동으로). 핵심 축은 **개인의 선택 vs 집단적 공공 행동**, 그리고 **민간의 짧은 시야 vs 정부의 긴 투자**.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08 ¶1	도입	대영제국의 성공(물론 영국의 관점) · 역사상 가장 큰 제국 / 산업 우위 · 분할 통치 · 가장 직접적으로는 바다를 지배한 해군
108 ¶2	해군 패권	16세기부터 스페인 · 네덜란드 · 프랑스와 경쟁 · 해군에 공격적 투자 / 1805 트라팔가르 → 한 세기 넘는 패권
108 ¶3	해군의 쓸모	섬나라 → 사실상 침략 불가 · 작은 육군은 국내 반란 진압 / 먼 땅 점령 · 경쟁국 격퇴 · 상선 보호
108 ¶4~109 ¶2	괴혈병	라임의 결정적 역할 / 15세기 말 원양 항해 · 선원의 가장 큰 사망 원인 · 비타민 C 부족 / 50%를 가정했다고 한다 · 200만 명 넘게(추정)
109 ¶3	치료법 찾기	식초 · 황산 등 → 차츰 감귤류 즙 / ascorbic acid = '괴혈병을 막는 산'
109 ¶4	체계적 적용	경쟁 해군도 알았지만 영국 해군이 처음 체계적으로 · 1795 레몬즙 의무화(grog) → 라임(더 쌈 · 카리브 식민지 · 산도에 대한 오해)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09 ¶5	결과	10여 년 만에 괴혈병이 사실상 사라짐 · 'limeys'
109 ¶6~110 ¶1	브라질	라임 = 국민 술 카이피리냐 · 카샤사 → 에탄올 / 20세기 초 실험 · 대공황 · 2차 대전 때 5% 의무 · 1973 뒤 야심 찬 계획
110 ¶2	Proálcool	1975 계획 · 1985년 새 차의 96%가 에탄올 전용 · 2003 flexi-fuel · 오늘날 에너지 생산의 15%
110 ¶3	바이오 연료	브라질 밖에서는 최근 20년쯤 · 기후 변화 우려 → 수십 나라가 혼합을 요구
110 ¶4	기후 위기	극지 얼음 · 해수면 · 극단적 날씨 · 대멸종 /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존립의 위협(과학적 합의)
110 ¶5~111 첫 줄	첫째 – 기술	새 기술, 그것도 많이 / 대체 에너지 · 탄소 포집(작은 역할) · 전기 저장
111 ¶1~¶2	기술의 범위	화석 연료를 덜 쓰는 소재 기술 · 재활용 · 대체 소재 / 적응 기술(관개 · 담수화 · 일기 예보 · 홍수 관리)
111 ¶3~112 첫 줄	생활 방식	기술만으로는 부족 · 주로 부자 나라 사람들 / 차를 덜 타기 · 에너지 효율 · 식습관(고기 · 쇠고기 · 제철 음식)
112 ¶1~¶2	공공 행동	시장 유인과 개인 선택으로는 부족 / 단기 성과 압박 → 수십 년 걸리는 녹색 기술을 꺼림
112 ¶3	역사의 증거	민간의 근시안 → 정보 기술 · 생명공학은 미국 정부 자금 / 태양광 · 풍력도 정부 개입 덕분
112 ¶4~113 첫 줄	기후 정의	1달러 1표의 시장 → 가난한 나라에 필요한 기술 투자 부족 / 개발 · 이전 지원 = 기후 정의
113 ¶1~¶3	개인과 정책	정책이 가능하게 해야 개인이 바뀜 / 큰 초기 투자 · 탄소 발자국 공개만으로는 '바닥을 향한 경주'
113 ¶4~¶5	결론	라임도 영국 해군의 집행 덕분 / 기후 변화도 집단 행동 · 개인의 변화 + 단호한 대규모 공공 행동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대영제국의 성공	영국의 관점 –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저자의 단서 – '물론 영국의 관점에서'
제국의 원동력	산업 우위 · 분할 통치(작은 군대로 식민지 운영)	가장 직접적으로는 바다를 지배한 우월한 해군
육군 vs 해군	작은(그래서 경제적인) 육군 – 국내 질서 유지 · 반란 진압	강한 해군 – 침략 방어 · 먼 땅 점령 · 경쟁국 격퇴 · 상선 보호
선원을 죽인 것	적함 · 해적 · 폭풍(아님)	괴혈병(비타민 C 부족)
감귤류 즙	경쟁 해군 – 효과를 알고 있었음	영국 해군 –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적용(1795 의무화 · grog)
레몬 vs 라임	레몬 – 비타민 C가 라임의 약 두 배	라임 – 더 싸고 보급이 쉬움(카리브 식민지) · 산도가 높아 더 효과적이라고 잘못 믿음
브라질의 에탄올	쇠퇴 · 부침 – 2차 대전 뒤 값싼 석유 · 유가 · 사탕수수 생산 · 보조금 규모	정부의 밀어붙이기 – 대공황 · 2차 대전(5% 의무 · 보조금) · 1973 석유 파동 · 1975 Proálcool → 2003 Volkswagen의 flexi-fuel로 자리 굳힘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기후 위기의 처방	더 나은 기술 — 필요함	그러나 충분하지 않음 → 생활 방식의 변화(주로 부자 나라 사람들)
기술 개발의 주체	민간 기업 — 몇 년, 어쩌면 분기 단위의 시야 · 녹색 기술 투자를 꺼림(근시안)	정부 — 정보 기술 · 생명공학 · 태양광 · 풍력을 키움
시장의 투표	1달러 1표 — 돈이 많은 쪽에 쓸모 있는 기술로 투자	1인 1표가 아님 → 가난한 나라에 필요한 기술 지원 · 기후 정의
개인의 선택	이론 — 탄소 발자국 공개 + 소비자의 '올바른' 장보기	현실 —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거나 더 나쁨('바닥을 향한 경주')
라임의 교훈	선원 각자가 감귤을 챙기게 맡김(영국 해군이 하지 않은 일)	배급에 넣어 의무화 · 럼에 섞음 → 기후 변화도 집단 행동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Lime ([제목])	Caipirinha/Caipiroska(브라질) · 카샤사 또는 보드카에 라임즙 · 설탕
대영제국	역사상 가장 큰 제국 — 인구 **5억 3,100만 명(1938)** · 면적 **3,400만 km²(1922)** / 성공은 '물론 영국의 관점에서'
제국의 요인	산업 우위(분명 핵심) · 분할 통치(흔히 대부분 현지 용병인 작은 군대 → 자국 인구의 **10배**가 넘는 인구 통제) ·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월한 해군
Rule Britannia	'Britannia rules the waves'(한 판본) / 114쪽 각주 i: Britannia = 투구를 쓰고 삼지창을 든, 영국을 의인화한 여전사
해군 경쟁	**16세기**부터 스페인 · 네덜란드 · 이어 프랑스 / 잘 무장되고 보급이 넉넉하며 잘 운영되는 해군에 공격적 투자
트라팔가르 해전	**1805** · Horatio Nelson 제독 · 프랑스 · 스페인 연합 함대 격파 → 한 세기 넘는 패권
섬나라의 이점	사실상 침략 불가 · 작은(그래서 경제적인) 육군 → 거의 오로지 국내 질서 · (드물지 않은) 반란 진압
괴혈병	**15세기 말** 시작된 원양 항해 초기 선원의 가장 큰 사망 원인(적함 · 해적 · 폭풍이 아님) / 무기력 · 붓고 피 나는 잇몸 · 흔들리는 이 · 심한 관절통 · 흔히 죽음
원인	비타민 C 부족 · **20세기**까지 수수께끼 / 인간은 다른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함
선원의 식단	썩은 소금 고기 · 바구미가 들끓는 비스킷('hard tack') · 김빠진 맥주 — 몇 달이고 계속
사망 규모	선주 · 정부가 사망률 **50%**를 가정했다**고 한다** ·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부터 19세기 중반까지 **200만 명** 넘게(**추정**)
114쪽 각주 ii	몸은 비타민 C를 적어도 한 달, 보통 석 달까지 저장 → 대양을 건너기 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음
치료법	식초 · 황산(vitriolic acid) 시도 → 차츰 감귤류 즙(유효 성분은 20세기까지 모름) / ascorbic acid = 'anti-scurvy acid'
영국 해군	**1795** 해군성(Admiralty)이 레몬즙을 배급 의무 품목으로 · 물 탄 럼('grog')에 섞음 → 곧 라임으로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라임으로 바꾼 까닭	더 싸고 보급이 쉬움(영국의 카리브 식민지) / 산도가 치료한다는 당시의 **오해**(라임은 산도가 더 높고 비타민 C는 레몬의 절반 정도)
결과	**10여 년** 만에 괴혈병이 사실상 사라짐 · 미국인이 영국 선원을 'limeys'라 부름 → 마침내 미국에서 모든 영국인
Caipirinha	브라질의 국민 술 · 라임즙(패션프루트 등 다른 과일도) · 설탕 · 카샤사(국민 증류주) / 114쪽 각주 iii: 보드카면 caipiroska · 저자는 이쪽을 더 좋아함(카샤사가 좀 지나치게 달아서)
브라질의 에탄올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국 · **20세기 초**부터 실험 · 대공황 · 2차 대전 → 휘발유에 **5%** 혼합 의무 · 보조금 / 2차 대전 뒤 쇠퇴 · **1973** 1차 석유 파동 뒤 계획 / 114쪽 각주 iv: 포드 Model-T(**1908**)도 혼합 연료
Proálcool	**1975** · 생산 설비 투자와 주유소 가격 모두에 보조금 / 1970년대 말 Fiat · Volkswagen의 에탄올 전용 엔진 · **1985**년 새 차의 **96%** / **2003** Volkswagen의 flexi-fuel / 오늘날 연간 에너지 생산의 **15%** / Jennifer Eaglin 'More Brazilian than Cachaça'
바이오 연료	브라질 밖에서는 최근 20년쯤 · 바이오디젤(유채씨 · 콩 같은 식물성 기름 · 동물성 지방) · 수십 나라가 혼합 요구 / 114쪽 각주 v: 장작 · 동물 똥도 바이오 연료라 '현대적'
기후 위기	극지 얼음 · 해수면 상승 · 폭염 · 사이클론 · 홍수 · 산불 · 대멸종 / 온실가스(CO_2 · 메탄 · 아산화질소 등) — 존립의 위협(과학적 합의)
기술	대체 에너지(바이오 연료 · 태양광 · 풍력 · 파력 · 수력 · 수소 · 어떤 상황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원자력) · 탄소 포집(작은 역할, 114쪽 각주 vi CCUS) · 전기 저장 / 강철 · 비료 · 시멘트 · 플라스틱 / 적응 기술
생활 방식	차를 덜 타기(미국 — 퍼진 생활 공간 · 부실한 대중교통) · 단열 · 열펌프 · 불 끄기 / 농업 = 온실가스의 **15~35%**(추정) · 쇠고기 = 농업 배출의 **25%**(최근 추정) · 제철 음식
공공 행동	녹색 기술: 민간은 몇 년, 어쩌면 분기 단위 · 수익은 수십 년 / 정보 기술 · 생명공학 = 미국 정부의 '국방' · '보건' 연구(「Noodle」) / 태양광 · 풍력 = 정부 개입 덕분(유럽 여러 나라 · 중국 · 브라질 · 미국)
기후 정의 · 개인	시장 = 1달러 1표(「Garlic」 · 「Chilli」) · 개발도상국은 기여는 적고 피해는 큼 / 단열 등 초기 투자 → 보조금 · 대출 / 탄소 발자국 공개만으로는 '바닥을 향한 경주'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Lime」 (원서 PDF 108~113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4-1 대영제국을 떠받친 바다의 힘 108쪽 ¶1~¶3

원문 위치 원서 108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8쪽 [제목]	Caipirinha/Caipiroska (Brazilian) — Cachaça/Vodka with lime juice and sugar	브라질 칵테일 — 장 중반의 브라질 이야기와 연결
◆	108쪽 ¶1 첫 문장	(from the British point of view, of course)	저자의 단서 — '성공'은 영국의 관점에서만
★	108쪽 ¶1 첫 문장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by population (531 million in 1938) and by area (34 million km² in 1922)	숫자 — 일치 1순위
★	108쪽 ¶1 첫~둘째 문장	cannot be explained by a single factor. Britain's industrial supremacy was obviously at the heart of it	주제문 · 첫째 요인
▲	108쪽 ¶1 셋째 문장	allowed it to run colonies with small armies (…), making it possible for it to control more than ten times its own population	allow + O + to V · 가목적어 it
▲	108쪽 ¶1 넷째 문장	it was its ability to control the oceans through superior naval forces, which made such a large and dispersed empire feasible	강조의 짜임 · 어법 (A)
●	108쪽 ¶1 넷째 문장	dispersed · feasible	어휘 반전 후보(concentrated · impossible)
◆	108쪽 ¶1 넷째 문장 · 114쪽 각주 i	'Britannia rules the waves', as one version of the patriotic song 'Rule Britannia' goes	Britannia = 영국을 의인화한 여전사
★	108쪽 ¶2 첫 문장	competing with Spain, the Netherlands and then France for European – and eventually global – naval supremacy	경쟁국의 순서 —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8쪽 ¶2 둘째 문장	edged out its competitors one by one by investing aggressively in … a well-armed, well-provisioned and well-run navy	by + 동명사 · 어법 (B)
▲	108쪽 ¶2 셋째 문장	The Battle of Trafalgar in 1805, in which the Royal Navy, under the command of Admiral Horatio Nelson, defeated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어법 (C)
◆	108쪽 ¶2 셋째 문장	sealed Britain's global naval supremacy for more than a century	밑줄 의미 후보
★	108쪽 ¶3 첫 문장	Britain, given its island status, was virtually uninvadable	섬나라의 이점 — 지칭 문항의 바탕
◆	108쪽 ¶3 둘째 문장	its relatively small (and thus economical) army almost exclusively for maintaining internal order	지칭(its = Britain) · 괄호 속 저자의 평가
●	108쪽 ¶3 둘째 문장	the (not infrequent) revolts against its notoriously inegalitarian socio-economic order	이중 부정 · 어휘(inegalitarian ↔ egalitarian)
★	108쪽 ¶3 셋째 문장	capturing far-flung lands, repelling attempts of rival powers … and protecting from piracy its commercial ships	해군의 세 쓸모 — 병렬

내용

대영제국의 성공은 (물론 영국의 관점에서 본 성공이다)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영제국은 인구(1938년 5억 3,100만 명)로 보나 면적(1922년 3,400만 km^2)으로 보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다. 그 중심에는 분명 영국의 산업적 우위가 있었다. 이름난 분할 통치 기술 덕분에 영국은 (흔히 대부분 현지 용병으로 이루어진) 작은 군대로 식민지를 운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국 인구의 열 배가 넘는 인구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크고 흩어진 제국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월한 해군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능력이었다. 애국적인 노래 'Rule Britannia'의 한 판본이 노래하듯 '브리타니아가 바다를 다스린다'(114쪽 각주 i: Britannia는 투구를 쓰고 삼지창을 든, 영국을 의인화한 여전사다). 16세기부터 영국은 유럽의,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해군 패권을 두고 스페인 · 네덜란드, 이어 프랑스와 겨루기 시작했다. 그 뒤 두 세기쯤 동안 영국은 잘 무장되고 보급이 넉넉하며 잘 운영되는 해군을 건설하는 데 공격적으로 투자해 경쟁국을 하나씩 밀어냈다. Horatio Nelson 제독이 지휘한 영국 해군이 프랑스 · 스페인 연합 함대를 물리친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은 영국의 세계 해군 패권을 한 세기 넘게 굳혔다. 이렇게 강한 해군이 있으니 섬나라 영국은 사실상 침략당할 수 없었다. 외부 침략에서 안전했기에 영국은 비교적 작은 (그래서 경제적인) 육군을 거의 오로지 국내 질서 유지에, 곧 악명 높게 불평등한 사회 · 경제 질서에 맞선 (드물지 않았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강한 해군 덕분에 영국은 멀리 떨어진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빼앗으려는 경쟁 강대국의 시도를 물리치고, 식민지 무역에 나선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지키며 제국을 넓힐 수 있었다.

어법

- **The success (…) of the British Empire –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by population … – cannot be explained by a single factor** : 주어 The success, 동사 cannot be explained(조동사 + 수동). 대시 사이 = the British Empire를 풀어 쓴 동격. by population · by area의 by = 기준(~으로 따져).
- **Its famed skill for divide-and-rule allowed it to run colonies with small armies …, making it possible for it to control more than ten times its own population** : allow + O + to V. making it(가목적어) possible for it(의미상 주어) to control(진목적어) = 결과의 분사구문. more than ten times + 명사 = ~의 열 배가 넘는.
- **it was its ability to control the oceans through superior naval forces, which made such a large and dispersed empire feasible** : it was A ~ which made B feasible = B를 가능하게 한 것은 A였다는 강조의 짜임(원서는 쉼표 뒤 which를 썼다). make + O + 형용사(feasible). such a + 형용사 + 명사 어순.
- **'Britannia rules the waves', as one version of the patriotic song 'Rule Britannia' goes** : as ~ goes = (노래 · 속담이) ~라고 하듯이. goes = '가사가 ~이다'의 뜻.
- **it edged out its competitors one by one by investing aggressively in the construction of a well-armed, well-provisioned and well-run navy** : edge out = 조금씩 밀어내다. by + 동명사 = 수단(by invested는 오답). well-armed · well-provisioned · well-run = 부사 + 과거분사의 복합 형용사 셋이 navy를 꾸민다.
- **The Battle of Trafalgar in 1805, in which the Royal Navy … defeated the combined fleets of the French and the Spanish navies, sealed Britain's global naval supremacy**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뒤가 완전한 절이라 which만 쓰면 오답). 주어 The Battle … 동사 sealed — 관계절이 사이에 끼어 있다.
- **Safety from external invasion, in turn, allowed the country to use its relatively small (and thus economical) army almost exclusively for maintaining internal order, by suppressing the (not infrequent) revolts** : in turn = 이번에는 그것이(앞 문장의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됨). allow + O + to V. not infrequent = 이중 부정(드물지 않은 = 꽤 잦은).
- **the strong navy enabled it to expand its empire by capturing …, repelling … and protecting from piracy its commercial ships engaged in colonial trade** : enable + O + to V. by 뒤 동명사 셋 병렬. protect A from B에서 목적어 its commercial ships …가 길어 from piracy 뒤로 갔다. engaged in = ships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upremacy	우위, 패권	dominance	inferiority
mercenary	용병	hired soldier	—
dispersed	흩어진	scattered	concentrated
feasible	실현 가능한	viable	impossible
patriotic	애국적인	nationalistic	unpatriotic
edge out	조금씩 밀어내다	outdo	—
provision (v.)	물자를 대다, 보급하다	supply	—
seal (v.)	확정 짓다, 굳히다	secure	—
virtually	사실상	practically	—
uninvadable	침략할 수 없는	impregnable	vulnerable
suppress	진압하다	crush	—
inegalitarian	불평등한	unequal	egalitaria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ar-flung	멀리 떨어진	remote	nearby
repel	물리치다	repulse	—

내용 일치 대영제국의 성공은 '물론 영국의 관점에서' ·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인구 5억 3,100만 명 1938 · 면적 3,400만 km² 1922) ·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음 · 산업 우위가 분명 핵심 · 분할 통치(흔히 대부분 현지 용병인 작은 군대 → 자국 인구의 10배가 넘는 인구 통제) ·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월한 해군 · 'Britannia rules the waves'(각주 i: 영국을 의인화한 여전사) / 16세기부터 스페인 · 네덜란드 · 이어 프랑스와 경쟁 · 이후 두 세기쯤 해군에 공격적 투자로 하나씩 밀어냄 · 1805 트라팔가르(넬슨 제독 · 프랑스 · 스페인 연합 함대 격파) → 한 세기 넘는 패권 / 섬나라 → 사실상 침략 불가 · 작은(경제적인) 육군 → 거의 오로지 국내 질서 · 드물지 않은 반란 진압 · 무엇보다 먼 땅 점령 · 경쟁국 격퇴 · 식민지 무역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보호. **지칭** 108쪽 ¶1 it(at the heart of it) = 대영제국의 성공 · Its(famed skill) · it(allowed it · for it) · its own population = Britain · it(was its ability) = 강조의 it / 108쪽 ¶2 it(edged out) · its competitors = Britain · in which = the Battle of Trafalgar / 108쪽 ¶3 its island status = Britain의 · the country = Britain · its(army · socio-economic order) = Britain의 · it(enabled it) · its empire · its commercial ships = Britain · the captured lands = 영국이 차지한 땅. 밑줄 의미: from the British point of view, of course = 식민지 쪽에서 보면 성공이 아니다 / sealed … supremacy = 패권을 확정 지었다.

> **한 줄 요약** 대영제국을 가능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힘은 바다를 지배한 해군이었고, 트라팔가르 해전으로 굳힌 해군 패권은 침략을 막고 제국을 넓히게 해 주었다.

14-2 선원을 죽인 괴혈병, 선원을 살린 라임 108쪽 ¶4 ~ 109쪽 ¶5

원문 위치 원서 108쪽 ¶4 ~ 109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8쪽 ¶4(109쪽 첫 줄까지)	a tiny, cheap fruit called lime played a critical role	장의 음식이 처음 등장 — 전환
★	109쪽 ¶1 첫 문장	started in the late fifteenth century, the biggest killer of sailors was not enemy ships, not pirates, nor even storms	시기 · not A, not B, nor C
▲	109쪽 ¶1 둘째 문장	It was scurvy – a horrible disease whose symptoms included lethargy, swollen and bleeding gums, loose teeth, severe joint pain and often death	whose · 증상 — 일치
★	109쪽 ¶2 첫 문장	scurvy is caused by the lack of vitamin C … its cause remained a mystery until the twentieth century	시기 함정 — 20세기
★	109쪽 ¶2 둘째 문장	Unlike most other animals, humans cannot synthesize vitamin C, so they need to take it orally	일치 · 어휘(synthesiz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9쪽 ¶2 셋째 문장	rancid salted meat, weevil-infested biscuits ('hard tack') and stale beer … died off like flies	분사구문 · 밑줄 의미 후보
◆	109쪽 ¶2 넷째 문장	ship-owners and governments are said to have assumed a 50% death rate	전언 + 완료부정사 — 단정 금지
◆	109쪽 ¶2 다섯째 문장	It is estimated that scurvy killed more than 2 million sailors worldwide	추정 — 숫자
★	114쪽 각주 ii	store vitamin C for at least for a month and usually up to three months	대양 항해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까닭(원서 표기 for at least for)
★	109쪽 ¶3 둘째~셋째 문장	vinegar and vitriolic acid, were tried. Slowly, the juice of citrus fruits came to be known as an effective cure	실패한 치료법 · come to be p.p.
★	109쪽 ¶3 넷째 문장	the scientific name for the vitamin is ascorbic acid, which literally means 'anti-scurvy acid'	so ~ that · 이름의 유래
★	109쪽 ¶4 첫 문장	also known by its rival navies, but the Royal Navy was the first to apply the solution systematically	제목 1순위 · the first to V
★	109쪽 ¶4 둘째 문장	In 1795, the Admiralty made lemon juice a compulsory item … the ration of watered-down rum, known as 'grog'	숫자 · make + O + 명사 · 서답형
★	109쪽 ¶4 넷째 문장	lime was cheaper and easier to provision – unlike lemons, limes grew in Britain's Caribbean colonies	첫째 까닭 — 서답형
◆	109쪽 ¶4 다섯째 문장	it was then mistakenly believed that scurvy was cured by acidity … rather than by vitamin C (whose level in lime is only around half that in lemon)	당시의 오해 — 사실로 바꾸면 오답
★	109쪽 ¶5	Within just over a decade … scurvy virtually disappeared … called 'limeys' by the Americans	결과 · 서답형

내용

그리고 영국 해군의 부상에는 라임이라는 작고 값싼 과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5세기 말에 시작된 유럽의 범선 원양 항해 초기에 선원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적함도 해적도, 심지어 폭풍도 아니었다. 그것은 괴혈병이었다. 무기력, 붓고 피가 나는 잇몸, 흔들리는 이, 심한 관절통을 일으키고 흔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병이다. 오늘날 우리는 괴혈병이 몸속 비타민 C 부족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지만, 그 원인은 20세기까지 수수께끼였다. 다른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인간은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해 입으로 섭취해야 한다. 원양 항해에 나선 선원들은 몇 달이고 썩은 소금 고기, 바구미가 들끓는 비스킷('hard tack'), 김빠진 맥주로 연명하다가 괴혈병에 걸려 파리처럼 죽어 나갔다(114쪽 각주 ii: 몸은 비타민 C를 적어도 한 달, 보통 석 달까지 저장할 수 있어서 항해가 대양을 건너기 전에는 괴혈병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괴혈병이 어찌나 흔했던지 선주와 정부들은 큰 장거리 항해에 나서는 선원의 사망률을 50%로 잡았다고 한다.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괴혈병이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넘는 선원을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치료법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고, 식초와 황산(vitriolic acid)을 비롯한 온갖 치료법이 시도되었다. 차츰 감귤류 과일의 즙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알려졌지만, 그 유효 성분이 비타민 C라는 것은 20세기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괴혈병 치료법 찾기는 비타민 C의 발견에서 매우 중요해서, 비타민 C의 학명 ascorbic acid는 말 그대로 '괴혈병을 막는 산'이라는 뜻이다. 경쟁국 해군들도 감귤류 즙의 효과를 알았지만, 이 해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영국 해군이 처음이었다. 1795년 해군성(Admiralty)은 레몬즙을 선원 배급의 의무 품목으로 정하고, 'grog'라 불리는 물 탄 럼 배급에 섞어 영리하게 반드시 마시게 했다. 레몬은 곧 라임으로 바뀌었다. 레몬과 달리 라임은 영국의 카리브 식민지에서 자라서 더 싸고 보급하기 쉬웠던 것이 일부 까닭이다. 그러나 라임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괴혈병을 낫게 하는 것이 비타민 C(라임에는 레몬의 절반 정도뿐)가 아니라 산도(라임이 레몬보다 높다)라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레몬즙에 이어 라임즙을 들인 지 10여 년 만에 영국 해군에서 괴혈병은 사실상 사라졌다. 라임 섭취가 영국 해군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자 미국인들은 영국 선원을 'limeys'라 불렀고, 이 이름은 마침내 미국에서 영국인 모두를 가리키게 되었다.

어법

- **the biggest killer of sailors was not enemy ships, not pirates, nor even storms. It was scurvy** : not A, not B, nor even C = A도 B도, 심지어 C도 아니다. 다음 문장 It was ~가 부정을 받아 답을 내놓는다(It = the biggest killer).
- **a horrible disease whose symptoms included lethargy, swollen and bleeding gums, loose teeth, severe joint pain and often death**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horrible disease, whose symptoms = 그 병의 증상). swollen · bleeding = gums를 꾸미는 분사.
- **Unlike most other animals, humans cannot synthesize vitamin C, so they need to take it orally** : Unlike = 전치사(~와 달리). so = 결과의 접속사. it = vitamin C.
- **Subsisting on a diet of rancid salted meat, weevil-infested biscuits ('hard tack') and stale beer for months on end, sailors on trans-oceanic voyages developed scurvy and died off like flies** : Subsisting ~ = 분사구문(주절 주어 sailors와 같다). subsist on = ~로 연명하다. for months on end = 몇 달이고 계속. weevil-infested = 명사 + 과거분사의 복합 형용사.
- **Scurvy was so prevalent that ship-owners and governments are said to have assumed a 50% death rate from it** : so + 형용사 + that ~ = 너무 ~해서 …하다. be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완료부정사 — 말하는 지금보다 앞선 일, 전언).
- **Slowly, the juice of citrus fruits came to be known as an effective cure, although until the twentieth century it was not understood that the active ingredient was vitamin C** : come to be p.p. = ~하게 되다(점차적 변화).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although = 양보.
- **the Admiralty made lemon juice a compulsory item on a sailor's ration and, cleverly, ensured its consumption by mixing it in the ration of watered-down rum, known as 'grog'** : make + O + 명사 보어(a compulsory item). made와 ensured가 병렬. its · it = lemon juice. known as ~ = rum을 꾸미는 과거분사구.
- **it was then mistakenly believed that scurvy was cured by acidity (in which lime is higher than lemon) rather than by vitamin C (whose level in lime is only around half that in lemon)** : 가주어 it + that절(당시의 잘못된 믿음). A rather than B. in which의 선행사 = acidity, whose의 선행사 = vitamin C. that = the level(되풀이를 피하는 대명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thargy	무기력	sluggishness	vigour
synthesize	합성하다	produce	—
orally	입으로	by mouth	—
subsist on	~로 연명하다	live on	—
rancid	(기름 · 고기가) 썩은 내 나는	rotten	fresh
stale	김빠진, 신선하지 않은	flat	fresh
prevalent	널리 퍼진	widespread	rare
frantic	필사적인	desperate	calm
remedy	치료법	cure	—
citrus	감귤류	—	—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methodically	haphazardly
compulsory	의무적인	mandatory	optional
acidity	산도, 신맛	sourness	alkalinity
prominent	두드러진	conspicuous	inconspicuous

내용 일치 라임 = 작고 값싼 과일 · 영국 해군의 부상에 결정적 역할 / 15세기 말 시작된 범선 원양 항해 초기 선원의 가장 큰 사망 원인 = 괴혈병(적함 · 해적 · 폭풍이 아님) · 증상: 무기력 · 붓고 피 나는 잇몸 · 흔들리는 이 · 심한 관절통 · 흔히 죽음 / 원인 = 비타민 C 부족 · 20세기까지 수수께끼 · 인간은 대부분의 다른 동물과 달리 합성 못 함 · 식단: 썩은 소금 고기 · 바구미 비스킷(hard tack) · 김빠진 맥주 · 선주 · 정부가 50% 사망률을 가정했다고 한다 · 콜럼버스부터 19세기 중반까지 200만 명 넘게(추정) · 각주 ii: 적어도 한 달, 보통 석 달 저장 / 식초 · 황산 시도 → 차츰 감귤류 즙 · 유효 성분은 20세기까지 모름 · ascorbic acid = 'anti-scurvy acid' / 경쟁 해군도 알았지만 영국 해군이 처음 체계적으로 · 1795 해군성 = 레몬즙 의무 · grog(물 탄 럼)에 섞음 → 곧 라임(더 싸고 보급 쉬움 — 카리브 식민지 · 산도가 치료한다는 당시의 오해 — 비타민 C는 레몬의 절반 정도) / 10여 년 만에 사실상 소멸 · 미국인이 'limeys'라 부름 → 미국에서 모든 영국인. **지칭** 109쪽 첫 줄 lime = 작고 값싼 과일 / 109쪽 ¶1 which(started) = 범선 원양 항해 · It(was scurvy) = 선원의 가장 큰 사망 원인 · whose = a horrible disease / 109쪽 ¶2 its cause = scurvy의 · they(need) = humans · it(take it orally) = vitamin C · it(death rate from it) = scurvy / 109쪽 ¶3 it(was not understood) = 가주어 · which(literally means) = ascorbic acid / 109쪽 ¶4 its rival navies = 영국 해군의 경쟁 해군 · its consumption · it(mixing it) = lemon juice · This(was partly because) = 레몬이 라임으로 바뀐 일 · whose = vitamin C / 109쪽 ¶5 a name = 'limeys'. 밑줄 의미: died off like flies = 아주 많이, 맥없이 죽어 나갔다 / the first to apply the solution systematically = 해법을 아는 것과 제도로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

> **한 줄 요약** 원양 항해의 선원을 가장 많이 죽인 괴혈병을, 영국 해군은 레몬과 라임 즙을 배급에 의무로 넣고 럼에 섞어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10여 년 만에 사실상 없앴다.

14-3 카이피리냐에서 에탄올로 — 브라질의 실험 109쪽 ¶6 ~ 110쪽 ¶3

원문 위치 원서 109쪽 ¶6 ~ 110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9쪽 ¶6 첫 문장	Another country for which lime is a symbol of national identity is Brazil	전치사 + 관계대명사 · 둘째 나라로 전환
★	109쪽 ¶6 둘째~셋째 문장(110쪽 첫 줄까지)	the country's national alcoholic drink, caipirinha … lime juice … sugar, and cachaça, Brazil's national liquor	재료 — 서답형
★	114쪽 각주 iii	Caipirinha can be made with vodka, in which case it is called caipiroska. Personally I prefer it	저자의 취향 — 일치 함정
◆	110쪽 ¶1 첫 문장	Cachaça is distilled from fermented sugar cane juice (so caipirinha is sugar, sugar and lime!)	저자의 농담 · 밑줄 의미 후보
▲	110쪽 ¶1 둘째 문장	If distilled to a high degree, sugar cane juice becomes ethanol, which can be used as a fuel for automobiles	접속사 + 과거분사(If (it is) distilled)
★	110쪽 ¶1 셋째 문장	As the largest producer of sugar cane in the world, Brazil had experimented …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자격의 as · 과거완료 — 순서 배열의 첫 고리
★	114쪽 각주 iv	Henry Ford's Model-T, the first mass-produced car, launched in 1908, also ran on a gasoline-ethanol mixture	숫자 — 일치 함정
★	110쪽 ¶1 넷째 문장	the Great Depression and then the Second World War … making a 5% mixture of ethanol into gasoline mandatory and subsidizing the ethanol industry	순서 배열 · make + O + 형용사
★	110쪽 ¶1 다섯째 문장	the use of ethanol declined with cheap oil, but after the first Oil Shock in 1973	순서 배열의 마지막 고리
★	110쪽 ¶2 첫 문장	Brazil's 1975 National Ethanol Program (Proálcool) subsidized both sugar producers' investments … and the price of ethanol at the pump	숫자 · both A and B — 일치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0쪽 ¶2 둘째~셋째 문장	car producers operating in Brazil (such as Fiat and Volkswagen) … By 1985, 96% of all new cars sold in Brazil had all-ethanol engines	회사 · 숫자 — 일치
▲	110쪽 ¶2 다섯째 문장	the launch of the 'flexi-fuel' cars … by Volkswagen in 2003, followed by other manufacturers, has secured ethanol's place	긴 주어 + 단수 동사 · 서답형
★	110쪽 ¶2 여섯째~일곱째 문장	ethanol supplies 15% of its annual energy production. No wonder … Jennifer Eaglin … 'More Brazilian than Cachaça'	숫자 · 인물
★	110쪽 ¶3 첫 문장 · 114쪽 각주 v	modern biofuels (such as biodiesel, made with plant oils like as rapeseed or soybean, or animal fat) … only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원서 표기 like as · 각주: 장작 · 동물 똥
★	110쪽 ¶3 둘째 문장	dozens of countries are now requiring the mixing of ethanol in gasoline and biodiesel in diesel oil	기후 위기로 넘어가는 다리

내용

라임이 국가 정체성의 상징인 또 다른 나라는 브라질이다. 라임은 브라질의 국민 술 카이피리냐의 핵심 재료다. 카이피리냐는 라임즙(패션프루트 같은 다른 과일의 즙도 쓴다), 설탕, 그리고 브라질의 국민 증류주 카샤사로 만든다(114쪽 각주 iii: 보드카로 만들면 카이피로스카라 하며, 저자는 카샤사가 좀 지나치게 달다고 느껴 이쪽을 더 좋아한다). 카샤사는 발효한 사탕수수 즙을 증류해 만든다(그러니 카이피리냐는 설탕, 설탕, 그리고 라임이다!). 사탕수수 즙을 높은 도수로 증류하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에탄올이 된다. 세계 최대의 사탕수수 생산국인 브라질은 20세기 초부터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쓰는 실험을 해 왔다(114쪽 각주 iv: 1908년에 나온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인 포드 Model-T도 휘발유 · 에탄올 혼합 연료로 달렸다). 그러다 대공황에 이어 2차 세계대전으로 국제 무역이 무너지고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자,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을 5% 섞는 것을 의무로 하고 에탄올 산업에 보조금을 주며 에탄올 연료 사용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뒤에는 값싼 석유 때문에 에탄올 사용이 줄었지만, 1973년 1차 석유 파동 뒤 브라질 정부는 석유를 에탄올로 대체하는 야심 찬 계획을 도입했다. 1975년의 국가 에탄올 계획(Proálcool)은 설탕 생산자의 에탄올 생산 설비 투자와 주유소의 에탄올 가격 모두에 보조금을 주었다. 1970년대 말에는 브라질에서 영업하던 자동차 회사들(Fiat · Volkswagen 등)이 에탄올만으로 달리는 엔진까지 개발했고, 1985년에는 브라질에서 팔린 새 차의 96%가 에탄올 전용 엔진을 달았다. 그 뒤로 유가, 사탕수수 생산, 정부 보조금 규모에 따라 계획에는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Volkswagen이 휘발유와 에탄올을 어떤 비율로 섞어도 달리는 'flexi-fuel' 차를 내놓고 다른 회사들이 뒤따르면서, 에탄올은 브라질의 주요 에너지원 자리를 굳혔다. 오늘날 에탄올은 브라질 연간 에너지 생산의 15%를 공급한다. 미국의 역사학자 Jennifer Eaglin이 브라질 에탄올 연료의 역사를 다룬 중요한 연구에 'More Brazilian than Cachaça(카샤사보다 더 브라질다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당연하다. 브라질 밖에서는 에탄올과 그 밖의 현대적 바이오 연료(유채씨 · 콩 같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으로 만드는 바이오디젤 등)가 에너지 체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최근 20년쯤의 일이다(114쪽 각주 v: '현대적'이라고 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장작이나 동물 똥도 바이오 연료이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은 수십 개 나라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고 휘발유에 에탄올을,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섞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법

- **Another country for which lime is a symbol of national identity is Brazil** : for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nother country, 그 나라에게 라임이 ~인). 주어 Another country ..., 동사 is.
- **If distilled to a high degree, sugar cane juice becomes ethanol, which can be used as a fuel for automobiles** : If (it is) distilled =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주어 · be동사 생략).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ethanol). be used as ~ = ~으로 쓰이다.
- **As the largest producer of sugar cane in the world, Brazil had experimented with the use of ethanol as a fuel for motor cars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 As = 자격(~으로서). had experimented = 과거완료(뒤에 나오는 대공황 · 2차 대전 무렵의 정부 정책보다 앞서 이어진 일). since + 시점.
- **following the collapse in international trade due to the Great Depression and then the Second World War, which made the importation of oil difficult, its government started seriously pushing for the use of ethanol fuel** : following = 전치사(~ 뒤에). make + O + 형용사(difficult). start + 동명사(pushing). its = Brazil의.
- **by making a 5% mixture of ethanol into gasoline mandatory and subsidizing the ethanol industry** : by + 동명사 둘(making · subsidizing) 병렬 = 수단. make + O + 형용사(mandatory) — 목적어 a 5% mixture of ethanol into gasoline이 길다.
- **car producers operating in Brazil (such as Fiat and Volkswagen) even developed engines that could exclusively be run on ethanol** : operating in Brazil = producers를 꾸미는 현재분사구. could be run = 조동사 + 수동. run on ~ = ~을 연료로 움직이다.
- **But the launch of the 'flexi-fuel' cars, which can run on any mixture of gasoline and ethanol, by Volkswagen in 2003, followed by other manufacturers, has secured ethanol's place** : 주어 the launch(단수) → has secured(현재완료 — 지금까지 이어지는 결과). which절과 followed by ~가 주어 사이에 끼어 있다.
- **No wonder the American historian Jennifer Eaglin titled her important study on the history of ethanol fuel in Brazil 'More Brazilian than Cachaça'** : (It is) No wonder (that) ~ = ~도 당연하다. title + O + 목적격보어(제목) = O에 ~라는 제목을 붙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national identity	국가 정체성	—	—
liquor	독주, 증류주	spirits	—
distil	증류하다	refine	—
ferment	발효시키다	brew	—
mandatory	의무적인	compulsory	optional
subsidize	보조금을 주다	fund	tax
substitution	대체	replacement	—
capacity	생산 능력	capability	—
exclusively	오로지	solely	partly
fluctuation	변동	variation	stability
secure (v.)	확보하다, 굳히다	ensure	lose
manufacturer	제조사	maker	—
biofuel	바이오 연료	—	fossil fuel

내용 일치 라임 = 브라질 국가 정체성의 상징 · 국민 술 카이피리냐의 핵심 재료(라임즙 — 패션프루트 등 다른 과일도 · 설탕 · 카샤사 = 국민 증류주) · 각주 iii: 보드카면 caipiroska · 저자는 이쪽을 더 좋아함(카샤사가 좀 지나치게 달아서) / 카샤사 = 발효한 사탕수수 즙을 증류 · 더 높게 증류하면 에탄올 = 자동차 연료 ·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국 · 20세기 초부터 실험(각주 iv: 1908 Model-T도 혼합 연료) · 대공황 · 2차 대전으로 국제 무역 붕괴 · 석유 수입 어려움 → 5% 혼합 의무 · 보조금 · 2차 대전 뒤 값싼 석유로 쇠퇴 · 1973 1차 석유 파동 뒤 야심 찬 계획 / 1975 Proálcool = 생산 설비 투자와 주유소 가격 모두 보조 · 1970년대 말 Fiat · Volkswagen 등 에탄올 전용 엔진 · 1985 새 차의 96% · 유가 · 사탕수수 생산 · 보조금에 따라 부침 · 2003 Volkswagen의 flexi-fuel(다른 회사가 뒤따름) · 오늘날 연간 에너지 생산의 15% · Jennifer Eaglin(미국 역사학자) 'More Brazilian than Cachaça' / 브라질 밖 = 최근 20년쯤 · 바이오디젤(식물성 기름 · 동물성 지방) · 수십 나라가 혼합 요구. **지칭** 109쪽 ¶6 the country's = Brazil의 · It's(made from) = caipirinha / 114쪽 각주 iii it(is called · I prefer it) = 보드카로 만든 카이피리냐 / 110쪽 ¶1 which(can be used) = ethanol · which(made the importation of oil difficult) = 국제 무역의 붕괴 · its government = Brazil의 / 110쪽 ¶2 that(could be run) = engines · which(can run) = 'flexi-fuel' cars · its annual energy production = Brazil의 · her study = Jennifer Eaglin의 / 110쪽 ¶3 in an attempt to ~ = 수십 나라가 혼합을 요구하는 목적. 밑줄 의미: sugar, sugar and lime! = 카샤사도 설탕도 결국 사탕수수에서 나온다는 농담 / More Brazilian than Cachaça = 에탄올 연료가 브라질의 국민 술만큼, 아니 그보다 더 브라질다운 것이 되었다.

> **한 줄 요약** 라임이 들어가는 카이피리냐의 나라 브라질은 사탕수수 에탄올을 정부가 꾸준히 밀어 주요 에너지원으로 키웠고, 이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나라가 바이오 연료를 요구한다.

14-4 기후 위기 — 먼저 새 기술이 필요하다 110쪽 ¶4 ~ 111쪽 ¶2

원문 위치 원서 110쪽 ¶4 ~ 111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0쪽 ¶4 첫 문장	melting polar ice and rising sea levels, increases in the strength and frequency of extreme weather events (heatwaves, cyclones, flooding, wildfire), and mass extinction of species	이미 벌어지는 일 — 일치
★	110쪽 ¶4 둘째 문장	There is a scientific consensus that, if the rise in global temperature is not controlled very soon … humanity will face an existential threat	동격 that · 조건절 — 삽입 문항의 앞 고리
◆	110쪽 ¶4 둘째 문장	greenhouse gases (such as CO_2, methane, nitrous oxides, etc.)	온실가스의 예
★	110쪽 ¶5	First, we need new technologies. And lots of them.	문장 삽입 1순위 · 첫째 처방
★	110쪽 ¶6 첫 문장(111쪽 첫 줄까지)	biofuels, solar power, wind energy, wave power, hydroelectricity, hydrogen fuel and even nuclear power as a stop-gap measure in some circumstances	대체 에너지 목록 · even과 조건의 단서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1쪽 첫 줄(110쪽 ¶6 둘째 문장) · 114쪽 각주 vi	Capturing emitted carbon and either using or burying it could also play a (minor) role	동명사 주어 · CCUS · (minor)의 단서
▲	111쪽 첫 줄(110쪽 ¶6 셋째 문장)	more effective ways of storing electricity, so that we can use the intermittent electricity … on a more constant basis	so that + can · 어휘(intermittent ↔ constant)
▲	111쪽 ¶1 첫 문장	It is not just new energy technologies that we need	It is ~ that 강조
★	111쪽 ¶1 둘째 문장	Fossil fuels are used not just as energy sources but in the making of key materials … – steel, fertilizer, cement and plastic	빈칸 1순위 · not just A but B
★	111쪽 ¶1 셋째 문장	technologies that use as little fossil fuel as possible …, methods for their more efficient recycling and alternative materials whose production requires less (ideally zero) fossil fuel	세 가지 처방 병렬 · whose
★	111쪽 ¶2 첫 문장	'adaptation technologies' that help us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개념어 — 적응 기술
●	111쪽 ¶2 둘째 문장	better techniques for irrigation, water recycling and desalination, while developing crops that are more resistant to extreme weather events	일치 · 어휘(resistant ↔ vulnerable)
★	111쪽 ¶2 셋째 문장	Improvements in weather forecasting and flood control can help us better cope with storms and cyclones	help + O + 원형

내용

세계는 이미 극지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오르며, 극단적인 기상 현상(폭염 · 사이클론 · 홍수 · 산불)이 더 강하고 잦아지고, 생물 종이 대량으로 멸종하는 일을 겪고 있다. 온실가스(CO_2 · 메탄 · 아산화질소 등) 배출을 급격히 줄여 지구 기온 상승을 아주 빨리 억제하지 못하면 인류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존립의 위협에 맞닥뜨리리라는 데 과학적 합의가 있다. 첫째, 우리에게는 새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도 많이. 무엇보다 온실가스(GHGs)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 낼 대체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 바이오 연료, 태양광, 풍력, 파력, 수력, 수소 연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원자력까지.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쓰거나 묻는 것도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114쪽 각주 vi: 이를 CCUS, 곧 탄소 포집 · 활용 · 저장이라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간헐적인 전기를 더 꾸준히 쓸 수 있도록 전기를 저장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새 에너지 기술만이 아니다. 화석 연료는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강철 · 비료 · 시멘트 · 플라스틱처럼 현대 산업 생활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데에도 쓰인다. 그러므로 이 소재들을 만들 때 화석 연료를 되도록 적게 쓰는 기술, 이 소재들을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생산에 드는 화석 연료가 더 적은(이상적으로는 0인) 대체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또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처하도록 돕는 '적응 기술'도 필요하다.

가뭄이 더 잦고 심해지는 만큼 관개 · 물 재활용 · 담수화 기술을 개선하고, 극단적 기상 현상에 더 잘 견디는 작물을 개발해야 한다. 일기 예보와 홍수 관리가 나아지면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나는 폭풍과 사이클론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어법

- **The world is already experiencing melting polar ice and rising sea levels, increases in the strength and frequency of extreme weather events ..., and mass extinction of species** : 현재진행(이미 벌어지는 중). experiencing의 목적어 셋(ice and sea levels · increases · extinction) 병렬. melting · rising = 명사를 꾸미는 현재분사.
- **There is a scientific consensus that, if the rise in global temperature is not controlled very soon by radically reducing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 humanity will face an existential threat** : that = 동격 접속사(consensus의 내용). 조건절은 현재 시제(is not controlled), 주절은 will face. by + 동명사 = 수단.
- **First, we need new technologies. And lots of them.** : 둘째 문장은 동사가 없는 조각문(= And we need lots of them). them = new technologies. 짧게 끊어 강조한다.
- **alternative energy technologies that will enable us to generate energy without emitting greenhouse gases (GHGs)**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echnologies). enable + O + to V. without + 동명사.
- **Capturing emitted carbon and either using or burying it could also play a (minor) role** : 동명사구 주어(Capturing ... and either using or burying it). either A or B. it = emitted carbon. emitted = 과거분사(배출된).
- **We need more effective ways of storing electricity, so that we can use the intermittent electricity generated by solar or wind power on a more constant basis** : so that + S + can = ~할 수 있도록(목적). generated by ~ = electricity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on a ~ basis = ~하게(방식).
- **It is not just new energy technologies that we need** : It is ~ that 강조 구문(need의 목적어 new energy technologies를 강조). not just = ~만이 아니다 — 다음 문장의 not just A but B로 이어진다.
- **alternative materials whose production requires less (ideally zero) fossil fuel**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선행사 materials, whose production = 그 소재의 생산). 주어 production(단수) → require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xtinction	멸종	dying out	survival
consensus	합의, 일치된 의견	agreement	disagreement
emission	배출	discharge	absorption
existential threat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	—	—
alternative (a.)	대체의, 대안이 되는	substitute	conventional
stop-gap	임시방편의	temporary	permanent
intermittent	간헐적인, 끊겼다 이어지는	sporadic	constant
fertilizer	비료	—	—
recycling	재활용	reuse	—
adaptation	적응	adjustment	—
drought	가뭄	dry spell	flood
irrigation	관개, 물 대기	watering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salination	(바닷물의) 담수화	—	—
resistant	~에 잘 견디는	tolerant	vulnerable

내용 일치 이미 겪는 일 = 극지 얼음이 녹음 · 해수면 상승 · 극단적 기상(폭염 · 사이클론 · 홍수 · 산불)의 세기 · 빈도 증가 · 대멸종 / 과학적 합의 = 온실가스(CO_2 · 메탄 · 아산화질소 등)를 급격히 줄여 기온 상승을 아주 빨리 억제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존립의 위협 / 첫째, 새 기술(그것도 많이) · 무엇보다 대체 에너지(바이오 연료 · 태양광 · 풍력 · 파력 · 수력 · 수소 연료 · 어떤 상황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원자력까지) · 탄소 포집 후 활용 · 매립 = (작은) 역할(각주 vi: CCUS) · 간헐적인 태양광 · 풍력 전기를 위한 저장 기술 / 새 에너지 기술만이 아님 · 화석 연료 = 강철 · 비료 · 시멘트 · 플라스틱 생산에도 → 화석 연료를 덜 쓰는 제조 기술 · 더 효율적 재활용 · 대체 소재 / 적응 기술 = 관개 · 물 재활용 · 담수화 · 극단적 기상에 강한 작물 · 일기 예보 · 홍수 관리. **지칭** 110쪽 ¶5 them(lots of them) = new technologies / 111쪽 첫 줄 it(using or burying it) = emitted carbon · that(will enable us) = alternative energy technologies / 111쪽 ¶1 these materials = 강철 · 비료 · 시멘트 · 플라스틱 · their(more efficient recycling) = 그 소재들의 · whose = alternative materials / 111쪽 ¶2 that(help us deal) = 'adaptation technologies' · that(are more resistant) = crops · that(are happening) = storms and cyclones. 밑줄 의미: And lots of them = 기술 몇 가지가 아니라 아주 많은 기술이 한꺼번에 필요하다 / as a stop-gap measure = 원자력은 영구 해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의 임시방편.

> **한 줄 요약** 기후 위기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첫째로 대체 에너지 · 소재 · 적응 기술 등 새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14-5 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근시안 111쪽 ¶3 ~ 112쪽 ¶3

원문 위치 원서 111쪽 ¶3 ~ 112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1쪽 ¶3	Better technologies are necessary but not enough. … mainly people in the rich countries and riche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전환 · 대상 한정
★	111쪽 ¶4 첫 문장	Even with the use of alternative energies, like biofuels, electric batteries and (hopefully) hydrogen fuel cells, we need to drive less	양보 Even with · (hopefully)의 단서
▲	111쪽 ¶4 둘째 문장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especially in countries, like the US, where a lot of long-distance driving is inevitable	관용 표현 · 관계부사 where — 어법 문항
★	111쪽 ¶4 셋째 문장	a major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 and, in the longer run, a radical reorganization of living spaces through changes in urban planning regulations	처방 두 가지 — 어법 문항의 바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1쪽 ¶5 둘째 문장	More efficient house insulation (e.g., filling of wall cavities, installation of double-or triple-glazed windows) and the use of heat pumps	단열의 예 — 일치
▲	111쪽 ¶5 넷째 문장	office blocks should be better insulated, and we should leave only a limited amount of lighting on	조동사 수동 · leave + O + on
◆	111쪽 ¶6 첫 문장	Third, changing our eating habits can have a big impact	원서에 Second는 없고 Then(111쪽 ¶5)이 둘째 자리
★	111쪽 ¶6 둘째 문장	Agriculture accounts for a substantial amoun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he estimate varies between 15% and 35%)	숫자 — 일치
★	111쪽 ¶6 넷째 문장(112쪽 첫 줄까지)	Beef … according to a recent estimate, it accounts for 25% of all GHG emissions from agriculture (also see 'Prawn' and 'Beef')	숫자 · 앞 장 연결
★	112쪽 첫 줄(111쪽 ¶6 다섯째~여섯째 문장)	eat more seasonally … greenhouses, even if they are 'local' … reduce their expectations for 'on-demand' food	무관한 문장 문항의 바탕
★	112쪽 ¶1	will not amount to much without concerted, large-scale public action … Market incentives and individual choices are not enough	주장 1순위 · 장의 전환점
▲	112쪽 ¶2 둘째 문장	If left to the market, many of the technologies … will simply not be developed	접속사 + 과거분사 · 어휘 문항
◆	112쪽 ¶2 셋째 문장	This is not because private sector firms are 'evil' but because they are under constant pressure to deliver short-term results … (see 'Spices')	not because A but because B
●	112쪽 ¶2 넷째~다섯째 문장	in a matter of decades, if not longer … time horizons of years, if not quarters, and thus are understandably reluctant	if not · 어휘(reluctant ↔ eager)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2쪽 ¶3 첫 문장	The myopia of the private sector is why large-scale investments … have historically required strong government action	요약문 (A) · 어휘(myopia ↔ foresight)
★	112쪽 ¶3 둘째~셋째 문장	almost exclusively funded by the US government (… 'defence' and 'health' research programmes, respectively – see 'Noodle') … only thanks to government intervention	통합 사고 빈칸 · respectively

내용

더 나은 기술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사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주로 부자 나라 사람들과 개발도상국의 더 부유한 사람들 말이다. 바이오 연료, 전기 배터리, (바라건대) 수소 연료 전지 같은 대체 에너지를 쓰더라도 개인 차량은 덜 타야 한다. 이는 말이 쉽지 실행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처럼 생활 공간이 넓게 퍼져 있고 대중교통이 부실해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한 나라에서 그렇다. 그런 나라에서 개인 차량 사용을 줄이려면 대중교통에 큰 투자를 하고, 더 길게는 도시 계획 규제를 바꿔 생활 공간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룬다). 다음으로, 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더 효율적인 단열(벽 속 빈 곳을 메우고 이중 · 삼중 유리창을 다는 등)과 열펌프를 쓰면 난방에 드는 에너지 수요가 크게 줄 것이다. 집에서 더 부지런히 불을 끄는 법을 익히면 전기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일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여서, 사무실 건물은 단열을 더 잘하고 근무 시간 외에는 조명을 일부만 켜 두어야 한다. 셋째, 식습관을 바꾸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추정치는 15%에서 35% 사이를 오간다). 고기를 덜 먹으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쇠고기로, 최근의 한 추정에 따르면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한다(「Prawn」 · 「Beef」 참조). 제철 음식을 더 먹으려고도 해야 한다. '현지' 것이라도 온실에서 기르거나, 제철이 아닌 식품을 멀리서 배로 (심지어 비행기로) 실어 오면 탄소 발자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저자는 음식의 다양성을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 나라 사람들이 '주문형' 음식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적 가능성과 생활 방식의 변화도 지방 · 중앙 정부, 국제기구, 함께 일하는 나라들의 협력된 대규모 공공 행동이 없으면 별것 아니게 된다. 시장의 유인과 개인의 선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 면에서는 정부가 '녹색' 기술을 장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장에 맡겨 두면 기후 변화와 싸우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가운데 상당수가 아예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민간 기업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기 성과를 내라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향은 금융 규제 완화 아래에서 더 심해졌다(「Spices」 참조).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면 수익은 수십 년, 어쩌면 그보다 더 걸려야 돌아온다. 그런데 민간 기업은 몇 년, 어쩌면 분기 단위의 시야로 움직이므로 그런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런 민간 부문의 근시안 때문에 새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그 보급에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정부 행동이 필요했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 기술과 생명공학이다. 이 기술들은 매우 위험하고 수익을 내기까지 아주, 아주 오래 걸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각각 연방 '국방' 연구 프로그램과 '보건'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댔다(「Noodle」 참조). 유럽의 여러 나라, 중국, 브라질, 그리고 미국에서도 태양광 · 풍력 같은 저탄소 에너지 기술은 오로지 정부 개입 덕분에 상당한 규모로 개발 · 보급되었다.

어법

-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especially in countries, like the US, where a lot of long-distance driving is inevitable because living spaces are spread out and public transport is poor** : easier said than done = 말이 쉽지 실행은 어렵다.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countries, 뒤가 완전한 절). because절 안에서 두 절(are spread out · is poor) 병렬.

- **reduction in the use of personal vehicles will require a major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 and, in the longer run, a radical reorganization of living spaces** : require의 목적어 둘(investment · reorganization) 병렬 — 사이에 in the longer run(장기적으로)이 끼어 있다. 동사 자리는 will require 하나.
- **More efficient house insulation (…) and the use of heat pumps will reduce energy demand for house heating enormously** : 주어 둘(insulation and the use)이 and로 이어진다. enormously = reduce를 꾸미는 부사(enormous는 오답).
- **office blocks should be better insulated, and we should leave only a limited amount of lighting on in office blocks outside working hours** : should be p.p. = 조동사 + 수동. leave + O + on(부사) = O를 켜 둔 채로 두다.
- **trying to grow things in greenhouses, even if they are 'local', or shipping (or even flying) non-seasonal food items from far away can create huge carbon footprints** : 동명사구 주어 둘(trying ~ or shipping ~) → can create. even if = 양보(비록 ~라도). they = things.
- **If left to the market, many of the technologies that we need in order to combat and cope with climate change will simply not be developed** : If (they are) left =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 in order to V = 목적. combat과 cope with가 climate change를 함께 받는다. will not be p.p. = 미래 수동.
- **This is not because private sector firms are 'evil' but because they are under constant pressure to deliver short-term results – a tendency that has become even worse under financial deregulation** : not because A but because B =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대시 뒤 a tendency = 앞 절 내용의 동격. even + 비교급(worse) = 훨씬 더.
- **In developing and deploying 'green' technologies, we reap the returns in a matter of decades, if not longer** : In + 동명사 = ~할 때, ~함에 있어. if not ~ = 어쩌면 ~일지도(더 센 쪽을 덧붙임). 바로 뒤 years, if not quarters도 같은 짜임(몇 년, 어쩌면 분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avoidable
radical	근본적인, 급진적인	fundamental	minor
insulation	단열	—	—
diligently	부지런히	conscientiously	carelessly
substantial	상당한	considerable	negligible
footprint	발자국, (남기는) 흔적	trace	—
concerted	협력한, 일치된	coordinated	uncoordinated
incentive	유인, 동기	motivation	disincentive
combat (v.)	~와 싸우다	fight	—
deregulation	규제 완화	liberalization	regulation
deploy	배치하다, 보급하다	roll out	withdraw
reap	거두다	harvest	sow
reluctant	꺼리는	unwilling	eager
myopia	근시안	short-sightedness	foresight

내용 일치 더 나은 기술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음 · 생활 방식의 변화(주로 부자 나라 사람들과 개발도상국의 더 부유한 사람들) / 대체 에너지(바이오 연료 · 전기 배터리 · (바라건대) 수소 연료 전지)를 써도 차를 덜 타야 · 미국처럼 퍼진 생활 공간

· 부실한 대중교통 →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 · 대중교통 투자 · 장기적으로 도시 계획 규제를 통한 생활 공간 재편 /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벽 속 빈 곳 메우기 · 이중 · 삼중 유리창 · 열펌프 · 불 끄기 · 사무실 단열 · 근무 외 시간 조명 제한) / 셋째, 식습관 · 농업 = 온실가스의 15~35%(추정) · 고기를 덜 · 쇠고기 = 농업 배출의 25%(최근 추정) · 제철 음식 · 다양성을 아예 포기하자는 것은 아님 / 협력된 대규모 공공 행동 없이는 별것 아님 · 시장 유인과 개인 선택으로는 부족 · 시장에 맡기면 많은 기술이 개발되지 않음 · 기업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기 성과 압박(금융 규제 완화로 더 심해짐) · 녹색 기술 수익은 수십 년 · 기업은 몇 년, 어쩌면 분기 / 근시안 → 정보 기술 · 생명공학은 처음에 거의 전적으로 미국 정부 자금('국방' · '보건' 연구) · 태양광 · 풍력은 정부 개입 덕분(유럽 여러 나라 · 중국 · 브라질 · 미국). **지칭** 111쪽 ¶4 This(is easier said than done) = 개인 차량을 덜 타는 것 · such countries =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한 미국 같은 나라 / 111쪽 ¶5 The same(should be done)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일 / 112쪽 첫 줄 they(are 'local') = 온실에서 기르는 것들 · those(who live in rich countries) = 부자 나라 사람들 / 112쪽 ¶1 All these = 앞의 기술적 가능성과 생활 방식의 변화 / 112쪽 ¶2 This(is not because) = 많은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것 · they(are under constant pressure · are reluctant) = private sector firms / 112쪽 ¶3 which(were initially funded) = 정보 기술과 생명공학 · these technologies = 같은 두 기술. 밑줄 의미: easier said than done = 생활 구조 때문에 개인의 다짐만으로는 어렵다 / time horizons of years, if not quarters = 기업은 짧은 기간 안의 성과만 본다.

> **한 줄 요약**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차 · 에너지 · 음식에서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이것도 대규모 공공 행동 없이는 별것 아니며, 단기 성과에 묶인 민간 대신 정부가 녹색 기술을 키워야 한다.

14-6 기후 정의, 개인의 선택, 그리고 라임의 교훈 112쪽 ¶4 ~ 113쪽 ¶5

원문 위치 원서 112쪽 ¶4 ~ 113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2쪽 ¶4 첫 문장	technologies that help poorer countries advance their economies with minimal GHG emission while dealing with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help + O + 원형 · 가난한 나라로 전환
◆	112쪽 ¶4 둘째 문장	The market is a one-dollar-one-vote, rather than one-person-one-vote system (also see 'Garlic' and 'Chilli')	밑줄 의미 1순위 · 서론과 13장 연결
★	112쪽 ¶4 셋째 문장	relatively little investment in technologies that poorer countries need the most –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 or 'climate adaptation technologies'	일치
▲	112쪽 ¶4 넷째 문장	their transfers t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they have been developed by researchers and firms in rich countries) at subsidized prices, or even for free	if 생략 도치 should they
★	112쪽 ¶4 다섯째 문장(113쪽 첫 줄까지)	'climate justice', given that developing countries have contributed little … but are suffering disproportionately	개념어 · given that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3쪽 ¶1	Individuals can truly change the way they live only when their pro-environmental choices are enabled by government policies	요지 1순위 · only when
▲	113쪽 ¶2 첫 문장	this is because changes in individual behaviour requires upfront investments	원서 표기 — 주어 changes(복수)인데 requires
★	113쪽 ¶2 둘째~셋째 문장	the investments more than pay for themselves in the long run. Government subsidies and loans are needed if these investments are to be made	재귀대명사 · be to V(의도)
▲	113쪽 ¶3 첫 문장	leaving it to individuals to make the 'right' choice in the market … is not only unfair but ineffective	동명사 주어 + 가목적어 it
◆	113쪽 ¶3 셋째~넷째 문장	we could require that those who are selling food fully disclose the carbon footprint … this is as good as doing nothing	require that + 원형 · 밑줄 의미 후보
★	113쪽 ¶3 다섯째 문장	consumers do not have the time and the mental capacity to process all the information	까닭 — 일치
◆	113쪽 ¶3 일곱째 문장	there will be a 'race to the bottom', in which suppliers that pollute more drive out their competitors by offering cheaper products	밑줄 의미 1순위
◆	113쪽 ¶4 첫 문장	Lime may have been an effective antidote to scurvy, but it required executive action by one of the most powerful institutions in the world at the time	첫머리 되받기 · 양보의 may
★	113쪽 ¶4 둘째 문장	did not leave it up to the individual sailor to pack his own citrus … but mandated its inclusion in the ration and adapted the sailors' favourite tipple (rum)	not A but B · 비유의 핵심
★	113쪽 ¶5 첫~셋째 문장	So it is with climate change. … We have to use all the mechanisms of collective action at our disposal	주장 1순위 · So it is with ~(~도 마찬가지)
★	113쪽 ¶5 넷째 문장	The most effective social changes occur when individual change is combined with determined, large-scale public actions	결론 — 개인 + 공공

내용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처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로 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공공 행동이 필요하다. 시장은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 체제이므로(「Garlic」·「Chilli」 참조), 내버려 두면 투자는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기술로 흘러간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에 가장 필요한 기술 — 농업·공업 생산을 위한 효율적 에너지 기술이나 '기후 적응 기술' — 에는 투자가 비교적 적을 것이다. 그런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부자 나라의 연구자와 기업이 개발했다면) 개발도상국에 보조금이 붙은 값으로, 아니면 무료로라도 이전하도록 공공 행동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그 결과로 지나치게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몇몇은 해수면 상승으로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으므로, 이런 행동은 '기후 정의'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단계다. 개인은 정부 정책이 친환경적 선택을 가능하게 해 줄 때에야 비로소 사는 방식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 때로는 개인의 행동을 바꾸려면 많은 사람의 형편을 넘어서는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단열·이중 유리·열펌프로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큰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길게 보면 그 투자가 들인 돈 이상을 돌려주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이 필요하다. 때로는 기후 변화 같은 체계 전반의 문제에 대처하는 '옳은' 선택을 시장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불공정할 뿐 아니라 효과도 없어서 공공 행동이 필요하다. '더 친환경적으로 먹기'가 가장 좋은 예다. 이론적으로는 식품 판매자에게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빠짐없이 공개하게 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장을 봐서' 오염을 일으키는 생산자를 몰아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탄소 발자국 정보가 다 공개되더라도 그 정보를 모두 처리할 시간과 정신적 여력이 없다.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쁠 수도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환경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오염을 더 많이 일으키는 공급자가 더 싼 제품으로 경쟁자를 몰아내는 '바닥을 향한 경주'가 벌어질 것이다. 라임은 괴혈병의 효과적인 치료제였을지 모르지만, 라임을 효과적으로 써서 선원의 목숨을 대규모로 구하려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가운데 하나인 영국 해군의 집행이 필요했다. 영국 해군은 항해에 나서기 전에 감귤을 챙기는 일을 선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배급에 반드시 넣게 했으며 선원들이 즐겨 마시는 술(럼)까지 바꿔 비타민 C가 모두에게 닿게 했다.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해법을 알지만, 영국 해군과 라임처럼 그 실행을 시장의 개인 선택에 맡길 수 없다. 지방·중앙 정부, 국제 협력, 세계적 합의 등 쓸 수 있는 모든 집단 행동의 수단으로 식품 규제, 대중교통 투자, 단열 보조금, '녹색' 기술 이전 같은 해법이 실행되게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사회 변화는 개인의 변화가 단호한 대규모 공공 행동과 결합할 때 일어난다.

어법

- **The market is a one-dollar-one-vote, rather than one-person-one-vote system** :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하이픈으로 이은 복합 형용사 둘이 system을 함께 꾸민다(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인 체제).
- **their transfers t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they have been developed by researchers and firms in rich countries) at subsidized prices, or even for free** : should they have been p.p. = if they should have been developed에서 if를 생략하고 도치(만약 ~이 개발했다면). they = such technologies. at subsidized prices = 보조금이 붙은 값으로.
- **given that developing countries have contributed little to climate change but are suffering disproportionately from its consequences, with some of them already literally disappearing under rising sea levels** : given that ~ = ~을 고려하면. have contributed(현재완료)와 are suffering(현재진행) 병렬. with + O + -ing = 부대상황(~이 …하는 채로).
- **Individuals can truly change the way they live only when their pro-environmental choices are enabled by government policies** : only when ~ = ~할 때에야 비로소. the way (that) they live. are enabled = 현재 수동.
- **Government subsidies and loans are needed if these investments are to be made** : if절의 be to V = 의도·목적(~하려면). be to be made = be to + 수동부정사.

- **leaving it to individuals to make the 'right' choice in the market to deal with a systemic problem, like climate change, is not only unfair but ineffective** : 동명사구 주어(leaving …) → 단수 동사 is. leave it to + 사람 + to V = ~에게 …하는 일을 맡기다(it = 가목적어, to make ~ = 진목적어). not only A but (also) B.
- **In theory, we could require that those who are selling food fully disclose the carbon footprint of their products and let consumers 'shop in the right way' and drive out polluting producers** : require that + S + (should) 원형(disclose). let + O + 원형(shop · drive out). could = 가능성(이론상 ~할 수 있다).
- **So it is with climate change** : So it is with ~ = ~도 마찬가지다. so가 앞의 라임 이야기를 받아 문장 앞에 나왔지만 어순은 주어(it) + 동사(is) 그대로다(도치 아님). 도치된 So is A(A도 그렇다)와 구별한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nimal	최소한의	least	maximal
transfer (n.)	이전	handover	—
disproportionately	불균형하게, 지나치게 많이	unduly	proportionately
upfront	초기의, 선불의	initial	deferred
systemic	체계 전반의	structural	isolated
disclose	공개하다	reveal	conceal
antidote	해독제, 치료제	remedy	poison
executive (a.)	집행의, 실행의	administrative	—
mandate (v.)	의무화하다	require	prohibit
tipple	즐겨 마시는 술	drink	—
implementation	실행	execution	—
determined	단호한	resolute	half-hearted

내용 일치 가난한 나라가 온실가스를 최소로 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도록 돕는 기술에도 공공 행동 필요 / 시장 =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Garlic」 · 「Chilli」) → 돈 많은 쪽 기술로 투자 · 가난한 나라에 가장 필요한 기술(농업 · 공업용 효율적 에너지 기술 · 기후 적응 기술)에는 투자가 적음 · 개발 지원 · 보조금 값이나 무료로 이전 · '기후 정의' = 개발도상국은 기여는 적고 피해는 지나치게 큼(몇몇은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는 중) / 정책이 친환경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개인이 바꿈 · 단열 · 이중 유리 · 열펌프 = 큰 초기 투자(길게 보면 들인 돈 이상을 돌려줌) → 보조금 · 대출 / 체계적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면 불공정 + 비효과적 · '더 친환경적으로 먹기' · 탄소 발자국 공개는 이론일 뿐 현실에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음(시간 · 정신적 여력 부족) · 더 나쁠 수도 · 최소 환경 기준이 없으면 '바닥을 향한 경주' / 라임도 영국 해군의 집행(배급에 의무화 · 럼을 바꿈) / 기후 변화도 모든 집단 행동 수단으로 · 개인의 변화 + 단호한 대규모 공공 행동. **밑줄 의미** a one-dollar-one-vote, rather than one-person-one-vote system = 시장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투자 방향에 대한 발언권이 크다 / as good as doing nothing = 정보 공개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 a 'race to the bottom' = 더 많이 오염시키는 업체가 값싼 제품으로 이기는 경쟁 / So it is with climate change = 라임처럼 해법을 아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칭: 112쪽 ¶4 they(should they have been developed) = such technologies · its consequences = climate change의 · some of them = developing countries / 113쪽 ¶2 themselves = the investments / 113쪽 ¶3 they(are fully disclosed) = carbon footprints · in which = 'race to the bottom' / 113쪽 ¶4 it(required · to use it) = lime · his own citrus = 선원 개인의 / 113쪽 ¶5 their implementation · those solutions = 기후 변화의 해법.

> **한 줄 요약** 1달러 1표의 시장과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가난한 나라의 기술도, 친환경 생활도 이룰 수 없으므로, 영국 해군이 라임을 의무화했듯 기후 위기도 대규모 집단 행동으로 풀어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4 LIME]

범위	Lime (원서 PDF 108~114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ime may have worked well against scurvy, but saving sailors' lives on a large scale took firm action by the Royal Navy. The navy did not expect each sailor to bring his own citrus on board; it made lime part of the official ration and mixed it into the sailors' beloved rum so that everyone got vitamin C. Climate change is no different. We know the solutions, yet carrying them out cannot be left to whatever individuals happen to choose in the market. The most effective social change comes when individual change goes hand in hand with determined, large-scale public action.

① Climate action should be left to individuals.
② Climate solutions need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③ Sailors should pack their own fruit.
④ New technology alone will solve climate change.
⑤ Changing our diets is the key to climate action.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Rival navies also knew that citrus juice worked against scurvy, but it was the Royal Navy that first put this knowledge to systematic use. In 1795, the Admiralty added lemon juice to every sailor's compulsory ration and, cleverly, made sure it was drunk by mixing it into 'grog', the sailors' watered-down rum. Lime soon replaced lemon, partly because limes, grown in Britain's Caribbean colonies, were cheaper and easier to supply, and partly because people then wrongly believed that acidity, not vitamin C, cured scurvy. Within little more than ten years, scurvy had all but vanished from the Royal Navy.

① Why Lemons Beat Limes at Sea
② How the Royal Navy Turned Citrus into a System Against Scurvy
③ The Discovery of Vitamin C by British Scientists
④ Rum: The Hidden Cause of Scurvy
⑤ Why Rival Navies Ignored Citrus Juic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eople can genuinely change their way of life only if government policy makes their green choices possible. Sometimes the problem is money: changing how we behave often demands a large investment at the start, one that many people cannot manage. Insulating walls properly, fitting double-glazed windows or installing heat pumps all cost a great deal, and some households cannot pay that first bill, even though such improvements more than repay their cost over the years. For these investments to happen, governments must provide subsidies and loans.

① Green home improvements never pay off.
② Lifestyle change needs the support of government policy.
③ Heat pumps are the best way to save energy.
④ Households should decide on energy saving alone.
⑤ Subsidies for home insulation are unfair.

4. 밑줄 친 a one-dollar-one-vote, rather than one-person-one-vote system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Public action is also needed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let poorer countries grow with little greenhouse gas while coping with a changing climate. Markets work as a one-dollar-one-vote, rather than one-person-one-vote system, so if left alone, investment flows to technologies serving the better-off, and little goes into what poorer countries need most, such as efficient energy for farms and factories. Public action should help pass such technologies on to them cheaply or even for free, as a matter of 'climate justice', since these countries did little to cause climate change yet suffer most from it.

① the richer have more say over investment
② everyone has an equal say in the market
③ voters decide which technologies get funded
④ poor countries invest more than rich ones
⑤ elections set market prices

5. 밑줄 친 a 'race to the bottom'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times public action is needed because asking individuals alone to make the 'right' market choices about a systemic problem such as climate change is both unfair and ineffective. Greener eating shows this best. In theory, food sellers could be made to reveal the full carbon footprint of what they sell, and consumers could then buy wisely and push polluters out of business. In practice, this amounts to doing nothing, since shoppers lack the time and mental energy to process so much information. It might even be worse than nothing. Without minimum environmental standards set by government, the market will descend into a 'race to the bottom', as dirtier suppliers beat cleaner rivals by selling cheaper goods.

① competition in which the more polluting firms win by selling more cheaply
② a contest among consumers to find the healthiest food
③ a fall in food prices that benefits the environment
④ a government plan to lower environmental standards gradually
⑤ a movement of food production to poorer countrie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With such a mighty navy, Britain, as an island nation, was virtually impossible to invade. Because ① it had little to fear from foreign attack, the country could keep a relatively small, and therefore cheap, army and use ② it almost entirely for keeping order at home, crushing the fairly frequent revolts against a notoriously unequal social and economic system. Above all, the powerful navy enabled ③ it to enlarge ④ its empire by conquering distant lands, fighting off rival powers that tried to take those lands, and protecting ⑤ its merchant ships in the colonial trade from pirates. This is why the author sees command of the seas as what, at the most immediate level, made such a vast and scattered empire workabl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Brazil's National Ethanol Program of 1975, known as Proálcool, subsidized both the money sugar producers spent on capacity to make ethanol and what drivers paid for ethanol at filling stations. In the late 1970s, carmakers operating in the country, Fiat and Volkswagen among them, even built engines that ran on ethanol alone, and by 1985, 96% of the new cars sold there were fitted with such engines. The programme has since gone through ups and downs as oil prices, sugar cane harvests and the size of subsidies changed. Yet after Volkswagen introduced 'flexi-fuel' cars, which run on any blend of gasoline and ethanol, in 2003 and other makers followed, ethanol won a firm place among Brazil's main sources of energy. Today it provides 15% of the country's yearly energy production.

① Proálcool은 설탕 생산자의 투자에만 보조금을 주었다.
② 1970년대 말 Fiat과 Volkswagen 같은 회사가 에탄올만으로 달리는 엔진을 만들었다.
③ 1985년까지 브라질에서 팔린 새 차의 15%가 에탄올 전용 엔진을 달았다.
④ 'flexi-fuel' 차는 1975년 Fiat이 처음 내놓았다.
⑤ 오늘날 에탄올은 브라질 연간 에너지 생산의 96%를 공급한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e lime, a small, cheap fruit, helped the British navy rise. When Europeans began crossing oceans in sailing ships in the late fifteenth century, sailors' greatest killer was neither enemy vessels nor pirates nor even storms but scurvy, a dreadful disease whose symptoms included lethargy, gums that swelled and bled, teeth that came loose, terrible pain in the joints and, often, death. We now know that it comes from a lack of vitamin C, which humans, unlike most other animals, cannot produce in their bodies, but nobody knew its cause until the twentieth century. Owners and governments reportedly expected half the sailors on long voyages to die of it, and it is estimated to have killed over 2 million sailors between Columbus's crossing of the Atlantic and the mid-nineteenth century.

① 15세기 말 원양 항해 초기에 선원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괴혈병이었다.
② 괴혈병의 증상에는 무기력, 잇몸 출혈, 심한 관절통이 있었다.
③ 대부분의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지 못한다.
④ 괴혈병의 원인은 19세기 중반에 밝혀졌다.
⑤ 괴혈병은 200만 명이 넘는 선원을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Even if alternative energies such as biofuels, electric batteries and, we hope, hydrogen fuel cells come into wide use, we will still need ① to drive less in our own vehicles. That is easier said than done, above all in countries such as the US, ② where long-distance driving is unavoidable because homes are spread far apart and public transport is poor. Cutting car use there will require heavy spending on buses and trains and, over time, a radical ③ reorganization of where people live and work, brought about by new urban planning rules. We can also use energy far more ④ efficient in homes and workplaces. Better insulation and heat pumps would greatly reduce the energy ⑤ needed for heating, and only a few lights should be left on in office blocks after working hour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ritain's industrial supremacy and its skill at divide-and-rule both helped it build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Most directly, however, it was Britain's command of the oceans through a superior navy (A) [that / what] made such a vast and scattered empire possible. From the sixteenth century, Britain competed with Spain, the Netherlands and later France for naval supremacy, and over the following two centuries it pushed its rivals aside one after another by (B) [investing / invested] heavily in a well-armed, well-supplied and well-managed fleet. The Battle of Trafalgar of 1805, (C) [which / in which] Admiral Horatio Nelson's Royal Navy beat the combined French and Spanish fleets, secured Britain's naval dominance for over a century.

	(A)	(B)	(C)
①	that	investing	in which
②	that	invested	which
③	what	investing	in which
④	what	invested	in which
⑤	that	investing	which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However promising they are, new technologies and lifestyle changes will achieve little without ① coordinated, large-scale public action involving governments at every leve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operating nations. Relying on market incentives and the choices of individuals is simply ② insufficient. If the market is left to itself, many technologies needed to fight climate change will never be developed. The reason is not that private firms are 'evil'; it is that they are constantly pushed to produce ③ short-term results, a pressure that financial deregulation has made even ④ stronger. Green technologies repay their investors only over decades, while firms plan in years or even quarters, so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y are ⑤ eager to invest in such technologi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limate change demands more than new energy technologies. Fossil fuels serve _____ – the steel, fertilizer, cement and plastic on which modern industrial life depends. We therefore need technologies that make these materials using the least possible fossil fuel, better methods of recycling them, and substitute materials that require less fossil fuel, ideally none, to produce. We also need 'adaptation technologies' to help us live with the effects of a warming world. As droughts become more frequent and severe, we need better irrigation, water recycling and desalination, along with crops that can withstand extreme weather. Better weather forecasts and flood control, too, can help us cope with larger and more frequent storms.

① only as a source of energy for transport and heating
② not only as energy sources but also in making key materials
③ mainly as a cheaper substitute for biofuels
④ as the main cause of droughts and floods
⑤ less and less in modern industrial production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First of all, then, we need new technologies – a great many of them.

The world is already seeing melting polar ice, rising seas, stronger and more frequent extreme weather, and the mass extinction of species. (①) Scientists agree that unless global warming is brought under control very soon by sharply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umanity will face a threat to its very existence within decades. (②) Most important of all are alternative energy technologies that produce power without releasing greenhouse gases – biofuels, solar, wind, hydroelectric and wave power, hydrogen fuel and, in some circumstances, even nuclear power as a temporary measure. (③) Trapping carbon once it has been emitted and then using or storing it could also make a minor contribution. (④) And we need better ways to store electricity, so that the intermittent power from the sun and the wind can be used more steadily.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hird, changing what we eat can make a big difference. ① Agriculture produces a substantial shar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 estimates ranging from 15% to 35%. ② Eating less meat would therefore help a great deal, and beef matters most: by one recent estimate, it is responsible for a quarter of all the emissions that come from agriculture. ③ Biodiesel can be made from plant oils such as rapeseed or soybean, or even from animal fat. ④ We should also eat more seasonally, because growing food in greenhouses, even 'local' food, or shipping or flying out-of-season produce from far away can leave huge carbon footprints. ⑤ This does not mean giving up variety altogether, but people in rich countries should expect less 'on-demand' food.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Brazil, lime is central to caipirinha, the national cocktail, which mixes lime juice and sugar with cachaça, the national liquor. Cachaça itself is made by distilling sugar cane juice that has been fermented, and if the juice is distilled far enough, it turns into ethanol, a fuel that can power cars.

(A) That push faded after the war, when oil became cheap again. Yet following the first Oil Shock of 1973, the government launched an ambitious programme to replace petroleum with ethanol.

(B) A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sugar cane, Brazil had been testing ethanol as car fuel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C) Then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Second World War caused international trade to collapse, making it hard to import oil. In response, the government began to promote ethanol in earnest, requiring a 5% blend of ethanol in gasoline and subsidizing the ethanol industr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ecause private firms look only a short way ahead, large investments in new technologies and in spreading them have usually depended on strong action by the state. Information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are the prime examples. At first these were funded almost entirely by the US government, using federal research programmes in 'defence' and 'health' respectively, since both were extremely risky and would pay off only after a very long time. In the same way, low-carbon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has reached a significant scale in a number of European countries, China and Brazil, as well as the US, only because governments stepped in.

→ Since private firms tend to be (A) _____, technologies that are risky and slow to pay off have usually needed (B) _____ support to be developed and spread.

① short-sighted ..... government
② short-sighted ..... consumer
③ innovative ..... government
④ far-sighted ..... market
⑤ cautious ..... privat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795, ten years before the Royal Navy's victory at Trafalgar in 1805, the Admiralty required every sailor's ration to include lemon juice, which was mixed into 'grog', a watered-down rum. Lime soon replaced lemon, partly because limes were grown in Britain's Caribbean colonies and were easier to supply. Americans came to call British sailors 'limeys'. In Brazil, lime goes into caipirinha together with sugar and cachaça, the national liquor; made with vodka, the drink is called caipiroska. In the late 1970s, Fiat and Volkswagen built engines that ran only on ethanol, and by 1985, 96% of new cars sold in Brazil ran on ethanol alone. In 2003, Volkswagen launched 'flexi-fuel' cars, and today ethanol supplies 15% of Brazil's annual energy production. The author argues that climate change cannot be tackled by market incentives and individual choices alone.

<QUIZ>

(1) In what year did the Admiralty require lemon juice in every sailor's ration?

Answer for (1): _____

(2) Where did limes grow, which made them easier to supply than lemons?

Answer for (2): _____

(3) What did Americans call British sailors?

Answer for (3): _____

(4) What is Brazil's national liquor?

Answer for (4): _____

(5) By 1985, what share of new cars sold in Brazil ran on ethanol alone?

Answer for (5): _____

(6) Which company launched 'flexi-fuel' cars in 2003?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author thinks market incentives and individual choices alone can deal with climate chang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cachaça	N. 96%
B. 1805	O. Volkswagen
C. rum	P. Brits
D. 1973	Q. 2003
E. 1795	R. True
F. Fiat	S. Spain
G. grog	T. Britain's Caribbean colonies
H. limeys	U. 50%
I. 15%	V. Ford
J. vodka	W. Brazil
K. the Netherlands	X. 1985
L. False	Y. caipiroska
M. 1975	Z. vitamin C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이름난 분할 통치 기술 덕분에 영국은 작은 군대로 식민지를 운영할 수 있었다. (allow + O + to V)

02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은 영국 해군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물리친 전투였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03 선원들은 몇 달이고 썩은 소금 고기로 연명하다가 괴혈병에 걸렸다. (분사구문 / for months on end)

04 선주와 정부들은 괴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50%로 가정했다고 한다. (be said to have p.p.)

05 감귤류 과일의 즙은 차츰 효과적인 치료제로 알려지게 되었다. (come to be p.p.)

06 해군성은 레몬즙을 선원 배급의 의무 품목으로 만들었다. (make + O + 명사 보어)

07 세계 최대의 사탕수수 생산국으로서 브라질은 20세기 초부터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쓰는 실험을 해 왔다. (자격의 as / 과거완료)

08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만이 아니다. (It is ~ that 강조)

09 그것은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한 나라에서 특히 말이 쉽지 실행하기 어렵다. (easier said than done / 관계부사 where)

10 이는 민간 기업이 '악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단기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not because A but because B)

11 개인은 정부 정책이 친환경적 선택을 가능하게 해 줄 때에야 비로소 사는 방식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 (only when / 수동태)

12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이 필요하다. (be to V(의도) / 수동태)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대영제국의 인구 / 면적	
분할 통치로 통제한 인구	
해군 패권을 다툰 세 나라	
트라팔가르 해전의 해 / 지휘관	
Britannia(114쪽 각주 i)	
괴혈병의 원인 / 원인이 밝혀진 때	
괴혈병의 증상	
원양 항해 선원의 식단	
괴혈병의 사망 규모	
효과 없던 치료법 두 가지	
비타민 C의 학명과 뜻	
레몬즙 의무화 / 섞은 술	
레몬을 라임으로 바꾼 두 까닭	
미국인이 영국 선원을 부른 이름	
카이피리냐의 재료 / 보드카로 만들면	

항목	답
브라질 정부가 에탄올을 본격 추진한 때의 조치	
Proálcool의 해 / 1985년의 에탄올 전용 차	
flexi-fuel 차 / 에탄올의 에너지 생산 비중	
농업 / 쇠고기의 온실가스 비중	
처음에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댄 두 기술	
시장의 투표 방식	

4-3. 통합 사고 문제 – 6장과 14장을 잇는 자리

문제

6장에서 저자는 '자유 기업' 체제를 자랑하는 미국조차 현대 기업가 정신의 집단적 성격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며, 2차 세계대전 뒤 미국 정부가 공공 자금으로 기반 기술을 개발해 자국 기업을 결정적으로 도왔다고 썼다. 국립보건원(NIH)을 통해 제약 · 생명공학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했고, 컴퓨터 · 반도체 · 인터넷 · GPS · 터치스크린 같은 정보 시대의 기반 기술은 국방부와 미군의 '국방 연구' 프로그램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 기술들이 없었다면 IBM도 Intel도 Apple도 실리콘밸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56쪽 ¶3). 14장에서 저자는 민간 기업은 몇 년, 어쩌면 분기 단위의 시야로 움직여 수익이 수십 년 뒤에 돌아오는 '녹색' 기술에 투자하기를 꺼린다고 했고(112쪽 ¶2), 정보 기술과 생명공학은 처음에 거의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개발되었다며 「Noodle」을 참조하게 했다(112쪽 ¶3). 이를 바탕으로, 아래 112쪽 ¶3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i로 시작하는 12글자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6장과 14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6장 또는 14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확산: In a number of countries in Europe, China, Brazil as well as in the US, low-carbon energy technologies,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have been developed and deployed on significant scales only thanks to government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5 SPICE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Spices」 (원서 PDF 115~119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5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향신료가 낳은 유한 책임, 왜 이제 걸림돌인가."

이 장은 저자가 직접 만든 요리, 커리 조개 국물을 곁들인 아귀로 시작한다. 어떤 음식도 갈망하지 않는다는 저자가 유일하게 그리워하는 음식은 남아시아 음식인데, 정작 처음 먹었을 때는 싫어했다. 영국에 오기 전까지 향신료를 다섯 가지밖에 몰랐던 저자는 '향신료광'이 된 뒤 조상을 원망하다가, 향신료가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땅에 살았고 향신료 땅을 침략할 의지(또는 능력)도 없던 조상에게 불공평했다고 깨닫는다. 이야기는 유럽의 향신료 탐색으로 넘어가, 대양을 몇 개씩 건너는 위험한 무역에 돈을 모으려고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한 몫까지로 묶은 유한 책임 회사가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금융 규제 완화로 조급해진 주주들 때문에 이 제도가 이제 경제 진보의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며, 장기 보유 보상 ·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 금융 규제 강화로 유한 책임을 개혁하자고 제안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4장(라임)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유한 책임을 개혁해 장기 보유를 보상하자(118쪽 ¶4~¶5) / 향신료가 없던 것은 조상의 탓이 아니었다(116쪽 ¶3~¶4) / 진보의 수단이 걸림돌로 – 같은 제도, 다른 맥락(119쪽 ¶3~¶4) / 향신료 탐색이 주식회사를 낳았다(116쪽 ¶6)
4~5	**밑줄 함축 의미**	lacked 'body' / as good as not having consumed them at all / a spice fiend / pared-down versions / I was being unfair /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 their liabilities were unlimited / 'other people's money' / the ulterior motive / this once-mighty vehicle / 'cash in' / the supposed 'owners' / a 'quick buck' /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6	지칭 추론	it이 남아시아 음식과 타이 음식 사이를 오가는 115쪽 ¶2~¶3 / these(115쪽 ¶1 =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 / they · them(115쪽 ¶6 = 다섯 향신료) / they(116쪽 ¶3~¶4 = 저자의 조상) / it(116쪽 ¶6 = 향신료 탐색) / They(117쪽 ¶3 = 두 동인도 회사) / it(117쪽 ¶5 = limited liability) / them(118쪽 ¶3 = 주주) / ones(119쪽 ¶1 = shareholders)
7~8	내용 일치·불일치	119쪽 각주 i(10곳 중 8곳 이상 · 95% · Sylhet) · ii(저자의 육수) · iii(콜럼버스) / 6개월 · 2주 · 1980년대 후반(소호) · 1987(이탈리아) · 다섯 향신료(날것은 셋) · 처음 30년 · 1600 · 1602 · 19세기 후반 · 19세기 중반 · 5년 → 1년 미만 · 90~95% · 절반 미만 · 2년 · 20표
9~10	**어법**	go without + -ing · Nor + 도치 · must have p.p. · 분사구문 thinking back · 과거완료 had known · as good as + 동명사 · come to V · find + O + 형용사 · It is ~ for which · as long as · had we used(도치 가정법) · too ~ for … to V · Less well known is(보어 도치) · cost + IO + DO · enabling + O + to V · So began(도치) · Among them was(도치) · let + O + 원형 · get away with + -ing · so many ~ that · whose · thereby + -ing · one of the + 최상급 + ever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instant↔gradual · subconscious↔conscious · authentic↔fake · daunting↔encouraging · sophisticated↔crude · reluctant↔willing · exacerbate↔alleviate · sceptical↔convinced · excessive↔moderate · ulterior↔overt · restless↔patient · attenuated↔strengthened · mobile↔immobile · speculative↔safe
12	빈칸 추론	영국 평균 보유 기간 5년 → 1년 미만 – 법적 주인이지만 진짜 주인이라 하기 어렵다(118쪽 ¶2) / limited to what they had invested(117쪽 ¶2) / too cold for most spices to grow(116쪽 ¶4) / the real reason for my complaint(115쪽 ¶4)
13	문장 삽입	스미스와 마르크스(117쪽 ¶5~118쪽 첫 줄): 회의론 → 스미스의 비판 → 저자: 사실이지만 대규모 자본 동원 → 마르크스의 찬사 → 숨은 동기(He did so ~) → 그의 이론
14	무관한 문장	'body'가 없다는 불평과 다섯 향신료(115쪽 ¶4~¶6)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영국 동인도 회사, 117쪽 ¶3)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무한 책임에서 유한 책임으로(117쪽 ¶1~¶2): 보상은 크지만 투자를 꺼림 → 전 재산을 잃는 무한 책임 → 채무자 감옥까지 → 해법 = 유한 책임
16	요약문 완성	주주의 선택지 제한(119쪽 ¶2): 투기적 금융 상품 규제 강화 → '한탕' 기회 감소 → 장기적 헌신의 유인 증가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나라 · 연도 · 인물 · 비율 · 명칭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6개월(한국 음식) · 2주(남아시아 음식) · 1980년대 후반(소호의 타이 음식) · 1987(이탈리아 첫 방문) · 다섯 향신료(날것으로 본 것은 셋) · 처음 30년 · 1600(영국 동인도 회사) · 1602(네덜란드) · 19세기 후반(특권 → 권리) · 19세기 중반(마르크스) · 5년 → 1년 미만(영국 평균 보유 기간) · 90~95% · 절반 미만(1980년대 이전) · 2년 넘게 보유하면 1표 더(프랑스 · 이탈리아) · 주당 20표(저자가 든 상한의 예) · 각주 i의 10곳 중 8곳 이상 · 95%. 1600은 영국, 1602는 네덜란드다. 인물과 지명도 많다(Nisha Katona · Adam Smith · Karl Marx · Columbus · Sylhet · 스리랑카 · 남인도 · 인도네시아 · 프랑스 · 이탈리아).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처음엔 싫어함 ↔ 곧바로 좋아함, 다섯 ↔ 셋, 변호사 → 요리사 ↔ 요리사 → 변호사,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가 아님 ↔ 최초, 1600 ↔ 1602, 특권 ↔ 권리, 비난(스미스) ↔ 칭송(마르크스), 5년 → 1년 미만 ↔ 늘어남, 90~95% ↔ 절반 미만, 개혁 ↔ 폐지). 저자의 짐작(must have been · it seems)과 추정(are estimated)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저자의 제안(need to · should · perhaps)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Spices」 (115~119쪽)

논증형(남아시아 음식이라는 예외 → 처음엔 싫었던 까닭 → 다섯 가지 향신료 → 향신료광 → 조상 원망과 반성 → 동인도 → 향신료 탐색과 주식회사 → 무한 책임의 위험 → 유한 책임과 동인도 회사 → 특권 → 스미스의 비판 · 마르크스의 칭송 → 중화학 공업과 권리 → 금융 규제 완화와 조급한 주주 → 배당 · 자사주 매입 90~95% → 개혁 셋(tenure voting · 이해관계자 · 금융 규제) → 결론: 같은 향신료, 같은 제도도 맥락에 따라). 핵심 축은 **무한 책임 vs 유한 책임**, 그리고 **진보의 수단 vs 진보의 걸림돌**.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15 [제목]	요리	Monkfish in curried clam broth(저자의 요리) – 아귀(또는 단단한 흰살생선)에 커리 조개 국물
115 ¶1~¶2	도입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음(한국 음식 없이도 6개월) / 예외 하나 – '인도', 아니 남아시아 음식
115 ¶3	아이러니	처음엔 남아시아 음식을 싫어함 / 타이 · 그리스 · 이탈리아 음식은 곧바로 좋아함
115 ¶4	불평의 까닭	'body'가 없다는 불평 – 감칠맛 부족이었을 것(짐작) / 진짜 까닭 =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한 감각
115 ¶5~¶6	다섯 향신료	영국에 오기 전 아는 향신료는 다섯뿐 / 오향 돼지고기도 먹은 셈이 아님
115 ¶7~116 ¶1	향신료광	향신료를 깊이 사랑하게 됨 / 간소화한 남아시아 요리 · 마살라 차이
116 ¶2	쓰임	후추(스튜 · 파스타) · 크럼블(정향 · 카다멈 · 계피) · 사프란 리소토 · 치즈 토스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16 ¶3~¶4	원망 → 반성	조상을 원망 / 너무 추운 땅 · 향신료 땅을 침략할 의지(능력)도 없었음
116 ¶5	동인도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향신료 넷은 '동인도'에서만 자람 / 119쪽 각주 iii
116 ¶6	전환	향신료 탐색 → 항로 발견(잘 알려짐) · 주식회사 = 유한 책임 회사(덜 알려짐)
117 첫 줄~¶1	무한 책임	대양 두세 개 횡단 = 화성 탐사선 / 실패하면 전 재산 · 채무자 감옥
117 ¶2~¶3	해법	유한 책임 → 위험 감소 · 거액 동원 / 영국(1600) · 네덜란드(1602) 동인도 회사
117 ¶4	특권	19세기 후반까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위험 사업에만 준 특권
117 ¶5~118 첫 줄	스미스 · 마르크스	스미스: '남의 돈'으로 도박 / 저자: 사실이지만 대규모 자본 동원 / 마르크스의 칭송(숨은 동기)
118 ¶1	권리로	중화학 공업의 대규모 투자 → 19세기 후반 권리로 → 자본주의 발전의 주된 수단
118 ¶2~¶3	걸림돌로	금융 규제 완화 → 보유 기간 5년 → 1년 미만 / 이윤의 90~95%를 주주에게 → 투자 약화
118 ¶4~¶5	개혁 1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자 / 장기 보유 장려 — tenure voting 강화
119 ¶1~¶2	개혁 2 · 3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발언권 / 금융 규제 강화로 주주의 선택지 제한
119 ¶3~¶4	결론	금융화 시대에 진보의 수단에서 걸림돌로 /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어떤 요리는 망치듯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첫 남아시아 음식	그때의 불평 — 'body'가 없음(감칠맛 부족이었을 것)	돌아본 진짜 까닭 —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하고 낯선 감각
새 음식과의 첫 만남	타이 · 그리스 · 이탈리아 — 곧바로 좋아함	남아시아 — 처음엔 싫어함 · 지금은 2주만 못 먹어도 그리움
영국에 오기 전의 향신료	아는 것 — 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다섯)	날것으로 본 것 — 계피 · 생강 · 고추뿐(후추는 가루, 겨자는 조제품)
조상에 대한 생각	원망 — 왜 정향 · 고수 씨로 요리할 줄 몰랐나	반성 — 너무 추운 땅 · 침략 · 점령할 의지(능력) 없음
향신료 탐색의 유산	잘 알려진 것 —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 발견	덜 알려진 것 — 주식회사(유한 책임 회사)
무한 책임 vs 유한 책임	무한 — 투자금 + 집 · 가구 · 냄비까지 · 채무자 감옥	유한 — 투자한 몫(주식)까지만 · 거액 동원 가능
유한 책임의 지위	19세기 후반까지 — 왕실 · 정부가 고위험 사업에만 준 특권	19세기 후반 이후 — 최소 기준만 갖추면 누리는 권리
유한 책임 평가	Adam Smith — '남의 돈'으로 도박 · 과도한 위험(저자: 전적으로 사실)	Karl Marx —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숨은 동기)
주주의 모습	과거 — 1960년대 영국 평균 보유 5년 · 이윤 분배 절반 미만(1980년대 이전)	오늘날 — 1년 미만 · 배당 · 자사주 매입 90~95% (미국 · 영국)
유한 책임의 역할	한때 — 경제 진보의 강력한 수단	금융화 시대 — 경제 진보의 걸림돌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개혁의 방향	지킬 것 — 대규모 자본 동원이라는 장점	줄일 것 — 해로운 부작용(조급한 주주 · 투자 약화)
같은 것, 다른 결과	향신료 — 어떤 요리는 살리고 어떤 요리는 망침	제도 — 어떤 맥락에서는 잘 작동하고 다른 맥락에서는 큰 문제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Spices ([제목])	Monkfish in curried clam broth(저자의 요리) · 아귀(또는 단단한 흰살생선)에 커리 조개 국물을 곁들임
음식 취향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음 · 한국 음식 없이 **6개월**도 거뜬(대학원생 시절 자주 그랬음) ·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을 필요 없음
유일한 예외	'인도' 음식, 아니 남아시아 음식 — **2주**쯤 못 먹으면 그리움
119쪽 각주 i	영국 '인도' 식당 **10곳 중 8곳 이상**을 방글라데시계가 운영 · 그중 **95%**가 실헷(Sylhet) 한 지방 출신으로 추정 / A. Gillan, Guardian, 2002년 6월 21일 → 그래서 '남아시아' 음식이라 부름
첫 만남	타이 음식 — **1980년대 후반** 소호(Soho)의 타이 식당 · 그리스 음식(무사카 · 타라마살라타 · 루카니코 소시지) — 곧바로 좋아함 / 이탈리아 — **1987년** 첫 방문 때 '외국' 음식이라는 느낌조차 없음
'body'가 없다는 불평	(남아시아계가 아닌) 친구들에게 한 불평 · 감칠맛 부족(간장이 없고 마늘이 모자람)이 무의식적으로 불만이었을 것(저자의 짐작) / 진짜 까닭 =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하고 낯선 감각을 감당하지 못함
다섯 향신료	영국에 오기 전: 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 / 날것으로 본 것은 계피 · 생강 · 고추뿐 · 후추는 회색 가루 · 겨자는 English mustard 비슷한 조제품(더 순하고 달았음)
오향(wuxiang) 돼지고기	몇 번 먹었지만 별로 · 다섯 향신료(팔각 · 정향 · 계피 · 쓰촨 후추 · 회향 씨)를 알아보지 않음 → 먹지 않은 것과 다름없음
사랑하게 된 향신료	고수 씨 · 겨자 씨 · 커민 · 정향 · 육두구 · 메이스(육두구 껍질) · 팔각 · 회향 씨 · 캐러웨이(jeera) · 사프란 · 카다멈 · 타마린드 · 아위(asafoetida) 등
spice fiend	남아시아 요리는 간소하게 — 주로 간 고수 씨 · 회향 씨 · 커민(정통 향신료는 벅차고 불필요) · 좋아하는 음료 = 마살라 차이(우유 · 생강 · 카다멈 등을 넣고 끓인 단 차)
향신료의 쓰임(116쪽 ¶2)	후추 → 스튜 · 파스타 / 크럼블(사과 · 대황이 가장 좋음) → 정향 · 카다멈 꼬투리 · 계피, 가끔 통후추 / 리소토 → 사프란 한 꼬집뿐 / 치즈 토스티 → Nisha Katona(변호사였다가 요리사가 된 영국계 인도인)의 조리법
119쪽 각주 ii	저자의 단골 육수: 닭 뼈 · 셀러리 · 양파 · Swiss Marigold 채소 육수 가루 · 멸치젓(myulchi-jut) 조금(「Anchovy」)
조상 원망과 반성	인생의 처음 **30년** 동안 놓친 것 → 조상 원망 · 정향 =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 유라시아 대륙 북동쪽 구석 · 너무 추움 · 유럽인과 달리 침략 · 점령할 의지(또는 능력)가 없었음
동인도(East Indies)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후추 · 정향 · 계피 · 육두구가 자라던 곳 = 남아시아(특히 스리랑카 · 남인도) · 동남아시아(특히 인도네시아)
119쪽 각주 iii	콜럼버스 등 초기 유럽 침략자들이 아메리카를 인도로 여김 → 유럽인은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 중국을 밴 세계를 모두 인도로 여긴 듯(저자의 추측)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향신료 무역의 위험	범선으로 대양 두세 개(대서양 · 인도양 · 인도네시아라면 태평양) = 조금 과장하면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무사히 되돌려 받는 일 / 실패하면 투자금 + 재산(집 · 가구 · 냄비까지) · 채무자 감옥
유한 책임	책임을 투자한 몫(주식)까지로 제한 → 위험이 크게 줄고 많은 투자자를 모아 거액 동원
동인도 회사	영국 **1600년** · 네덜란드 **1602년** /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는 아님 · 향신료 수입과 식민지 운영(각각 인도 · 인도네시아)의 성공이 결정적 힘
특권에서 권리로	**19세기 후반**까지 왕실(절대 왕정 뒤엔 정부)이 원거리 무역 · 식민지 확장 같은 고위험 사업에만 준 특권 → 19세기 후반 대부분 나라에서 권리(최소 기준 충족이 조건)
Adam Smith	'경제학의 아버지' · 경영자가 '남의 돈'으로 도박한다며 유한 책임 회사를 비난 · 회사를 100% 소유하지 않아 실패의 비용을 다 지지 않으므로 과도한 위험을 무릅씀
Karl Marx	'자본주의의 천적' · 유한 책임 회사를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 칭송(**19세기 중반**) · 숨은 동기: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면 사회주의도 빨리 옴
중화학 공업	철강 · 기계 · 산업 화학 · 제약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 → 사례마다 따로 허가해서는 감당 불가
금융화의 결과	영국 평균 주식 보유 기간 **1960년대 5년 → 오늘날 1년 미만** / 미국 · 영국에서 지난 20여 년 배당 ·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간 이윤 **90~95%**(1980년대 이전 절반 미만) → 투자 재원인 사내 유보 이윤 감소
개혁안 셋	① tenure voting 강화(프랑스 · 이탈리아는 약한 형태, 예: **2년** 넘게 보유하면 1표 더 / 저자: 1년 더 보유할 때마다 1표, 상한은 이를테면 주당 **20표**) ② 노동자 · 투입물 공급자 · 지역 공동체에 더 큰 발언권 ③ 투기적 금융 상품 규제 강화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Spices」 (원서 PDF 115~119쪽) · 5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5-1 처음엔 싫었던 남아시아 음식 – 'body'가 없다는 불평과 다섯 향신료 115쪽 ¶1~¶6

원문 위치 원서 115쪽 ¶1~¶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5쪽 [제목]	Monkfish in curried clam broth (my recipe)	저자의 요리 — 아귀(또는 단단한 흰살생선)에 커리 조개 국물
★	115쪽 ¶1 첫 문장	I don't have cravings for any particular cuisine – not even Korean	도입 · 어휘(craving)
★	115쪽 ¶1 둘째 문장	I can happily go without eating Korean food for six months (and I often di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go without + -ing · 대동사 did · 숫자
▲	115쪽 ¶1 셋째 문장	Nor do I need to eat Italian, Mexican or Japanese food regularly, even though these are favourites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 지칭(these)
◆	115쪽 ¶2 첫 문장	There is one exception: 'Indian' food – or rather South Asian food	or rather · 119쪽 각주 i
◆	119쪽 각주 i	more than eight out of ten 'Indian' restaurants in the UK are run by people of Bangladeshi origin, 95% of whom are estimated to be from … Sylhet	숫자 · 추정(are estimated) — 일치
★	115쪽 ¶3 첫 문장	It's ironic: I disliked South Asian food when I first tried it	아이러니 · 지칭 문항의 바탕
★	115쪽 ¶3 셋째~다섯째 문장	Thai food … in Soho back in the late 1980s … Greek food … was an instant hit … Italy during my first visit there in 1987	시기 · 장소 — 일치 함정
◆	115쪽 ¶4 첫 문장	I complained that South Asian food lacked 'body'	밑줄 의미
▲	115쪽 ¶4 둘째 문장	I must have been unhappy at a subconscious level about the relative lack of umami flavour	must have p.p. — 저자의 짐작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5쪽 ¶4 셋째 문장	the real reason for my complaint was that I couldn't handle the complex and unusual sensations that the multitude of spices … hit me with	분사구문 thinking back · 요지
★	115쪽 ¶5 첫 문장	Until I came to Britain, I had known only five spices – black pepper, mustard, cinnamon, ginger and chilli	과거완료 · 서답형 단어의 출처
★	115쪽 ¶5 둘째 문장	I had seen only cinnamon, ginger and chilli in their raw forms	일치 함정(다섯 중 셋)
▲	115쪽 ¶6 둘째 문장	didn't bother to find out what those five spices were … so it was as good as not having consumed them at all	as good as + 동명사 · 밑줄 의미

내용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알겠지만 저자는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는다. 한국 음식조차 그렇다. 한국 음식을 먹지 않고도 여섯 달은 거뜬히 지낼 수 있고, 대학원생 시절에는 실제로 자주 그랬다.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을 좋아하지만 그것들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인도' 음식, 아니 더 정확히는 남아시아 음식이다. 저자는 남아시아 음식을 2주쯤 먹지 않으면 그리워진다(119쪽 각주 i: '인도'에 따옴표를 붙이는 까닭은 영국의 '인도' 식당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을 방글라데시계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중 95%가 그 나라의 한 지방인 실헷 출신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남아시아' 음식이라 부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처음 먹었을 때 남아시아 음식을 싫어했다. 다른 새로운 음식은 대부분 곧바로 좋아했다. 1980년대 후반 소호의 한 타이 식당에서 처음 먹은 타이 음식에 홀딱 반했고, 무사카 · 타라마살라타 · 루카니코 소시지 같은 그리스 음식도 단번에 마음에 들었으며, 1987년 이탈리아를 처음 찾았을 때는 '외국'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 음식은 아니었다. 저자는 (남아시아계가 아닌) 친구들에게 남아시아 음식에 'body'가 없다고 불평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자는 자신이 먹어 본 요리들에 감칠맛이 – 간장이 없고 마늘이 모자라서 – 비교적 부족한 것이 무의식적으로 불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불평의 진짜 까닭은 남아시아 요리에 든 수많은 향신료가 안기는 복잡하고 낯선 감각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국에 오기 전까지 저자가 알던 향신료는 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 다섯 가지뿐이었고, 그 가운데 날것의 모습을 본 것은 계피 · 생강 · 고추뿐이었다. 후추는 통후추가 아니라 회색빛 먼지 같은 가루였고, 겨자는 English mustard와 비슷한 (그러나 더 순하고 단) 조제품이었다. 물론 중국의 '오향(wuxiang) 돼지고기'를 몇 번 먹기는 했다.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 다섯 향신료가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으니(궁금해할 독자를 위해 밝히면 팔각 · 정향 · 계피 · 쓰촨 후추 · 회향 씨다), 그것들을 전혀 먹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법

- I can happily go without eating Korean food for six months (and I often di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 go without + 동명사 = ~ 없이 지내다. did = go without eating Korean food for six months를 대신하는 대동사(과거 시제).
- Nor do I need to eat Italian, Mexican or Japanese food regularly, even though these are favourites : 부정어 Nor가 문장 앞에 오면 조동사 + 주어 도치(Nor do I need; Nor I need는 오답). even though = 비록 ~이지만. these = Italian, Mexican and Japanese food.

- I didn't even sense I was eating 'foreign' food when I ate in Italy during my first visit there in 1987 : sense 뒤 접속사 that 생략. was eating = 과거진행(그때 먹고 있다는 것). there = in Italy.
- I don't know exactly what I was trying to say, but I must have been unhappy at a subconscious level about the relative lack of umami flavour : what I was trying to say = 간접의문문(know의 목적어).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 저자도 확신하지는 못한다).
- However, thinking back, I think the real reason for my complaint was that I couldn't handle the complex and unusual sensations that the multitude of spices in South Asian dishes hit me with : thinking back = 분사구문(돌이켜 보면). was that ~ = 보어 명사절. 끝의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hit me with의 목적어 sensations) — 전치사 with가 끝에 남았다.
- Until I came to Britain, I had known only five spices : had known = 과거완료(영국에 온 과거 시점 이전까지의 경험). until = ~할 때까지.
- black pepper was greyish, dusty powder, rather than peppercorns, and mustard came in a preparation similar to that of English mustard :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similar to ~ = preparation을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that = the preparation(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 didn't bother to find out what those five spices were ..., so it was as good as not having consumed them at all : bother to V = 굳이 ~하다(부정문에서 '애써 ~하지 않다'). as good as + 동명사 = ~한 것이나 다름없는. not having consumed = 완료 동명사의 부정(not을 앞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raving	갈망	longing	aversion
cuisine	요리(법)	cookery	—
exception	예외	anomaly	rule
ironic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paradoxical	—
affection	애정	fondness	dislike
head over heels	홀딱 빠져	completely	—
instant	즉각적인	immediate	gradual
subconscious	잠재의식의	unconscious	conscious
umami	감칠맛	savouriness	—
want (n.)	부족	lack	abundance
multitude	다수	host	handful
preparation	조제품	mixture	—
keen on	~을 좋아하는	fond of	averse to
bother to V	굳이 ~하다	take the trouble	—

내용 일치 저자의 요리 = 커리 조개 국물을 곁들인 아귀(또는 단단한 흰살생선) /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음 · 한국 음식 없이 6개월(대학원생 시절 자주) ·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도 꼭 먹을 필요 없음 / 예외 = 남아시아 음식 · 2주쯤 못 먹으면 그리움 · 각주 i: 영국 '인도' 식당 10곳 중 8곳 이상이 방글라데시계 · 그중 95%가 실헷 출신(추정) / 처음엔 싫어함 · 타이 음식(1980년대 후반 소호) · 그리스 음식 · 이탈리아(1987년 첫 방문)는 곧바로 좋아함 / 'body'가 없다는 불평 — 감칠맛 부족(간장 · 마늘)이 불만이었을 것(짐작) · 진짜 까닭 =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하고 낯선 감각 / 영국에 오기 전 향신료 다섯(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 · 날것으로 본 것은 셋(계피 · 생강 · 고추) / 오향 돼지고기는 몇 번 먹었지만 별로 · 다섯

향신료를 알아보지 않음 → 먹지 않은 것과 다름없음. **밑줄 의미** not even Korean = 고향 음식조차 갈망하지 않을 만큼 음식 취향이 무던함 / 'Indian' food – or rather South Asian food = 영국의 '인도' 식당은 대부분 방글라데시계가 운영하므로 더 정확한 이름으로 고쳐 부름 / It's ironic = 지금 유일하게 그리운 음식을 처음엔 싫어했음 / lacked 'body' = 무엇이 모자란지 말로 짚지 못한 막연한 불만 / as good as not having consumed them at all =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먹었으니 그 향신료들을 겪었다고 할 수 없음 / 지칭: 115쪽 ¶1 these(are favourites) =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 · did = 한국 음식 없이 여섯 달을 지냄 / 115쪽 ¶2 it(I miss it) = South Asian food / 115쪽 ¶3 it(첫 문장) = South Asian food · it(셋째 문장) = Thai food · there = Italy / 115쪽 ¶6 it(keen on it) = 오향 돼지고기 · they · them = 그 다섯 향신료.

> **한 줄 요약** 지금은 유일하게 그리운 남아시아 음식을 저자는 처음에 싫어했는데, 영국에 오기 전 향신료를 다섯 가지밖에 몰라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한 감각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2 향신료광이 된 저자 – 조상 원망에서 '동인도'까지 115쪽 ¶7 ~ 116쪽 ¶5

원문 위치 원서 115쪽 ¶7 ~ 116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5쪽 ¶7 (116쪽 첫 줄까지)	I came to appreciate and then fall deeply in love with the complex of flavours, aromas and sensations that the huge gamut of spices give to South Asian dishes	come to V 병렬 · 전환
★	116쪽 첫 줄	coriander seeds, mustard seeds, cumin, clove, nutmeg, mace (the shell of nutmeg), … caraway (jeera), … asafoetida	향신료 목록 – 일치
◆	116쪽 ¶1 첫 문장	Today, I am a spice fiend.	밑줄 의미 · 어휘(fiend)
★	116쪽 ¶1 둘째 문장	I make pared-down versions of South Asian dishes … as I find the use of the authentic range of spices a bit daunting and unnecessary	find + O + 형용사 · 어휘(daunting)
★	116쪽 ¶1 셋째 문장	Masala chai, sweet South Asian tea boiled with milk and ginger, cardamom and various other spices, is a favourite drink	동격 · 주어와 동사의 거리
▲	116쪽 ¶2 첫 문장	It is not just South Asian dishes for which I use spices	It is ~ for which 강조
★	116쪽 ¶2 셋째~넷째 문장	I lace the filling with ridiculous quantities of cloves, cardamom pods and cinnamon … Sometimes I throw in black peppercorns as well, to increase the heat	크럼블 –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6쪽 ¶2 다섯째 문장	I make risotto only with a pinch of saffron – as long as I use a good stock, it doesn't need anything else	as long as · 119쪽 각주 ii(육수)
★	116쪽 ¶2 여섯째 문장	(I use the recipe by the British-Indian lawyer-turned-chef Nisha Katona)	인물 – 일치 함정(변호사 → 요리사)
★	116쪽 ¶3 첫~둘째 문장	I could not believe what I had missed for the first three decades of my life. I cursed my ancestors.	과거완료 · 숫자(30년)
▲	116쪽 ¶3 넷째 문장	Wouldn't Korean food have been more sophisticated and interesting, had we used star anise and fennel seeds?	if를 생략한 도치 가정법 · 수사 의문문
◆	116쪽 ¶4 첫 문장	Then I realized that I was being unfair.	전환 · 요지 1순위
★	116쪽 ¶4 둘째~셋째 문장	stuck in the north-eastern corner of the Eurasian continent, where it is too cold for most spices to grow … unlike the Europeans, they didn't have the willingness (or the ability) to invade and occupy the spice lands	too ~ for … to V · 지리와 의지
★	116쪽 ¶5	black pepper, clove, cinnamon and nutmeg – used to grow only in what used to be called the 'East Indies'	used to · 일치 · 119쪽 각주 iii

내용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자는 남아시아 요리에 엄청나게 다양한 향신료 – 고수 씨, 겨자 씨, 커민, 정향, 육두구, 메이스(육두구의 껍질), 팔각, 회향 씨, 캐러웨이(jeera), 사프란, 카다멈, 타마린드, 아위 등 – 가 더해 주는 풍미 · 향 · 감각의 복합체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이어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날 저자는 '향신료광(spice fiend)'이다. 정통 향신료를 다 갖춰 쓰는 것은 조금 벅차고 (식당 음식이든 기성품이든 훌륭한 남아시아 음식을 구할 수 있으니) 불필요하다고 여겨, 주로 간 고수 씨 · 회향 씨 · 커민을 써서 남아시아 요리를 간소하게 만든다. 우유와 생강 · 카다멈 등 여러 향신료를 넣고 끓인 달콤한 남아시아 차, 마살라 차이는 저자가 좋아하는 음료다. 저자가 향신료를 쓰는 것은 남아시아 요리만이 아니다. 저자가 만드는 스튜와 파스타 대부분에는 통후추든 간 후추든 후추가 듬뿍 들어간다. 크럼블(가장 좋아하는 속은 사과와 대황이지만 사과만 넣거나 자두를 넣기도 한다)을 만들 때는 속에 정향 · 카다멈 꼬투리 · 계피(가루나 껍질)를 터무니없이 많이 넣고, 가끔은 매운맛을 더하려고 통후추까지 넣는다. 리소토에는 사프란 한 꼬집만 넣는다. 좋은 육수만 쓰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119쪽 각주 ii: 저자의 단골 육수는 닭 뼈 · 셀러리 · 양파 · Swiss Marigold 채소 육수 가루에 한국의 멸치젓을 조금 넣은 것이다). 최근에는 간 고수 씨와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다진 양파 · 마늘 · 고수 잎을 더한 남아시아식 '치즈 토스티'에 푹 빠졌는데, 변호사였다가 요리사가 된 영국계 인도인 Nisha Katona의 조리법을 쓴다. 향신료로 '개종'하고 나자 저자는 인생의 처음 30년 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믿기지 않았고, 조상을 원망했다. 왜 정향(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과 고수 씨 같은 멋진 재료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팔각과 회향 씨를 썼더라면 한국 음식이 더 세련되고 흥미롭지 않았을까? 그러다 저자는 자신이 불공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상들은 대부분의 향신료가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쪽 구석에 갇혀 있었다. 게다가 유럽인과 달리 향신료가 나는 땅을 침략해 점령할 의지(또는 능력)도 없었다. 유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향신료인 후추 · 정향 · 계피 · 육두구는 예전에 '동인도'라 불리던 곳, 곧 남아시아(특히 스리랑카와 남인도)와 동남아시아(특히 인도네시아)에서만 자랐다(119쪽 각주 iii: 콜럼버스를 비롯한 초기 유럽 침략자들이 아메리카를 인도로 여긴 것을 보면, 유럽인은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 중국을 뺀 세계를 모두 인도로 여긴 듯하다).

어법

- **Over time, however, I came to appreciate and then fall deeply in love with the complex of flavours, aromas and sensations that the huge gamut of spices give to South Asian dishes** : come to V = ~하게 되다(appreciate와 fall이 to에 병렬).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give의 목적어 the complex ...). 관계절의 동사는 원서 표기대로 give(the huge gamut of spices를 복수로 받았다).
- **I make pared-down versions of South Asian dishes, using mainly ground coriander seeds, fennel seeds and cumin, as I find the use of the authentic range of spices a bit daunting and unnecessary** : using ~ = 분사구문(~을 쓰면서). as = 이유의 접속사. find + O + 형용사(daunting and unnecessary) = O가 ~하다고 여기다.
- **It is not just South Asian dishes for which I use spices** : It is ~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 전치사 + which(for which)를 썼다 — use spices for South Asian dishes의 for가 앞으로 나왔다. not just = ~만이 아니다.
- **Generous quantities of black pepper, whether in whole corns or in ground form, go into most of the stews and pasta dishes I cook** : 주어 Generous quantities(복수) → go. whether A or B = A든 B든(삽입). I cook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I make risotto only with a pinch of saffron – as long as I use a good stock, it doesn't need anything else** : as long as = ~하기만 하면(조건). it = risotto.
- **Wouldn't Korean food have been more sophisticated and interesting, had we used star anise and fennel seeds?** : had we used = if we had used에서 if를 생략하고 도치(가정법 과거완료). 주절 would have p.p.와 짝. 부정의문문 형태의 수사 의문문(당연히 더 세련되었을 것 아닌가).
- **My ancestors were stuck in the north-eastern corner of the Eurasian continent, where it is too cold for most spices to grow** : where =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선행사 the north-eastern corner ...). too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 ...가 ~하기에는 너무 ~한. 지금도 사실이라 현재 시제 is.
- **The spices that have been most prized in Europe ... used to grow only in what used to be called the 'East Indies'** : used to V = (예전에는) ~했다(지금은 아님). what used to be called = 예전에 ~라고 불리던 곳(관계대명사 what). 주어 The spices → 복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ppreciate	진가를 알다	value	disdain
gamut	전 범위	range	—
aroma	향	fragrance	stench
fiend	광, 열렬한 애호가	fanatic	—
pared-down	간소화한, 군더더기를 뺀	simplified	elaborate
authentic	정통의, 진짜의	genuine	fake
daunting	벅찬, 기를 꺾는	intimidating	encouraging
lace (v.)	(맛을) 가미하다	flavour	—
liberal	넉넉한	generous	sting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version	개종, 전향	change of heart	—
curse	원망하다, 저주하다	damn	bless
sophisticated	세련된	refined	crude
prized	귀하게 여겨지는	valued	worthless
occupy	점령하다	seize	liberate

내용 일치 시간이 지나며 향신료의 진가를 알고 깊이 사랑하게 됨(고수 씨 · 겨자 씨 · 커민 · 정향 · 육두구 · 메이스 · 팔각 · 회향 씨 · 캐러웨이 · 사프란 · 카다멈 · 타마린드 · 아위 등) / 오늘날 향신료광 · 남아시아 요리는 간소하게(주로 간 고수 씨 · 회향 씨 · 커민) — 정통 향신료는 벅차고 불필요(식당 음식 · 기성품이 훌륭) · 마살라 차이 / 후추 → 스튜 · 파스타 · 크럼블(사과 · 대황이 가장 좋음) → 정향 · 카다멈 꼬투리 · 계피, 가끔 통후추 · 리소토 → 사프란 한 꼬집(좋은 육수만 있으면 · 각주 ii) · 치즈 토스티 → Nisha Katona(변호사 → 요리사, 영국계 인도인)의 조리법 / 처음 30년 동안 놓친 것 → 조상 원망 · 정향 =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 반성: 대부분의 향신료가 자라기엔 너무 추운 유라시아 북동쪽 구석 · 유럽인과 달리 침략 · 점령할 의지(능력) 없음 /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후추 · 정향 · 계피 · 육두구 = 동인도(남아시아: 특히 스리랑카 · 남인도 /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만 자람 · 각주 iii: 유럽인은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 중국을 뺀 세계를 인도로 여긴 듯(추측). **밑줄 의미** a spice fiend = 향신료를 지나칠 만큼 좋아하는 사람 — 처음과 정반대 / pared-down versions = 정통 향신료를 다 쓰지 않고 몇 가지로 줄인 요리 / ridiculous quantities = 스스로도 우스울 만큼 많이 / I cursed my ancestors = 향신료 없는 한국 음식이 아쉬워 탓할 곳을 찾음 / I was being unfair = 기후와 사정 때문이지 조상의 잘못이 아님 / the spice lands = 향신료가 나는 땅(동인도) — 유럽 침략의 대상 / 지칭: 116쪽 ¶2 it(doesn't need) = risotto / 116쪽 ¶3 they(didn't they learn) = my ancestors · we(had we used) = 한국 사람들 / 116쪽 ¶4 where =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쪽 구석 · they = my ancestors.

> **한 줄 요약** 향신료광이 된 저자는 향신료를 쓰지 않은 조상을 원망했지만, 향신료가 자라지 않는 추운 땅에서 향신료 땅을 침략할 의지(능력)도 없던 조상을 탓하는 것은 불공평했다고 깨닫는다.

15-3 향신료가 낳은 주식회사 — 무한 책임의 위험과 유한 책임 116쪽 ¶6 ~ 117쪽 ¶3

원문 위치 원서 116쪽 ¶6 ~ 117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6쪽 ¶6 첫 문장	It is well known that the search for spices was a critical impetus behind the discovery of navigational routes from Europe to Asia	가주어 it · 잘 알려진 사실
◆	116쪽 ¶6 둘째 문장	Less well known is the fact that it also gave us the most important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amely, the joint stock company, or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보어 도치 · 주제문 1순위
★	117쪽 첫 줄 첫 문장	In the beginning, the spice trade with the 'East Indies' was extremely risky for the Europeans	위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7쪽 첫 줄 둘째 문장	Traversing two, or even three, oceans … on a sailing ship was like, to exaggerate a bit,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 these days	동명사 주어 · 밑줄 의미 1순위
★	117쪽 ¶1 첫 문장	The rewards were fabulous, to be sure, but given the risk involved, investors were reluctant to sink money into the spice race	to be sure ~ but · given
▲	117쪽 ¶1 둘째 문장	the fact that if a business venture failed the investors could lose everything – not just the money they invested … but their properties (house, furniture, even pots and pans)	동격 that · not just A but B
★	117쪽 ¶1 셋째 문장	In more technical terms, their liabilities were unlimited.	무한 책임 — 순서 문항의 연결 고리
▲	117쪽 ¶1 넷째~다섯째 문장	Failing in a business venture could even cost businessmen their personal freedom … ended up in a debtors' prison	cost + IO + DO · end up in
◆	117쪽 ¶2 둘째~셋째 문장	A solution was found in offering investors limited liability … their liability would be limited to what they had invested in the venture (their 'shares')	해법 · 빈칸 후보
★	117쪽 ¶2 넷째 문장	This hugely reduced the risk …, enabling those who were organizing high-risk ventures to mobilize huge sums of money by recruiting a large number of investors	분사구문 enabling + O + to V
▲	117쪽 ¶3 첫 문장	So began companies like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founded in 1600)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1602)	So + 동사 + 주어 도치 · 연도
★	117쪽 ¶3 둘째 문장	They were actually not the firs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ut their successes … gave the institution of limited liability a critical boost	일치 함정(최초가 아님)
★	117쪽 ¶3 둘째 문장 괄호	(yes, companies, rather than countries, had colonies in the early days)	respectively · 일치

내용

향신료 탐색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게 한 결정적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덜 알려진 사실은 그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 곧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다른 말로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동인도'와의 향신료 무역은 유럽인에게 극도로 위험했다. 범선을 타고 두 개, 심지어 세 개의 대양(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간다면 태평양까지)을 건너는 일은, 조금 과장하면 오늘날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 무사히 되돌려 받는 – 일과 같았다. 물론 보상은 엄청났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을 생각하면 투자자들은 향신료 경쟁에 돈을 쏟아붓기를 꺼렸다.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자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험을 더 키웠다. 빌린 것을 모두 갚아야 했으므로 사업에 투자한 돈뿐 아니라 재산(집, 가구, 심지어 냄비와 프라이팬까지)도 잃을 수 있었다.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 그들의 책임은 무한했다.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가가 개인의 자유까지 잃을 수 있었다. 가진 것을 모두 팔고도 채권자에게 다 갚지 못하면, 빚진 사업가는 결국 채무자 감옥에 갇혔다. 잠재적 투자자들이 향신료 무역처럼 아주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기를 꺼린 것은 당연했다. 해법은 투자자에게 유한 책임을 주는 데서 찾았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책임이 가진 것 전부가 아니라 그 사업에 투자한 몫(그들의 '주식')까지로 제한된다는 보장을 받았다. 이로써 잠재적 투자자가 지는 위험이 크게 줄었고, 고위험 사업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은 투자자를 모아 막대한 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1600년 설립)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1602년) 같은 회사들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사실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는 아니었지만, 동인도에서 향신료를 들여오고 마침내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그렇다, 초기에는 나라가 아니라 회사가 식민지를 가졌다) 유한 책임이라는 제도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 주었다.

어법

- **It is well known that the search for spices was a critical impetus behind the discovery of navigational routes from Europe to Asia**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impetus behind ~ = ~의 원동력.
- **Less well known is the fact that it also gave us the most important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amely, the joint stock company** : 보어(Less well known)가 앞으로 나가 동사 + 주어가 도치(= The fact ... is less well known). that = 동격 접속사. it = the search for spices. give + IO(us) + DO. namely = 곧.
- **Traversing two, or even three, oceans ... on a sailing ship was like, to exaggerate a bit,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 these days** : 동명사구 주어(Traversing ...) → 단수 was. like + 동명사(sending · getting). to exaggerate a bit = 독립 부정사(조금 과장하자면).
- **The rewards were fabulous, to be sure, but given the risk involved, investors were reluctant to sink money into the spice race** : to be sure ~ but = 물론 ~이지만(양보). given ~ = ~을 고려하면. involved = risk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 be reluctant to V = ~하기를 꺼리다.
- **The risk was further exacerbated by the fact that if a business venture failed the investors could lose everything – not just the money they invested in the venture, but their properties** : the fact that = 동격 that 절. not just A but B = A뿐 아니라 B도. they invest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Failing in a business venture could even cost businessmen their personal freedom** : 동명사구 주어 → 단수 취급. cost + IO(businessmen) + DO(their personal freedom) = ~에게 …을 잃게 하다(4형식).
- **This hugely reduced the risk that potential investors faced, enabling those who were organizing high-risk ventures to mobilize huge sums of money by recruiting a large number of investors** :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faced의 목적어). enabling = 결과의 분사구문. enable + O + to V. by + 동명사 = ~함으로써.
- **So began companies like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founded in 1600)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1602)** : So(그렇게 해서) + 동사(began) + 주어(companies ...) 도치 – 주어가 길어 뒤로 갔다. founded in 1600 = 과거분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petus	원동력, 자극	stimulus	deterrent
navigational	항해의	nautical	—
vehicle	수단, 매개체	means	—
traverse	가로지르다	cross	—
exaggerate	과장하다	overstate	understate
probe	탐사선	spacecraft	—
fabulous	엄청난	tremendous	modest
reluctant	꺼리는	unwilling	willing
exacerbate	악화시키다	aggravate	alleviate
liability	(법적) 책임, 부채	obligation	asset
creditor	채권자	lender	debtor
mobilize	동원하다	raise	—
respectively	각각	severally	—
boost	힘, 촉진	push	setback

내용 일치 향신료 탐색 =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 발견의 결정적 원동력(잘 알려짐) ·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주식회사(유한 책임 회사)도 낳음(덜 알려짐) / 처음엔 극도로 위험 · 범선으로 대양 두세 개(대서양 · 인도양 · 인도네시아라면 태평양) · 조금 과장하면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무사히 되돌려 받기 / 보상은 엄청났지만 투자를 꺼림 · 실패하면 투자금 + 재산(집 · 가구 · 냄비까지) · 무한 책임 · 채무자 감옥 / 해법 = 유한 책임: 책임을 투자한 몫(주식)까지로 → 위험 크게 감소 · 많은 투자자를 모아 거액 동원 / 영국 동인도 회사(1600)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1602) ·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는 아님 · 향신료 수입과 식민지 운영(각각 인도 · 인도네시아)의 성공이 결정적 힘 · 초기엔 나라가 아닌 회사가 식민지를 가짐. **밑줄 의미** the most important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키운 핵심 장치 /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일 / the spice race = 향신료를 차지하려는 경쟁 / their liabilities were unlimited = 실패의 책임이 투자금을 넘어 전 재산 · 자유까지 / their 'shares' = 투자한 몫 = 책임의 한계 / a critical boost = 동인도 회사의 성공이 유한 책임이라는 제도를 크게 밀어 줌 / 지칭: 116쪽 ¶6 it(also gave us) = the search for spices / 117쪽 첫 줄 it(getting it back) = a Mars probe / 117쪽 ¶1 they(were expected) = the investors · he(had sold) = the indebted businessman / 117쪽 ¶2 This(hugely reduced) = 유한 책임의 보장 / 117쪽 ¶3 They · their(successes) = 영국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 **한 줄 요약** 향신료 무역은 실패하면 전 재산과 자유까지 잃는 무한 책임 때문에 투자를 모으기 어려웠고, 그 해법인 유한 책임이 동인도 회사들의 성공으로 결정적인 힘을 얻었다.

15-4 특권에서 권리로, 그리고 걸림돌로 — 스미스 · 마르크스와 조급한 주주 117쪽 ¶4 ~ 118쪽 ¶3

원문 위치 원서 117쪽 ¶4 ~ 118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7쪽 ¶4	Limited liability is the norm today, but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t used to be a privilege granted by the crown – and the government, when absolute monarchy ended – only to high-risk ventures of national importance	used to · 과거분사 granted · 시기
★	117쪽 ¶5 첫 문장	Many were sceptical of the idea, even for such exceptional cases	어휘(sceptical)
▲	117쪽 ¶5 둘째 문장	Among them was Adam Smith, the father of economics, who condemn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on the grounds that it let their managers gamble with 'other people's money' (his words)	부사구 도치 · let + O + 원형 · on the grounds that
★	117쪽 ¶5 셋째 문장	such managers, who by definition did not own 100% of the companies, would always take excessive risk, because they did not have to bear the full costs of failure	스미스의 논리 — 일치
◆	117쪽 ¶6 첫 문장	This is absolutely true, but the point is that limited liability also lets us mobilize capital on a much larger scale than under unlimited liability	저자의 양보와 반박 · 삽입 문항의 바탕
◆	117쪽 ¶6 둘째 문장 (118쪽 첫 줄까지)	Karl Marx, the scourge of capitalism, sang prais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s 'capitalist production in its highest development', although he did so with the ulterior motive	대동사 did so · 밑줄 의미(ulterior motive)
▲	118쪽 첫 줄	faster development of capitalism would mean faster advent of socialism (as his theory was that socialism will emerge only after capitalism is fully developed)	동격 that · 그의 이론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8쪽 ¶1 첫 문장	the rise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at require large-scale investments – iron and steel, machines, industrial chemicals, pharmaceuticals and the like – made limited liability even more necessary	make + O + 형용사 · 어법 문항의 바탕
▲	118쪽 ¶1 둘째 문장	You simply cannot get away with issuing permits for limited liability on a case-by-case basis any more	get away with + -ing · not ~ any more
★	118쪽 ¶1 셋째~넷째 문장	most countries made limited liability a right (subject to meeting some minimum standards) rather than a privilege. Since then, ... the main vehicle of capitalist development	특권 → 권리 · 현재완료
◆	118쪽 ¶2 첫 문장	this once-mighty vehicle of economic progress has recently been turning into an obstacle to it	전환 · 밑줄 의미
★	118쪽 ¶2 둘째 문장	Financial deregulation ... has created so many financial opportunities that shareholders no longer have long-term commitments to companies they legally own	so many ~ that · 통합 사고 빈칸
★	118쪽 ¶2 셋째~넷째 문장	from five years in the 1960s to less than a year these days. If you cannot commit your money even for a year, can you really say that you share ownership in the company?	숫자 · 수사 의문문 — 빈칸 1순위
★	118쪽 ¶3 첫 문장	dividends and share buybacks (the practice in which companies buy their own shares and thus raise the share prices, so that shareholders can 'cash in' ...)	전치사 + which · 용어
★	118쪽 ¶3 둘째 문장	the proportion of corporate profit thus given to shareholders reached 90–95%, when it used to be less than half before the 1980s	숫자 — 일치 함정
▲	118쪽 ¶3 셋째 문장	given that retained profit ... is the major source of corporate investments, this change has seriously weakened the ability of companies to invest, especially in projects whose returns come in the long run (also see 'Lime')	given that · whose · 14장 연결

내용

오늘날 유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그것은 왕실이 — 그리고 절대 왕정이 끝난 뒤에는 정부가 — 원거리 무역이나 식민지 확장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위험 사업에만 내주던 특권이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조차 이 생각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가운데 '경제학의 아버지' Adam Smith가 있었다. 그는 유한 책임이 경영자들에게 (그의 표현으로) '남의 돈'으로 도박하게 한다며 유한 책임 회사를 비난했다. 정의상 회사를 100% 소유하지 않는 경영자들은 실패의 비용을 온전히 떠안지 않아도 되므로 늘 지나친 위험을 무릅쓰리라는 논리였다. 저자는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핵심은 유한 책임 덕분에 무한 책임에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천적 Karl Marx도 유한 책임 회사를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고 칭송했다. 다만 거기에는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할수록 사회주의도 빨리 온다는 숨은 동기가 있었다(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전한 뒤에야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었다). 마르크스가 19세기 중반 이런 말을 한 직후, 철강 · 기계 · 산업 화학 · 제약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화학 공업'이 떠오르면서 유한 책임은 더욱 필요해졌다. 원거리 무역이나 식민지 사업만이 아니라 주요 산업 대부분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유한 책임 허가를 사례마다 따로 내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 대부분의 나라가 유한 책임을 (몇 가지 최소 기준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특권이 아닌 권리로 만들었고, 그 뒤로 유한 책임 회사(또는 법인)는 자본주의 발전의 주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한때 막강했던 이 경제 진보의 수단이 최근에는 오히려 진보의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 지난 수십 년의 금융 규제 완화가 금융 기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낸 탓에, 주주들은 자신이 법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더 이상 장기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1960년대 5년에서 오늘날 1년 미만으로 줄었다. 1년도 돈을 맡기지 못한다면 정말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바심 내는 주주들을 만족시키려고 전문 경영자들은 이윤의 아주 큰 몫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올림으로써, 주주가 원하면 가진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관행)으로 내주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이렇게 주주에게 간 기업 이윤의 비율은 90~95%에 이르렀는데, 1980년대 이전에는 절반도 안 되었다. 주주에게 나눠 주지 않은 이윤, 곧 사내 유보 이윤이 기업 투자의 주된 재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변화는 기업의 투자 능력, 특히 수익이 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사업에 투자하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Lime」 참조).

어법

- **Limited liability is the norm today, but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t used to be a privilege granted by the crown ... only to high-risk ventures of national importance** : used to V = 예전에는 ~였다(지금은 아님 — the norm today와 대조). granted by ~ = privilege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grant A to B의 to B(only to high-risk ventures)가 뒤에 남았다.
- **Among them was Adam Smith, the father of economics, who condemn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on the grounds that it let their managers gamble with 'other people's money'** : 범위의 부사구(Among them)가 앞으로 나가 동사 + 주어 도치. on the grounds that ~ = ~라는 이유로. let + O + 원형부정사(gamble; to gamble은 오답). it = limited liability.
- **The reasoning was that such managers, who by definition did not own 100% of the companies, would always take excessive risk, because they did not have to bear the full costs of failure** : was that ~ = 보어 명사절. who = 계속적 용법(삽입). by definition = 정의상. would = 과거 시점에서 본 추측.
- **the point is that limited liability also lets us mobilize capital on a much larger scale than under unlimited liability** : the point is that ~ = 핵심은 ~이다. let + O + 원형(mobilize). much + 비교급(larger). than 뒤에 under unlimited liability(무한 책임 아래에서보다).
- **although he did so with the ulterior motive that faster development of capitalism would mean faster advent of socialism** : did so = sang prais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대신한다. the ulterior motive that ~ = 동격 that절(숨은 동기의 내용). 과거 시점에서 본 미래라 would.

- **You simply cannot get away with issuing permits for limited liability on a case-by-case basis any more** : get away with + 동명사(issuing; issue는 오답) =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다. not ~ any more = 더 이상 ~않다. You = 일반 사람(총칭).
- **Financial deregulation in the last few decades has created so many financial opportunities that shareholders no longer have long-term commitments to companies they legally own** : so many + 복수 명사 + that = 너무 많은 ~이어서 …하다. no longer = 더 이상 ~않다. they legally own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this change has seriously weakened the ability of companies to invest, especially in projects whose returns come in the long run** : the ability of A to V = A가 ~할 능력.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projects의 returns). in the long run = 장기적으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norm	표준, 일반적인 것	standard	exception
privilege	특권	prerogative	—
crown	왕실	monarchy	—
sceptical	회의적인	doubtful	convinced
condemn	비난하다	denounce	praise
excessive	지나친	immoderate	moderate
scourge	재앙, 천적	bane	blessing
ulterior	(동기가) 숨은	hidden	overt
advent	도래	arrival	departure
pronouncement	공언, 선언	declaration	—
deregulation	규제 완화	liberalization	regulation
obstacle	걸림돌	hindrance	aid
restless	조바심 내는	impatient	patient
retained profit	사내 유보 이윤	retained earnings	—

내용 일치 오늘날 유한 책임은 표준 · 19세기 후반까지는 왕실(절대 왕정 뒤엔 정부)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위험 사업(원거리 무역 · 식민지 확장)에만 준 특권 / 회의론자가 많음 · Adam Smith('경제학의 아버지'): 경영자가 '남의 돈'으로 도박 · 100% 소유하지 않아 실패 비용을 다 지지 않으므로 과도한 위험 / 저자: 전적으로 사실이지만 무한 책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자본 동원 가능 / Karl Marx('자본주의의 천적'):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 칭송 · 숨은 동기(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면 사회주의도 빨리 옴) / 19세기 중반 직후 중화학 공업(철강 · 기계 · 산업 화학 · 제약) → 사례별 허가로는 불가 → 19세기 후반 대부분 나라에서 권리(최소 기준 충족이 조건) → 자본주의 발전의 주된 수단 / 최근엔 걸림돌: 금융 규제 완화 → 장기적 헌신이 사라짐 · 영국 평균 보유 기간 1960년대 5년 → 오늘날 1년 미만 / 배당 · 자사주 매입 → 미국 · 영국에서 지난 20여 년 이윤의 90~95%(1980년대 이전엔 절반 미만) → 사내 유보 이윤 감소 → 투자 능력(특히 장기 사업) 약화. **밑줄 의미** 'other people's money' = 경영자가 위험을 무릅쓰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님 / sang praises of = 자본주의의 천적이 오히려 칭송함 — 그만큼 자본 동원력이 컸다는 방증 / the ulterior motive = 칭송의 진짜 목적은 사회주의를 앞당기는 것 / a right … rather than a privilege = 최소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누림 / this once-mighty vehicle = 한때 경제 진보를 이끌던 유한 책임 회사 / can you really say that you share ownership = 1년도 머물지 않는 주주를 진짜 주인이라 하기 어렵다 / 'cash in' = 오른 주가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김 / 지칭: 117쪽 ¶4 it(used to be) = limited liability / 117쪽 ¶5 them = 회의론자들 · it(let) = limited liability · their(managers) = 유한 책임 회사의 · they(did not have to) = such managers / 117쪽 ¶6 This(is

absolutely true) = 스미스의 논리 · he(did so) = Marx / 118쪽 ¶2 it(obstacle to it) = economic progress / 118쪽 ¶3 them(given them) = restless shareholders · it(used to be) = 주주에게 간 이윤의 비율.

> **한 줄 요약** 국가가 고위험 사업에만 주던 특권인 유한 책임은 대규모 자본 동원력 덕분에 19세기 후반 권리가 되어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금융 규제 완화 뒤 조급해진 주주 때문에 이제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

15-5 유한 책임을 고치자 – 장기 보유 · 이해관계자 · 금융 규제 118쪽 ¶4 ~ 119쪽 ¶4

원문 위치 원서 118쪽 ¶4 ~ 119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8쪽 ¶4	The time has come to reform the institution of limited liability, so that we retain its benefits while limiting its harmful side-effects	주장 1순위 · so that
★	118쪽 ¶5 첫 문장	First of all, limited liability may be modified to encourage long-term shareholding	개혁 1
★	118쪽 ¶5 둘째 문장	voting rights can be linked to the length of shareholding period, so that longer-term shareholders have louder voices – this is known as 'tenure voting'	용어 – 일치
★	118쪽 ¶5 셋째 문장	Some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Italy, already practise it, but only in very attenuated forms (shareholders of more than two years getting another vote …)	나라 · 숫자 · 어휘(attenuated)
▲	118쪽 ¶5 넷째 문장	by giving, for example, one extra vote to a share for each additional year owned (perhaps with a ceiling of, say, twenty votes per share)	by + -ing · 과거분사 owned · 숫자(제안)
★	118쪽 ¶5 다섯째 문장	In some way, we need to reward long-term commitment by investors	요지
★	119쪽 ¶1 첫 문장	Second, we should limit the power of shareholders, even the longstanding ones, by giving a bigger say … to other 'stakeholders' – like workers, suppliers of inputs, and local communities	개혁 2 · 대명사 one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9쪽 ¶1 둘째 문장	The (strength and) problem with shareholders is that even the longstanding ones can leave any time	보어 that절
◆	119쪽 ¶1 셋째 문장	we would allocate power to constituencies that are more concerned with the long-term future of the company than the supposed 'owners' of it – that is, the shareholders	밑줄 의미 1순위
★	119쪽 ¶2 첫 문장	Last but not least, the options for shareholders need to be limited, in order to make them more interested in the long-term future	개혁 3 · 요약문의 바탕
▲	119쪽 ¶2 둘째 문장	by tightening financial regulations over the more speculative end ..., thereby reducing the chance of making a 'quick buck' and thus increasing the incentive	thereby + -ing · 요약문 빈칸
★	119쪽 ¶3 첫~둘째 문장	Limited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that capitalism has ever invented. However, ... it is turning into an obstacle to, rather than a vehicle for, economic progress	최상급 + ever · 전치사 공유 · 제목 1순위
★	119쪽 ¶3 둘째 문장 괄호	(or, as a more technical term goes, in the age of 'financialization')	용어
◆	119쪽 ¶4	In the same way in which the same spice may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the same institution may function greatly in one context but turn into a great problem in another	음식 비유로 마무리 · one ~ another

내용

이제 유한 책임 제도를 개혁해 그 장점은 지키면서 해로운 부작용은 줄여야 할 때가 왔다. 첫째, 장기 주식 보유를 장려하도록 유한 책임을 손볼 수 있다. 예컨대 의결권을 주식 보유 기간과 연결해 더 오래 보유한 주주가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데, 이를 'tenure voting'이라 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몇몇 나라는 이미 이를 시행하지만 (2년 넘게 보유한 주주에게 1표를 더 주는 식의) 아주 약한 형태일 뿐이다. 저자는 이를테면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주식 한 주에 1표를 더 주는 식으로 (아마도 주당 이를테면 20표의 상한을 두고) tenure voting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의 장기적 헌신에 보상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 투입물 공급자 · 기업이 자리한 지역 공동체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에 더 큰 발언권을 주어, 오래 보유한 주주까지 포함해 주주의 힘을 제한해야 한다. 주주의 (강점이자) 문제는 오래 보유한 주주조차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보다 훨씬 덜 움직이는 이해관계자에게 힘을

일부 나눠 주면, 회사의 이른바 '주인'인 주주보다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 더 관심이 많은 집단에 힘을 배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의 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주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이다. 주주들이 자신이 주식을 가진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 더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금융 상품 가운데 투기성이 강한 쪽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 그러면 '한탕(quick buck)'을 노릴 기회가 줄고, 그만큼 회사에 장기적으로 헌신할 유인이 커진다. 유한 책임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규제가 풀린 금융과 조급한 주주의 시대(더 전문적인 말로는 '금융화'의 시대)에 그것은 경제 진보의 수단이 아니라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 유한 책임 제도와, 금융 규제나 이해관계자 영향력의 장치처럼 그것을 둘러싼 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다른 요리는 망칠 수 있듯이, 같은 제도도 어떤 맥락에서는 훌륭하게 작동하다가 다른 맥락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법

- **The time has come to reform the institution of limited liability, so that we retain its benefits while limiting its harmful side-effects** : The time has come to V = ~할 때가 왔다(to부정사가 time을 꾸민다). so that + S + V = ~하도록. while + 동명사(limiting) = ~하면서.
- **We need to strengthen tenure voting seriously by giving, for example, one extra vote to a share for each additional year owned** : by + 동명사 = ~함으로써. give A to B. each + 단수 명사(year). owned = year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보유한 해).
- **Second, we should limit the power of shareholders, even the longstanding ones, by giving a bigger say in company management to other 'stakeholders'** : ones = shareholders(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give A to B = B에게 A를 주다(3형식). A = a bigger say in company management(회사 경영에 대한 더 큰 발언권), B = other 'stakeholders'. 받는 쪽 뒤에 like workers ... 같은 긴 예시가 붙어 4형식(give B A) 대신 to B를 뒤에 두었다.
- **By giving some power to stakeholders that are far less mobile than the shareholders, we would allocate power to constituencies that are more concerned with the long-term future of the company than the supposed 'owners' of it** : far + 비교급(less mobile). would = 그렇게 한다면(가정의 뜻). be concerned with = ~에 관심을 두다. it = the company.
- **This can be done by tightening financial regulations over the more speculative end of the range of financial products, thereby reducing the chance of making a 'quick buck' and thus increasing the incentive** : can be p.p. + by + 동명사. thereby + 동명사 = 그렇게 함으로써 ~하다(reducing · increasing 병렬).
- **Limited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that capitalism has ever invented** :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최상급 뒤 관계절의 ever + 현재완료 =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 **it is turning into an obstacle to, rather than a vehicle for, economic progress** : 두 전치사(to · for)가 목적어 economic progress를 함께 받는다. A rather than B = B라기보다 A.
- **In the same way in which the same spice may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the same institution may function greatly in one context but turn into a great problem in another** : In the same way in which ~ = ~와 같은 방식으로(~하듯이). may = ~할 수도 있다. one ~ another = 하나는 ~, 다른 하나는 …(another 뒤 dish · context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form (v.)	개혁하다	overhaul	preserve
retain	유지하다	keep	lose
side-effect	부작용	drawback	—
modify	수정하다	adjust	—
tenure	보유 기간	holding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ttenuated	약해진	weakened	strengthened
ceiling	상한	cap	floor
stakeholder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y	—
longstanding	오래된	long-held	new
mobile	이동하기 쉬운	movable	immobile
constituency	이해 집단	group	—
speculative	투기적인	risky	safe
incentive	유인	motivation	disincentive
perk up	활기를 주다, 살리다	enliven	ruin

내용 일치 개혁의 목표 = 유한 책임의 장점은 지키고 해로운 부작용은 줄이기 / ① 장기 보유 장려: 보유 기간에 의결권을 연결(tenure voting) · 프랑스 · 이탈리아는 약한 형태(예: 2년 넘게 보유하면 1표 더) · 저자의 제안: 1년 더 보유할 때마다 주당 1표 추가(상한은 이를테면 20표) · 투자자의 장기적 헌신에 보상 / ② 오래 보유한 주주까지 포함해 주주의 힘 제한 · 노동자 · 투입물 공급자 · 지역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발언권 · 주주는 언제든 떠날 수 있음(강점이자 문제) · 덜 움직이는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 더 관심 / ③ 주주의 선택지 제한: 투기적 금융 상품 규제 강화 → '한탕' 기회 감소 → 장기적 헌신의 유인 증가 / 결론: 유한 책임 = 자본주의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 · 금융화 시대에 걸림돌로 · 유한 책임과 주변 제도(금융 규제 · 이해관계자 영향력 장치) 개혁 /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어떤 요리는 망치듯 같은 제도도 맥락에 따라 다름. **밑줄 의미** louder voices = 오래 보유한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 / very attenuated forms = 이미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미할 만큼 약함 / the (strength and) problem =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이 주주의 강점이자 문제 / the supposed 'owners' = 법적으로는 주인이지만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는 관심이 덜한 주주 / a 'quick buck' =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버는 돈 / an obstacle to, rather than a vehicle for = 진보를 돕던 제도가 진보를 막음 /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 좋고 나쁨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맥락에 달림 / 지칭: 118쪽 ¶5 it(practise it) = tenure voting / 119쪽 ¶1 ones(the longstanding ones) = shareholders · it(owners of it) = the company / 119쪽 ¶2 them(make them) = shareholders · This(can be done) = 주주의 선택지 제한 / 119쪽 ¶3 it(is turning) = limited liability · those(surrounding it) = institutions / 119쪽 ¶4 another = 다른 요리 · 다른 맥락.

> **한 줄 요약**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어떤 요리는 망치듯 금융화 시대에 걸림돌이 된 유한 책임은, 장기 보유 보상 ·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 금융 규제 강화로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도록 개혁해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5 SPICES]

범위	Spices (원서 PDF 115~119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time to reform limited liability so that we keep its advantages while curbing its damaging side-effects. To begin with, the institution could be adjusted to favour shareholders who stay for the long haul. One way is to tie voting rights to how long shares have been held, giving a louder voice to those who have kept them longer – a practice called 'tenure voting'. France and Italy already use it, but only in weak forms, such as granting one more vote to people who have held shares for over two years. Something far stronger is needed: perhaps an additional vote for every extra year a share is held, up to a limit of, say, twenty votes. One way or another, investors' long-term loyalty should be rewarded.

① Shareholders should be free to sell shares anytime.
② Limited liability should be abolished altogether.
③ Limited liability should be reformed to reward long-term shareholders.
④ France and Italy should give up tenure voting.
⑤ Every share should always carry exactly one vot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imited liability ranks among the most important tools capitalism has ever devised. Today, however, in an era of loosely regulated finance and restless shareholders – an era some describe as one of 'financialization' – it is becoming a barrier to economic progress rather than a means of achieving it. We therefore need to reform not only limited liability itself but also the institutions around it, such as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channels through which stakeholders can influence companies. Just as one spice can liven up one dish and spoil another, a single institution can work brilliantly in one setting and become a serious problem in another.

① From Engine to Obstacle: Why Limited Liability Needs Reform
② How Spices Conquered the Kitchens of Europe
③ The Endless Benefits of Limited Liability
④ Why Shareholders Deserve More Power
⑤ Cooking with Spices: A Beginner's Guid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fter his conversion to spices, the author could hardly believe what he had missed during his first thirty years. He even cursed his ancestors: why had they never learned to cook with marvellous ingredients like cloves and coriander seeds? Surely Korean cuisine would have been richer and more interesting if it had used fennel seeds and star anise. Then he realized he was being unfair. His ancestors lived in the far north-east of Eurasia, where the climate is far too cold for most spice plants. And, unlike the Europeans, they had neither the desire nor the power to conquer the lands where spices grew.

① Korean food would have been better with more spices.
② Blaming the ancestors for lacking spices was unfair.
③ Europeans were more skilled cooks than Koreans.
④ Cloves are the most wonderful of all spices.
⑤ Most spices grow well in cold climates.

4. 밑줄 친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Everyone knows that the hunt for spices was a key force behind Europe's discovery of sea routes to Asia. Fewer people know that it also handed us the most important vehicle of capitalist development: the joint stock company, also calle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At first, trading in spices with the 'East Indies' was enormously risky for Europeans. A sailing-ship voyage across as many as three oceans – first the Atlantic, then the Indian and, if Indonesia was the destination, the Pacific – was, to exaggerate slightly, like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today.

① a venture so risky that success seemed nearly impossible
② a routine trip that brought steady profits
③ a scientific mission to discover new spices
④ a journey that only governments were allowed to make
⑤ an easy voyage made possible by modern technology

5. 밑줄 친 the supposed 'owne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econd, the power of shareholders, even those who have held their shares for a long time, should be curbed by giving other 'stakeholders' – workers, input suppliers and the local communities where firms operate – a larger voice in running companies. The trouble with shareholders (which is also their strength) is that even long-standing ones can walk away whenever they like. Workers, suppliers and communities cannot move nearly so easily. Handing some power to them would therefore place it with groups that care more about a company's long-term future than do the supposed 'owners'.

① shareholders, who legally own a firm yet can leave anytime
② workers whose jobs depend on the company
③ local communities where the company is located
④ suppliers who provide the company with inputs
⑤ managers who own the whole of the company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author does not crave any one cuisine, not even Korean food. There is, however, one exception: South Asian food. If he goes without ① it for a couple of weeks, he misses ② it. Ironically, he disliked ③ it the first time he tried ④ it, although most other new cuisines won him over at once. He fell head over heels for Thai food when he first tasted ⑤ it in a Soho restaurant in the late 1980s, and Greek food was an instant hit. In Italy, on his first visit in 1987, he did not even feel he was eating 'foreign' food. But South Asian food? No.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Spices go into far more than the author's South Asian dishes. Plenty of black pepper, whole or ground, ends up in most of his stews and pasta. For crumble – apple and rhubarb is the filling he likes best, though he also makes plain apple and plum versions – he loads the filling with absurd amounts of cinnamon, cloves and cardamom pods, sometimes adding black peppercorns for extra heat. His risotto needs nothing but a pinch of saffron, provided the stock is good; his usual stock is made from onion, celery, a chicken carcass, vegetarian stock powder and a little myulchi-jut, the fermented anchovy sauce of Korea. Lately he has fallen for the South Asian 'cheese toastie', following a recipe by Nisha Katona, a British-Indian lawyer who became a chef.

① 저자는 남아시아 요리에만 향신료를 쓴다.
②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크럼블 속은 자두다.
③ 저자는 매운맛을 더하려고 크럼블에 통후추를 넣기도 한다.
④ 저자의 리소토에는 사프란 말고도 여러 향신료가 들어간다.
⑤ 치즈 토스티 조리법의 주인은 요리사 출신 변호사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e spices Europeans valued most – nutmeg, cinnamon, clove and black pepper – once grew only in what was then called the 'East Indies': parts of South Asia, above all Sri Lanka and the south of India, and of South-east Asia, above all Indonesia. Because Columbus and the other first Europeans to invade the Americas took those lands for India, the author suspects that Europeans saw everywhere outside China,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as India. With limited liability on offer, firms such as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set up in 1600, and the Dutch one, set up in 1602, were born. They were not, in fact, the earliest companies with limited liability, but their success in shipping spices home and, in time, running colonies in India and Indonesia respectively gave limited liability a crucial boost. In those days, companies rather than countries held colonies.

① 귀한 향신료 넷은 한때 '동인도'에서만 자랐다.
② 유럽인은 세계의 많은 곳을 인도로 여긴 듯하다.
③ 영국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 쪽보다 먼저 섰다.
④ 두 동인도 회사는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였다.
⑤ 초기에는 나라가 아니라 회사가 식민지를 가졌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Limited liability is standard now, yet up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t was a privilege ① granted only to risky ventures of national importance, such as colonial expansion and long-distance trade. Soon after the mid-nineteenth century, however,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② requiring vast investments – iron and steel, machinery, industrial chemicals, medicines – began to rise, which made limited liability all the more necessary. Governments could no longer get away with ③ issue permits one case at a time when most key industries ④ needed large-scale finance. So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imited liability became a right in most countries rather than a privilege, and since the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⑤ have served as the main engine of capitalist development.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o satisfy impatient shareholders, professional managers have been handing them a very large part of profits as dividends and share buybacks – a practice (A) [which / in which] companies buy back their own shares to lift the share price, so that shareholders can sell and 'cash in' if they want. In the UK and the US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the proportion of corporate profits paid out to shareholders this way (B) [has / have] reached 90–95%, whereas before the 1980s it was under half. Since retained profit, (C) [that / which] is profit kept rather than handed out to shareholders, is the main source of corporate investment, this shift has badly weakened firms' ability to invest, especially in long-term projects.

	(A)	(B)	(C)
①	which	has	that
②	in which	have	which
③	in which	has	which
④	which	have	which
⑤	in which	has	t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Over time, however, the author learned to ① appreciate, and then to love deeply, the rich mix of flavours, smells and sensations that South Asian cooking draws from a huge range of spices – coriander seeds, cumin, cloves, nutmeg, cardamom, tamarind and many more. Today he calls himself a spice ② fiend. Still, at home he cooks ③ simplified versions of South Asian dishes, relying mainly on cumin, fennel seeds and ground coriander seeds, because he finds the full authentic range of spices a little ④ inviting and unnecessary – especially since excellent South Asian food is ⑤ readily available from restaurants and as ready-made meals. His favourite drink is masala chai, a sweet tea made by boiling milk with ginger, cardamom and other spic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Yet this once-powerful engine of economic progress has lately been turning into a barrier to it. Decades of financial deregulation have opened up so many chances to make money elsewhere that shareholders no longer stay loyal for long to the firms they legally own. In the UK, for instance, the average time a share is held used to be five years in the 1960s but is now under a year. Can people who will not leave their money in a company even for a year truly claim a share in owning it? In the author's view, shareholders like these _____.

① are owners more in name than in reality
② care more about their firms' future than ever
③ hold shares longer than investors did in the 1960s
④ have lost their legal claim to the firms
⑤ must sell their shares within a year by law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He did so, however, with an ulterior motive: the faster capitalism developed, he believed, the sooner socialism would come.

Many people doubted limited liability, even for exceptional ventures. (①) Adam Smith, whom the author calls the father of economics, attacked it for allowing managers to gamble with 'other people's money'. (②) Since such managers did not own the whole firm, he argued, they would take too much risk, never bearing the full cost of failure. (③) The author grants that this is true, but limited liability also lets capital be raised on a far larger scale. (④) That is why even Karl Marx, capitalism's fiercest critic, praised such companies as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t production. (⑤) This motive came from his theory that socialism can arrive only once capitalism is fully developed.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When the author first tried South Asian food, he complained to his friends that it lacked 'body'. ① He suspects he was unconsciously missing umami – the soy sauce and garlic he was used to. ② Looking back, though, he thinks he simply could not cope with the complex, unfamiliar sensations of so many spices. ③ Before coming to Britain, he had known only five spices and had seen just three of them in raw form. ④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set up in 1600, eventually ran colonies in India. ⑤ He had eaten Chinese five-spice pork a few times but, not caring for it, never found out which spices it contained.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rewards of the spice trade were fabulous, but given the risks, investors were reluctant to put their money into it.

(A) The answer was limited liability. Investors were promised that they could lose no more than what they had put into a venture – their 'shares' – rather than all their property. This sharply cut the risk, so those organizing such ventures could raise vast sums from many investors.

(B) Worse still, if a venture failed, investors could lose not only their investment but also their house, furniture and even pots and pans, since they had to pay back all their debts. Their liability, in other words, was unlimited.

(C) Failure could even cost a businessman his freedom: if he still owed his creditors after selling everything he had, he was thrown into a debtors' prison.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third and final reform the author proposes concerns the choices open to shareholders. If shareholders are to care about where the companies they hold shares in will be in the long run, their options must be narrowed. This can be achieved by making financial rules stricter for the most speculative kinds of financial products. With fewer chances to make a 'quick buck', shareholders would have more reason to stay with a company for many years. Together with rewarding long-term shareholders and giving stakeholders a bigger say, such a change is part of the reform of limited liability and the institutions around it that the author calls for.

→ By (A) _____ the regulation of highly speculative financial products, we can make quick profits harder to come by and so give shareholders a stronger (B) _____ to stay with companies for the long term.

① tightening ..... incentive
② loosening ..... incentive
③ tightening ..... reluctance
④ loosening ..... freedom
⑤ abolishing ..... reluctanc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Before coming to Britain, the author knew only five spices. On his first visit to Italy, in 1987, Italian food did not even feel 'foreign' to him, while South Asian food took him far longer to love. Europe's hunt for spices led to firms such as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set up in 1600.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imited liability was a privilege reserved for risky ventures of national importance, not a right. Adam Smith, called 'the father of economics' by the author, condemned such companies. Recently, 90–95% of corporate profit in the UK and the US has gone to shareholders, so the author calls for stronger 'tenure voting', which links voting rights to how long shares are held.

<QUIZ>

(1) How many spices did the author know before he came to Britain?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country did the author not even feel he was eating 'foreign' food on his first visit in 1987?

Answer for (2): _____

(3) In which year was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set up?

Answer for (3): _____

(4) Whom does the author call 'the father of economics'?

Answer for (4): _____

(5) What share of corporate profit has recently gone to shareholders in the UK and the US?

Answer for (5): _____

(6) What is the practice of linking voting rights to how long shares are held called?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limited liability was a right for all businesses befor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90–95%	N. 1987
B. 1602	O. Thailand
C. three	P. Nisha Katona
D. False	Q. six
E. Greece	R. tenure voting
F. Karl Marx	S. 1600
G. less than half	T. Adam Smith
H. dividends	U. Italy
I. True	V. Indonesia
J. twenty	W. stakeholders
K. Sri Lanka	X. 1960s
L. share buybacks	Y. two years
M. five	Z. Columbu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앞 문장에 이어) 나는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02 나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감칠맛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03 영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향신료를 다섯 가지밖에 몰랐다. (과거완료)

04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향신료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이어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come to V 병렬)

05 내가 향신료를 쓰는 것은 남아시아 요리만이 아니다. (It is ~ for which 강조)

06 우리가 팔각과 회향 씨를 썼더라면 한국 음식은 더 세련되었을 것이다.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07 덜 알려진 사실은 향신료 탐색이 우리에게 주식회사도 주었다는 것이다. (보어 도치 / 동격 that)

08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가는 개인의 자유까지 잃을 수 있었다. (동명사 주어 / cost + IO + DO)

09 그렇게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 같은 회사들이 시작되었다. (So + 동사 + 주어 도치)

10 그들 가운데에는 경제학의 아버지 Adam Smith가 있었다. (부사구 + 동사 + 주어 도치)

11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다른 요리는 망칠 수 있다. (may A but B / one ~ another)

12 유한 책임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 ever + 현재완료)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의 요리([제목])	
한국 음식 없이 거뜬히 지낼 수 있는 기간	
유일하게 그리운 음식 / 그리워지는 데 걸리는 기간	
'인도' 식당의 방글라데시계 / 실헷 출신	
타이 음식을 처음 먹은 때 · 곳	
이탈리아 첫 방문	
영국에 오기 전 알던 향신료	
오향 돼지고기의 다섯 향신료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 크럼블 속	
치즈 토스티 조리법의 주인	
향신료의 맛을 놓치고 산 기간	
'동인도'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향신료 넷	
향신료 무역에 견준 오늘날의 일	
영국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립	

항목	답
유한 책임이 특권이던 시기	
유한 책임 회사를 비난 / 칭송한 사람	
영국 평균 주식 보유 기간	
배당 ·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간 이윤	
보유 기간 연동 의결권 / 상한의 예	
금융화 시대의 유한 책임	

4-3. 통합 사고 문제 — 14장과 15장을 잇는 자리

문제

14장에서 저자는 시장에 맡기면 기후 위기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많은 것이 개발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민간 기업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기 실적을 내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기 때문이고 이 경향은 금융 규제 완화로 더 심해졌다고 쓰고 「Spices」를 참조하게 했다(112쪽 ¶2). 또 수익이 수십 년 뒤에야 돌아오는 '녹색' 기술 앞에서 민간 기업은 몇 년, 어쩌면 분기 단위의 시야로 움직여 투자를 꺼린다고 했다(112쪽 ¶2). 15장에서 저자는 영국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960년대 5년에서 오늘날 1년 미만으로 줄었다고 했고(118쪽 ¶2), 이윤의 90~95%가 주주에게 가면서 기업의 투자 능력, 특히 수익이 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사업에 투자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며 「Lime」을 참조하게 했다(118쪽 ¶3). 이를 바탕으로, 아래 118쪽 ¶2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c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14장과 15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4장 또는 15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주주가 회사에 머물지 않는 까닭: Financial deregulation in the last few decades has created so many financial opportunities that shareholders no longer have long-term _____ to companies they legally own.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6 STRAWBERRY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Strawberry」 (원서 PDF 120~12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딸기 따는 로봇은 정말 일자리를 없애는가."

이 장은 저자의 아내가 만드는 딸기 '우유'로 시작한다. 딸기는 식물학으로는 베리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베리이고, 숨어 있고 무른 열매라 수확에 손이 많이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이 '악마의 과일'이라 부르며 딴다. 이제 기계화의 마지막 전선인 딸기 수확까지 로봇이 넘보면서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부분 없앨 것이라는 공포가 퍼지지만, 저자는 250년 동안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도 왔고 사회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저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실업 급여 · 재훈련 · 구직 지원 같은 국가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딸기가 베리가 아닌데도 '그' 베리가 되었듯, 자동화도 일자리의 '그' 파괴자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1장(호밀)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실직자에게는 국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124쪽 ¶2~¶3) / 자동화는 '그' 일자리 파괴자가 아니다 — 있는 그대로 보자(124쪽 ¶4~125쪽 ¶1) / 지금까지 자동화의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았다(122쪽 ¶5 · 123쪽 ¶4~124쪽 첫 줄) /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123쪽 첫 줄)
4~5	**밑줄 함축 의미**	'the' berry / la fruta del diablo, the fruit of the devil / the final frontier of agricultural automation / class hypocrisy / 'Luddites' / does not only destroy jobs, it also creates them / 'higher' needs / i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 laughed in your face / no consolation / effective (not just cosmetic) help / see automation for what it is
6	지칭 추론	they · They(121쪽 ¶2 = strawberries) / They(121쪽 ¶3 셋째 문장 = 대부분의 농장) / whom(121쪽 ¶4 =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 / they(121쪽 ¶5 끝 = 미등록 노동자) / they(122쪽 ¶3 = blue-collar workers) / they(122쪽 ¶4 = 평론가 계층) / she · he(124쪽 ¶1 = 영국 여성 · 일본 기계공) / It · its(124쪽 ¶2 = automation) / They(124쪽 ¶3 = displaced workers)
7~8	내용 일치·불일치	베리인 것 · 아닌 것(120쪽 ¶1 · 125쪽 각주 i) / Eton mess(allegedly) / 125쪽 각주 ii~vi / 80% 이상 · 약 70% · 적어도 절반 · 4~5인치 · 8~12인치 · 10~12시간 · 절반가량 · 1880년대 · 2017 · 1771 · 1785 · 250년 · 98% · 4배 · 1930년대 · 최대 80% · 1900 · 1950 · 1951 · 50년
9~10	**어법**	Neither + 동사 + 주어 · only to V · 형용사 + enough to V · 접속사 남긴 분사구문 · together with + 단수 동사 · the only way ~ was to V · too ~ to V · 계속적 which · 수량 표현 + of whom · call + O + C · given + 명사 · on the cusp of -ing · 보어 도치 · find it easy to V · go as far as -ing · keep A from -ing · with + O + 전치사구 · It is ~ that 강조 · then + 동사 + 주어 도치 · 강조의 does · if not · Only when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tart↔sweet · adventurous↔cautious · labour-intensive↔capital-intensive · viable↔unviable · excruciating↔mild · harsh↔gentle · improving↔declining · heighten↔reduce · chide↔praise · belatedly↔promptly · obsolete↔up-to-date · cosmetic↔substantial
12	빈칸 추론	자동화의 간접 창출 — 한 곳에서 없앤 일자리가 다른 곳에서 생김(123쪽 ¶2) / given the judgement … and the delicacy(122쪽 첫 줄) / Bessen — 직조 노동 98% 감소인데 직조공 4배(123쪽 ¶1) / without a range of state support(124쪽 ¶3)
13	문장 삽입	제철 밖의 딸기(120쪽 ¶4~121쪽 ¶1): 수입 · 온실 → (그 둘이 비쌌다 → 잼) → 다른 과일의 잼 → 토스트 · 스콘 · 홍차 — 지시어(these practices)가 단서
14	무관한 문장	베리의 식물학적 정의(120쪽 ¶1 · 125쪽 각주 i)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딸기 수확 로봇, 122쪽 ¶1)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이번엔 다르다?'(124쪽 ¶1): 반론과 기술 진보의 본성 → 1900년 영국 여성 → 1950년 일본 기계공 → 50년 뒤 — 연도의 흐름과 Likewise가 단서
16	요약문 완성	정책으로 만드는 일자리(123쪽 ¶3): 1930년대 이후의 정부 지출 · 휴직 제도(최대 80%) · 인력 기준 규제 → 사회가 함께 정해 일자리를 늘린다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주 · 나라 · 연도 · 비율 · 배수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80% 이상(캘리포니아의 미국 딸기 생산 비중) · 약 70%(멕시코 출생 농업 노동자) · 적어도 절반(그중 미등록) · 4~5인치(포기) · 8~12인치(두둑) · 하루 10~12시간 · 절반가량(미등록 노동자의 임금) · 1880년대(콤바인) · 20세기 초(트랙터) · 2017(FT) · 1771(Arkwright) · 1785(Evans) · 250년 · 98%(직조 노동 감소) · 4배(직조공) · 1930년대 · 최대 80%(영국 휴직 제도) · 1900 · 1950 · 1951(Player Piano) · 50년 뒤 · 2020년 9월 8일(Guardian). 80%는 두 번 나온다 — 캘리포니아의 딸기 생산 비중(80% 이상)과 영국 휴직 제도의 임금 지급(최대 80%). 나라 · 지역과 인물도 많다(캘리포니아 · 멕시코 · 영국 · 미국 · 러시아 · 일본 · 스웨덴 · 핀란드 · Devon · Cornwall · James Bessen · Richard Arkwright · Oliver Evans · Kurt Vonnegut).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베리 ↔ 베리 아님, 연유를 좋아함 ↔ 크림을 좋아함, 진짜 딸기 있음 ↔ 없음, 80% 이상 ↔ 70%, 절반가량 ↔ 같은 임금, 판단 · 섬세함 ↔ 힘, 아직 사람만 못함 ↔ 사람보다 나음, 직조 노동 98% 감소 ↔ 직조공 4배 증가, 순 파괴자 ↔ 아님, 기술이 일자리 수를 완전히 정함 ↔ 사회가 만들 수 있음). 전언(allegedly — Eton mess) · 짐작(presumably) · 가능성(may · could)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저자의 판단(suggests — 지금까지 부정적이지 않음)을 '자동화는 결코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로 넓힌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Strawberry」 (120~125쪽)

논증형(베리가 아닌 딸기 → 그래도 '그' 베리 · '그' 잼 → 노동 집약적인 수확 → 값싼 이민 노동 · '악마의 과일' → 기계화를 버틴 딸기 수확 → 로봇의 등장과 일자리 공포 → 평론가 계층의 위선 →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 정책 · 규제로 만드는 일자리 → 지금까지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음 → '이번엔 다르다?' → 실직자에 대한 국가 지원 → 결론: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보자). 핵심 축은 **자동화가 없애는 일자리 vs 만드는 일자리**, 그리고 **기술이 정하는 일자리 수 vs 사회가 만드는 일자리**.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0 [제목]	요리	딸기 '우유'(저자의 아내 Hee-Jeong의 요리) — 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함
120 ¶1	도입	과학적 정의로 딸기는 베리가 아님 · 포도 · 바나나 · 토마토 · 고추 등이 베리 / 125쪽 각주 i: 베리의 정의 · 딸기는 집합과
120 ¶2	'그' 베리	식물학과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에게 '그' 베리 · 연유(저자) · 발사믹 식초 · 후추 · 크림(저자는 싫어함)
120 ¶3	디저트	케이크 · 타르트 ·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 · Eton mess · strawberry trifle
120 ¶4~121 첫 줄	'그' 잼	수입 · 온실 재배가 비쌌던 몇십 년 전까지 제철 밖의 딸기 = 잼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1 ¶1	잼의 쓰임	토스트 · 샌드위치 · 크레프 · 스콘과 클로티드 크림(Devon · Cornwall 논쟁에 중립) · 러시아의 홍차
121 ¶2	전환: 노동 집약	잎 사이에 숨어 있고 물러서 수확에 시간이 듦
121 ¶3	부자 나라의 해법	높은 노동 비용 → PYO(일부 작은 농장) · 값싼 이민 노동자
121 ¶4	캘리포니아	미국 딸기의 80% 이상 · 농업 노동자 약 70%가 멕시코 출생 · 그중 적어도 절반 미등록
121 ¶5	'악마의 과일'	가장 박봉이고 힘든 농사일 가운데 하나 · 낮은 포기 · 하루 10~12시간 · 미등록 노동자는 절반가량의 임금 · 학대
122 첫 줄	기계화의 예외	농업은 고도로 기계화(각주 iii) · 딸기 수확은 판단 · 섬세함 때문에 버팀
122 ¶1	로봇의 등장	딸기 따는 로봇의 상업화 직전 · 농업 자동화의 마지막 전선
122 ¶2	일자리 공포	로봇 ·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공포 · FT 프로그램(2017)
122 ¶3~¶4	계급적 위선	블루칼라의 저항을 꾸짖던 평론가들이 화이트칼라가 위협받자 뒤늦게 겁냄 · '러다이트'
122 ¶5~123 첫 줄	반론	250년 동안 대규모 일자리 파괴는 없었음 ·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함
123 ¶1~¶2	직접 · 간접 창출	로봇 엔지니어 · Bessen(직조 노동 98% 감소 · 직조공 4배) / 여행 산업 · 생산성 → 새 수요
123 ¶3~124 첫 줄	정책 · 판단	정부 지출 · 휴직 제도(최대 80%) · 규제 / 지금까지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음
124 ¶1~¶3	'이번엔 다르다?' · 지원	1900 영국 여성 · 1950 일본 기계공 · CNC / 실직자의 고통 → 실업 급여 · 재훈련 · 구직 지원
124 ¶4~125 ¶1	결론	자동화는 '그' 파괴자가 아님 ·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기술 공포증과 절망 극복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딸기의 정체	식물학 – 베리가 아님(꽃받기에서 자란 집합과)	사람들 – '그' 베리
베리라는 이름	베리라 불리지만 베리가 아님 – 딸기 · 블랙베리 · 라즈베리	베리라 불리지 않지만 베리 – 포도 · 바나나 · 토마토 · 가지 · 고추 등
딸기 먹는 법(저자의 취향)	좋아함 – 연유 · tarte aux fraises · 스콘과 클로티드 크림	좋아하지 않음 – 크림을 부은 딸기(영국 여름 가든파티)
제철 밖의 딸기	몇십 년 전까지 – 수입 · 온실 재배가 비쌈 → 잼	요즘 – 수입 · 온실 재배로 계절성 극복
과일 수확	사과 · 포도 – 잎에 가려지지 않음	딸기 – 잎에 숨음 · 물러서 멍듦 → 노동 집약
노동자의 처지	멕시코 출신 노동자 대부분 – 박봉 · 가혹한 조건	그중 미등록 노동자 – '합법' 노동자 임금의 절반가량 · 학대 · 경찰에 못 감
농업의 기계화	대부분의 농사 – 쟁기 · 괭이 · 낫 → 트랙터 · 콤바인 · 드론	딸기 수확 – 지금까지 버팀(판단 · 섬세함) → 로봇이 상업화 직전
평론가 계층의 태도	자기 일자리가 안전할 때 – 블루칼라를 '러다이트'라 비난	화이트칼라가 위협받자 – 뒤늦게 실업 · 기술의 영구적 쓸모없어짐을 두려워함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자동화와 일자리	없앰 — 딸기 따기 · 여행사 · 직조 노동 98%	만듦 — 로봇 엔지니어 · 예약 사이트 · Airbnb · 소규모 투어 · 직조공 4배 · 새 수요
일자리 수의 결정	기술 — 일자리 수를 완전히 정하지는 않음	사회의 선택 — 재정 정책 · 노동 시장 정책 · 규제
실직자의 재취업	이론(자유시장 경제학) — 재훈련해 새 일자리를 얻음	현실 — 국가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움 · 실업 급여 · 저렴한 재훈련 · 구직 지원
'그' ~	딸기 — 베리가 아닌데도 '그' 베리	자동화 — 순 파괴자가 아닌데도 '그' 일자리 파괴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Strawberry 'milk' ([제목])	저자의 아내 Hee-Jeong의 요리 · 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함
베리의 분류(120쪽 ¶1)	과학적 정의로 딸기 · 블랙베리 · 라즈베리는 베리가 아님 / 포도 · 블랙커런트 · 바나나 · 오이 · 토마토 · 가지 · 수박 · 고추는 베리 / 크랜베리 · 블루베리 · 구스베리는 과학적으로도 베리
125쪽 각주 i	베리 = 씨방 하나를 가진 꽃 한 송이에서 생긴, 씨(핵)가 없는 과육 많은 열매 / 딸기는 씨방이 아니라 씨방을 받치는 꽃받기에서 자람 → '집합과(aggregate fruit)'
딸기 먹는 법	제철의 가장 좋은 딸기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달고 맛있음 · 제철 밖에는 조금 시큼 / 설탕 또는 연유(저자는 연유가 더 낫다고 봄) · 발사믹 식초 · 후추 / 영국 여름 가든파티: 크림을 부은 딸기(저자는 좋아하지 않음)
딸기 디저트	케이크 · 치즈케이크 · 타르트(저자는 tarte aux fraises를 특히 좋아함) / 바닐라 · 초콜릿과 함께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 —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에는 진짜 딸기가 없음
영국 디저트	Eton mess(딸기 · 부순 머랭 · 크림 / 영국 정치 엘리트를 길러 낸 사립학교 Eton College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짐**) · strawberry trifle(딸기 · 커스터드 · 셰리에 적신 스펀지 핑거 · 논란의 딸기 맛 젤리 · 크림)
제철 밖의 딸기	요즘: 다른 기후 지역의 수입 · 온실 재배 / 몇십 년 전까지는 비쌌음 → 잼이 유일한 길 / 라즈베리 · 복숭아 · 살구 잼도 있지만 딸기잼이 '그' 잼
딸기잼의 쓰임	버터 바른 토스트(가장 흔함) · 영국 잼 치즈 샌드위치 · 크레프 · 땅콩버터 딸기잼 샌드위치(저자 가족의 PB&J 변형, 「Banana」) · 스콘 + 클로티드 크림(저자가 꼽는 최고) · 러시아: 홍차에 넣어 단맛 · 타닌 맛 상쇄
125쪽 각주 ii	Devon 방식 = 크림 먼저 · Cornwall 방식 = 잼 먼저 / 저자는 엄격한 중립(둘 다 괜찮음)
노동 집약적인 수확(121쪽 ¶2~¶3)	사과 · 포도와 달리 잎 사이에 숨어 있어 찾는 데 시간 · 물러서 멍들기 쉬움 / 부자 나라: 큰길에서 가까운 작은 농장의 PYO(pick your own) — 대부분 농장엔 해법 아님 → 값싼 이민 노동자
캘리포니아(121쪽 ¶4)	미국 최대 농업 주 · 미국 딸기 생산의 **80% 이상** · 값싼 노동은 주로 멕시코에서 / 농업 노동자 약 **70%**가 멕시코 출생 · 그중 **적어도 절반**이 미등록(불법 취업)
la fruta del diablo	'악마의 과일' —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박봉이고 가장 힘들어 가장 꺼리는 농사일 가운데 하나 / 포기 **4~5인치** · 두둑 **8~12인치** → 늘 허리를 굽힘 · 하루 **10~12시간** · 몇 주씩 → '극심한 통증과 평생 장애를 부를 수 있음'(인용)
노동자의 처우	대부분 박봉 · 가혹한 조건 / 미등록 노동자: '합법' 노동자 임금의 **절반가량** · 학대 · 경찰에 갈 수 없음을 고용주가 앎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농업 기계화(125쪽 각주 iii)	지난 두 세기 · 소 · 말 쟁기 · 괭이 · 낫 → 트랙터 · 콤바인 · 드론 / 각주 iii: 말이 끄는 기계 19세기 들머리 · 콤바인(수확기 + 탈곡기) **1880년대** · 내연 기관 트랙터 **20세기 초** · 드론 = 작물 · 가축 · 관개 감시
딸기 수확 로봇	판단(숨은 곳 · 익은 정도) · 섬세함(멍) 때문에 기계화를 버팀 → 상업화 직전(라즈베리 · 토마토 · 상추도) · 여러 회사가 개발 · 아직 사람만큼은 아님 · 농업 자동화의 '마지막 전선'
일자리 공포(122쪽 ¶2)	로봇이 대부분의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뉴스 · AI는 손과 근육만이 아니라 뇌까지 대체 / Financial Times 'Can a robot do your job?'(**2017년**)
125쪽 각주 iv · v	iv: Richard Arkwright(영국 발명가) 수력 방적 공장('water frame') **1771년** · Oliver Evans(미국 기술자) 자동화 제분소 **1785년** / v: AI가 간단한 기사 · 스포츠 하이라이트 · GPT-3의 Guardian 기사(**2020년 9월 8일**)
계급적 위선(122쪽 ¶3~¶4)	자동화로 인한 실직 = 적어도 250년 동안 자본주의의 한결같은 특징 / FT류 필자들이 블루칼라를 '러다이트'(19세기 초 직물 기계를 부순 영국 직물 장인)라 비난 → 의료 · 법률 · 회계 · 금융 · 교육 · 언론이 위협받자 뒤늦게 두려워함
자동화의 일자리 창출(123쪽 ¶1~¶2)	직접: 로봇 엔지니어 · 로봇 · 부품 생산 노동자 / 값이 내려 수요 증가 → James Bessen: 19세기 미국 직조 노동 **98%** 감소 · 직조공 **4배** / 간접: 예약 사이트 · Airbnb · 소규모 전문 투어 / 생산성 · 1인당 소득 → 고등 교육 · 오락 · 패션 · 그래픽 디자인 · 미술관
정책으로 만드는 일자리(123쪽 ¶3)	적어도 **1930년대**부터 경기 하강기에 정부 지출 확대 / 코로나19: 영국 '휴직 제도(furlough scheme)' 임금의 최대 **80%** / 규제: 학생당 교사 · 환자당 의사 · 간호사 · 요양원 거주자당 돌봄 인력(「Chilli」)
'이번엔 다르다?'(124쪽 ¶1)	**1900년** 영국 중상류층 여성(하녀의 일) → 세탁기 · 진공청소기 · 전자레인지 · 냉장고 · 즉석식품 기계 / **1950년** 일본 기계공(컴퓨터가 제어하는 선반) → CNC / **50년** 뒤 사람들은 화이트칼라 일을 자동화할 수 없다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125쪽 각주 vi	Kurt Vonnegut(미국 SF 작가) · **1951년** 소설 Player Piano — CNC 기계 덕분에 육체노동이 필요 없는 번영의 세계 · 소수의 관리자 · 기술자 · 과학자 말고는 대부분 비참(할 일이 없고 사회에 쓸모없다고 느낌)
실직자 지원(124쪽 ¶3)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가정: 재훈련하면 됨 · 실업은 시세 임금으로 일하기 싫어서 / 현실: 국가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움 · 실업 급여 · 소득 지원 · 저렴한 재훈련(정부 보조금) · 실질적 구직 지원(스웨덴 · 핀란드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결론(124쪽 ¶4~125쪽 ¶1)	딸기가 '그' 베리가 됐듯 자동화도 '그' 일자리 파괴자로 여겨짐 · 순 파괴자가 아님 · 재정 · 노동 시장 정책 · 규제로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기술 공포증과 젊은 세대의 절망을 넘자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Strawberry」 (원서 PDF 120~12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6-1 베리가 아닌 '그' 베리 — 딸기를 먹는 여러 방법 120쪽 ¶1~¶3

원문 위치 원서 120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0쪽 [제목]	Strawberry 'milk' (recipe by Hee-Jeong, my wife)	저자 아내의 요리 — 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함
★	120쪽 ¶1 첫 문장	Strawberry is not a berry – according to the scientific definition	장 전체 비유의 출발 · 125쪽 각주 i
▲	120쪽 ¶1 둘째 문장	Neither are blackberries or raspberries	Neither + 동사 + 주어 도치
★	120쪽 ¶1 셋째 문장	Botanically, grape, blackcurrant, banana, cucumber, tomato, aubergine, watermelon and chilli are berries	베리인 것 — 일치(고추도 베리 · 「Chilli」)
★	120쪽 ¶1 다섯째 문장	There are berries that are scientifically berries too – cranberry, blueberry and gooseberry	이름도 실제도 베리 — 일치
▲	120쪽 ¶1 여섯째 문장	toiled away and (presumably) debated with each other, only to come up with a scientific category called 'berry'	only to V(결과) · presumably = 저자의 짐작
◆	125쪽 각주 i	a fleshy fruit without a stone (pit), produced from a single flower containing one ovary … 'aggregate fruit'	베리의 정의 · 딸기는 꽃받기에서 — 무관 문항의 바탕
◆	120쪽 ¶2 첫 문장	Whether or not it is botanically a berry, strawberry is 'the' berry for most people around the globe	whether or not · 124쪽 ¶4 결론의 비유와 짝
▲	120쪽 ¶2 둘째 문장	the best strawberries are sweet and flavourful enough to be eaten on their own	형용사 + enough to V · 수동 부정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0쪽 ¶2 넷째 문장	People sweeten them with sugar or (better yet, in my view) condensed milk	저자의 취향 — 일치
▲	120쪽 ¶2 다섯째 문장	The more adventurous eat strawberries with balsamic vinegar or black pepper – or both	the + 형용사 = 사람들 · 어휘(adventurous)
★	120쪽 ¶2 여섯째 문장	When invited to attend a summer garden party in Britain, expect to be served strawberries with cream poured over them	분사구문 · with + O + p.p. · 저자는 이 조합을 싫어함
★	120쪽 ¶3 둘째 문장	Strawberry, together with vanilla and chocolate, forms the Holy Trinity of ice cream flavours ... do not have any real strawberry in them	together with + 단수 동사 · 진짜 딸기 없음
◆	120쪽 ¶3 셋째 문장	Eton mess (... allegedly invented in Eton College ...) and strawberry trifle	allegedly = 전언 — 사실로 단정 금지

내용

이 장은 저자의 아내 Hee-Jeong이 만드는 딸기 '우유' — 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한 것 — 로 시작한다. 과학적 정의에 따르면 딸기는 베리가 아니다(125쪽 각주 i: 식물학에서 베리는 씨방 하나를 가진 꽃 한 송이에서 생긴, 씨(핵)가 없는 과육 많은 열매다. 딸기는 씨방이 아니라 씨방을 받치는 꽃받기에서 자라며 '집합과'라는 하위 범주에 속한다). 블랙베리와 라즈베리도 베리가 아니다. 식물학적으로는 포도, 블랙커런트, 바나나, 오이, 토마토, 가지, 수박, 고추가 베리다. 걱정할 것은 없다. 크랜베리, 블루베리, 구스베리처럼 과학적으로도 베리인 베리도 있다. 그래도 식물학의 뛰어난 학자들이 애써 연구하고 (아마) 서로 논쟁까지 한 끝에, 베리라 불리지만 베리가 아닌 것과 베리라 불리지 않지만 베리인 것이 이토록 많은 '베리'라는 과학적 범주를 내놓았을 뿐이라니 의아해진다. 식물학적으로 베리이든 아니든, 딸기는 세계 대부분 사람에게 '그' 베리다. 제철에 나는 가장 좋은 딸기는 그것만 먹어도 될 만큼 달고 맛있지만, 다른 때에는 대개 조금 시큼하다. 사람들은 설탕이나 (저자가 보기에 더 좋은) 연유로 단맛을 더한다. 더 모험심 있는 사람들은 딸기를 발사믹 식초나 후추와, 또는 둘 다와 함께 먹는다. 영국의 여름 가든파티에 초대받으면 크림을 부은 딸기를 대접받을 각오를 하라(영국 친구 몇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저자는 이 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딸기로 케이크, 치즈케이크, 타르트(저자는 프랑스의 tarte aux fraises를 특히 좋아한다) 같은 온갖 단것을 만든다. 딸기는 바닐라, 초콜릿과 함께 세계 어디서나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를 이루지만,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에는 진짜 딸기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영국 사람들은 특히 딸기 디저트에 창의적이다. Eton mess(딸기, 부순 머랭, 크림을 섞은 것으로, 영국 정치 엘리트를 길러 낸 것으로 유명한 사립학교 Eton College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와 strawberry trifle(딸기, 커스터드, 셰리에 적신 스펀지 핑거 비스킷, 그리고 논란거리인 딸기 맛 젤리를 섞고 크림을 한 층 얹은 것)이 그 예다.

어법

- **Strawberry is not a berry – according to the scientific definition. Neither are blackberries or raspberries.** : 부정문 뒤 Neither + 동사 + 주어(도치) = ~도 아니다. 동사 are는 뒤의 복수 주어(blackberries or raspberries)에 맞춘다.
- **you wonder why some of the best minds in botany toiled away and (presumably) debated with each other, only to come up with a scientific category called 'berry'** : why ~ = 간접의문문(wonder의 목적어). only to V = 결과(애썼지만 결국 ~했을 뿐). called 'berry' = category를 꾸미는 과거분사.

- **when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are called berries that are not, and so many things that aren't that are** : 앞의 that = 주격 관계대명사(things를 꾸밈), 뒤의 that are not = 그런데 (베리가) 아닌. that aren't (called berries) that are (berries)처럼 반복되는 말이 생략되었다.
- **Whether or not it is botanically a berry, strawberry is 'the' berry for most people around the globe** : whether or not ~ = ~이든 아니든(양보의 부사절). 따옴표를 친 'the' = 대표적인, 바로 그.
- **In their natural season, the best strawberries are sweet and flavourful enough to be eaten on their own** : 형용사 + enough to V(enough는 형용사 뒤). to be eaten = 수동 부정사(딸기가 먹히는 것). on their own = 그것만으로.
- **The more adventurous eat strawberries with balsamic vinegar or black pepper – or both** : the + 형용사(비교급) = ~한 사람들(복수 취급 → 동사 eat).
- **When invited to attend a summer garden party in Britain, expect to be served strawberries with cream poured over them** : When (you are) invited =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 expect to be served + 사물 = serve A B의 수동(대접받다). with + O + p.p.(cream poured) = 크림이 부어진 채로.
- **Strawberry, together with vanilla and chocolate, forms the Holy Trinity of ice cream flavours** : together with ~는 주어에 더하지 않으므로 주어 Strawberry(단수) → forms(form은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otanically	식물학적으로	–	–
toil away	애써 일하다	labour	idle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probably	–
category	범주	class	–
flavourful	맛이 풍부한	tasty	bland
tart	시큼한	sour	sweet
sweeten	달게 하다	sugar	–
adventurous	모험심 있는	daring	cautious
confess	고백하다	admit	deny
inventive	창의적인	creative	unimaginative
allegedly	전해지는 바로는	supposedly	–
controversially	논란이 되게도	–	–
fleshy	과육이 많은	pulpy	–

내용 일치 딸기 '우유' = 저자의 아내 Hee-Jeong의 요리(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함) / 과학적 정의로 딸기 · 블랙베리 · 라즈베리는 베리가 아님 · 포도 · 블랙커런트 · 바나나 · 오이 · 토마토 · 가지 · 수박 · 고추는 베리 · 크랜베리 · 블루베리 · 구스베리는 과학적으로도 베리 / 각주 i: 베리 = 씨방 하나를 가진 꽃 한 송이에서 생긴 씨 없는 과육 많은 열매 · 딸기는 꽃받기에서 자란 '집합과' / 대부분 사람에게 '그' 베리 · 제철의 가장 좋은 딸기는 그것만으로 달고 맛있음 · 제철 밖에는 조금 시큼 · 설탕 또는 연유(저자는 연유가 더 낫다고 봄) · 발사믹 식초 · 후추 · 영국 여름 가든파티의 크림 부은 딸기(저자는 좋아하지 않음) / 케이크 · 치즈케이크 · 타르트 ·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바닐라 · 초콜릿 · 딸기) ·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엔 진짜 딸기 없음 / Eton mess(Eton College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짐) · strawberry trifle. **밑줄 의미** 'the' berry = 식물학의 분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 베리 – 124쪽 ¶4에서 자동화의 비유로 다시 쓰임 / only to come up with = 애쓴 끝에 겨우 혼란스러운 범주를 내놓았을 뿐(저자의 가벼운 풍자) / (presumably) = 논쟁했으리라는 저자의 짐작 / at the risk of losing a few English friends = 영국 사람들이 즐기는 조합을 싫다고 말하는 부담 / allegedly =

전해지는 말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님 / 지칭: 120쪽 ¶2 it(Whether or not it is) = strawberry · their(natural season) · they · them(sweeten them · poured over them) = strawberries / 120쪽 ¶3 them(in them) =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

> **한 줄 요약** 딸기는 식물학적으로 베리가 아니지만 세계 대부분 사람에게 '그' 베리이며, 연유 · 크림과 곁들이거나 케이크 · 타르트 · 아이스크림 · 영국식 디저트로 즐긴다.

16-2 제철 밖의 딸기 – '그' 잼이 된 딸기잼 120쪽 ¶4 ~ 121쪽 ¶1

원문 위치 원서 120쪽 ¶4 ~ 121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0쪽 ¶4 첫 문장	the seasonality of strawberry is overcome by imports from different climes or cultivation in greenhouses	현재 수동 · 삽입 문항의 these practices가 가리키는 말
◆	120쪽 ¶4 둘째 문장 (121쪽 첫 줄까지)	until a few decades ago these practices were expensive, so for most people the only way to taste strawberry outside the season was to make it into jam	지시어 these practices · the only way ~ was to V
★	121쪽 첫 줄 둘째 문장	There are jams made with other fruits (such as raspberry, peach or apricot), but for most people strawberry jam is 'the' jam	'그' 잼 – '그' 베리와 짝
▲	121쪽 ¶1 첫 문장	On top of buttered toast is where strawberry jam is most frequently found	전치사구 주어 + where 명사절 보어
★	121쪽 ¶1 둘째 문장	British jam-and-cheese sandwich, folded French crêpe, or peanut butter and strawberry jam sandwich – my family's variation on the American classic PB&J	잼의 쓰임 – 일치 · 「Banana」
★	121쪽 ¶1 셋째 문장	The best use of strawberry jam for me is to put it on top of British scones, together with clotted cream	저자의 취향 · to부정사 보어
◆	121쪽 ¶1 셋째 문장 괄호	I am declaring strict neutrality regarding the Devon–Cornwall war on the order of jam and cream	125쪽 각주 ii: Devon = 크림 먼저 · Cornwall = 잼 먼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1쪽 ¶1 넷째 문장	Russians put strawberry jam (and other fruit jams) in their tea, to sweeten it and to counter the tannic taste of tea	목적의 to부정사 병렬 · 어휘(counter)
▲	121쪽 ¶1 넷째 문장	I've grown too fond of British tea with milk to have my tea with fruit jam, other than as an occasional diversion	grow + 형용사 · too ~ to V · other than

내용

요즘은 다른 기후 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입이나 온실 재배로 딸기의 계절성을 극복한다. 그러나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방법은 비쌌으므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제철이 아닐 때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은 딸기를 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라즈베리, 복숭아, 살구처럼) 다른 과일로 만든 잼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딸기잼은 '그' 잼이다. 딸기잼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버터 바른 토스트 위다. 그러나 딸기잼은 빵 같은 것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영국의 잼 치즈 샌드위치, 접은 프랑스 크레프, 그리고 미국의 고전인 PB&J, 곧 땅콩버터와 (포도) 젤리 샌드위치를 저자 가족이 바꾼 땅콩버터 딸기잼 샌드위치가 그렇다(젤리에 관해서는 「Banana」 참조). 저자에게 딸기잼의 가장 좋은 쓰임은 클로티드 크림과 함께 영국 스콘 위에 올리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는 잼과 크림의 순서를 둘러싼 Devon과 Cornwall의 '전쟁'에서 엄격한 중립을 선언한다. 저자에게는 두 방식 모두 맛이 괜찮다(125쪽 각주 ii: Devon 방식은 크림이 먼저, Cornwall 방식은 잼이 먼저다). 러시아 사람들은 홍차에 딸기잼(과 다른 과일 잼)을 넣어 단맛을 더하고 차의 타닌 맛을 누그러뜨린다. 꽤 영리한 작은 아이디어지만, 저자는 우유를 넣은 영국식 홍차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가끔 기분 전환 삼아 마실 때 말고는 과일 잼을 넣은 차를 마시지 않는다.

어법

- **These days, the seasonality of strawberry is overcome by imports from different climes or cultivation in greenhouses** : 현재 수동(is overcome). by 뒤에 명사 둘(imports · cultivation)이 or로 병렬.
- **But until a few decades ago these practices were expensive, so for most people the only way to taste strawberry outside the season was to make it into jam** : these practices = 앞 문장의 수입 · 온실 재배. 주어 the only way(단수) → was, 보어 to make = 명사적 to부정사. make A into B = A를 B로 만들다.
- **There are jams made with other fruits (such as raspberry, peach or apricot)** : there are + 복수명사. made with ~ = jams를 꾸미는 과거분사.
- **On top of buttered toast is where strawberry jam is most frequently found** : 장소 전치사구(On top of buttered toast)가 주어 자리에 오고, 보어는 where 명사절(= the place where). 수동 is found.
- **But it could go between bready things, as in British jam-and-cheese sandwich, folded French crêpe, or peanut butter and strawberry jam sandwich** : could = 가능성(~할 수도 있다). as in ~ = ~에서처럼. it = strawberry jam.
- **The best use of strawberry jam for me is to put it on top of British scones, together with clotted cream** : 주어 The best use → is → 보어 to put(명사적 용법). together with = ~와 함께.
- **Russians put strawberry jam (and other fruit jams) in their tea, to sweeten it and to counter the tannic taste of tea** : 목적의 to부정사 둘(to sweeten · to counter) 병렬. it = their tea.
- **personally I've grown too fond of British tea with milk to have my tea with fruit jam, other than as an occasional diversion** : grow + 형용사 = ~하게 되다(현재완료). too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other than = ~을 빼고는.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asonality	계절성	—	—
overcome	극복하다	surmount	succumb
clime	지역, 풍토	region	—
cultivation	재배	farming	—
frequently	자주, 흔히	often	rarely
variation	변형	version	—
classic	고전, 대표 작품	standard	—
neutrality	중립	impartiality	partiality
counter	상쇄하다, 누그러뜨리다	offset	reinforce
tannic	타닌 맛이 나는, 떫은	astringent	—
fond (of)	좋아하는	keen (on)	averse (to)
occasional	가끔의	infrequent	regular
diversion	기분 전환	distraction	—

내용 일치 요즘 계절성 극복 = 다른 기후 지역의 수입 · 온실 재배 / 몇십 년 전까지는 이 방법들이 비쌌음 → 제철 밖에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길 = 잼 / 라즈베리 · 복숭아 · 살구 잼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에게 딸기잼이 '그' 잼 / 가장 흔한 자리 = 버터 바른 토스트 위 · 영국 잼 치즈 샌드위치 · 접은 프랑스 크레프 · 땅콩버터 딸기잼 샌드위치(저자 가족이 미국 PB&J를 바꾼 것, 「Banana」) / 저자가 꼽는 최고의 쓰임 = 클로티드 크림과 함께 영국 스콘 위 · Devon · Cornwall 논쟁에 엄격한 중립(각주 ii: Devon = 크림 먼저 · Cornwall = 잼 먼저) / 러시아: 홍차에 잼 — 단맛 · 타닌 맛 상쇄 · 저자는 우유 넣은 영국 홍차를 더 좋아해 가끔만. **밑줄 의미** these practices = 앞 문장의 수입 · 온실 재배(삽입 문항의 단서) / 'the' jam = 120쪽 ¶2의 '그' 베리와 짝을 이루는 표현 — 잼 하면 딸기잼 / the Devon–Cornwall war = 크림과 잼의 순서를 둘러싼 지역 간 다툼을 '전쟁'에 빗댄 과장 / quite a clever little idea = 단맛을 더하면서 떫은맛도 잡는 방법 / other than as an occasional diversion = 가끔 기분 전환으로는 마신다 / 지칭: 121쪽 첫 줄 it(make it into jam) = strawberry / 121쪽 ¶1 it(could go · put it) = strawberry jam · it(sweeten it) = their tea · their = Russians'.

> **한 줄 요약** 수입과 온실 재배가 비쌌던 몇십 년 전까지 제철 밖에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길은 잼이었고, 딸기잼은 토스트 · 샌드위치 · 스콘 · 홍차에까지 쓰이는 '그' 잼이 되었다.

16-3 '악마의 과일' – 손이 많이 드는 딸기 수확과 이민 노동 121쪽 ¶2~¶5

원문 위치 원서 121쪽 ¶2~¶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1쪽 ¶2 첫 문장	Strawberry is a very labour-intensive crop, especially in terms of harvesting	주제문 · 어휘(labour-intensive)
★	121쪽 ¶2 둘째 문장	Unlike fruits such as apples or grapes, strawberries are often hidden among leaves, sometimes deeply, so they require time to locate	까닭 1 · 지칭 문항의 바탕
★	121쪽 ¶2 셋째 문장	They are soft and thus can get easily bruised in the picking process … which adds to the time required in harvesting	까닭 2 · get + p.p. · 계속적 which
▲	121쪽 ¶3 첫 문장	this high labour intensity is a major problem for strawberry producers, as it can make the fruit very expensive	이유의 as · make + O + 형용사
★	121쪽 ¶3 둘째 문장	Smaller farms that are easily accessible from main roads may partly meet this challenge by running PYO (pick your own) schemes	PYO — 일치 · 어휘(viable)
◆	121쪽 ¶3 셋째 문장	They try to solve the problem of (potentially) high labour cost by hiring cheap immigrant workers	They = 대부분의 농장 · by + 동명사
★	121쪽 ¶4 첫 문장	California, which is the biggest agricultural state in the US and which produces over 80% of US strawberry output	숫자 · 계속적 which 둘 병렬
★	121쪽 ¶4 둘째 문장	Some 70% of agricultural workers in California were born in Mexico, at least half of whom are 'undocumented'	숫자 · 수량 표현 + of whom
◆	121쪽 ¶5 첫 문장	These migrant Mexican workers call strawberry la fruta del diablo, the fruit of the devil	밑줄 의미 1순위 · call + O + C
★	121쪽 ¶5 첫 문장	one of the lowest-paid, most difficult and thus least desirable farm work in California	별명의 까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1쪽 ¶5 둘째 문장	The plants are low (4–5 inches tall and growing from beds that are 8–12 inches high)	숫자 — 일치
▲	121쪽 ¶5 둘째 문장	doing this for ten to twelve hours each day, weeks on end, 'can cause excruciating pain and lifelong disabilities'	동명사구 주어 · 인용
★	121쪽 ¶5 넷째 문장	they are paid only around half of what 'legal' workers are paid, and many are exposed to abusive treatment	절반가량 — 일치 · half of what
▲	121쪽 ¶5 다섯째 문장	Employers know that they cannot run to the police	they = 미등록 노동자

내용

딸기는 특히 수확에서 노동이 아주 많이 드는 작물이다.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과 달리 딸기는 흔히 잎 사이에, 때로는 깊숙이 숨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또 무르기 때문에 따는 과정에서 쉽게 멍들어 따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고, 이것이 수확에 드는 시간을 더 늘린다. 임금이 높은 부자 나라에서 이 높은 노동 집약도는 딸기 생산자에게 큰 문제다. 딸기 값을 아주 비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큰길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작은 농장들은 손님이 직접 따는 PYO(pick your own) 방식으로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대부분 농장에는 실행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농장들은 값싼 이민 노동자를 고용해 (잠재적으로) 높은 노동 비용 문제를 풀려 한다. 미국 최대의 농업 주이며 미국 딸기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값싼 노동을 주로 멕시코가 공급한다.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약 70%가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그중 적어도 절반은 '서류가 없는', 곧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멕시코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딸기를 la fruta del diablo, 곧 '악마의 과일'이라 부른다. 딸기 수확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박봉이고 가장 힘들어서 가장 꺼리는 농사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딸기 포기는 낮아서(높이 4~5인치로, 8~12인치 높이의 두둑에서 자란다) 열매를 따려면 계속 허리를 굽혀야 하고, 이 일을 하루 10~12시간씩 몇 주 동안 계속하면 '극심한 통증과 평생 가는 장애를 부를 수 있다'.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박봉에 가혹한 조건에서 일한다. 서류가 없는 노동자는 '합법'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절반가량만 받고, 많은 이가 학대에 노출된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경찰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법

- **Unlike fruits such as apples or grapes, strawberries are often hidden among leaves, sometimes deeply, so they require time to locate** : unlike + 명사 = ~와 달리. are hidden = 수동. require time to locate = 찾는 데 시간이 든다(주어 they가 locate의 의미상 목적어).
- **They are soft and thus can get easily bruised in the picking process, so the pickers need to be careful, which adds to the time required in harvesting** : get + p.p.(bruised) = 동작의 수동. which = 앞 절(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받는 계속적 용법 → 단수 adds. add to = ~을 늘리다. required = time을 꾸미는 과거분사.
- **Smaller farms that are easily accessible from main roads may partly meet this challenge by running PYO (pick your own) schemes, where the customers provide their own labour for picking** : 주어 Smaller farms ← that 관계절, 동사 may meet. by + 동명사.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schemes).
- **In California, which is the biggest agricultural state in the US and which produces over 80% of US strawberry output, such cheap labour is mainly supplied by Mexico** : 계속적 which 두 개가 and로 병렬(선행사 California). 주절은 수동(is supplied by).

- **Some 70% of agricultural workers in California were born in Mexico, at least half of whom are 'undocumented', meaning that they are working in the US illegally** : some + 숫자 = 약. 수량 표현 + of whom(접속사가 없으므로 of them은 오답). meaning that ~ = 앞 내용을 풀이하는 분사구문.
- **These migrant Mexican workers call strawberry la fruta del diablo, the fruit of the devil, as strawberry harvesting is one of the lowest-paid, most difficult and thus least desirable farm work** : call + O + C(5형식). the fruit of the devil = la fruta del diablo의 풀이(동격). as = 이유.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가 원칙인데, 원서는 셀 수 없는 farm work를 그대로 썼다(원서 표기 — 영작에서는 farm jobs처럼 복수로).
- **doing this for ten to twelve hours each day, weeks on end, 'can cause excruciating pain and lifelong disabilities'** : 동명사구(doing this ...)가 주어 → can cause. weeks on end = 몇 주씩 계속.
- **In the case of undocumented workers, they are paid only around half of what 'legal' workers are paid** : half of what ~ = ~가 받는 것의 절반(관계대명사 what). are paid = 수동.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abour-intensive	노동 집약적인	—	capital-intensive
locate	찾아내다	find	—
bruise	멍들게 하다	damage	—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reachable	inaccessible
viable	실행 가능한	feasible	unviable
immigrant	이민자(의)	migrant	native
undocumented	체류 서류가 없는	unregistered	documented
desirable	하고 싶은, 바람직한	attractive	undesirable
on end	계속해서	continuously	—
excruciating	극심한	agonizing	mild
disability	장애	impairment	—
harsh	가혹한	severe	gentle
abusive	학대하는	cruel	kind
exposed (to)	노출된, 당하는	subjected (to)	protected (from)

내용 일치 딸기 = 특히 수확에서 노동 집약적 · 사과 · 포도와 달리 잎 사이에 숨어 찾는 데 시간 · 물러서 멍들기 쉬움 → 조심 → 시간 증가 / 임금이 높은 부자 나라에서 큰 문제(딸기가 비싸질 수 있음) · 큰길에서 가까운 작은 농장의 PYO — 대부분 농장엔 해법 아님 · 값싼 이민 노동자 고용 / 캘리포니아 = 미국 최대 농업 주 · 미국 딸기의 80% 이상 · 노동은 주로 멕시코에서 · 농업 노동자 약 70%가 멕시코 출생 · 그중 적어도 절반 미등록 / la fruta del diablo = 가장 박봉 · 가장 힘듦 · 가장 꺼리는 일 가운데 하나 · 포기 4~5인치 · 두둑 8~12인치 · 하루 10~12시간 · 몇 주씩 → 극심한 통증 · 평생 장애를 부를 수 있음(인용) / 대부분 박봉 · 가혹한 조건 · 미등록 노동자는 '합법' 노동자의 절반가량 · 학대 · 경찰에 못 감. **밑줄 의미** labour-intensive = 기계로 대신하기 어려워 사람 손이 많이 든다 — 122쪽의 기계화 논의로 이어짐 / not a viable solution for most farms = 손님이 직접 따는 방식은 큰길 가까운 작은 농장에서나 통함 / (potentially) = 이민 노동이 없으면 높아질 수 있는 비용 / the fruit of the devil = 박봉 · 고된 노동 · 몸을 망치는 일이라 노동자들이 붙인 별명 / they cannot run to the police = 불법 체류라 학대를 신고할 수 없는 약점 / 지칭: 121쪽 ¶2 they(require time) · They(are soft) = strawberries / 121쪽 ¶3 it(can make) = this high labour intensity · They(try to solve) = 대부분의 농장 / 121쪽 ¶4 whom =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 · they(are working) = 미등록 노동자 / 121쪽 ¶5 you(have to bend) = 따는 사람(일반 주어) · they(are paid · cannot run) = 미등록 노동자.

한 줄 요약 숨어 있고 무른 딸기는 수확에 손이 많이 들어 부자 나라 농장은 값싼 이민 노동에 기대고, 캘리포니아의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은 박봉 · 고된 노동 · 학대 때문에 딸기를 '악마의 과일'이라 부른다.

16-4 딸기 따는 로봇과 일자리 공포 – 평론가 계층의 위선 122쪽 첫 줄 ~ ¶4

원문 위치 원서 122쪽 첫 줄 ~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2쪽 첫 줄 첫 문장	agriculture has been mechanized to a very high degree, at least in rich countries with expensive workers – from oxen- or horse-ploughs, hoes and scythes to tractors, combine harvesters and now even drones	현재완료 수동 · from A to B · 125쪽 각주 iii
◆	125쪽 각주 iii	The combine harvester … was invented in the 1880s. Modern tractors us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emerg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연도 – 일치
★	122쪽 첫 줄 둘째 문장	harvesting of strawberries has so far resisted mechanization, given the judgement … and the delicacy … involved in the work	기계화가 안 된 두 까닭 · given + 명사
★	122쪽 ¶1 둘째 문장	we are on the cusp of commercializing robots that can pick strawberries	on the cusp of -ing
★	122쪽 ¶1 셋째 문장	several companies developing robot harvesters that can locate, assess the ripeness of strawberries and then pick them without bruising	로봇의 세 동작
▲	122쪽 ¶1 넷째 문장	These robots are as yet not quite as good as humans, but since they are constantly improving, the time will soon come when the final frontier of agricultural automation – strawberry harvesting – is conquered	관계부사 when의 분리 · 어휘(improving)
★	122쪽 ¶2 첫 문장	It isn't just the strawberry pickers whose jobs are threatened by automation	강조 구문 + whos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2쪽 ¶2 둘째 문장	you cannot read, listen to or watch news media without being told how robots are soon going to replace most human workers	cannot ~ without -ing · 수동 동명사
★	122쪽 ¶2 셋째 문장	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which enable machines to replace the human brain, rather than just human hands and muscles	enable + O + to V · 수 일치
◆	122쪽 ¶2 넷째 문장	Symbolic of this global anxiety about automation is an interactive programme called 'Can a robot do your job?', launched by the Financial Times in 2017	보어 도치 · 연도
★	122쪽 ¶3 첫 문장	Job loss due to automation has been a constant feature of capitalism – at least for the last two and a half centuries	250년 · 125쪽 각주 iv(1771 · 1785)
▲	122쪽 ¶3 둘째 문장	have constantly chided blue-collar workers for resisting economic progress when they tried to delay the introduction of labour-saving technologies for fear of job retrenchment	chide A for -ing · 지칭 they
◆	122쪽 ¶4 첫 문장	I smell class hypocrisy here	밑줄 의미 1순위
★	122쪽 ¶4 둘째 문장	found it easy to condemn technology-resistant blue-collar workers as 'Luddites' – the early nineteenth-century British textile artisans who thought they could save their jobs by smashing the textile machines	가목적어 it · condemn A as B · Luddites의 뜻
★	122쪽 ¶4 셋째 문장	now that automation is affecting white-collar professions … – medicine, law, accountancy, finance, teaching and even journalism –	now that · 125쪽 각주 v

내용

지난 두 세기 동안 농업은, 적어도 노동자가 비싼 부자 나라에서는, 소나 말이 끄는 쟁기 · 괭이 · 낫에서 트랙터 · 콤바인, 이제는 드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계화되었다(125쪽 각주 iii: 처음에 말의 힘으로 움직이던 농업 기계는 19세기 들머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확기와 탈곡기를 합친 콤바인은 1880년대에 발명되었고, 내연 기관을 쓰는 현대식 트랙터는 20세기 초에 등장했으며, 드론은 요즘 작물의 상태 · 가축 · 관개 시설을 살피는 데 쓰인다). 그러나 딸기 수확은 그 일에 드는 판단(열매가 어디 숨어 있고 딸 만큼 익었는지)과 섬세함(열매가 쉽게 멍드므로) 때문에 지금까지 기계화를 버텨 왔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다. 마침내 딸기(와 라즈베리 · 토마토 · 상추처럼 따기 어려운 다른 과일과 채소)를 딸

수 있는 로봇의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여러 회사가 딸기를 찾아내고 익은 정도를 판단한 뒤 멍들지 않게 딸 수 있는 수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들은 아직 사람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으므로, 농업 자동화의 마지막 전선인 딸기 수확이 정복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사람은 딸기 따는 노동자만이 아니다. 요즘은 로봇이 곧 대부분의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뉴스를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는 기계가 사람의 손과 근육만이 아니라 뇌까지 대체하게 하는 AI(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로 특히 커졌다. 이 세계적인 자동화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 Financial Times가 2017년에 내놓은 'Can a robot do your job?'이라는 쌍방향 프로그램이다. 자동화로 인한 실직은 적어도 지난 250년 동안 자본주의의 한결같은 특징이었다(「Chocolate」 참조. 125쪽 각주 iv: 영국 발명가 Richard Arkwright가 1771년 수력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완전 자동화 방적 공장('water frame')을 세우고, 미국 기술자 Oliver Evans가 1785년 제분소의 형태로 최초의 완전 자동화 산업 공정을 발명한 이래). 실제로 Financial Times 같은 매체에 글을 쓰는 언론인 · 경제학자 · 경영 평론가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축이 두려워 노동 절약 기술의 도입을 늦추려 할 때 경제 발전에 저항한다고 꾸준히 꾸짖어 왔다. 그런데 왜 그 기자와 평론가들이 갑자기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가? 저자는 여기서 계급적 위선의 냄새를 맡는다. 평론가 계층은 자기 일자리가 자동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기술에 저항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를 '러다이트' – 자신을 대체하기 시작한 직물 기계를 부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19세기 초 영국의 직물 장인들 – 라고 쉽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제 자동화가 그들과 그 친구들이 속한 화이트칼라 전문직 – 의료, 법률, 회계, 금융, 교육, 심지어 언론 – 에 영향을 미치자, 그들은 뒤늦게 기술로 인한 실업과, 더 나쁘게는 자기 기술이 영영 쓸모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125쪽 각주 v: 이미 AI로 간단한 기사를 쓰고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를 편집하는 언론사가 있다. 저자는 AI가 훨씬 더 정교한 것도 만들 수 있다며 2020년 9월 8일 영국 신문 Guardian에 실린 GPT-3의 글을 예로 든다).

어법

- **In the last couple of centuries, agriculture has been mechanized to a very high degree** : 현재완료 수동(has been mechanized). in the last ~ = 지난 ~ 동안.
- **However, harvesting of strawberries has so far resisted mechanization, given the judgement … and the delicacy … involved in the work** : given + 명사 = ~을 고려하면(~ 때문에). involved in the work = the judgement와 the delicacy를 꾸미는 과거분사.
- **Finally, we are on the cusp of commercializing robots that can pick strawberries** : on the cusp of + 동명사 = 막 ~하려는 참이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robots).
- **since they are constantly improving, the time will soon come when the final frontier of agricultural automation – strawberry harvesting – is conquered** : since = 이유. when 관계절이 선행사 the time에서 떨어져 come 뒤에 왔다(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피함). 앞날의 일이지만 관계절은 현재(is conquered)로 썼다.
- **It isn't just the strawberry pickers whose jobs are threatened by automation** : It is ~ that 강조 구문의 that 자리에 소유격 whose(일자리가 위협받는 사람은 딸기 따는 노동자만이 아니다). 수동 are threatened.
- **you cannot read, listen to or watch news media without being told how robots are soon going to replace most human workers and as a result how most people will be left jobless** : cannot A without B = A할 때마다 B한다. being told = 수동 동명사. how절(간접의문문) 둘 병렬. be left + 형용사(jobless).
- **Symbolic of this global anxiety about automation is an interactive programme called 'Can a robot do your job?', launched by the Financial Times in 2017** : 보어(Symbolic of ~)가 앞으로 나가 동사 is + 주어(an interactive programme)로 도치. called · launched = 과거분사.
- **The members of the commentariat class found it easy to condemn technology-resistant blue-collar workers as 'Luddites'** : find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진목적어 to V. condemn A as B = A를 B라고 비난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echanize	기계화하다	automate	—
delicacy	섬세함	gentleness	roughness
on the cusp of	~하기 직전에	on the verge of	—
commercialize	상업화하다	market	—
ripeness	익은 정도	maturity	—
frontier	전선, 경계	boundary	—
heighten	높이다, 키우다	intensify	reduce
anxiety	불안	worry	calm
pundit	전문가, 평론가	commentator	—
chide	꾸짖다	scold	praise
retrenchment	감축	cutback	expansion
hypocrisy	위선	insincerity	sincerity
belatedly	뒤늦게	late	promptly
redundancy	쓸모없어짐, 정리 해고	obsolescence	—

내용 일치 지난 두 세기 · 노동자가 비싼 부자 나라에서 농업 고도 기계화(쟁기 · 괭이 · 낫 → 트랙터 · 콤바인 · 드론) · 각주 iii: 콤바인 1880년대 · 내연 기관 트랙터 20세기 초 · 드론 = 작물 · 가축 · 관개 감시 / 딸기 수확은 판단 · 섬세함 때문에 지금까지 버팀 / 딸기 따는 로봇 상업화 직전(라즈베리 · 토마토 · 상추도) · 여러 회사 개발 · 아직 사람만큼은 아님 · 꾸준히 나아짐 → 마지막 전선이 곧 정복됨(저자의 전망) / AI는 뇌까지 대체 → 공포 증폭 · FT 프로그램 2017년 / 자동화 실직 = 적어도 250년 동안 자본주의의 특징(각주 iv: 1771 Arkwright · 1785 Evans) · 평론가들은 블루칼라의 저항을 꾸짖어 옴 / 계급적 위선 · 러다이트 = 19세기 초 직물 기계를 부순 영국 직물 장인 · 의료 · 법률 · 회계 · 금융 · 교육 · 언론이 위협받자 뒤늦게 두려워함(각주 v: AI 기사 · GPT-3, Guardian 2020년 9월 8일). **밑줄 의미** the final frontier of agricultural automation = 기계화되지 않고 남은 마지막 농사일 / rather than just human hands and muscles = AI는 육체노동뿐 아니라 정신노동도 대체할 수 있다 / Symbolic of this global anxiety = 일자리 불안이 세계적 화제가 되었음 / class hypocrisy = 남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땐 저항을 꾸짖다가 자기 일자리가 위협받자 겁내는 계층의 이중 잣대 / 'Luddites' = 기술 진보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의 꼬리표 / belatedly = 블루칼라가 오래전에 느낀 두려움을 이제야 / 지칭: 122쪽 첫 줄 they(are ripe) = the fruit / 122쪽 ¶1 them(pick them) = strawberries · they(are constantly improving) = these robots / 122쪽 ¶2 which(enable) = AI technologies / 122쪽 ¶3 they(tried to delay) = blue-collar workers / 122쪽 ¶4 they(thought they could save · replace them) = 직물 장인들 · they(thought their own jobs · are belatedly discovering) = 평론가 계층.

> **한 줄 요약** 기계화를 버텨 온 딸기 수확마저 로봇이 넘보며 일자리 공포가 커졌지만, 저자는 블루칼라의 저항을 꾸짖던 평론가들이 자기 일자리가 위협받자 뒤늦게 겁을 내는 데서 계급적 위선을 본다.

16-5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 직접 · 간접 · 정책 122쪽 ¶5 ~ 124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22쪽 ¶5 ~ 124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2쪽 ¶5 첫 문장	we shouldn't be swept up by the new-found panic about automation among the commentariat class	be swept up by · 반론의 시작
★	122쪽 ¶5 둘째 문장 (123쪽 첫 줄까지)	Automation has been with us for the last 250 years, and we've never seen the mass destruction of jobs on the scale that it is predicted for our future	숫자 · 현재완료 경험
◆	123쪽 첫 줄 둘째 문장	This is because automation does not only destroy jobs, it also creates them	요지 1순위 · not only A, (but) also B
★	123쪽 ¶1 둘째 문장	robots may destroy strawberry-picking jobs, but automation will create demands for robot engineers, workers producing robots and workers producing robot parts	직접 창출 — 일치
▲	123쪽 ¶1 셋째 문장	it may also increase the overall labour demand (and thus create more jobs) by making the product cheaper and thus increase the demand for it	by + 동명사 · 원서 표기 increase
★	123쪽 ¶1 넷째 문장	According to a study by James Bessen … automation eliminated 98% of the weaving labour required to produce a yard of cloth, but the number of weavers actually grew by four times	숫자 — 일치 함정(98% · 4배)
★	123쪽 ¶2 둘째 문장	The advent of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may have destroyed many travel agency jobs … but it has also created other jobs in the travel industry	may have p.p. · 빈칸 1순위
★	123쪽 ¶2 둘째 문장	those who are running the booking sites, those who are renting out accommodation through the likes of Airbnb, or the guides for small, specialized tours	새 일자리 셋 —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3쪽 ¶2 셋째 문장	Last but not least, automation increases productivity and thus per capita income, which creates demands for new goods and services	Last but not least · 계속적 which
◆	123쪽 ¶3 첫 문장	we can always collectively decide to create more jobs through policy measures	요약문 1순위
★	123쪽 ¶3 둘째 문장	It has been a standard practice at least since the 1930s that, in an economic downturn … the government increases its spending	1930년대 · 가주어 it + that절
★	123쪽 ¶3 셋째 문장	went as far as paying a high proportion of the wages of 'redundant' workers to keep them from being sacked (up to 80% in the case of the UK government's 'furlough scheme')	숫자 · keep A from -ing
▲	123쪽 ¶3 넷째~다섯째	governments can also create – and have created – jobs through regulations … carers per resident in nursing homes	규제로 만드는 일자리 · 「Chilli」
◆	123쪽 ¶4 첫 문장	it is impossible to say that automation in one particular area … reduces overall employment or not	with + O + 전치사구 · 단정하지 않음
◆	123쪽 ¶4 둘째 문장 (124쪽 첫 줄까지)	(however many of them may have been less than ideal, even hazardous or oppressive) … suggests that the overall impact of automation on jobs so far has not been negative	suggests = 저자의 판단 · 주어 the fact → suggests

내용

그러나 평론가 계층 사이에 새로 생긴 자동화 공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자동화는 지난 25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 왔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예측되는 규모의 대량 일자리 파괴를 본 적이 없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동화 자체가 새 일자리를 만든다. 예컨대 로봇이 딸기 따는 일자리를 없앨 수 있지만, 자동화는 로봇 엔지니어, 로봇을 만드는 노동자, 로봇 부품을 만드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만든다. 또 자동화는 산출 단위당 필요한 노동을 줄일 수 있지만, 제품을 싸게 만들어 그 수요를 늘림으로써 전체 노동 수요를 늘릴(그래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다. James Bessen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미국에서 자동화는 천 1야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직조 노동의 98%를 없앴지만, 값이 내려 면직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에 직조공의 수는 오히려 네 배로 늘었다. 다음으로 자동화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은 (이제 우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직접 여행을 예약하므로) 여행사 일자리를 많이 없앴을지 모르지만, 여행 산업에 다른 일자리 –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Airbnb 같은 곳을 통해 숙소를 빌려주는 사람, 인터넷으로 광고할 수 있어서 비로소 손님을 충분히 모으는 소규모 전문

투어의 가이드 — 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동화가 생산성과 그에 따른 1인당 소득을 높이고, 그것이 더 다양하고 '더 높은' 필요를 채우는 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고등 교육, 오락, 패션, 그래픽 디자인, 미술관 같은 새 일자리를 낳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든 정책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적어도 1930년대 이후로는, 경기 하강기에 민간 기업이 (투자나 일자리를 줄여) 지출을 줄이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의 수요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민간 기업에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거나 새로 고용할 유인을 주는 것이 표준 관행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부자 나라 정부는 '남아도는'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지급하기까지 했다(영국 정부의 '휴직 제도(furlough scheme)'는 최대 80%). 정부는 규제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 왔다. 정부가 교육(학교의 학생당 교사, 어린이집의 아동당 보육 인력), 의료(병원의 환자당 의사나 간호사), 노인 돌봄(요양원의 거주자당 돌봄 인력)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당 더 많은 노동자를 요구하는 규제를 도입하면 그 산업에 일자리가 더 생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바로 이 부문들이 좋은 서비스를 위해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는 곳이다(「Chilli」 참조). 이 모든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예측할 수 없게 작용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펼쳐지므로, 딸기 수확이든 면직물 짜기든 언론이든 어느 한 분야의 자동화가 전체 고용을 줄이는지 아닌지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250년 동안 자동화가 계속되는 내내 (그 가운데 많은 일이 이상과는 거리가 멀고 위험하거나 억압적이기까지 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 왔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친 전체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어법

- **But we shouldn't be swept up by the new-found panic about automation among the commentariat class** : be swept up by ~ = ~에 휩쓸리다(수동). shouldn't = ~해서는 안 된다(충고).
- **This is because automation does not only destroy jobs, it also creates them** : This is because + 원인(앞 문장의 까닭). not only A, (but) also B — 원서는 but 없이 쉼표로 두 절을 이었다. them = jobs.
- **automation may reduce labour requirement per unit of output, but it may also increase the overall labour demand (and thus create more jobs) by making the product cheaper and thus increase the demand for it** : may ~, but ... = 양보. by + 동명사(making) · make + O + 형용사(cheaper). 끝의 increase는 원서 표기 그대로(making과 나란히 놓으려면 increasing).
- **automation eliminated 98% of the weaving labour required to produce a yard of cloth, but the number of weavers actually grew by four times** : required = labour를 꾸미는 과거분사. the number of + 복수명사 = 단수 취급(a number of + 복수명사 '많은 ~'와 구분). grow by four times = 네 배로 늘다.
- **The advent of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may have destroyed many travel agency jobs ..., but it has also created other jobs in the travel industry** : may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과거에 대한 추측, 양보의 뜻). it = the advent(단수) → has created.
- **Last but not least, automation increases productivity and thus per capita income, which creates demands for new goods and services** : Last but not least =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으로. which = 앞 절(생산성 · 1인당 소득 증가)을 받는 계속적 용법 → 단수 creates.
- **many rich-country governments went as far as paying a high proportion of the wages of 'redundant' workers to keep them from being sacked** : go as far as -ing = ~하기까지 하다. keep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being sacked = 수동 동명사.
- **With all these forces at play, pulling in different directions, acting in unpredictable ways and unfolding over a long period, it is impossible to say that automation in one particular area ... reduces overall employment or not** : with + O + 전치사구(at play) = 부대상황. 분사 셋(pulling · acting · unfolding) 병렬. 가주어 it + 진주어 to sa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new-found	새로 생긴	recent	long-standing
destruction	파괴	elimination	creation
eliminate	없애다	remove	add
weaver	직조공	—	—
advent	출현	arrival	disappearance
accommodation	숙소	lodging	—
specialized	전문화된	specialist	general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
per capita	1인당	per head	—
downturn	경기 하강	recession	upturn
sack	해고하다	dismiss	hire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erratic	predictable
hazardous	위험한	dangerous	safe
oppressive	억압적인	tyrannical	—

내용 일치 평론가 계층의 새 공포에 휩쓸리지 말 것 · 250년 동안 예측되는 규모의 대량 파괴는 없었음 ·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함 / 직접: 로봇 엔지니어 · 로봇 · 부품 생산 노동자 · 값이 내려 수요가 늘면 전체 노동 수요 증가 가능 · Bessen: 19세기 미국 · 천 1야드당 직조 노동 98% 감소 · 직조공 4배 / 간접: 여행사 일자리 감소 · 예약 사이트 · Airbnb · 소규모 전문 투어 가이드 · 생산성 · 1인당 소득 증가 → 고등 교육 · 오락 · 패션 · 그래픽 디자인 · 미술관 / 정책: 적어도 1930년대부터 경기 하강기의 정부 지출 · 코로나19 영국 휴직 제도 최대 80% · 인력 기준 규제(교육 · 의료 · 노인 돌봄, 「Chilli」) / 한 분야의 자동화가 전체 고용을 줄이는지는 말할 수 없음 · 250년 동안 대부분 일자리를 가짐 → 지금까지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음(suggests — 저자의 판단). **밑줄 의미** swept up by the new-found panic = 갑자기 번진 공포에 휩쓸리다 / does not only destroy jobs, it also creates them = 장 후반 논증의 중심 명제 / by making the product cheaper = 값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 일자리가 늘 수 있다 — Bessen의 직조공 / 'higher' needs =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교육 · 문화의 필요 / collectively decide = 사회가 함께 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 so far has not been negative = 미래를 단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로 한정한 판단 / 지칭: 122쪽 ¶5 them(creates them) = jobs / 123쪽 ¶1 it(may also increase) = automation · it(demand for it) = the product / 123쪽 ¶2 it(has also created) = the advent of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 they(can advertise) = small, specialized tours / 123쪽 ¶3 them(keep them from) = 'redundant' workers · it(will create) = a government · these(are exactly the sectors) = 교육 · 의료 · 노인 돌봄.

> **한 줄 요약** 자동화는 250년 동안 일자리를 없애는 한편 직접 · 간접으로 만들어도 왔고 사회는 정책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으므로, 지금까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친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6-6 '이번엔 다르다'? – 실직자 지원과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보기 124쪽 ¶1 ~ 125쪽 ¶1

원문 위치 원서 124쪽 ¶1 ~ 125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4쪽 ¶1 첫 문장	Some may say i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as now machines are replacing workers in jobs that used to be unautomatable	반론 제시 · used to V
◆	124쪽 ¶1 둘째 문장	it is in the nature of technological progress that most people don't see it coming until it arrives	It is ~ that 강조 · 순서 문항의 출발
★	124쪽 ¶1 셋째 문장	If you told an upper-middle-class British lady in 1900 that most of her maids' work would be done by machines in a couple of generations, she would have laughed in your face	1900 ·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
▲	124쪽 ¶1 넷째 문장	But then came along washing machines, vacuum cleaners, microwave ovens, refrigerators, machines that produced ready-made meals and so on	then + 동사 + 주어 도치
★	124쪽 ¶1 다섯째~여섯째	a Japanese machinist in 1950 … a machine (lathe) controlled by another machine (a computer) … now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machines are standard	1950 · CNC · 125쪽 각주 vi
◆	125쪽 각주 vi	In his prophetic 1951 novel Player Piano, Kurt Vonnegut, the American sci-fi writer, depicted a world of unprecedented prosperity	1951 · 인물 – 어법 문항의 바탕
★	124쪽 ¶1 일곱째 문장	Fifty years into the future, many people may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so many people … thought so-called white-collar jobs were unautomatable	가목적어 it · may = 가능성
◆	124쪽 ¶2 둘째~셋째 문장	its impact on those who are made redundant is devastating … that is no consolation for those workers who have lost their jobs	강조의 does · 원서 표기(impacts … i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4쪽 ¶3 둘째 문장	the standard assumption among free-market economists, who believe that people are unemployed only because they don't want to work at going wage rates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가정
▲	124쪽 ¶3 셋째 문장	without a range of state support, it is very difficult – if not totally impossible – for such workers to get the retraining needed for re-employment	가주어 · for + 의미상 주어 · if not
★	124쪽 ¶3 넷째~여섯째	unemployment benefit and income supports ... an affordable retraining system ... the so-calle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countries like Sweden and Finland	세 가지 지원 · 통합 사고 빈칸
◆	124쪽 ¶4 첫 문장	Automation has come to be seen as 'the' destroyer of jobs when it isn't, in the same way in which strawberry has become 'the' berry despite being a non-berry	비유의 완성 · 제목 1순위
★	124쪽 ¶4 다섯째 문장 (125쪽 첫 줄까지)	Society can act to create new jobs, if it wants – through fiscal policies, through labour market policies and through regulation of certain industries	세 경로 — 일치
▲	125쪽 ¶1	Only when we see automation for what it is can we overcome technophobia ('automation is bad') and the sense of hopelessness among the young generation	Only when 도치 · see A for what it is

내용

어떤 이들은 이제 기계가 예전에는 자동화할 수 없던 일자리에서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기술 진보가 닥칠 때까지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기술 진보의 본성이다. 1900년에 영국의 중상류층 여성에게 두어 세대 안에 하녀들이 하는 일 대부분을 기계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대놓고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즉석식품을 만드는 기계 등이 나왔다. 1950년에 일본의 기계공에게 몇십 년 뒤면 그의 일 대부분을 다른 기계(컴퓨터)가 제어하는 기계(선반)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자 나라의 공장에서는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가 표준이다(125쪽 각주 vi: 미국 SF 작가 Kurt Vonnegut은 예언적인 1951년 소설 Player Piano에서, 매우 효율적인 CNC 기계 덕분에 인간의 육체노동이 더는 필요 없는 전례 없는 번영의 세계를 그렸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소수의 관리자 · 기술자 · 과학자를 뺀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적 안락이 부족하지 않고 여가도 넘치는데도, 쓸모 있는 할 일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회에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참하다). 50년 뒤의 많은 사람은 21세기 초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자동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고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자동화는 다른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분명히 어떤 일자리를 없애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담하다. 자동화가 장기적으로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기계 때문에 기술이 쓸모없어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훈련을 받아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실업 상태인 것은 시세 임금으로 일하기 싫어서일 뿐이라고 믿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표준 가정이었다. 현실에서는 폭넓은 국가 지원 없이는, 슈퍼마켓 진열대 채우기 · 사무실 청소 · 건설 현장 경비 같은 저숙련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런 노동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재훈련을 받기는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재훈련 과정을 버티게 해 줄 실업 급여와 소득 지원, 훈련 기관이나 훈련생(또는 둘 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뜻하는 저렴한 재훈련 제도, 그리고 스웨덴 · 핀란드 같은 나라의 이른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이 제공하는 것 같은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 구직 지원이 필요하다. 딸기가 베리가 아닌데도 '그' 베리가 된 것처럼, 자동화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 일자리 파괴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자동화는 일자리의 순 파괴자가 아니다. 게다가 기술이 일자리 수를 완전히 정하지도 않는다. 사회는 원한다면 재정 정책, 노동 시장 정책, 특정 산업의 규제를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우리는 세계를 떠돌기 시작한 기술 공포증('자동화는 나쁘다')과 젊은 세대의 절망감('우리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을 이겨낼 수 있다.

어법

- **Some may say i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as now machines are replacing workers in jobs that used to be unautomatable** : as = 이유. used to + V = (예전에는) ~였다(be used to + 명사 '~에 익숙하다'와 구분).
- **But it is in the nature of technological progress that most people don't see it coming until it arrives** : It is ~ that 강조 구문(in the nature of technological progress를 강조). see + O + -ing(coming). until 시간 부사절 = 현재(arrives).
- **If you told an upper-middle-class British lady in 1900 that most of her maids' work would be done by machines in a couple of generations, she would have laughed in your face** : 조건절은 과거형(told), 주절은 would have p.p. — 1900년의 장면을 상상하며 그때의 반응을 말한 원서 표현(교과서식이라면 If you had told ...). would be done = 과거에서 본 미래 · 수동.
- **But then came along washing machines, vacuum cleaners, microwave ovens, refrigerators, machines that produced ready-made meals and so on** : 부사(then) + 동사(came along) + 긴 주어의 도치.
- **Fifty years into the future, many people may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so many people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thought so-called white-collar jobs were unautomatable** : find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진목적어 to V. why ~ = 간접의문문(understand의 목적어).
- **It does destroy certain jobs even while creating others, and its impact on those who are made redundant is devastating** : 강조의 조동사 does + 원형(destroy). while + -ing =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 주어 its impact(단수) → is.
- **In reality, without a range of state support, it is very difficult – if not totally impossible – for such workers to get the retraining needed for re-employment** :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진주어 to V. if not ~ = ~까지는 아니더라도. needed = retraining을 꾸미는 과거분사.
- **Only when we see automation for what it is can we overcome technophobia** : Only + 부사절이 문장 앞에 오면 주절이 도치(can we overcome). see A for what it is = A를 있는 그대로 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automatable	자동화할 수 없는	—	automatable
machinist	기계공	mechanic	—
lathe	선반(공작 기계)	—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vastating	참담한, 파괴적인	crushing	—
consolation	위안	comfort	—
obsolete	쓸모없게 된	outdated	up-to-date
retrain	재훈련하다	reskill	—
displaced	일자리를 잃은	dislocated	—
subsidy	보조금	grant	—
cosmetic	겉치레의	superficial	substantial
net	순(純)	—	gross
fiscal	재정의	budgetary	—
technophobia	기술 공포증	—	technophilia
haunt	떠나지 않고 괴롭히다	plague	—

내용 일치 '이번엔 다르다'는 반론 · 기술 진보는 닥칠 때까지 보이지 않음 / 1900년 영국 중상류층 여성(하녀의 일) → 세탁기 · 진공청소기 · 전자레인지 · 냉장고 · 즉석식품 기계 / 1950년 일본 기계공(컴퓨터가 제어하는 선반) → CNC가 부자 나라 공장의 표준 · 각주 vi: Kurt Vonnegut · 1951년 Player Piano / 50년 뒤엔 화이트칼라 일을 자동화할 수 없다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may) / 자동화는 일자리를 분명히 없애고 실직자에겐 참담 · 장기 전체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아도 위안이 안 됨 /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가정: 재훈련 · 실업은 시세 임금으로 일하기 싫어서 / 현실: 국가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움(저숙련 일말고는) · 실업 급여 · 소득 지원 · 저렴한 재훈련(정부 보조금) · 실질적 구직 지원(스웨덴 · 핀란드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 결론: 자동화 = 순 파괴자 아님 · 사회가 재정 · 노동 시장 정책 · 규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기술 공포증 · 젊은 세대의 절망 극복. **밑줄 의미** i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 이번 자동화는 예전과 달리 일자리를 정말로 없앨 것이라는 반론 / laughed in your face =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여겼을 것 / thought you mad = 같은 뜻의 둘째 예 / no consolation = 전체 통계가 좋아도 개인의 고통은 그대로 / effective (not just cosmetic) help = 보여 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찾게 하는 지원 / see automation for what it is = 과장된 공포도 무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이해 / 'the' destroyer = 120쪽 ¶2의 '그' 베리와 짝을 이룬 비유 / 지칭: 124쪽 ¶1 it(see it coming · it arrives) = technological progress · she = the British lady · he · his = the Japanese machinist / 124쪽 ¶2 It(does destroy) · its = automation · that(is no consolation) = 장기 전체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 / 124쪽 ¶3 who = free-market economists · They(need) = displaced workers / 124쪽 ¶4 It(is not a net destroyer) = automation · it(if it wants) = society.

> **한 줄 요약** 기술 진보는 닥치기 전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믿기 어렵지만 실직자에게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자동화를 '그' 파괴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야 기술 공포와 절망을 넘을 수 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6 STRAWBERRY]

범위	Strawberry (원서 PDF 120~12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one of this means we can ignore what automation does to jobs. It does wipe out some jobs even while it creates others, and for those made redundant the blow is devastating. Free-market economists assume that workers whose skills machines have made obsolete can simply retrain and find new work. In reality, without wide-ranging state support, retraining is extremely hard for them unless they settle for low-skilled jobs. Displaced people require benefits and income support while they retrain, an affordable retraining system funded by government subsidies and genuine help in finding work, like th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of Sweden and Finland.

① Displaced workers should retrain on their own.
② The state must truly support displaced workers.
③ Automation should be slowed to protect jobs.
④ Displaced workers should take low-skilled jobs.
⑤ Unemployment is mostly a personal choic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Just as strawberry has become 'the' berry although it is not a berry at all, automation has come to be thought of as 'the' job destroyer although it is not. We need to see automation as it really is: it does not destroy more jobs than it creates. Nor does technology alone decide how many jobs there are; a society can create new jobs through fiscal policy, labour market policy and the regulation of particular industries. Only then can we overcome technophobia and the hopelessness of young people who fear they will no longer be needed.

① Why Strawberries Are Not Really Berries
② Technophobia: A Sensible Response to Robots
③ Technology Alone Decides the Number of Jobs
④ Young People Will Soon Be Replaced
⑤ Automation: Not the Job Killer We Think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e should not be carried away by the commentators' sudden panic over automation. Machines have been taking over human tasks for 250 years, yet we have never witnessed the large-scale job destruction now being forecast, because automation creates jobs as well as destroying them. So many forces pull in different ways over long periods that no one can say whether automation in one field lowers total employment. Still, most people have had jobs throughout two and a half centuries of automation, even if many of those jobs were far from ideal. This suggests that, so far, its overall effect on jobs has not been negative.

① So far, automation seems not to have cut jobs overall.
② Automation in journalism will soon reduce jobs.
③ Most of the jobs people have had were ideal.
④ The commentators' new panic is justified.
⑤ Automation rarely creates new jobs.

4. 밑줄 친 class hypocris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Job losses caused by automation have been part of capitalism for centuries, and commentators writing for papers like the Financial Times have long scolded blue-collar workers who tried to delay labour-saving technology for fear of losing their jobs. Why, then, are these commentators suddenly anxious? The author smells class hypocrisy here. While they believed their own jobs were safe, they readily dismissed such workers as 'Luddites', after the British textile artisans who smashed the machines replacing them. Now that automation is reaching professions such as medicine, finance and even journalism, they have only now begun to fear losing their jobs to technology.

① Workers secretly welcome new machines.
② The Luddites were right to smash machines.
③ Critics fear automation once it reaches them.
④ White-collar jobs have always been safe.
⑤ Economists are more honest than journalists.

5. 밑줄 친 the fruit of the devil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alifornia, the top farming state in the US, grows more than 80% of America's strawberries, and the cheap labour behind them comes mainly from Mexico. Around 70% of the state's farm workers were born in Mexico, and at least half of them are 'undocumented', working in the country without legal status. To these workers, strawberry is the fruit of the devil. The plants grow low, only 4–5 inches tall on beds 8–12 inches high; pickers therefore have to bend constantly, 10 to 12 hours a day for weeks, which can lead to terrible pain and lifelong disability. Most are poorly paid and work in harsh conditions. Undocumented workers earn only about half what 'legal' workers get, and many suffer abuse, while employers know that these workers cannot turn to the police.

① a crop whose sweetness tempts people to eat too much
② a crop whose harvest is badly paid, exhausting and harmful work
③ a fruit that can be grown only by illegal workers
④ a fruit that brings farmers the highest profits
⑤ a fruit that tastes too sour outside its season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Strawberry is a highly labour-intensive crop, above all at harvest time. Unlike apples or grapes, strawberries often lie hidden, sometimes deep among the leaves, so ① they take time to find. Being soft, ② they bruise easily during picking, which means pickers must handle ③ them with care, and this makes harvesting slower still. In rich countries where wages are high, the heavy labour needed to pick ④ them is a serious problem for growers, since it can drive up the price of the fruit. Small farms close to main roads can partly cope by running 'pick your own' schemes, in which customers do the picking themselves, but this does not work for most farms. Instead, ⑤ they try to hold down labour costs by taking on cheap immigrant labou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Automation creates new jobs directly. Robots may take away strawberry-picking jobs, for instance, but they will generate demand for robot engineers and for workers who make robots and their parts. Also, although automation may cut the labour needed per unit of output, it may raise the total demand for labour by making products cheaper and so increasing demand for them. James Bessen's research found that in the nineteenth-century US, automation cut by 98% the amount of weaving labour it took to make a yard of cloth. Yet four times as many weavers ended up being employed, because cheaper cotton cloth was in so much greater demand.

① 로봇은 딸기 따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② 자동화는 산출 단위당 필요한 노동을 늘린다.
③ James Bessen은 19세기 영국의 직조 노동을 연구했다.
④ 19세기 미국에서 직조공의 수는 네 배로 늘었다.
⑤ 면직물 값이 올라 면직물 수요가 크게 늘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Whether or not it is a berry botanically,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regard strawberry as 'the' berry. At the height of their season, top-quality strawberries are sweet and tasty enough to eat by themselves, but at other times they tend to be a little too sour, so people add sugar or, better still in the author's view, condensed milk. Bolder eaters pair them with balsamic vinegar, black pepper or both. At a British summer garden party, guests can expect strawberries covered in cream, a combination the author confesses he does not like. Strawberry, vanilla and chocolate make up the 'Holy Trinity' of flavours for ice cream, though most 'strawberry' ice creams contain no real strawberry. Eton mess, made of strawberries, cream and crushed meringue, was supposedly invented at Eton College.

① 제철의 가장 좋은 딸기는 그냥 먹어도 될 만큼 달고 맛있다.
② 저자는 딸기에 연유를 곁들이는 쪽을 더 낫게 여긴다.
③ 저자는 크림을 부은 딸기 조합을 좋아한다.
④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에는 진짜 딸기가 없다.
⑤ Eton mess는 Eton College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In Player Piano, his 1951 novel, the American science-fiction writer Kurt Vonnegut ① depicted a world richer than any before it, ② where human physical labour is no longer needed because extremely efficient CNC machines do the work. Yet in that world most people, apart from a handful of managers, scientists and engineers, ③ are miserable. They do not lack material comfort and have plenty of free time; what makes them ④ unhappily is that they have little of value to do and, above all, that they feel ⑤ redundant to society. The author calls the novel 'prophetic' and mentions it alongside CNC machines, which have become standard in the factories of rich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not only strawberry pickers who fear that automation will cost them their jobs. These days it is hard to follow the news without (A) [telling / being told] that robots will soon take over most human work and leave most people jobless.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made this fear especially strong, since AI technologies (B) [enable / enables] machines to take the place of the human brain, not merely our hands and muscles. In 2017 the Financial Times launched an interactive programme, (C) [which / what] let readers check whether a robot could do their job; it became a symbol of this worldwide anxiety. Some news media already use AI to write simple articles and to edit sports highlights.

	(A)	(B)	(C)
①	telling	enable	which
②	being told	enables	which
③	being told	enable	which
④	being told	enable	what
⑤	telling	enables	w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Over the last two centuries, farming in rich countries with costly labour has become highly ① mechanized: scythes, hoes and animal-drawn ploughs gave way to tractors, combine harvesters and even drones. Strawberry picking, however, has so far ② resisted machines, because the work demands judgement about where the fruit is hidden and whether it is ripe, as well as ③ delicacy, since the fruit bruises so easily. But this is changing. Several companies are now developing robot harvesters that can find strawberries, judge their ripeness and pick them without damaging them. The machines are not yet quite as ④ skilful as human pickers, but because they are steadily ⑤ declining, strawberry picking – the final frontier of farm automation – will soon be conquered.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utomation also generates jobs indirectly. Computers and the internet may have wiped out many travel agency jobs, since most of us now arrange our trips online ourselves. Yet the same technologies have opened up other work in the travel business: people who operate booking websites, people who let out rooms through services like Airbnb, and guides who lead small tours on special themes, which attract enough customers only because they are advertised online. Finally, by raising productivity, automation raises income per head, and richer people demand new goods and services that satisfy more varied and 'higher' needs, such as fashion, entertainment, art galleries, graphic design and higher education. In this way, _____.

① automation can only destroy jobs in the travel industry
② online booking has made tour guides unnecessary
③ a technology that removes some jobs can give rise to others elsewhere in the economy
④ higher productivity reduces the demand for new goods and services
⑤ most new jobs require no human workers at all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As recently as a few decades ago, however, both of these were costly, so for most people jam was the only way to enjoy strawberries out of season.

Nowadays, imports from other climates and greenhouse cultivation let us eat strawberries at any time of year. (①) Jams are made from other fruits as well, such as raspberries, peaches and apricots, but to most people it is strawberry jam that counts as 'the' jam. (②) It is most often spread on buttered toast, but it can also go between slices of bread or inside a folded French crêpe. (③) For the author, the best use of it is on British scones with clotted cream, and he stays strictly neutral in the Devon–Cornwall quarrel over which goes on first. (④) Russians even add it to their tea, both to sweeten the drink and to soften its tannic taste. (⑤) The author thinks this quite clever, though he likes British milky tea too much to try it except occasionally.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Scientifically speaking, strawberry is not a berry. ① Nor are blackberries and raspberries, while grapes, bananas, cucumbers, tomatoes, aubergines, watermelons and even chillies are berries in the botanical sense. ② Some fruits, such as cranberries, blueberries and gooseberries, are both called berries and actually are berries. ③ Botanists define a berry as a fleshy fruit with no stone that develops from one flower with a single ovary. ④ Several companies are now developing robots that can judge whether strawberries are ripe enough to pick. ⑤ A strawberry, by contrast, grows not from the ovary but from the receptacle holding it, and so falls into a type of fruit known as 'aggregate frui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 may argue that this time is different, since machines now do jobs that once seemed impossible to automate. Yet most people fail to notice technological change until it is already here.

(A) Likewise, had you told a machinist in Japan in 1950 that a computer-controlled lathe would one day do most of his job, he would have considered you mad. Yet CNC machines are now standard in rich countries' factories.

(B) Fifty years from now, people may struggle to see why so many at the start of the twenty-first century were convinced that white-collar jobs could never be automated.

(C) If you had told a well-off British lady in 1900 that within two generations machines would do most of her maids' tasks, she would have laughed at you. Then came washing machines, vacuum cleaners, refrigerators and microwave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e can also decide together, as a society, to generate extra jobs through policy. Since at least the 1930s, governments have usually spent more when a downturn makes private firms cut investment and jobs, giving firms a reason to keep their staff or even take on new ones. When Covid-19 struck, many rich-country governments even paid a large share of the wages of workers who would otherwise have been laid off – up to 80% under the UK's 'furlough scheme'. Regulations can also create jobs: a rule requiring more teachers per pupil, nurses per patient or carers per care-home resident adds jobs in exactly the sectors that need more staff to deliver good services.

→ Beyond the jobs that automation itself creates, a society can, through (A) _____ decisions such as extra public spending, wage support and staffing rules, (B) _____ the number of jobs available.

① collective ..... increase
② collective ..... limit
③ private ..... increase
④ technological ..... reduce
⑤ individual ..... freez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Strawberry harvesting takes so much labour that farms in rich countries rely on cheap immigrant workers. In California, which grows over 80% of America's strawberries, some 70% of farm workers were born in Mexico. Now strawberry-picking robots are close to commercial use, and fear of automation is spreading; in 2017 the Financial Times launched a programme inviting readers to ask whether a robot could do their job. Yet automation also creates jobs. In the nineteenth-century US, it cut the weaving labour needed for a yard of cloth by 98%, yet weavers became four times as numerous. Displaced workers still need help, such as th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of Sweden and Finland. The author insists that automation does not destroy more jobs than it creates.

<QUIZ>

(1) Which US state grows over 80% of America's strawberries?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country were some 70% of that state's farm workers born?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the Financial Times launch its programme on robots and jobs?

Answer for (3): _____

(4) By what percentage did automation cut the weaving labour needed for a yard of cloth?

Answer for (4): _____

(5) By how many times did the number of weavers grow?

Answer for (5): _____

(6) Which countries' Active Labour Market Policy does the passage mention?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according to the author, automation destroys more jobs than it creat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80%	N. 1900
B. 1950	O. Luddites
C. 2017	P. California
D. Devon	Q. 250 years
E. four times	R. Sweden and Finland
F. True	S. False
G. half	T. the US
H. Japan	U. Russia
I. Mexico	V. 1771
J. the final frontier	W. Eton mess
K. 98%	X. Financial Times
L. 1785	Y. 70%
M. the UK	Z. James Bessen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딸기는 베리가 아니다. 블랙베리나 라즈베리도 그렇다. (Neither + 동사 + 주어)

02 제철에 나는 가장 좋은 딸기는 그것만 먹어도 될 만큼 달다. (형용사 + enough to V / 수동 부정사)

03 딸기는 바닐라, 초콜릿과 함께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를 이룬다. (together with + 단수 동사)

04 대부분의 사람에게 제철 밖에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the only way ~ was to V / make A into B)

05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약 70%는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그중 적어도 절반은 서류가 없다. (수량 표현 + of whom)

06 우리는 딸기를 딸 수 있는 로봇의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on the cusp of -ing)

07 자동화에 대한 이 세계적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 Financial Times가 2017년에 내놓은 프로그램이다. (보어 도치)

08 평론가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를 '러다이트'라고 비난하기가 쉽다고 여겼다. (find it easy to V / condemn A as B)

09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만들기도 한다. (not only A but also B)

10 많은 정부가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그들의 임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go as far as -ing / keep A from -ing)

11 그런 노동자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 재훈련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12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우리는 기술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다. (Only when 도치 / see A for what it is)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딸기 '우유'의 재료 / 만든 사람	
식물학상 베리인 것(120쪽 ¶1)	
딸기가 자라는 곳 / 딸기가 속한 범주(각주 i)	
저자가 더 낫다고 보는 감미료 / 좋아하지 않는 조합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	
Eton mess의 재료 / 기원	
몇십 년 전까지 제철 밖에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	
저자가 꼽는 딸기잼의 최고 쓰임 / 각주 ii	
딸기 수확이 노동 집약적인 두 까닭	
손님이 직접 따는 방식	
캘리포니아의 미국 딸기 생산 비중 / 멕시코 출생 농업 노동자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이 딸기를 부르는 이름	
포기 높이 / 두둑 높이 / 하루 노동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	
콤바인 발명 / 내연 기관 트랙터(각주 iii)	

항목	답
FT의 'Can a robot do your job?' / 최초의 완전 자동화(각주 iv)	
Bessen의 연구(19세기 미국)	
영국 '휴직 제도'의 임금 지급	
1900 · 1950의 예 / 각주 vi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예	
사회가 일자리를 만드는 세 경로	

4-3. 통합 사고 문제 – 11장과 16장을 잇는 자리

문제

11장에서 저자는 복지 국가가 자본주의가 경제적 역동성을 좇으며 만들어 내는 피할 수 없는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고, 잘 설계하면 새 기술과 새 작업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북유럽 나라들이 그 가장 좋은 예라고 썼다(92쪽 ¶5, 「Strawberry」를 보라고 덧붙임). 16장에서 저자는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이론상으로는 재훈련으로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폭넓은 국가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렵다고 쓰고, 실업 급여 · 소득 지원, 저렴한 재훈련 제도, 스웨덴 · 핀란드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같은 실질적 구직 지원을 들었다(124쪽 ¶3). 이를 바탕으로, 아래 124쪽 ¶3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r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같은 단락에서 두 번 더 쓰인 말)을 쓰고, 그 근거를 11장과 16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1장 또는 16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 Displaced workers need unemployment benefit and income supports that will see them through the _____ proces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7 CHOCOLATE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hocolate」 (원서 PDF 126~132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초콜릿의 나라 스위스는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이 장은 노르웨이 친구 페르난다가 알려 준, 코코아 가루를 듬뿍 넣은 브라우니로 시작한다. 스스로 '중독자'라고 고백하는 저자의 초콜릿 사랑은 수입이 금지되던 1960년대 중반 한국에서 미군 기지를 몰래 빠져나와 암시장에서 팔리던 M&M으로 시작되었다. 아즈텍의 차가운 음료였던 초콜릿은 1847년 고체가 되었고, 1875년 분유로 만든 첫 밀크 초콜릿과 1879년 콘칭 공정을 거치며 스위스는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가 되었다. 저자는 초콜릿 이야기를 발판 삼아 스위스가 은행과 관광, 곧 서비스로 번영하는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라는 통념을 뒤집는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제조업 산출이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이고, 탈산업화는 수요가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에서 왔으며, 탈산업 담론은 좋게 보아도 오해를 부르고 나쁘게 보면 실물 경제에 해롭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4장(멸치)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스위스 성공의 비밀은 서비스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제조업이다(131쪽 ¶4~¶5) / 서비스는 제조업 없이 존재할 수 없다(130쪽 ¶5) /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주로 서비스의 상대 가격 상승 탓이다(130쪽 ¶3) / 탈산업화를 이끄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다(130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I am an addict / The illegal substance / chocolate is chocolate / a whole new universe / (wimps!) / a byword for high-quality chocolate / A negative spin · A positive spin /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 would have us believe / a convenient excuse /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 an unwitting role model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Daniel Peter와 Henri Nestlé 사이를 오가는 128쪽 ¶7 / it(127쪽 ¶2 = Hershey's bar · Dairy Milk) / they(127쪽 첫 줄 = these chocolatiers) / them(128쪽 ¶2 = the Aztecs) / The two(128쪽 ¶7) / it(129쪽 첫 줄 = Switzerland) / it(130쪽 ¶5 = the manufacturing sector) / these countries(131쪽 ¶1 = 미국 · 영국)
7~8	내용 일치·불일치	1960년대 중반 · 1967 · 1975(가나 초콜릿) · 70% · 23% · 11% · 3대 생산국 · 에콰도르 · 페루 · 16세기 · 17세기 · 1847 · 1875 · 1879 · 1970년대 · 1990년대 · 약 900만 명 · 40% → 10~20% · 약 10% · 60~70% · 80~90% · 1980년대 · 2008 · 1694 · 2020~22
9~10	**어법**	형용사적 to부정사 · 원서 표기 got hooked · 동명사 주어 · other than · would(과거 습관) · enough of a + 명사 + to V · that of · so ~ that · having p.p. · be said to have p.p. · which is why · 과거완료 · 지각동사 + O + 원형 · 관계대명사 what · 수동 분사구문 · what절 주어 → 단수 · 비교절 도치 · used to be p.p. · for + not -ing · 전치사 + which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enterprising↔unenterprising · dependable↔unreliable · dismissive↔appreciative · refined↔crude · prevalent↔rare · basic↔sophisticated · decline↔expand · proponent↔opponent · marginally↔substantially · feeble↔robust · unwitting↔deliberate
12	빈칸 추론	같은 산출에 더 적은 노동자(130쪽 ¶2) / changes in productivity, not changes in demand(130쪽 ¶1) / services are becoming relatively more expensive(130쪽 ¶3) / because it is their main customer(130쪽 ¶5)
13	문장 삽입	다크 초콜릿이 먼저였던 까닭(128쪽 ¶4~¶6): 1847 고체화 → 첫 바는 다크 초콜릿 → This is not because ~(인기 때문이 아님) → It was because ~(우유의 수분 · 곰팡이)
14	무관한 문장	저자의 초콜릿 소비(127쪽 ¶4~128쪽 ¶1)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스위스의 1인당 제조업 산출, 129쪽 ¶5)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중독의 시작(126쪽 ¶1~¶4): 중독 고백 → 불법 물질 = M&M → 'M&M 암시장?' · 수입 금지 → 작은 소비재 밀수 · 떠돌이 행상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제조업과 R&D · 영미의 착각(130쪽 ¶6~131쪽 ¶1): R&D의 60~70% · 80~90% → 제조업의 쇠퇴를 긍정적 신호로 착각 → 방치 · 편리한 핑계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나라 · 비율 · 재료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960년대 중반(M&M) · 1967(한국의 초콜릿 생산 시작) · 1975(가나 초콜릿) · 70% · 23%(Dairy Milk) · 11%(Hershey) · 16세기(스페인의 정복) · 17세기(유럽 전파) · 1847(고체 초콜릿) · 1875(밀크 초콜릿) · 1879(콘칭) · 1970년대(탈산업 담론) · 1990년대(탈산업화) · 약 900만 명(스위스 인구) · 40% → 10~20%(제조업 고용) · 약 10% · 60~70% · 80~90%(R&D) · 1980년대 · 2008 · 1694 · 2020~22. 1967은 생산 시작, 1975는 가나 초콜릿이다. 나라 · 회사 · 인물도 많다(가나 · 코트디부아르 · 인도네시아 · 에콰도르 · 페루 · 싱가포르 · 인도 · 르완다 · Lotte · Fry's · Lindt & Sprüngli · Nestlé · Daniel Peter · Henri Nestlé · Jostein Hauge).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1967 ↔ 1975, 11% ↔ 23%, 차가운 음료 ↔ 따뜻한 음료, 16세기 ↔ 17세기, 다크 ↔ 밀크, 생우유 ↔ 분유, 1875 ↔ 1879, 가장 산업화된 경제 ↔ 서비스 경제, 생산성 ↔ 수요, 상대 가격 ↔ 절대량, 영국은 예외 ↔ 영국도 같음). 전언 · 추측(it is believed · are said to · probably · highly likely)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탈산업 담론 지지자의 주장(would have us believe)을 저자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hocolate」 (126~131쪽)

논증형(초콜릿 중독 고백 → 미군 기지의 M&M과 수입 금지 → 가나 초콜릿 → 고급부터 대중 초콜릿까지 → 카카오의 기원과 아즈텍 → 스페인과 유럽 → 1847 고체 초콜릿 → 1875 밀크 초콜릿 · 1879 콘칭 → 스위스 = 서비스 경제라는 통념 → 탈산업 담론 → 반박: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스위스 → 생산성 · 상대 가격 → 서비스와 혁신은 제조업에 기댐 → 영미의 해악 → 결론: 스위스의 비밀은 제조업). 핵심 축은 **서비스(탈산업 담론) vs 제조업**, 그리고 **수요의 변화 vs 생산성의 변화**.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6 [제목]	요리	Fernanda's brownies(노르웨이 친구 Fernanda Reinert) – 설탕 · 밀가루 · 달걀 · 베이킹파우더 · 많은 코코아 가루
126 ¶1~¶3	도입	'중독자'의 고백 / 1960년대 중반 걸음마 시절 · 미군 기지에서 빼돌린 '불법 물질' = M&M
126 ¶4	수입 금지	산업화에 필요한 기계 · 원자재 외 수입 금지 / 미군 기지의 소비재 밀수 → 떠돌이 행상 → 중산층
126 ¶5	한국 초콜릿	1967년까지 생산 없음 · 1975년 가나 초콜릿(가나산 콩 · Lotte) – 가장 오래 이어진 상표
126 ¶6~127 첫 줄	고급 초콜릿	60년 가까운 씨름 / 다섯 고급 초콜릿 회사(알파벳 순) · 원산지를 따지는 감식가는 아님
127 ¶1~¶2	대중 초콜릿	속물이 아님 / Hershey 11% · Dairy Milk 23% · '초콜릿은 초콜릿'
127 ¶3~128 ¶1	온갖 조합	땅콩 · 견과 · 오렌지 / 밀가루 → 새 우주 / 코코아 · 카카오 닙스 · 칠리 콘 카르네 · 몰레 포블라노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8 ¶2	카카오의 기원	메소아메리카 원산 · 3대 생산국은 그 밖 · 에콰도르 · 페루에서 처음 재배(여겨짐) · 아즈텍의 차가운 음료 · 화폐(전언)
128 ¶3~¶4	유럽으로	16세기 스페인 · xocolātl / 고추를 빼고 설탕 · 꿀 · 17세기부터 유럽에 퍼짐
128 ¶5~¶6	고체 초콜릿	1847 Fry's of Bristol의 첫 대량 생산 바 · 다크 초콜릿 — 우유를 넣으면 곰팡이
128 ¶7	스위스의 혁신	1875 Daniel Peter(분유 — Henri Nestlé) · Nestlé 설립 · 1879 Lindt & Sprüngli의 콘칭 →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
129 첫 줄~¶1	통념	스위스 = 초콜릿 · 시계뿐 · 서비스로 먹고삶 / 부정적 해석 · 긍정적 해석(탈산업 경제의 본보기)
129 ¶2~¶4	탈산업 담론	1970년대 · 농업 → 공업 → 서비스 / 1990년대 탈산업화 · 중국 / 스위스 · 싱가포르 = 증거 · 인도 · 르완다
129 ¶5~130 첫 줄	반박 1	스위스 = 1인당 제조업 산출 세계 1위 · 생산재 / 싱가포르 2위 · 노르웨이 · 핀란드의 해변 휴가
130 ¶1~¶4	반박 2	탈산업화 = 생산성의 변화 · 고용 40% → 10~20% /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짐 / 제조업 능력 = 생활 수준의 결정 요인
130 ¶5~¶6	제조업의 힘	서비스의 주된 고객 = 제조업 / 혁신의 원천(R&D 60~70% · 80~90%)
131 ¶1~¶3	영미의 해악	1980년대부터 제조업 방치 · 금융 과잉 → 2008 위기 · 거품 / 팬데믹: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131 ¶4~¶5	결론	스위스 성공의 비밀 = 세계 최강의 제조업 / 탈산업 담론은 좋게 보아도 오해, 나쁘게 보면 해로움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1960년대 한국의 수입	금지 — 승용차 · TV · 비스킷 · 초콜릿 · 바나나	허용 — 산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계 · 원자재
초콜릿 취향	고급 — 다섯 고급 초콜릿 회사 · 70% 카카오 바 · 이국적인 트러플	대중 — Dairy Milk · 가나 · Hershey('초콜릿은 초콜릿')
Hershey 평가	유럽의 많은 '동료 중독자' — 초콜릿이 부족하다며 깔봄(11%)	저자 — M&M 시절 들인 맛 · 여전히 각별한 애정
카카오의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 — 메소아메리카(처음 재배는 에콰도르 · 페루로 여겨짐)	오늘날 3대 생산국 — 코트디부아르 · 가나 · 인도네시아
초콜릿 음료	아즈텍 — 차가운 음료 · 옥수수 퓌레 · 고추 · 올스파이스 · 바닐라	멕시코의 스페인 사람 — 고추를 빼고 설탕 · 꿀 · 17세기부터 유럽에
첫 초콜릿 바(1847)	겉보기 — 다크 초콜릿이 더 인기 있어서?	실제 — 우유를 넣으면 여분의 수분으로 곰팡이 → 1875 분유로 해결
스위스에 대한 시각	통념 — 초콜릿 · 시계뿐 · 서비스(은행 · 관광)로 먹고삶	실제 —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1인당 제조업 산출 1위 · 생산재)
스위스의 두 해석	부정적 — 독재자의 검은돈 · 조잡한 기념품	긍정적(더 널리 퍼짐) —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탈산업화의 원인	탈산업 담론 — 수요가 서비스로 옮겨 감(절대량)	저자 — 주로 생산성의 변화(기계화 · 서비스의 상대 가격 상승)
제조업의 몫	겉보기 —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	상대 가격을 고려하면 — 대부분 아주 조금 감소(영국은 예외) ·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는 증가
서비스와 제조업	'새' 서비스 — 전문 회사가 공급 → 서비스 산출로 계산	실제 — 예전엔 제조 기업이 사내에서 제공 · 주된 고객은 제조업(130쪽 ¶5)
제조업에 대한 태도	미국 · 영국 — 쇠퇴 = 긍정적 신호라는 착각 · 방치 → 금융 과잉 · 거품	스위스의 비밀 — 세계 최강의 제조업(초콜릿 명성도 제조업의 독창성)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hocolate ([제목])	Fernanda's brownies(노르웨이 친구 Fernanda Reinert) · 설탕 · 밀가루 · 달걀 · 베이킹파우더 · 많은 코코아 가루 — '가장 끈적한 브라우니'
저자의 '중독'	**1960년대 중반** 걸음마 시절에 시작 · 처음 빠진 '불법 물질' = M&M(미군 기지에서 빼돌려 한국 암시장에서 판매)
당시 한국의 수입 금지	산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계 · 원자재 외 금지(승용차 · TV · 비스킷 · 초콜릿 · 바나나) / 미군 기지에서 작은 소비재를 대규모로 밀수(미군 기지는 지금도 몇 곳 남아 있음)
밀수 소비재	통조림(Dole 과일 칵테일 · Spam) · 주스 가루(Tang) · 비스킷 · 껌 · 초콜릿 → 떠돌이 행상 → 여윳돈 있는 중산층 가정 / 초콜릿(M&M · Hershey 밀크 초콜릿 바)은 가장 인기 있는 축
한국 초콜릿	**1967년**까지 생산 없음 · **1975년** 가나 초콜릿(Lotte · 가나산 카카오 콩으로만 · 한글로는 'gh'를 못 적음) — 지금도 가장 오래 이어진 상표
고급 초콜릿 회사(알파벳 순)	Hotel Chocolat(영국) · Lindt & Sprüngli(스위스) · Pierre Marcolini(벨기에) · Republica del Cacao(에콰도르) · Valrhona(프랑스) / 저자는 단일 농장 원산지 · 베네수엘라산과 트리니다드산 콩의 차이를 따질 감식가는 아님
초콜릿 함량(BBC 보도)	Hershey **11%** · Cadbury's Dairy Milk **23%**(감히 '초콜릿'이라 부르지 못함) / 70% 카카오 바
좋아하는 조합	땅콩(땅콩 M&M · Reese's · 가장 좋아하는 Snickers) · 통아몬드 · Toblerone · Ferrero Rocher(헤이즐넛 삼위일체) / 오렌지(Terry's Chocolate Orange · 오렌지 조각 · Jaffa Cakes)
밀가루와 초콜릿	브라우니 · 퍼지 케이크 · 기네스 케이크 · 용암 케이크 ·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 Kit Kat · Twix ·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다이제스티브 · 초콜릿 칩 쿠키
과자가 아닌 방식	어릴 때 마시는 초콜릿(kokoa) · 지금은 홍차 · 커피 / 카카오 닙스 · 칠리 콘 카르네에 다크 초콜릿 두어 조각 · 멕시코의 몰레 포블라노(초콜릿 + 고추 소스)
카카오나무	Theobroma cacao · 메소아메리카 원산 / 3대 생산국 코트디부아르 · 가나 · 인도네시아 / 처음 재배는 오늘날의 에콰도르 · 페루로 여겨짐(논란 있음)
아즈텍과 카카오	올멕 · 마야 · 아즈텍이 받아들임 / '콩' = 카카오 꼬투리의 씨앗 · 옥수수 퓌레 · 고추 · 올스파이스 · 바닐라를 넣은 차가운 음료 / 고지대에서 자라지 않아 귀함 · 마야 · 아즈텍이 화폐로 썼다고 함(전언)
유럽으로	스페인 사람들 · **16세기** 아즈텍 제국 정복 뒤 · 이름은 아즈텍 말 xocolātl에서 / 음료 · 고추를 빼고 설탕 · 꿀 · **17세기**부터 유럽에 바르게 퍼짐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첫 초콜릿 바	**1847년** · Fry's of Bristol(영국 퀘이커교도 제과 회사 삼두마차 — Cadbury's of Birmingham · Rowntree's of York) · 다크 초콜릿 · 우유 → 여분의 수분 → 곰팡이
밀크 초콜릿	**1875년** 두 스위스인 · 쇼콜라티에 Daniel Peter가 생우유 대신 분유(Henri Nestlé 발명) · 둘이 뒤에 다른 이들과 Nestlé 설립
콘칭(conching)	**1879년** Lindt & Sprüngli(스위스 회사) · 재료를 기계로 오래 섞어 질감 · 풍미 개선 → 스위스 =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
스위스에 대한 통념	초콜릿과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뿐 · 서비스로 먹고삶 / 부정적: 독재자의 검은돈 · 뻐꾸기시계 · 소 방울(아마 다 중국산 — 추측) / 긍정적: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
탈산업 담론	**1970년대**에 생겨남 · 농업 → 공업(옷 · 가구 → 전자 제품 · 자동차) → 서비스 / **1990년대**에 힘을 얻음('탈산업화') · 중국 · 스위스 · 싱가포르 · 인도 · 르완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실제	스위스 =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1인당 제조업 산출 1위) · 인구 약 **900만** · 생산재(기계 · 정밀 장비 · 산업용 화학 물질) / 싱가포르 = 2위
제조업 고용	반세기 전 부자 나라 노동력의 약 **40%** → 오늘날 **10~20%**로 같은(때로는 더 많은) 산출 / 「Strawberry」 참고
상대 가격	제조업 생산성이 더 빨리 오름 →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짐(컴퓨터 · 휴대전화 vs 이발 · 외식) / 고려하면 제조업 몫은 아주 조금 감소(영국은 예외) ·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는 증가
서비스와 R&D	금융 · 운송 · 사업 서비스의 주된 고객 = 제조업(130쪽 ¶5) · 제조 활동으로 분류하자는 주장도(131쪽 각주 i: Jostein Hauge) / 미국 · 영국: 제조업 산출 약 **10%** · R&D **60~70%** · 독일 · 한국 **80~90%**
미국과 영국	**1980년대**부터 제조업 방치 · 금융 과잉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 장기 침체 · 저금리 · 양적 완화의 거품 / 132쪽 각주 ii: 영국 금리는 **1694년**(잉글랜드 은행 설립) 기록 시작 이래 최저
코로나19(2020~22)	주식 시장은 역사적 최고치 · 실물 경제는 곤두박질 · 실업 · 소득 감소 →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는 서로 상관없음
스위스 성공의 비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은행 · 고급 관광이 아님) / 초콜릿 명성도 제조업의 독창성(분유 · 밀크 초콜릿 · 콘칭)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hocolate」 (원서 PDF 126~131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7-1 중독의 시작 – 미군 기지의 M&M과 한국의 수입 금지 126쪽 ¶1~¶5

원문 위치 원서 126쪽 ¶1~¶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6쪽 [제목]	Fernanda's brownies (from Fernanda Reinert, a Norwegian friend)	노르웨이 친구의 요리 — 설탕 · 밀가루 · 달걀 · 베이킹파우더 · 많은 코코아 가루
★	126쪽 ¶1	I have a confession to make. I am an addict.	도입 — 형용사적 to부정사 · '중독' 비유의 시작
▲	126쪽 ¶2 첫 문장	My habit started in the mid-1960s, when I was a toddler (yes, I was precocious)	계속적 관계부사 when · 시기 — 일치
★	126쪽 ¶2 둘째 문장	The illegal substance that I first got hooked was smuggled out of American military bases and sold in black markets	원서 표기 got hooked(보통 get hooked on) · 수동태 병렬 · 마약 비유
◆	126쪽 ¶3	It was called M&Ms.	반전 — '불법 물질'의 정체
▲	126쪽 ¶4 첫~둘째 문장	Black market in M&Ms? I am not making it up.	의문문 한 문장 · make up
★	126쪽 ¶4 셋째 문장	the importing of foreign goods other than the machines and the raw materials directly needed for the country's industrialization was banned	주어 the importing(단수) → was · other than · 일치
★	126쪽 ¶4 넷째 문장	enterprising Koreans smuggled smaller consumer items on a large scale out of the American military bases that dotted the country at the time (we still have some)	순서 문항의 바탕 · 어휘(enterprising · dot)
▲	126쪽 ¶4 다섯째 문장	were sold on to itinerant peddlers, who would then sell them to middle-class families with a bit of extra cash to spare	계속적 who · 과거의 습관 would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6쪽 ¶5 첫 문장	Chocolates, like M&Ms and Hershey milk chocolate bars, were among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던 밀수품 가운데 하나
★	126쪽 ¶5 둘째 문장	No one produced chocolate in Korea until 1967, and it wasn't really up to much until 1975, when we got the Gana chocolate bar	숫자 — 일치 함정(1967 ↔ 1975)
★	126쪽 ¶5 둘째 문장	made exclusively with cacao beans imported from Ghana ... by Lotte confectioner – it is still the country's longest-running brand of chocolate	과거분사구 · 이름의 유래 · 일치

내용

저자는 고백할 것이 있다며 자신이 중독자라고 말한다. 그 버릇은 저자가 걸음마를 하던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저자는 '그렇다, 나는 조숙했다'고 덧붙인다). 처음 빠져든 불법 물질은 미군 기지에서 몰래 빼돌려져 저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의 암시장에서 팔리던 것, 바로 M&M이었다. M&M의 암시장이라니, 지어낸 말이 아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나라의 산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계와 원자재를 빼고는 외국 상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승용차, 텔레비전, 비스킷, 초콜릿, 심지어 바나나까지 무엇이든 그랬다. 자동차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수완 좋은 한국인들은 당시 전국 곳곳에 있던 미군 기지(지금도 몇 곳은 남아 있다)에서 더 작은 소비재를 대규모로 빼돌렸다. 통조림(저자는 Dole 과일 칵테일과 Spam이 특히 인기였다고 기억한다), 주스 가루(Tang이 최고였다), 비스킷, 껌, 초콜릿이 떠돌이 행상에게 넘겨졌고, 행상은 이를 여윳돈이 좀 있는 중산층 가정에 팔곤 했다. M&M이나 Hershey 밀크 초콜릿 바 같은 초콜릿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물건에 속했다. 한국에서는 1967년까지 아무도 초콜릿을 생산하지 않았고, 1975년까지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1975년에 제과 회사 Lotte가 가나에서 수입한 카카오 콩으로만 만든 가나 초콜릿 바를 내놓았다(한글로는 'gh'를 적을 수 없고, 어차피 그 'h'는 소리 나지 않는다). 가나 초콜릿은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초콜릿 상표다.

어법

- **I have a confession to make. I am an addict.** : a confession to make =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고백할 것). make a confession(고백하다)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꼴이다.
- **My habit started in the mid-1960s, when I was a toddler** : 콤마 + when =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선행사 the mid-1960s, '그런데 그때'). in the mid-1960s = 1960년대 중반에.
- **The illegal substance that I first got hooked was smuggled out of American military bases and sold in black markets in South Korea of my childhood** : get hooked on ~(~에 빠지다)이 보통의 꼴이라 the substance that I first got hooked on에서 on이 빠진 원서 표기다. 주어 The illegal substance → was smuggled ... and (was) sold(수동태 병렬).
- **Black market in M&Ms? I am not making it up.** : Black market in M&Ms? = 주어 · 동사 없이 명사만으로 된 의문문(문장 수를 셀 때 한 문장). make up = (이야기를) 지어내다.
- **the importing of foreign goods other than the machines and the raw materials directly needed for the country's industrialization was banned** : 주어는 the importing(명사처럼 쓰인 동명사, 단수) → was banned. other than ~ = ~ 이외의. directly needed for ~ = raw materials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구.
- **Smuggling in things like cars and TVs from abroad was very difficult, but enterprising Koreans smuggled smaller consumer items on a large scale out of the American military bases that dotted the country** : 동명사

주어 Smuggling → 단수 was.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American military bases) → dotted. on a large scale = 대규모로.

- **were sold on to itinerant peddlers, who would then sell them to middle-class families with a bit of extra cash to spare** : sell on to ~ = (넘겨받은 것을) ~에게 되팔다. 콤마 + who = 계속적 용법. would = 과거의 반복된 습관(~하곤 했다). cash to spare = 쓰고 남는 돈(형용사적 to부정사).
- **it wasn't really up to much until 1975, when we got the Gana chocolate bar, made exclusively with cacao beans imported from Ghana** : not up to much = 별로 대단하지 않다. not A until B = B가 되어서야 A. made exclusively with ~ = the Gana chocolate bar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fession	고백	admission	—
addict	중독자	—	—
precocious	조숙한	advanced	—
substance	물질	material	—
hooked	(~에) 빠진, 중독된	addicted	—
smuggle	밀수하다, 몰래 빼돌리다	bootleg	—
black market	암시장	—	—
ban	금지하다	prohibit	allow
enterprising	수완 좋은, 진취적인	resourceful	unenterprising
dot	곳곳에 흩어져 있다	scatter	—
itinerant	떠돌아다니는	travelling	settled
peddler	행상	hawker	—
exclusively	오로지	solely	—
longest-running	가장 오래 이어진	—	—

내용 일치 [제목] = 노르웨이 친구 Fernanda Reinert의 브라우니(설탕 · 밀가루 · 달걀 · 베이킹파우더 · 많은 코코아 가루) / 중독의 시작 = 1960년대 중반 걸음마 시절(조숙했다) · 처음 빠진 '불법 물질' = M&M(미군 기지에서 빼돌려 한국 암시장에서 판매) / 당시 한국: 산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계 · 원자재 외 수입 금지(승용차 · TV · 비스킷 · 초콜릿 · 바나나) · 자동차 · TV 밀수는 매우 어려움 · 수완 좋은 한국인이 미군 기지에서 작은 소비재를 대규모로 밀수(미군 기지는 지금도 몇 곳 있음) · 통조림(Dole 과일 칵테일 · Spam) · 주스 가루(Tang) · 비스킷 · 껌 · 초콜릿 → 떠돌이 행상 → 여윳돈 있는 중산층 가정 / 초콜릿(M&M · Hershey 밀크 초콜릿 바)은 가장 인기 있는 축 / 한국 초콜릿: 1967년까지 생산 없음 · 1975년까지는 별로 · 1975년 가나 초콜릿(Lotte · 가나산 카카오 콩으로만 · 한글로는 'gh'를 못 적고 'h'는 소리 나지 않음) · 지금도 가장 오래 이어진 상표. **밑줄 의미** I am an addict = 초콜릿을 끊지 못한다는 농담 섞인 고백 / The illegal substance = 마약처럼 말했지만 실은 밀수된 M&M / I am not making it up =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 you name it = 무엇이든 다 / enterprising Koreans = 수입 금지의 틈을 파고든 수완 / not really up to much = 1975년 전 한국 초콜릿은 별로였다 / 지칭: 126쪽 ¶2 that(I first got hooked) = The illegal substance / 126쪽 ¶3 It = 그 불법 물질 / 126쪽 ¶4 it(making it up) = M&M 암시장 이야기 · that(dotted) = the American military bases · who = itinerant peddlers · them(sell them) = 밀수된 소비재 / 126쪽 ¶5 it(wasn't up to much) = 한국의 초콜릿 · it(the 'h' in it) = 'gh' · it(is still) = 가나 초콜릿.

한 줄 요약 저자의 초콜릿 '중독'은 수입이 금지되던 1960년대 중반 한국에서 미군 기지를 빠져나온 M&M으로 시작되었고, 한국 초콜릿은 1975년 가나 초콜릿이 나와서야 쓸 만해졌다.

17-2 초콜릿이라면 무엇이든 – 고급 초콜릿부터 칠리 콘 카르네까지 126쪽 ¶6 ~ 128쪽 ¶1

원문 위치 원서 126쪽 ¶6 ~ 128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6쪽 ¶6	I have spent almost six decades constantly struggling with (and usually giving in to) my desire to consume everything and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cacao beans	spend + 시간 + -ing · give in to · 숫자
▲	126쪽 ¶7(127쪽 첫 줄까지)	in alphabetical order, so that I don't show any favouritism here – Hotel Chocolat (British), Lindt & Sprüngli (Swiss) …	so that 목적 · 다섯 회사의 국적 – 일치
★	127쪽 첫 줄(126쪽 ¶7 둘째 문장)	I am not enough of a connoisseur to put much value in the single-estate origin of cacao beans	enough of a + 명사 + to V · 불일치 함정
▲	127쪽 첫 줄(126쪽 ¶7 둘째 문장)	I cannot resist the intensity and the complexity of flavours and aromas that they are able to conjure	they = these chocolatiers · conjure
◆	127쪽 ¶1	Liking those very refined chocolate products, however, does not mean that I am a snob. I take chocolate in all its forms.	동명사 주어 → does · 주제문
★	127쪽 ¶2 둘째 문장	rather rudely dismissive of Hershey's chocolate bar for not having enough chocolate in it	for + 동명사의 부정 · 어법 문항의 바탕
★	127쪽 ¶2 셋째 문장	it has only 11% chocolate – less than half that of a chocolate bar that contains so little chocolate that it does not dare call itself 'chocolate' … Cadbury's Dairy Milk, with a 23% chocolate content	that of · so ~ that · 숫자(11% ↔ 23%)
▲	127쪽 ¶2 넷째 문장	I still have a very soft spot for Hershey's, having acquired the taste for it during my M&M days	완료 분사구문 – 어법 문항
◆	127쪽 ¶2 다섯째 문장	for me, chocolate is chocolate – whether it is 70%, 23% or 11%	whether A, B or C · 밑줄 의미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7쪽 ¶3	I will have to vote for peanuts … the Holy Hazelnut Trinity of Ferrero Rocher … I am partial to orange and chocolate combinations	be partial to · 좋아하는 조합 — 일치
★	127쪽 ¶4 첫 문장	Introduce flour (with fat, especially butter, and sugar) to chocolate and you are creating a whole new universe	명령문 + and · 무관한 문장 문항의 바탕
▲	127쪽 ¶4 넷째~다섯째 문장	chocolate digestives are my absolute favourite … chocolate chip cookies that I cannot get enough of	cannot get enough of
★	127쪽 ¶5 둘째 문장	I loved drinking chocolate (kokoa, as we called it in Korea then), although these days I drink it rarely, having moved on to tea and coffee	as + S + V · 분사구문
★	127쪽 ¶5 다섯째 문장(128쪽 첫 줄까지)	add a couple of squares of a dark chocolate bar when making chilli con carne, which works wonders	접속사 + 분사 · 계속적 which
◆	128쪽 첫 줄 · 128쪽 ¶1	chicken with mole poblano, a sauce made with chocolate and chilli … I could go on. But you get the picture.	동격 · 이야기 정리

내용

M&M 시절부터 저자는 60년 가까이, 카카오 콩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고 싶은 욕구와 끊임없이 씨름해 왔다(그리고 대개는 졌다). 맨 위 고급품으로는 고급 초콜릿 회사의 바 · 트러플 · 플로렌틴 같은 멋진 것들이 있다. 편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알파벳 순서로 꼽으면 Hotel Chocolat(영국), Lindt & Sprüngli(스위스), Pierre Marcolini(벨기에), Republica del Cacao(에콰도르), Valrhona(프랑스)다. 저자는 초콜릿 바에 든 카카오 콩의 단일 농장 원산지에 큰 가치를 두거나, 이 회사들이 흔히 내세우는 베네수엘라산과 트리니다드산 콩의 풍미 차이를 따질 만큼 감식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빚어내는 풍미와 향의 강렬함과 복잡함에는 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주 세련된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자가 고급만 찾는 속물은 아니다. 저자는 초콜릿이라면 어떤 형태든 먹는다. 70% 카카오 바나 고급 초콜릿 회사의 이국적인 트러플 한 상자보다 Cadbury의 Dairy Milk나 가나 초콜릿 같은 평범하고 믿음직한 바를 고를 때가 많다.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동료 중독자'는 Hershey 초콜릿 바에 초콜릿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다며 꽤 무례하게 깎아내린다. BBC 보도에 따르면 Hershey 바의 초콜릿은 11%뿐이어서, 초콜릿이 너무 적게 들어 감히 스스로를 '초콜릿'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바, 곧 초콜릿 함량 23%인 Cadbury의 Dairy Milk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도 저자는 M&M 시절에 그 맛을 들인 덕에 Hershey에 여전히 각별한 애정이 있다. 저자에게 초콜릿은 70%든 23%든 11%든 그냥 초콜릿이다. 초콜릿에 무엇을 더한다면 저자는 땅콩에 표를 던진다(땅콩 M&M, 여러 Reese's 제품,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Snickers). 초콜릿을 입힌 통아몬드, 작은 견과 조각이 든 Toblerone, '헤이즐넛 삼위일체'인 Ferrero Rocher도 기꺼이 먹는다. 과일을 더하는 데는 마음이 엇갈리지만 오렌지와 초콜릿의 조합(Terry's Chocolate Orange, 다크 초콜릿을 입힌 설탕 절임 오렌지 조각, Jaffa Cakes)은 특히 좋아한다. 초콜릿에 밀가루(그리고 지방, 특히 버터와 설탕)를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 브라우니, 퍼지 케이크, 기네스 케이크, 용암 케이크,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그리고 수많은 비스킷과 쿠키가 있다. Kit Kat

과 Twix도 좋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콜릿 다이제스티브이고, 초콜릿 칩 쿠키(Maryland, Pepperidge Farm, 슈퍼마켓 자체 상표, 집에서 구운 것)는 아무리 먹어도 모자란다. 마지막으로 과자가 아닌 방식도 있다. 어릴 때는 마시는 초콜릿(당시 한국에서는 '코코아'라고 불렀다)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홍차와 커피로 옮겨 가 거의 마시지 않는다. 아이스크림은 대체로 별로지만 초콜릿이 들어 있으면 기꺼이 먹는다. 가끔 아침 시리얼 · 요구르트 · 아이스크림에 카카오 닙스를 뿌리고, 최근 한 친구에게서 칠리 콘 카르네를 만들 때 다크 초콜릿 두어 조각을 넣는 법을 배웠는데 효과가 놀랍다. 멕시코에 가면 초콜릿과 고추로 만든 소스인 몰레 포블라노를 곁들인 닭 요리를 자주 먹는다. 이야기는 더 할 수 있지만, 이제 감이 올 것이다.

어법

- **I have spent almost six decades constantly struggling with (and usually giving in to) my desire to consume everything and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cacao beans** : spend + 시간 + -ing = ~하며 (시간을) 보내다. struggling with와 giving in to가 목적어 my desire를 함께 받는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everything and anything → 단수 has). have to do with = ~와 관련이 있다.
- **in alphabetical order, so that I don't show any favouritism here** : so that + S + V = ~하도록(목적). 알파벳 순서는 편애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장치다.
- **I am not enough of a connoisseur to put much value in the single-estate origin of cacao beans … or to fuss about the differences in flavour** : be enough of a + 명사 + to V = ~할 만큼 충분히 ~이다. 부정이라 '~할 만한 감식가는 못 된다'. to put과 to fuss가 or로 병렬.
- **Liking those very refined chocolate products, however, does not mean that I am a snob** : 동명사 주어(Liking …) → 단수 does not mean. however = 문장 중간에 끼운 접속부사(그러나).
- **it has only 11% chocolate – less than half that of a chocolate bar that contains so little chocolate that it does not dare call itself 'chocolate'** : that of ~ = the chocolate content of ~(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that). so + little + 명사 + that = 너무 적어서 ~하다. dare + 동사원형(call).
- **I still have a very soft spot for Hershey's, having acquired the taste for it during my M&M days** : having + p.p. = 완료 분사구문(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일, 이유). having 없이 acquired만 쓰면 동사가 둘이 되어 비문. have a soft spot for = ~을 각별히 좋아하다.
- **Introduce flour (with fat, especially butter, and sugar) to chocolate and you are creating a whole new universe** : 명령문 + and = ~하면 …하게 된다. introduce A to B = A를 B에 넣다.
- **When I was a kid, I loved drinking chocolate (kokoa, as we called it in Korea then), although these days I drink it rarely, having moved on to tea and coffee** : drinking chocolate = 마시는 초콜릿(괄호의 kokoa가 그 이름). as we called it = 우리가 그렇게 부르던. having moved on = 완료 분사구문(이유).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cade	10년	—	—
give in to	~에 굴복하다	yield to	resist
upmarket	고급의	high-end	downmarket
favouritism	편애	partiality	impartiality
connoisseur	감식가	expert	novice
fuss about	~을 시시콜콜 따지다	—	—
conjure	빚어내다, 만들어 내다	produce	—
refined	세련된, 정제된	sophisticated	crud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nob	속물, 고급만 찾는 사람	—	—
dependable	믿음직한	reliable	unreliable
dismissive	깔보는, 무시하는	contemptuous	appreciative
soft spot	각별한 애정	fondness	dislike
scoff	게걸스럽게 먹다	devour	—
partial to	~을 특히 좋아하는	fond of	—

내용 일치 60년 가까이 카카오 콩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욕구와 씨름(대개는 굴복) / 고급 초콜릿 회사(편애하지 않으려고 알파벳 순): Hotel Chocolat(영국) · Lindt & Sprüngli(스위스) · Pierre Marcolini(벨기에) · Republica del Cacao(에콰도르) · Valrhona(프랑스) · 단일 농장 원산지나 베네수엘라산 · 트리니다드산 콩의 차이를 따질 감식가는 아니지만 풍미 · 향의 강렬함 · 복잡함에 저항 못함 / 속물이 아님 · 모든 형태의 초콜릿 · Dairy Milk나 가나를 70% 바 · 트러플보다 자주 고름 / 유럽의 많은 동료 중독자는 Hershey를 깔봄 · BBC: Hershey 11% · Dairy Milk 23% · M&M 시절 들인 맛 · '초콜릿은 초콜릿' / 땅콩(가장 좋아하는 Snickers) · 아몬드 · Toblerone · Ferrero Rocher · 과일은 엇갈리지만 오렌지 조합은 좋아함 / 밀가루 → 새 우주 ·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콜릿 다이제스티브 / 어릴 때 kokoa(지금은 홍차 · 커피) ·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이 들어 있으면 · 카카오 닙스 · 칠리 콘 카르네(친구에게 배움) · 멕시코의 몰레 포블라노. **밑줄 의미** so that I don't show any favouritism = 알파벳 순서는 공정함을 위한 장치 / not enough of a connoisseur = 원산지를 따지는 전문가 흉내는 내지 않는다 / does not mean that I am a snob = 고급만 찾지 않는다 / rather rudely dismissive = 유럽 애호가들의 깔봄에 대한 저자의 불만 / does not dare call itself 'chocolate' = 초콜릿이 너무 적어 이름조차 내세우지 못한다(23%) / chocolate is chocolate = 함량과 상관없이 다 좋다 / a whole new universe = 밀가루를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과자가 생긴다 / you get the picture = 이만하면 저자의 초콜릿 사랑을 알 것이다 / 지칭: 127쪽 첫 줄 that(these chocolatiers often highlight) = the differences in flavour · they = these chocolatiers / 127쪽 ¶2 it(enough chocolate in it · it has only 11%) = Hershey's chocolate bar · that(half that of) = the chocolate content · it(does not dare) = Cadbury's Dairy Milk / 127쪽 ¶3 their(little nut pieces) = Toblerone bars의 · them(Bring them on) = 오렌지와 초콜릿의 조합들 / 127쪽 ¶5 it(drink it rarely) = drinking chocolate · which(works wonders) = 다크 초콜릿을 넣는 일.

> **한 줄 요약** 저자는 고급 초콜릿부터 초콜릿이 11%뿐인 Hershey 바, 땅콩 · 오렌지 · 밀가루와의 조합, 칠리 콘 카르네와 몰레 포블라노까지 초콜릿이라면 어떤 형태든 즐긴다.

17-3 카카오 콩에서 밀크 초콜릿까지 – 초콜릿의 역사와 스위스 128쪽 ¶2~¶7

원문 위치 원서 128쪽 ¶2~¶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8쪽 ¶2 첫~둘째 문장	Chocolate is made from the seeds of the cacao tree (Theobroma cacao) … Côte d'Ivoire, Ghana and Indonesia being the three largest producers	be made from · 독립 분사구문 · 일치
◆	128쪽 ¶2 셋째 문장	There is a debate about it, but it is believed that the cacao tree was first domesticated in modern-day Ecuador and Peru	전언 · 추측(it is believed) — 단정 금지
★	128쪽 ¶2 넷째 문장	It was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nations of modern-day Mexico – the Olmecs, the Mayans and the Aztecs	세 민족 — 일치
★	128쪽 ¶2 다섯째 문장	which are of course not beans but the seeds of the cacao fruit … making a cold drink of chocolate mixed with corn purée and laced with chilli, allspice, and vanilla	not A but B · 분사구문 · 일치(cold)
▲	128쪽 ¶2 여섯째 문장	Because cacao tree cannot grow in the highlands that are home to the Aztecs, cacao beans were particularly valued by them	원서 표기(cacao tree 앞 관사 없음) · 일치 정답 후보
◆	128쪽 ¶2 일곱째 문장	The Mayans and the Aztecs are said to have used the cacao bean as a form of currency	be said to have p.p. — 전언
★	128쪽 ¶3	in the sixteenth century after their conquest of the Aztec empire, which is why the current names of the substance derive from the Aztec word, xocolātl	which is why · 일치 함정(16세기 ↔ 17세기)
▲	128쪽 ¶4 둘째~셋째 문장	the Spaniards in Mexico had taken the chilli out (wimps!) and added sugar or honey …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과거완료 · 저자의 농담
★	128쪽 ¶5	Chocolate was made solid only in 1847. Fry's of Bristol, one of the then triumvirate of British Quaker confectioners	숫자 · 동격 · 삽입 문항의 바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8쪽 ¶6 둘째~셋째 문장	This is not because dark chocolate was more popular than milk chocolate. It was because all the earlier attempts to add milk to chocolate bars had failed	not because ~ / It was because ~ · 삽입 문항의 단서
★	128쪽 ¶7 첫~둘째 문장	solved in 1875 by two Swiss. Daniel Peter, a chocolatier, created the first milk chocolate bars by ditching fresh milk and using powdered milk, invented by Henri Nestlé	지칭 문항의 바탕 · 숫자 · 인물
★	128쪽 ¶7 셋째 문장	The two later joined forces with others to form the food giant Nestlé	목적의 to부정사 · 일치
★	128쪽 ¶7 넷째 문장	In 1879, Lindt & Sprüngli, another Swiss firm, made the next leap in chocolate making by inventing the process of 'conching'	숫자 — 일치 함정(1875 ↔ 1879)
◆	128쪽 ¶7 다섯째 문장	Switzerland became a byword for high-quality chocolate	어휘(byword) ·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는 다리

내용

초콜릿은 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의 씨앗으로 만든다. 카카오나무는 메소아메리카가 원산지이지만, 오늘날 주요 생산국은 그 지역 밖에 있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인도네시아가 3대 생산국이다. 논란이 있지만, 카카오나무는 오늘날의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여겨진다. 카카오는 오늘날 멕시코 땅의 여러 민족, 곧 올멕 · 마야 · 아즈텍이 열심히 받아들였다. 아즈텍인은 카카오 '콩'(물론 콩이 아니라 카카오 열매, 곧 카카오 꼬투리의 씨앗이다)을 무척 좋아해, 초콜릿에 옥수수 퓌레를 섞고 고추 · 올스파이스 · 바닐라를 넣은 차가운 음료를 만들었다. 카카오나무는 아즈텍인이 사는 고지대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카카오 콩은 특히 귀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은 카카오 콩을 화폐로 썼다고 한다. 스페인 사람들은 16세기에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뒤 멕시코에서 초콜릿을 본국으로 가져갔고, 그래서 오늘날 이 물질의 이름은 아즈텍 말 xocolātl에서 나왔다. 처음 유럽에 들어왔을 때 초콜릿은 원래의 아즈텍 방식대로 음료였다. 다만 그때쯤 멕시코의 스페인 사람들은 아즈텍의 원래 조리법에서 고추를 빼고(저자는 '겁쟁이들!'이라고 놀린다) 설탕이나 꿀을 넣었다. (마시는) 초콜릿은 17세기부터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다. 초콜릿이 고체가 된 것은 1847년에 와서다. 당시 영국 퀘이커교도 제과 회사 삼두마차(버밍엄의 Cadbury's, 요크의 Rowntree's와 함께)의 하나인 브리스톨의 Fry's가 대량 생산된 첫 초콜릿 바를 발명했다. 초콜릿 음료에 우유를 섞는 관행은 두어 세기 전부터 있었지만, 첫 초콜릿 바는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이었다. 다크 초콜릿이 더 인기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 전에 초콜릿 바에 우유를 넣으려던 시도가 모두, 그 결과 생긴 여분의 수분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1875년 두 스위스인이 풀었다. 쇼콜라티에 Daniel Peter가 생우유를 버리고, 우유 기반 가공식품 기술의 마법사 Henri Nestlé가 발명한 분유를 써서 첫 밀크 초콜릿 바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뒤에 다른 이들과 힘을 합쳐 식품 대기업 Nestlé를 세웠다. 1879년에는 또 다른 스위스 회사 Lindt & Sprüngli가 재료를 기계로 오래 섞어 초콜릿의 질감과 풍미를 개선하는 '콘칭' 공정을 발명해 초콜릿 제조에서 다음 도약을 이루었다. 스위스는 고품질 초콜릿의 대명사가 되었다.

어법

- **Chocolate is made from the seeds of the cacao tree … Côte d'Ivoire, Ghana and Indonesia being the three largest producers** : be made from = (재료의 형태가 바뀌어) ~으로 만들어지다. 대시 뒤 Côte d'Ivoire … being ~ = 의미상 주어가 따로 있는 독립 분사구문.
- **There is a debate about it, but it is believed that the cacao tree was first domesticated in modern-day Ecuador and Peru** : it is believed that ~ = ~라고 여겨진다(가주어 it, 전언 · 추측). 단정이 아니므로 '처음 재배되었다'고 못 박지 않는다.
- **Aztecs were super-keen on the cacao 'beans' (which are of course not beans but the seeds of the cacao fruit, or cacao pod), making a cold drink of chocolate mixed with corn purée and laced with chilli** : be keen on = ~을 아주 좋아하다. not A but B. or = 곧(다른 이름). making ~ = 분사구문(그래서 ~을 만들었다). mixed · laced = chocolate을 꾸미는 과거분사 병렬.
- **The Mayans and the Aztecs are said to have used the cacao bean as a form of currency** : be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완료부정사 — 과거의 일에 대한 전언).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 **The Spaniards brought chocolate back home from Mexico in the sixteenth century after their conquest of the Aztec empire, which is why the current names of the substance derive from the Aztec word, xocolātl** : 콤마 + which = 앞 절 전체를 받는 계속적 용법. which is why ~ = 그래서 ~이다. derive from = ~에서 나오다.
- **By that time, however, the Spaniards in Mexico had taken the chilli out (wimps!) and added sugar or honey** : by that time + 과거완료(had taken · (had) added) = 그때 이미 ~해 두었다. take A out = A를 빼다.
- **It was because all the earlier attempts to add milk to chocolate bars had failed because of the resulting excess liquid, which allowed mildew to develop** : 앞 문장 This is not because ~에 이어 It was because ~로 진짜 까닭을 댄다. because of + 명사구. allow + O + to V. which = the resulting excess liquid(계속적 용법).
- **Daniel Peter, a chocolatier, created the first milk chocolate bars by ditching fresh milk and using powdered milk, invented by Henri Nestlé** : Daniel Peter = a chocolatier(동격). by + 동명사 둘 병렬(ditching · using). invented by ~ = powdered milk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riginate	기원하다	arise	—
domesticate	(작물을) 재배화하다	cultivate	—
enthusiastically	열성적으로	eagerly	reluctantly
pod	꼬투리	husk	—
lace	(양념 · 술을) 살짝 넣다	spike	—
currency	화폐	money	—
conquest	정복	subjugation	—
derive from	~에서 나오다	stem from	—
wimp	겁쟁이	coward	—
triumvirate	세 거두, 삼두	trio	—
mildew	곰팡이	mould	—
ditch	버리다	abandon	keep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ap	도약	advance	setback
byword	대명사, 상징	symbol	—

내용 일치 초콜릿 = 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의 씨앗 · 메소아메리카 원산 · 오늘날 3대 생산국 = 코트디부아르 · 가나 · 인도네시아(그 지역 밖) · 처음 재배는 오늘날의 에콰도르 · 페루로 여겨짐(논란 있음) / 올멕 · 마야 · 아즈텍이 받아들임 · 아즈텍: 카카오 '콩'(실은 꼬투리의 씨앗)에 옥수수 퓌레 · 고추 · 올스파이스 · 바닐라를 넣은 차가운 음료 · 고지대에서 자라지 않아 특히 귀함 · 마야 · 아즈텍이 화폐로 썼다고 함(전언) / 스페인 사람들: 16세기 아즈텍 제국 정복 뒤 멕시코에서 가져감 → 이름은 xocolātl에서 / 처음엔 음료 · 멕시코의 스페인 사람들이 고추를 빼고 설탕 · 꿀 · 17세기부터 유럽에 빠르게 퍼짐 / 1847년 고체 · Fry's of Bristol(영국 퀘이커교도 제과 회사 삼두마차: Cadbury's of Birmingham · Rowntree's of York)이 첫 대량 생산 바 · 다크 초콜릿 — 인기 때문이 아니라 우유를 넣으면 여분의 수분으로 곰팡이 / 1875년 두 스위스인: 쇼콜라티에 Daniel Peter가 생우유 대신 분유(Henri Nestlé 발명)로 첫 밀크 초콜릿 바 · 둘은 뒤에 다른 이들과 Nestlé 설립 / 1879년 Lindt & Sprüngli의 콘칭(기계로 오래 섞기 → 질감 · 풍미 개선) → 스위스 =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 **밑줄 의미** not beans but the seeds = 카카오 '콩'은 이름과 달리 씨앗이다 / (wimps!) = 고추를 뺀 스페인 사람들을 놀리는 저자의 농담 / the then triumvirate = 당시 영국 제과 업계를 이끈 세 회사 / This is not because ... It was because ... = 겉보기 이유와 진짜 이유의 대비 / the wizard of milk-based processed food technology = Henri Nestlé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표현 / the next leap = 밀크 초콜릿 다음의 큰 기술 진보 / a byword for high-quality chocolate = 스위스라고 하면 고급 초콜릿이 떠오른다 / 지칭: 128쪽 ¶2 It(originates · was adopted) = 초콜릿(카카오) · its(main producers) = 초콜릿의 · them(valued by them) = the Aztecs / 128쪽 ¶3 their(conquest) = the Spaniards의 · which(is why) = 앞 절 전체 / 128쪽 ¶4 it(was first brought) = chocolate / 128쪽 ¶6 This = 첫 바가 다크 초콜릿이었던 일 · which(allowed mildew) = the resulting excess liquid / 128쪽 ¶7 The two = Daniel Peter와 Henri Nestlé · which(improved) = 'conching'.

> **한 줄 요약** 아즈텍의 차가운 음료였던 초콜릿은 1847년 고체가 되었고, 1875년 분유를 쓴 밀크 초콜릿과 1879년 콘칭 공정이 스위스를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17-4 초콜릿만 만드는 나라? — 스위스와 탈산업 담론 129쪽 첫 줄 ~ ¶4

원문 위치 원서 129쪽 첫 줄 ~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9쪽 첫 줄 첫 문장	Many people think that chocolate is the only thing that Switzerland makes – except for those ludicrously expensive watches that only oligarchs, bankers and sports stars can afford	통념의 제시 · 어휘(ludicrously)
★	129쪽 첫 줄 둘째 문장	The widespread view is that it is a country that manufactures few things and lives on services	보어 that절 · live on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9쪽 ¶1 첫 문장	A negative spin on this would be that Switzerland is a country that makes a living by taking care of the black money deposited by Third World dictators in its secretive banks	부정적 해석 · by + 동명사
★	129쪽 ¶1 첫 문장 괄호	tacky souvenirs, like cuckoo clocks and cow bells (which these days are probably all made in China anyway)	저자의 추측(probably) — 단정 금지
★	129쪽 ¶1 둘째 문장	A positive – and more prevalent – spin is that the country is a model for the post-industrial economy, in which prosperity is based on services, like finance and high-end tourism, rather than manufacturing	전치사 + which · A rather than B
◆	129쪽 ¶2 첫 문장	The discourse of the post-industrial age, originating from the 1970s, starts from the simple but powerful idea that people increasingly want finer things as they become richer	동격 that · 어휘 문항의 바탕
★	129쪽 ¶2 둘째~넷째 문장	Once people fill their bellies, agriculture declines … clothing and furniture … electronics and cars … eating out, theatre, tourism, financial services	단계의 순서 — 어휘(basic · sophisticated)
▲	129쪽 ¶2 다섯째 문장	At that point, industry begins to decline, and services become the dominant economic sector, starting the post-industrial age	결과의 분사구문 starting · 어휘(decline)
★	129쪽 ¶3 첫 문장	gained traction in the 1990s, when almost all rich economies started seeing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fall and the importance of services rise … 'deindustrialization'	지각동사 see + O + 원형 · 용어 · 어법 (A)
★	129쪽 ¶3 둘째 문장	manufacturing had become what low-technology, low-wage countries like China did, while high-end services, like finance, IT services and business consulting, were the future	관계대명사 what · 어법 (B)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9쪽 ¶4 첫 문장	Switzerland, sometimes together with Singapore, has been touted as the proof that countries can maintain a very high standard of living by specializing in services	현재완료 수동 · 동격 that
★	129쪽 ¶4 둘째 문장	Persuaded by the argument and inspired by the examples of Switzerland and Singapore, som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and Rwanda, even have been trying to more or less skip industrialization altogether	수동 분사구문 · 어법 (C) · 나라 – 일치

내용

많은 사람이 스위스가 만드는 것은 초콜릿뿐이라고 생각한다. 올리가르히나 은행가, 스포츠 스타만 살 수 있는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를 빼면 말이다. 널리 퍼진 생각은 스위스가 제조하는 것이 거의 없고 서비스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스위스는 제3세계 독재자들이 비밀스러운 은행에 맡긴 검은돈을 관리하고, 버꾸기시계나 소 방울 같은 조잡한 기념품(요즘은 아마 어차피 다 중국에서 만들 것이다)을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 일본 관광객에게 팔아서 먹고사는 나라다. 긍정적으로 보면 – 그리고 이쪽이 더 널리 퍼진 해석이다 – 스위스는 번영이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과 고급 관광 같은 서비스에 바탕을 두는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다. 1970년대에 생겨난 탈산업 시대 담론은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을 원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나면 농업이 쇠퇴한다. 옷과 가구처럼 더 기본적인 다른 필요를 채우고 나면 전자 제품과 자동차 같은 더 정교한 소비재로 옮겨 간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소비 수요는 외식, 연극, 관광, 금융 서비스 같은 서비스로 옮겨 간다. 그 시점에서 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서비스가 지배적인 경제 부문이 되면서, 인류 경제 발전의 탈산업 시대가 열린다. 이런 탈산업 시대관은 1990년대에 힘을 얻었다. 그때 거의 모든 부자 나라에서 산출과 고용 양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의 비중이 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을 '탈산업화'라고 부른다.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떠오르자, 탈산업 사회론자들은 제조업은 이제 중국 같은 저기술 · 저임금 나라가 하는 일이 되었고, 금융 · IT 서비스 · 경영 컨설팅 같은 고급 서비스가 특히 부자 나라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이 담론에서 스위스는 때로 싱가포르와 함께, 서비스에 특화해서도 매우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로 내세워졌다. 이 주장에 설득되고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사례에 고무되어, 인도와 르완다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사실상 아예 건너뛰고 고급 서비스의 특화 수출국이 되어 경제를 발전시키려 해 오기까지 했다.

어법

- **Many people think that chocolate is the only thing that Switzerland makes – except for those ludicrously expensive watches that only oligarchs, bankers and sports stars can afford** : the only가 붙은 선행사(the only thing)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흔히 쓴다. except for ~ = ~을 빼면. 둘째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watches).
- **The widespread view is that it is a country that manufactures few things and lives on services** : 보어 자리의 that절(명사절 접속사). few + 복수 명사 = 거의 없는. live on = ~으로 먹고살다.
- **a country that makes a living by taking care of the black money deposited by Third World dictators in its secretive banks and selling tacky souvenirs** : make a living = 생계를 꾸리다. by + 동명사 둘 병렬(taking care of · selling). deposited by ~ = black money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 **the country is a model for the post-industrial economy, in which prosperity is based on services, like finance and high-end tourism, rather than manufacturing** : 전치사 + 관계대명사(in which, 선행사 the post-industrial economy).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be based on = ~에 바탕을 두다.

- **starts from the simple but powerful idea that people increasingly want finer things as they become richer** : the idea that ~ = 동격의 that(idea의 내용). as = ~함에 따라(비례). finer = fine의 비교급(더 좋은).
- **almost all rich economies started seeing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fall and the importance of services rise** : 지각동사 see + O + 동사원형(fall · rise). to fall · to rise는 오답. start + -ing = ~하기 시작하다.
- **the proponents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argued that manufacturing had become what low-technology, low-wage countries like China did** : 관계대명사 what = the thing which(did의 목적어가 빠진 자리). that으로 바꾸면 선행사가 없어 오답. 주절이 과거(argued)라 had become(과거완료).
- **Persuaded by the argument and inspired by the examples of Switzerland and Singapore, some developing countries … even have been trying to more or less skip industrialization altogether** : Persuaded · inspired = 수동의 분사구문(주어 some developing countries가 설득당함 — Persuading은 오답). have been trying = 현재완료 진행. to more or less skip = to와 동사 사이에 부사가 낀 분리 부정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udicrously	터무니없이	absurdly	reasonably
oligarch	올리가르히(권력을 쥔 소수 재벌)	tycoon	—
spin	(특정한) 해석, 시각	slant	—
secretive	비밀스러운	confidential	open
tacky	조잡한, 싸구려의	tasteless	tasteful
unsuspecting	아무것도 모르는	unwary	suspicious
prevalent	널리 퍼진	widespread	rare
post-industrial	탈산업의	—	industrial
discourse	담론	—	—
sophisticated	정교한	advanced	simple
dominant	지배적인	leading	minor
traction	지지, 견인력	support	—
proponent	지지자	advocate	opponent
tout	내세우다, 선전하다	promote	—

내용 일치 통념: 스위스가 만드는 것은 초콜릿뿐(올리가르히 · 은행가 · 스포츠 스타만 살 수 있는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 빼고) · 제조하는 것이 거의 없고 서비스로 먹고삶 / 부정적 해석: 제3세계 독재자의 검은돈 관리(비밀스러운 은행) · 조잡한 기념품(버꾸기시계 · 소 방울 — 아마 다 중국산, 추측)을 미국 · 일본 관광객에게 판매 / 긍정적(더 널리 퍼진) 해석: 번영이 금융 · 고급 관광 같은 서비스에 바탕을 둔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 / 탈산업 담론: 1970년대 · 부유해질수록 더 좋은 것을 원함 → 배를 채우면 농업 쇠퇴 → 옷 · 가구 → 전자 제품 · 자동차 → 외식 · 연극 · 관광 · 금융 서비스 → 공업 쇠퇴 · 서비스 지배 / 1990년대에 힘을 얻음 · 산출과 고용 양면에서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 = '탈산업화' · 중국이 세계 최대 공업국 · 제조업은 저기술 · 저임금 나라의 일, 고급 서비스(금융 · IT · 경영 컨설팅)가 부자 나라의 미래라는 주장 / 스위스(때로 싱가포르와 함께) = 서비스 특화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는 증거 · 인도 · 르완다가 산업화를 건너뛰려 함. **밑줄 의미** those ludicrously expensive watches = 시계마저 일부 부자만 사는 사치품일 뿐이라는 통념 / A negative spin · A positive spin = 같은 통념을 나쁘게 · 좋게 포장한 두 해석 / (which these days are probably all made in China anyway) = 기념품마저 스위스산이 아닐 것이라는 저자의 비꼼(추측) / the simple but powerful idea = 탈산업 담론이 설득력을 얻은 까닭 / gained traction = 1990년대의 실제 변화가 담론에 힘을 실어 줌 / has been touted as the proof = 스위스가 담론의 대표 사례로

선전됨 / more or less skip industrialization altogether = 제조업 단계를 아예 건너뛰려 함 / 지칭: 129쪽 첫 줄 it(it is a country) = Switzerland / 129쪽 ¶1 this(spin on this) = 스위스는 서비스로 먹고산다는 생각 · its(secretive banks) = Switzerland의 · which(are probably made in China) = cuckoo clocks and cow bells · in which = the post-industrial economy / 129쪽 ¶2 they(become richer · meet · move on) = people / 129쪽 ¶3 this process =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 / 129쪽 ¶4 this discourse = 탈산업 담론 · the argument = 고급 서비스가 미래라는 주장 · their(economies) = 일부 개발도상국의.

> **한 줄 요약** 스위스는 금융과 관광 같은 서비스로 번영하는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로 여겨졌고, 이 담론에 설득된 일부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건너뛰려 하기까지 했다.

17-5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 – 탈산업화의 진짜 원인 129쪽 ¶5 ~ 130쪽 ¶4

원문 위치 원서 129쪽 ¶5 ~ 130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9쪽 ¶5 첫 문장	Unfortunately for the advocates of post-industrial society, Switzerland is actually the most industrialized economy in the world, producing the largest amount of manufacturing output per person	장의 반전 · 분사구문 · QUIZ(True)
★	129쪽 ¶5 둘째 문장	partly because the country is small (only around 9 million people) but also because it specializes in what economists call 'producer goods' – machines, precision equipment and industrial chemicals	partly because ~ but also because ~ · 숫자 · 용어
★	129쪽 ¶5 셋째 문장(130쪽 첫 줄까지)	Singapore, another supposed post-industrial success story, is the world's second most industrialized economy	supposed · 서수 + 최상급
◆	130쪽 첫 줄(129쪽 ¶5 넷째 문장)	Using Switzerland and Singapore as models of post-industrial service economy is like – how shall I put it? –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밑줄 의미 1순위 · 동명사 주어 → is
★	130쪽 ¶1	What is driving deindustrialization is mainly changes in productivity, not changes in demand	what절 주어 → is · A, not B · 빈칸 문항의 바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0쪽 ¶2 둘째 문장	Because th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come increasingly mechanized, we don't need the same number of workers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manufacturing output (see 'Strawberry')	빈칸 1순위 · 「Strawberry」와 연결
▲	130쪽 ¶2 셋째 문장	workers today can produce many multiples of what their parents' generation could	대동사 could (produce)
★	130쪽 ¶2 넷째 문장	A half century ago, manufacturing took up around 40% of the workforce in the rich countries, but today the same – and sometimes even greater – amount of output is produced with 10–20% of the workforce	숫자 — 일치 함정(40% ↔ 10~20%)
▲	130쪽 ¶3 셋째 문장	not because the demand for services has increased more than has the demand for manufactured goods in absolute terms, as the proponents of the post-industrial discourse would have us believe	비교절의 도치 · have + O + 원형
★	130쪽 ¶3 넷째 문장	mainly because services are becoming relatively more expensive, given the faster productivity growth in manufacturing than in services	요지 1순위 · given + 명사구
★	130쪽 ¶3 다섯째 문장	how computers and mobile phones have become so much cheaper over the last couple of decades, compared to haircuts or eating out	상대 가격의 예
★	130쪽 ¶3 여섯째 문장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 national output has declined only marginally in most rich countries (the UK is an exception) and even increased in some countries (such as Switzerland, Sweden and Finland)	나라 — 일치(영국은 예외)
◆	130쪽 ¶4	Contrary to the myth of post-industrialism, the ability to produce manufactured goods competitively remain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a country's living standards (also see 'Anchovy')	주장 1순위 · 통합 사고 빈칸 · 「Anchovy」와 연결

내용

탈산업 사회 옹호론자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스위스는 사실 1인당 제조업 산출이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다. 우리가 'Made in Switzerland' 제품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작기(인구 약 900만 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위스가 경제학자들이 '생산재'라고 부르는 것 – 기계, 정밀 장비, 산업용 화학 물질 – 곧 우리 같은 보통 소비자는 보지 못하는 것에 특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또 하나의 이른바 탈산업 성공 사례인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업화된 경제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탈산업 서비스 경제의 본보기로 쓰는 것은 – 뭐라고 해야 할까 –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내세워 해변 휴가를 홍보하는 것과 같다. 탈산업주의 옹호론자들은 최근 경제 변화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탈산업화를 이끄는 것은 주로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다. 이 점은 고용과 관련해 보면 더 쉽게 보인다. 제조 공정이 점점 더 기계화되어, 같은 양의 제조업 산출을 내는 데 예전만큼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Strawberry」 참고). 기계와 산업용 로봇의 도움으로 오늘날 노동자는 부모 세대가 생산할 수 있던 양의 몇 배를 생산할 수 있다. 반세기 전 부자 나라에서 제조업은 노동력의 약 40%를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노동력의 10~20%로 같은 양, 때로는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 산출의 움직임은 조금 더 복잡하다. 이 나라들에서 국민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탈산업 담론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절대량으로 보아 서비스 수요가 제조품 수요보다 더 많이 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이발이나 외식에 비해 얼마나 싸졌는지 생각해 보라. 이런 상대 가격 변화의 효과를 고려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 산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몫은 대부분의 부자 나라에서 아주 조금 줄었을 뿐이고(영국은 예외),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탈산업주의의 신화와 달리, 제조품을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능력은 여전히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Anchovy」도 참고).

어법

- **Switzerland is actually the most industrialized economy in the world, producing the largest amount of manufacturing output per person** : producing ~ = 앞 내용을 풀어 주는 분사구문(그리고 ~을 생산한다). per person = 1인당.
- **We don't see many 'Made in Switzerland' products partly because the country is small ... but also because it specializes in what economists call 'producer goods'** : partly because A but also because B = 한편으로는 A 때문이지만 B 때문이기도 하다. what economists call ~ = 경제학자들이 ~라고 부르는 것(call + O + C의 O 자리를 what이 채움).
- **Singapore, another supposed post-industrial success story, is the world's second most industrialized economy** : another supposed ~ = 이른바 또 하나의 ~(supposed = 그렇다고들 하는). 서수 + 최상급: the world's second most industrialized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업화된.
- **Using Switzerland and Singapore as models of post-industrial service economy is like – how shall I put it? –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 동명사 주어(Using ...) → 단수 is. be like + 동명사 = ~하는 것과 같다. how shall I put it? = 삽입된 직접의문문(뭐라고 할까?).
- **What is driving deindustrialization is mainly changes in productivity, not changes in demand** : what절 주어는 단수 취급 → is. 보어 changes가 복수여도 동사는 주어에 맞춘다. A, not B = B가 아니라 A.
- **we don't need the same number of workers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manufacturing output** : the same number of + 복수 명사(셀 수 있음) / the same amount of + 셀 수 없는 명사. to produce = 목적의 to부정사.
- **this has happened not because the demand for services has increased more than has the demand for manufactured goods in absolute terms, as the proponents ... would have us believe** : not because A = A 때문이 아니다(뒤 문장 It has happened mainly because B가 진짜 까닭). than 뒤 has the demand ... = 비교절의 주어 · 조동사 도치(than the demand ... has). have + O + 원형(believe) = O가 ~하게 하다.

- **the ability to produce manufactured goods competitively remain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a country's living standards** : 주어 the ability(단수) → remains. to produce = ability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remain + 보어 = 여전히 ~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dvocate	옹호자	proponent	critic
industrialized	산업화된	—	—
precision	정밀(함)	accuracy	imprecision
producer goods	생산재	capital goods	consumer goods
supposed	이른바, ~라고 여겨지는	alleged	—
promote	홍보하다	advertise	—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basically	—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
mechanize	기계화하다	automate	—
multiple	배수	—	—
absolute	절대적인	—	relative
marginally	아주 조금	slightly	substantially
competitively	경쟁력 있게	—	—
determinant	결정 요인	factor	—

내용 일치 스위스 =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 · 1인당 제조업 산출 1위 / 'Made in Switzerland'가 잘 안 보이는 까닭 = 작은 나라(약 900만 명) + 생산재(기계 · 정밀 장비 · 산업용 화학 물질)에 특화 · 보통 소비자는 보지 못함 / 싱가포르 = 세계 2위 / 노르웨이 · 핀란드로 해변 휴가를 홍보하는 격 / 탈산업화의 원인 = 주로 생산성의 변화(수요의 변화가 아님) / 고용: 기계화 → 같은 산출에 더 적은 노동자(「Strawberry」) · 기계 · 산업용 로봇 → 부모 세대의 몇 배 · 반세기 전 노동력의 약 40% → 오늘날 10~20%로 같은(때로는 더 많은) 산출 / 산출: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는 사실 · 그러나 절대량의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님 · 제조업 생산성이 더 빨리 올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컴퓨터 · 휴대전화 vs 이발 · 외식) · 상대 가격을 고려하면 대부분 부자 나라에서 아주 조금 감소(영국은 예외) ·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는 증가 / 제조품을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능력 = 생활 수준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Anchovy」). **밑줄 의미** Unfortunately for the advocates = 옹호론자의 대표 사례가 오히려 반례 / producer goods … that ordinary consumers … do not see = 스위스 제조업이 눈에 띄지 않는 까닭 / another supposed post-industrial success story = 탈산업 성공 사례라는 평가는 '그렇다고들 하는' 것일 뿐 /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 주장과 정반대인 예를 본보기로 드는 어리석음 / fundamentally misunderstand = 원인을 수요에서 찾는 근본적 오해 / as the proponents … would have us believe = 탈산업 담론 지지자들의 설명이지 저자의 설명이 아님 / the myth of post-industrialism = 탈산업주의는 근거 없는 믿음 / 지칭: 129쪽 ¶5 it(specializes) = Switzerland · that(ordinary consumers do not see) = 'producer goods' / 130쪽 ¶2 This point = 탈산업화는 생산성 변화 탓이라는 점 · their(parents' generation) = workers today의 / 130쪽 ¶3 that(of services) = the importance · this(has happened) =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 · these countries = 부자 나라들.

> **한 줄 요약**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이며, 탈산업화는 수요가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에서 온 것이어서 제조업 능력이 여전히 생활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17-6 제조업을 버린 대가 — 서비스 · 혁신 · 금융, 그리고 스위스의 비밀 130쪽 ¶5 ~ 131쪽 ¶5

원문 위치 원서 130쪽 ¶5 ~ 131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0쪽 ¶5 첫 문장	Many of the high-productivity services that are supposed to be replacing manufacturing … cannot exist without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use it is their main customer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다 · 제목 문항의 바탕
★	130쪽 ¶5 둘째 문장	These services look 'new' only because they used to be provided in-house by manufacturing companies … but are now supplied by firms specializing in those services	used to be p.p. · 통계 분류의 변화
◆	131쪽 각주 i	Some even argue that these services should be classified as manufacturing activities, rather than services, for this reason. I thank Jostein Hauge	각주 — 인물
▲	130쪽 ¶5 셋째 문장	This is why countries with strong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witzerland and Singapore, also have strong service industries (although the reverse is not necessarily true)	This is why · 부분 부정
★	130쪽 ¶6(131쪽 첫 줄까지)	manufacturing is still the main sour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 only around 10% of economic output, 60–70% of R&D … 80–90% in … Germany or South Korea	숫자 — 일치 · 요약문 (A)
★	131쪽 ¶1 첫~둘째 문장	particularly harmful for the US and the UK. Since the 1980s, these countries, especially the UK, have neglected their manufacturing sector under the illusion that their decline is a positive sign	동격 that · 요약문 (B)
◆	131쪽 ¶1 셋째 문장	This gave policy-makers a convenient excuse for not doing anything about the declin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4형식 · for + 동명사의 부정 · 삽입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1쪽 ¶2 첫 문장	driven by over-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ector, which came crashing down i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숫자 · come + -ing
▲	131쪽 ¶2 둘째 문장	the feeble recovery they have generated (... 'secular stagnation' ...) is based on another financial (and real estate) bubble ... 'quantitative easing'	주어 recovery → is · 용어
◆	132쪽 각주 ii	In the UK, interest rates have never been lower since records began in 1694,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of England	숫자 — 일치
★	131쪽 ¶3	stock markets in those countries have gone up to historical heights while the real economy tanked ...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any more	밑줄 의미 1순위 · while 대조
◆	131쪽 ¶4 첫~둘째 문장	don't let that fool you. The secret of Swiss success is the world's strongest manufacturing sector, and not things like banking and upmarket tourism	주장 1순위 · let + O + 원형
★	131쪽 ¶4 셋째~넷째 문장	even the Swiss reputation in the field of chocolate originates from the ingenuity of its manufacturing sector ... It is not due to its competence in the service industries	초콜릿 이야기 되받기
◆	131쪽 ¶5	The discourse of post-industrial society, for which Switzerland has been an unwitting role model, is at best misleading and at worst harmful for the real economy. We believe in it at our peril.	전치사 + which · at best ~ at worst · 결론

내용

제조업을 대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고생산성 서비스 — 금융, 운송, 사업 서비스(경영 컨설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 의 상당수는 제조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제조업이 그들의 주된 고객이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들이 '새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전에는 제조 기업이 사내에서 직접 제공해 제조업 산출로 계산되었지만 지금은 그 서비스에 특화한 회사가 공급해 서비스업 산출로 계산되기 때문일 뿐이다(131쪽 각주 i: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저자는 이 점을 짚어 준 Jostein Hauge에게 감사한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서비스업도 강한 것은 이 때문이다(그 반대가 반드시 참은 아니다). 게다가 제조업은 여전히 기술 혁신의 주된 원천이다. 제조업이 경제 산출의 약 10%에 불과한 미국과 영국에서도 연구 개발(R&D)의 60~70%를

제조업이 수행한다. 독일이나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인 경제에서는 그 수치가 80~90%다. 우리가 이제 탈산업 경제 시대에 산다는 믿음은 특히 미국과 영국에 해로웠다. 1980년대부터 두 나라, 특히 영국은 제조업의 쇠퇴가 국민 경제가 산업 경제에서 탈산업 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는 착각에 빠져 제조업을 방치했다. 이 착각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조업의 쇠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편리한 핑계를 주었다. 그 대신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과 미국 경제는 금융 부문의 과잉 발전에 이끌렸고, 그 금융 부문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무너져 내렸다. 그 뒤 두 나라가 만들어 낸 미약한 회복(경제학자들은 '장기 침체'를 이야기해 왔다)은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와 중앙은행이 이끈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생긴 또 하나의 금융(과 부동산) 거품에 기대고 있다(132쪽 각주 ii: 영국의 금리는 잉글랜드 은행이 세워진 1694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이보다 낮았던 적이 없다). 20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과 영국의 금융 시장이 이제 실물 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팬데믹 동안 두 나라의 주식 시장은 역사적 최고치까지 올랐지만 실물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보통 사람들은 실업과 소득 감소에 시달렸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는 이제 서로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실제로 사 본 'Made in Switzerland' 물건이 초콜릿뿐이더라도(스위스에 살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때문에 속지 말라. 스위스 성공의 비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업이나 고급 관광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조업이다. 실제로 초콜릿 분야에서 스위스가 얻은 명성조차 제조업의 독창성(분유의 발명, 밀크 초콜릿의 창조, 콘칭 기술의 개발)에서 나왔다. 서비스 산업의 역량 — 이를테면 은행이 초콜릿 바 구매자를 위해 정교한 할부 상환 계획을 내놓는 능력이나 광고 회사가 세련된 초콜릿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는 능력 — 덕분이 아니다. 스위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본보기 노릇을 해 온 탈산업 사회 담론은 좋게 보아도 오해를 부르고 나쁘게 보면 실물 경제에 해롭다. 그것을 믿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어법

- **Many of the high-productivity services that are supposed to be replacing manufacturing … cannot exist without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use it is their main customer** : 주어 Many of the … services가 길다 — 동사는 cannot exist. be supposed to V = ~한다고 여겨지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it = the manufacturing sector · their = 그 서비스들의.
- **These services look 'new' only because they used to be provided in-house by manufacturing companies … but are now supplied by firms specializing in those services** : only because ~ = 단지 ~이기 때문에. used to be p.p. = 예전에는 ~되곤 했다(지금은 아님). specializing ~ = firms를 꾸미는 현재분사구.
- **This is why countries with strong manufacturing industries … also have strong service industries (although the reverse is not necessarily true)** : This is why ~ = 그래서 ~이다(앞이 원인). not necessarily =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부분 부정).
- **Even in the US and the UK, where manufacturing accounts for only around 10% of economic output, 60–70% of R&D … is conducted by the manufacturing sector** : 콤마 +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the US and the UK). account for = (비율을) 차지하다. 퍼센트 + of + 단수 명사(R&D) → 단수 is.
- **these countries … have neglected their manufacturing sector under the illusion that their decline is a positive sign that their national economies are making a transition** : the illusion that ~ · a positive sign that ~ = 둘 다 동격의 that. under the illusion = 착각에 빠져.
- **This gave policy-makers a convenient excuse for not doing anything about the declin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 give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4형식). for + 동명사의 부정(not doing) — not은 동명사 앞에.
- **the financial sector, which came crashing down i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 콤마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financial sector). come + -ing = ~하며 오다(came crashing down = 와르르 무너졌다).
- **The discourse of post-industrial society, for which Switzerland has been an unwitting role model, is at best misleading and at worst harmful** : 전치사 + 관계대명사(for which = a role model for the discourse). 주어 The discourse(단수) → is. at best ~ and at worst ~ = 좋게 보아도 ~, 나쁘게 보면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house	사내의, 회사 안에서	internal	outsourced
reverse	반대	opposite	—
innovation	혁신	invention	—
neglect	방치하다	ignore	attend to
illusion	착각	delusion	reality
excuse	핑계	pretext	—
feeble	미약한	weak	robust
stagnation	침체	slump	growth
bubble	거품	—	—
tank (v.)	곤두박질치다	plummet	soar
parlance	말투, 어법	idiom	—
ingenuity	독창성	inventiveness	—
unwitting	자기도 모르는	unknowing	deliberate
peril	위험	danger	safety

내용 일치 제조업을 대체한다는 고생산성 서비스(금융 · 운송 · 사업 서비스 — 경영 컨설팅 · 엔지니어링 · 디자인)의 주된 고객 = 제조업 · '새것'처럼 보이는 까닭 = 예전엔 제조 기업이 사내에서 제공(제조업 산출) → 지금은 전문 회사가 공급(서비스 산출) · 131쪽 각주 i: 제조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Jostein Hauge) / 제조업이 강한 나라(스위스 · 싱가포르)는 서비스업도 강함(반대는 꼭 그렇지 않음) / 제조업 = 기술 혁신의 주된 원천 · 미국 · 영국: 제조업 산출 약 10% · R&D 60~70% · 독일 · 한국: 80~90% / 탈산업 믿음은 특히 미국 · 영국에 해로움 · 1980년대부터(특히 영국) 쇠퇴를 긍정적 신호로 착각해 방치 · 정책 결정자의 편리한 핑계 / 금융 과잉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 미약한 회복('장기 침체') = 역사적 저금리 · 양적 완화가 만든 또 하나의 금융(· 부동산) 거품 · 132쪽 각주 ii: 영국 금리는 1694년(잉글랜드 은행 설립) 기록 시작 이래 최저 / 코로나19(2020~22): 주식 시장 역사적 최고치 · 실물 경제 곤두박질 · 실업 · 소득 감소 / 스위스 성공의 비밀 = 세계 최강의 제조업(은행 · 고급 관광이 아님) · 초콜릿 명성도 제조업의 독창성(분유 · 밀크 초콜릿 · 콘칭) · 서비스 역량(할부 상환 계획 · 마케팅) 덕이 아님 / 탈산업 담론 = 좋게 보아도 오해, 나쁘게 보면 해로움. **밑줄 의미** it is their main customer = 서비스는 제조업에 기대어 산다 / look 'new' only because = 새 산업이 생긴 것이 아니라 통계 분류가 바뀐 것 / the reverse is not necessarily true = 서비스가 강하다고 제조업이 강한 것은 아님 / a convenient excuse = 쇠퇴를 막지 않아도 되는 구실 / came crashing down = 금융 과잉의 결말 /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 보통 사람의 삶이 따로 논다 / don't let that fool you = 초콜릿만 보고 스위스를 오해하지 말라 / an unwitting role model = 스위스는 자기도 모르게 담론의 본보기가 됨 / at our peril = 그 담론을 믿으면 위험하다 / 지칭: 130쪽 ¶5 it(is their main customer) = the manufacturing sector · their = 그 서비스들의 · This(is why) = 서비스가 제조업에 기댄다는 점 / 131쪽 첫 줄 The figure = 제조업이 수행하는 R&D 비중 / 131쪽 ¶1 these countries = 미국과 영국 · their decline = 제조업의 쇠퇴 · This(gave) = 그 착각 / 131쪽 ¶2 which(came crashing down) = the financial sector · they(have generated) = 영국과 미국 경제 / 131쪽 ¶4 that(let that fool you) = 산 스위스 제품이 초콜릿뿐이라는 사실 · its = Switzerland의 / 131쪽 ¶5 it(believe in it) = 탈산업 사회 담론.

> **한 줄 요약** 서비스와 혁신은 제조업에 기대고 있고 제조업을 방치한 미국과 영국은 금융 거품에 기대게 되었으니, 스위스 성공의 비밀은 서비스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제조업이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7 CHOCOLATE]

범위	Chocolate (원서 PDF 126~132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ven if chocolate is the only Swiss-made product you have ever bought – which is very likely unless you live there – do not be misled by it. Switzerland owes its success not to banking or luxury tourism, as is commonly assumed, but to the strongest manufacturing sector on earth. In fact, even its fame for chocolate grew out of industrial ingenuity: powdered milk, the first milk chocolate and the technology of conching. It did not come from clever service firms, such as banks designing instalment plans for chocolate buyers or advertising agencies running slick campaigns. Without knowing it, Switzerland has become the favourite example of the post-industrial discourse, which misleads us at best and damages the real economy at worst. Believing in it is dangerous.

① Countries should build their wealth on finance and luxury tourism.
② Switzerland should advertise its chocolate more cleverly.
③ A strong manufacturing sector, not services, is the real key to prosperity.
④ Developing countries can safely skip industrialization.
⑤ Swiss banks deserve most of the credit for the country's succes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Despite what believers in post-industrialism claim, a country's living standards still depend above all on how competitively it can make manufactured goods. Many high-productivity services that are said to be taking over from manufacturing – finance, transport, and business services like consulting, engineering and design – could not survive without it, because manufacturing firms are their chief customers. These services only seem 'new' because manufacturers once provided them in-house, so they were counted as manufacturing output; now specialist firms supply them, so they are counted as services. Some even argue that they should therefore be classed as manufacturing. This explains why Switzerland and Singapore, both strong in manufacturing, are strong in services as well – though the opposite does not always hold.

① Why Services Still Depend on Manufacturing
② How Services Finally Replaced Factories
③ The End of Manufacturing in Rich Countries
④ Switzerland's Secret: Banking and Tourism
⑤ Consulting Firms: A Truly New Industry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it comes to output, it is true that manufacturing has become less important in rich countries, while servic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But the reason is not, as post-industrial thinkers would have us believe, that people's demand for services has outgrown their demand for goods in absolute terms. It is mainly that services have grown relatively more expensive, since productivity has risen faster in manufacturing than in services. Think how much cheaper computers and phones have grown than haircuts or restaurant meals over the past two decades. Once such relative price changes are taken into account, manufacturing's share of national output has fallen only slightly in the majority of rich countries, Britain being an exception, and in a few, like Switzerland, Sweden and Finland, it has even grown.

① Services have grown because people now demand them far more than goods.
② Manufacturing's falling share mostly reflects services becoming relatively costlier.
③ Computers and phones now cost more than haircuts.
④ Rich countries should stop producing manufactured goods.
⑤ Productivity has grown faster in services than in manufacturing.

4. 밑줄 친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Many people believe that Switzerland makes little besides chocolate and lives on services. Sadly for those who champion post-industrial society, Switzerland is in fact the world's most industrialized economy, turning out more manufacturing output per person than any other country. We rarely notice Swiss-made goods, partly because Switzerland is a small country of only about 9 million people, and partly because it concentrates on so-called 'producer goods' – machinery, precision instruments and industrial chemicals – which ordinary shoppers never see. Interestingly, Singapore, supposedly another post-industrial success, ranks as the second most industrialized economy on earth. Treating these two countries as examples of a service-based, post-industrial economy is like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① proving that small countries depend mainly on services
② choosing examples that actually disprove the point being made
③ promoting tourism in countries with cold weather
④ selecting the most successful cases of a strategy
⑤ showing that manufacturing is declining everywhere

5. 밑줄 친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any mor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stead of tackling the decline of their manufacturing, the UK and the US let an overgrown financial sector drive their economies over recent decades, until it collapsed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weak recovery that followed – economists speak of 'secular stagnation' – has rested on yet another bubble in finance and property, inflated by very low interest rates and the 'quantitative easing' of central banks. The pandemic of 2020–22 exposed how detached the financial markets of these two countries have become from the real economy. While share prices climbed to record highs, the real economy crashed and ordinary people lost jobs and income. To put it in American terms,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any more.

① banks have moved their offices out of city centres
② ordinary people now invest heavily in shares
③ the real economy grows faster than the stock market
④ central banks no longer control interest rates
⑤ financial markets move regardless of how the real economy and ordinary people are doing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In 1875 two Swiss men finally overcame the mildew problem. One of them, Daniel Peter, was a chocolatier. ① He produced the first milk chocolate bars when ② he abandoned fresh milk and used powdered milk instead. The powder that made ③ his bars possible had been invented by Henri Nestlé, and the author praises ④ him as a genius of processed foods made from milk. Later, Peter and Nestlé teamed up with others to create the food giant Nestlé. Four years after ⑤ his breakthrough with milk chocolate, another Swiss firm, Lindt & Sprüngli, took chocolate making a step further: in 1879 it invented 'conching', a process of mixing the ingredients by machine for a long time, which improved chocolate's texture and flavou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Chocolate is made of cacao seeds, which grow on the tree known as Theobroma cacao. Although the tree is native to Meso-America, Ghana, Côte d'Ivoire and Indonesia are now the three biggest producers. Though the point is debated, the tree is thought to have been first cultivated in what are now Ecuador and Peru. The Aztecs loved the 'beans' – really the seeds of the cacao pod – and mixed chocolate with corn purée, chilli, allspice and vanilla to make a cold drink. As the tree could not grow in their highland home, the beans were especially precious to them. After conquering the Aztec empire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Spaniards took chocolate back to Spain, and its names today come from xocolātl, an Aztec word.

① 오늘날 카카오의 3대 생산국은 모두 메소아메리카에 있다.
② 카카오나무는 오늘날의 멕시코에서 처음 재배된 것이 확실하다.
③ 아즈텍인이 살던 고지대에서는 카카오나무가 자라지 못했다.
④ 아즈텍인은 초콜릿에 옥수수 퓌레를 섞어 따뜻한 음료로 마셨다.
⑤ 스페인 사람들은 17세기에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뒤 초콜릿을 가져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Chocolates like M&Ms and Hershey's bars ranked among the most popular smuggled goods. Korea did not produce any chocolate of its own until 1967, and its chocolate was not much good until 1975, when Lotte launched the Gana bar, made only with cacao beans brought in from Ghana; it remains the longest-running chocolate brand in the country. Ever since his M&M days, the author has spent almost sixty years fighting – and usually losing to – his craving for anything made from cacao beans. He also loves the luxury bars of top chocolatiers such as Hotel Chocolat, Pierre Marcolini and Valrhona. He admits that he is no expert who cares much about which single estate a bar's beans come from, but he cannot resist the intense, complex flavours these makers create.

① 한국에서는 1967년까지 초콜릿을 생산하지 않았다.
② 가나 초콜릿은 가나에서 들여온 카카오 콩으로만 만들었다.
③ 가나 초콜릿은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초콜릿 상표다.
④ 저자는 60년 가까이 카카오 콩으로 만든 것에 대한 욕구와 씨름해 왔다.
⑤ 저자는 카카오 콩의 단일 농장 원산지를 중요하게 따지는 감식가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Enjoying such refined chocolates does not make the author a snob; he eats chocolate in every form. He often picks ordinary, reliable bars like Cadbury's Dairy Milk over 70%-cacao bars. Many fellow chocolate lovers in Europe look down on Hershey's bar for ① having too little chocolate in it. According to the BBC, its chocolate content is just 11%, under half ② that of Dairy Milk, whose share of 23% is ③ so low that the bar does not even dare to use the name 'chocolate'. Still, the author remains fond of Hershey's, ④ acquired a taste for it as a child. If anything must be added to chocolate, he votes for peanuts, and he is also partial ⑤ to chocolate paired with orang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post-industrial view gained ground during the 1990s, as nearly every rich economy saw manufacturing's importance fall and that of services (A) [rise / to rise] in terms of both output and jobs. As China grew into the world's largest industrial nation, supporters of post-industrial society claimed that manufacturing had become (B) [what / that] poorer countries with low technology and low wages did, while high-end services such as finance, IT and business consulting represented the future for rich nations. Switzerland was held up as proof that a very high living standard could be maintained through specializing in services. (C) [Persuading / Persuaded] by this argument, a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India and Rwanda among them, have even tried to skip industrialization more or less altogether.

	(A)	(B)	(C)
①	to rise	what	Persuading
②	rise	what	Persuaded
③	rise	that	Persuaded
④	to rise	that	Persuaded
⑤	rise	what	Persuading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he idea of a post-industrial age emerged in the 1970s. It starts from a simple but ① powerful observation: as people grow richer, they want ever finer things. Once their stomachs are full, agriculture ② declines. When they have satisfied other fairly ③ basic needs, such as clothing and furniture, they turn to more complex products like cars and electronic goods. When most people own these, consumers start spending on services, from restaurant meals and the theatre to travel and financial services. At this stage industry starts to ④ expand, and services become the ⑤ dominant sector, opening the post-industrial era.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upporters of post-industrialism badly misread the nature of recent economic change. Deindustrialization is driven mainly by shifts in productivity rather than shifts in demand, and this is easiest to see in employment. As manufacturing has become more and more mechanized, _____. Aided by machines and even industrial robots, today's workers can turn out many times what their parents' generation could. Fifty years ago, manufacturing employed about 40% of the workforce in rich countries; today, the same amount of output – sometimes even more – is produced with only 10–20% of the workforce.

① the same output now needs fewer workers than before
② people have come to want fewer manufactured goods
③ factories have had to hire more workers than before
④ manufacturing output has fallen sharply
⑤ consumer demand has moved from goods to service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is was not, however, because people preferred dark chocolate to milk chocolate.

When chocolate first arrived in Europe, it was a drink, prepared in the Aztec way. (①) By then, though, the Spaniards in Mexico had removed the chilli and sweetened it with sugar or honey, and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the drink spread rapidly across Europe. (②) Chocolate became solid only in 1847, when Fry's of Bristol, a British Quaker confectioner, came up with the first chocolate bar to be mass-produced. (③) Although people had been adding milk to chocolate drinks for a couple of centuries, that first bar was made of dark chocolate. (④) The real reason was that every earlier effort to put milk into chocolate bars had failed, since the extra liquid let mildew grow. (⑤) Solving this would take two Swiss men.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dd flour, along with fat and sugar, to chocolate and a whole new universe opens up. ① There are brownies, fudge cake, Guinness cake, molten 'lava' cake and Black Forest cake, along with countless biscuits and cookies. ② Chocolate is also enjoyed in ways unrelated to sweets: as a child, the author loved drinking cocoa, though these days he mostly drinks tea and coffee. ③ Switzerland produces more manufacturing output per person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④ He is not a great fan of ice cream, but he will happily eat any that contains chocolate. ⑤ A friend taught him to stir a few squares of dark chocolate into chilli con carne, and in Mexico he often orders chicken served with mole poblano, a chocolate-and-chilli sauc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confesses that he is an addict. His habit began in the mid-1960s, when he was just a toddler.

(A) Bringing in large items such as cars and TVs was very hard, but resourceful Koreans smuggled out smaller consumer goods in large quantities from the US military base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These goods went to travelling peddlers, who sold them on to better-off families.

(B) The illegal substance that first hooked him had been sneaked out of US military bases and sold on the black market in the South Korea of his childhood. Its name was M&Ms.

(C) A black market in M&Ms? He is not inventing this. Back then, Korea banned the import of foreign goods – from cars and TVs to biscuits, chocolates and even bananas – except for the machinery and raw materials that its industrialization directly required.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anufacturing is also still where most new technology comes from. In America and Britain, where it accounts for a mere 10% or so of output, it carries out 60–70%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economies more focused on manufacturing,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the share is 80–90%. Yet the belief that we have entered a post-industrial age has done particular damage to the US and the UK. From the 1980s, these two countries, and the UK above all, let their manufacturing sector wither, imagining that its decline was a healthy sign that their economies were moving from an industrial to a post-industrial stage. This illusion handed policy-makers a convenient reason to do nothing about it.

→ Even though manufacturing still carries out most of the (A) _____ even where its share of output is small, the US and the UK took its decline as a sign of (B) _____ and so let it wither.

① research ..... crisis
② research ..... progress
③ marketing ..... progress
④ marketing ..... failure
⑤ tourism ..... progres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s a toddler in the mid-1960s, the author became hooked on M&Ms that had been smuggled from US military bases and sold on Korea's black market. Korea produced no chocolate until 1967, and Korean chocolate was not much good until 1975, when the Gana bar appeared, made only with cacao beans from Ghana. He still loves Hershey's bar, though a BBC report says it is just 11% chocolate, compared with 23% for Cadbury's Dairy Milk. Chocolate first became solid in 1847, and in 1875 Daniel Peter made the first milk chocolate bar by replacing fresh milk with powdered milk. Contrary to popular belief, Switzerland is the world's most industrialized economy.

<QUIZ>

(1) From where were the M&Ms the author ate as a toddler smuggled?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the Gana bar appear?

Answer for (2): _____

(3) From which country did the cacao beans for the Gana bar come?

Answer for (3): _____

(4) According to a BBC report, what percentage of Hershey's bar is chocolate?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did chocolate first become solid?

Answer for (5): _____

(6) What did Daniel Peter use instead of fresh milk?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Switzerland is the world's most industrialized economy?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967	N. 1847
B. military bases	O. Ghana
C. 23%	P. Singapore
D. Ecuador	Q. peddlers
E. True	R. 1975
F. False	S. 9 million
G. 1875	T. Lotte
H. fresh milk	U. 40%
I. powdered milk	V. conching
J. 1879	W. 11%
K. honey	X. 1694
L. 70%	Y. black market
M. Bristol	Z. Nestlé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나에게는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형용사적 to부정사)

02 산업화에 필요한 기계 이외의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동명사 주어 / other than)

03 나는 카카오 콩의 원산지에 큰 가치를 둘 만큼 감식가는 아니다. (enough of a + 명사 + to V)

04 나는 어린 시절에 그 맛을 들였기에 여전히 Hershey를 각별히 좋아한다. (완료 분사구문 having p.p.)

05 마야인과 아즈텍인은 카카오 콩을 화폐로 썼다고 한다. (be said to have p.p.)

06 스페인 사람들이 초콜릿을 본국으로 가져갔고, 그래서 그 이름은 아즈텍 말에서 나왔다. (계속적 which / which is why)

07 이것은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더 인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not because + 비교급)

08 거의 모든 부자 나라가 제조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지각동사 see + O + 원형)

09 탈산업화를 이끄는 것은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주로 생산성의 변화다. (what절 주어 / A, not B)

10 이 서비스들은 예전에는 제조 기업이 사내에서 제공하곤 했다. (used to be p.p.)

11 이것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편리한 핑계를 주었다. (4형식 / for + not -ing)

12 탈산업 사회 담론은 좋게 보아도 오해를 부르고 나쁘게 보면 해롭다. (at best ~ at worst ~)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처음 빠진 '불법 물질' / 시작 시기	
M&M이 빼돌려진 곳 / 팔린 곳	
당시 수입이 허용된 것	
한국 초콜릿 생산이 없던 때 / 가나 초콜릿이 나온 해	
가나 초콜릿의 카카오 콩 / 만든 회사	
Hershey / Dairy Milk의 초콜릿 함량(BBC)	
카카오의 3대 생산국	
카카오나무가 처음 재배된 곳(여겨짐)	
아즈텍의 초콜릿 음료	
스페인 사람들이 초콜릿을 가져간 때 / 이름의 기원	
고체 초콜릿의 해 / 첫 대량 생산 바의 회사	
첫 바가 다크 초콜릿이었던 까닭	
첫 밀크 초콜릿 바(1875)	
콘칭을 발명한 회사 · 해	
스위스 인구 / 특화 분야	

항목	답
세계에서 가장 / 두 번째로 산업화된 경제	
부자 나라 제조업 고용 비중(반세기 전 → 오늘날)	
탈산업화의 주된 원인	
미국 · 영국 / 독일 · 한국의 제조업 R&D 비중	
영미의 금융 위기 / 영국 금리 기록의 시작	

4-3. 통합 사고 문제 — 4장과 17장을 잇는 자리

문제

4장에서 저자는 기술 능력이 높으면 자연이 지운 제약을 넘을 수 있다고 했고(43쪽 ¶4), 지속 가능한 높은 생활 수준은 산업화, 곧 혁신과 기술 능력의 주된 원천인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며 「Chocolate」 장을 참고하라고 했으며(44쪽 ¶2), 그런 생산 능력은 천연자원처럼 '바닥나지' 않는다고 썼다(44쪽 ¶3). 17장에서 저자는 스위스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이고(129쪽 ¶5), 제조업이 여전히 기술 혁신의 주된 원천이라고 썼으며(130쪽 ¶6), 일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건너뛰려 해 왔다고 소개했다(129쪽 ¶4). 이를 바탕으로, 아래 130쪽 ¶4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d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4장과 17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4장 또는 17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생활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Contrary to the myth of post-industrialism, the ability to produce manufactured goods competitively remains the most important _____ of a country's living standard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